

定本 退溪全書

定本 退溪全書 ㉔

印 刷: 2025年 4月 20日

發 行: 2025年 4月 25日

編 輯 人: 定本 退溪全書 편성사업팀
(研究責任者: 李光虎)

發 行 人: 朴炳元

發 行 處: 社團法人 退溪學研究院

出版登錄: 1989年 12月 15日 第1-987號

住 所: (03073)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29길 25,
명륜빌딩 4층
Tel (02)765-2181~3 Fax (02)741-3478
URL <http://www.toegye.org>
E-mail toegyeh@hanmail.net

製 作 處: 도서출판 동과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송파로151번길 24
Tel (02)333-7533 Fax (02)6280-2353

ISBN 979-11-992429-2-0 94150

ISBN 978-89-85009-65-2 (세트)

비매품

定本 退溪全書

26

家禮講錄集成

心經講錄合編

退溪學研究院 院長：宋載邵

行政 支援：李載甲，金銀永

研究責任者：李光虎

共同研究員：金彥鍾，文錫胤，李俸珪，李相夏

研究專擔人力：姜志喜，金太年，柳浩珍，尹璿香，尹相洙

研究補助員：朴秀英

家禮講錄集成 校勘 및 標點：張東宇

校閱：李俸珪

心經講錄合編 校勘 및 標點：文錫胤

校閱：安秉杰

* 이 결과물은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기초자료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定本 退溪全書 편성사업’ AKS-2018-CDM-1230002)

* 이 결과물은 退溪學研究院의 자체 특별예산으로 편성됨.

家禮講錄集成

(家禮講錄·注解·釋義集成)

解題

퇴계는 禮學과 관련한 저술을 남기지 않았으나 그의 예론 또는 예설은 세 가지 방식으로 전승되었다. 가례와 관련하여 제자들과 문답한 내용이 별도의 책으로 묶여 편찬되는 방식, 만년에 《家禮》에 관해 교육한 내용이 제자들에 의해 정리되어 강의록의 형태로 편찬되는 방식, 자질들을 가르치면서 《가례》의 권두에 손수 적어두었던 내용들이 집록되어 편찬되는 방식이다. 《喪祭禮答問》과 《家禮講錄》 및 《家禮註解》, 그리고 《家禮釋義》가 각각의 방식에 해당하는 저술이다.

《喪祭禮答問》은 제자인 趙振(1535~?)이 《퇴계집》에 수록된 문인 知舊들과 주고받았던 서간 가운데 상제례와 관련한 내용을 《퇴계집》의 권차에 따라 초록한 것이다. 《가례》의 용어 또는 규정에 의심나는 것을 질의 응답한 ‘疑文’과 《가례》의 규정을 時制와 俗禮를 고려하여 조정하거나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롭게 예제를 구성하는 문제인 ‘變禮’에 관한 논의가 중심이다. 상례 관련 231건, 제례 관련 152건, 기타 19건 등 총 402건의 답문을 수록하고 있다.¹⁾

《상제례답문》을 시작으로 퇴계의 예학 관련 자료를 집성하려는 노력은 상제례에서 관혼상제로 수록 범위를 확대하거나, 권차에 따라 단순 집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家禮》의 편목 또는 절목에 따라 주제별로 분류하여 수록하거나, 퇴계 문하의 예설까지를 증보하여 수록하는 방향에서 19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²⁾ 현대에 이르러서도 퇴계가 《가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가례》와 時制 그리고 時俗을 조율하면서 유교적 예

1) 한재훈, 〈상제례답문 분석을 통한 퇴계의 속례관 고찰〉, 《퇴계학보》 제128(2010), 8쪽.

2) 관련 성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定本 退溪全書 四

제를 보급 확산하는 양상과 그 지향을 《상제례답문》을 통해 분석하는 연구 또한 활성화되고 있다.

《가례》 자체에 대한 퇴계의 이해에 관해서는 《가례》를 학문적으로 연구 하려는 노력의 초기적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상제례답문》에 드러난 《가례》에 대한 퇴계의 깊은 이해와는 괴리된 것으로, 분석 가능한 자료의 부족함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퇴계는 제자들과 《가례》에 대한 강론을 통해 《가례강록》과 《가례주해》를 남긴다. 전자는 李德弘(1541~1596)에 의해, 후자는 金隆(1549~1594)에 의해 정리된 것이다. 《가례강록》은 풀이의 대상이 되는 《가례》의 용어와 구절을 큰 글자의 표제어로 제시한 뒤 그에 대한 설명을 작은 글자로 기록한 것으로, 27張 분량의 558조목이다. 《가례주해》 또한 《가례강록》과

書名	編著者	卷冊	成書/初刊	備考
①退溪先生喪祭禮答問	趙振(1535~1625)	3책	?/1610	集成
②退溪先生喪祭禮說	孫起陽(1559~1617)	2冊(寫)	1617?	分類
③退溪先生喪祭禮答問分類	鄭述(1543~1620)	1책(寫)	1620?	分類
④溪門禮說(失傳)	金士貞(1552~1620)	4권2책(寫)	1620?	分類
⑤四禮解義(失傳)	南慶薰(1572~1612)			擴大
⑥四禮問答	金應祖(1587~1667)	4卷2冊(木)	1645/1656	擴大·增補·分類
⑦抄寫退溪喪祭禮答問(失傳)	趙克善(1595~1658)		1658?	要約·分類
⑧二先生禮說	李惟樟(1625~1701)	2卷2冊(木)	1669/?	增補·分類
⑨禮疑答問分類	李益詮(?~1679)	18卷6冊(寫)	1672	增補·分類
⑩李先生禮說類編	李瀛(1681~1763)	2卷2冊(寫)	1745	分類·評價
⑪溪山禮說類編(失傳)	李野淳(1755~1831)		1831?	增補·分類
⑫溪山禮說類編別集(失傳)	上同		1831?	增補·分類
⑬禮說類編(失傳)	李暉寧(1788~1861)		1861?	未詳
⑭溪書禮輯	林應聲(1806~1866)	2권2책(木)	?/1905	分類
⑮退溪先生疑禮問答		1冊(寫)		集成
⑯溪集禮說		1冊(寫)		集成
⑰退溪禮解(失傳)	禹徵泰(18세기?)			未詳
⑱溪門問答		1冊(寫)		集成
⑲溪門禮疑問答		2冊(寫)		集成
⑳退溪先生禮疑問答		1冊(寫)		集成

<표1> 《가례》 강의류와 문답류 자료

解題

마찬가지의 형식으로, 15張 분량의 250조목이다. 《가례주해》의 경우 이덕홍은 자신의 견해를 ‘按’ 자를 붙여 퇴계의 견해와 구별하고, 퇴계로부터 직접 들은 말과 더불어 문인들과 문답한 내용들 가운데 관련되는 부분을 뽑아서 수록한 것이라는 점에서 《가례강록》이 퇴계의 언급만을 기록한 것과 차이가 있다.³⁾

최근에야 그 실물이 확인된 《가례석의》⁴⁾는 孫汝齊(1651~1740)가 퇴계의 종손가에 전승되던 수택본 《가례》의 卷頭に 자질들을 가르치기 위해 손수 적어놓은 내용들을 모두 모으고, 《가례》의 뜻을 다 드러내지 못했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손여제 자신이 여러 설들을 고찰하여 조목마다 ‘附’자로 구분하여 부가한 것이다. 전체 192張 분량의 2,396조목이고 그 가운데 퇴계의 주석적 언급은 1,345조목이다. 각 저술에 수록된 조목 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卷次	篇名	書名			備考
		講錄	註解	釋義	
권1	圖	1	7	238	
	序	10	4	27	
권2	通禮	84	83	222	
	冠禮	32	23	50	
	昏禮	30	35	63	
권3	喪禮1	309	83	599	初終~反哭
권4	喪禮2				虞祭~居喪雜儀
	祭禮	92	15	146	
合計		558	250	1,345	(2,153)

<표4> 저술별 수록 조목수

평균적으로 《가례석의》의 조목 수는 《가례강록》의 2.4배, 《가례주해》의 5.4배에 이른다. 통례, 관례, 혼례, 상례, 제례 부분은 대체로 이러한 비율

3) 이봉규, <이황의 《가례》 연구와 전승>, 《퇴계학보》 제147(2020), 30쪽.

4) 《가례석의》는 실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가 2012년에서야 그 실물이 확인된 저술이다.

定本 退溪全書 四

이 유지되지만, 圖 부분은 《가례석의》의 조목이 상대적으로 월등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내용은 단어과 구절에 대한 훈고와 고증, 관련 예설의 인용, 단어와 구절에 대한 언해 등으로 다른 부분과 차이가 없다. 圖의 경우 ‘附’ 없이 퇴계의 주석적 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 가운데 본문의 층위에서 1조목, 小註의 층위에서 2조목 등 총 3조목에서 ‘退溪先生答問’을 언급하고 있으며, 《가례언해》를 인용하여 교감한 사례가 2조목 있음을 고려하면 좀 더 신중한 고증이 필요해 보인다.

수록된 조목의 저술별 구성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講錄	註解	釋義	講錄·註解·釋義	講錄·釋義	講錄·註解	註解·釋義	合計
圖	0	1	232	1	0	0	5	239
序	0	0	16	3	7	0	1	27
通禮	0	13	101	31	52	1	38	236
冠禮	4	7	17	11	17	0	5	61
昏禮	2	4	15	12	17	0	19	69
喪禮	34	23	304	34	238	8	17	658
祭禮	18	5	69	5	69	1	4	171
合計	58	53	754	97	400	10	89	1,461

<표5> 조목의 저술별 구성

세 저술 또는 두 저술 간에 중복⁵⁾ 언급된 것을 제외하면 《가례》에 대한 퇴계의 주석적 언급은 1,461조목에 이르는 방대한 것이다. 《가례석의》와 《가례강록》은 497개의 표제어에 함께 부가되어 90%가 중복되고, 《가례석의》와 《가례주해》는 186개, 74%가 중복된다. 《가례강록》과 《가례주해》 사이의 중복도는 5% 미만에 불과하다. 《가례석의》는 《가례강록》과 《가례주해》를 대체적으로 포함할 뿐 아니라 전체 1,461조목의 절반을 넘는 754

5) 중복이라는 것이 내용 또는 취지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부분 유사하거나 보완적이지만 일부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解題

조목의 새로운 주석적 언급을 제공하는 저술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기존에 집중적으로 논의되던 《가례강록》과 《가례주해》에 더해 《가례석의》를 집성하면, 《가례》에 대하여 퇴계가 만년에 강의하거나 손수 기록하여 남겨두었던 내용들 전체를 복원할 수 있다. 다만 세 저술 사이에 편차가 많이 있어서 취사선택하는 정본을 수립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세 저술의 주석적 언급들을 《가례》의 해당 조항에 부가하는 방식으로 집성하여, 《가례》에 대하여 퇴계가 언급하거나 주석한 것으로 전해지는 내용을 한 책으로 모을 필요가 있다. 본서가 바로 그러한 작업의 결과물이다.

凡例

1. 底本

《定本 家禮講錄集成》은 《家禮》를 기준으로 하고 《家禮講錄》과 《家禮註解》 그리고 《家禮釋義》에 집록된 내용을 해당 부분에 부가하는 형식을 취한다. 퇴계가 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家禮》의 판본은 현재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寒岡 鄭述가 1603년 川谷書院에서 간행한 《家禮集覽補註》의 《家禮》를 저본으로 한다.

《家禮講錄》은 《家禮》에 대해 퇴계가 강의한 내용을 勿巖 金隆(1549~1593)이 1567년 정리한 것으로, 《勿巖先生文集》 권3에 수록되어 있다. 현재 통행하는 것은 1774년 木板으로 初刊된 것이고 한국문집총간 38로 편성되어 있다.

《家禮註解》는 《家禮》에 대해 퇴계가 강의한 내용을 艮齋 李德弘(1541~1596)이 1568년경 정리한 것으로, 《艮齋先生續集》 권5에 수록되어 있다. 현재 통행하는 《艮齋集》 原集은 1766년 간행되었으며, 《艮齋先生續集》은 1829년 간행되었다. 한국문집총간 51로 편성되어 있다.

《家禮釋義》는 孫汝齊(1651~1740)가 1731년 輯錄한 것이다. 퇴계의 종손가에 전승되었던 수택본 《가례》의 卷頭에 퇴계가 자질들을 가르치면서 직접 초록한 것들을 모으고, 거기에 손여제 자신이 여러 설을 참고하여 부록한 것이다. 퇴계의 기록은 ‘釋義’로, 자신이 부가한 것은 ‘附’로 표기하여 구분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 소장(청구번호 7870, 乾坤 2책)의 필사본이 현재로서는 유일본이다.

2. 定本の 構成

1) 본문

(1) 본문은 《家禮》와 《家禮講錄》·《家禮註解》·《家禮釋義》에 수록된 내용을 모은 ‘集成’으로 구성된다.

(2) ‘集成’은 《家禮》의 해당 부분에 ‘『《講錄》』……, 《註解》……, 《釋義》』…….』’의 형식으로 기록한다.

단, 권1 〈家禮圖〉의 경우는 圖 또는 圖說에 ‘集成’의 내용을 併記하기 어려우므로 標題語, 標題語 說明의 방식으로 기록한다. 그 경우 표제어는 ‘〈 〉’를 사용하여 ‘〈 廟 〉’의 형식으로 표기하고, 표제어 설명은 ‘集成’과 마찬가지로의 형식으로 기록한다.

(3) ‘集成’에서는 다음과 같이 () 속의 略號를 사용한다.

家禮講錄 (《講錄》)

家禮註解 (《註解》)

家禮釋義 (《釋義》)

(4) 《家禮釋義》에만 있는 附箋紙, 追記, 頭註는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오탈자에 관련된 일부 내용은 반영하고 각주에 그 전문을 수록한다.

(5) 본문 주석에서 경전과 제자서를 인용한 경우 원본과의 대조를 통해 글자에 이동이 있으면 수정하지 않고 각주로만 밝힌다.

(6) 본문은 정해진 원칙에 따라 標點을 가한다. 표점의 원칙은 표점 범례를 참고.

(7) 마모된 글자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凡例

- : 빈 글자
- : 마멸 또는 훼손된 글자
- { } : 추정한 글자

2) 脚註

본문 주석에서 경전과 제자서를 인용한 경우 원본과의 대조를 통해 글자에 이동이 있으면 수정하지 않고 각주로 밝힌다.

3. 文字 處理

1) 기존에 간행되거나 편성된 퇴계 저작에는 다수의 異體字 혹은 異形字, 通用字들이 사용되고 있다. 《定本 退溪全書》에서는 正字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正字는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표준자로 사용하는 글자로서,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각 글자에 대한 正字를 달리 보는 경우들이 있다. 퇴계 정본 편성에서는 주요 글자에 대한 正字를 나름의 기준에 따라 확정하여 사용하였다. 異體字는 筆寫上, 板刻上에 발생한 誤字, 別字, 俗字, 簡字, 略字 등을 의미하고, 異形字는 異體字 중 독자적인 正字로도 사용되는 글자를 의미한다. 通用字는 별개의 正字인데 일반적으로 상호 통용하여 쓰는 글자를 의미한다.

4. 標點

- 1) 본문, 그리고 본문 및 제목의 주석에는 상세 표점을 가한다.
- 2) 상세 표점은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쉼표(,), 가운뎃점(.), 큰 따옴표(“ ”), 작은따옴표(‘ ’), 겹낫표 및 홑낫표(《 》, 〈 〉), 주석 표시([] , []), 전거 표시([]), 밑줄(), 쌍점(:), 쌍반점(;) 등 15가지 표점 부호

를 사용한다.

3) 제목과 교감기의 표점은 간략한 방식으로 하고 본문 등과 같이 상세 표점은 하지 않는다. 즉, 본문에서와는 달리 인명, 지명 등에 밑줄을 긋지 않으며, 책·편 표시 등도 하지 않는다.

4) 각 부호의 기본 용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마침표(.)

- 물음표(?)와 느낌표(!)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문장의 끝에 사용한다.
- 단구이든 복구이든, 의미가 명확해지는 방향으로 문맥에 따라 문장의 단위를 설정하여 마침표를 찍는다.
- 중간에 의문구가 들어가더라도 문장 전체가 평서문일 경우 마침표를 사용한다.
- 주어가 바뀔 경우에는 가급적 마침표(.)를 표시한다.

(2) 물음표(?)

- 형식상 또는 의미상 의문을 표현하는 문장의 끝에 사용한다.
- 자문자답, 수사 의문의 형식인 경우에도 사용한다.
- 선택의문문의 경우 마지막 의문문 끝에 물음표(?)를 사용한다.

(3) 느낌표(!)

- 감탄문의 끝에 사용한다.
- 독립된 감탄 부사와 호칭 뒤에 느낌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뒤 문장과 연결되어 있을 경우 되도록 쉼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4) 쉼표(,)

- 한 문장 안에서 의미 단락을 이루는 때 구절 끝에 사용한다.
- 주어 부분이 길어서 술어와 구분해줄 필요가 있거나, 주석에서처럼 주어가 피정의항이 될 경우 사용한다.

凡例

- 병렬구가 길 경우 중점이나 마침표 대신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주어가 글에서 새로 거론하는 일이거나 목적어가 될 때는 구별하기 위해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以’자, ‘而’자 등으로 두 구가 순접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고 붙인다.
- 구가 짧아도 역접으로 연결될 경우에는 쉼표(.)를 사용한다.
- 명사구 안에서 두 구가 순접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고 붙인다.
- 문장의 호흡에 맞추어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5) 큰따옴표(“ ”)

- 직접인용문에 사용한다.
- 큰따옴표(“ ”) 안의 문장이 독립되어 있을 때 그 문장 끝에 마침표(.) 등 종지 부호를 사용한다.
- 큰따옴표(“ ”) 안의 문장이 다음 문장과 연결되어 하나의 큰 문장을 형성할 때에는 큰따옴표(“ ”) 밖에 쉼표(.)를 사용한다.
- 편지에서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축약해 인용할 경우에 큰따옴표(“ ”)를 사용한다.
- 명사구 안에 인용문이 있을 경우에는 콜론(:)을 하지 않고 큰따옴표(“ ”)만 사용한다.
- 云云과 같은 말 줄임을 표시하는 말은 큰따옴표(“ ”) 또는 작은따옴표(‘ ’) 안에 넣는다.

(6) 작은따옴표(‘ ’)

- 큰 따옴표(“ ”) 안의 문장 속에 들어 있는 인용문에 사용한다.
- 작은따옴표(‘ ’) 안의 문장이 독립되어 있을 때 그 문장 끝에 마침표(.) 등 종지 부호를 사용한다.
- 자구(字句)를 표시하는 맥락으로 인용되었거나, 또는 간접 인용 등 문맥상 인용된 부분을 밝혀주는 것이 필요할 경우 작은따옴표(‘ ’)를 사용

한다. 다만 문맥상 분명히 파악될 수 있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다.

- 짧은 명사구 안에서는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 자기 생각으로 남의 뜻을 헤아려 말할 경우에는 간접 인용으로 간주하여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7) 가운뎃점(·)

- 단어나 어구가 병렬이 되었을 때 단어와 단어, 또는 어구와 어구 사이에 사용한다.
- 가운뎃점이 연이어 와서 혼동이 되는 경우에는 가운뎃점이 들어가는 큰 단위의 어구에 쉼표를 해서 혼동을 피한다.
- 병렬되는 어구가 길 경우, 가운뎃점(·) 대신,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식별하기 어렵지 않은 짧은 어구에는 가운뎃점(·)을 쓰지 않는다.

(8) 겹낫표(《 》), 홑낫표(〈 〉), 주석 표시(【 】), []), 전거 표시([])

- 서명(書名)은 겹낫표(《 》)로 그 이외의 글, 편(篇), 장(章) 등의 명칭은 홑낫표(〈 〉)로 표시한다.
- 편(篇), 장(章) 등의 명칭이 겹쳐진 경우 《서명·편(篇)·장(章)》의 형태로 표시한다.
- 《가례》 원문 속의 주석은 ‘【 】’로 표시하고 《집성》은 ‘[]’로 표시한다.
- 《집성》 원문에서 소자(小字)로 전거 또는 참고사항을 밝힌 경우 ‘[]’로 표시한다.

(9) 밑줄(_)

- 인명과 지명, 왕조명, 연호, 시호 등 고유명사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에 밑줄을 긋는다.
- 관직, 부서, ‘公’, ‘生’, ‘先生’ 등 일반명사는 특정한 인물을 지칭한다고 해도 밑줄을 사용하지 않지만 성(姓)과 결합하는 경우는 성에 이어 전체에 밑줄을 긋는다.

凡例

- 사람의 성명을 지칭하는 글자가 있어도 이미 단어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밑줄을 긋지 않는다.

(10) 콜론, 혹은 쌍점(:)

- 직접인용문을 수반하는 ‘曰’, ‘云’ 등 뒤에 콜론(:)을 사용하고 인용문 자체는 큰따옴표(“ ”)로 표시한다.
- 저자 자신의 按說임을 밝힌 다음에 설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今按’ 뒤에 콜론(:) 붙여 쓴다.
- 사전의 단어 설명처럼 표제어를 앞에 놓고 그 아래에 표제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표제어 뒤에 콜론(:)을 붙인다.
- 인용문이 목적어인 경우에는 콜론(:)을 붙이지 않고 곧바로 “ ”로 표시한다.
- ‘言’字 뒤에 앞의 단락 또는 구절의 뜻을 설명하는 문장이 올 경우에는 콜론(:)과 따옴표를 붙이지 않는다.

(11) 세미콜론, 혹은 쌍반점(;)

- 세미콜론은 병렬문을 구분 짓기 위한 휴지를 나타낸다.

目錄

目錄

解題	i
凡例	vii
家禮 卷之一	1
家廟之圖	1
祠堂之圖	1
深衣前圖	2
深衣後圖	2
著深衣前兩襟相掩圖	3
裁衣前法，裁衣後法 曲裾裁制，曲裾成制，曲裾縫制	3
深衣冠履之圖	3
行冠禮圖	4
昏禮親迎之圖	6
衿鞶・篋・笥・櫛・櫛圖	7
小斂圖	7
襲含哭位之圖	8
大斂圖	10
喪服圖式	10
冠經絞帶圖式	11
斬衰杖履圖	12
齊衰杖履圖	13

喪祭器具之圖	13
喪輦之圖	14
本宗五服之圖	15
三父八母服制之圖	16
妻爲夫黨服圖	17
外族母黨妻黨服圖	17
神主式	17
櫛韜藉式	19
櫛式	19
尺式	20
大宗·小宗圖	21
正寢時祭之圖	22
每位說饌之圖	23
 家禮 卷之二	 25
 通禮	 28
祠堂	28
深衣制度	47
司馬氏居家雜儀	55
 冠禮	 66
冠	66
笄	77

目錄

昏禮	80
議昏	80
納采	81
納幣	83
親迎	85
婦見舅姑	94
廟見	96
壻見婦之父母	97
 家禮 卷之三	99
 喪禮	99
初終	99
沐浴，襲，奠，爲位，飯含	106
靈座，魂帛，銘旌	114
小斂袒，括髮，免，髻，奠，代哭	118
大斂	123
成服	127
朝·夕哭·奠·上食	152
弔，奠，賻	155
聞喪，奔喪，治葬	160
遷柩，朝祖，奠，賻，陳器，祖奠	179
遣奠	184
發引	186
及墓，下棺，祠后土，題木主，成墳	187
反哭	195

家禮 卷之四	197
虞祭	197
卒哭	203
祔	206
小祥	212
大祥	216
禫	220
居喪雜儀	224
致賻奠狀	227
謝狀	228
慰人父母亡疏	229
父母亡答人慰疏	231
慰人祖父母亡啓狀	233
祖父母亡答人啓狀	235
祖父母亡答人啓狀	236
祭禮	237
四時祭	237
初祖	256
先祖	261
禩	264
忌日	266
墓祭	269

家禮講錄集成

(家禮講錄·註解·釋義集成)

家禮 卷之一

家廟之圖

〔廟〕 〔《釋義》〕室有東西廂曰廟。〕

祠堂之圖

〔祠堂圖〕 〔《註解》〕今廟制不立，只設祠堂。〔《釋義》〕祠堂之制三間，外爲中門。中門外爲兩階，皆三級，東曰阼階，西曰西階。階下隨地廣狹，以屋覆之，令可容家衆叙立。又爲遺書·衣物·祭器庫及神廚於其東，繚以周垣，別爲外門，常加扃閉。若家貧地狹，則止立¹⁾一間，不立廚庫，而東西壁下，置立兩櫃，西藏遺書·衣物，東藏祭器，亦可。〔《儀節》〕丘氏曰：“按，〈通禮〉本註，‘就位，主人北面於阼階下，主婦北面於西階下。主人有母，則特位於主婦之前；主人有諸父諸兄，則特位於主人之右少前，重行西上；有諸母姑嫂姊，則特位於主婦之左少前，重行東上。諸弟在主人之右少退，子孫外執事在主人之後；弟婦及諸妹在主婦之左少退，子孫婦女及內執事在主婦之後。’舊本圖合於祠堂，今別出者，

1) 立：《儀節》에는 ‘爲’로 되어 있다.

欲人易曉也。本註‘有母特位’，而舊圖無之，子孫當世爲一列，而舊圖混爲一，有失世次，今補正之。舊圖分諸父諸兄爲二，雖與本註不同，則得之矣。”]

〔 阼階 〕 〔(《釋義》)〈士冠禮〉: “阼階²⁾猶酢也。東階所以答酢賓客也。”《禮記》: “宗廟，人宗於此而祭祀也。”〕

深衣前圖

〔 深衣 〕 〔(《釋義》)“以其被於體也深邃，故名深衣。”〔《禮記》註]

〔 祛 〕 〔(《釋義》)소매어귀오.]

〔 袂 〕 〔(《釋義》)소매라.]

〔 袷 〕 〔(《釋義》)겹, 옷깃시오.]

〔 緣 〕 〔(《釋義》)단, 단이리.]

深衣後圖

〔 負繩 〕 〔(《釋義》)謂衣裳 등두히 혼 고든 술히라.]

〔 此邊內外 〕 〔(《釋義》)엇믄 디를 합야호라.]

〔 此邊【止】便於著 〕³⁾ 〔(《釋義》)此邊에 술함을 못고 쯔 업퍼 호와야 넘기에 편히리라.]

2) 阼階: 《儀禮·士冠禮》에는 ‘阼’로 되어 있다.

3) 此邊【止】便於著: 표제가 없으나 《釋義》의 내용에 기초해 보충하였다.

〔續衽〕 [[《釋義》]술흔 거시오.]

〔鉤邊〕 [[《釋義》]엮퍼흔 거시라.]

著深衣前兩襟相掩圖

〔曲袷〕 [[《釋義》]넙외온 거시라. 鄭氏曰: “曲袷, 曲領也.”]

裁衣前法, 裁衣後法

曲裾裁制, 曲裾成制, 曲裾縫制

〔曲裾〕 [[《註解》]朱子不用此舊說曲裾之制. (《釋義》)《說文》: “衣過也.” 若以本註所謂‘狹頭當廣頭之半’之說考之, 此是三分之一爲狹頭, 二爲廣頭也.]]

深衣冠履之圖

〔履〕 [[《釋義》]履者, 禮也, 人之所履, 故曰禮也.]

〔修〕 [[《釋義》]《諺》作‘條丘’.]

〔紃구〕 [[《釋義》]履頭鼻, 신부리에 條로 구피거나 或깃으로 고흔 밍근거시오. 《儀禮》註: “‘紃’之言‘拘’也. 以爲行戒. 狀如刀衣鼻, 在履頭.”]

〔纁紃〕 [[《釋義》]縫中紃也, 신흔좁의 기운 실이오.]

〔純綌〕 〔《釋義》〕履口緣也， 신도리 두른 거시오.〕

〔綌〕 〔《釋義》〕鞋口帶也， 써신밧는 배라.〕

〔黑屨〕⁴⁾ 〔《釋義》〕《儀禮》註：“屨者順裳色，‘玄端黑屨’，以玄裳爲定⁵⁾也。”按，《家禮》本文，‘裁用白布’，而本註用黑屨，疑不順其色．然圖下用白屨，雖與本註不同，其色似順矣.〕

行冠禮圖

〔冠禮〕⁶⁾ 〔《釋義》〕冠者， 禮之始也， 嘉事之重者也， 故古者重冠.〕

〔堂〕 〔《釋義》〕《諺》作‘室’.〕

〔醴〕 〔《釋義》〕《諺》作‘醕’.〕

〔賈〕 〔《釋義》〕名達也． 賈註에 닐오되, ‘疏’作‘註’.〕

〔筵于東序〕 〔《釋義》〕序，《儀禮·士冠禮》，“堂東牆之序.” “東序，主人位也.” “筵，席也.”[疏：‘敷陳曰筵，籍之曰席.’”]]

〔冠於阼，以著代也.〕 〔《釋義》〕《禮》註：“顯其爲主人之次也.”〕

〔醕於客位，嘉有成也.〕 〔《釋義》〕註：“醕，夏殷之禮，每加於阼，則醕之於客位. 酌而無酬酢曰醕.”〕

〔雙紒〕 〔《釋義》〕丘氏曰：“《書儀》註：‘童子髻似刀鐙’，疑是作兩圓

4) 黑屨：표제가 없으나 《釋義》의 내용에 기초해 보충하였다.

5) 定：《儀禮·士冠禮》에는 ‘正’으로 되어 있다.

6) 冠禮：표제가 없으나 《釋義》의 내용에 기초해 보충하였다.

圈子也.”]

〔四袷𦍋衫〕〔《釋義》〕《事物紀原》‘𦍋’下註云：“有缺髀𦍋，庶人服之，卽今四袷⁷⁾衫也.”]

〔勒帛〕〔《釋義》〕裹足也.〕

〔采屐〕〔《釋義》〕是木履，今云采屐，疑是以采帛裹足，納屐中也.〕

〔頭髻〕〔《釋義》〕卽是總，《禮》註所謂‘裂練緡以束髮’，是也.〕

〔掠頭〕〔《釋義》〕“今無其制。考喪禮篇，解‘免’字，謂‘裂布或縫絹，廣寸，自項向前，交於額上，却繞髻後，如著掠頭’，則其制亦可以意推矣。今皆不用，擬以時制網巾代之.”〔《儀節》〕

〔公服〕〔《釋義》〕卽朝服，《却掃編》：“唐以青·綠·朱·紫四等，國朝惟綠·緋·紫三等而已.” 朱子曰：“古者有祭服，有朝服。祭服，所謂鷩冕之類；朝服，所謂皮弁·玄端之類.”]

〔襴衫〕〔《釋義》〕朱子曰：“應舉者用襴衫.”衣與裳連曰襴，蓋衣之上衣下襴者. 상스의 오시라.〕

〔皂衫〕〔《釋義》〕猶言黑衫，거믄 덜렁이라.〕

〔三讓〕〔《釋義》〕〈鄉飲酒義〉：“象月之三日而成魄也.”]

〔冠者出房南面〕〔《釋義》〕立于房外之西，待賓命.〕

〔親戚〕〔《釋義》〕《儀禮》：“主人之兄弟也.”]

〔幘頭〕〔《釋義》〕朱子曰：“周武帝所制之常冠.”又曰：“一說，漆紗鐵脚，自梁高祖始.”]

7) 袷：《事物紀原》에는 ‘袴’로 되어 있다.

〔西領南上〕 〔《釋義》〕按，本註‘東領北上’，而圖乃西領南上，圖陳疑誤也。〈儀禮圖〉皆東領北上。〕

昏禮親迎之圖

〔昏禮〕⁸⁾ 〔《釋義》〕娶妻之禮，以昏爲期，因以名焉。必以昏者，陽往陰來也。〕

〔醴〕 〔《釋義》〕〈士昏禮〉：“父醴女而俟迎者。”〕

〔次〕 〔《釋義》〕次는 슈식이니，今時髮也。〕

〔純衣〕 〔《釋義》〕김옷시오。〕

〔衽裼〕 〔《釋義》〕단이라. 衽之言衽也. 以纁緣其衣，陰氣上衽也。〕

〔霄衣〕 〔《釋義》〕讀作‘綃紬’，綺屬也。用綃爲領，故因得名綃衣。〕

〔袷玄〕 〔《釋義》〕袷，同也。同玄者，上下皆玄也。〕

〔纁紒〕 〔《釋義》〕縮髮以纁爲之。縮髮而紒之，有纁而無次也。〕

〔奠鴈〕 〔《釋義》〕奠，置也。〕

〔笄〕 〔《釋義》〕今時簪也。〕

〔主人不降送〕 〔《釋義》〕禮不參也。〕

〔姆〕 〔《釋義》〕“婦人年五十無子，出而不復嫁，能以婦道教人者，若今時乳母。”〔《儀禮·士昏禮》〕〕

8) 昏禮：표제가 없으나 《釋義》의 내용에 기초해 보충하였다.

【筵几】 〔(《釋義》)爲神布席，以先祖之遺體許人，故受其禮於禰廟也。將以席西上，右設几，神道尙右。〕

衿鞶・篋・笥・櫛・櫛圖

【鞶】 〔(《釋義》)囊也。男鞶革，女鞶絲，所以盛帨巾之屬。〕

【櫛櫛】 〔(《釋義》)〈內則〉註云：“植者曰櫛，橫者曰櫛。置衣服之具也。”〕

小斂圖

【斂】⁹⁾ 〔(《釋義》)斂者，收斂尸也。〕

【絞之橫者】¹⁰⁾ 〔(《釋義》)每幅之末，折爲三片者，以便結束，取堅急也。〕

【絞之縱者】¹¹⁾ 〔(《釋義》)“絞用細白綿布爲之。”〔《儀節》〕 縱者，直也。〕

【複衾】¹²⁾ 〔(《釋義》)衾用複者，複謂袂，用五幅。〈士喪禮〉：“衾緇，頰裏，無紃。”〔紃，被識也，領也。〕 按，生時有別於前後，死則有一定不動，故無領也。〕

9) 斂：표제가 없으나 《釋義》의 내용에 기초해 보충하였다.

10) 斂：표제가 없으나 《釋義》의 내용에 기초해 보충하였다.

11) 絞之縱者：표제가 없으나 《釋義》의 내용에 기초해 보충하였다.

12) 複衾：표제가 없으나 《釋義》의 내용에 기초해 보충하였다.

〔舒絹疊衣〕 〔《釋義》〕김가힌 오슬 펴혀 버히단 마리라.〕

〔卷兩頭以補兩肩空處〕 〔《釋義》〕두긋를 므라써 두엇게 뵈
디 보뎡호미라.〕

〔卷衣夾其兩端〕 〔《釋義》〕오슬 므라 두다리 궁근디 씨워 반
딕게 호미라. 兩端, 指衣之領及裔也.〕

〔掩尸左衽〕 〔《釋義》〕쇼염이느흔 옷과 이블을 윈녁키로 염우
단 말리라.〕

〔括髮〕 〔《釋義》〕삼노호로 머리를 주리혀 므미니 朱子曰: “紒
也.”〕

〔憑尸〕 〔《釋義》〕主人西面憑尸, 無筭, 主婦東面憑, 亦如之. 憑,
服膺之.〕

〔哭擗〕 〔《釋義》〕拊心曰擗.〕

襲含哭位之圖

〔襲〕¹³⁾ 〔《釋義》〕襲者, 衣尸也.〕

〔含〕 〔《釋義》〕飯含也.〕

〔主人〕 〔《釋義》〕適子, 坐于東方, 西面南上.〕

〔衆男〕 〔《釋義》〕庶昆弟也. 在主人之右, 西面南上.〕

〔丈夫尊行〕 〔《釋義》〕主人之諸父·諸兄也. 坐于北, 以西爲上.〕

13) 襲 : 표제가 없으나 《釋義》의 내용에 기초해 보충하였다.

【同姓期功以下】 〔(《釋義》)死者之同姓期功以下也。坐于主人之後，西面南上。〕

【主婦】 〔(《釋義》)適婦，坐于西方，東面南上。〕

【衆婦女】 〔(《釋義》)死者之妻·妾·孫也。在其適婦之左，東面南上。〕

【婦女尊行】 〔(《釋義》)主人之諸姑·諸妹也。坐于北，以東爲上。〕

【同姓婦女以服爲次】 〔(《釋義》)死者之同姓婦女也。坐于適婦之後，東面南上。〕

【異姓丈夫】 〔(《釋義》)坐於幃外之東，北面西上。〕

【異姓婦女】 〔(《釋義》)坐於幃外之西，北面東上。〕

【勒帛裹肚】 〔(《釋義》)丘氏曰“以帛裹肚者也。”〕

【袍】 〔(《釋義》)〈喪大記〉：“袍必有表。”註：“袍，衣之有著者，乃褻依也。”〕

【襖】 〔(《釋義》)橫渠先生解‘襦袴’義曰：“袴則今之袴也。”〕

【汗衫¹⁴⁾】 〔(《釋義》)親身之單衣也。〕

【大帶】 〔(《釋義》)《儀禮·士喪禮》：“緇帶，黑緇之帶也。”〕

【履】 〔(《釋義》)〈士喪禮〉疏曰：“爵弁纁屨，素積白屨，玄端黑屨，三服各自用屨，屨從裳色。”《儀節》用布屨。〕

【幙目】 〔(《釋義》)“用緇，方尺二寸。經裹，著，組繫。”[註：“經，赤也。著，充之以絮也。組繫，爲可結也。”]]

【握手】 〔(《釋義》)《儀禮·士喪》：“用玄，纁裹，長尺二寸，廣五寸。”〕

14) 衫：《家禮》에는 ‘衫’으로 되어 있다.

〔《幅巾》〕〔《釋義》〕“如今之煖帽，以代古之掩也。”〔《儀節》〕

〔《充耳》〕〔《釋義》〕《儀禮·士喪禮》：“瑱用白纁。”〔註：“瑱，充耳。纁，新綿。”〕

〔《冒》〕〔《釋義》〕《儀禮·士喪禮》：“緇質，長與手齊。”註：“冒，韜尸者，制如直囊，上曰質，下曰殺。〔質，正也。〕其用之，先以殺韜足而上，後以質韜首而下，齊首，上玄下纁，象天地也。”〕

大斂圖

〔《縮者三》〕〔《釋義》〕以布一幅，直用，裂其兩頭爲片也。〕

〔《橫者五》〕〔《釋義》〕以布二幅，分裂作六片，而用五片也。〕

〔《先掩足次掩首者》〕〔《釋義》〕孝子首不忍先掩也。〕

〔《先掩左次掩右者》〕〔《釋義》〕孝子衣不忍先右也。〕

〔《釋義》〕丘氏曰：“《家禮》本註，無大斂絞之文，止是附¹⁵⁾註引高氏說，‘縮者三，蓋取一幅布，裂爲三片也；橫者五，蓋取布二幅，裂爲六片而用五也。’世俗不察乎此，而惑於卷首圖註，往往以橫者五爲五全幅，遂至每幅兩端各析爲十五片。間有用高氏說者，亦不知直幅裂入三分之二及橫幅通身裁開之說。今引吳氏此說，庶行禮者有據云。”〕

喪服圖式

15) 附：《家禮儀節》에는 ‘附’로 되어 있다.

〔反摺〕 〔(《釋義》)남은 가운데를 접피단 마리라.〕

〔辟領〕 〔(《釋義》)辟, 猶開也. 以其闢開爲領, 故謂之辟領.〕

〔衰〕¹⁶⁾ 〔(《釋義》)衰者, 摧也. 以孝子有哀衰之志故也. 此當心者
旣名以衰, 而喪服又通以衰爲名, 取其哀衰在於徧體, 不止心也.〕

〔負版〕 〔(《釋義》)負者, 負其悲哀也.〕

〔帶下尺〕 〔(《釋義》)謂衣腰也.〕

〔後濶中〕 〔(《釋義》)後之左右, 各有四寸虛處.〕

〔前濶中〕 〔(《釋義》)前之左右, 各有四寸虛處.〕

〔衽〕 〔(《釋義》)燕尾也.〕

〔上正一尺〕 〔(《釋義》)直一尺下, 裁之也.〕

〔裁入六寸〕 〔(《釋義》)斜六寸, 裁之也.〕

〔袪〕 〔(《釋義》)袖口也.〕

〔袂〕 〔(《釋義》)袖也.〕

冠經絞帶圖式

〔首經〕¹⁷⁾ 〔(《釋義》)首經之經, 言實也. 明孝子有忠實之心.〕

〔冠繩纓〕 〔(《釋義》)通屈一條繩爲武, 垂下爲纓, 著之冠也.〕

〔斬衰首經左本在下〕 〔(《釋義》)陽統於陰, 故向下而斬衰不緝

16) 衰 : 표제가 없으나 《釋義》의 내용에 기초해 보충하였다.

17) 首經 : 표제가 없으나 《釋義》의 내용에 기초해 보충하였다.

邊.]]

〔齊衰首經右本在上〕 [[《釋義》]陰統於陽， 故向上而齊衰緝邊.]]

〔三辟積向右爲之〕 [[《釋義》]從陰，大功以下哀重故也.]]

〔三辟積向左爲之〕 [[《釋義》]從陽，小功・緦麻哀輕故也.]]

〔外畢〕 [[《釋義》]冠廣三寸，落頂前後兩頭，皆在武下，向外出，反屈之，縫於武，故云畢.]]

〔要經〕 [[《釋義》]象大帶，麻在首在要，皆曰經.]]

〔絞帶〕 [[《釋義》]象革帶，絞帶者，繩帶也.]]

斬衰杖履圖

〔斬衰〕 [[《釋義》]上曰衰，下曰裳，謂之斬者，斬布以爲衰裳也，不言裁割而言斬者，取痛甚之意也。《儀禮·喪服·傳》曰：“斬者何？不緝也.”]]

〔苴杖〕 [[《釋義》]《禮·間傳》：“竹也。苴，惡貌也。所以首其內而見諸外也。斬衰貌若苴。”註：“麻之有子者，謂之苴。苴經竹杖¹⁸⁾，亦曰苴杖。”疏曰：“爲父所以杖竹，父爲子之天。竹圓亦象天。竹又內外有節，象子爲父亦有內外之痛。又竹能貫四時而不改。子哀痛，亦經寒溫而不改，故用竹也。”《儀禮·喪服·傳》曰：“杖者何？爵也。”註：“爵，謂天子・卿・大夫・士也，無爵，謂庶人也.”]]

18) 謂之苴。苴經竹杖：《禮記》에는 ‘以爲苴經，竹杖’으로 되어 있다.

【菅屨】 〔《釋義》〕《儀禮·喪服·傳》：“管非也，外納。”鄭註云：“納，收餘也”，謂正向外編之。〕

齊衰杖屨圖

【齊衰】 〔《釋義》〕緝邊也。疏曰：“斬衰先言斬，齊衰後言齊者，一以見哀之淺深，一以見造衣之先後。”《儀禮·喪服·傳》曰：“齊者何？緝也。”〕

【削杖】 〔《釋義》〕桐也。《禮·喪服小記》：“削杖方以象地，父母之別也。”疏曰：“削者，殺也。桐隨時凋落，謂母喪，外雖削殺，服從時除，而終身之心，當與父同也。”《儀禮》註¹⁹⁾曰：“桐之言同，內心同之於父，外無節，象家無二尊，屈於父爲之齊衰，經時而有變也。”〕

喪祭器具之圖

【苞】²⁰⁾ 〔《釋義》〕苞는 대로 저른 거시라. 〈既夕禮〉：“苞二.” (註)²¹⁾：“所以裹奠羊豕之肉.”〕

【筭豆】 〔《釋義》〕대로 저른 거시라. 〈既夕禮〉：“管筭三，其實皆淪.” 註：“米麥皆湛湯²²⁾，未知神之所享，不用食道，所以敬²³⁾.”〔疏

19) 註：賈公彥의 疏에 나오는 말이다.

20) 苞：표제가 없으나 《釋義》의 내용에 기초해 보충하였다.

21) 註：鄭玄의 註에 나오는 말이므로 보충하였다.

22) 湛湯：《儀禮》에는 ‘湛之湯’으로 되어 있다.

23) 所以敬：《儀禮》에는 ‘所以爲敬’으로 되어 있다.

曰²⁴): “筓與升爲豆, 豆畚同類, 四實成穀.”]]

〈竹格𦵑〉 [[《釋義》)竹格격은 上以竹爲格, 大學所飾.]]

〈撮蕉亭〉 [[《釋義》)撮蕉亭은 모정이라.]]

〈帷〉 [[《釋義》)幔帳也.]]

〈流蘇〉 [[《釋義》)流蘇은 밧줄이라.]]

〈𦵑〉 [[《釋義》)形似扇, 木爲之. 在路則障車, 入棹則障柩. 按, 本註𦵑‘兩角’, 而圖三角, 圖誤也. 𦵑圖, 亞古𦵑字也.]]

喪輦之圖

〈輦〉 [[《釋義》)載也.]]

〈伏兔〉 [[《釋義》)둔테라.]]

〈小方床〉 [[《釋義》)載柩之床也.]]

〈圓柄〉 [[《釋義》)두렛흔 효장을 헉미라.]]

〈近上〉 [[《釋義》)윗넉마라.]]

〈加橫扃〉 [[《釋義》)ㄴㄹ쌔 바금미라.]]

〈柳車〉 [[《釋義》)〈喪大記²⁵〉: “柳, 聚也, 諸飾之所聚也.”]]

〈帷帳〉 [[《釋義》)〈喪大記〉作‘荒’, 蒙也. 在傍曰帷, 在上曰荒, 皆所以衣柳也.]]

24) 疏曰: 《儀禮》의 소에는 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25) 喪大記: 해당 내용은 〈檀弓〉에 나온다.

《三家禮》 [[《釋義》)戴德, 戴聖, 慶普.]]

本宗五服之圖

《斬衰三年》 [[《釋義》)三年象閏, 亦三年免於父母之懷也.]]

《齊衰三年》 [[《釋義》)期象一歲.]]

《大功九月》 [[《釋義》)大功, 功麤大也. 九月象三時.]]

《小功五月》 [[《釋義》)小功, 功總²⁶⁾小也. 五月象五行.]]

《總麻三月》 [[《釋義》)總麻, 總, 絲治其縷如總也. 三月象一時.]]

《曾祖伯叔父母》 [[《釋義》)本註: “族祖父, 族曾祖父之子”, 卽六寸大父也.]]

《從祖伯叔父母》 [[《釋義》)本註: “族父, 族祖父之子”, 卽七寸族長也.]]

《再從伯叔父母》 [[《釋義》)本註: “從祖祖父, 祖父之兄弟也.”]]

《祖伯叔父母》 [[《釋義》)本註: “從祖父, 從祖祖父之子”, 卽五寸大父也. 按, 同稱祖伯叔父母, 圖誤也.]]

《從姪》 [[《釋義》)本註: “從父兄弟之子”, 卽五寸族下也.]]

《再從姪》 [[《釋義》)本註: “再從兄弟之子”, 卽七寸族下也.]]

《姪孫》 [[《釋義》)本註: “兄弟之孫”, 卽四寸孫也.]]

《從姪孫》 [[《釋義》)本註: “從父兄弟之孫”, 卽六寸孫也.]]

26) 總: ‘細’의 오기이다.

〔曾姪孫〕 〔(《釋義》)本註：“兄弟之曾孫”，即八寸孫也。〕

〔父母在則不杖〕 〔(《釋義》)〈雜記〉註：“此謂適子妻死，而父母俱存，故其禮如此。然大夫主適婦之喪，故其夫不杖。若父沒母存，母不主喪，則子可以杖。”〕

〔爲兄弟之爲父後者不降〕 〔(《釋義》)按，父在則不降也。〕

〔其本生父母，亦爲之降服不杖期〕 〔(《釋義》)按，《儀禮·喪服》：“爲人後者爲其父母，報。”然則生父母亦爲之服期，可知也。〕

〔祖姑嫁〕 〔(《釋義》)本註‘總麻’，而圖無，圖誤也。〕

〔姑嫁〕 〔(《講錄》)‘祖姑嫁無，姑嫁小功’，祖姑及姑嫁，則當總麻·大功，而此云‘無’·‘小功’，誤也。(《註解》)按，《大明會典》，《儀禮經傳》，祖姑嫁總，姑嫁小功，從姊妹嫁總，與此圖大異，恐此誤。(《釋義》)本註大功，而圖小功，誤也。〕

〔(從姊妹嫁)〕 〔(《釋義》)《大明會典》·《儀禮經傳》從姊妹嫁小功。此圖總麻，圖誤也。《儀節》亦承誤。〕

〔夫堂兄弟〕 〔(《釋義》)本註無服，而圖總麻，圖誤也。〕

〔夫堂兄弟妻〕 〔(《釋義》)本註無服，而圖總麻，圖誤也。〕

〔夫堂姑〕 〔(《釋義》)本註無服，而圖總麻，圖誤也。〕

〔夫祖姑〕 〔(《釋義》)本註無服，而圖總麻，圖誤也。〕

三父八母服制之圖

〔(《釋義》)按，生父不入於三父，生母不入於八母，生父·生母已入於本宗

服故也。

【嫁母】 〔《註解》〕昔人有問於程子曰：“有孤孀貧窮無托者，可再嫁否。”程子答曰：“餓死事極小，失節事極大。”○《詩傳》註曰：“女子之生，以身事人，則當與之同生，與之同死，故夫死稱未亡人，言亦待死而已，不當復有他適之義²⁷⁾也。”】

妻爲夫黨服圖

外族母黨妻黨服圖

神主式

【大德】 〔《釋義》〕元成宗年號也。】

【皇】 〔《釋義》〕君也。顯，明也。《儀節》：“皇與顯，皆明也。”】

【神主】 〔《釋義》〕伊川先生所制。自宋以前，士大夫家只用牌子。朱子曰：“古者，虞主用桑，將欲練後²⁸⁾，易之以栗。今於此便作栗主，以從簡便，或無栗，只用木堅者。櫨用黑漆，且容一主。夫婦俱入祠堂，乃如司馬氏之制。”】

【用栗】 〔《釋義》〕從周制也。】

【趺】 〔《釋義》〕坐板也。】

【剡上】 〔《釋義》〕《韻會》云：“上削令上銳。”】

27) 義：《詩傳大全》에는 ‘志’로 되어 있다.

28) 將欲練後：《家禮》에는 ‘將練而後’로 되어 있다.

〔圓經〕 〔《釋義》〕덩혈의 두렛흔 너비라.〕

〔府君〕 〔《註解》〕尊嚴之稱，如云官府之君。〔《釋義》〕朱子曰：“無爵曰府君夫人。漢人碑已有，只是尊神之辭。府君如官府之君，或謂明府。今人亦謂爲家府。”〕

〔連領〕 〔《註解》〕領，唐本作‘領’。〔《釋義》〕틱이라.〕

〔判之〕 〔《釋義》〕짜히단 말리라.〕

〔合之〕 〔《釋義》〕마초오단 마리라.〕

〔勒前爲領〕 〔《釋義》〕알풀사겨 틱글 덩글미라.〕

〔高祖〕 〔《釋義》〕高는 ㄱ장 우홀 닐오미오. 祖는 시조헝다흔 뜻지라.〕

〔考〕 〔《釋義》〕生曰父，死曰考，考，成其德也.〕

〔封諡〕 〔《釋義》〕如某國某公之類是.〕

〔元孫〕 〔《釋義》〕宋朝諱玄，凡經傳中，玄字皆改爲元，故凡《家禮》稱元孫，悉改玄.〕

〔故〕 〔《釋義》〕猶舊也，古也.〕

〔諱〕 〔《釋義》〕《周禮》名終曰諱，以諱事神.〕

〔第幾〕 〔《釋義》〕如幾公幾郎之類。第幾之稱。《退溪先生答問》：“神主不用，此恐無不可者也。”神主右旁書奉祀之名，以寫字行之次論之，則自右而左，故書左旁，以寫者之左爲定，是也。〔《退溪先生答問》亦詳示之.〕

櫝韜藉式

〔面頂俱虛〕 〔《釋義》〕면이며 정박기를 다허세하라.〕

〔底蓋潤厚出令受蓋〕 〔《釋義》〕미티딕를 덮고 두텁고 내밀게 하여 하여곰 두에를 맞게 하라. 〕

櫝式

〔四向直下正潤旁狹〕 〔《釋義》〕四向直下하고 正潤旁狹은 네면이 곳초느리게 하고 반득고 넓게 호되 섭흔 좁게 하라.〕

〔下作平底臺座〕 〔《釋義》〕아래미티 편흔되 좌를 밍글라.〕

〔式如斗帳하고 合縫이 居後之中호되 稍留其末하고 頂用薄板하야 自上而下韜之하야 與主身齊하라〕 〔《釋義》〕구식이 두당긋고 혼술이 뒤호로 가운데 잇게 하되 저기 곳트란 두고 정박기에 여튼 너를 써서 우호로브터 느리더퍼 주신으로 더브러 ㄹ죽게하라.[斗帳, 謂小帳, 形如覆斗也.]〕

〔方潤이 與櫝內로 同하고 疊布加厚호되 裹之以帛하야 考紫妣緋니 囊亦如之하라〕 〔《釋義》〕방정히 너비득 안호로 긋고 비를 포개혀 더 두터이 호되 고위는 즈지로 하고 비위는 불근이로 하니 낭도 쏘 긋게하라. 〕

〔韜藉〕 〔《釋義》〕《集說》: “或問: ‘今人以坐蓋爲韜櫝, 而罕用兩窓之櫝. 間有用者, 則不復用坐蓋. 又夫婦共爲一匣之制, 則爲匾潤坐蓋以

受二主，而又難施考紫妣緋之韜。今當如何？’曰‘意，古者置于櫝，後²⁹⁾從簡，不復兩用，乃呼坐蓋爲韜³⁰⁾，松³¹⁾襲用之，故《家禮》籍下註‘方濶與內³²⁾同’，及‘櫝用漆且容一主’，則至今遂一向呼坐蓋爲韜櫝，而不復依古制兩用矣。以禮揆之，則令³³⁾依前式兩者爲是。若欲從簡，則依下圖今式，只³⁴⁾爲匾濶坐蓋。夫婦共爲一匣，則韜帛亦何嫌於一色哉！蓋前代重紫輕緋，故有此分別。然吾以祖宗均視考妣，又豈必規規以分重輕於事爲之末哉！且玄·黃·紫色，國朝制度不可僭用，韜用紅羅，當³⁵⁾從之。且朱子論作主周尺長短云：非有聲律高下之差，得³⁶⁾書爲據足矣。愚以爲櫝韜亦然，不必過論也。”丘氏曰：“〈祠堂〉本章下止云：‘爲四龕，每龕內置一桌子，其上置櫝。龕外各垂小簾’，無有韜籍之說。其說蓋出溫公《書儀》。朱子既已不取，不可用也。今不復爲之圖，而比圖櫝式，從簡者³⁷⁾也。有力者如式爲之，亦無不可。”】

尺式

【溫公有圖子三司布帛尺者】 [[《釋義》]《朱子大全》問：“程先生文集中主式，與《古今家祭禮》長短不同。所謂‘古尺當今五寸五分’，註云‘省尺’，省尺莫是准尺否？”答曰：“主式適檢二書，高低雖有小不同，

29) 後：《家禮集說》에는 ‘後人’으로 되어 있다.

30) 韜：《家禮集說》에는 ‘韜櫝’으로 되어 있다.

31) 松：《家禮集說》에는 ‘沿’으로 되어 있다.

32) 內：《家禮》에는 ‘櫝內’으로 되어 있다.

33) 令：《家禮集說》에는 ‘令’으로 되어 있다.

34) 只：《家禮集說》에는 ‘止’로 되어 있다.

35) 當：《家禮集說》에는 ‘當遵’으로 되어 있다.

36) 得：《家禮集說》에는 ‘得一’로 되어 있다.

37) 者：《家禮儀節》에는 ‘省’으로 되어 있다.

然本只要見式，探³⁸⁾其高廣之度，自有尺寸，初不取此爲准也。省尺乃是京尺，‘溫公有圖子，所謂三司布帛尺者’是也。會稽司馬侍郎家必有此本，可轉求之，其圖並有古尺數示³⁹⁾，此舊有之，今文不見矣。”】

大宗·小宗圖 【《釋義》】大宗一，小宗四。承大宗者，身繼五宗；禰之次子，身事四宗；有大宗，則事五宗。】

【**始祖**】 【《釋義》】始遷及初有封爵者爲始祖，長子繼之，子孫世世爲大宗，統族人，主始祖墓祭，百世不遷。】

【**繼高祖小宗**】 【《釋義》】傳至玄孫爲繼高祖小宗，統三從兄弟，主高祖廟祭，至其子五世則遷。】

【**繼曾祖小宗**】 【《釋義》】傳至曾孫爲繼曾祖小宗，統再從兄弟，主曾祖廟祭，至其孫五世則遷。】

【**繼祖小宗**】 【《註解》】父母生存，長子無后而死，爲長子立后，而傳之長婦，此正當道理。若不立后而謾傳之長婦，則是使冢婦主祭，世或有此事，而人家父母之情，多牽愛次子而欲與之，爲次子者亦多不知爲兄立后之爲義，因卒歸於不善處者，比比有之，可歎。《釋義》傳至孫爲繼祖小宗，統從兄弟，主祖廟祭，至曾孫五世則遷。】

【**繼禰小宗**】 【《釋義》】禰所生子爲繼禰小宗，統親兄弟，主禰廟祭，至玄孫五世則遷。】

【**別子**】 【《釋義》】丘氏曰：“禮經別子法，乃三代封建諸侯之制。於今，人家不相合，故今爲此圖，專主人家而言。以始遷及初有封爵者爲始

38) 探：《朱子大全》에는 ‘樣’으로 되어 있다.

39) 示：《朱子大全》에는 ‘等’으로 되어 있다.

祖，准古之別子，又以始祖之長子準古繼別之宗，雖非古制，其實則古人之意也.”]]

【祭祀】 [[《釋義》]〈祭法〉註：“既曰祭，又曰祀者，蓋祭者祀之事，祀者祭之道.”]]

【庶子】 [[《釋義》]〈祭義⁴⁰⁾〉註：“庶者，衆也。適子衆多，故總謂之庶子也.”]]

【上牲】 [[《釋義》]牛·羊·豕也.]

【世子】 [[《釋義》]繼世之子，適子也.]

正寢時祭之圖

【正寢】⁴¹⁾ [[《釋義》]正，適也，寢則燕寢也。程子曰：“今之正廳也.”]]

【時祭】 [[《釋義》]春夏秋冬四時仲月祭.]

【香】 [[《釋義》]殷人尚聲，周人尚臭，故用香也。此取古鬱鬯之意.]

【束茅】 [[《釋義》]蔡氏曰：“菁茅有刺而三脊，所以供祭祀縮酒之用。《周禮》曰：‘束茅立之，祭前沃酒其上，酒下⁴²⁾去，若神飲之，故爲之縮’.”[縮，淥也.]]

【聚沙】 [[《釋義》]朱子曰：“古人祭酒於地，祭食於豆間，有版盛之。”然則古人之所以酌，直瀉於地上而無所盛也。後世用沙代之者，卽

40) 祭義： 해당 내용은 〈燕義〉에 나온다.

41) 正寢： 표제가 없으나 《釋義》의 내용에 기초해 보충하였다.

42) 下： 《周禮》에는 ‘滲下’로 되어 있다.

澆地之意，而其必取沙者，沙土一也而沙能滲酒歟！]

〔《玄酒》〕〔《釋義》〕即玄古之酒也。太古無酒之禮，以水行禮，後世祭則設之，重古道也。〕

〔《侑》〕〔《釋義》〕勸也。主人添酒也。〕

〔《酒注》〕〔《釋義》〕俗所謂酒煎子也。〕

〔《盞盤》〕〔《釋義》〕盞臺也。〕

〔《祔位》〕〔《釋義》〕未祭時，置於所祔祖龕內東，行祭時出置於東壁下矣。〕

〔《受胙》〕〔《釋義》〕主人受福於尸也。〕

〔《湯瓶》〕〔《釋義》〕蔡氏曰：“以銀鐵或瓷石爲之。”〕

〔《香匙》〕〔《釋義》〕香쓰는 술이라.〕

〔《主筭》〕〔《釋義》〕出主時，以主置於筭中，奉之也。〕

〔《卓》〕〔《釋義》〕一作‘棹’。伊川先生指前食棹，問康節，是也。〕

每位說饌之圖

〔《釋義》〕果六品者，地產之物陰數，故用六也。《禮記·郊特牲》：“鼎俎奇而籩豆偶，陰陽之義也。”〕

〔《釋義》〕蔬菜行用六者，亦地產之物，故用六也。〕

〔《釋義》〕魚東者，魚屬水，故居東。肉西者，肉屬山，故居西。〕

〔《釋義》〕炙肝設中，肝屬血與氣，故設中。〕

〔《釋義》〕脯右首者，《儀禮·少牢饋食禮》：“乾魚右首⁴³，進腍。”註：

“右首進腴，亦變於食生也。”疏曰：“生人皆右首”[腴，腹也]]

[[《釋義》]生魚左首，《儀禮·士虞禮》：“載魚左首。”註：“左首，亦未異於生也。凡未異於生者，不致死也。”]]

[[《釋義》]匙西柄者，生時用右手，死後皆變左右，而惟匙西柄，依舊不變。[《退溪先生答問》詳示之。]《五禮儀》設饌，果五品，醢在西，脯在東，與《家禮》不同。]]

[[《釋義》]丘氏曰：“舊圖考妣每位各設饌，則四代該八卓矣。今人家廳事多狹隘，恐不能容。今擬，考妣兩位共一卓，設饌如世俗所謂桌面者，庶幾可行。若夫地寬可容者，自當如禮。《五禮儀》考妣同一卓。]]

43) 乾魚右首：《儀禮》에는 ‘魚用鮓，十有五而俎，縮載，右首，進腴’로 되어 있다.

家禮 卷之二

【《釋義》乾道五年九月，先生丁母祝令人憂，居喪盡禮，參酌古今，今因成喪葬祭禮，推之於冠昏，共爲一編，命曰家禮。】

凡禮有本有文 自其施於家者言之 則名分之守 【《釋義》言遵守也。】 ·愛敬之實 其本也 冠昏喪祭·儀章度數 【《講錄》儀章，服食器用之類。度數，周旋升降出入向背之曲折。《註解》儀章，服飾器用之類。度數，周旋升降出入向背之曲折。《釋義》儀章，猶服飾¹⁾器用之類。度數，猶周旋升降出入向背之曲折。】 者，其文也。其本者，有家日用之常體 固不可以一日而不修 其文，又皆所以紀綱人道之始終，雖其行之有時 施之有所，然非講之素明 習之素熟 則其臨事之際 亦無以合宜而應節 是亦不可一日而不講且習焉者也。三代之際 禮經 【《釋義》猶禮之經常之制也。】 備矣。然其存於今者，宮廬 【《釋義》居室之通稱也。】 器服之制·出入起居之節 皆已不宜於世 世之君子，雖或酌以古今之變 更爲一時之法 然亦或詳或略 無所折衷 至或遺其本而務其末 緩於實而急於文 自有志好禮之士 猶或不能舉其要 而困於貧窶者 尤患其終不能有以及於禮也 熹之愚蓋兩病 【《釋義》即自‘遺其本’止‘急於文’，一病；自‘有志’止‘及於禮’，一病。】 焉，是以嘗獨究觀古今之籍 因其大體之不可變者 而少加損益於其間 以爲一家之書 【《註解》朱子自謂一家之書，謙辭。《釋義》朱子自以爲一家中之書，謙辭。】。大抵謹名分崇愛敬以爲之本 至其施行之際 則又略浮文敦本實 以竊自附於孔子從先進之遺意 誠願得與同志之士 熟講而勉行之 庶幾古人所以修身齊家之道謹終追遠之心 猶可以復見 而於國家所以崇化導民之意 亦或有小補云

1) 飾：飾의 오기이다.

楊氏復 〔《講錄》〕朱子門人，字志仁，號信齋，長溪人。〔《註解》〕朱子門人，名復。〔《釋義》〕朱子門人(也)。〕曰：“先生 〔《釋義》〕指朱子(也)。〕服母喪，參酌古今，咸盡其變，因成喪葬祭禮，又推之於冠昏，名曰《家禮》。既成，爲一童行 〔《講錄》〕行合浪切，輩行也。劉珙詩云：“削髮入空門，被緇爲童行。”〔《釋義》〕疑恐音抗也。〕竊之以逃，先生易簣，其書始出，行於世。今按，先生所定家·鄉·邦國·王朝禮 〔《釋義》〕即《儀禮經傳》篇名。〕，專以《儀禮》 〔《講錄》〕周公所撰。〔《釋義》〕周公所撰(也)。〕爲經，及自述《家禮》，則又通之以古今之宜。故冠禮則多取司馬氏；昏禮則參諸司馬氏 〔《釋義》〕溫公(也)。〕·程氏 〔《釋義》〕伊川(也)。〕；喪禮本之司馬氏，後又以高氏 〔《講錄》〕名閱，字抑崇，四明人，宋 紹興初，爲禮官，撰《厚終禮》。〔《釋義》〕未詳。或云：“徽欽時人，名閱。”〕爲最善；及論祔遷 〔《講錄》〕新主祔廟，舊主遷廟。〔《釋義》〕祔遷，神主祔廟也。遷，舊主代盡而遷廟也。〕，則取橫渠；遺命 〔《講錄》〕朱子臨終，命門人治己喪。〔《釋義》〕朱子臨終，遺命門人治己之喪也。〕治喪，則以《書儀》 〔《講錄》〕司馬溫公所撰。〔《註解》〕司馬溫公所撰。〔《釋義》〕司馬溫公所撰也。〕疏略，而用《儀禮》；祭禮兼用司馬氏·程氏，而先後 〔《講錄》〕朱子於祭禮，所見有先後之不同。〔《釋義》〕朱子於祭祀，所見有先後之不同也。〕所見又有不同；節祠 〔《釋義》〕如今非時祭而以名日祭先也。〕則以韓魏公 〔《釋義》〕即韓琦(也)。〕所行者爲法；若夫明大宗·小宗之法，以寓愛禮存羊之意，此又《家禮》之大義所繫，蓋諸書 〔《釋義》〕司馬·程·高·張橫渠也。〕所未暇及，而先生於此尤拳拳也。惜其書既亡，至先生沒而後出，不及再修以幸萬世。於是竊取 〔《釋義》〕言楊復竊取朱子之

言也。』先生平日去取折衷之言，有以發明《家禮》之意者，若昏禮親迎用溫公，入門以後『《釋義》親迎之禮，入門以後。』則從伊川之類是也；有後來議論始定，若〈祭禮〉祭始祖·初祖『《釋義》‘祖’，疑恐‘先’字也。詳見下文。』，而後不祭之類是也；有不用疏家『《講錄》疏，註之註也。家，諸家也。《釋義》《禮記》：疏，猶註也。家，即諸家也。』之說，若深衣續衽鉤邊是也；有用先儒舊義『《釋義》用，朱子用也。先儒，司馬公。舊儀，即《書儀》也。』與經傳不同，若喪服辟領·婦人不杖之類是也。凡此悉附於逐條之下云。”

通禮 〔《註解》〕有家日用通行之禮。○此篇專言祠堂之制。冠昏喪祭，皆行於祠堂，故謂之通禮。〔《釋義》〕此篇專用祠堂之制。冠昏喪祭皆行於祠堂，故謂之通禮。〕

此篇 〔《釋義》指通禮也。〕所著，皆所謂有家日用之常體，不可一日而不修者。

祠堂 〔《註解》〕《公羊傳》：“祠，報福也。”又“物始生，思嗣親也。”〕

此章本合在〈祭禮〉篇。今以報本反始之心·尊祖敬宗之意，實有家名分之守，所以開業傳世之本也，故特著此冠于篇端，使覽者知所以先立乎其大者，而凡後篇所以周旋·升降·出入·向背之曲折，亦有所據以攷焉。然古之廟制不見於經，且今士庶人之賤，亦有所不得爲者，故特以祠堂名之，而其制度亦多用俗禮云。

司馬溫公曰：“宋 仁宗時，嘗詔聽 〔《釋義》〕聽，猶許也〕太子少傅以上皆立家廟，而有司終不爲之定制度。惟文潞公 〔《註解》〕名彥博，介休人，歷事四朝，出將入相五十年，官至太師，封潞國公，卒諡忠烈。〕立廟於西京，他人皆莫之立，故今但以影堂言之。”

朱子曰：“古命士得立家廟。家廟之制，內立寢廟，中立正廟，外立門，四面牆圍之。非命士 〔《講錄》〕上中下士。

《釋義》上中下士(謂之命士).】，止祭於堂上。《講錄》庶人無廟，故只祭於其家之堂上。《釋義》庶人無廟，故只祭於其廟之堂上也.】，只祭考妣。伊川謂無貴賤皆祭自高祖而下，但祭有豐殺·疏數不同。廟向南，坐皆東嚮。伊川於此不審。《釋義》猶言不詳知其儀.】，乃云‘廟皆東嚮’，【祖先位面東，自廳側。《釋義》其家之廳事.】直入其所，反轉面西入廟中.】其制非是。古人所以廟面東向坐者，蓋戶在東。《講錄》《入學圖說》家圖，戶在南壁之東，牖在南壁之西。《釋義》《入學圖說》，戶在南壁之東，牖在壁之西.】，牖在西，坐於一邊，乃是奧處也。”

“嘗欲立。《講錄》朱子欲立也。《釋義》朱子欲立也.】一家廟，小五架屋。以後架作一長龕。《釋義》音堪。】堂，以板隔截作四龕堂，堂置位牌，堂外用簾子。小小祭祀時，亦可只就其處。大祭祀則請出，或堂。《註解》堂，當作‘室’.】或廳上皆可。”

“唐大臣皆立廟於京師。宋朝惟文潞公法唐杜佑。《講錄》字君卿，萬年人，以蔭補參軍，唐德·憲兩朝，拜司空，進司徒，封岐國公，佑嗜學，撰《通典》二百卷。《釋義》唐穆敬時人，作《通典》.】制，立一廟在西京。雖如韓司馬。《講錄》韓魏公琦，司馬公光也。《釋義》韓琦，司馬公也.】家，亦不曾立廟。杜佑廟，祖宗時尚在長安。”

劉氏 垓孫曰：“伊川先生云：‘古者庶人祭於寢，士大夫祭於廟。庶人無廟，可立影堂。’今文公先生乃曰‘祠堂’者，蓋以伊川先生謂祭時不可用影。《講錄》伊川曰：“今人以影祭，一髭髮不相似，則所祭已是別人，大不便。”《註解》伊川曰：“其影若有一毫髮不相似，則已是別人，不可用影也。”《釋義》伊川以謂“其影若有一髮一毫不似其父，則不可以爲父之影，故

不可用影.”』，故改影堂曰祠堂云。”

君子將營宮室，先立祠堂於正寢 〔《註解》謂前堂也。蓋正寢皆在人家正南，故祠廟皆在其東而無所礙，今人正寢，或東或西，隨地勢可也。《釋義》）如今之客位，在於其室之前面。〕之東。

祠堂之制，三間，外爲中門。中門外爲兩階，皆三級，東曰阼階，西曰西階。階下隨地廣狹，以屋覆之，令可容家衆叙立 〔《釋義》疑指主人以下參祭時，叙立之室。〕。又爲遺書·衣物·祭器庫及神廚於其東，繚以周垣，別爲外門，常加扃閉。若家貧地狹，則止立一間，不立廚庫，而東西壁下，置立兩櫃，西藏遺書·衣物，東藏祭器亦可。正寢，謂前堂也。地狹，則於廳事 〔《註解》）如今大門內小廳，今之斜廊。〕之東亦可。凡祠堂所在之宅，宗子世守之，不得分析。

凡屋之制，不問何向背，但以前爲南，後爲北，左爲東，右爲西。後皆放此。

爲四龕，以奉先世神主。

祠堂之內，以近北一架爲四龕 〔《註解》）龕，掩也。弇同。〕，每龕內置一卓。大宗及繼高祖 〔《釋義》）猶言大宗는 된 가락와 小宗는 된 가락라。〕之小宗，則高祖居西，曾祖次之，祖次之，父次之。繼曾祖之小宗，則不敢祭高祖，而虛其西龕一。繼

祖之小宗，則不敢祭曾祖，而虛其西龕二。繼禰之小宗，則不敢祭祖，而虛其西龕三。若大宗世數未滿，則亦虛其西龕如小宗之制。神主皆藏於櫝中，置於卓上，南向。龕外各垂小簾，簾外設香卓。〔《註解》〕是各設一香卓也。兩階之間，設香卓，是共設一卓也。同堂異室，其禮如此。〕於堂中，置香爐香盒於其上。兩階之間，又設香卓。〔《講錄》〕晨謁及出入告辭時所用。〔《註解》〕非經月歸，出告返面之時，不開中門，只於此設香案而焚香也。〔《釋義》〕非經月歸處，則出告反面之時，不開中門，只於此焚香，故又設香案於此處。〕亦如之。非嫡長子，則不敢祭其父。若與嫡長同居，則死而後。〔《釋義》〕即非嫡長子也。〕其子孫爲立祠堂於私室，且隨所繼世數爲龕，俟其出而異居，乃備其制。若生而異居，則預於其地立齋以居。〔《講錄》〕別立齋，非所居之室。〔《註解》〕謂別立齋，非所居室也。〔《釋義》〕謂別立齋也，非所居之室也。〕如祠堂之制，死則因以爲祠堂。

主式見《喪禮·治葬》章。

程子曰：“管攝天下人心，收宗族，厚風俗，使人不忘本，須是明譜系，收世族，立宗子法。宗子法壞，則人不知來處。〔《講錄》〕族派之所從來。〔《釋義》〕族派之所從來。〕，以至流轉四方，往往親未絕不相識。”又曰：“今無宗子，故朝廷無世臣。若立宗子法，則人知尊祖重本。人既重本，則朝廷之勢自尊。〔《釋義》〕詳見下文張子註，言世臣與國同休戚故耳。‘朝廷有所益’亦此意也。〕。古者子弟從父兄，今父兄從。〔《釋義》〕猶子弟不稟命於父兄，或反依於子也。〕子弟，由不知本也。”

“宗子法廢，後世譜牒”〔《講錄》〕謂設局，掌四方臣民之姓氏族譜，除官及其婚嫁時，皆考之。〔《註解》〕謂設局，掌四方臣民之姓氏族譜，除官及婚嫁時，考之。〔《釋義》〕謂設局，掌四方臣民之姓氏族，除官及其婚嫁時，皆考。〕尚有遺風。譜牒又廢，人家不知來處，無百年之家，骨肉無統，雖至親，恩亦薄。”

張子曰：“宗法若立，則人各知來處，朝廷大有所益。”或問：“朝廷何所益？”曰：“公卿各保其家，忠義豈有不立？忠義既立，朝廷豈有不固？”

司馬溫公曰：“所以西上”〔《釋義》〕言以西爲上也。〕者，神道尚右故也。”

或問：“廟主自西而列。”朱子曰：“此也不是”〔《釋義》〕也，〔《語錄》〕：“（也），猶‘亦’字之意也。”〕古禮。”

問：“諸侯廟制，太祖居北而南向，昭廟二在其東南，穆廟二在其西南，皆南北相重”〔《講錄》〕二昭二穆，各兩行。〔《釋義》〕言二昭二穆，各兩行（也）。〕。不知當時每廟一室，或共一室各爲位也。”曰：“古廟制，自太祖而下，各是一室，陸農師〔《講錄》〕名佃，農師字，宋徽宗時人，居貧苦學，擢進士，累官尚書右丞，著《埤雅》，《禮象》等書，居山陰。〔《釋義》〕名佃。農師其〔字，宋徽宗時人，居貧苦學。擢進士，累官尚書右丞，著《埤雅》·《禮象》等書。〕〕《禮象圖》可考。西漢時，高祖廟·文帝·顧成廟〔《講錄》〕成於指顧之間也。言漢文帝儉素，故易成其廟也。〔《釋義》〕成於指顧之〔居山陰○■■■〕文帝儉素，故易成其廟也。〕，各在一處，但無法度，不同一處。至東漢明帝謙貶〔《釋義》〕明帝自謙貶也。〕，不敢自當立廟，祔於光武廟，後遂以爲例。至唐，太廟〔《釋義》〕即唐之九廟也。〕及群臣家廟，悉如今制，以西爲上也。至禰處，謂之‘東廟’〔《講錄》〕祖以上居西龕，故禰處謂之東廟。〔《釋義》〕謂之東廟。祖以

上居西龕，故禰處謂之東廟。』。今太廟之制亦然。”

“〈大傳〉〔《講錄》〕《禮記》篇名，其文止於‘遷之宗’。〔《釋義》〕《禮記》篇名，其文止於‘遷之宗’。〕云：‘別子爲祖〔《講錄》〕爲始祖。〔《釋義》〕（猶言）爲始祖（見上）。〕，繼別爲宗〔《講錄》〕爲大宗。〔《釋義》〕爲太宗（也見下）。〕，繼禰者爲小宗，有百世不遷之宗，有五世則遷之宗。’何也？君適長爲世子，繼先君正統，自母弟以下皆不得宗。其次適爲別子，不得禰其父，又不可宗嗣君，又不可無統屬，故死後立爲大宗之祖，所謂‘別子爲祖’也。其適子繼之，則爲大宗，直下相傳，百世不遷。別子若有庶子，又不敢禰別子，死後立爲小宗之祖，其長子繼之，則爲小宗，五世則遷。別子者，謂諸侯之弟，別於正適，故稱別子也。爲祖者，自與後世爲始祖，謂此別子子孫爲卿大夫，立此別子爲始祖也。繼別爲宗，謂別子之世世長子，當繼別子與族人爲不遷之宗也。繼禰者爲小宗。禰，謂別子之庶子〔《講錄》〕指衆子。〔《釋義》〕此指衆子（也）。〕，以庶子所生長子繼此庶子與兄弟爲小宗也。五世則遷者，上從高祖，下至玄孫之子，高祖廟毀〔《講錄》〕遞遷之時，易簀改塗，故曰毀。〔《釋義》〕遞遷之時，易簀改塗，故曰毀。〕，不復相宗，又別立宗也。然別子之後，族人衆多，或繼高祖者與三從〔《釋義》〕八寸兄弟（也）。〕兄弟爲宗，至子五世；或繼曾祖者與再從兄弟爲宗，至孫五世；或繼祖者與同堂兄弟〔《講錄》〕四寸兄弟。〔《釋義》〕四寸兄弟（也）。〕爲宗，至曾孫五世；或繼禰者與親兄弟爲宗，至玄孫五世，皆自小宗之祖以降而言也。魯季友乃桓公別子所自出，故爲一族之大宗。滕，文之昭〔《講錄》〕文王爲穆而滕之始祖，乃文王之子，故曰文之昭。〔《釋義》〕文王爲穆，故滕之始祖，

乃文王之子，故曰昭。』，武王爲天子，以次則周公爲長，故滕謂魯爲宗國。又有有大宗而無小宗者，皆適『《講錄》適，與‘嫡’通用。諸侯之子皆嫡子，則世子之外，當各爲大宗之祖，而不可爲小宗之祖。』《釋義》(則)適與嫡通用。諸侯之子皆嫡子，則世子之外，當各爲大宗之祖，而不可爲小宗之祖(故云)。』則不立小宗也。有有小宗而無大宗者，無適則不立大宗也。今法長子死，則主父喪用次子不用姪。若宗子法立，則用長子之子。”

楊氏 復曰：“先生云：‘人家族衆，或主祭者不可以祭及叔伯父之類，則須令其嗣子別得祭之。今且說同居，同出於曾祖，便有從兄弟及再從兄弟。祭時主於主祭者，其他或子不得祭其父母。若恁地衰做『《講錄》두의 셋거 做하다.』《釋義》두의 셋거 做하다.』一處祭，不得。要好『《釋義》도케 하려흔.』，則主祭之嫡孫，當一日祭其曾祖及祖及父，餘子孫與祭，次日却令次位子孫自祭其祖及父，又次日却令次位子孫自祭其父，此却有古宗法意。古今祭禮，這般『《講錄》이마튼.』《釋義》이마튼.』處皆有之。今要如宗法祭祀之禮，須是在上之家『《釋義》即公卿之家(也).』先就宗室及世族家行之，做個樣子，方可使以下士大夫行之。’”

‘排祖先時，以客位西邊爲上，高祖第一，高祖母次之。【只是正排看正面，不會對排。】曾祖·祖·父皆然。其中有伯叔·伯叔母·兄弟·嫂婦無人主祭而我爲祭者，各以昭穆論。’”

黃氏 瑞節曰：“神主位次，放宗法也。今依本註『《講錄》』即此大文下，朱子所註。《釋義》則此大文朱子(之)所註。』，

姑以小宗法明之。小宗有四：繼高祖之小宗者身爲玄孫，及祀小宗之祖爲高祖，而曾祖·祖·父次之；繼曾祖之小宗者身爲曾孫，及祀小宗之祖爲曾祖，而以上吾不得祀矣；繼祖之小宗者身爲孫，及祀小宗之祖爲祖，而以上不得祀矣；繼禰之小宗者身爲子，小宗之祖爲禰，而以上不得祀矣。不得祀者，以上爲大宗之祖，吾不得而祀之也。大宗亦然，先君·世子，大宗以下又不得而祀之也。朱子云：‘宗法須宗室及世族之家先行之，方使以下士大夫行之。’然《家禮》以宗法爲主，所謂‘非嫡長子，不敢祭其父’，皆是意也。至於冠昏喪祭，莫不以宗法行其間云。”

旁親之無後者 《（《釋義》）伯叔祖，高祖之主遷廟時，並遷之。旁，滂通，祖之同生，父之同生無後也。》，以其班祔 《（《註解》）班，昭穆之班。《（《釋義》）班，昭穆之班也。》。

伯叔祖父母，祔于高祖；伯叔父母，祔于曾祖；妻若兄弟 《（《講錄》）妻，卽己之妻。兄弟，卽身死無後者。《（《註解》）妻，卽己之妻。兄弟，卽無后身死者。《（《釋義》）妻，卽己之妻。無後先死者也。》。若兄弟之妻，祔于祖；子姪，祔于父，皆西向。主·櫝並如正位。姪之父自立祠堂，則遷而從之。

程子曰：“無服之殤 《（《講錄》）七歲以下。《（《釋義》）七歲以下。》，不祭；下殤之祭，終父母之身 《（《註解》）殤者之父母，下同。《（《釋義》）殤者之父母身也。》；中殤之祭，終兄弟 《（《釋義》）亦殤者之兄弟也。》之身；長殤之祭，終兄弟之子之身；成人而無後《

〔《註解》〕成人，言雖殤而已嫁娶者也。〔《釋義》〕成人，卽猶言雖殤，已爲嫁娶者也。〕者，其祭終兄弟之孫之身，此皆以義起者也。”

楊氏復曰：“按，祔位，謂旁親無後及卑幼先亡者。〈祭禮〉纔祭高祖畢〔《講錄》〕非謂畢其祭也，高祖之祭，纔畢初獻也。每獻皆如此。〔《釋義》〕非謂畢其祭也，猶言於高祖纔畢初獻也。每獻皆如此也。〕，即使人〔《釋義》〕人，非謂行初獻亞獻三獻之人，乃子弟之執事者也。〕酌獻祔于高祖者。曾祖·祖·考皆然。故祝文說以某人祔食尚饗。詳見後〈祭禮〉篇四時祭條。”

劉氏垓孫曰：“先生云：‘如祔祭伯叔，則祔于曾祖之傍一邊，在位牌西邊安〔《講錄》〕安，卽安妥也。〔《釋義》〕卽安綏²⁾也。〕。伯叔母，則祔曾祖母東邊安。兄弟嫂·妻·婦〔《講錄》〕嫂，兄妻；妻，己妻；婦，弟妻。〔《釋義》〕嫂，兄之妻；妻，己之妻；婦，弟之妻。〕，則祔于祖母之傍。伊川云“曾祖兄弟無主者，亦不祭”，不知何所據而云。伊川云：“只是義起也。””

“遇大時節，請祖先，祭于堂或廳上，坐次亦如在廟時排定。〔《註解》〕今按，正位‘如在廟時排定’，補註之云，未詳何義。〕祔祭旁親者，右丈夫，左婦女，坐以就裏爲大〔《講錄》〕正位在北，故指北爲裏。〔《釋義》〕正位在北，故指北爲裏。〕。凡祔於此者，不從昭穆了，只以男女·左右·大小〔《釋義》〕大小，猶尊卑也。〕分排。在廟，却各從昭穆祔。”

2) 綏：두주에 “綏는妥妥인 듯하다.(綏恐妥)”라고 하였다.

置祭田。

初立祠堂，則計見田 [[《註解》見在之田。《釋義》計其見在之田也。]]，每龕取其二十之一 [[《註解》言二十分取其一分。《釋義》言二十分取其一也。]]，以爲祭田，親盡則以爲墓田。後凡正位祔位，皆放此。宗子主之，以給祭用。上世初未置田，則合墓下子孫之田，計數而割之，皆立約 [[《釋義》言立文記也。]] 聞官，不得典賣 [[《講錄》‘典衣’之‘典’，俗云볼무드리다。《註解》‘典衣’之‘典’。《釋義》‘典衣’之‘典’。俗云볼모드리단(마리라)]]。

具祭器。

牀席·倚卓·盥盆·火爐·酒食之器，隨其合用 [[《講錄》猶言當用也。《釋義》猶言當用也。]] 之數，皆具貯於庫中而封鎖之，不得他用。無庫則貯於櫃中。不可貯者，列於外門之內。

主人晨謁於大門之內。

主人，謂宗子主此堂之祭者。晨謁，深衣 [[《釋義》非謂喪中所著深衣也，乃君子所著之深衣也。]]，焚香再拜。

出入必告。

主人·主婦近出，則入大門，瞻禮而行 〔《註解》疑必周瞻其廟，再拜而行也。《釋義》疑必周瞻其廟，再拜而行也。〕，歸亦如之。經宿而歸，則焚香再拜。遠出經旬以上，則再拜焚香，告云：“某將適某所，敢告”，又再拜而行，歸亦如之，但告云：“某今日歸自某所，敢見。”經月而歸，則開中門，立於階下，再拜，升自阼階，焚香告畢，再拜，降復位，再拜。餘人亦然 〔《釋義》非宗子之人，出入亦然也。〕，但不開中門。

凡主婦，謂主人之妻。

凡升降，惟主人由阼階，主婦及餘人，雖尊長，亦由西階。

凡拜，男子再拜，則婦人四拜 〔《註解》婦人取陰兩數，故四拜。《釋義》婦人取其陰兩數，故四拜。〕，謂之“俠拜” 〔《註解》俠，《韻會》“并也。”《釋義》俠，《韻會》云：“並也。”〕。其男女相答拜，亦然。

正·至·朔·望，則參。 〔《註解》猶謁，衆見也。《釋義》猶參謁，衆見也。〕

正·至·朔·望，前一日灑掃齋宿。厥明，夙興，開門軸簾 〔《註解》猶捲簾也。《釋義》猶捲簾也。〕，每龕設新果一大盤於卓上。每位茶盞托 〔《註解》托，俗所謂匙托也。《釋義》托，即俗所謂匙托。〕。酒盞盤各一於神主櫝前。設束茅聚沙於香卓前。別設一卓於阼階上，置酒注 〔《釋義》俗所謂酒煎子。〕。盞盤一於其上，酒一瓶於其西。盥盆 〔《釋義》盛洗手水之盆。〕。梲

巾各二於阼階下東南，有臺架者在西，爲主人親屬所盥；無者〔《釋義》即無臺架者也。〕在東，爲執事者所盥，巾皆在北。主人以下盛服，入門就位，主人北面於阼階下；主婦北面於西階下。主人有母，則特位於主婦之前。主人有諸父諸兄，則特位於主人之右少前，重行西上。有諸母〔《註解》父之兄弟之妻。〔《釋義》父之兄弟之妻。〕·姑〔《註解》父之姊妹。〔《釋義》舅³⁾之姊妹。〕·嫂〔《註解》兄弟之妻。〔《釋義》兄弟之妻。〕·姊〔《釋義》夫之姊。〕，則特位主婦之左少前，重行東上。諸弟在主人之右少退。子孫·外執事者在主人之後，重行西上。主人弟之妻及諸妹在主婦之左少退。子孫婦女·內執事者在主婦之後，重行東上。立定，主人盥悅升，搢笏，啓櫝，奉諸考神主置於櫝前；主婦盥悅升，奉諸妣神主，置于考東。次出祔主，亦如之。命長子·長婦或長女，盥悅升，分出諸祔主之卑者，亦如之。皆畢，主婦以下先降復位。主人詣香卓前，降神，搢笏，焚香再拜，少退立。執事者盥悅升，開瓶實酒于注，一人奉注詣主人之右；一人執盞盤詣主人之左。主人跪，執事者皆跪。主人受注斟酒，反注〔《註解》反其注於執事也。〔《釋義》即反其注於執事。〕。取盞盤奉之，左執盤，右執盞。酌于茅上，以盞盤授執事者。出笏〔《釋義》謂前所搢之笏，出而執之。〕，俛伏，興，少退，再拜，降復位。與在位者皆再拜。參神。主人升，搢笏，執注斟酒，先正位，次祔位，次命長子斟諸祔位之卑者。主婦升，執茶筯〔《講

3) 舅：‘父’의 오기이다.

錄》音扇，調茶之物，以竹爲之。《（註解）》以竹爲之，調茶之物，音扇。《（釋義）》音扇，調茶之物，以竹爲之。《家禮儀節》云：“未詳何器也。”⁴⁾，執事者執湯瓶《（（釋義））盛湯水於■。》隨之，點茶如前。命長婦或長女，亦如之。子·婦·執事者先降復位。主人出笏，與主婦分立於香卓之前東西，再拜，降復位。與在位者皆再拜，辭神而退。

冬至則祭始祖畢，行禮如上儀。

望日不設酒，不出主。主人點茶，長子佐之，先降。主人立於香卓之南，再拜乃降。餘如上儀。

準禮《（（註解））考準其禮也。《（釋義））考準其禮也。》，舅沒則姑老不預於祭，又曰：“支子不祭。”故今專以世嫡宗子夫婦爲主人·主婦。其有母及諸父·母·兄·嫂者，則設特位於前如此。

凡言盛服者，有官則幘頭·公服·帶·靴·笏。進士則幘頭·襴衫《（（釋義））襴衫，未詳。》·帶。處士則幘頭·皐衫·帶。無官者通用帽子《（（釋義））猶頭巾也。》·衫·帶，又不能具，則或深衣，或涼衫。有官者亦通服帽子以下，但不爲盛服。婦人則假髻《（（釋義））큰 머리라。》·大衣·長裙《（（釋義））긴 치마컷거시라。》。女在室《（（釋義））猶處女也。》者冠子《（（釋義））猶女冠也。》·背子《（（釋義））疑是몽둥이라。》。衆妾假髻·背子。

楊氏復曰：“先生云：‘元旦，則在官者有朝謁之禮，恐不得專精於祭事。某鄉里《（（釋義））某，朱子自謂也。》却止

4) 未詳何器也：《家禮儀節》에는 이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於除夕前三四日行事，此亦更在斟酌也.’”

劉氏 瑋曰：“司馬溫公註《影堂雜儀》。‘凡月朔，則執事者於影堂裝香’〔《註解》〕裝，猶具也。〔《釋義》〕裝，猶具也。〕，具茶酒·常食數品。主人以下皆盛服，男女左右叙立如常儀。主人·主婦，親出祖考以下祠版〔《釋義》〕猶位板也。〕置於位，焚香，主人以下俱再拜。執事者斟祖考前茶酒，以授主人。主人搢笏，跪，酌茶酒，執笏，俛伏，興，帥男女俱再拜。次酌祖妣以下皆徧。納祠版，出，徹。月望，不設食，不出祠版，餘如朔儀。影堂門，無事常閉。每旦，子孫詣影堂前唱喏〔《講錄》〕喏，音‘也’，作揖聲。〔《註解》〕喏，音‘也’，警也。或曰：‘作揖聲。’〔《釋義》〕喏，音‘也’，喏을唱호니. 其聲未詳，乃敬聲也。〕。出外歸〔《釋義》〕猶言自外而來歸也。〕，亦然。若出外再宿以上歸，則入影堂再拜。將遠適及遷官凡大事，則盥手焚香，以其事告，退各再拜。有時新之物，則先薦于影堂。忌日則去華飾之服，薦酒食如月朔，不飲酒，不食肉，思慕如居喪。【《禮》：“君子有終身之喪，忌日之謂也。”《舊儀》〔《釋義》〕猶言《開元禮》·《通典》之類。《諺》에 구의는 선우들회 네제라.〕】“不見客，受弔〔《講錄》〕朱子曰：“忌日，當⁵⁾時士大夫依舊孝服受弔，五代時，某人忌日受弔，某人弔之，遂於坐間刺殺之。後來，只是受人慰書而不接見。”〔《釋義》〕不往見客，而客來則見之，是受吊也。〕”，於禮無之，今不取。】遇水火·盜賊，則先救先公遺文，次祠版，次影，然後救家財.’”

俗節，則獻以時食。

5) 當：《朱子語類》에는 ‘唐’자로 되어 있다.

節，如清明·寒食·重午·中元 〔《註解》〕七月十五日也。〔《釋義》〕七月望日。〕·重陽之類，凡鄉俗所尚者。食，如角黍 〔《講錄》〕粽也。《風土記》：“以菰葉裹糯米，五月五日，祭汨羅之遺俗，又裹糯米爲粽，以象陰陽相包裹未分散。”〔《註解》〕粽也。重午所食。〔《釋義》〕重午所食之物，未知何物也。〕，凡其節之所尚者。薦以大盤，間以蔬果，禮如正·至·朔日之儀。

問：“俗節之祭，如何？”朱子曰：“韓魏公處得好，謂之‘節祠’，殺於正祭。但七月十五日用浮屠設素饌祭，某不用。”

又答張南軒曰：“今日俗節，古所無有，故古人雖不祭，而情亦自安。今人既以此爲重，至於是日必具殽羞相宴樂，而其節物亦各有宜，故世俗之情，至於是日不能不思其祖考，而復以其物享之，雖非禮之正，然亦人情之不能已者。且古人不祭，則不敢以燕。況今於此俗節既已據經而廢祭，而生者則飲食宴樂隨俗自如，非事死如事生事亡如事存之意也。”又曰：“朔旦家廟用酒果，望旦用茶。重午·中元·九日之類，皆名俗節。大祭 〔《註解》〕皆時祭也。〔《釋義》〕卽時祭也。〕時，每位用四味 〔《註解》〕卽湯數四味。〔《釋義》〕卽湯數四味也。〕，請出木主 〔《釋義》〕非祠版位也，卽今神主也。〕。俗節小祭，只就家廟，止二味。朔旦俗節，酒止一上，斟一盃。〔《註解》〕一上，猶一獻也。〔《釋義》〕一上斟一盃，猶言一獻而一盃也。〕”

楊氏復曰：“時祭之外，各因鄉俗之舊，以其所尚之時所用之物，奉以大盤，陳於廟中，而以告朔 〔《釋義》〕音

谷。』之禮奠焉，則庶幾合乎隆殺之節，而盡乎委曲之情，可行於久遠而無疑矣。”

有事，則告。〔《註解》〕如冠·昏·喪·祭·授官·追贈之類。〕

如正·至·朔日之儀。但獻茶酒，再拜訖，主婦先降復位。主人立於香卓之南。祝執版立於主人之左，跪讀之，畢，興〔《釋義》言讀祝者興也。〕。主人再拜，降復位。餘並同。

告授官祝版云：“維年歲月〔《釋義》〕如今嘉靖第幾年某歲某月某日也。〕朔日，孝子某〔《講錄》〕《儀節》云“孝玄孫”，尤詳。〔《註解》〕《儀節》云“孝元孫”，尤詳。〔《釋義》〕《儀節》云“孝元孫”，尤詳。〕官某〔《釋義》〕前日所爲之官。〕，敢昭告于故某親某官封諡府君·故某親〔《講錄》〕《儀節》云“顯高祖”，尤詳。〔《註解》〕《儀節》云“顯高祖”，尤詳。〔《釋義》〕《儀節》云“顯高祖”，乃尤詳。〕某封某氏。某以某月某日，蒙恩〔《釋義》〕蒙君之恩也。〕授某官，奉承先訓，獲霑祿位，餘慶所及，不勝感慕，謹以酒果，用伸虔告。謹告。”貶降則言：“貶某官，荒墜先訓，皇恐無地。”“謹”以後同。若弟子則言：“某之某某〔《講錄》〕上某，主人自稱；中某，或弟或子；下某，弟子之名。授官·貶降，皆以是書之於祝板也。〔《釋義》〕上某，主人自稱；中某，或弟或子；下某，其子弟之名也。授官·貶降，皆以是書之於祝板也。〕。”餘同。

告追贈，則止告所贈之龕〔《釋義》〕凡追贈，或止於父，或止於祖，或止於曾祖，故曰‘所贈之龕’也。〕。別設香卓於龕前，又設一卓於其東，置淨水·粉盞〔《釋義》〕盛粉之盞也。〕·刷子·硯·

墨·筆於其上。餘並同。但祝版云：“奉某月某日制書〔《釋義》即詔書也〕，贈故某親某官·故某親某封。某奉承先訓，竊位于朝，祇奉恩慶，有此褒贈，祿不及養，摧咽難勝。”‘謹’以後同。若因事特贈，則別爲文以叙其意。告畢，再拜。主人進，奉主置卓上。執事者洗去舊字，別塗以粉，俟乾，命善書者改題所贈官封。陷中不改。洗水〔《註解》洗神主舊字之水也。《釋義》洗神主舊字之水也。〕以灑祠堂之四壁。主人奉主置故處〔《釋義》某位之龕中也。〕，乃降復位。後同。

主人生嫡長子，則滿月〔《釋義》子生後滿一月也。〕而見如上儀，但不用祝。主人立於香卓之前，告曰：“某之婦某氏，以某月某日生子名某，敢見。”告畢，立於香卓東南，西向，主婦抱子進，立於兩階之間，再拜。主人乃降復位。後同。

冠·昏，則見本篇。

凡言祝版者，用版長一尺·高五寸〔《講錄》高，疑‘廣’字之誤。《註解》高，疑‘廣’字之誤。《釋義》高，未詳。〕，以紙書文，黏於其上。畢，則揭而焚之〔《講錄》揭，《韻會》云：“舉也。”《註解》揭，《韻會》：“舉也。”《釋義》[揭，《韻會》云：“舉也。”]會之舉也。〕。其首尾〔《講錄》疑祝詞首尾。《註解》疑祝板首尾。《釋義》疑必祝詞之首尾也。〕皆如前。但於故高祖考·故高祖妣，自稱‘孝元孫’〔《講錄》宋真宗大中祥符五年，聖祖降延恩殿，詔聖祖名曰玄朗，不得斥犯，凡經傳中玄字，皆改爲元，故《家禮》稱元孫。《註解》宋真宗諱，始祖玄朗，改作元字。《釋義》玄字諱而作元，如慎獨爲謹獨之類也。〕；於故曾祖考·故曾祖妣，自稱‘孝曾孫’；於故祖考·故祖妣，自稱‘孝孫’；於故考·故妣，自稱‘孝子’。有官

封諡，則皆稱之，無則以生時行第稱號加于府君之上。妣曰‘某氏夫人’。凡自稱，非宗子，不言‘孝’。

告事之祝，四代共爲一版。自稱以其最尊者爲主。止告正位，不告祔位。茶酒則并設之。〔《釋義》言并設於祔位也。〕。

朱子曰：“焚黃 〔《釋義》言天子制書，書於黃紙。祭祖先之時，或陳於家廟，或陳於墓次，祭畢焚之，故曰焚黃。〕，近世行之墓次，不知於禮何據。張魏公贈諡，只告于廟，疑爲得體。但今世皆告墓，恐未免隨俗耳。”

楊氏復曰：“按，先生文集有焚黃祝文，告于家廟，亦不云告墓也。”

或有水火·盜賊 〔《註解》或神主火燒，則神魄飄散無依泊，卽於前日安神之所，設虛位，改題新主，焚香設祭，使飄散之神，更依於神主，祭倣虞禮而素服行之。〕，則先救祠堂，遷神主·遺書，次及祭器，然後及家財。易世 〔《釋義》猶代盡也。〕，則改題主而遞遷之。

改題遞遷，禮見《喪禮·大祥》章。大宗之家，始祖親盡，則藏其主 〔《講錄》非埋也，乃藏置也。《註解》藏，藏置，非埋也。《釋義》非謂埋也，乃藏置也。〕於墓所，而大宗猶主其墓田以奉其墓祭，歲率宗人一祭之，百世不改。其第二世以下祖親盡及小宗之家高祖親盡，則遷其主而埋之，其墓田，則諸位迭掌 〔《講錄》如今族中一人爲有司，傳相掌其事。《註解》如今族中一人爲有司，傳掌其事也。《釋義》如今族中一人爲有司，傳掌其事〕。

也.』，而歲率其子孫一祭之，亦百世不改也。

或問：“而今士庶亦有始基之祖 [[《註解》]雖遞遷，而亦得墓祭也.』，莫亦只祭得四代. 以 [[《釋義》]《性理大全》‘以’字上有‘但四代’三字.』上，則可不祭否？”朱子曰：“而今祭四代已爲僭. 古者官師，亦只祭得二代. 若是始基之祖，想亦只存得墓祭 [[《釋義》]言想始基之祖，雖遞遷，而亦得墓祭也.』.”

楊氏復曰：“此章云：‘始祖親盡，則藏其主於墓所.’《喪禮·大祥》章亦云：‘若有親盡之祖，而其別子 [[《釋義》]此別，乃始祖之代盡之祖.』也，則祝版云云，告畢而遷于墓所，不埋.’ 夫藏其主於墓所而不埋，則墓所必有祠堂以奉墓祭.”

深衣制度 〔《註解》〕深衣，衣與裳相連，而前後深邃，故曰深衣。〔《釋義》〕深衣，其被於體也深邃，故名曰深衣。深衣之深字，被於體也深邃，而又取義之深，故以深名。〕

此章本在〈冠禮〉之後，今以前章已有其文，又平日之常服，故次前章。

朱子曰：“去古益遠，其冠服制度，僅存而可見者，獨有此耳 〔《釋義》〕此即深衣也。〕。然遠方士子亦所罕見 〔《釋義》〕言罕見深衣也。〕，往往人自爲制 〔《釋義》〕即下文‘詭異不經’之服。〕，詭異不經，近於服妖，甚可歎也。”

裁用白細布。度 〔《講錄》〕‘度然後知長短’之度。〔《釋義》〕度■，‘度然後知長短’之度。〕 **用指尺**。〔《釋義》〕言人之中指中節爲寸而成尺者也。〔指尺을 用하라.〕〕

中指中節爲寸 〔《講錄》〕丘氏曰：“按，中指中節，乃屈節向內兩紋尖相距處，即《鍼經》所謂同身寸也。”〕。

司馬溫公曰：“凡尺寸皆當用周尺度之。周尺一尺，當今省尺 〔《釋義》〕當省尺，言五分弱에 當하니라. 〔《釋義》〕省尺，猶宮中所用之尺。〕 **五寸五分弱** 〔《講錄》〕弱，猶言五分문면하단 말이니, 言五分弱에 當하니라. 〔《註解》〕弱，少也。〔《釋義》〕五分弱，猶言五分문면하단 마리라〕。”

楊氏復曰：“《說文》云：‘周制寸·尺·咫·尋，皆以人之體爲法’。《講錄》體，身也。一身長一丈，則寸尺咫尋，以此爲法。《註解》人之體，各以其人之中指中節爲寸也。《釋義》人之體爲法，疑必深衣裁作時，當以其人之中指中節爲寸。’”

衣全四幅，其長過脇，下屬於裳。

用布二幅，中屈。《釋義》가운데를 뒹단 마리라. 下垂，前後共爲四幅。如今之直領衫，但不裁破腋下。其下過脇。《釋義》腋脇，腋在上，脇在下。而屬於裳處約圍。《講錄》約圍，約，大約也。圍，言四幅當腰之圍。《註解》約，大約也。《釋義》約圍，約，大約也。圍，言四幅當腰之圍也。七尺二寸，每幅屬裳三幅。

裳交解。《註解》橫截也。《釋義》言橫裁也。十二幅，上屬於衣，其長及踝。

用布六幅，每幅裁爲二幅，一頭廣，一頭狹。狹頭當廣頭之半，以狹頭向上而連其縫，以屬於衣。其屬衣處約圍七尺二寸，每三幅屬衣一幅。其下邊及踝。《講錄》《手鑑》：“胡瓦切，足兩側高骨也。”《釋義》卽足跟，발측이라. 處約圍丈四尺四寸。

圓袂。

用布二幅，各中屈之如衣之長，屬於衣之左右，而縫合其下以爲袂。其本之廣如衣之長，而漸圓殺之。『《釋義》殺，音刈，言漸殺之，則其形似圓也。』以至袂口，則其徑一尺二寸。

楊氏復曰：“左右袂，各用布一幅，屬於衣。又按，〈深衣〉篇云：‘袂之長短，反屈之及肘。’疑必其袂至手而反屈之，則及於肘也。肘，臂節也。《釋義》疑必其袂至手而反屈之，則及於肘也。反屈，건단 마리라. 肘，폴구분 덕기라.’ 夫袂之長短，以反屈及肘爲準，則不以一幅爲拘。”

方領。

兩襟相掩，衽在腋下。『《註解》衽，俗云襟，非也。옷섭히라。《釋義》衽，俗云襟，非也。옷섭피라。』，則兩領之會自方。

曲裾。『《釋義》곡흔 거』

用布一幅如裳之長，交解裁之如裳之制。但以廣頭向上，布邊向外。『《釋義》言布幅之邊向外也。《大全·深衣制度》：“疊兩頭⁶⁾向上⁷⁾，布邊不動，但稍裁其內，向內⁸⁾而綴⁹⁾之，相沓綴於裳上之

6) 兩頭：《朱子大全》에는 ‘兩廣頭’로 되어 있다.

7) 向上：《朱子大全》에는 ‘並令向上’으로 되어 있다.

8) 向內：《朱子大全》에는 ‘內向’으로 되어 있다.

9) 綴：《朱子大全》에는 ‘緝’으로 되어 있다.

右旁，以掩裳際，右幅在下，左幅在上，布邊在外，裁處在內。”』，左掩其右，交映垂之如燕尾狀。又稍裁其內旁太半之下，令漸如魚腹，而末爲鳥喙。『《《註解》》喙，音諱。《《釋義》》喙，音諱。』。內向。『《《釋義》》言布邊則向外，如魚腹，而爲鳥喙者內向。』綴於裳之右旁。《禮記·深衣》“續衽鉤邊”，鄭註：“鉤邊若今曲裾。”

蔡氏淵『《《講錄》》即沈之兄，朱子門人，號節齋。《《註解》》蔡沈兄，朱子門人，號節齋。《《釋義》》即沈之兄(也，亦)朱子門人，號節齋。』曰：“司馬所載方領與續衽鉤邊之制，引證雖詳，而不得古意，先生病之，嘗以理玩經文『《《釋義》》玩，猶察也。』與身服之宜，而得其說『《《講錄》》曲裾을 올히 삼긴 뜻을 朱子得之也，非特指鄭註也。《《釋義》》曲裾을 올히 사긴 뜻을 朱子得之也，非特指鄭註也。』。謂“方領”者，只是衣領既交，自有如矩之象。謂“續衽鉤邊”者，只是連續裳旁，無前後幅之縫，左右交鉤。『《《講錄》》疑左衽右衽相鉤。《《釋義》》言疑(是)左衽右衽相鉤(也)。』，即爲鉤邊，非有別布一幅，裁之如鉤而綴于裳旁也。方領之說，先生已修之《家禮》矣，而續衽鉤邊，則未及修焉。”

楊氏復曰：“深衣制度『《《釋義》》‘楊氏曰深衣制度’以下未詳。』，惟“續衽鉤邊”一節難考。按《禮記·玉藻·深衣》疏，皇氏·熊氏·孔氏，三說皆不同。皇氏以喪服之衽，廣頭在上，深衣之衽，廣頭在下，喪服與深衣二者相對爲衽，孔氏以衣下屬幅而下，裳上屬幅而上，衣裳二者相對爲衽，此其不同者一也。皇氏以衽爲裳之兩旁皆有，孔氏以衽爲裳之一邊所有，此其不同者二也。皇氏所謂廣頭在上爲喪

服之衽者，熊氏又以此爲齊祭服之衽，一以爲吉服之衽，一以爲凶服之衽，此其不同者三也。《家禮》以深衣續衽之制，兩廣頭向上，似與皇氏喪服之衽·熊氏齊祭服【《釋義》齋戒時所着之服】之衽相類，此爲可疑。是以先生晚歲，所服深衣，去《家禮》舊說曲裾之制而不用，蓋有深意，恨未得聞其說之詳也。及得蔡淵所聞，始知先師所以去舊說曲裾之意，復又取《禮記·深衣》篇熟讀之，始知鄭康成註續衽二字文義甚明，特疏家亂之耳。按，鄭註曰：‘續，猶屬也。衽，在裳旁者也。屬連之，不殊裳前後也。’鄭註之意，蓋謂凡裳前三幅後四幅，夫既分前後，則其旁兩幅分開而不相屬，惟深衣裳十二幅交裂裁之，皆名爲衽，見《玉藻》‘衽當旁’註，所謂‘續衽’者，指在裳旁兩幅言之，謂屬連裳旁兩幅，不殊裳前後也。疏家不詳考其文義，但見衽在裳旁一句，意謂別用布一幅，裁之如鉤，而垂於裳旁，妄生穿鑿，紛紛異同，愈多愈亂。自漢至今二千餘年，讀者皆求之於別用一幅布之中，而註之本義爲其掩蓋而不可見。夫疏，所以釋註也。今推尋鄭註本文其義【《釋義》鄭註本文，■■其義卽本文】如此，而皇氏·熊氏等所釋其謬如彼，皆可以一掃而去之矣。先師晚歲知疏家之失，而未及修定，愚故著鄭註於《家禮·深衣》‘曲裾’之下，以破疏家之謬，且以見先師晚歲已定之說云。”

劉氏 瑋曰：“深衣之制，用白細布，鍛濯灰治，使之和熟。其人肥大則布幅隨而闊，瘦細則幅隨而狹，不必拘於尺寸。‘裳十二幅以應十有二月。’‘袂圓應規’，袂，袖口也。‘曲袷如矩應方’，曲袷者，交領也。‘負繩及踝應直’，負繩，謂背後縫上下相當，而取直如繩之正，非謂用縫爲負繩

『(《釋義》)繩之縫을 又用하야 繩을 負하논디 아니라.』也.
 踝，足跟也。及踝者，裳止其足，取長無被土『(《釋義》)오
 시 기리 사해 쓰이디 아니하단 마리라.』之義。‘下齊如權衡
 應平’，裳下曰齊。【音咨.】齊，緝也。取齊【如字.】平
 若衡，而無低昂參差也。規·矩·繩·權·衡，五法『(《釋義》)
 卽上文所列之制度也.』已施，故聖人服之，先王貴之，可以
 爲文，可以爲武，可以儐相，可以治軍旅。自士以上，深
 衣爲之次『(《講錄》)言次於朝服. (《釋義》)言次於朝服(也).』。
 庶人吉服，深衣而已。夫事尊者，蓋以多飾爲孝。具大父
 母，衣純【音準.】以績【胡對切.】。【純，緣也。績，畫也。畫
 五采以爲文，相次而畫『(《講錄》)疑青·黃·赤·白·黑相次而畫，
 然未詳. (《釋義》)疑(是青·黃·黑·白)相次而畫(也). 然未可知
 也.』。後人有以織錦爲純以代績文者.】具父母，衣純以青。
 孤子純以素。今用黑繪『(《講錄》)猶言今則具父母及孤子，通
 用黑繪. (《釋義》)猶言今則具父母及孤子，通用黑繪(也).』，以
 從簡易也。”

黑緣. 『(《註解》)緣，俗言단이라.』

緣用黑繪。領，表裏各二寸。袂口·裳邊，表裏各一寸半。
 袂口，布外『(《講錄》)스매그데 각별이 黑繪을 如緣廣也. (《註解》)
 疑是袂口，則別於布縫之外，用黑繪爲緣. (《釋義》)疑恐스매단 도로고
 굿데 각별이 黑繪을 如緣之廣하야 드단 마리라.』別此緣之廣。

大帶.

帶用白繒，廣四寸，夾縫之 〔《講錄》用繒四寸，夾縫爲二寸。〕，其長圍腰而結於前，再繚之 〔《註解》再繞而結之。《釋義》다시 가마 띠단 말이라.〕爲兩耳，乃垂其餘爲紳，下與裳齊，以黑繒飾其紳，復以五采條廣三分，約其相結之處，長與紳齊。

緇冠。

糊紙 〔《釋義》조히로 비덥히단 마리라.〕爲之。武高寸許，廣三寸 〔《註解》東西。《釋義》東西曰廣。〕，袞 〔《講錄》南北曰袞。《註解》南北。《釋義》南北曰袞。〕四寸。上爲五梁 〔《講錄》言糊紙爲梁，다슨고들 덥히단 말이라.《註解》以糊紙爲梁，凡爲輓者五也。《釋義》言(以)糊紙爲梁(也)。다슨고들 덥히단 말이라.〕，廣如武 〔《註解》猶관애 편으로 두른 거시라.〕之袞，而長八寸，跨頂前後，下著於武，屈其兩端各半寸，自外向內而黑漆之。武之兩旁半寸之上，竅以受笄。笄用齒·骨凡白物。

幅巾。

用黑繒六尺許，中屈之。右邊就屈處爲橫輓 〔《講錄》마리 덥단 말이라.《註解》마리덥다.《釋義》마리덥단 말이라.〕，左邊反屈之。自輓左四五寸間，斜縫向左圓曲而下，遂循左邊至于兩末，復反所縫餘繒，使之向裏，以輓當額前裹之。至兩鬢旁各綴一帶，廣二寸，長二尺，自巾外過頂後，相結而

垂之.

黑履.

白紵 《(釋義)》紵는 신부우리예 도으로 얼거꾸민 거시라.】·縊
《(釋義)》흔섬의 베워 꾸민 거시라.】·純 《(釋義)》純은 신도른
거시라.】·綦 《(釋義)》綦는 신측의 닥라 신들미는 거시라.】.

劉氏 垓孫曰：“履之有紵，謂履頭以條【《(註解)》如今
동다회之類.】】爲鼻，【《(釋義)》作鼻也.】【或用縉一寸，屈之
爲紵.】所以受繫穿貫者也. 縊，謂履縫中紉【《(講錄)》紉，
《韻會》“施諸縫中也.”《(註解)》《韻會》“施諸縫中.”《(釋義)》《韻
會》(云): “施諸縫中.”】【音旬.】也. 以白絲爲下緣，故謂之
縊. 純者，飾也. 綦屬於跟，所以繫履者也.”

司馬氏居家雜儀

此章本在〈昏禮〉之後〔《釋義》言居家雜儀此章，本在於昏禮之後也。〕。今按，此乃家居平日之事，所以正倫理篤恩愛者，其本皆在於此。必能行此，然後其儀章度數有可觀焉。不然則節文雖具，而本實無取，君子所不貴也，故亦列於首篇，使覽者知所先焉。

凡爲家長，必謹守禮法，以御群子弟及家衆，分之以職，〔謂使之掌倉廩·廐庫·庖廚·舍業〔《講錄》別墅別業也。〕（《釋義》未詳。）·田園之類。〕授之以事，〔謂朝夕所幹〔《釋義》主也。〕及非常之事。〕而責其成功。制財用之節，量入以爲出，稱家〔《釋義》稱， 맞게 하단 마리라.〕之有無，以給〔《釋義》猶足也。〕上下之衣食及吉凶之費，皆有品節而莫不均壹。裁省冗費，禁止奢華，常須稍存贏餘，以備不虞。

凡諸卑幼，事無大小，毋得專行，必咨稟於家長。

《易》曰：“家人有嚴君焉，父母之謂也。”安有嚴君在上，而其下敢直行〔《釋義》猶徑行也。〕自恣不顧者乎？雖非父母，當時爲家長者，亦當咨稟而行之，則號令出於一人，家政始可得而治矣。

凡爲子·爲婦者，毋得蓄私財，俸祿及田宅所入，盡歸之父母·舅姑，當用則請而用之，“不敢私假，不敢私與。〔《釋義》〕假，빌이단 말이요. 與, 주단 말이라.〕”

《內則》曰：“子婦無私貨，無私蓄，無私器，不敢私假，不敢私與。婦或賜之飲食·衣服·布帛·佩悅·茝〔昌改切〕蘭〔《釋義》〕聞香草也.〕，則受而獻諸舅姑。舅姑受之，則喜如新受賜〔《釋義》〕言初受賜於或人之處也.〕，若反賜之，則辭。不得命，如更受賜，藏之以待乏〔《釋義》〕言以待舅姑之用乏絕也.〕。”鄭康成曰：“待舅姑之乏也。不得命者，不見許〔《釋義》〕猶聽許也.〕也。”又曰：“婦若有私親·兄弟將與之，則必復請其故，賜而後與之。”夫人子之身，父母之身也。身且不敢自有，況敢有財帛乎！若父子異財，互相假借，則是有子富而父母貧者·父母飢而子飽者。賈誼所謂“借父耰〔音憂〕鉏，慮有德色〔《釋義》〕慮，其子慮也.〕，母取箕箒，立而誅〔音碎〕語，”不孝不義，孰甚於此？

凡子事父母，〔孫事祖父母同.〕婦事舅姑，〔孫婦亦同.〕天欲明，咸起盥〔音管，洗手也.〕漱，櫛〔阻瑟切，梳頭也.〕總，〔所以束髮，今之頭帶〕〔《講錄》〕丘氏曰：“頭帶，是總，禮經¹⁰⁾所謂‘裂練緇以束髮’，是也。”〔《釋義》〕未詳.〕具冠帶。〔丈夫帽子·衫·帶，婦人冠子·背子.〕昧爽，〔謂天明暗相交之際.〕適父母·舅姑之所，省問。〔丈夫唱喏，

10) 禮經：《家禮儀節》에는 ‘禮註’로 되어 있다.

婦人道萬福，仍問侍者夜來安否何如。侍者曰安，乃退。其或不安節，則侍者以告。此即《禮》之“晨省”也。】

父母·舅姑起，子供藥物，【藥物，乃關身之切務，人子當親自檢數調羹供進，不可但委婢僕。脫若有誤，即其禍不測。】婦具晨羞【《講錄》】如今早飯。《釋義》俗云點心，此早飯（也）。】，【俗謂點心。《易》曰：“在中饋，”《詩》云，“惟酒食是議。”凡烹調飲膳，婦人之職也。近年婦女驕倨，皆不肯入庖廚。今縱不親執刀匕，亦當檢校監視，務令精潔。】供具畢，乃退，各從其事。將食【《釋義》將朝食也。】，婦請所欲於家長，【謂父母·舅姑，或當時家長也。卑幼各不得恣所欲。】退，具而供之。尊長舉筯，子婦乃各退就食。丈夫·婦人各設食於他所，依長幼而坐，其飲食必均壹。幼子又食於他所，亦依長幼席地【《釋義》地上設席而坐也。】而坐，男坐於左，女坐於右。及夕食，亦如之。既夜，父母·舅姑將寢，則安置【《講錄》猶昏定也，非特道安置而已。《註解》即昏定等事也。《釋義》猶昏定等事也，非特道安置而已。】而退。【丈夫唱喏，婦女道安置。此即《禮》之“昏定”也。】居閒無事，則侍於父母·舅姑之所，容貌必恭，執事必謹，言語應對，必下氣怡聲，出入起居，必謹扶衛之【《釋義》言父母舅姑出入·起居·扶衛之時，子婦謹扶持擁衛。】。不敢涕唾·喧呼於父母·舅姑之側。父母·舅姑不命之坐，不敢坐；不命之退，不敢退。

凡子受父母之命，必籍記而佩之，時省而速行之，事畢則返命焉。或所命有不可行者，則和色柔聲具是非利害而白之，待

父母之許，然後改之。若不許，苟於事無大害者，亦當曲從。若以父母之命爲非，而直行己志，雖所執皆是，猶爲不順之子，況未必是乎？

凡父母有過，下氣怡色柔聲以諫。諫若不入，起敬起孝，悅則復諫；不悅，與其得罪於鄉黨州閭，寧熟諫。父母怒不悅而撻之流血，不敢疾怨，起敬起孝。

楊氏復曰：“父母有過，下氣怡聲以諫，所謂‘幾諫’也。父母怒而撻之，猶不敢怨，況下於此者乎？諫不入，起敬起孝，諫而怒，亦起敬起孝，敬孝之外，豈容有他念哉？是說也，聖人著之《論語》矣。”

凡爲人子弟者，不敢以貴富加於父兄宗族。【加，謂恃其富貴，不率卑幼之禮。】

凡爲人子者，出必告，反必面。有賓客，不敢坐於正廳。【有賓客坐於書院。無書院，則坐於廳之旁側。】升降，不敢由東階。上下馬，不敢當廳。凡事，不敢自擬於其父。

楊氏復曰：“告，【工毒反。】告與面同。反言“面”者，從外來，宜知親之顏色安否。爲人親者，無一念而忘其子，故‘有倚閭倚門之望’。爲人子者，無一念而忘其親。故有出告反面之禮。生則出告反面，沒則告行飲至。【《講錄》】《左

傳》：“凡公行，告于宗廟，反行飲至”，言反又告至于廟而飲酒，故曰飲至，是告至之義。（《釋義》未詳。），‘事亡如事存’也。”

凡父母·舅姑有疾，子婦無故不離側，親調嘗藥餌而供之。父母有疾，子色不滿容，不戲笑，不宴遊，舍置餘事，專以迎醫·檢方·合藥。〔（《註解》）檢察醫方而劑藥。（《釋義》）檢，猶察也。方，即醫方也。合藥，猶劑藥也。〕爲務。疾已，復初。〔《顏氏家訓》曰：“父母有疾，子拜醫以求藥。”蓋以醫者親之存亡所繫，豈可傲忽也？”〕

凡子事父母，父母所愛亦當愛之，所敬亦當敬之。至於犬馬盡然，而況於人乎？

楊氏復曰：“孝子愛敬之心無所不至。故父母之所愛敬者，雖犬馬之賤，亦愛敬之，況人乎哉？故舉其尤者言之。若兄若弟，吾父母之所愛也，吾其可以不愛乎？若薄之，是薄吾父母也。若親若賢，吾父母之所敬也，吾其可不敬之乎？若嫚之，是嫚吾父母也。推類而長，莫不皆然。若晉武惑馮統之讒，不思太后之言，而疏齊王攸。〔（《講錄》）攸，即晉武同母弟，太后遺命武帝，保護之，攸賢，帝忌之。及封齊，將歸國，朝廷將賴攸以安，皆以爲不可出，帝尤忌之，馮統讒之，竟遣歸，攸憂懼死。（《釋義》）齊王，即晉武帝同母弟也。太后遺命，武帝使之保護齊王，多有賢德，故時人皆稱美，武帝不能無猜忌。及攸封齊王，將歸國，朝廷之人欲賴攸以安朝廷曰：“齊王賢不可出送。”武帝尤爲忌之，馮統讒之，使歸其國，齊王遂懼而死。〕，唐高宗溺武氏之寵，不念太宗顧託之命，而殺長孫無忌，皆禮經之罪人也。”

凡子事父母，樂其心，不違其志，樂其耳目，安其寢處，以其飲食忠養之。幼事長，賤事貴，皆放此。

劉氏 瑋曰：“樂其心者，謂左右侍養也·晨昏定省也·出入從遊也·起居奉侍也，必當蹟討其心之所好者·所惡者何在，苟非悖乎大義，則蔑不可從，所以安固老者之行
[[《講錄》]]行，去聲，猶事也，即老者之事也。[[《釋義》]]行，去聲，猶事也，即老者之事也。]]，以適其氣 [[《講錄》]]老者之氣也。[[《釋義》]]老者之氣也。]]也。樂其耳目者，非聲色之末也，善言常入於親耳，善行常悅於親目，皆所以樂之也。安其寢處者，謂堂·室·庭除必完潔，簟席·氈褥·衾枕·帳幄必修治之類。”

凡子婦未敬未孝，不可遽有憎疾，姑教之，若不可教，然後怒之；若不可怒 [[《講錄》]]猶言不可以怒教之也。[[《註解》]]猶言不可以怒教之也。[[《釋義》]]猶言不可以怒教之也。]]，然後笞之；屢笞而終不改，子放婦出，然亦不明言其犯禮也。“子甚宜其妻，父母不悅，出。子不宜其妻，父母曰是善事我，子行夫婦之禮焉，沒身不衰。”

凡爲宮室，必辨內外，深宮固門。內外不共井，不共浴堂，不共廁。男治外事，女治內事。男子晝無故不處私室，婦人無故不窺中門。男子夜行以燭。婦人有故出中門，必擁蔽其面。
【如蓋頭 [[《講錄》]]猶너울也。[[《註解》]]猶너울。[[《釋義》]]猶너울。]] 面帽

【《講錄》猶面紗也。《註解》猶面紗也。《釋義》猶面紗。】之類。】男僕非有繕修及有大故，【謂水火·盜賊之類。】不入中門，入中門，婦人必避之，不可避，【亦謂如火火·盜賊之類。】亦必以袖遮其面。女僕無故不出中門，有故出中門，亦必擁蔽其面。【雖小婢亦然。】鈴下 【《註解》門內外懸鈴，有使喚引鈴使之知。《釋義》疑必中門外懸鈴，召奴之時，引鈴使之知也。】蒼頭 【《註解》奴僕以蒼爲巾，故曰蒼頭。】，但主通內外之言，傳致內外之物，毋得輒升堂室入庖廚。

凡卑幼於尊長，晨亦省問，夜亦安置。【丈夫唱喏，婦人道萬福·安置。】坐而尊長過之，則起；出遇尊長於塗，則下馬。不見尊長，經再宿以上，則再拜；五宿以上，則四拜。賀冬至·正旦，六拜；朔望，四拜。凡拜數，或尊長臨時減而止之，則從尊長之命。吾家同居宗族衆多，冬至·朔望，聚於堂上，【此假設南面之堂，若宅舍異制，臨時從宜。】丈夫處左，西上；婦人處右，東上，【左·右，謂家長之左·右。《釋義》言家長坐於堂中，故男女分左右而言也。】皆北向，共爲一列，各以長幼爲序。【婦以夫之長幼爲序，不以身之長幼爲序。】共拜家長畢，長兄立於門之左，長姊立於門之右，皆南向。諸弟·妹以次拜訖，各就列。丈夫西上，婦人東上。共受卑幼拜，【以宗族多，若人人致拜，則不勝煩勞，故同列共受之。】受拜訖，先退。後輩立受拜於門東西如前輩之儀。若卑幼自遠方至，見尊長，遇尊長三人以上同處者，先共再拜，叙寒暄·問起居訖，又三再拜而止。【晨夜，唱喏·萬福·安置。

若尊長三人以上同處，亦三而止，所以避煩。〔《講錄》〕雖或有四五，或有六七，再拜唱喏·萬福安置等事，三度而止，所以避煩也。〔《釋義》〕雖或有四五，或六七，再拜唱喏·萬福安置等事，三度而止，乃所以避煩也。〕也。〕

凡受女壻及外甥 〔《註解》〕姊妹之子。〔《釋義》〕姊妹之子也。女壻亦曰外甥，而此上文有女壻，此必姊妹之子也。〕拜，立而扶之。〔扶，謂擗策。〔《講錄》〕未詳。隆謹按，《韻會》“擗，拘也。又手擗也。策，束勒行者，扶持使進也。”蓋不敢安意立受其拜，以手扶而止之進之也。〔《釋義》〕未詳。〕外孫，則立而受之可也。

凡節序及非時家宴，上壽於家長，卑幼盛服序立如朔望之儀。先再拜，子弟之最長者一人進立於家長之前，幼者一人搢笏執酒盞，立於其左；一人搢笏執酒注，立於其右。長者搢笏跪斟酒，祝曰：“伏願某官 〔《註解》〕指家長。〔《釋義》〕指家長也。〕，備膺五福，保族宜家。”尊長飲畢，授幼者盞·注，反其故處。長者出笏，俛伏興，退，與卑幼皆再拜。家長命諸卑幼坐，皆再拜而坐。家長命侍者徧酌諸卑幼 〔《釋義》〕非特卑幼也，子弟之長者，亦在其中也。〕，諸卑幼皆起序立如前，俱再拜，就坐飲訖，家長命易服，皆退易便服，還復就坐。

凡子始生，若爲之求乳母，必擇良家婦人稍溫謹者。〔乳母不良，非惟敗亂家法，兼令所飼之子性行亦類之。〕子能食，飼之教以右手。子能言，教之自名 〔《講錄》〕言教其自稱己名。〔《釋義》〕言教其

己名。】及唱喏·萬福·安置。稍有知，則教之以恭敬尊長。有不識尊卑長幼者，則嚴訶禁之。【古有胎教，況於已生？子始生未有知，固舉以禮，況於已有知？孔子曰：“幼成若天性 〔《釋義》〕如自然，通言其善惡。〕，習慣如自然。”《顏氏家訓》曰：“教婦初來，教子嬰孩。”故於其始有知，不可不使之知尊卑長幼之禮。若侮詈父母，毆擊兄姊，父母不加訶禁，反笑而獎之，彼既未辨好惡，謂禮當然。及其既長，習以成性，乃怒而禁之，不可復制。於是父疾其子，子怨其父，殘忍悖逆，無所不至。蓋父母無深識遠慮，不能防微杜漸，溺於小慈，養成其惡故也。】

六歲，教之數【謂一十百千萬。】與方名，【謂東西南北。】男子始習書字，女子始習女工之小者。七歲，男女不同席，不共食。始誦《孝經》·《論語》，雖女子，亦宜誦之。自七歲以下，謂之孺子，早寢晏起，食無時。八歲，出入門戶，及即席飲食，必後長者。始教之謙讓。男子誦《尚書》，女子不出中門。

九歲，男子誦《春秋》及諸史，始爲之講解，使曉義理。女子亦爲之講解《論語》·《孝經》及《列女傳》〔《講錄》〕劉向所撰。〔《註解》〕劉向所撰。〔《釋義》〕劉向所撰也。〕·《女戒》〔《講錄》〕曹大家所撰。〔《註解》〕曹大家所撰。〔《釋義》〕（疑）曹大家（之）所撰（也）。〕之類，略曉大意。【古之賢女，無不觀圖史以自鑒，如曹大家之徒，皆精通經術，議論明正。今人或教女子以作歌詩·執俗樂，殊非所宜也。】

十歲，男子出就外傳，居宿於外。讀《詩》·《禮》·《傳》〔《釋義》〕傳，未詳，疑‘傳’字。〕，爲之講解，使知仁義禮智信。自是以往，可以讀《孟》·《荀》·《揚子》，博觀群書。凡所讀

書，必擇其精要〔《釋義》〕如《禮記》中〈學記〉·〈大學〉·〈中庸〉·〈樂記〉篇之類。〕者而讀之。〔如《禮記·學記·大學·中庸·樂記》篇之類。〕他書放此。〕其異端非聖賢之書，傳宜禁之，勿使妄觀以惑亂其志。觀書皆通，始可學文辭。女子則教以婉婉〔婉音晚。婉婉，柔順貌。〕聽從，及女工之大者。〔女工，謂蠶桑·織績·裁縫及爲飲膳，不惟正是婦人之職，兼欲使之知衣食所來之艱難，不敢恣爲奢麗。至於纂組華巧之物，亦不必習也。〕

未冠笄者，質明而起，總角，饋〔饋音悔，洗面也。〕面，以見尊長，佐長者供養。祭祀則佐執酒食。若既冠笄，則皆責以成人之禮，不得復言童幼矣。

凡內外僕妾，雞初鳴，咸起，櫛總·盥漱·衣服。男僕灑掃廳事及庭。鈴下蒼頭灑掃中庭。女僕灑掃堂室，設倚卓〔《註解》倚，交倚。卓，卓子。《釋義》倚，交倚。卓，卓子。〕，陳盥漱·櫛·饋之具。主父·主母既起，則拂牀褰〔褰音壁，疊衣也。〕衾〔《註解》《韻會》：“卷也。又摺疊衣也。”《釋義》《韻會》云：“卷也。”又云：“摺疊衣也。”〕，侍立左右，以備使令，退而具飲食。得間〔《釋義》間，卽間隙也。〕，則浣濯紉〔《講錄》音仁，以縷貫針也。《註解》音仁，以絲貫針也。《釋義》音仁，言以絲貫針也。〕縫，先公後私〔《釋義》公，猶上典之事，私卽奴婢之事。〕。及夜，則復拂牀展衾。當晝，內外僕妾，惟主人之音仁，以縷貫針也。命，各從其事，以供百役。

凡女僕，同輩【謂兄弟所使。】謂長者爲姊；後輩【謂諸子舍 〔《講錄》〕雖同居，諸子所居則各房也。〔《釋義》〕雖同居，諸子所居之各房也。〕所使。】謂前輩爲姨，【《內則》云：“雖婢妾衣服飲食，必後長者。”鄭康成曰：“人貴賤不可以無禮，故使之序長幼。”】務相雍睦。其有鬪爭者，主父·主母聞之，即訶禁之，不止，即杖之。理曲者，杖多。一止一不止，獨杖不止者。

凡男僕，有忠信可任者，重其祿；能幹家事，次之。其專務欺詐，背公徇私，屢爲盜竊，弄權犯上者，逐之。

凡女僕，年滿不願留者，縱之。勤舊少過者，資而嫁之。其兩面二舌，飾虛造讒，離間骨肉者，逐之。屢爲盜竊者，逐之。放蕩不謹者，逐之。有離叛之志者，逐之。

冠禮

冠

楊氏復曰：“有言《書儀》中冠禮簡易可行者。先生曰：‘不獨《書儀》，古冠禮亦自簡易。’”

男子年十五至二十，皆可冠。

司馬溫公曰：“古者二十而冠，皆所以責成人之禮。蓋將責爲人子·爲人弟·爲人臣·爲人少者之行於其人，故其禮不可以不重也。近世以來，人情輕薄，過十歲而總角者少矣。彼責以四者之行，豈知之哉？往往自幼至長，愚騃若一，由不知成人之道故也。今雖未能遽革，且自十五以上，俟其能通《孝經》·《論語》，粗知禮義，然後冠之，其亦可也。”

必父母無壽以上喪，始可行之。

大功未葬，亦不可行。

前期三日主人告于祠堂。

古禮筮日，今不能然，但正月內擇一日可也。主人，謂冠者之祖父，自爲繼高祖之宗子者。若非宗子，則必繼高祖之宗子主之，有故，則命其次宗子若其父自主之。告禮見〈祠堂〉章。祝版前同。但云：“某之子某若某之某親之子某，年漸長成，將以某月某日，加冠於其首。”“謹”以後同。若族人以宗子之命自冠其子，其祝版亦以宗子爲主，曰：“使介子〔《講錄》次子。《釋義》猶次子也。〕某。”

若宗子已孤而自冠，則亦自爲主人。祝版前同，但云：“某將以某月某日，加冠於首。”“謹”以後同。

戒賓。〔《註解》戒，《韻會》：“愼也。”《儀禮》：“警也，告也。”〕

古禮筮賓，今不能然，但擇朋友賢而有禮者一人可也。是日主人深衣詣其門，所戒者〔《註解》指賓也。《釋義》指賓也。〕出見如常儀。啜茶畢，戒者〔《釋義》指主人也。〕起言曰：“某有子某若某子〔《註解》某子，子疑‘之’字。〕某親有子某，將加冠於其首，願吾子〔《釋義》指賓而言也。兩處皆然也。〕之教之也。”對曰：“某不敏，恐不能供事，以病〔《註解》猶辱也。〕吾子，敢辭。”戒者曰：“願吾子之終教之也。”對曰：“吾子重〔《釋義》猶更也。〕有命，某敢不從？”地遠，則書初請之辭爲書，遣子弟致之。所戒者辭，使者固請，乃許而復書曰：“吾子有命，某敢不從？”

若宗子自冠，則戒辭但曰：“某將加冠於首。”後同。

前一日宿賓 《講錄》《儀禮》註：“宿，進也。”〈少牢〉註：“宿之爲言，肅也。肅，進也。”朱子曰：“隔宿戒之”，言隔宿更戒而肅進之也。《註解》宿，卽肅也，進也。猶言使賓齊宿也。《釋義》猶言使賓齋宿也，非謂邀賓而來宿於家也。】

遣子弟以書致辭曰：“來日某將加冠於子某若某親某子某之首，吾子將莅之，敢宿。某上某人。”答書曰：“某敢不夙興 《釋義》言夙興而往也。】？某上某人。”

若宗子自冠，則辭之所改如其戒賓。

陳設。

設盥帨於廳事如祠堂之儀，以帟幕 《講錄》猶遮日。《註解》帟，音革，方遮日也。《釋義》猶遮日也。】爲房於廳事之東北。或廳事無兩階，則以堊 《講錄》白土也。《註解》白土也。《釋義》白土也。】畫而分之。後放此。

司馬溫公曰：“古禮謹嚴之事，皆行之於廟。今人既少家廟，其影堂亦褊隘，難以行禮。但冠於外廳，笄在中堂，可也。〈主冠禮〉《註解》主，當作‘士’。】：‘設洗，直於東榮 《講錄》猶簷下也。《釋義》猶簷下也。】，南北以堂深，水在洗東 《講錄》〈士冠禮〉註：“洗，音鮮，承盥者，棄水器也。”深，申鳩反，凡度深淺曰深，假令堂南北深二丈，堂下洗，北去堂亦二丈，以此爲度。○〈鄉飲酒義〉：“水在洗東，祖天地之左海也。”註：“天地之間，海居東，東則左也。”水則盛之於壺者，蓋

酌之於罍，而滌之於洗，故其水在洗東。〔《釋義》〕未詳。』今私家無罍洗〔《講錄》〕《韻會》：“罍，盥器，畫爲雲雷之象，取其雷震之威，以起敬也。”〔《註解》〕疑是畫以雲雷之罍也。〔《釋義》〕疑必畫雲雷之罍。〕，故但用盥盆·帨巾而已。盥，濯手也。帨，手巾也。廳事無兩階，則分其中央，以東者爲阼階，西者爲賓階。無室無房，則暫以帘幕截，其北爲室，其東北爲房。此皆據廳·堂南向者言之。”

劉氏 璋曰：“〈冠義〉〔《講錄》〕《禮記》篇名。曰：‘冠禮筮日筮賓，所以敬冠事。’冠者，禮之始也，嘉事之重者也。是故古者重冠。重冠，故行之於廟者，所以尊重事。尊重事而不敢擅重事，所以自卑而尊先祖也。〕”

厥明，夙興，陳冠服。

有官者公服·帶·靴·笏，無官者襴衫·帶·靴，通用皐衫·深衣·大帶·履·櫛·帶·掠〔《註解》〕帶·掠，未詳。〔《釋義》〕帶·掠，未詳。〕，皆卓子陳于房中，東領〔《釋義》〕其衣領向東也。〕北上〔《講錄》〕〈士冠禮〉疏：“喪禮服，或西領，或南領，此東領者，嘉禮異於凶禮故也。士之冠時，先用卑服，北上，便也。”〔《釋義》〕북녝크로셔 남녝크로 내노하오단 마리라。〕。酒注·盞盤，亦以卓子陳于服北。幘頭·帽子·冠·笄〔《講錄》〕笄，卽緇布冠之笄也。〔《註解》〕冠，緇布冠也。〔《釋義》〕冠笄，卽緇布冠之笄也。〕·巾，各以一盤盛之，蒙以帕〔《講錄》〕蒙，猶覆，帕，猶袂也。〔《註解》〕帕，猶袂也。〔《釋義》〕蒙，猶覆也。帕，猶袂也。〕，以卓子陳于西階下。執事者一人守之。長子則布席于阼階上之東，少北西向；衆子則少

西南向。

宗子自冠，則如長子之席，少南。

程子曰：“今行冠禮，若制古服而冠，冠了又不常著，却是僞也。必須用時之服。”

主人以下序立。

主人以下，盛服就位。主人阼階下，少東西向。子弟·親戚·僮僕在其後，重行西向北上。擇子弟·親戚習禮者一人爲儐。〔《註解》〕《周禮》出接儐曰儐，通作擯，在主人曰儐，在客曰介。〔《釋義》〕《周禮》註曰：“出接賓”，而儐通作‘擯’。〕，立於門外，西向。將冠者雙紒。〔《講錄》〕紒，音義與髻同，丘氏曰：“雙紒，疑是作兩圓圈子。”〔《註解》〕紒，髻同，丘氏曰：“雙紒，疑是作兩圓圈子。”〔《釋義》〕紒，音義髻同。雙紒，未詳。〕·四袂衫·勒帛。〔《講錄》〕勒帛，疑今之行縛。〕·采屐，在房中南面。若非宗子之子，則其父立於主人之右，尊則少進，卑則少退。

宗子自冠，則服如將冠者，而就主人之位。

賓至，主人迎入升堂。

賓自擇其子弟·親戚習禮者，爲贊冠者，俱盛服至門外，東面立，贊者在右少退。儐者入告主人。主人出門左，西

向，再拜。賓答拜。主人揖贊者。贊者報揖。主人遂揖而行。賓·贊從之。入門，分庭而行，揖讓而至階，又揖讓而升。主人由阼階先升，少東西向。賓由西階繼升，少西東向。贊者盥帨，由西階升，立於房中，西向。僎者筵于東序〔《註解》堂東西牆謂之序。〕，少北西面。將冠者出房，南面。

若非宗子之子，則其父從出迎賓，入從主人，後賓而升，立於主人之右如前。

賓揖將冠者就席，爲加冠巾〔《講錄》緇布冠，幅巾。《釋義》緇布冠，幅巾。〕。冠者適房，服深衣納履，出。

賓揖將冠者出房，立于席右，向席。贊者取櫛·鬋·掠，置于席左，興，立於將冠者之左。賓揖將冠者即席，西向，跪。贊者即席，如其向跪，爲之櫛·合紒·施掠。賓乃降，主人亦降。賓盥畢，主人揖，升復位。執事者以冠巾盤進。賓降一等受冠·笄，執之正容，徐詣將冠者前。向之祝曰：“吉月令日，始加元服〔《註解》元，謂首也。〕，棄爾幼志，順爾成德，壽考維祺，以介景福。”乃跪加之。贊者以巾跪進，賓受加之，興，復位。揖。冠者適房，釋四袂衫，服深衣加大帶納履，出房，正容，南向立良久。

若宗子自冠，則賓揖之就席〔《釋義》指此註上文。〕。賓降盥畢，主人不降〔《釋義》宗子自爲主人，故不降。〕。餘並同。

楊氏 復曰：“《書儀》始加以巾；《家禮》又先以冠·笄，乃加巾者，蓋冠·笄正是古禮。”

再加帽子，服阜衫革帶繫鞋。

賓揖冠者即席，跪。執事者以帽子盤進。賓降二等受之，執以詣冠者前。祝之曰：“吉月令辰，乃申爾服，謹爾威儀，淑慎爾德，眉壽永年，享受遐福。”乃跪加之。興，復位。揖冠者適房，釋深衣，服阜衫革帶繫鞋，出房，立。

楊氏 復曰：“《儀禮》·《書儀》，再加賓盥如初。”

三加幘頭，公服革帶納靴執笏，若襴衫納靴 [[《講錄》]無官者所服，故云‘雖襴衫納靴’。([《釋義》]未詳。)]，

禮如再加。惟執事者以幘頭盤進，賓降沒階 [[《釋義》]沒，猶盡也。서메 다 누리단 마리라.] 受之。祝辭曰：“以歲之正，以月之令，咸加爾服，兄弟具在，以成厥德，黃耆無疆，受天之慶。”贊者徹帽 [[《釋義》]徹，猶收也.]，賓乃加幘頭。執事者受帽，徹櫛，入于房 [[《釋義》]冠者入房也.]。餘並同。

楊氏 復曰。“《儀禮》·《書儀》，三加賓盥如初。”

乃醺。

長子則儻者改席于堂中間，少西南向。衆子則仍故席。贊者酌酒于房中，出房，立于冠者之左。賓揖冠者就席右，南向。乃取酒就席前，北向。祝之曰：“旨酒既清，嘉薦〔《講錄》〈士冠禮〉註：‘嘉，善也。薦，謂脯鹽芳香也。’（《釋義》）嘉薦，即嘉穀也。〕令芳，拜受祭〔《講錄》朱子曰：‘古人祭酒於地，祭食於豆間。’（《釋義》）即祭飯之也。〕之，以定爾祥，承天之休，壽考不忘。”冠者再拜〔《釋義》此拜乃冠者答賓祝辭之拜也。〕，升席，南向，受盞。賓復位，東向答拜。冠者進席前，跪祭酒，興，就席末。跪啐酒〔《講錄》啐，音最，《韻會》：‘先嘗也。’〈雜記〉註：‘啐，七內反，至齒爲啐，入口爲啐。’（《註解》）啐，音最，《韻會》：‘先嘗也。’（《釋義》）啐，音最，《韻會》：‘先嘗也。’〕，興，降席，授贊者盞，南向，再拜。賓東向答拜。冠者遂拜贊者。贊者賓左東向，少退答拜。

司馬溫公曰：“古者冠用醴，或用酒。醴則一獻〔《講錄》醴重於酒故也。（《註解》）醴重於酒故也。（《釋義》）醴重於酒故也。古者只有醴而無酒。〕，酒則三醺。今私家無醴，以酒代之。但改醴辭〔《釋義》‘醴辭’之‘醴’當作‘祝’。〕‘甘醴惟厚’爲‘旨酒既清’耳，所以從簡。”

劉氏 垓孫曰：“其曰醺者，即《禮記》所謂‘醺於客位’〔《講錄》指本註‘堂中間，少西’，此客位也。（《釋義》）指本註‘改席于堂中間，少西’，此客位也。〕，加有成也’。”

賓字冠者。

賓降階，東向。主人降階，西向。冠者降自西階，少東南向。賓字之曰：“禮儀既備，令月吉日，昭告爾字。爰字孔嘉，髦士攸宜，宜之于嘏，永受保之。《（《釋義》）受福而保之也。》。”曰“伯某父。《（《講錄》）曰，賓之言，父，音甫。《（《註解》）賓之言，父，音甫。《（《釋義》）曰，賓之言，父，音甫也。》”，仲·叔·季唯所當。冠者對曰：“某雖不敏，敢不夙承祇奉？”賓或別作辭，命以字之之意，亦可。

出就次 《（《講錄》）出就外次。〈士冠禮〉註：“次，門外更衣處也，必帷幕·葦席爲之。”《（《釋義》）出就外次，疑必有下處之所也。》。

賓請退。主人請禮賓。賓出就次。

主人以冠者見于祠堂。

如〈祠堂〉章內生子而見之儀。但改告辭曰：“某之子某，若某親某之子某，今日冠畢，敢見。”冠者進立於兩階間，再拜。餘並同。

若宗子自冠，則改辭曰：“某今日冠畢，敢見。”遂再拜，降復位。餘並同。

若冠者私室有曾祖·祖以下祠堂，則各因其宗子而見。自爲繼曾祖以下之宗，則自見。

冠者見于尊長。

父母堂中南面坐。諸叔父兄在東序，諸叔父南向，諸兄西向。諸婦女在西序，諸叔母姑南向，諸姊嫂東向。冠者北向拜父母，父母爲之起。同居有尊長，則父母以冠者詣其室拜之，尊長爲之起。還就東西序，每列再拜，應答拜者『（《釋義》）拜者卽當也，平聲。下答字，答拜。』答。若非宗子之子，則先見宗子及諸尊於父者於堂，乃就私室見於父母及餘親。若宗子自冠，有母則見于母如儀。族人宗之者，皆來見於堂上。宗子西向拜其尊長，每列再拜。受卑幼者拜。

司馬溫公曰：“《冠義》曰：‘見於母，母拜之，見於兄弟，兄弟拜之，成人而與爲禮。’（《釋義》猶言더브러.）也.’今則難行，但於拜時，母爲之起立可也。下見諸父及兄，倣此。”

乃禮賓。

主人以酒饌延賓及僮·贊者，酌之以幣。『（《講錄》）酌，音義與酬同。酌之爲言，厚也。（《釋義》）酌與酬，音義皆同。酌之爲言，厚也。』而拜謝之。幣多少隨宜，賓·贊有差。

司馬溫公曰：“《士冠禮》：‘乃禮賓以一獻之禮。’註：‘一獻者，獻酢酌。’（《註解》）主人進杯於客曰獻，客答主人曰酢，主人又酌自飲，又答杯於客曰酌。酌，酬同，酌之爲言，厚也。（《釋

義》)主人進杯於客曰獻，客答杯於主人曰酢，主人酌而自飲，又答拜於客曰酢。』，賓 《《講錄》)恐賓字屬於下句。主人進客曰獻，客答主人曰酢，主人又酌自飲，答杯於客曰酬。《《釋義》)此賓字屬於上句，然以下句‘主人各兩爵’云，則疑恐‘賓’字屬於下句。』主人各兩爵而禮成。’又曰：“‘主人酌賓束帛·儷皮。’註：‘束帛，十端 《《講錄》)即五匹也。言每一匹皆自兩端相捲而爲軸，故以五匹爲十端，此古禮也。《《釋義》)即五疋也。言每一疋皆自兩端相捲而爲軸，故以五疋曰十端，此古禮也。』也。儷皮，兩鹿皮也。’”又曰：“‘贊者皆與 《《講錄》)《禮》註：“贊者，衆賓也。皆與，亦飲酒也¹¹⁾。”〈鄉飲酒禮〉：“賢者爲賓，其次爲介，又其次爲衆賓。”《《釋義》)未詳。』贊冠者爲介。’註：‘介，賓之輔，以贊爲之，尊之也 《《講錄》)言尊其賓也。』。’〈鄉飲酒禮〉：‘賢者爲賓，其次爲介。’”又曰：“‘賓出，主人送于門外，再拜，歸賓俎 《《講錄》)言賓之俎送於賓家。』。’註：‘使人歸諸賓家也。’今慮貧家不能辦，故務從簡易。”

冠者遂出， 見于鄉先生 《《釋義》)即鄉中之先生也。』及父之執友。

冠者拜，先生執友皆答拜。若有誨之，則對如對賓之辭 《《註解》)即上文‘某雖不敏云云。’《《釋義》)見上文。賓字冠者之辭。』，且拜之 《《釋義》)冠者拜先生及父之執友也。』。先生執友不答拜。

11) 亦飲酒也：《儀禮·士冠禮》에는 ‘亦飲酒爲衆賓’으로 되어 있다.

笄

女子許嫁笄 《(《註解》)許嫁，已受納采之禮。》。

年十五，雖未許嫁，亦笄。

母爲主。

宗子·主婦，則於中堂。非宗子而與宗子同居，則於私室。
與宗子不同居，則如上儀。

前期三日戒賓。一日宿賓。

賓亦擇親姻婦女之賢而有禮者爲之。以牋紙書其辭，使人致之。辭如〈冠禮〉，但‘子’作‘女’，‘冠’作‘笄’，‘吾子’作‘某親’或‘某封’。

凡婦人自稱，於己之尊長則曰‘兒’，卑幼則以屬 《(《講錄》)屬，‘親屬’之‘屬’也。或姑或姊之類。《(《釋義》)卑幼，親屬之屬已。若祖行則曰祖母已；若叔母行則曰叔母已；若兄行則曰兄之類也。》；於夫黨，尊長則曰‘新婦’ 《(《講錄》)雖非初嫁，婦人例稱，非獨笄時之稱也。《(《釋義》)雖非初嫁之女，於夫黨則以新婦自稱。新婦自稱以上，此等之事，婦人之例稱，非獨謂笄時之稱也。》’，卑幼則曰‘老婦’；非親戚而往來者，各以其黨 《(《講錄》)黨，如丘氏所稱“辱交某氏，

啓某氏某封”者是. (《釋義》)黨，疑類也，而未詳.] 爲稱. 後倣此.

陳設.

如〈冠禮〉，但於中堂布席如衆子之位.

厥明，陳服.

如〈冠禮〉，但用背子冠笄.

序立.

主婦如主人之位. 將笄者雙紒·衫子，房中南面.

賓至，主婦迎入升堂.

如〈冠禮〉，但不用贊者. 主婦升自阼階.

賓爲將笄者加冠笄. 適房，服背子.

略如〈冠禮〉. 但祝用始加之辭，不能則省 [(《講錄》)省祝辭也. (《註解》)省，猶減也. (《釋義》)省，猶減也，省其祝辭也.] .

乃醺。

如〈冠禮〉，辭亦同。

乃字。

如〈冠禮〉，但改祝辭“髦士”爲“女士”。

乃禮賓，皆如冠儀。

程子曰：“冠禮廢，天下無成人。或欲如魯襄公十二而冠，此不可。冠所以責成人事，十二年非可責之時。既冠矣，且不責以成人事，則終其身不以成人望之也。徒行此節文，何益？雖天子諸侯，亦必二十而冠。”

劉氏璋曰：“笄，今簪也，婦人之首飾也。女子笄，則當許嫁之時。然嫁止於二十，以其二十而不嫁，則爲非禮。”

昏禮 〔(《註解》)昏者，娶妻之禮，以昏爲期，因名焉。必以昏者，取陽往陰來之義。〈士昏禮〉曰：“凡行事必用昏昕”，疏曰：“用昕，謂男使向女家，納采·問名·納吉·納徵·請期五者，皆用昕。”即《詩》所謂“旭日始朝。”〕

議昏

男子年十六至三十，女子年十四至二十。

司馬溫公曰：“古者男三十而娶，女二十而嫁。今令文男年十五，女年十三以上，並聽昏嫁。今爲此說，所以參古今之道，酌禮令之中，順天地之理，合人情之宜也。”

身及主昏者無朞以上喪，乃可成昏。

大功未葬，亦不可主昏。

凡主昏如冠禮主人之法。但宗子自昏，則以族人之長爲主。

必先使媒氏往來通言，俟女氏許之，然後納采。

司馬溫公曰：“凡議昏姻 〔(《註解》)壻於婦家曰婚，婦於壻家曰姻。〕，當先察其壻與婦之性行及家法何如，勿苟慕其富貴。

壻苟賢矣，今雖貧賤，安知異時不富貴乎？苟爲不肖，今雖富盛，安知異時不貧賤乎？婦者，家之所由盛衰也。苟慕其一時之富貴而娶之，彼挾其富貴，鮮有不輕其夫而傲其舅姑，養成驕妬之性，異日爲患，庸有極乎？借使因婦財以致富，依婦勢以取貴，苟有丈夫之志氣者，能無愧乎？又世俗好於襁褓童幼之時，輕許爲昏，亦有指腹爲昏〔《釋義》言指孕胎之子女，約爲婚姻也。〕者，及其既長，或不肖無賴，或身有惡疾，或家貧凍餒，或喪服相仍，或從宦遠方，遂至棄信負約，逮獄致訟者多矣。是以先祖太尉〔《講錄》即溫公之祖父，名炫，《釋義》即溫公之祖父也，其名未詳。〕嘗曰：‘吾家男女，必俟既長，然後議昏，既通書，不數月必成昏，故終身無此悔’，乃子孫所當法也。”

納采

納其采擇之禮〔《講錄》猶言取而擇之也。《註解》猶言采取而擇也。《釋義》猶言取而擇之也。〕，即今世俗所謂言定也。

主人具書，

主人，即主昏者。書用牋紙，如世俗之禮。若族人之子，則其父具書告于宗子。

夙興，奉以告祠堂。

如告冠儀。其祝版前同。但云：“某之子某，若某之某親之子某，年已長成，未有伉儷。已議娶某官某郡〔《釋義》郡，即所居之郡也。〕姓名之女，今日納采，不勝感愴。”‘謹’以後同。

若宗子自昏，則自告。

乃使子弟爲使者如女氏。女氏主人出見使者。

使者盛服如女氏。女氏亦宗子爲主。主人盛服出見使者。非宗子之女，則其父位於主人之右，尊則少進，卑則少退。啜茶畢，使者起致辭曰：“吾子有惠貺〔《釋義》貺，猶賜也。〕室〔《釋義》猶妻也。〕某〔《釋義》即將爲壻者也。〕也，某之某〔《釋義》此即使者自謂也。〕親某官有先人之禮〔《釋義》疑即下文‘父命之辭曰承我宗事’之義，然未詳。〕，使某請納采。”從者〔《釋義》即從使者也。從，去聲。〕以書進，使者以書授主人。主人對曰：“某之子〔《釋義》某，即女子。〕若妹·姪·孫蠢愚，又弗能教，吾子命之，某不敢辭。”北向再拜。使者避，不答拜。使者請退，俟命，出就次。若許嫁者於主人爲姑姊，則不云“蠢愚，又弗能教”。餘辭並同。

遂奉書以告于祠堂。

如壻家之儀。祝版前同，但云：“某之第幾女，若某親某之第幾女，年漸長成，已許嫁某官某郡姓名之子，若某親某，今日納采，不勝感愴。”“謹”以後同。

出以復書授使者，遂禮之。

主人出，延使者升堂，授以復書。使者受之，請退。主人請禮賓，乃以酒饌禮使者。使者至是始與主人交拜揖如常日賓客之禮。其從者亦禮之別室。皆酌以幣。『（《註解》）此一節，《儀禮》無之。』

使者復命壻氏，主人復以告于祠堂。

不用祝。

納幣 『（《註解》）大明定昏禮，綵段，一品至四品，不過八匹；

五品至九品，四匹·二匹而已，上不得兼，下不得僭。』

古禮有問名·納吉，今不能盡用，止用納采·納幣，以從簡便。

納幣。

幣用色繒，貧富隨宜，少不過兩，多不踰十。今人更用釵·釧·羊〔《講錄》〕釧，音薦，臂環也。羊，卽羔羊之羊。《註解》〕釧，音薦，臂環也。《釋義》〕釧，音薦，擘環也。羊，卽羔羊之羊(也)。〕·酒·果實之屬，亦可。

具書，遣使〔《註解》〕當書曰：“伏惟某辰，尊履萬相，僕之子某，年既長成，未有伉儷，今承嘉命，許以令女貺室，擇卜叶吉，敬遣使者，行納幣之禮。”如女氏，女氏受書，復書，禮賓，使者復命，並同納采之儀。

禮如納采，但不告廟。使者致辭，改‘采’爲‘幣’。從者以書·幣進。使者以書授主人。主人對曰：“吾子〔《釋義》〕指女氏之主人也。〕順先典〔《釋義》〕從先人之典法也。〕，貺某重禮，某不敢辭，敢不承命？”乃授書〔《釋義》〕授，《性理大全》作‘受’。〕，執事者受幣。主人再拜。使者避之，復，進請命。主人授以復書。餘並同。

楊氏復曰：“昏禮有納采·問名·納吉·納徵〔《釋義》〕徵，成也，使者納幣以成昏禮也。〕·請期·親迎六禮。《家禮》略去問名·納吉，止用納采·納幣，以從簡便。但親迎以前更有請期一節，有不可得而略者。今以例推之，請期具書，遣使如女氏，女氏受書，復書，禮賓，使者復命，並同納采之儀。使者致辭曰：‘吾子有賜命，某既申受命矣，使某也請吉日。’主人曰：‘某既前受命矣，惟命是聽。’賓曰：‘某

命某，聽命於吾子.’主人曰：‘某固惟命是聽.’賓曰：‘某受命吾子不許，某敢不告期?’曰：‘某日.’主人曰：‘某敢不謹須’[[《講錄》]〈士昏¹²⁾禮〉註：“須，待也.”(《釋義》)須，待也.]]’餘並同.”

親迎

朱子曰：“親迎之禮，恐從伊川之說爲是。近則[[《講錄》]‘近則’以下，皆伊川說。(《註解》)此下皆伊川說。(《釋義》)‘近則迎於’以下，皆伊川說.‘一則’，言此有二義，故曰親迎.]]迎於其國，遠則迎於其館.”

“今妻家遠，要行禮，一則令妻家就近處設一處，却就彼往迎歸館[[《註解》]館，卽上所謂‘設一處’也。(《釋義》)館，卽上所謂‘一處’也.]]行禮。一則妻家出至一處，壻即就彼迎歸至家[[《釋義》]還歸其館.]]成禮.”

有問昏禮：“今有士人對俗人結姻，士人欲行昏禮，而彼家不從，如何?”曰：“這也[[《講錄》]也，《語錄》“猶亦也.”(《釋義》)《語錄》：“也，猶亦也.”]]只得宛轉使人去與他[[《註解》]《語錄》“他指俗人”，去하야 他와 다못.(《釋義》)《語錄》：“指俗人.”去하야 他와 다못.]]商量[[《釋義》]猶議論也.]].但古禮也省徑，人何故不行?”

前期一日，女氏使人[[《註解》]疑是女氏之家，使人陳壻室于其壻之家也.]]張陳其壻之室[[《釋義》]疑是女氏之家，使陳壻室於其壻之

12) 昏：《儀禮·士冠禮》의 鄭玄註에 나오는 말이므로 ‘冠’의 오기이다.

家也.』 .

世俗謂之鋪房. 然所張陳者, 但氈褥·帳幔·帷幙應用之物. 其衣服鎖之篋笥, 不必陳也.

司馬溫公曰: “文中子曰: ‘昏娶而論財, 夷虜之道也.’ 夫昏姻者, 所以合二姓之好, 上以事宗廟, 下以繼後世也. 今世俗之貪鄙者, 將娶婦, 先問資裝之厚薄; 將嫁女, 先問聘財之多少. 至於立契約云‘某物若干’〔(《釋義》)若干, 猶言아마만.〕, 某物若干’, 以求售其女者, 亦有既嫁而復欺給負約者. 是乃駟儻〔(《講錄》)駟, 音奘, 猶즈름하느 사람. (《註解》)駟, 音裝, 如今즈름人也. (《釋義》)駟, 音壯. 猶言즈름하느 사람(이라).〕賣婢鬻奴之法, 豈得謂之士大夫昏姻哉? 其舅姑既被欺給, 則殘虐其婦, 以攄其忿. 由是愛其女者, 務厚其資裝, 以悅其舅姑者, 殊不知彼貪鄙之人不可盈厭, 資裝既竭, 則安用汝女哉? 於是質其女以責貨於女氏, 貨有盡而責無窮, 故昏姻之家, 往往終爲仇讎矣. 是以世俗生男則喜, 生女則戚, 至有不舉其女〔(《講錄》)舉, 猶養也. (《註解》)舉, 猶收而養之也. (《釋義》)舉, 猶收而養之也.〕者, 用此故也. 然則議昏姻有及於財者, 皆勿與爲昏姻可也.”

厥明, 壻家設位于室中.

設倚·卓子兩位, 東西相向. 蔬果·盤盞·匕筯如賓客之禮.

酒壺在東位之後，又以卓子置合盞一於其南。又南北設二盃·盆·勺於室東隅。又設酒壺·盞·注於室外或別室，以飲從者。

盞音謹。以小匏一，判而兩之。

女家設次于外 〔《講錄》〕即女家之外。〔《釋義》〕即女家之外(也)。〕。

初昏，婿盛服。〔《註解》〕程子曰：“昏禮，雖云初昏，然當量居遠近。”〕

世俗新婿帶花勝 〔《講錄》〕帶，猶插也。《荊楚歲時記》：“人日翦綵爲花勝而以相遺，後人因以帖首以爲飾。”○〈相如傳〉：“勝者¹³⁾，婦人首飾，漢代曰¹⁴⁾華勝。”勝，去聲。〔《註解》〕帶，猶插也。花，即幡勝，如今立春，頒賜侍臣者也。〔《釋義》〕帶，猶插也，花，即幡勝，如今立春之日，頒賜侍臣也。〕，擁蔽其面 〔《講錄》〕恐非以花勝蔽面，別作一物以蔽之。〔《釋義》〕疑恐非花勝擁蔽其面，別作一物以蔽之(也)。〕，殊失丈夫之容體，勿用可也。

朱子曰：“昏禮用命服 〔《講錄》〕大夫之服。〔《釋義》〕大夫之服也。〕，乃是古禮，如士乘墨車而執鴈，皆大夫之禮也。冠帶只是燕服，非所以重正昏禮，不若從古之爲正。”

黃氏 瑞節曰：“〈士昏禮〉謂之攝盛，蓋以士而服大夫之服，乘大夫之車，則當執大夫之贄也。”

13) 勝者：《史記》에는 ‘勝’으로 되어 있다.

14) 曰：《史記》에는 ‘謂之’로 되어 있다.

主人告于祠堂.

如納采儀. 祝版前同, 但云: “某之子某, 若某親之子某, 將以今日親迎于某官某郡某氏, 不勝感愴.” ‘謹’以後同.
若宗子自昏, 則自告.

朱子曰: “《儀禮》雖無娶妻告廟之文, 而《左傳》曰‘圍布几筵’ [《講錄》] 15), 楚公子名. 布, 猶鋪也. (《釋義》) 圍, 楚公子(也). 名(圍)也. 布, 猶鋪也.], 告於莊共之廟, 是古人亦有告廟之禮.” 問: “今婦人入門即廟見, 蓋舉世行之. 近見鄉里諸賢, 頗信左氏 [《講錄》] 世俗不察左氏先配後祖之說, 譏當時之失禮, 頗信而行之. (《釋義》)未詳.] 先配後祖 [《註解》]《左傳》: “鄭公子忽, 如陳逆婦, 先配而後祖.” 註: “禮逆婦, 必先告祖廟而16)行, 楚公子圍稱告莊公之廟, 今鄭忽先逆婦而後告廟, 故曰先配而後祖.”] 之說, 豈後世紛紛之言不足據, 莫若從古爲正否?” 曰: “左氏固難盡信. 然其後說親迎處 [《講錄》] 亦左氏說親迎處也. (《釋義》)亦左氏說親迎處也.], 亦有布几筵告廟而來之說, 恐所謂‘後祖’者, 譏其失此禮耳.”

遂醺其子而命之迎.

先以卓子設酒注·盤盞於堂上. 主人盛服坐於堂之東序,

15) 圍: 《家禮》에는 ‘圍’로 되어 있다.

16) 而: 《左傳》에는 ‘而後’로 되어 있다.

西向。設壻席於其西北，南向。壻升自西階，立於席西，南向。贊者取盞斟酒，執之詣壻席前。壻再拜，升席，南向。受盞，跪祭酒。興，就席末，跪啐酒。興，降席西，授贊者盞。又再拜，進詣父坐前，東向，跪。父命之曰：“往迎爾相[[《釋義》見《小學》。]]，承我宗事，勉率以敬，若則[[《講錄》네곧. (《釋義》네곧.]]有常。”壻曰：“諾，惟恐不堪，不敢忘命。”俛伏興，出。非宗子之子，則宗子告于祠堂，而其父醺于私室如儀。但改‘宗事’爲‘家事’。

若宗已孤而自昏，則不用此禮。

司馬溫公曰：“贊者，兩家各擇親戚婦人習於禮者爲之。凡壻及婦人行禮，皆贊者相導之。”

壻出乘馬。

以燭前導[[《釋義》《性理大全》‘燭’字上有‘二’字。(二燭通言炬也。)]]。

至女家，俟于次。

壻下馬于大門外，入俟于次。

女家主人告于祠堂。

如納采儀。祝版前同，但云：“某之第幾女，若某親某之第幾女，將以今日歸于某官某郡姓名，不勝感愴。”“謹”以後同。

遂醺其女而命之。

女盛飾，姆相之，立於室外〔《釋義》即堂也。〕，南向。父坐東序，西向；母坐西序，東向。設女席於母之東北，南向，贊者醺以酒如壻禮。姆導女出於母左，父起命之曰：“敬之戒之，夙夜無違舅姑之命。”母送至西階上，爲之整冠斂帔〔《講錄》〕帔，裙也。《蒼梧雜志》：“婦人禮服，有橫帔·直帔，陳魏之間，謂裙謂¹⁷⁾帔。”《韻會》：“帔或作被。”《詩》“被之僮僮”，註：“首飾也。”（《註解》）帔，披義切，《方言》：“謂裙爲帔。”裙，繞衿也。衿，音領。《方言》：“袒飾謂¹⁸⁾直領，乃婦人初¹⁹⁾上服²⁰⁾也。”按此數說，裙非下裳也，亦非親身衣也。別是一物。〔《釋義》婦人服飾。〕，命之曰：“勉之敬之，夙夜無違爾閨門之禮。”諸母·姑·嫂·姊送至於中門之內，爲之整裙衫，申以父母之命曰：“謹聽爾父母之言，夙夜無愆。”非宗子之女，則宗子告于祠堂，而其父醺於私室如儀。

17) 謂：《方言》에는 ‘爲’로 되어 있다.

18) 謂：《方言》에는 ‘謂之’로 되어 있다.

19) 初：《方言》에는 ‘初嫁所著’으로 되어 있다.

20) 上服：《方言》에는 ‘上衣直領’으로 되어 있다.

主人出迎壻，入奠鴈。

主人迎壻于門外，揖讓以入。壻執鴈以從，至于廳事。主人升自阼階，立，西向。壻升自西階，北向，跪，置鴈於地。主人侍者受之。壻俛伏，興，再拜。主人不答拜。若族人之女，則其父從主人出迎，立於其右，尊則少進，卑則少退。

凡贄用生鴈，左首以生色繪 〔《講錄》〕《補註》：“生，恐‘五’字之誤。”（《釋義》）生，不熟也。色，有色也。〕交絡之，無則刻木爲之，取其順陰陽往來之義。程子曰：“取其不再偶也。”

問：“主人揖壻入，壻北面而拜，主人不答拜，何也？”
朱子曰：“乃爲尊鴈而拜，主人自不應答拜。”

姆 〔《註解》〕乳母也。（《釋義》）猶乳母也。〕 奉女出，登車。

姆奉女出中門。壻揖之 〔《註解》〕請女行也。〕降自西階。主人不降。壻遂出，女從之。壻舉轎簾以俟。姆辭曰：“未教，不足與爲禮也。”女乃登車。

壻乘馬，先婦車 〔《註解》〕先，去聲。〕。

婦車亦以二燭前導。

司馬溫公曰：“男率女，女從男。夫婦剛柔之義自此始也。”

至其家，導婦以入。

壻至家，立于廳事，俟婦下車，揖之導以入。

壻婦交拜。

婦從者布壻席於東方，壻從者布婦席於西方。壻盥于南，婦從者沃之進悅。婦盥于北，壻從者沃之進悅。壻揖婦就席。婦拜，壻答拜。

司馬溫公曰：“從者皆以其家女僕爲之。女從者沃，壻盥於南。壻從者沃，女盥於北。夫婦始接，情有廉恥，從者交導其志。”

“女子與丈夫爲禮，則俠【音夾】拜。男子以再拜爲禮，女子以四拜爲禮。古無壻婦交拜之儀。今從俗。”

就坐飲食畢，壻出。

壻揖婦就坐，壻東婦西。從者斟酒設饌。壻婦祭酒舉殽
[[《講錄》]非舉而食之。《家禮補註》：“置卓子上空處。”〈士昏禮〉疏：“舉謂舉肺。”（《釋義》）非謂舉而食之，如祭酒之類也。《家禮補註》云：

“各以殼小許，置卓子上空處也。”】。又斟酒，壻揖婦舉飲，不祭無殼。又取盃【《註解》先以賓禮酌獻，後以盃者，示夫婦一體也。《釋義》先以賓禮酌獻，後以盃者，示其夫婦一體也。】分置壻婦之前，斟酒。壻揖婦舉飲，不祭無殼。壻出，就他室。姆與婦留室中。徹饌置室外【《釋義》置其饌於室外，又設席而使從者坐之也。】，設席。壻從者餽婦之餘。婦從者餽壻之餘。

司馬溫公曰：“古者同牢【《講錄》〈王制〉註：“牢者，圈也。以能有所畜，故所畜之牲，皆曰牢。”○〈昏義〉註：“共牢而食，同食一牲，有同尊卑之義。”《釋義》牢，疑必羔也。一牢奠於夫婦之前也。】之禮，壻在西東面，婦在東西面。蓋古人尚右，故壻在西，尊之也。今人既尚左，且從俗。”

劉氏 璋曰：“《儀禮》疏云：‘盃，謂牢²¹⁾瓢。以一匏分爲兩瓢，謂之盃。壻之與婦，各執一片以醕【《註解》醕，演也，安也。壻禮畢而將息。《釋義》醕，卽今之筵也。醕，音인，或윤。】，故云“合盃而醕”。’”

《昏義》曰：“婦至，壻揖婦以入，共牢而食，合盃【《講錄》〈昏義〉註：“合盃有合體之義。盃，謂牢瓢，一匏分爲兩瓢。”】而醕，所以合體同尊卑，以親之也。”

復入，脫服燭出。【《釋義》壻禮畢將卧息也。《儀禮·士昏禮》註。】壻脫服，婦從者受之；婦脫服，壻從者受之。

司馬溫公曰：“古詩云‘結髮爲夫婦’，言自小年束髮卽爲夫婦，猶李廣言結髮與匈奴戰也。今世俗昏姻乃有結髮之

21) 牢：《儀禮》에는 ‘牢’으로 되어 있다.

禮，謬誤可笑，勿用可也。”

主人禮賓。『《《註解》》賓，卽從者。』

男賓於外廳，女賓于中堂。古禮明日饗從者『《《註解》》在舅姑饗婦之後。』。今從俗。

司馬溫公曰：“‘不用樂。’註云：‘〈曾子問〉曰：“娶婦之家，三日不舉樂，思嗣親也。”今俗昏禮用樂，殊爲非禮。”

婦見舅姑

明日夙興，婦見于舅姑。

婦夙興盛服俟見。舅姑坐於堂上，東西相向。各置卓子於前。家人男女少於舅姑者立於兩序如冠禮之叙。婦進立於阼階下，北面，拜舅，升，奠贄幣于卓子上。舅撫之『《《講錄》》撫其幣帛。《《釋義》》撫其贄幣。』，侍者以入『《《釋義》》言奉其贄幣而入也。』。婦降，又拜畢，詣西階下，北面，拜姑，升，奠贄幣。姑舉以授侍者。婦降，又拜。

若非宗子之子而與宗子同居，則先行此禮於舅姑之私室；與宗子不同居，則如上儀。

司馬溫公曰：“古者拜于堂上，今拜于下，恭也。可從衆。”

舅姑禮之。〔《釋義》〕即醴之之禮也。婦道新成，親厚之也。〕

如父母醮女之儀。

婦見于諸尊長。

婦既受禮，降自西階。同居有尊於舅姑者，則舅姑以婦見於其室如見舅姑之禮。還，拜諸尊長于兩序如冠禮無贅。小郎 〔《註解》〕夫之弟。〔《釋義》〕夫弟也。〕·小姑 〔《講錄》〕小郎，夫之弟，小姑，夫之妹。〔《註解》〕夫之妹。〔《釋義》〕夫妹也。〕，皆相拜。非宗子之子而與宗子同居，則既受禮 〔《註解》〕婦受舅姑之禮。〔《釋義》〕言婦受舅姑之禮也。〕，詣其堂 〔《講錄》〕詣宗子之堂，拜宗子也。〔《釋義》〕詣其宗子之堂而拜宗子也。〕上拜之如舅姑禮，而還見于兩序。其宗子及尊長不同居，則廟見而後往。

若冢婦，則饋于舅姑 〔《註解》〕饋者，婦道既成，以孝養也。〕。

是日食時，婦家具盛饌·酒壺。婦從者設蔬果卓子于堂上舅姑之前，設盥盆于阼階東南，悅架在東。舅姑就坐。婦

盥，升自西階。洗盞，斟酒，置舅卓子上，降，俟舅飲畢，又拜。遂獻姑，進酒，姑受飲畢，婦降，拜。遂執饌，升，薦于舅姑之前，侍立姑後，以俟卒食，徹飯。侍者徹饌，分置別室。婦就餽姑之餘，婦從者餽舅之餘，壻從者又餽婦之餘。非宗子之子，則於私室如儀。

司馬溫公曰：“〈士昏禮〉：‘婦盥饋，特豚’〔《註解》〕一豚也。〔《釋義》〕言一豚也。〕合升〔《講錄》〕〈士昏禮〉註：“合左右肸，升於鼎也。”〔《註解》〕合左右肸，升於鼎也。〔《釋義》〕合，疑必肸의 升호야.〕側載.’註：‘側載者，右肸’〔《講錄》〕〈士昏禮〉疏：“周人尙右，故右肸載之舅俎。”〔《註解》〕豚之半體也。〔《釋義》〕豚之半體也。〕載之舅俎，左肸載之姑俎.’今恐貧者不辦殺特，故但具盛饌而已。”

舅姑饗之。〔《註解》〕此乃答禮，以侑曰食，勞人曰饗。〔《釋義》〕此乃答禮。〕

如禮婦之儀。禮畢，舅姑先降自西階。婦降自阼階〔《釋義》〕以著代也。〕。

廟見

三日，主人以婦見于祠堂。

古者三月而廟見，今以其太遠，改用三日如子冠而見之

儀。但告辭曰：“子某之婦某氏敢見。”餘並同。

壻見婦之父母

明日，壻往見婦之父母。

婦父迎送揖讓如客禮，拜即跪而扶之。入見婦母，婦母闔門左扉，立于門內，壻拜于門外，皆有幣。《（《註解》）《儀禮》無之，只有贄。贄，冬用雉，夏用脰，脰乾雉也。》。婦父非宗子，即先見宗子夫婦，不用幣如上儀，然後見婦之父母。

次見婦黨諸親。

不用幣。婦女相見如上儀。

婦家禮壻如常儀。

親迎之夕，不當見婦母及諸親，及設酒饌，《（《講錄》）言爲壻而設也。上文‘不當’之義止此。《（《釋義》）言爲壻而設也。上文‘不當’之義止此。》以婦未見舅姑故也。

程子曰：“昏禮不用樂，幽陰 《（《講錄》）〈郊特牲〉註：“幽，

深也。”疏：“用樂則令婦志意動散，不能深思陰靜之義，以修婦道也。”（《釋義》）未詳。』之義’，此說非是。昏禮豈是幽陰？但古人重此大禮，嚴肅其事，不用樂也。‘昏禮不賀，人之序也’，此說却是。婦質明而見舅姑，成婦也。三日而後宴樂，禮畢也。宴不以夜，禮也。”

朱子曰：“人著書，只是自入些己意，便做病。司馬與伊川定昏禮，都依《儀禮》，只略改一處，便不是古人意。司馬云：‘親迎奠鴈，見主昏者即出。’伊川却教拜了，又入堂拜大男（《講錄》疑妻娣。《註解》疑妻男。《釋義》疑妻男。）小女（《講錄》疑妻弟。《註解》疑妻弟。《釋義》疑妻弟。），伊川非是。伊川云：‘婦至次日見舅姑，三月廟見。’司馬却說婦入門即拜影堂，司馬非是。蓋親迎不見妻父母者，婦未見舅姑也；入門不見舅姑者，未成婦也。今親迎用溫公，入門以後用伊川。‘三月廟見’改爲‘三日’云。”

家禮 卷之三

喪禮

初終 〔(《釋義》)言始死也。〕

疾病，遷居正寢。

凡疾病，遷居正寢 〔(《釋義》)古之堂屋，三間五架。中架以南三間，通長爲堂，以北三間，用板隔斷，東西二間爲房，中間爲室，卽正寢也。室之南北有牖，病居北牖下，君視之，則遷南牖下。然所謂‘遷居正寢’者，唯家主爲然，餘人則各遷於其所居之地。〕，內外安靜，以俟氣絕。“男子不絕於婦人之手，婦人不絕於男子之手。”

既絕乃哭。〔(《釋義》)《喪大記》：“始死，遷尸于牀，幬用斂衾，去尸衣。小臣楔齒用角柶，綴足用燕几，君·大夫·士一也。”註：“幬，覆也。斂衾，擬爲大斂之衾也。先時徹褻衣而加新衣以死，今覆以衾而去死時之衣也。楔，拄也，以角爲柶，長六寸，兩頭屈曲。爲將含，恐口閉，故以柶拄齒，令開而受含也。尸應著屨，恐足辟戾，故以燕几拘綴之，令直也。〔按，此當在‘既絕乃哭’下。〕〕

司馬溫公曰：“疾病，謂疾甚時也。近世孫宣公 〔(《講錄》)孫奭。〔(《釋義》)孫奭，博平人。以九經及第，眞宗朝爲待制，召問天書，對曰“天何言哉，豈有書哉？”後諡曰宣。〕臨薨，遷

于外寢，蓋君子謹終不得不爾也。”

高氏 《〔《釋義》〕宋人，著《送終禮》。朱子喪禮多取其說。〕》曰：“廢牀寢於地’註：‘人始生在地，故廢牀寢於地，庶其生氣之復也。’本出《儀禮》及《禮記·喪大記》。”

劉氏 璋曰：“凡人病危篤，氣微難節 《〔《講錄》〕節，猶候也。《〔《釋義》〕言氣息甚微難節，其氣盡也。節，猶候也。〕》，乃‘屬續以俟氣絕。’‘續乃今之新綿，易爲搖動。置口鼻之上以爲候也。’”

復。《〔《講錄》〕返也。《〔《註解》〕返也，招魂以復魄，冀其復生也。《〔《釋義》〕冀其復生也。〕》

侍者一人以死者之上服嘗經衣者，左執領 《〔《註解》〕左，陽也。陽主於生，故用左也。《〔《釋義》〕左，陽。살기를 主호故 左를 쓰니라.〕》，右執要，自前榮 《〔《釋義》〕榮，屋翼也。〕》升屋中霤 《〔《釋義》〕류는 집우 가온더라.〕》，北面招以衣，三呼 《〔《釋義》〕三呼者，一呼於上，冀魂自天而來；一呼於下，冀魂自地而來；一呼於中，冀魂自天地四方之間而來也。〕》曰：‘某人復。’畢，卷衣，降，覆尸上。男女哭擗 《〔《釋義》〕가슴쭈드리는 양이라.〕》無數。

上服，謂有官則公服，無官則襴衫·皂衫·深衣；婦人大袖·背子。呼某人者，從生時之號。

司馬溫公曰：“〈士喪禮〉 《〔《釋義》〕《儀禮》篇名。〕》，‘復 《〔《釋義》〕註：“復者，有司招魂復魄也。”疏：“出入之氣謂之魂，耳目聰明謂之魄。死者鬼¹⁾神去離於魄，今欲招取魂來復歸於魄，

故云：‘招魂復魄也.’”】者一人升自前東榮中屋 [[《釋義》]中屋， 짐물리라.]，北面招以衣，曰‘皋某復 [[《講錄》]〈喪大記〉註：“皋，長聲也.”]] ’三.’ 註：‘皋，長聲也.’ 今升屋而號，慮其驚衆，但就寢庭之南，男子稱名，婦人稱字. 或稱官封，或依常時所稱.”

高氏曰：“今淮南風俗，民有暴死，則使數人升其居屋，及於路傍徧呼之，亦有蘇活者，豈復之餘意歟.”

劉氏 瑋曰：“〈喪大記〉曰：‘凡復，男子稱名 [[《釋義》]朱子曰：“大夫以下，皆稱名也.”]]，女人稱字.’ 復聲必三者，禮成於三也.”

立喪主·

凡主人，謂長子. 無則長孫承重，以奉饋奠 [[《釋義》]非謂自成服前奉饋奠也，通言三年之內也.]]，其與賓客爲禮，則同居之親且尊者主之 [[《講錄》]喪主名同，而實則二人也. ([《釋義》]喪主名同，而實則二人也.)] .

司馬溫公曰：“〈奔喪〉 [[《講錄》]《禮記》篇名， ([《釋義》]《禮記》篇名.)] 曰：‘凡喪，父在，父爲主 [[《釋義》]父在而子有妻子之喪，則父主之，與賓客爲禮，宜使尊者.] .’ 註：‘與賓客爲禮，宜使尊者.’”

“‘父沒，兄弟同居，各主其喪.’ 註：‘各爲妻子之喪爲主也.’”

1) 鬼：《儀禮·士喪禮》에는 ‘魂’으로 되어 있다.

“‘親同，長者主之。’註：‘昆弟之喪，宗子主之。’”

“‘不同 [《釋義》言不同親也.]，親者主之。’註：‘從父昆弟之喪也。’〈雜記〉曰：‘姑姊妹其夫死而夫黨無兄弟，使夫之族人主喪。妻之黨雖親，弗主。夫若無族矣，則前後家 [《釋義》人家也.] 東西家，無有則里尹 [《講錄》如今里正，(《釋義》如今勸農里正也.)] 主之。’〈喪大記〉曰：‘喪有無後，無無主。若子孫有喪而祖父主之，子孫執喪，祖父拜賓。’”

主婦·

謂亡者之妻。無則主喪者之妻。

護喪·

以子弟知禮能幹者爲之。凡喪事皆稟之。

司書·司貨·

以子弟或吏僕爲之。

乃易服不食。

妻子婦妾皆去冠及上服，被髮。男子扱上衽，徒跣。餘有

服者皆去華飾。爲人後者爲本生父母及女子已嫁者，皆不被髮，徒跣 [[《釋義》爲人後者及女子已嫁者爲本生父母，不被髮，徒跣.]]。諸子三日不食；期九月之喪三不食 [[《註解》謂三時不食. (《釋義》言三時不食也.)]]；五月三月之喪再不食 [[《註解》謂兩時不食. (《釋義》言兩時不食也.)]]。親戚鄰里爲糜粥 [[《釋義》糜, 건이오 粥, 물근이라.]]以食之。尊長強之，少食可也。

扱上衽 [[《講錄》〈問喪〉註：“上衽，深衣前襟也，以號痛踐履爲妨，故插之於帶也.”，(《釋義》只扱上衣之衽也. 드덕여 방해로올가 호미라.)]]，謂插衣前襟之帶。華飾，謂錦繡·紅紫·金玉·珠翠之類。

治棺。

護喪命匠擇木爲棺。油杉 [[《講錄》《說文》：“杉，似松而材良.” (《釋義》황장술이라.)]]爲上，柏 [[《釋義》죽빅이라.]]次之，土杉爲下。其制方直，頭大足小 [[《講錄》如今京中人之造棺，皆如此. (《釋義》如今京中人之造棺，皆如此也.)]]，僅取容身，勿令高大及爲虛簷·高足。內外皆用灰漆 [[《講錄》如今骨灰. (《釋義》如今骨灰漆也.)]]。內仍用瀝青 [[《釋義》송진이라.]]溶瀉，厚半寸以上。以煉熟 [[《釋義》연정하야 닉게호미니 툃와 지 밍그단 말리라.]] 稊米灰 [[《講錄》《韻會》：“稊，稊也，粟之有黏者.” (《註解》稊，粟之有黏者，見《本草》. (《釋義》출기장지라. 〈喪大記〉“君裏棺用朱綠，大夫²⁾用玄綠，士不綠.” 註：“裏棺，以繒貼棺裏也。朱繒貼

2) 大夫：《禮記》에는 ‘大夫裏棺’으로 되어 있다.

四方，綠繒貼四角。大夫四面玄四角綠，士不綠者，悉用玄也。”（《釋義》）未詳。或云粘米，或云粘稷，或云薏苡，非也。】鋪其底，厚四寸許，加七星板。底四隅各釘大鐵環，動則以大索貫而舉之。

司馬溫公曰：“棺欲厚，然太厚則重而難以致遠，又不必高大。占地使壙中寬，易致摧毀，宜深戒之。槨雖聖人所制，自古用之，然板木歲久終歸腐爛，徒使壙中寬大不能牢固，不若不用之爲愈也。孔子葬鯉有棺而無槨，又許貧者還葬〔（《講錄》）還，音義與‘旋’同，言斂畢而卽葬也。（《註解》）還，音‘旋’，言斂畢而卽葬也。（《釋義》）還，音義與‘旋’同，言斂畢而卽葬也。】而無槨。今不欲用，非爲貧也，乃欲保安亡者爾。”

程子曰：“雜書有松脂入地，千年爲茯苓，萬年爲琥珀之說。蓋物莫久於此，故以塗棺，古人已有用之者。”

高氏曰：“伊川先生謂棺之合縫，以松脂塗之，則縫固而木堅。註云松脂與木性相入，而又利水〔（《釋義》）水乙利제하다。利，猶‘利導’之‘利’也，謂使水不入而導他也。〕，蓋今人所謂瀝青者是也。須以少蚌粉〔（《講錄》）疑是스회。（《釋義》）스회라.】·黃蠟〔（《釋義》）은미리라.】·清油合煎之乃可用，不然則裂矣〔（《釋義》）疑必松脂裂也。〕。其棺槨之間，亦宜以此灌之。”

胡氏 泳〔（《釋義》）朱子門人，名泳.〕曰：“松脂塗縫之說未然。先生葬時，蔡氏兄弟〔（《講錄》）蔡淵·蔡沈.（《釋義》）淵·沈也.〕主用松脂，嘗問：‘用黃蠟麻油〔（《講錄》）胡麻油也。참깨.（《釋義》）胡麻油也。참깨.〕否？’答云：‘用油蠟則松脂不得全其性矣。’此言有理。但彭止堂〔（《講錄》）名龜年，字

子壽，從朱·張學。《釋義》未知何人。一云名龜年，朱子과 南軒과 비호미라. 作‘訓蒙’《釋義》書名. 云：‘灌以松脂，宜於北方。江南用之，適爲蟻房.’彭必有攷，更詳之。”

劉氏 璋曰。“凡送死之道，唯棺與槨爲親身之物《講錄》親於身也。《釋義》言親於身.，孝子所宜盡之。初喪之日，擇木爲棺，恐倉卒未得其木，灰漆亦未能堅完。或值暑月，尸難久留。古者國君即位而爲桺《講錄》棺也。〈檀弓〉：“君即位而爲桺，歲一漆之。”註：“桺棺也。漆之堅強髹髹然，故名桺。”《釋義》벽, 관의 칠이 구더 벽긔단마리라. ,【蒲力切】歲一漆之。今人亦有生時自爲壽器者，此乃猶行其道，非豫凶事也。其木油杉及柏爲上，毋事高大以圖美觀，唯棺周於身，槨周於棺足矣。棺內外皆用布裹漆，務令堅實。余嘗見前人《釋義》猶言古人. 葬墓，掩壙《釋義》壙，疑棺也. 之後，即以松脂溶化灌於棺外《講錄》棺外，用薄板掩壙，灌以松脂.，其厚尺餘。後爲人侵掘《釋義》爲是墓賊.，松脂歲久凝結愈堅，斧斤不能加，得免大患。今有葬者用之，可謂宜矣。”

訃告于親戚·僚友。《釋義》訃，告也，告喪也. 。

護喪·司書爲之發書。若無，則主人自訃親戚，不訃僚友。自餘書問悉停。以書來弔者，並須卒哭後答之。

沐浴，襲，奠，爲位，飯含

執事者設幃及牀 〔《註解》〕人死斯惡之，以未設飾，故設幃以防人之所惡也。小斂則既設飾矣，故撤幃焉。始死廢牀，及復而尸復登牀。〕，遷尸，掘坎。

執事者以幃障卧內。侍者設牀於尸牀前，縱置之，施簣 〔《講錄》〕《儀節》云：“簣，以竹爲之。”《註解》《儀節》云：“以竹爲之。”〕去薦，設席枕。遷尸其上，南首 〔《註解》〕不忍遽以神待其親也。〔《釋義》〕《檀弓》云：“不³⁾忍以鬼神待其親也。”〕，覆以衾。掘坎于屏處潔地。

陳襲衣。

以桌子陳于堂前東壁下，西領南上。幅巾一。充耳二，用白纈如棗核大，所以塞耳者也。幘目 〔《註解》〕用熟絹。〔《釋義》〕亡狄反。〕帛，方尺二寸，所以覆面者也。握手 〔《講錄》〕丘氏《儀節》與《五禮儀》皆曰‘握手二’，今人用一幅裹兩手，非也。〔《註解》〕今人或云：“用一幅裹兩手”，非也。〕用帛，長尺二寸廣五寸，所以裹手者也。深衣一。大帶一。履二。袍襖 〔《講錄》〕著綿衣也。〔《釋義》〕袍，겹오시라. 襖오느 핫오시라.〕·汗衫·袴 〔《釋義》〕바디라.〕·襪 〔《釋義》〕휘청긋튼 거시라.〕·勒帛 〔《釋義》〕말스느 거시라.〕·裹肚 〔《釋義》〕고뒤라.〕之類，隨所用之多少。

3) 不：《禮記》，〈檀弓〉에는 ‘末’로 되어 있다.

楊氏復曰：“《儀禮·士喪》：‘襲三稱。’【衣單複具曰‘稱’。】‘三稱’者，爵弁服【《講錄》著爵弁之時，所服之衣也。《釋義》著爵弁之時，所服之衣也。】·皮弁服·祿衣【《講錄》祿，他亂切。《周禮》云：“黑衣也。”《註解》他亂切。《周禮》：“黑衣。”王后服。或作‘緣’。《禮記》：“士妻緣。”更詳之。《釋義》他亂切。《周禮》：“玄衣。”王后服。或作‘緣’。《禮》：“士妻服。”更詳之。】。‘設冒’【《釋義》《雜記》註：“襲，沐浴後以衣衣尸也。‘則形’者，言尸雖已著衣，若不設冒，則尸象見⁴⁾，爲人所惡，是以襲而復⁵⁾冒也。】襲之。’註云：‘冒，韜尸者，制如直囊，上曰‘質’，下曰‘殺’。其用之，先以殺韜足而上，後以質韜’【《釋義》집끼단 마리라.】首而下齊手。君錦冒黼’【《釋義》도끼늘 그려 슈노홀 거시라.】殺，綴旁七’【《講錄》疑문마기，未詳。《釋義》疑는돌마기라. ‘綴旁七’者，不縫之邊上下，安七帶，綴以結之也。】。大夫玄冒黼殺，綴旁五。士緇冒經殺’【《講錄》經，與楨同。《註解》經，與楨同。《釋義》經，與楨同。其制，縫合一頭，又縫連一邊，餘一邊不縫，兩囊皆然。】，綴旁三。凡冒，質長與手齊，殺三尺。’”

劉氏瑋曰：“古者人死不冠，但以帛裹其首，謂之掩。〈“士喪禮”〉：‘掩，練帛，廣終幅’【《釋義》猶云全幅也。】五尺，析其末。’註：‘掩，裹首也。析其末，爲將結於頤下，又還結於項中’【《講錄》以五尺練帛，析其兩末爲四脚，先以後兩脚結於頤下，又以前兩脚結於後項中。《釋義》疑必項中之後。】。’蓋以襲斂主於保庇肌體，貴於柔軟緊實。冠則磊嵬’【《釋義》들궁근쓰지라.】難安，況今幞頭以鐵爲脚’【《釋

4) 見：《禮記集說》에는 ‘形見’으로 되어 있다.

5) 復：《禮記集說》에는 ‘設’로 되어 있다.

義》幘頭쓰리라.』長三四尺，帽用漆紗爲之，上有虛簷？置於棺中，何由安帖？莫若裹以常服，上加幅巾·深衣·大帶及履，既合於古，又便於事。幅巾，所以當掩〔《釋義》當，猶代也.』也，其制如今之暖帽〔《講錄》如今之甘吐也.甘吐，《五禮儀》作‘匱頭’。《釋義》如今之甘吐也。甘吐，《五禮儀》作‘匱頭’。〕。深衣·帶·履，自有制度。若無深衣·帶·履，止用衫·勒帛·鞋，亦可。其幘頭·腰帶·靴笏，俟葬時，安於棺上，可也。”

“幘目用緇，方尺二寸，充之以絮，四角有繫，於後結之。握手用玄纁，長尺二寸廣五寸，令裹〔《講錄》玄表纁裏也。《釋義》握手玄表纁裏也.〕親膚，據從手內〔《講錄》內，猶掌也。據從，猶다히. 《釋義》據從，猶다히.〕置之，長尺二寸中掩之〔《講錄》가운데를 더피다. 《釋義》疑가운데 덮피다.〕，手纁相對也。兩端各有繫，先以一端繞擊一匝，還從上自貫〔《釋義》以繫相統而自貫也.〕，又以一端向上鉤中指，反與繞擊〔《講錄》擊，與‘腕’同，掌後中節。《註解》擊，與‘腕’同，於換切，掌後節中也，卽手背也。《釋義》擊，與‘腕’同，卽手背也。自貫，以繫相統而自貫也.〕者結於掌後節也。”

沐浴·飯含之具〔《釋義》含具，《儀節》有“金·珠亦可。”含與琯同，去聲。《記》：“送死口中玉也。”《韻會》：“實米與貝于死者口中，不忍其口之虛也.”〕。

以桌子陳于堂前西壁下，南上。錢三，實于小箱。米二升，

以新水淅令精，實于盥。櫛一。沐巾一。浴巾二，上下體各用其一也。

乃沐浴。

侍者以湯入。主人以下皆出帷外，北面。侍者沐髮，櫛之，晞以巾，撮【《釋義》麤括切。暫卒取之。트리조지고.】爲髻。抗衾【《講錄》抗，猶舉也。暫舉其衾而人在衾外，以手拭之也。《釋義》舉衾以蔽尸也。《喪大記》：“四人抗衾。”浴母·婦，則婦人抗衾而浴之。】而浴，拭以巾。剪爪。其沐浴餘水，并巾櫛棄于坎而埋之。

襲。

侍者別設襲牀於幃外，施薦·席·褥·枕，先置大帶【《釋義》《雜記》“帶⁶⁾”註：率，與綵同。死者著衣畢而以⁷⁾此帶。謂之綵者，但攝帛邊而熨殺(之)，不用箴線也。】·深衣·袍·襖·汗衫·袴·襪·勒帛·裹肚之類於其上，遂舉以入，置浴牀之西。遷尸於其上。悉去病時衣及復衣，易以新衣，但未著幅巾·深衣·履。

徙尸牀，置堂中間。【《釋義》堂室之正中而南首。】

6) 帶：《禮記·雜記》에는 ‘率帶’로 되어 있다.

7) 以：《禮記·雜記》에는 ‘加’로 되어 있다.

卑幼則各於室中間。餘言在堂者放此。

乃設奠。

執事者以桌子置脯醢，升自阼階。祝盥手，洗盞，斟酒，奠于尸東當肩，巾之。

祝以親戚爲之。

劉氏 璋曰：“〈士喪禮〉：‘復者降，楔齒’〔《講錄》〕〈喪大記〉註：“楔，拄也。以角爲楔，長六寸，兩頭屈曲，爲將含，恐口閉，故以楔拄齒。”丘《儀》以筋代之。〔《釋義》〕楔，音설。童子木插於齒中，將以飯含故也。□齒 서로 니에 물려 다모지 못하게 호미라。〕，綴足〔《講錄》〕〈士喪禮〉註：“綴，猶拘也。爲將屨，恐其辟戾。”〔《釋義》〕几로 바을 써서 버디지지 못하게 호미라。〕，即奠脯醢與酒于尸東。’鄭註：‘鬼神無象，設奠以憑依之。’《開元禮》〔《講錄》〕初命張說與諸學士刊定五禮，說薨，蕭嵩繼之成，上號曰《開元禮》。〕》：‘五品以上如〈士喪禮〉，六品以下襲而後奠。’今不以官品高下，沐浴正尸，然後設奠，於事爲宜。奠，謂斟酒奉至卓上而不酌。主人虞祭，然後親奠酌。巾者，以辟塵蠅也。”

主人以下爲位而哭。

主人坐於牀東奠北。衆男應服三年者坐其下，皆藉以藁。同姓期功以下，各以服次坐于其後，皆西向南上。尊行以

長幼坐于牀東北壁下，南向西上，藉以席薦。主婦·衆婦女坐于牀西，藉以藁。同姓婦女以服爲次，坐于其後，皆東向南上。尊行以長幼坐于牀西北壁下，南向東上，藉以席薦。妾婢立於婦女之後。別設幃以障內外。異姓之親，丈夫坐於幃外之東，北向西上；婦人坐於幃外之西，北向東上。皆藉以席，以服爲行。無服在後。

若內喪，則同姓丈夫尊卑坐于幃外之東，北向西上；異姓丈夫坐于幃外之西，北向東上。

三年之喪，夜則寢於尸旁，藉藁枕塊，羸病者藉以草薦可也。期以下，寢於側近。男女異室。外親歸家可也。

乃飯含 【《註解》】用米貝，不忍虛其口也。不以食道，用美潔之物以實之耳。《儀節》云：“金珠亦可。”（《釋義》）用米貝，不忍虛也。不以食道，用美也。】。

主人哭盡哀，左袒 【《釋義》】非右手，乃左手也。】，自前 【《講錄》】言所袒之左袂，引而前之，插於腰之右也。（《釋義》）言所袒之左袂，引而前之，插於腰之右也。】扱於腰之右，盥手，執箱以入。侍者一人插匙于米盃，執以從，置于尸西，徹枕 【《講錄》】欲其開口也。】，以幘巾 【《講錄》】此非幘冒，蓋別用布巾覆面，爲飯之遺落米也。（《釋義》）此非幘目，疑恐別用之幘巾也。】入，覆面。主人就尸東，由足 【《講錄》】由尸足而西也。〈士喪禮〉疏：“主人空手由足過，以其口實不可由足，恐褻之。”（《釋義》）由尸之足而西也。감도라

가단 마리라.』而西，牀上坐，東面舉巾，以匙抄米 〔《釋義》猶言수레자기 쓰단 마리라.〕，實于尸口之右，并實一錢。又於左於中，亦如之。主人襲所袒衣，復位。

侍者卒襲，覆以衾 〔《講錄》單被也。《註解》衾，單被也。《釋義》音今。《韻會》：“衣小帶也。”〕。

加幅巾·充耳，設幘目，納履，乃襲深衣，結大帶，設握手，乃覆以衾。

司馬溫公曰：“古者死之明日小斂，又明日大斂。顛倒衣裳，使之正方，束以絞紵，韜以衾冒，皆所以保其肌體也。今世俗有襲而無大·小斂，所闕多矣。然古者士襲衣三稱，大夫五稱，諸侯七稱，公九稱。小斂，尊卑通用十九稱。大斂，士三十稱，大夫五十稱，君百稱。此非貧者所辦也。今從簡易，襲用衣一稱。小·大斂則據死者所有之衣及親友所祔 〔《講錄》膊以衣服曰祔。《釋義》以衣膊之曰祔也。〕之衣，隨宜用之。若衣多，不必盡用也。”高氏曰：“禮，士襲衣三稱，而子羔之襲也衣三稱。孔子之喪，公西赤掌殯葬焉，襲衣十一稱，加朝服一。《雜記》曰：‘士襲九稱。’蓋襲數之不同如此。大抵衣衾惟欲其厚耳。衣衾之所以厚者，豈徒以設飾哉？蓋人死斯惡之矣，聖人不忍言也 〔《釋義》死人乙 이에惡호느니 聖人不忍言斯惡之矣。〕，但制爲典禮，使厚其衣衾而已。今世之襲者，不知此意，或

止用單衾一稱，雖富貴之家衣衾畢備，皆不以襲斂，又不能謹藏，【古人遺衣裳，必置於靈座，既而藏於廟中。】乃或相與分之，甚至輒計直貿易以充喪費。徒加功於無用，擯【《釋義》猶投也。】財於無謂【《釋義》猶言無理也。】，而所以附其身【《釋義》疑是附其衣於親之身也。】者曾不之慮，嗚呼，又孰若用以襲斂，而使亡者獲厚芘於九泉之下哉？”

楊氏復曰：“按，高氏一用禮經，而襲斂用衣之多，故襲有冒，小斂有布絞，大斂有布絞·布紵。所以保其肌體者，固矣。司馬公欲從簡易，而襲斂用衣之少，故小斂雖有布絞，而襲則無冒，大斂則無絞紵。此爲疏略。先生初述《家禮》，皆取司馬公《書儀》。後與學者論禮，以高氏喪禮爲最善。遺命治喪，俾用《儀禮》。此可以見其去取折衷之意矣。況夫古者襲斂用衣之多，故古有禭禮。【衣服曰禭。】〈士喪禮〉：‘親者禭，庶兄弟禭，朋友禭。’又‘君使人禭。’今世俗有襲而無大·小斂，故禭禮亦從而廢，惜哉！然欲悉從高氏之說，則誠非貧者所能辦。有如司馬公之所慮者，但當量其力之所及，可也。愚故於襲·小斂·大斂之下，悉述《儀禮》并高氏之說以備參攷。”

靈座，魂帛，銘旌

置靈座，設魂帛。〔《釋義》〕此靈座設於帷外，卷首圖設於帷內，恐非。〕

設槨於尸南，覆以帕。置倚卓其前，結白絹爲魂帛，置倚上。設香爐合·盞注·酒果於卓子上。〔《釋義》〕尸前設衣架，架上覆以帕，架前置倚，倚上置衣服，衣服上置魂帛，倚前設卓子，卓子上設香爐·香盒·盞注·酒果。〕侍者朝夕設櫛類〔《講錄》〕類，《韻會》“洗水器”。〔《釋義》〕洗器。《韻會》。〕奉養之具，皆如平生。

司馬溫公曰：“古者鑿木爲重〔《講錄》〕檀弓〕註：“未葬，有柩而又設重，所以爲重。”〔《釋義》〕未葬時，有柩而又設重，所以爲重。〕，以主其神，今令式亦有之。然士民之家未嘗識也，故用束帛依神，謂之魂帛，亦古禮之遺意也。世俗皆畫影，置於魂帛之後，男子生時有畫像，用之猶無所謂，至於婦人，生時深居閨門，出則乘輜輶，擁蔽其面，既死，豈可使畫工直入深室，揭掩面之帛，執筆訾相〔《講錄》〕訾，猶量。相，卽像也。〔《註解》〕訾，猶量也。相，猶像也。〔《釋義》〕訾，猶言量。相，像也。〕，畫其容貌？此殊爲非禮。又世俗或用冠帽·衣履，裝飾如人狀，此尤鄙俚，不可從也。”

問重〔《釋義》〕위판이다.〕。朱子曰：“《三禮圖》有畫像，可攷。然且如司馬公之說，亦自合時之宜，不必過泥於古〔《講錄》〕泥，猶牽也。〔《釋義》〕“泥，乃計切。執不通。”《韻會》。〕也。”

楊氏復曰：“禮，大夫無主。〔《講錄》〕古者，大夫束帛依神；士結茅爲菴。〔《釋義》〕主，疑必神主也，而特言大夫，未詳。〕者束帛依神，司馬公用魂帛，蓋取束帛依神之意。高氏曰：‘古人遺衣裳，必置於靈座，既而藏於廟中。’恐當從此說。以遺衣裳置於靈座，而加魂帛於其上，可也。”

立銘旌。〔《註解》〕銘，誌也。旌，表也。以死者不可不別也，故以其旗識之。〔《釋義》〕銘，明也。旌，以死者不可別，故以其旌識之。《儀禮》疏云：“銘旌表柩，不表尸，故據柩而言。”〕

以絳帛爲銘旌。廣終幅，三品以上九尺，五品以上八尺，六品以下七尺。書曰：‘某官某公之柩。’無官，即隨其生時所稱。以竹爲杠如其長，倚於靈座之右。

司馬溫公曰：“銘旌設跗，立於殯東。〔《釋義》〕《集說》：‘斂後，立殯東。’〕。註：‘跗。〔《講錄》〕銘旌機也。〔《釋義》〕如今之銘旌트리라。〕，杠足也，其制如傘架。〔《釋義》〕일산틀이라。〕。’”

不作佛事。

司馬溫公曰：“世俗信浮屠誑誘，於始死及七七日。〔《講錄》〕닐 굿 닐 웨。〕。百日·朞年·再朞·除喪，飯僧設道場。〔《釋義》〕경닐어 비논 쓰디라。〕，或作水陸大會，寫經造像。〔《講錄》〕爲死者寫佛經·造佛像也。〔《釋義》〕爲死者寫佛像也。〕，修建塔

廟 [《釋義》]답과 덜이라.]，云爲死者滅彌天罪惡，必生天堂，受種種快樂，不爲者必入地獄，剉燒舂磨，受無邊波吒 [《講錄》]吒，咤同。波吒，忍寒聲也。 [《釋義》]波吒，佛語，未詳。]之苦。殊不知人生含氣血知痛癢。或剪爪剃髮，從而燒斫之，已不知苦 [《釋義》]指爪與髮而言也。]，況於死者形神相離，形則入於黃壤，朽腐消滅，與木石等，神則飄若風火，不知何之。借使剉燒舂磨，豈復知之？且浮屠所謂天堂地獄者，計亦以勸善而懲惡也。苟不以至公行之 [《講錄》]指冥府司賞罰者。]，雖鬼 [《講錄》]疑指人死之鬼。 [《釋義》]疑指言人死鬼也。]，可得而治 [《註解》]治，恐作‘給’。 [《釋義》]治，當作‘給’。]乎？是以唐廬州刺史李舟《與妹書》曰：‘天堂無則已，有則君子登；地獄無則已，有則小人入。’世人親死而禱浮屠，是不以其親爲君子，而爲積惡有罪之小人也，何待其親之不厚哉？就使其親實積惡有罪，豈賂浮屠所能免乎？此則中智所共知，而舉世滔滔信奉之，何其易惑而難曉也？甚者至有傾家破產然後已。與其如此，曷若早賣田營墓而葬之乎？彼天堂地獄，若果有之，當與天地俱生。自佛法未入中國之前，人死而復生者亦有之矣。何故無一人誤入地獄，見閻羅等十王 [《釋義》]十王，저십귀신이러.]者耶？不學者固不足與言，讀書知古者，亦可以少悟矣。”

執友 [《釋義》]《禮》：“友之同志者。”]親厚之人，至是入哭，可也。

主人未成服而來哭者，當服深衣。臨尸，哭盡哀。出，拜
【《釋義》出帷，拜靈座也。】靈座，上香，再拜。遂弔主人，相
向哭盡哀。主人以哭對，無辭。

小斂袒，括髮，免，髻，奠，代哭

厥明

謂死之明日。

執事者陳小斂衣衾。

以卓子陳于堂東壁下。據死者所有之衣，隨宜用之。若多則不必盡用也。衾，用複。《講錄》〈喪大記〉註：“複者，衾有綿續者。”者。絞。《講錄》音‘爻’，平聲，見《韻會》。】，橫者三，縱者一，皆以細布或綵。《講錄》疑綵段。】，一幅而析其兩端爲三。橫者取足以周身相結，縱者取足以掩首至足而結於身中。

高氏曰：“襲衣所以衣尸，斂衣則包之而已。此襲·斂之辨也。”

“小斂衣尙少，但用全幅細布，析其末而用之。凡斂欲方，半在尸下，半在尸上，故散衣有倒者，惟祭服不倒。凡鋪斂衣，皆以絞紵爲先。小斂美者在內，故次布散衣，後布祭服；大斂美者在外，故次布祭服，後布散衣也。”

“斂以衣爲主。小斂之衣，必以十九稱，大斂之衣，多至五十稱。夫既襲之後，而斂衣若此之多，故非絞以束之，

則不能以堅實矣。凡物束練〔《註解》〕練，當作‘斂’。緊急，則細小而堅實。夫然故衣衾足以朽肉〔《講錄》〕疑肉朽衣衾之中。，而形體深秘，可以使人之勿惡也。今之喪者衣斂既薄，絞·冒不施，懼夫形體之露也，遽納之於棺，乃以入棺爲小斂，蓋棺爲大斂，入棺既在始襲之時，蓋棺又在成服之日，則是小斂·大斂之禮皆廢矣。”

楊氏復曰：“按，《儀禮·士喪》小斂，衣十九稱。絞，橫三縮一，廣終幅，析其末。註云：‘絞，所以收束衣服爲緊急也。以布爲之。縮，縱也。橫者三幅，縱者一幅，析其末，令可結也。’”

設奠〔《釋義》〕設具三字當屬一句。〕。

設卓子于阼階東南，置奠饌及盞注于其上，巾之。設盥·盆·帨巾各二于饌東，其東有臺者，祝所盥也，其西無臺者，執事者所盥也。別以卓子設潔滌盆·新拭巾〔《釋義》〕潔滌盆，新拭，烹巾。〕於其東，所以洗盞拭盞也。此一節至遣〔《講錄》〕至遣奠。〔《釋義》〕至遣奠。〕並同。

具〔《釋義》〕具字當屬上，爲設奠具，誤分在此。〕括髮麻·免〔《釋義》〕免，音‘問’。〕布·髻〔《釋義》〕音‘사’，一‘𠂔’。〕麻。

括髮，謂麻繩撮髻，又以布爲頭帶也。免，謂裂布或縫絹廣寸，自項向前交於額上，却邊髻如著掠頭也。髻，亦用麻

繩撮髻，竹木爲簪也。設之皆于別室。

設小歛牀，布絞·衾·衣。

設小歛牀，施薦·席·褥于西階之西。鋪絞·衾·衣，舉之，升自西階，置于尸南。先布絞之橫者三於下，以備周身相結，乃布縱者一於上，以備掩首及足也。衣或顛或倒，但取正方，唯上衣不倒。

乃遷襲奠。

執事者遷置靈座西南，俟設新奠，乃去之。後凡奠，皆放此。

遂小歛。

侍者盥手，舉尸，男女共扶助之，遷于小歛牀上。先去枕，而舒絹 [《講錄》未詳。] 疊衣以藉其首，仍卷兩端以補兩肩空處，又卷衣夾其兩脛，取其正方，然後以餘衣掩尸，左衽不紐 [《講錄》골홈을 고내게 미디말고 못밧단 말이라. (《釋義》)〈喪大記〉: “左衽하고 結絞호되 不紐.” 不紐，골홈을 고내게 미디말고 못밧단 마리라. 今世之人不知不紐之意，去其紐，大不可。]，裹之以衾，而未結以絞，未掩其面。蓋孝子猶俟其復生，欲時

見其面故也。斂畢，別覆以衾。

主人·主婦憑尸哭擗。

主人西向，憑尸哭擗，主婦東向，亦如之。

凡子於父母憑之，父母於子·夫於妻執之，婦於舅姑奉之，舅於婦撫之，於昆弟執之。凡憑尸，父母先，妻子後。

袒，括髮，免，髻於別室。[[《釋義》]劉氏〈問喪〉註：“劉氏曰：‘己冠者，爲喪變而去冠，則必著免，蓋雖去冠，猶嫌於不冠，故加免也。童子初未冠，則雖爲喪，亦不免，以其未冠，故不嫌於不冠也。若爲孤子而當室，則雖童子亦免，以其爲喪主而當成人之禮也。’”蓋〈問喪〉亦指齊衰以下者言也。]]

男子斬衰者袒，括髮。齊衰以下至同五世祖者，皆袒，免于別室。婦人髻于別室。

司馬溫公曰：“古禮袒者皆當肉袒，免者皆當露髮。今袒者止袒上衣，免者惟主人不冠。齊衰以下，去帽著頭巾，加免於其上，亦可也。婦人髻也 [[《講錄》]‘也’字屬下句。〔《釋義》]‘也’字屬下句。]]，當去冠梳 [[《釋義》]婦人首飾。東坡詩曰：“漢女笑時銀櫛低。”]。”

楊氏復曰：“小斂變服，斬衰者袒，括髮。今人無‘袒，括髮’一節，何也？緣世俗以襲爲小斂，故失此變服一節。在《禮》，聞喪奔喪，入門，詣柩前，再拜，哭盡哀，乃就東

方，去冠及上服，被髮，徒跣如始喪之儀。詣殯，東面坐，哭盡哀，乃就東方，袒，括髮，又哭盡哀如小斂之儀。明日·後日朝夕哭，猶袒，括髮，至家四日乃成服。夫奔喪，禮之變也，猶謹其序，而況處禮之常，可欠‘小斂’一節，又無‘袒，括髮’乎？此則孝子知禮者，所當謹而不可忽也。”

還，遷尸牀于堂中 〔《講錄》〕還，謂主人自別室，還於其位。或云：“上文云‘小斂牀，置于尸南’，斂畢，還遷堂中。”（《釋義》）還，指主人以下自別室，還於其位。或云：“上文‘小斂牀，置于尸南’，然則斂畢，還遷尸牀于堂中。”以祔祭條云‘還奉新主’之文觀之，則上說是。遷尸牀于堂中，安于向所置襲牀處。〕。

執事者徹襲牀，遷尸其處。哭者復位。尊長坐，卑幼立。

乃奠。〔《註解》〕襲則奠於尸側；斂則奠於靈座之前也。（《釋義》）奠於靈座前。〕

祝帥執事者，盥手舉饌，升自阼階，至靈座前。祝焚香，洗盞，斟酒，奠之。卑幼者皆再拜 〔《釋義》〕疑必尊長坐而使子弟行之。〕。侍者巾之。

主人以下哭盡哀。乃代哭 〔《釋義》〕爲其疲倦。大夫以上，使官屬相代；士則親疏之屬與衆人自相代。〕 **不絕聲。**

大斂 〔《註解》〕大斂於阼者，不忍離其爲主之位也。殯於客位西階者，賓之也。〕

厥明。

小斂之明日，死之第三日也。

司馬溫公曰：“《禮》曰‘三日而斂’者，俟其復生也。三日而不生，則亦不生矣。故以三日爲之禮也。今貧者喪具或未辦，或漆棺未乾，雖過三日，亦無傷也。世俗以陰陽拘忌，擇日而斂，盛暑之際，至有汁出蟲流，豈不悖哉？”

執事者陳大斂衣衾。

以卓子陳于堂東壁下。衣無常數，衾用有綿者。

高氏曰：“大斂之絞，縮者三，蓋取一幅布裂爲三片也，橫者五，蓋取布二幅裂爲六片而用五 〔《釋義》〕六片用五，則其一棄而不用。〕也。以大斂衣多，故每幅三析用之，以爲堅之急也。衾凡二，一覆之，一藉之。”

楊氏復曰：“《儀禮·士喪》：‘大斂衣三十稱，衾不在筭，不必盡用。’註云：‘衾，單被也。小斂衣數，自天子達，大斂則異矣。大斂布絞，縮者三，橫者五。’”

設奠具.

如小斂之儀.

舉棺入，置于堂中少西 〔《講錄》〕所以倣古殯于西階之意.〕 .

執事者，先遷靈座及小斂奠於旁側. 役者舉棺以入，置于牀西，承以兩凳 〔《講錄》〕音‘登’，坐兒也. 〔《釋義》〕坐兒爲塊木也.〕 . 若卑幼則於別室. 役者出，侍者先置衾于棺中，垂其裔於四外 〔《釋義》〕言垂其衾於棺之四隅也. 〈檀弓〉曰：“飯於牖下，小斂於戶內，大斂於阼，殯於客位，祖於庭，葬於墓，所以卽遠也.” 註：“飯於牖下，尸沐浴之後，以米及貝實尸之口中也. 時尸在西南牖下，南首也. 小斂於戶內⁸⁾，大斂於東階⁹⁾，未忍離其爲主之位也. 主人奉尸斂于棺，則在西階矣. 掘埵於西階之上，‘埵’，陳也，謂陳尸之次也. 置棺于埵中而塗之謂之殯이라. 及啓而將葬，則設祖奠於祖廟之中庭而後行호니 自牖下而戶內，而阼而客位，而庭而墓，皆一節遠於一節.” 《荀子》曰：“凡變而飾，動而遠，久而平，故死之爲道也，不飾則惡，惡則不哀，邇則玩，玩則厭，厭則忌¹⁰⁾，忌¹¹⁾則不敬.”〕 .

司馬溫公曰：“周人殯 〔《講錄》〕賓之也.〕 于西階之上. 今堂室異制，或狹小，故但於堂中少西而已. 今世俗多殯於僧舍，無人守視，往往以年月未利，踰數十年不葬，或爲盜賊所發，或爲僧所棄，不孝之罪，孰大於此？”

8) 於戶內：《禮記》에는 ‘在戶之內’로 되어 있다.

9) 於東階：《禮記》에는 ‘出在東階’로 되어 있다.

10) 忌：《荀子》에는 ‘忘’으로 되어 있다.

11) 忌：《荀子》에는 ‘忘’으로 되어 있다.

乃大斂。

侍者與子孫·婦女俱盥手，掩首結絞〔（《講錄》）小斂時，不掩不絞，至此乃掩結之也。〕，共舉尸納于棺中。實生時所落齒·髮及所剪爪于棺角。又揣其空缺處卷衣塞之，務令充實，不可搖動。謹勿以金玉珍玩置棺中，啓盜賊心。收衾先掩足，次掩首，次掩左，次掩右，令棺中平滿。主人·主婦憑，哭盡哀。婦人退入幕中。乃召匠加蓋下釘。徹牀，覆柩以衣。祝取銘旌，設跗于柩東。復設靈座於故處，留婦人兩人守之。

司馬溫公曰：“凡動尸舉棺，哭擗無筭。然殯·斂之際，亦當輟哭臨視，務令安固，不可但哭而已。”

“按，古者大斂而殯，既大斂則累塹〔（《講錄》）塹，音‘格’，未燒磚甃也。〕塗之。今或漆棺未乾，又南方土多螻蟻，不可塗殯，故從其便。”

設靈牀于柩東。

牀·帳·薦·席·屏·枕·衣·被之屬，皆如平生時。

乃設奠。

如小斂之儀。

主人以下各歸喪次。

中門之外，擇朴陋之室，爲丈夫喪次。斬衰寢苫枕塊〔《釋義》〕苫，編稿也。塊，塼也。必寢苫者，哀親之在草；枕塊者，哀親之在土；不說經帶，哀戚不在於安。〕，不與人坐焉。非時見乎母也，不及中門。齊衰寢席。大功以下異居者，既殯而歸，居宿於外，三月而復寢〔《釋義》〕“父不次於子，兄不次於弟。”註：“尊者不居其殯宮之次也。”〈喪大記〉。復寢，乃復於平時所寢之處也。〕。婦人次于中門之內別室，或居殯側，去帷帳·衾·褥之華麗者，不得輒至男子喪次。

止代哭者。

成服

厥明。

大斂之明日，死之第四日也。

五服之人，各服其服，入就位。然後朝哭，相弔如儀。『《釋義》《儀節》：“是日夙興，具服，各就位。各以服爲次序。舉哀，相弔。諸子孫就祖父前及諸父前，跪哭，盡哀¹²⁾。又就祖母及諸母前哭，亦如之。按，哭弔儀出《大明集說¹³⁾》，今此¹⁴⁾補入。”』

楊氏復曰：“三日大斂，可以成服矣，必四日而後成服，何也？大斂雖畢，人子不忍死其親，故不忍遽成服，必四日而後成服也。《禮》‘生與來日’《《講錄》》與，猶數也，言生人則不計其死之日，自死之明日計之，至成服之日，乃三日也。《《釋義》》與，猶數也，言生人則不計其死之日，自死之明日計之，至成服之日，乃三日也。』，死與往日’《《講錄》》死者則自死之日計之，至入棺之日，乃三日也。《《釋義》》言死者則自死之日，至入棺之日，乃三日也。』’，取此義也。”

其服之制，一曰斬衰。『《《講錄》》〈喪服〉疏：“不言裁割而言斬者，取痛甚之義。”如斬斫貌。○《記¹⁵⁾》疏：“衰是當心廣四寸者，取其哀摧在於

12) 盡哀：《家禮儀節》에는 ‘皆盡哀’로 되어 있다.

13) 說：《家禮儀節》에는 ‘禮’로 되어 있다.

14) 此：《家禮儀節》에는 ‘採’로 되어 있다.

徧體，故衣亦名爲衰。”】三年。

‘斬’，不緝也。衣裳皆用極麤生布 [《釋義》]《集說》：“極麤布¹⁶⁾，三升布。卒哭受以成布，六升也。”]，旁及下際皆不緝也。衣，縫向外。裳，前三幅，後四幅，縫內向，前後不連，每幅作三輒 [《講錄》]輒，줄름，每幅三處輒之也。與下文‘三衿’同。[《釋義》]如今之다관주름이니，與下文‘三衿’同。]。輒，謂屈其兩邊相著而空其中也。衣，長過腰，足以掩裳上際，縫外向。背有負版，用布方尺八寸，綴於領下垂之。前當心有衰，用布長六寸廣四寸，綴於左衿之前。左右有辟領，各用布方八寸，屈其兩頭相著爲廣四寸，綴於領下，在負版兩旁，各攬 [《釋義》]音‘참’。] 負版一寸。兩腋之下有衽，各用布三尺五寸，上下各留一尺，正方一尺之外，上於左旁裁入六寸，下於右旁裁入六寸，便於盡處相望斜裁，却以兩方左右相沓 [《釋義》]重也，合也。]，綴於衣兩旁，垂之向下，狀如燕尾，以掩裳旁際也。冠，比衣裳用布稍細，紙糊爲材，廣三寸，長足跨頂前後，裹以布，爲三輒，皆向右縱縫之。用麻繩一條，從額上約之，至項後交過前，各至耳結之，以爲武 [《講錄》]머리에 두르는 거시라. <曲禮>註：“文者上之道，武者下之道。足在體之下曰武，卷在冠之下亦曰武。”]。屈冠兩頭入武內，向外反屈之，縫於武。武之餘繩垂下爲纓，結於頤下。首經 [《講錄》]<檀弓>：“經者，實也。”註：“麻在首在腰皆曰經，分言之則

15) 記：《禮記》가 아니라 《儀禮》의 소에 나온다.

16) 極麤布：《家禮集說》에는 ‘極麤生麻布’로 되어 있다.

首曰經，腰曰帶。經之言，實也，明孝子有忠實之心也。《（《註解》）經，實也，明孝子有忠實之心也。首經·腰經，宜用單股。此《儀節》之文。但《周禮》用弁經，古人用此經以弔喪，乃經之至輕者也。五服之經皆兩股，況於親喪用單股乎？當用兩股，今俗用三股，亦無稽，不可從。《（《釋義》）經，實也，明孝子有忠實之心也。》，以有子麻爲之，其圍九寸，麻本在左。從額前向右圍之，從頂過後，以其末加於本上，又以繩爲纓以固之，如冠之制。腰經，大七寸有餘，兩股相交 《（《講錄》）言二甲索也。《（《釋義》）言二甲索也。》，兩頭結之，各存麻本，散垂三尺，其交結處，兩旁各綴細繩繫之。絞帶，用有子麻繩一條，大半腰經，中屈之爲兩股 《（《釋義》）疑是썩는 피라。》，各一尺餘，乃合之，其大如經，圍腰從左過後至前，乃以其右端穿兩股間，而反插於右，在經之下。

苴杖 《（《註解》）苴，黠也。心如斬斫，貌若蒼苴，所以衰裳經杖具備苴色。《（《釋義》）苴，黠也。心如斬斫，貌若蒼苴，所以經杖具備苴色。》，用竹，高齊心，本在下。屨，亦粗麻爲之。婦人則用極粗生布爲大袖·長裙·蓋頭，皆不緝，布頭帶，竹釵，麻屨。衆妾則以背子代大袖。凡婦人皆不杖。其正服，則子爲父也。其加服，則嫡孫父卒爲祖若 《（《釋義》）若，猶及也。》，曾·高祖承重者也；父爲嫡子當爲後者也。其義服 《（《釋義》）以義服之也。》，則婦爲舅也，夫承重則從服也；爲人後者爲所後父也；爲所後祖承重也；夫爲人後則妻從服也；妻爲夫也；妾爲君 《（《釋義》）卽夫也。》也。

問：“周制有大宗之禮，立嫡以爲後，故父爲長子三年。

今大宗之禮廢，無立嫡之法，而子各得以爲後，則長子·少子不異，庶子不得爲長子。『(《講錄》)庶子，衆子也。長子，衆子之長子。(《釋義》)庶子，衆子也。長子，衆子之長子也。』三年不必然也。父爲長子三年，亦不可以嫡·庶論也。”朱子曰：“宗法雖未能立，然服制自當從古，是亦愛禮存羊之意，不可妄有改易也。如漢時宗子法已廢，然其詔令猶云‘賜民當爲父後者爵一級’，是此禮猶在也。豈可謂宗法廢，而庶子皆得爲父後者乎？”

楊氏復曰：“喪服制度，惟‘辟領’一節沿襲差誤，自《通典》『(《註解》)唐杜佑所作。(《釋義》)杜佑所作。』始。按，〈喪服·記〉云：‘衣二尺有二寸’，蓋指衣身自領至腰之長而言之也。用布八尺八寸，中斷以分左右，爲四尺四寸者二。又取四尺四寸者二，中摺『(《講錄》)中折。(《釋義》)猶言中折。』以分前後，爲二尺二寸者四。此即尋常度衣身之常法也。合二尺二寸者四，疊爲四重，從一角當領處四寸下，取方裁入四寸，乃《記》所謂‘適博四寸’，註疏所謂‘辟領四寸’，是也。按，鄭註云‘適，辟領也’，則兩物即一物也。今《記》曰‘適’，註疏又曰‘辟領’，何爲而異其名也？辟，猶開也。從一角當領處，取方裁開入四寸，故曰‘辟領’。以此辟領四寸，反摺向外，加兩肩上，以爲左右適，故曰‘適’。乃疏所謂‘兩相向外各四寸’，是也。辟領四寸既反摺，向外加兩肩上，以爲左右適，故後之左右，各有四寸虛處，當脊而相並，謂之闊中。『(《講錄》)當項之處虛，故曰闊中。(《註解》)按，既制衣，長四尺四寸者二，又疊其二爲四而摺之，則卽爲闊中。堅執四隅，使不相移於一角，(一角卽一隅也。)當領處至四寸下，(四寸下，卽自當肩處前後四寸下也。)裁入四寸，然後分

其四而爲兩段，上以辟領八寸，(前後各四寸故曰八寸。)反摺外，(外向)各加於肩上，(作衣而着，則當肩之上，故曰肩上也。)以爲闊中。(即辟領也。)衣後當脊處，合而縫之(向外。)，然後着之，則前後當領處，虛者長各四寸廣八寸，此所謂闊中。〔《釋義》〕當項之處虛，故曰闊中。〕前之左右，各有四寸虛處，當肩而相對，亦謂之闊中。乃疏所謂‘闊中八寸’是也。此則衣身所用布之處與裁之之法也。註又云‘加辟領八寸，而又倍之’者，謂別用布一尺六寸以塞前後之闊中也。布一條，縱長一尺六寸，橫闊八寸，又縱摺而中分之，其下一半，裁斷左右兩端各四寸，除去不用，只留中間八寸，以加後之闊中元裁辟領各四寸處，而塞其缺當脊之相並處，此所謂‘加辟領八寸’，是也。其上一半，全一尺六寸不裁，以布之中間，從項上分左右，對摺向前垂下，以加於前之闊中與元裁斷處，當肩相對處相接以爲左右領也。〔《註解》〕按，別用布一尺六寸，以塞前後之闊中也。布縱長一尺六寸，橫闊八寸，縱橫以布之經緯言。自頂上向前度下至辟領摺入處，則左右領各八寸，二八十六，故用布長一尺六寸乎。曰前後廣各四寸，加領亦用布廣二四，二四爲八，所謂尺六寸也。○若布廣有餘，當除去塞外之邊，又縱摺而向內。(縱摺，言縱其長而摺之也。摺而爲二，則一邊各四寸，故曰中分也。)下一半，(以中分者分上下，則塞後之闊中者，即其下也。)裁制其兩端各四寸，除去不用，闊中本八寸，故就一尺六寸中，除其兩邊各四寸，不用也。元裁(即本裁也。)缺(闊中也。)上一半，(以中分者，分上下而言，以塞前之闊中也。)全一尺六寸，(以下一半，除去兩端觀之，則此一邊乃全有之也。)對摺而向前垂下，(取前一尺六寸之兩端，各四寸向前相對以摺，垂其端而下，即合於左右元裁辟領處也。)始裁加領，稍存裕餘。(所以縫之皆向外。)]夫下一半加於後之闊中者，用布八尺，而上一半從項而下以加前之闊中者，又倍之而

爲一尺六寸焉。此所謂‘而又倍之’者，是也。此則衣領所用之布與裁之之法也。古者衣服，吉凶異制，故衰服領與吉服領不同，而其制如此也。註又云‘凡用布一丈四寸’者，衣身八尺八寸，衣領一尺六寸，合爲一丈四寸也。此是用布正數，又當少寬其布，以爲針縫之用。然此即衣身與衣領之數，若負衰帶下及兩衽，又在此數之外矣。但領必有裕，此布何從出乎？曰：衣領用布闊八寸，而長一尺六寸。古者布幅闊二尺二寸，除衣領用布闊八寸之外，更餘闊一尺四寸，而長一尺六寸，可以分作三條。《講錄》長一尺六寸，闊一尺四寸之布，分作闊四寸者三，二施前，闊中八寸爲領，一條又分作長八寸者二，以施後，闊中八寸爲三疊領，則是所謂‘適足無餘欠’也。施於裕而適足無餘欠也。《通典》以辟領爲適，本用註疏，又自謂《釋義》杜祐自謂也。《喪服·記》文難曉，而用臆說以參之。既別用布以爲辟領，又不言制領所用何布，又不計衣身·衣領用布之數，失之矣。但知衣身八尺八寸之外，又別用布一尺六寸以爲領，凡用布共一丈四寸，則文義不待辨而自明矣。”

“又按，《喪服·記》及註云：‘袂二尺二寸。’《釋義》袂之經闊也。緣衣身二尺二寸，故左右兩袂亦二尺二寸，欲使縱橫皆正方也。《喪服·記》又云：‘祛尺二寸。祛者，袖口也。’袂二尺二寸，縫合其下。《釋義》言縫合袂口之下半也。一尺，留上一尺二寸以爲袖口也。”

“又按，《喪服·記》云：‘衣帶下尺。’緣古者上衣下裳，分別上下，不相侵越。衣身二尺二寸，僅至腰而止，無以掩裳上際，故於衣帶之下，用縱布一尺，上屬於衣，橫繞於腰，則以腰之闊狹爲準，所以掩裳上際，而後綴兩衽於其

旁也。”

“度用指尺，中指中節爲寸。首經·腰經圍九寸·七寸之類，亦同。”

“菅屨，《儀禮》註：‘菅屨，菲 [《釋義》]草名。글히영이텃거시라.] 履也.’《家禮》云：‘履以粗麻爲之.’恐當從《儀禮》爲正。”

“《儀禮》：‘妻爲夫，妾爲君，女子子 [《釋義》]古人以女子謂之女子子.] 在室爲父，布總箭筓髻，衰三年.’以《家禮》參攷之，《儀禮》‘小斂婦人髻于室，以麻爲髻’，《家禮》‘小斂婦人用麻繩，撮髻爲髻’，其制同。《儀禮》：‘婦人成服，布總六寸，謂出紒 [《釋義》]紒，即髻也.] 後所垂者六寸。箭筓長尺.’《家禮》：‘婦人成服，布頭帶竹釵.’所謂‘布頭帶’，即《儀禮》之‘布總’也。所謂‘竹釵’，即《儀禮》之‘箭筓’也。凡喪服，上曰衰，下曰裳。《儀禮》：‘婦人……但言衰不言裳者，婦人不殊裳，衰如男子衰 [《註解》]按，左襟卽前當心處也。所以抱衰以象其抱哀摧之意。衰之爲言，哀摧也.]’，下如深衣，無帶下尺，無衽。[《註解》]按，別用布三尺五寸者二段，疊以爲一，整齊堅執，上下各留一尺，上於左傍裁入六寸，下於右傍裁入六寸，上自一傍裁入盡處，望下一傍裁入盡處而斜分作爲四。又各以上頭左右，相沓相重而帖之，綴於衣之兩傍，垂之向下。言兩腋之下，縫而綴之，令衣之前後弦，當於衽之中脊而相連，又令衽之左右兩翼，縫於衣前後之傍，使不浮動也。以古視之，則當用布三尺許，而今也只用二尺者，恐太長而不中於人身之長短也。故不得已而節用二尺，其餘留六寸，裁三寸許者，令各隨宜處之，不可以此爲異於古也。]’夫‘衰如男子衰’，未知備負版 [《註解》]按，方卽四方，皆尺八寸也。蓋今之布廣，不及於古，故不得用此制，宜隨其布之廣狹而取方裁

用。若布廣八寸，則其長亦爲八寸之類。所謂領下，卽背之領下也。所以爲負版者，負其哀慟如負版然。』·辟領之制與否。‘下如深衣’，未知裳用十二幅與否。此雖無文可明，但衣身必二尺二寸，袂必屬幅。『(《釋義》)幅，卽依身之幅也。』，裳必上屬於衣，裳旁兩幅必相連屬。『(《講錄》)與男子之裳不同。』(《釋義》)與男子之裳不同。』。此所以衣不用帶下尺，裳旁不用衽也。今攷《家禮》，則不用此制，婦人用大袖·長裙·蓋頭。男子衰服純用古制，而婦人不用古制，此則未詳。《儀禮》婦人有經·帶。經，首經也，帶，腰帶也。圍之大小無明文，大約『(《釋義》)대강.』與男子同。卒哭，丈夫去麻帶，服葛帶，而首經不變。婦人以葛爲首經，而麻帶不變。既練，男子除經，婦人除帶。其謹於經·帶變除之節若此。《家禮》婦人並無經·帶之文，當以禮經爲正。”

“〈喪服·斬衰〉傳曰：‘童子何以不杖？不能病也。婦人何以不杖？不能病。』(《講錄》)言年少不至毀瘠爲病也。(《釋義》)非謂疾病也，猶言年少故不能哀痛也。』也。’疏曰：“童子不杖”，此庶童子也。『(《釋義》)非謂庶孽也。』 〈問喪〉云“童子當室，則免。』(《講錄》)〈喪服〉註：“當室者，爲父後爲家主者。”又曰：“童子爲孤子，而當室則免。”(《釋義》)猶當爲承重者，言初喪時，免而杖也。』而杖矣”，謂適子也。婦人不杖，亦謂童子婦人。『(《釋義》)年少婦人。』。若成人婦人正杖。〈喪大記〉云：“三日子夫人。』(《釋義》)兼適庶世子也。』杖，五日大夫世婦。』(《講錄》)〈雜記〉註：“世婦，卽大夫之正妻。”(《釋義》)言大夫與世婦，宮中女官名。』杖。”諸經皆有婦人杖。又如姑在爲夫杖，母爲長子杖。按，〈喪服小記〉云：“女子子在室爲父母，其主喪者不杖，則子一人杖。”鄭云：“女子子在

室，亦童子也。無男昆弟，使同姓爲攝主不杖，則子一人杖謂長女也。許嫁及二十而笄，笄爲成人。成人，正杖也。是其童女爲喪主，則亦杖矣。”愚按，《家禮》用《書儀》服制，婦人皆不杖，與〈問喪〉·〈喪大記〉·〈喪服小記〉不同。恨未得質正。”

劉氏璋曰：“衰服之制，前言已載。惟裳制則未之詳。按，司馬溫公曰：‘古者五服皆用布，以升數爲別，共以八十縷爲一升。’又〈衰裳·記〉〔《釋義》〕〈喪服·記〉。衰裳제도 놀기록하니라.〕曰：‘凡衰外削幅〔《講錄》〕削幅을 外하고. 削한거시 外로 가게하다.〔《釋義》〕外削幅은 削한 幅을 外로 가게하다.〕，裳內削幅幅三衻。〔《講錄》〕音‘拘’。與上文‘三輒’同。〈喪服〉註：“衻，謂辟兩側，空中央。”〔《註解》〕音‘拘’。與輒同。〔《釋義》〕音‘句’。三處屈之而空其中也。〕’疏曰：‘衰外削幅者，謂縫之邊幅向外。裳內削幅者，謂縫之邊幅向內。有幅三衻者，據裳而言。用布七幅，幅二尺二寸。兩畔〔《講錄》〕兩邊。〔《釋義》〕卽兩邊也。〕各去一寸〔《講錄》〕言每幅兩邊，各去一寸，爲針縫之用。〕爲削幅，則二七十四〔《講錄》〕每幅各去二寸，則二七乃十四寸也。〔《釋義》〕七幅兩邊，各去一寸，所謂二七十四也。〕丈四尺。〔《講錄》〕言古者布幅廣二尺二寸，則裳七幅，廣一丈五尺四寸也，而去其十四寸，則只有丈四尺也。十尺爲一丈。〔《釋義》〕言古者布幅廣二尺二寸，則裳七幅，廣一丈五尺四寸也，而去其十四寸，則只有丈四尺也。十尺爲一丈。〕若不辟積其腰中，則束身不得就。故一幅布凡三處屈之。〔《講錄》〕세고대 주름잡단 말이다.〔《釋義》〕세고대 주름잡다. 言每幅兩邊各剪一寸。〕’又禮惟斬衰不緝，餘衰皆緝之，緝必外向，所以別其吉服也。”

“又杖屨一節，按，《三家禮》云：‘斬衰苴杖，竹也，爲父。

所以杖用竹者，父是子之天，竹圓亦象天；內外有節，象子爲父，亦有內外之痛；又貫四時而不變，子之爲父，亦經寒溫而不改，故用之也。菅屨，謂以菅草爲屨。《毛傳》『《講錄》』《詩傳》。《釋義》《毛氏傳》。』云“野菅也。已漚『《釋義》』물에 담가 다스리다 흠이라.』爲菅”，又云“菅菲外納”，則周公時謂之屨，子夏時『《講錄》』周公作經而曰‘管屨’，子夏作傳而曰‘菲’，故云‘周公時’·‘子夏時’。《釋義》疑必子夏問禮之文，故曰子夏時。』謂菲。外納者，外其飾，向外編之也。”

黃氏瑞節曰：“先生長子塾『《釋義》』字受之，贈中散大夫。』卒，以繼體服斬衰，《禮》謂之加服，俗謂之報服也。『《註解》』見《儀禮經傳》續八。』”

二曰齊衰三年。『《釋義》』《集說》：“四升布。卒哭，七升¹⁷⁾。”程子曰：“古之父在爲母服期，今則皆爲三年之喪。皆爲三年之喪，則家有二尊矣，可無嫌乎？處今之宜，服齊衰一年外，以墨衰終月算，可以合古之禮，全今之制。”』

齊，緝也。其衣『《註解》』衣二尺有二寸，蓋指衣身自領至腰之長而言之也。布八尺八寸，中斷以分左右，爲四尺四寸者二。又取四尺四寸，中擢分前後，爲二尺二寸者二。○問：“今人或用喪主之指，若喪主數人，身長不齊，各制其尺而制其服乎？”曰：“長短不大相遠則用一尺，相遠則用異尺。”』·裳『《註解》』前三幅後四幅，縫皆向內，前後不連。每幅作三輒，屈其兩邊，蓋相着而空其中也。○長當用布二尺，輒之則皆如今裳制，亦似無妨。前後不連，惟其領左傍則相接，右傍則使長其兩繫數尺許，而繫之其腰，結於當心下。』·冠制，並如斬衰。但用

17) 七升：《家禮集說》에는 ‘七升布’로 되어 있다.

次等麤生布，緝其旁及下際。冠以布爲武及纓。首經以無子麻爲之，大七寸餘，本在右，末繫本下，布纓。腰經大五寸餘。絞帶以布爲之，而屈其右端尺餘。杖以桐爲之，上圓下方。婦人服同斬衰，但布用次等爲異。後皆倣此。其正服，則子爲母也。士之庶子〔《講錄》〕孺子。特言士之庶子，大夫之庶子有厭降，士卑無厭故也。〔《釋義》〕孺子也。此特言士之庶子，未詳。〕爲其母同〔《釋義》〕言齊衰三年。〕，而爲父後則降也。其加服，則嫡孫父卒爲祖母，若曾·高祖母〔《釋義》〕若，猶及也，後倣此。〕承重者也；母爲嫡子當爲後者也。其義服，則婦爲姑也；夫承重則從服也；爲繼母也；爲慈母，謂庶子無母而父命他妾之無子者慈己也；繼母爲長子〔《釋義》〕前室所生長子也。〕也；妾爲君之長子也。

楊氏復曰：“按，《儀禮》補服條〔《講錄》〕黃勉齋所著，見《儀禮》。後人通謂之朱子所著，見下《儀禮經傳》。〈喪記〉·〈祭記〉二篇，朱子未及修之，故勉齋述之也。〔《釋義》〕勉齋黃氏所著，見《儀禮經傳》。〈喪記〉·〈祭記〉二篇，朱子未及修之，故勉齋述之也。〕，當增〔《釋義》〕猶新增〕祖父卒而後爲祖母後者也，爲所後者之妻。〔《講錄》〕〈喪服〉疏：“妻，謂死者之妻。雷氏曰¹⁸⁾：‘當云爲所後之母，闕此五字者，以其所後不定，或後祖父，或後曾高祖，故闕之也。’〔《釋義》〕養母也。〕若子〔《釋義》〕如子之服親母服也。〕也。”

劉氏璋曰：“齊衰削杖，桐〔《釋義》〕《集說》：“無桐，代以

18) 雷氏曰：이하의 내용이 《儀禮》에는 ‘雷氏次宗曰：此當云爲人後者爲所後之父，闕此五字者，以其所後之父或早卒，或後祖父，或後曾高祖父，所後不定，故闕之也’로 되어 있다.

柳¹⁹⁾。”也。爲母。按，《三家禮》云：‘桐者言同也，取內心悲痛同於父也。以外無節，象家無二尊，外屈於父。削之使下方者，取母象於地也。疏屨者，粗屨也。疏，讀如不熟之疏，草也。斬衰重而言菅，以見草體，舉其惡貌。』《釋義》『사오나온 데라.』；齊衰輕而言疏，舉草之總稱也。〈不杖〉章《釋義》指下文‘不杖期’也。言麻屨。齊衰三月與大功同繩屨。小功·緦麻輕，又沒《釋義》猶無也。其屨號。麻屨註云：‘不用草。’”

“凡言杖者，皆下本，順其性也。高下各齊其心，其大小如腰絰。”

杖期 《釋義》至親以期斷，是何也？曰：天地則已易矣，四時則已變矣，其在天地之中者，莫不更始焉，以是象之也。』

服制同上。但又用次等生布。其正服，則嫡孫父卒祖在爲祖母也。其降服，則爲嫁母 《釋義》即母改嫁於他人也。出母也 《釋義》言見出於父者也，即在於七去中者也。其義服，則爲父卒繼母嫁而已從之者也 《釋義》言繼母改他人而已從而依之也。己，即我也。；夫爲妻也。子爲父後，則爲出母嫁母無服。《講錄》出與嫁，皆得罪於家廟。承重之人不可服其服而祭於家廟也。此爲父後故也。《釋義》出與嫁，皆已得罪於家廟。承重之人不可服其服而祭於家廟也。此爲父後也，故與上文之言不同。繼母出則無服也。

楊氏 復曰：“按，齊衰杖期，恐當添爲所後者之妻若子

19) 代以柳：《家禮集說》에는 ‘以柳木代’로 되어 있다.

也。〔《釋義》〕言所後之父在，則爲所後母只服杖期也。〕·祖父在嫡孫爲祖母也。据先生《儀禮經傳》補服條，修首一條〔《釋義》〕即‘爲所後者之妻若子也’一節。未詳。〕已具齊衰三年下。”

不杖期

服制同上。但不杖，又用次等生布。其正服，則爲祖父母。女雖適人，不降也，庶子之子〔《講錄》〕即孽孫也。〔《釋義》〕即孽孫也。〕爲父之母〔《講錄》〕即祖父之妾也。爲父後故不服。〔《釋義》〕即祖父之妾也。爲父後故不服。〕，而爲祖後則不服也；爲伯叔父也；爲兄弟也；爲衆子男女也；爲兄弟之子也；爲姑〔《釋義》〕아비누의라。〕姊妹女在室，及適人而無夫與子〔《講錄》〕〈喪服·傳〉：“姑姊妹女子子，適人無主者，何以期也？爲其無祭主也。”註：“無主後者，人²⁰所哀憐，不忍降之。”疏：“無主有二，謂喪主祭主。傳不言喪主者，喪有無後，無無主者。〔《釋義》〕疑必無主喪之人，故雖已嫁，不降也。〕者也；婦人無夫與子者，爲其兄弟姊妹及兄弟之子也；妾爲其子也。其加服，則爲嫡孫，若曾玄孫當爲後者也；女適人者，爲兄弟之爲父後者也。其降服，則嫁母出母爲其子，子雖爲父後猶服也；妾爲其父母也。其義服，則繼母·嫁母爲前夫之子從己者也；爲伯叔母也；爲夫兄弟之子也；繼父同居，父子皆無大功之親者也；妾爲女君〔《釋義》〕적실안해라。〕也；妾爲君之衆子也；舅姑爲嫡婦也。

20) 人：《儀禮》에는 ‘人’으로 되어 있다.

楊氏復曰：“按，《不杖期》註，正服當添一條姊妹既嫁相爲服也。『《講錄》』兄弟則降服，而姊妹則雖已嫁，不降服。然朱子晚年更考〈喪服〉大功章，論以‘降服大功無疑’云。『《釋義》』兄弟則降服，而姊妹則雖已嫁，不降服。』”

“其義服當添一條父母在則爲妻不杖也。”

“按，爲人後者爲其父母報·女子適人者爲其父母，此是不杖期大節目，何以不書也？蓋此條在後凡男爲人後者與女適人者，爲其私親皆降一等中，故不見於此。”

五月

服制同上。其正服，則爲曾祖父母，女適人者不降也。

三月

服制同上。其正服，則爲高祖父母『《講錄》』以恩推之，則高祖輕，故服緦麻；以義觀之，則高祖重，故服齊衰。『《釋義》』以恩推之，則高祖輕，故服緦麻；以義觀之，則高祖重，故服齊衰也。』，女適人者不降也。其義服，則繼父不同居者，謂先同今異，或雖同居，而繼父有子，已有大功以上親者也。其元不同居者則不服。

楊氏復曰：“按，《儀禮》補服條，當增爲所後者之祖父母若子也。”

三曰大功九月。『(《講錄》)功，灰治之功也。《補註》：“此言布之用功蠡²¹⁾大也。”(《註解》)功，灰治之功，布之用功粗大也。(《釋義》)言布之用功蠡大也。服制同齊衰，但用布比齊衰稍熟耳。功，灰治之功也。《集說》：“七升至九升。”〈雜記〉：“有服，人召之食，大功以下既葬，適人，人食之，其黨也食之，非其黨弗食也。”註：“謂族人親²²⁾戚也。』

服制同上，但用稍粗熟布，無負版·衰·辟領。首經五寸餘。腰經四寸餘。其正服，則爲從父兄弟姊妹『(《釋義》)四寸兄弟와 누의라』，謂伯叔父之子也；爲衆孫男女也。其義服，則爲衆子婦也；爲兄弟子之婦也；爲夫之祖父母·伯叔父母·兄弟子之婦也；夫爲人後者，其妻爲本生舅姑也。

楊氏復曰：“《儀禮》註云：‘前有衰，後有負版，左右有辟領，孝子哀戚之心無所不在。’疏云：‘衰者，孝子有哀摧之志。負者，負其悲哀。適者，指適緣於父母。』(《釋義》)緣，猶‘指適’之‘指’字。』，不念餘事。”

“又按，註疏釋衰·負版·辟領三者之義，惟子爲父母用之，旁親則不用『(《講錄》)雖兄弟及三寸叔不用，然既曰齊衰，則五月三月皆有之，期年自是重制，安有不用之理乎？疑楊氏說誤。(《釋義》)言雖於四寸大父及三寸叔，皆不用也。』也。《家禮》至大功乃無衰負版辟領者，蓋《家禮》乃初年本也。後先生之家所行之禮，旁親皆無衰·負版·辟領。若此之類，皆從後來議論之定者爲正。”

21) 蠡：《家禮補註》에는 ‘粗’로 되어 있다.

22) 親：《禮記》에는 ‘與親’으로 되어 있다.

“大功九月，恐當添爲同母異父之昆弟也。或曰爲外祖母也。据先生《儀禮經傳》補服條，修同母異父之昆弟，本子游答公叔木『《釋義》衛人，叔文子之子也。』』之問。以同父同母則服期，今但同母而是親者血屬『《講錄》親，卽母也。血屬，指骨肉也。《釋義》親，卽母也。血屬，猶骨肉也。』，故降一等，蓋恩繼於母，不繼於父。若子夏答狄儀以爲齊衰，則過矣。故註疏家以大功爲是。外祖母，只据魯莊公爲齊王姬『《講錄》王姬下嫁於齊侯時，魯莊公主婚，故服之也。此古禮也。《釋義》言王姬下嫁於齊侯時，魯莊公主婚，故服之，此古禮也。』服大功·檀弓』或曰『《講錄》或曰，乃檀弓篇中之辭也。《釋義》檀弓，魯知禮人之名。《禮記》그 말을 퍼篇名을 삼으니라。』外祖母也。今《家禮》以外祖父母爲小功正服，則當以《家禮》爲正。”

劉氏 垓孫曰：“沈存中『《講錄》沈括字。《釋義》括字。』說，〈喪服〉中曾祖齊衰服，曾祖以上皆謂之曾祖，恐是如此。如此，則皆合有齊衰三月服。看來『《釋義》《語錄》：“猶言보건단。”』高祖死，豈有不爲服之禮？須合『《釋義》合，猶正也。』行齊衰三月也。伊川頃言祖父母喪須是不赴舉，後來不曾行。今法令雖無明文，看來爲士者爲祖父母期服內，不當赴舉。’‘今人齊衰用布大細『《釋義》‘大細’之‘大’，音‘太’。』，又大功·小功皆用苧布，恐皆非禮。大功須用市中所賣大麻布稍細者，或熟麻布亦可。小功須用度布『《講錄》疑虔州之布。《釋義》疑是虔州之布。』之屬。古者布帛精粗，皆用升數，所以說布帛精粗不中數『《講錄》〈王制〉：“布帛精麤不中數，幅廣狹不中量，不鬻於市。”註：“數，升數也²³⁾。布幅廣二尺二寸，帛廣二尺四寸。”《釋義》疑是不中

於升數也。自‘布帛精粗不中數不鬻於市’，此〈曲禮〉之文也。』，不鬻於市。今更無此制，聽民之所爲。所以倉卒難得中度者，只得買來自以意擇製之耳。’”

四曰小功五月。〔《講錄》〕《補註》：“小功者，布之用功細小也。”（《註解》）布之用功細小也。（《釋義》）《集說》：“十升至十二升也。”小功，言布之用功細小也，比大功精熟細耳。〕

服制同上，但用稍熟細布。冠左縫。首經四寸餘。腰經三寸餘。其正服，則爲從祖祖父〔《釋義》〕四寸大父。〕·從祖祖姑〔《釋義》〕四寸大母。〕，謂祖之兄弟姊妹也；爲兄弟之孫；爲從祖父〔《釋義》〕五寸族長。〕從祖姑〔《釋義》〕五寸叔母。〕，謂從祖祖父之子，父之從父兄弟姊妹也；爲從父兄弟之子也；爲從祖兄弟姊妹〔《釋義》〕六寸兄弟尔 누의라。〕，謂從祖父之子，所謂再從兄弟姊妹者也；爲外祖父母，謂母之父母也；爲舅，謂母之兄弟也；爲甥也，謂姊妹之子也；爲從母，謂母之姊妹也；爲同母異父之兄弟姊妹也。其義服，則爲從祖祖母〔《釋義》〕四寸大父之妻。〕也；爲夫兄弟之孫也；爲從祖母〔《釋義》〕五寸族長之妻。〕也；爲夫從兄弟之子也；爲夫之姑姊妹，適人者不降也；女爲兄弟姪之妻〔《釋義》〕女婦人之通稱也。兄弟，卽己之兄弟也；侄，則兄弟之別也。〕，已適人亦不降也；爲娣·姒婦，謂兄弟之妻相名，長婦謂次婦曰娣婦，娣婦謂長婦曰姒婦也；庶子爲嫡母之父母兄弟姊妹，

23) 升數也：《禮記》에는 ‘升縷多寡之數也’로 되어 있다.

嫡母死，則不服也；母出，則爲繼母之父母兄弟姊妹也；爲庶母慈己者，謂庶母之乳養己者也；爲嫡孫若曾玄孫之當爲後者之婦，其姑在則否也；爲兄弟之妻也；爲夫之兄弟也。

楊氏復曰：“按，《儀禮》補服條，當增爲所後者妻之父母若子也·姑爲適婦不爲舅後者〔《講錄》〕即長子有廢疾，不堪主宗廟者之妻也。〔《釋義》〕庶子之婦也。〕也·諸侯爲適孫之婦也。”

五曰總麻三月。〔《講錄》〕言治布之縷細如絲也。〔《註解》〕總，絲也。治其縷，細如絲也。〔《釋義》〕《集說》：“十五升布也。”總，絲也。治其縷，細如絲也。又以澡治苧垢之麻爲經帶，故曰總麻。〈雜記〉：“總冠綵縷。”註：“總服²⁴⁾縷，其縷細與朝服十五升布同，而縷數則半之，治其縷，不治其布，冠與衰同²⁵⁾。但爲縷，則以灰澡治之耳。綵，讀爲‘澡’。朝服一千二百縷終幅。總之縷細與朝服同，但其布終幅止六百縷而疏。”]

服制同上。但用極細熟布。首經三寸，腰經二寸，並用熟麻。縷亦如之。其正服，則爲族曾祖父〔《釋義》〕五寸大父。〕·族曾祖姑〔《釋義》〕五寸大母。〕，謂曾祖之兄弟姊妹也；爲兄弟之曾孫也；爲族祖父〔《釋義》〕六寸大父。〕·族祖姑〔《釋義》〕六寸大母。〕，謂族曾祖父之子也；爲從父兄弟之孫〔《釋義》〕六寸孫。〕也；爲族父〔《釋義》〕七寸族長。〕·族姑〔《釋義》〕

24) 服：《禮記》에는 ‘服之’로 되어 있다.

25) 同：《禮記》에는 ‘同是此布也’로 되어 있다.

七寸族長。』，謂族祖父之子也；爲從祖兄弟之子〔《釋義》七寸族下。〕也；爲族兄弟姊妹〔《釋義》八寸兄弟며 누의라。〕，謂族父之子，所謂三從兄弟姊妹也；爲曾孫·玄孫也；爲外孫也；爲從母兄弟姊妹〔《釋義》母之兄弟之子(也)。〕，謂從母之子也；爲外兄弟〔《釋義》아비누이의 증식이라。〕，謂姑之子也；爲內兄弟〔《釋義》어미오라비 증식이라。〕，謂舅之子也。其降服，則庶子爲父後者爲其母，而爲其母之父母·兄弟·姊妹則無服也。其義服，則爲族曾祖母〔《釋義》五寸大父之妻(也)。〕也；爲夫兄弟之曾孫也；爲族祖母〔《釋義》六寸大父之妻(也)。〕也；爲夫從兄弟之孫也；爲族母〔《釋義》七寸族長之妻(也)。〕也；爲夫從祖兄弟之子也；爲庶孫之婦也；士爲庶母，謂父妾之有子者也；爲乳母也；爲壻也；爲妻之父母，妻亡而別娶亦同，即妻之親母〔《釋義》即所生之母故也。〕雖嫁出猶服也；爲夫之曾祖高祖也；爲夫之從祖祖父母也；爲兄弟孫之婦也；爲夫兄弟孫之婦也；爲夫之從祖父母也；爲從父兄弟子之婦也；爲夫從兄弟子之婦也；爲夫從父兄弟之妻也；爲夫之從父姊妹，適人者不降也；爲夫之外祖父母也；爲夫之從母及舅也；爲外孫婦也；女爲姊妹〔《釋義》即女之親姊妹之子之妻也。〕之子婦也；爲甥婦〔《釋義》非謂上文女之甥婦也。〕也。

楊氏復曰：“當增爲同爨〔《釋義》브역이 혼가지라。〕也·爲朋友也·爲改葬也·大夫爲貴妾也·士爲妾有子也。按，《通典》漢戴德〔《講錄》〕字延君，與姪聖同受禮於丘蒼，德刪

禮爲八十五篇，號《大戴禮》。《釋義》即西漢時人，作《大戴禮》。一云即小戴撰《禮記》者。云：‘以朋友有同道之恩，故加麻。’《釋義》即弔服，弔服之加麻也，非謂總之加麻也。三月。晉曹述初問：‘有仁人義士矜幼携養，《釋義》猶乳養遺棄兒也。’積年，爲之制服，當無疑耶？徐邈《講錄》撰正《五經音訓》，學者宗之，謝安薦爲中書舍人。《釋義》謝安薦爲中書令，以作《五經音訓》。答曰：‘禮緣情耳。同爨總，朋友麻。’又按，《儀禮》補服條，同爨，謂以同居生，於禮可許，既同爨而食，合有總麻之親。改葬，謂墳墓以他故崩壞，將亡失尸柩也。言改葬者，明棺物。《講錄》明字意止於‘也’字。毀敗，改設之如葬時也。此臣爲君也，子爲父也，妻爲夫也。餘無服。必服總者，親見尸柩，不可以無服。總三月而除之，謂葬時服之。又按，《通典》戴德云：‘制總麻具而葬。’《講錄》具總麻之服而葬也。《釋義》具總麻之服而葬也。葬而除，謂子爲父·妻妾爲夫·臣爲君·孫爲祖後者也。其餘親皆弔服。’魏王肅云：‘非父母，無服。’《講錄》改葬時無服。《釋義》言改葬時無服。無服，則弔服加麻。士，妾有子。《講錄》士之妾有子，則士爲其妾而服之。《釋義》言士之妾有子，則士爲其妾而服之也。而爲之總，無子則已。謂士卑，妾無男女則不服，不別貴賤也。大夫貴妾，雖無子，猶服之。故大夫爲貴妾總，是別貴賤也。”

劉氏 垓孫曰：“司馬公《書儀》，斬衰古制，而功總又不古制，此却可疑。蓋古者五服皆用麻，但布有差等，皆用冠經，但功總之經小耳。今人吉服不古，而凶服。《釋義》《禮記》凡凶服，雖破，不補。古，亦無意思。今俗喪服之制，下用橫布作欄。《講錄》衣與裳連曰欄。又橫附幅之意。《釋

義》)마른 복을 브치느 쓰지라.』，惟斬衰用不得。”

凡爲殯服，以次降一等。

凡年十九至十六爲長殯，十五至十二爲中殯，十一至八歲爲下殯。應服期者，長殯降服大功九月，中殯七月，下殯小功五月。應服大功以下，以次降等。不滿八歲爲無服之殯，哭之以日易月。〔《講錄》〕〈喪服·傳〉：“八歲以下無服之殯，以日易月。”鄭註：“生一月者，哭之一日也。”疏：“若至七歲，歲有十二月，則八十四日哭之。王肅·馬融以爲日易月者，以哭之日易服之月。殯之期親，則以旬有三日哭。總麻，以三日爲制。”（《釋義》）若九月，則只哭九日；若七月，則七日之類。生未三月，則不哭也。男子已娶，女子許嫁。〔《釋義》〕言雖在長殯以下，已爲許嫁，則非殯也。〕，皆不爲殯。

凡男爲人後，女適人者爲其私親。〔《釋義》〕即父母以下通言。〕皆降一等，私親之爲之也亦然。

女適人者降服，未滿。〔《釋義》〕降服之月數也。〕被出。〔《釋義》〕母適人而見黜於夫家也。〕則服其本服。〔《釋義》〕言斬衰以下，皆不降等，而服其本服之月數也。〕，已除則不復服。〔《講錄》〕在夫家，已除私親服，則不須更服其未服之月數。（《釋義》）在夫家之時，已除私親降等之服，則不須更服其本服之月數也。言已除之，則不可更服故也。〕也。

凡婦服夫黨，當喪而出，則除之 〔《講錄》〕除其夫黨之服也。
〔《釋義》〕除其夫黨之服也。言已被出，故不復服也。〕。

凡妾爲其私親，則如衆人 〔《講錄》〕《儀禮》作‘邦人’。如上文‘女適人者爲其私親，皆降一等’也。〔《釋義》〕《儀禮》作‘邦人’。如上文‘女適人者爲其私親，皆降一等’也。〕。

司馬溫公曰：“〈喪服小記〉云：‘爲父母喪，未練而出則三年 〔《講錄》〕未過父母小祥，而被出於夫家，則服其父母三年喪。〔《釋義》〕謂已與夫族絕，故其情復降於父母也。〕’，既練而出則已 〔《講錄》〕在夫家，過父母小祥而被出，則已除喪服，故不復更服也。〔《釋義》〕既練而出，則其服已除，不可更同兄弟爲三年服，故已也。若被出後，父母之喪未及期，而夫命之，反，則但終期服，返在期後，則遂終三年，蓋已隨兄弟小祥服，三年之喪不可終廢也。未練而出則三年，言未遇厥父母小祥，被出於夫而還家，則服其父母三年之喪；既練而出，則已在夫家遇厥父母小祥而被出，則已除衰服，故雖返其家，不須更服也。〕’。未練而返則期，既練而返 〔《講錄》〕見黜夫家，既練歸夫家，則因服三年。〕則遂之。”

成服之日，主人及兄弟始食粥。

諸子食粥。妻妾及期·九月疏食水飲，不食菜果。五月·三月者飲酒食肉，不與宴樂。自是無故不出。若以喪事及不得已而出入，則乘，樸馬 〔《講錄》〕樸，與‘朴’同，朴素之馬也。〔《釋義》〕樸，與‘朴’同，朴素之馬也。〕布鞍，素轎 〔《釋義》〕婦人所乘

之轎。】布簾。

凡重喪未除而遭輕喪，則制其服而哭之，月朔設位 【《講錄》別設虛位而哭之也。《釋義》言方在重服，不敢與五服之人，就其位而哭之，故別設位而哭也。】，服其服而哭之，既畢 【《釋義》言服其服而哭設位也。】，返重服，其除之也，亦服輕服 【《釋義》疑必除其輕服。輕服，卽期功之服。】。若除重喪而輕服未除，則服輕服以終其餘日 【《釋義》期功以下之服也。】。

問：“從母之夫·舅之妻，皆無服 【《註解》同姓三寸叔母夫，本無服。三寸姪女夫·四寸祖母夫·孫女夫皆無服。所以無者，推不去古也。彼於我，以妻親不爲服，我亦無可服之義。】，何也？”朱子曰：“先王制禮，父族四，故由父而上，爲從曾祖 【《釋義》言自從曾祖以下至八寸也。】服總麻，姑之子 【《釋義》言父之姊妹之子也。】·姊妹之子·女子之子 【《釋義》我之女子之子也。】皆有服，皆由父而推之故也 【《釋義》指從曾祖姑之子·姊妹之子·女子之子，皆由父而推之，故有服。】。母族三，母之父·母之母·母之兄弟。恩止於舅，故從母之夫 【《釋義》言母姊妹之夫也。】·舅之妻 【《釋義》言外三寸叔之妻也。】，皆不爲服，推不去 【《釋義》非如由父而推之類也，故曰推不去。】故也。妻族二，妻之父·妻之母。乍看時 【《釋義》言猶言잠깐 봄에。】似乎雜亂無紀，子細看則皆有義存焉。”又言：“《呂與叔集》中一婦人墓誌：‘凡遇功·總 【《釋義》言婦人遇功·總也。】之喪，皆蔬食終其月。’此可爲法。”

問：“喪禮衣服之類，逐時換去，如葬後換葛衫，小祥後

換練布之類。今之墨纁可便於出入，而不合於禮經，如何？”曰：“若能不出，則不服之亦好。但要出外治事，則只得服之。”

問：“居喪爲尊長強之以酒，當如何？”曰：“若不得辭，則勉徇其意亦無害，但不可至沾醉，食已復初。〔《釋義》食，猶飲酒也。復初，言復如初而不食。〕可也。”問：“坐客有歌唱者，如之何？”曰：“當起避。”

楊氏復曰：“心喪三年，按，《儀禮》‘父在爲母期’，註：‘子於母，雖爲父屈而期，心喪猶三年。’唐前〔《釋義》前字疑衍文。唐中宗又有上元號，然則前字非衍。〕上元〔《釋義》高宗年號。〕元年，武后上表請父在爲母終三年之喪。”

“《禮記》：‘師心喪三年。’”

“今《服制令》〔《釋義》以下三條，宗廟之制也。〕：‘庶子〔《講錄》令，從上讀。庶子，妾子也。此下三條，皆宋朝之制。《釋義》妾子也。〕爲後者爲其母總，亦解官申心喪三年。’”

“母出及嫁〔《釋義》言出母及嫁母也。〕，爲父後者雖不服，申〔《釋義》與仲同。〕心喪三年。”

“爲人後者爲其父母不杖期，亦解官申心喪三年。”

“嫡孫祖在，爲祖母齊衰杖期。雖期除，仍心喪三年。先生曰：‘喪禮須從《儀禮》爲正。如父在爲母期，非是薄於母，只爲尊在其父，不可復尊在母。然亦須心喪三年。這般處皆是大項事，不是小節目，後來都失了。而今國家法爲所生父母，皆心喪三年，此意甚好。’”

“又按，先生此書雖自《儀禮》中出，其於國家之法未嘗遺〔《釋義》猶言不遺國家之法也。〕也，前章所論爲所生父母心喪，概可見矣。五服年月之制，既已備載，則式假〔

《講錄》式，法式也。假，由也。《釋義》式，法式也。假，猶中也。】一條，恐亦當補入。今喪葬假寧格《講錄》宋時法也。《釋義》宋時法也。】，非在職《講錄》如今在軍職之類也。《釋義》疑如今在軍職之類也。】遭喪，期三十日，大功二十日，小功十五日，總麻七日，降而絕服《講錄》降總一等，則絕而不服，猶假三日也。《註解》謂凡降服，降總一等，絕而不服，猶假三日也。○有服之殤，自有其月數，故只舉無服之殤。《釋義》謂降總一等，絕而不服，猶假三日也。】三日。無服之

殤，期五日，大功三日，小功二日，總麻一日。葬，期《釋義》言葬時期，即期年也。】五日，大功三日，小功二日，總麻一日。除服，期三日，大功二日，小功·總麻一日。”

“在職遭喪，期七日，大功五日，小功·總麻三日。降而絕服之殤《釋義》無服之殤自有日數，故只舉無服之殤，雖無服，〈假寧格〉云：“期五日”。】一日。本宗及同居無服之親之喪一日。改葬，期以下親一日。私忌《釋義》即忌日也。】，在職，非在職，祖父母·父母並一日，逮事《釋義》猶言高·曾祖生時已逮事者。逮，猶及也。】高·曾同。”

朝·夕哭·奠·上食

朝奠 《(釋義)》朝奠日出，夕奠逮日，及日之未落也。】

每日晨起，主人以下皆服其服，入就位。尊長坐哭，卑者立哭。侍者設盥櫛之具于靈牀側，奉魂帛，出就靈座 《(釋義)》入靈床捧出也。】，然後朝奠。執事者設蔬果·脯醢。祝盥手焚香斟酒。主人以下再拜，哭盡哀。

劉氏 璋曰：“凡奠用脯醢者，蓋古人家常有之，如無，別具饌數器，亦可。夫朝夕奠者，謂陰陽交接之時思其親也。朝奠將至，然後徹夕奠，夕奠將至，然後徹朝奠。各用罩子 《(講錄)》《集說》：“罩用竹爲格，白生絹爲之。” 《(釋義)》대틀의 김으로 불라 덮는 거시라.】。若暑月恐臭敗，則設饌如食頃去之，止留茶·酒·果屬，仍罩之。”

食時上食。

如朝奠儀 《(釋義)》朝夕通言也。】。

夕奠

如朝奠儀。畢，主人以下奉魂帛，入就靈座 《(講錄)》《補註》云：“當作‘靈牀’。” 《(釋義)》《補註》：“‘靈座’當作‘靈牀’。”】，哭盡哀。

哭無時。〔《釋義》〕哭을 時업시하다. 猶言不限時也。〕

朝夕之間，哀至，則哭於喪次。

朔日，則於朝奠設饌。

饌用肉·魚·麪·米食 〔《講錄》〕餅也。〔《釋義》〕卽餅也。〕·羹·飯
各一器。禮如朝奠之儀。

問：“母喪朔祭，子爲主？”朱子曰：“凡喪，父在父爲主，則父在子無主喪之禮也。”又曰：“父沒兄弟同居，各主其喪。註云‘各爲妻子之喪爲主也’，則是凡妻之喪，夫自爲主也。今以子爲喪主似未安。”

高氏曰：“若遇朔望節序，則具盛饌，其品物比朝夕奠差衆。《禮》疏曰‘士則月望不盛奠’，唯朔奠而已。”

楊氏復曰：“按，初喪立喪主條，凡主人謂長子，無則長孫承重以奉饋奠。今乃謂父在父爲主，父在子無主喪之禮，二說不同，何也？蓋長子主喪以奉饋奠，以子爲母喪，恩重服重故也。朔奠則父爲主者，朔殷奠 〔《釋義》〕殷，盛也。〕，以尊者爲主也。《喪服小記》曰：‘婦之喪，虞·卒哭，其夫若子主之。’虞·卒哭，皆是殷祭，故其夫主之，亦謂父在父爲主也。朔祭父爲主，義與虞·卒哭同。”

有新物，則薦之。

如上食儀.

劉氏 璋曰：“孝子之心，事死如事生，斯須不忘其親也. 如遇五穀百果一應新熟之物，必以薦之，如上奠儀. 凡靈座之間，除金銀酒器 〔(《釋義》)酒器則用金銀也.〕 之外，盡用素器，不用金銀錢飾，以主人有哀素之心故也.”

弔，奠，賻

凡弔，皆素服。

幘頭·衫·帶，皆以白生絹爲之。

問：“今弔人用橫烏 〔《講錄》〕疑幘頭。〔《註解》〕未詳。〔《釋義》〕未詳〕，此禮如何？”朱子曰：“此是玄冠以弔，正與孔子所謂‘羔裘玄冠，不以弔’者相反。”

奠用香·茶·燭·酒·果。

有狀。或用食物，即別爲文。

賻 〔《釋義》〕賻之言補也，助也。資財曰賻。〕 用錢·帛。

有狀，惟親友 〔《講錄》〕親與友也。〔《釋義》〕言親與友也。〕 分厚者有之。

司馬溫公曰：“東漢 徐穉，每爲諸公所辟，雖不就，有死喪，負笈赴弔。嘗於家豫炙雞一隻，以一兩綿絮漬酒中，暴乾以裹雞，徑到所赴家隧外，以水漬絮，使有酒氣汁米

飯 [[《講錄》] 汁米飯，疑是漬飯也。] (《釋義》) 汁米飯，疑卽漬飯]，白茅爲藉，以雞置前，醑酒 [[《講錄》] 醑，猶酌也。] (《釋義》) 醑，猶酌也。]。畢，留謁則去，不見喪主。然則奠貴哀誠，酒食不必豐腆也。”

具刺 [[《講錄》] 如今之名御。古未有紙，削竹木以書姓名，故謂之刺。後以紙書，故曰名紙。] (《釋義》) 如今之명함이라.] 通名。

賓主皆有官，則具門狀 [[《講錄》] 疑如今謁見議政之員，用六行名御也。] (《釋義》) 禮狀也。疑是如今謁見議政之員，用六行名御也。]，否則名紙 [[《釋義》] 명함굿튼 거시라.]，題其陰面 [[《講錄》] 名紙後面也。] (《釋義》) (其計) 未詳。]。先使人通之，與禮物 [[《講錄》] 香·茶·燭等物。] (《釋義》) 卽香·茶·燭等物也。] 俱入。

入哭，奠，訖乃弔而退。

既通名，喪家炷火燃燭布席，皆哭以俟。護喪出迎賓。賓入至廳事進揖曰：“竊聞某人傾背 [[《釋義》] 背패，猶言死也。]，不勝驚怛。敢請入酌 [[《釋義》] 酌늬，모사의 술 저기쳐 제훔이라.]，并伸慰禮。”護喪引賓入，至靈座前哭盡哀，再拜焚香，跪酌茶酒，俛伏興。護喪止哭者。祝跪讀祭文·奠·賻狀於賓之右，畢，興。賓主皆哭盡哀。賓再拜。主人哭出，西向稽顙再拜。賓亦哭，東向答拜，進曰：“不意凶變，某親某

官奄忽傾背，伏惟哀慕，何以堪處？”主人對曰“某罪逆深重，禍延某親。伏蒙奠醑，并賜臨慰，不勝哀感”，又再拜。賓答拜。又相向哭盡哀。賓先止，寬譬 〔《釋義》〕寬懷而譬曉之也。〕主人曰“修短有數，痛毒奈何？願抑孝思，俯從禮制”，乃揖而出。主人哭而入。護喪送至廳事茶湯而退 〔《釋義》〕言飲茶湯而退去也。《集說》：“薄俗有設酒食待賓客者，非禮，宜痛革之。”《雜記》：“凡喪服未畢，有吊者，則爲位而哭，拜，踊。”註：“不以殺禮而待新吊之賓，五服皆²⁶⁾然。”“三年之喪，雖功衰，不吊。自諸侯達諸士。如有服而將往哭之，則服其服而往。”註：“衰與大功同²⁷⁾，故曰功衰。如有五服之親喪而往哭，不著己之功衰，而依彼親之節以服之也。‘不吊’與‘往哭’二者，貴賤皆同。”小註：“服功衰不吊，則以創鉅痛深故也。”“期之喪，練則吊。”註：“齊衰十一月，皆可以出吊。又曰：‘此爲父在爲母。’“既葬大功，吊哭而退，不聽事焉。”註：“言己有大功之喪，已葬也，往吊他人之喪，則吊訖²⁸⁾，即退去。”〕。主人以下止哭。

若亡者官尊，即云‘薨逝’，稍尊即云‘捐館’。生者官尊，則云‘奄棄榮養’，存亡俱無官，即云‘色養’。若尊長拜賓，禮亦同此，惟其辭各如啓狀之式，見卷末。

司馬溫公曰：“凡弔人者，必易去華盛之服，有哀戚之容。若賓與亡者爲執友，則入醑。婦人，非親戚與其子爲執友，嘗升堂拜母 〔《釋義》〕古者執友，則相升堂而拜其母也。〕者，則不入醑。凡弔及送喪者，問其所乏，分導 〔《講錄》〕其友各分導也。導，猶指導也。〔《釋義》〕言其友各分導也。

26) 皆：《禮記》에는 ‘悉’로 되어 있다.

27) 同：《禮記》에는 ‘同之’로 되어 있다.

28) 吊訖：《禮記》에는 ‘弔哭既畢’로 되어 있다.

導，猶指導也。』營辦，貧者爲之執紼。『《講錄》』卽紼也。『《釋義》』관 인호는 주리라. 卽紼也。』負土之類，毋擾及。『《釋義》』조요히 밋치단 말이라. 其飲食財貨。『《釋義》』言毋干飲食財貨於喪家也。』，可也。”

高氏曰：“既謂之奠，而乃燒香酌酒，則非奠矣。『《講錄》』酌，猶灑也。『《釋義》』酌，猶灑(酒)也。奠，卽奠其楹於靈座前。』。世俗承習久矣，非禮也。”

又曰：“喪禮，賓不答拜。凡非弔喪，無不答拜者。胡先生。『《講錄》』疑胡瑗。『《釋義》』疑瑗也。』《書儀》曰：‘若弔人是平交，則落一膝。』『《講錄》』弔人落一膝也。『《釋義》』弔人落一膝也。』，展手策之。『《講錄》』如搗策之策。『《釋義》』막대를 주집단 마리라. 以表半答。若孝子尊弔人卑，則側身避位，候孝子伏次，卑者即跪還，須詳緩去就，無令跪伏與孝子齊。”

楊氏復曰：“按，程子·張子。『《釋義》』疑必橫渠也。』與朱先生後來之說，奠，謂安置也。奠酒則安置於神座前，既獻則徹去。奠而有酌者，初酌酒，則傾少酒于茅。『《講錄》』茅沙也。『《釋義》』茅沙也。』，代神祭也。今人直以奠爲酌，而盡傾之於地，非也。高氏之說亦然。『《釋義》』謂高氏亦以今人以奠爲酌，而盡傾之於地，爲非也。』，與此條所謂‘入酌’‘跪酌。』『《釋義》』見上。』’，似相抵牾。蓋《家禮》乃初年本，當以後來已定之說爲正，詳見〈祭禮〉降神條。”

又曰：“按，弔禮，主人拜賓，賓不答拜，此何義也？蓋弔賓來，有哭拜或奠禮，主人拜賓以謝之。此賓所以不答拜也。故高氏書有‘半答’‘跪還’之禮。凡禮必有義，不可苟。『《釋義》』苟且也。』也。《書儀》·《家禮》從俗，有‘賓答拜’

家禮講錄集成 家禮 卷之三

之文，亦是主人拜賓，賓不敢當，乃答拜。今世俗弔賓來，見几筵 [[《釋義》] 几, 신데을 의거하느 거시오. 筵, 돛기라.] 哭拜，主人亦拜，謂代亡者答拜，非禮也。既而賓弔主人，又相與交拜，亦非禮也。”

聞喪，奔喪，治葬

始聞親喪，哭。

親，謂父母也。以哭答使者，又哭盡哀，問故。

易服。

裂布爲四脚 〔《講錄》〕四脚之制，以一幅布，裂其兩端爲四脚，先以後兩脚，結於額上，又以前兩脚，結於袞後。〔《註解》〕幘頭之屬，見《朱子大全》。其制，以一幅布，裂其兩端爲四脚，先以後兩脚，結於額上，又以前兩脚，結於袞後。〔《釋義》〕幘頭之屬，乃武帝所制之常冠，用布一方幅，前兩脚綴兩大帶，後兩脚綴小帶，覆頂四垂，因以前邊抹額，而繫大帶於腦後，復收後角而繫小帶於髻前，以代古冠，亦名幘頭，亦名折上巾。其後乃以漆紗爲之，而專謂之幘頭，其實一物。〕。白布衫・繩帶・麻履。

遂行。

日行百里，不以夜行，雖哀戚，猶辟害 〔《講錄》〕避盜賊也。〕也。

道中哀至，則哭

哭避市邑 〔《講錄》〕〈奔喪〉篇曰：“避市朝，爲驚衆也。”〔《釋義》〕當過市邑而止哭者，乃是避也。〈雜記〉：“凡異居，始聞兄弟之喪，唯以哭對，可也。其始麻，散帶經。”註：“其帶經之麻，始皆散垂，謂大功以上之兄弟，至三日而後絞之也。小功以下，不散垂。”“未服麻而奔喪，及主人之未成經也，疏者與主人皆成之，親者終其麻帶經之日數。”註：“小功以下謂之疏。疏者值主人成服之節，則與主人皆成之。大功以上謂之親也。奔喪²⁹⁾而至之時，雖值主人成服，己必自終³⁰⁾其散麻帶經之日數，而後成服也。”〕 喧繁之處。

司馬溫公曰：“今人奔喪，及從柩行者，遇城邑則哭，過則止，是飾詐之道也。”

望其州境·其縣境·其城·其家，皆哭。

家不在城，望其鄉，哭。

入門詣柩前，再拜，再變服，就位哭。

初變服，如初喪。柩東西向坐，哭盡哀。又變服，如大小斂，亦如之 〔《釋義》〕言又變服後，柩東西向坐哭，如初變服之時。〕。

後四日，成服。

29) 奔喪：《禮記》에는 ‘親者奔喪’으로 되어 있다.

30) 終：《禮記》에는 ‘終寬’으로 되어 있다.

與家人相弔。賓至，拜之如初。

若未得行 〔《講錄》〕有不得已之事，故未得奔喪。（《釋義》）有不得已之事，故未得奔喪也。〕，則爲位，不奠。

設椅子一枚，以代尸柩，左右前後設位哭如儀，但不設奠。若喪側無子孫，則此中設奠如儀。

變服。〔《講錄》〕變，恐是‘成’字之誤。（《釋義》）變服下疑脫‘成服’二字，《儀節》有之。〕

亦以聞後之第四日。

在道至家 〔《釋義》〕即上文所謂‘未得行’者，厥後乃奔喪也。〕，皆如上儀。

若喪側無子孫，則在道朝夕爲位設奠，至家但不變服，其相弔拜賓如儀。

若既葬 〔《講錄》〕葬者，藏也，欲人之不見也。（《註解》）藏也，欲人之不得見也。〕，則先之墓哭拜。

之墓者望墓哭，至墓哭拜，如在家之儀。未成服者，變服於墓，歸家詣靈座前哭拜，四日成服如儀。已成服者亦然，但不變服。

齊衰以下聞喪，爲位而哭。

尊長於正堂，卑幼於別室。

司馬溫公曰：“今人皆擇日舉哀。凡悲哀之至，在初聞喪即當哭之，何暇擇日？但法令有不得於州縣公廨〔《釋義》그위집이라.〕舉哀之文，則在官者當哭於僧舍，其他皆哭於本家可也。”

若奔喪，則至家成服〔《講錄》《補註》：“至家四日而成服也”。《釋義》《補註》云：“至家四日而成服也。”〕。

奔喪者，釋去華盛之服，裝辦即行。既至，齊衰望鄉而哭，大功望門而哭，小功以下至門而哭。入門，詣柩前哭再拜，成服就位，哭弔如儀。

若不奔喪，則四日成服。

不奔喪者，齊衰三日中朝夕爲位會哭，四日之朝成服，亦

如之；大功以下，始聞喪爲位會哭，四日成服，亦如之。皆每月朔爲位會哭，月數既滿，次月之朔 [[《釋義》]劉珙常如是云耳.]，乃爲位會哭而除之。其間哀至則哭，可也。

三月而葬 [[《講錄》]葬者，藏也，欲人之不見也。(《註解》)藏也，欲人之不得見也。(《釋義》)葬者，藏也，欲人之不見也。(《禮·檀弓》).]，先 [[《釋義》]《諺解》³¹⁾作‘前’.] 期擇地之可葬者。

司馬溫公曰：“古者天子七月，諸侯五月，大夫三月，士踰月而葬。今五服年月，敕王公以下皆三月而葬。然世俗信葬師之說 [[《講錄》]葬師，猶地官。(《釋義》)相地官之言也.]，既擇年月日時，又擇山水形勢，以爲子孫貧富貴賤·賢愚壽夭盡繫於此，而其爲術又多不同，爭論紛紜，無時可決。至有終身不葬，或累世不葬，或子孫衰替，忘失處所，遂棄捐不葬者。正使殯葬實能致人禍福，爲子孫者，亦豈忍使其親臭腐暴露，而自求其利邪？悖禮傷義，無過於此。然孝子之心，慮患深遠，恐淺則爲人所扣 [[《講錄》]本作‘掘穿’也。(《釋義》)本作‘掘穿’也.] 【音骨.】，深則濕潤速朽，故必求土厚水深之地而葬之，所以不可不擇也。或問：‘家貧鄉遠不能歸葬，則如之何？’公曰：‘子游問喪具。夫子曰：“稱家之有無。”子游曰：“有無惡【音烏.】乎齊 [[《釋義》]어디가, 猶云언매면 인는

31) 《諺解》: 《家禮諺解》 권7, 〈喪禮〉‘治葬’에 ‘三月而葬, 前期擇地之可葬者’로 되어 있다. 《家禮儀節》의 경우도 《家禮諺解》와 동일하다. 《諺解》는 申湜의 《家禮諺解》(1623)를 가리키는 것이 확실하다. 그 점에서 본 주석은 이황이 아닌 孫汝齊의 주석이다.

자기오 언매면 업슨 자기오.】【子細切.】?” 夫子曰：“有，毋過禮。苟無矣，斂手足形還葬，懸棺而窆【彼斂切.】，人豈有非之者哉？”昔廉范千里負喪【《講錄》】漢杜陵人。父遭亂死於蜀，范時年十五，迎父柩船俱溺，以救得免。後舉茂才治蜀，民歌其政。【《釋義》】杜陵人。父遭亂死於蜀，范時年十五，往迎父柩，船俱溺，以救得免。明帝時舉茂才雲中及蜀郡太守，民歌其政。初范與慶鴻爲刎頸交，時人稱曰前有管鮑，後有慶廉。【出《漢書》.】，郭平自賣【《講錄》】平自賣其身，以受其直而營墓也。【《釋義》】按《漢書·孝義傳》，家貧力學，親死不能葬，遂賣身於富家爲傭，覓箋營墓，邦人稱之。既已舉孝廉，至朝散大夫。】營墓，豈待豐富，然後葬其親哉？在禮未葬不變服，食粥，居廬，寢苫枕塊。蓋憫親之未有所歸，故寢食不安。奈何舍之出游，食稻衣錦？不知其何以爲心哉？世人又有遊宦沒於遠方，子孫火焚其柩，收燼【《釋義》】收其灰也。】歸葬者。夫孝子愛親之肌體，故斂而藏之，殘毀他人之尸，在律【《釋義》】在法也。】猶嚴，況子孫乃悖謬如此？其始蓋出於羌·胡之俗，浸染中華，行之既久，習以爲常，見者恬然曾莫之怪，豈不哀哉？延陵 季子適齊，其子死，葬於贏·博【《釋義》】제사두고 을일홈이라.】之間，孔子以爲合禮。必也不能歸葬，葬于其地可也，豈不猶愈於焚之哉？”

程子曰：“卜其宅兆，卜其地之美惡也，非陰陽家所謂禍福者也。地之美，則其神靈安，其子孫盛，若培壅其根，而枝葉茂，理固然矣。地之惡者則反是。然則曷謂地之美者？土色之光潤·草木之茂盛，乃其驗也。父祖子孫同氣，彼安則此安。彼危則此危，亦其理也，而拘忌者或以擇地之方

位，決日之吉凶，不亦泥 〔《講錄》〕《韻會》：“乃計切，滯也。”（《釋義》）音禮，猶牢也。〕乎？甚者不以奉先爲計，而專以利後爲慮，尤非孝子安厝 〔《講錄》〕《韻會》：“與措同，置也，安著也。”〕之用心也。惟五患者不得不謹，須使他日不爲道路，不爲城郭，不爲溝池，不爲貴勢所奪，不爲耕犁所及也。一本云：‘所謂五患者，溝渠·道路·避村落·遠井窯 〔《講錄》〕井與窖也。《說文》：“窖，燒瓦坎。”〕’。”

按，古者葬地皆決於卜筮，今人不曉占法，且從俗擇之，可也。

擇日，開塋域，祠后土 〔《講錄》〕《月令》註：“五行獨稱后³²者，后，君也。位居中，統領四行，故稱君也。”（《釋義》）《月令》註：“五行獨稱后者，后，君也。位居中，統領四行，故稱君也。”〕。

主人既朝哭，帥執事者於所得地掘穴，四隅外其壤，掘中南其壤，各立一標。當南門立兩標。擇遠親或賓客一人告后土氏。祝帥執事者設位於中標之左，南向設盞注·酒果·脯醢於其前，又設盃盆·帨巾二於其東南，其東有臺架，告者所盃，其西無者，執事者所盃也。告者吉服入，立於神位之前，北向，執事者在其後東上，皆再拜。告者與執事者皆盃帨。執事者，一人取酒注，西向跪；一人取盞，東向跪。告者斟酒反注，取盞酌于神位前，俛伏興，少退立。祝執版

32) 獨稱后：《禮記大全》에는 丘濬의 말을 인용하여 ‘獨土神稱后’로 되어 있다.

立於告者之左，東向跪，讀之曰：“維某年歲月朔日子【《講錄》日，猶言一日二日也。子，猶甲子乙丑也。】某官姓名，敢告于后土氏之神。今爲某官姓名，營建宅兆，神其保佑，俾無後艱。謹以清酌·脯醢祇薦于神，尚饗。”訖，復位。告者再拜，祝及執事者皆再拜。徹，出。主人若歸，則靈座前哭再拜。後放此。

司馬溫公曰：“莅卜【《釋義》莅，治也。】或命筮者【擇遠親或賓客爲之。】及祝執事者，皆吉冠素服。”註云：“非純吉，亦非純凶。素服者，但徹去華采·珠金之飾而已。”

遂穿壙

司馬溫公曰：“今人葬有二法：有穿地直下爲壙，而懸棺以窆者；有鑿隧道旁穿土室，而擯【《講錄》音竄。《韻會》云：“擯也。”】柩於其中者。按，古者唯天子得爲隧道，其他皆直下爲壙，而懸棺以窆。今當以此爲法。其穿地宜狹而深，狹則不崩損，深則盜難近也。”

問：“合葬【《釋義》趙季明族葬說曰：“以造營時爲始祖子孫，以年齡列昭穆，曾玄以下左右祔妻。繼室無所出，合其夫，崇正體也；妾從祔母，以子貴也；降女君，明貴賤也；比妻穴退尺許，與夫同封，示繫一也。妾無子猶陪葬，廣愛也。黜妻及改嫁，雖宗子之母，不合葬，義絕也。男女長殤，已娶，皆成人之位。中下之殤，葬祖父後，示未成人也。序不以齒，不期夭。男女異位，

法陰陽也。男左女右，葬後者皆南首，惡其趾之向尊也。祖北不墓，避其正也。嫁母還家以殤冗處之如在室也。』夫妻之位。”
朱子曰：“某初葬〔《講錄》〕某，朱子自謂也。』亡室時，只存東畔一位，亦不曾考禮是如何。”陳安卿〔《釋義》〕名淳，朱子弟子。』云：“地道以右爲尊，恐男當居右。”曰：“祭時以西爲上，則葬時亦當如此，方是。”

“人家墓壙·棺槨，切不可太大，當使壙僅能容槨，槨僅能容棺乃善。去年此間陳家墳墓遭發掘者，皆緣壙中太闊，其不能發者，皆是壙中狹小，無著脚手處，此不可不知也。此間墳墓，山脚低卸〔《講錄》〕卸，音舍，脫也。低卸，言山脚低下而脫露。〔《註解》〕卸，音舍。〔《釋義》〕未詳。』，故盜易入。”問：“墳與墓何別？”曰：“墓想是塋域，墳即封土隆起者。《光武紀》云：‘爲墳但取其稍高，四邊能走水足矣。’古人墳極高大，壙中容得人行，也沒意思〔《釋義》〕沒，猶無也〕。今法令一品以上，墳得高一丈二尺，亦自儘高〔《講錄》〕儘，マ장。〔《釋義》〕マ장。』矣。”李守約〔《講錄》〕朱子門人，名閔祖，號綱齋，光澤人。〔《釋義》〕名閔祖，朱子門人。』云：“墳墓所以遭發掘者，亦陰陽家之說有以啓之〔《釋義》〕陰陽家云：“深葬則於風水之理不合，宜當淺葬”，故人多淺葬，以此墓賊易爲發掘。〕。蓋凡發掘者，皆以葬淺之故，若深一二丈，自無此患。古禮葬亦許深。”曰：“不然。深葬有水。嘗見興化漳泉〔《講錄》〕興化，郡名。漳·泉，二州名。〔《釋義》〕興化，郡名。漳·泉，二州名。』間墳墓甚高，問之則曰：‘棺只浮在土上。深者僅有一半入地，半在地上，所以不得不高其封。’後來見福州人舉移舊墓，稍深者無不有水，方知興化漳泉淺葬者，蓋防水爾。北方地土深厚，

深葬不妨。豈可同也？”

作灰隔

穿壙既畢，先布炭末於壙底，築實厚二三寸，然後布石灰·細沙·黃土拌均〔《講錄》두의셋단 말이다. 《手鑑》云：“拌，和也。”（《釋義》두의셋거.〕者於其上，灰三分二者各一，可也。築實厚二三尺，別用薄板爲灰隔，如槨之狀，內以瀝青塗之厚三寸許，中取容棺。牆高於棺〔《講錄》〕牆，卽四面薄板也。《家禮》無外槨。（《釋義》）卽四面薄板也。《家禮》（無）外槨。〕四寸許，置於灰上，乃於四旁旋下四物〔《講錄》〕旋，猶言又厶。四物，石灰·黃土·細沙及炭末也。（《釋義》）猶又厶。四物下호되。石灰·炭·黃土·細沙。《集說》：“今人但實灰沙於槨外，槨內空虛，久必貯水不便，莫聽俗言誤大事。或問：‘槨內外皆實灰沙，則以朱子之言爲據，槨又加底，亦有據乎？’曰：‘頃葬先人，慮地有水滲³³出，臆見槨乃加底，用油麻灰³⁴，以助³⁵召船一匠脩其縫薄，溶瀝青，塗其外，用以載柩，槨之內外如前法，各實以沙灰。既平，槨口再加外蓋，用直板合成，脩其縫。不用橫者，仍用油灰批縫密釘之，再溶瀝青，塗其上，更下沙灰，盈坎乃止。’又問：‘槨內外既皆實以灰沙，何必又用木槨在內？’曰：‘灰沙須發熱過乃堅，若不用槨隔之，則天雨地泉浸濕，灰沙不能堅結，故用槨隔之，則槨外灰沙縱然浸濕不結，而槨內者自能發熱堅固，又槨朽腐時，內灰沙已皆堅結久矣，所以槨加底，蓋非無謂也。’”〕，亦以薄板隔之。炭末居外，三物居內，如底之厚。築之既實，則旋抽其

33) 滲：《家禮集說》에는 ‘繆’로 되어 있다.

34) 油麻灰：《家禮集說》에는 ‘油灰麻’로 되어 있다.

35) 以助：《家禮集說》에는 ‘筋’로 되어 있다.

板近上，復下炭灰等而築之，及牆 [[《釋義》서피라.] 之平而止。蓋既不用槨，則無以容瀝青，故爲此制。又炭禦木根，辟水蟻，石灰得沙而實，得土而黏，歲久結而爲全石，螻蟻·盜賊皆不得進也。

程子曰：“古人之葬，欲比化者不使土親膚。今奇玩之物，尙保藏固密，以防損污，況親之遺骨當何如哉！世俗淺識，惟欲不見而已，又有求速化之說者，是豈知必誠必信之義？且非欲求其不化也，未化之間，保藏當如是爾。”

問：“槨外可用灰雜沙土否？”朱子曰：“只純用炭末，置之槨外，槨內實以和沙石灰。”或曰：“可純用灰否？”曰：“純灰恐不實，須雜以篩過 [[《釋義》]篩, 체라. 此言 체로 즈단 마리라.] 細沙，久之灰沙相乳入 [[《釋義》]엥그여들미라.]，其堅如石。槨外四圍上下一切實以炭末，約厚七八寸許，既辟濕氣，免水患，又截樹根不入。樹根遇炭皆生轉去 [[《講錄》]疑‘橫’，生他處轉去也。] (《釋義》)生疑是‘橫’，生他處轉去也.]，以此見炭灰之妙。蓋炭是死物 [[《釋義》]非生物，故曰死物.] 無情，故樹根不入也。《抱朴子》[[《講錄》]葛洪所著。] (《釋義》)按《晉書》，葛洪，句容人，家貧力學，尤好神仙導養之術，元帝辟爲丞相，以平賊功，賜爵關內侯。既而求爲句漏令，曰：“非欲求榮耳，以有母耳。”咸和初，選爲散騎常侍，不就，入羅浮山，著《內外篇》百餘。號抱朴子，尸解而去。] 曰：“炭入地，千年不變。”問：“范家 [[《講錄》]疑范如圭家。] (《釋義》)范氏，名圭，宋時。] 用黃泥拌石灰，實槨外，如何？”曰：“不可。黃泥久之，亦能引樹根。”又問：“古人

用瀝青，恐地氣蒸熱，瀝青溶化〔《釋義》疑是^ㄴ단마리라.〕，棺有偏陷，却不便。”曰：“不曾親見用瀝青利害。但書傳〔《釋義》雜書傳.〕間多言用者，不知如何。”

“禮，壙中用生體〔《講錄》生，《禮記》作‘牲’。取遣奠牲體，包以送葬，以羊爲牲。《註解》生，當作‘牲’。古者取遣奠牲體，包以送葬也。遣奠之牲，或以羊爲之。《釋義》作‘牲’。〕之屬，久之必潰爛，却引蟲蟻，非所以爲亡者慮久遠也。古人壙中置物甚多，以某觀之，禮文之意大備，則防患之意反不足，要之只當防慮久遠，毋使土親膚而已，其他禮文皆可略也。又如古者棺不釘，不用漆粘，而今灰漆如此堅密，猶有蟻子入去，何況不使釘漆？此皆不可行。”

楊氏復曰：“先生答廖子晦〔《講錄》德明之字。朱子門人。《釋義》名，德明，朱子門人.〕曰：‘所問葬法，後來講究，木槨瀝青，似亦無益。但於穴底先鋪炭屑，築之厚一寸許，其上即鋪沙灰，四傍即用炭屑，側厚一寸許，下與先所鋪者相接，築之既平，然後安石槨於其上。四傍又下三物如前，槨底及棺四傍上面，復用沙灰實之，俟滿加蓋，復布沙灰，而加炭屑於其上，然後以土築之，盈坎而止。蓋沙灰以隔螻蟻，愈厚愈佳。頃嘗見籍溪先生〔《講錄》胡憲，字原仲.《註解》胡憲，字原仲.《釋義》按《宋鑑》，胡憲，崇安人，安國從子。紹興中，貢入大學，與劉勉之誦習伊·洛之書，歸山力田，從遊者衆。朱子師事，號籍溪先生.〕說，嘗見用灰葬者，後因遷葬，則見灰已化爲石矣。炭屑則以隔木根之自外至者，亦里人改葬所親見，故須令常在沙灰之外，四面周密都無縫罅，然後可以爲固。但法中〔《講錄》疑宋朝法令中.《釋義》疑(是)宋朝法令.〕不許用石槨〔《釋義》唐代

브터 石槨을 許치 아니호니라.』，故此不敢用全石，只以數片合成，庶幾不戾法意耳。”

刻誌石

用石二片，其一爲蓋，刻云：‘某官某公之墓。’無官則書其字曰：‘某君’〔《講錄》猶言陳君·范君。《釋義》猶言某姓也。〕某甫〔《講錄》某，卽字也。甫，男子美稱。字下又書甫字。《釋義》某卽字也。（某）甫，男子之美稱也。《釋義》書其字，下又書甫字，此非特誌石而例也，古人書字之例書甫字。〕某甫。’其一爲底，刻云：‘某官某公諱某字某某州某縣人，考〔《釋義》卽死者之父也。〕諱某某官，母氏某封，某年月日生，叙歷官遷次，某年月日終，某年月日葬于某鄉某里某處。娶某氏某人之女，子男某某官，女適某官某人。’婦人，夫在則蓋云‘某官姓名某封’〔《釋義》婦從夫職，言某封，則妻之意自見也。〕某氏之墓’，無封則云‘妻’，夫無官則書夫之姓名〔《釋義》大抵人生存則書姓名，死則不書名。〕，夫亡則云‘某官某公某封某氏’，夫無官則云‘某君某甫妻某氏’。其底叙年若干〔《講錄》若一，若十之義，數未定之辭。《釋義》叙其年歲。若干，猶幾何也。〕適某氏，因夫子〔《講錄》或夫或子。《釋義》卽某夫也。〕致封號，無則否。葬之日以二石字面相向，而以鐵束束〔《講錄》上束字，猶索也。《釋義》鐵束之束，猶索也。〕之，埋之壙前近地面三四尺間，蓋慮異時陵谷變遷，或誤爲人所動，而此石先見，則人有知

其姓名者，庶能爲掩之也。

造明器 〔《講錄》〕造字意止於‘窆’字。明，猶神明之意。說見〈檀弓〉。〔《註解》〕謂神明之器也。〔《釋義》〕造字意止於‘窆’。明，猶神明之意。說見《禮記》。〕，

刻木爲車馬·僕從·侍女各執奉養之物，象平生而小。準令 〔《講錄》〕准，猶依也。令，宋之法令。〔《釋義》〕准，猶考也。令，法之令。〕，五品六品三十事 〔《釋義》〕事，猶介也。非謂車馬等物各三十事，疑恐車馬·僕從并三十事也。《廣記》云：“庶人十事。”〕，七品八品二十事，非陞朝官十五事。

下帳，〔《講錄》〕下，乃下藏之意。〔《註解》〕下藏之意。〔《釋義》〕字未詳。〕

謂牀·帳·茵·席·椅·卓之類。亦象平生而小。

苞，〔《講錄》〕《補註》：“苞，草也。古稱苞苴，是也。”〔《註解》〕即苞苴也。〔《釋義》〕按《儀禮》，“苞，草也。古稱苞苴，是也。”〕

竹掩一，以盛遣奠餘脯。

劉氏 瑋曰：“〈既夕禮〉 〔《講錄》〕《儀禮》篇名。〔《釋義》〕《儀禮》篇名。〕：‘苞二，所以裹奠羊豕之肉。’註云：‘用便易者，

謂茅長難用，裁取三尺一道編之.’”

筭，[[《講錄》]竹器，容斗二升.]

竹器五，以盛五穀.

司馬溫公曰：“今但以小甕貯五穀，各五升，可也.”

劉氏 璋曰：“〈既夕禮〉：‘筭三，容與簋同 [[《講錄》]簋，瓦器。言一筭之所容，一簋之所容相同。容，담기단 말이라. ((《釋義》)容，담기단 말이라. 言一筭之所容，一簋之所容相同.]] . 盛黍·稷·麥，其實皆淪 [[《釋義》]끓는 물의 덩가내미라.]] .’ 註云：‘皆湛之以湯 [[《講錄》]湛，與‘沈’同。湯，卽熱水也. ((《釋義》)湛，與‘沈’同。湯，熱水也.]] . 神之所享，不用食道 [[《講錄》]〈既夕禮〉疏：“以其鬼神幽暗，生者不見，故淹而不熟，以其不知神之所饗故也.” ((《釋義》)猶言不用熟食·血祭之類.]]，所以爲敬.”

甕，[[《講錄》]烏莖切，磁器，甍名. ((《註解》)烏莖切.]]

瓷器三，以盛酒醢醢.

司馬溫公曰：“自明器以下，俟實土及半，乃於其旁穿便房以貯之.”

“按，此雖古人不忍死其親之意，然實非有用之物。且脯肉腐敗，生蟲聚蟻，尤爲非便，雖不用，可也.”

大輦，

古者柳車 《講錄》柳，聚也，諸節之所聚，非以柳木爲之也。《釋義》非以柳木爲之也。柳，厚也。】，制度甚詳，今不能然，但從俗爲之，取其牢固平穩而已。其法用兩長杠，杠上加伏兔 《講錄》其狀如伏兔也。《釋義》둔테라。】，附杠處爲圓鑿，別作小方床以載柩。足高二寸。旁立兩柱，柱外施圓柄令入鑿中，長出其外，柄鑿之間，須極圓滑，以膏塗之，使其上下之際，柩常適平。兩柱近上，更爲方鑿加橫局 《講錄》橫木。《釋義》橫木。】，局兩頭出柱外者，更加小局。杠兩頭施橫杠，橫杠上施短杠，短杠上或更加小杠。仍多作新麻大索，以備扎縛 《講錄》扎，音札，本作‘繫’，纏束也。《註解》扎，音札，本作‘繫’，纏束也。《釋義》本扎系，纏束也。】。此皆切要實用不可闕者。但如此制，而以衣覆棺，亦足以少華道路，或更欲加飾，則以竹爲之格，以綵結之，上如撮蕉亭 《講錄》觀圖中竹格，可知其體。《釋義》撮蕉亭은 모정이라。】，施帷幔，四角垂流蘇而已。然亦不可太高，恐多罣礙 《講錄》걸리단말이라。罣，古賣反。《註解》古賣切。《釋義》걸리단 말이라。罣，胡卦反。】。不須太華，徒爲觀美。若道路遠，決不可爲此虛飾，但多用油單 《講錄》疑油茆之類。《釋義》疑油茆類。】裹柩，以防雨水而已。

朱子曰：“某舊爲先人 《講錄》朱子父諱松，號韋齋。《釋義》朱子父韋齋。】飾棺，考制度作帷幌 《講錄》幌，蒙也。在傍曰帷，在上曰幌，皆所以衣柳也。《釋義》황텅천이라。大夫畫帷，畫者畫爲雲氣也。士布帷，布幌謂白布，不畫也。】，延平

先生 [[《講錄》]姓李氏，名侗，字愿仲，南劍州人.] 以爲不切，而今禮文覺繁多，使人難行，後聖有作，必是裁減了，方始行得.”

翣. [[《註解》]在路障車，入槨障柩. (《釋義》)〈喪大記〉：“翣二.” 註：“翣，似³⁶⁾扇，以木³⁷⁾爲之. 在路則障車，入槨則障柩. 畫³⁸⁾雲氣也.”]

以木爲筐 [[《講錄》]영엇인는 거슬 謂之筐. (《釋義》)영엇인는 거슬 謂之筐.]，如扇而方. 兩角高，廣二尺，高二尺四寸. 衣以白布，柄長五尺. 黼翣，畫黼；黻翣，畫黻 [[《講錄》]黼，斧也；黻，兩己相背. (《釋義》)筐³⁹⁾，斧也；黻也，兩己相背也.]；畫翣，畫雲氣. 其緣皆爲雲氣，皆畫以紫，准格 [[《釋義》]격식의 ㄴ게 하라.] .

作主

程子曰：“作主用栗，趺方四寸，厚寸二分，鑿之洞底以受主身. 身高尺二寸，博三寸，厚寸二分，剡上 [[《講錄》]《韻會》云：“上削令上銳.” (《釋義》)《韻會》云：“上削令上銳.”] 五分爲圓首，寸之下勒前 [[《講錄》]勒，⁴⁰⁾《韻會》：“刻也.” (《釋義》)勒，猶削

36) 似：《禮記·喪大記》에는 ‘形似’로 되어 있다.

37) 以木：《禮記·喪大記》에는 ‘木’으로 되어 있다.

38) 畫：《禮記·喪大記》에는 ‘二畫’로 되어 있다.

39) 筐：‘黼’의 오기이다.

也。】爲額而判之，四分居前，八分居後。額下陷中，長六寸，廣一寸，深四分，合之植於趺下齊【《講錄》齊字絕句是。】，竅其旁以通中，圓徑【《釋義》〕넉혈의 두렛은 너비라.四分居三寸六分之下，下距趺面七寸二分，以粉塗其前面。”

司馬溫公曰：“府君·夫人共爲一櫨。”

“按，古者虞主用桑，將練而後易之以栗，今於此便作栗主以從簡便。或無栗，止用木之堅者。櫨用黑漆，且容一主。夫婦俱入祠堂，乃如司馬氏之制。”

程子曰：“庶母亦當爲主，但不可入廟，子當祀於私室，主之制度則一，蓋有法象不可益損，益損則不成矣。”

朱子曰：“伊川制，士庶不用主，只用牌子。看來牌子當如古制，只不消【《講錄》〕消，語助辭。不消，與不須同也。【《釋義》〕語助辭。不消，猶不須之意也。】二片相合及竅其旁以通中。且如今人未仕，只用牌子，到任後不中換了【《講錄》〕猶云不可中間換其神主也。【《釋義》〕猶云不可中間換其神主也。中間 맞고지 못 할 거시라.。若是士人，只用主，亦無大利害。主式乃伊川先生所制，初非朝廷立法，固無官品之限，萬一繼世無官，亦難遽易，但繼此不當作耳。牌子亦無定制，竊意亦須似主之大小高下，但不爲判合【《釋義》〕猶言判與合也。】·陷中，可也。凡此皆是後賢義起之制，今復以意斟酌，於古禮未有考也。今詳，伊川主式書‘屬稱’，本註‘屬，謂高曾祖考。稱，謂官或號行【《講錄》〕行，卽第幾行也。【《釋義》〕號，卽第幾行也。】，如處士秀才幾郎幾公之類’，如此則士庶可通用。周尺當省尺七寸五分弱，

《程集》與《書儀》誤註‘五寸五分弱’。溫公圖以謂‘三司布帛尺’，即省尺。程沙隨〔《講錄》〕名迥，字可久，號沙隨。〔《釋義》〕名迥，南宋人，字可久。〕尺，即布帛尺，今以周尺校之。布帛尺正是七寸五分弱，然非有聲律高下〔《講錄》〕吳氏曰：“聲五聲，律十二律。以律管之長短，和聲之高下，毫釐不可差。〔《釋義》〕五聲十二律。〕之差，亦不必屑屑然也，得一書爲據足矣。”

遷柩，朝祖，奠，賻，陳器，祖奠

發引前一日，因朝奠以遷柩告。

設饌如朝奠。祝斟酒訖，北面跪告曰“今以吉辰遷柩。敢告”，俛伏興。主人以下哭盡哀，再拜。蓋古有啓殯之奠，今既不塗殯，則其禮無所施，然又不可全無節文，故爲此禮也。

楊氏復曰：“古禮自啓殯至卒哭，更有兩變服之節。啓殯，斬衰男子括髮，婦人髻，蓋小斂括髮髻，今啓殯亦見尸柩，故變同小斂之節也。此是一節，今既不塗殯，則亦不啓，雖不變服，可也。古禮啓殯之後，斬衰男子免，至虞·卒哭皆免。此又是一節，《開元禮》，主人及諸子，皆去冠經，以邪布巾〔《釋義》〕넛문포제되라〕帕頭〔《講錄》〕帕，音霸。머리에 세단 말이라。疑如今首帕。〔《釋義》〕帕，音佩。머리터를 슈럼호미라。〕，亦放古意。《家禮》今皆不用，何也？司馬公曰：‘自啓殯至于卒哭，日數甚多，若使五服之親，皆不冠而袒免，恐其驚俗，故但各服其服而已。’”

奉柩朝于祖。〔《註解》〕丘氏謂：“人家狹隘者，奉⁴⁰⁾魂魄⁴¹⁾以代柩，屋⁴²⁾宇寬大者，宜⁴³⁾如禮。”此論得之。〔《釋義》〕朝，猶見也。〕

40) 奉：《家禮儀節》에는 ‘今擬奉’으로 되어 있다.

41) 魄：《家禮儀節》에는 ‘帛’으로 되어 있다.

42) 屋：《家禮儀節》에는 ‘若其屋’으로 되어 있다.

將遷柩，役者入，婦人退避，主人及衆主人輯杖立視。祝以箱奉魂帛前行，詣祠堂前，執事者奉奠及倚卓〔《講錄》疑靈座前所奠及倚卓，撤而將移設於祠堂。《釋義》疑(是)靈座前所奠及倚卓，撤而將移設於祠堂也。〕次之，銘旌次之，役者舉柩次之。主人以下從哭，男子由右，婦人由左，重服在前，輕服在後，服各爲叙，侍者在末；無服之親男居男右，女居女左，皆次主人主婦之後，婦人皆蓋頭。至祠堂前，執事者先布席，役者致柩於其上北首而出〔《講錄》北首，尸之首北向也。出，役夫出也。《釋義》尸之首北向也。出，役者出也。〕，婦人去蓋頭。祝帥執事者設靈座及奠于柩西〔《講錄》靈座設於柩西，奠則設之柩與靈座之間。《釋義》靈座設於柩西，奠則設之柩與靈座之間。〕，東向，主人以下就位，立，哭盡哀止。此禮蓋象平生將出，必辭尊者也。

楊氏復曰：“按，《儀禮》朝祖正柩之後，遂〔《釋義》역자인함을 주하는 이오。〕匠〔《釋義》관식기와 못기를 주하는 이라。〕始納載柩之車于階間，卽《家禮》所謂‘大輦’也。方其朝祖時，又別有輶軸，註云‘輶軸狀如長牀’，夫輶狀如長牀，則僅可承棺，轉之以軸，輔之以人，故得以朝祖。既正柩，則用夷牀〔《講錄》夷，與施同，施柩之牀也。《釋義》尸床也。夷，與施同，施柩之牀也。〕，蓋朝祖時，載柩則有輶軸，正柩則有夷牀，後世皆闕之。今但使役者舉柩，柩既重大，如何可舉？恐非謹之重之之意。若但魂帛朝于

43) 宜：《家禮儀節》에는 ‘自宜’로 되어 있다.

祖，亦失遷柩朝祖之本意，恐當從《儀禮》別制輿軸以朝祖，至祠堂前，正柩用夷牀北首，祝帥執事者設靈座及奠于柩西，東向，主人以下就位，立，哭盡哀止。”

“輯，斂也，謂舉之不以拄地也。”

“〈既夕禮〉：‘遷于祖’〔《講錄》〕遷，他本作‘朝’。（《釋義》）〈既夕禮〉：‘請祖期。’註：‘將行而飲酒曰祖，始也。’又‘乃祖。’註：‘還柩鄉外，爲行始。’疏曰：‘祖者，始也。爲行始，去載處而言。’〕，正柩于兩楹間，席升〔《講錄》〕疑奉席而上也。（《釋義》）疑必奉席而上也。〕設于柩西，奠設如初。’註：‘奠設如初，東面也。不統於柩〔《講錄》〕此設奠爲靈座而設，非屬於柩也。（《釋義》）此設奠屬於靈座，非統於柩也。〕，神不西面也。不設柩東，東非神位也。’”

遂遷于廳事〔《講錄》〕大斂在堂中少西，所以倣古殯于兩階之意。遷柩在廳事正中，亦倣古啓殯之意。（《釋義》）大斂在堂中少西，所以倣古殯于兩階之意。遷柩在廳事正中，亦所以啓殯之意也。〕。

執事者設帷於廳事。役者入，婦人退避。祝奉魂帛導柩右旋，主人以下男女，哭從如前，詣廳事。執事者布席，役者置柩于席上南首而出，祝設靈座及奠于柩前，南向。主人以下，就位坐哭，藉以薦席。

乃代哭。

如未斂之前，以至發引。

親賓致奠賻。

如初喪儀。

陳器。

方相在前，狂夫爲之，冠服如道士，執戈揚盾。四品以上四目爲方相，以下兩目爲魑頭。次明器·下帳·苞·笏·鬯，以牀舁之。〔《註解》〕舁，兩人對舉也。〔《釋義》〕兩人對舉也。메단 마리라. 次銘旌，去跗執之。次靈車，以奉魂帛香火。次大輦，輦旁有翼，使人執之。

劉氏 璋曰：“司馬溫公〈喪禮·陳器〉篇內，於下帳之下，有曰‘上服’二字者，註云：‘有官則公服·靴·笏·幘頭，無官則襴衫·鞋·履之類。’又‘大輦旁有翼，貴賤有數，庶人無之。’今書雖不曾載，姑附此，亦備引用。”

日晡 〔《講錄》〕《韻會》：“日加申時爲晡。加，猶當也。”〔《釋義》〕《韻會》云：“日加申時爲晡。加，猶當也。”時，設祖奠 〔《講錄》〕按，《鄉校禮輯》云：“祖，始也，謂行始也。將葬，像生時出則祖也。”〔《註解》〕晡，申時也。祖，始也，謂行始也。〕。

饌如朝奠。祝斟酒訖，北向跪告曰：“永遷之禮，靈辰不

留，今奉柩車，式『《釋義》猶‘以’字之意也。』遵祖道。”俛伏興。餘如朝夕奠儀。

司馬溫公曰：“若柩自他所歸葬，則行日但設朝奠，哭而行，至葬乃備此及下遣奠禮。”

遣奠

厥明，遷柩就輦。

輦夫納大輦於中庭，脫柱上橫局。執事者徹祖奠。祝北向跪告曰“今遷柩就輦，敢告”，遂遷靈座置傍側，婦人退避。召役夫遷柩就輦，乃載，施局加楔『(《講錄》)疑췌야기라. (《釋義》)疑是兩柱上橫木也，在局上者。』，以索維之，令極牢實。主人從柩哭降視載，婦人哭於帷中。載畢，祝帥執事者，遷靈座于柩前，南向。

司馬溫公曰：“啓殯之日，備布三尺，以盥濯灰治『(《講錄》)盥，《韻會》言洗也。灰治，如今마전. (《釋義》)如今마전(테엇이리라). 盥，《韻會》洗也。』之布爲之，祝御柩，執此以指麾役者。”

劉氏 瑋曰：“《儀禮》云：‘商祝拂柩用功布『(《講錄》)功，即마전之功. (《釋義》)功，即마전之功(也).』，幘【火吳切。】用俛衾.’ 註曰：‘商祝，祝習商禮者。商人教之以敬於接神。功布，拂去棺上塵土。幘，覆之，爲其形露也。俛之言尸也，俛衾覆尸之衾也.’”

乃設遣奠。

饌如朝奠，有脯。惟婦人不在。奠畢，執事者徹脯納苞中，

置舁牀上。遂徹奠。

楊氏復曰：“高氏禮，祝跪告曰：‘靈輶〔《釋義》喪車。〕
既駕，往卽幽宅，載〔《釋義》gone。〕陳遣禮，永訣終天。”

“載，謂升柩於輦也。以新組〔《釋義》織組也。〕左右束
柩於輦，乃以橫木楔柩足兩旁，使不動搖。”

祝奉魂帛，升車焚香。

別以箱盛主，置帛後。至是，婦人乃蓋頭出帷，降階立哭；
守舍者哭辭盡哀，再拜而歸〔《釋義》既哭而辭入歸家也。〕，尊
長〔《講錄》在舍之尊長也。《釋義》守舍之尊長也。〕則不拜。

發引 〔(《註解》)引，喪車之索，在棺曰紼，在道曰引。〕

柩行。

方相等前導，如陳器之叙。

主人以下男女哭步從。

如朝祖之叙。出門則以白幕夾障之。

尊長次之，無服之親又次之，賓客又次之。

皆乘車馬。親賓或先待於墓所，或出郭哭拜辭歸。

親賓設幄於郭外道旁，駐柩而奠。

如在家之儀。

塗中遇哀則哭。

若墓遠，則每舍設靈座於柩前，朝夕哭·奠，食時上食，夜則主人兄弟皆宿柩旁，親戚共守衛之。

及墓，下棺，祠后土，題木主，成墳

未至，執事者先設靈幄。

在墓道西，南向，有椅卓。

親賓次 [《講錄》幕次。《釋義》猶墓次。]

在靈幄前十數步，男東女西。次北 [《講錄》親賓次之北。
《釋義》言親賓次之北。] 與靈幄相值，皆南向。

婦人幄。

在靈幄後壙西。

方相至 [《註解》方相，驅魍魎之類，以衛安死者魂魄也。]，

以戈擊壙四隅。

明器等至，

陳於壙東南北上。

靈車至，

祝奉魂帛就幄座，主箱亦置帛後．

遂設奠而退．

酒果脯·醢．

柩至，

執事者先布席於壙南．柩至，脫載置席上北首，執事者取銘旌去杠置柩上．

主人男女，各就位哭，

主人諸丈夫立於壙東，西向；主婦諸婦女立於壙西幄內，東向．皆北上．如在塗之儀．

賓客拜辭而歸．

主人拜之，賓答拜．

乃窆 〔《講錄》〕〈釋名〉云：“下棺曰窆。”（《釋義》）下棺也．〕 ．

先用木杠橫於灰隔之上，乃用索四條，穿柩底鐲，不結而下之，至杠上，則抽索去之。別摺細布若生絹，兜柩底〔《釋義》〕兜，未詳。〕而下之，更不抽出，但截其餘棄之。若柩無鐲，即用索兜柩底兩頭放下，至杠上，乃去索。用布如前。大凡下柩最須詳審用力，不可誤有傾墜動搖。主人兄弟宜輟哭，親臨視之。已下〔《講錄》〕既下棺。〔《釋義》〕既下棺也。〕再整柩衣銘旌，令平正。

主人贈。〔《註解》〕贈，以物送別死者於槨中也。〕

玄六纁四，各長丈八尺，主人奉置柩旁，再拜稽顙，在位者皆哭盡哀。家貧或不能具此數，則玄纁各一可也。其餘金玉寶玩，並不得入壙，以爲亡者之累〔《釋義》〕金玉無益於亡者，而萬一盜（賊），以此掘取，則是爲亡者之累。〕。

加灰隔內外蓋，

先度灰隔大小，制薄板一片，旁距四牆，取令脗合。至是加於柩上，更以油灰彌之，然後旋旋〔《講錄》〕又呂。〔《釋義》〕猶ㄣㄣ（也）。〕少灌瀝青於其上，令其速凝，即不透板，約已厚三寸許，乃加外蓋。

實以灰，

三物，拌勻者居下，炭末居上，各倍於底及四旁之厚，以酒灑『(《釋義》疑必使之堅固也.)』而躡實之，恐震柩中，故未敢築，但多用之以俟其實耳。

乃實土而漸築之。

下土每尺許，卽輕手築之，勿令震動柩中。

祠后土於墓左。

如前儀。祝板前同，但云“今爲某官封諡，窆茲幽宅，神其”，後同。

劉氏 瑋曰。“爲父母形體在此，故禮其神以安之『(《講錄》疑安其父母之形體。(《釋義》安其父母之形體(也).)]』。”

藏明器『(《釋義》明，神明之也。以神明之道待之也.)』等。

實土及半，乃藏明器·下帳·苞·笱·甕於便房，以版塞其門。

下誌石。

墓在平地，則於墳內近南，先布塼『《《註解》》音專，甃也。』一重，置石其上，又以塼四圍之，而覆其上。若墓在山側峻處，則於墳南數尺間，掘地深四五尺，依此法埋之。

復實以土而堅築之。

下土亦以尺許爲準，但須密杵『《《釋義》》卽今달고也，猶言구지하라。』堅築。

題主。

執事者設卓子於靈座東南，西向，置硯筆墨。對卓置盥盆·帨巾如前。主人立於其前，北向。祝盥手出主，臥置卓上『《《釋義》》신주 놓피 노탄 마리라。』，使善書者盥手，西向立『《《釋義》》今俗，東向立。』，先題陷中。父則曰‘故某官某公諱某字某第幾神主’，粉面曰‘考某官封諡府君神主’，其下左旁曰‘孝子某奉祀’。母則曰‘故某封某氏諱某字某第幾神主’，粉面曰‘妣某封某氏神主’，旁亦如之。無官封，則以生時所稱爲號。題畢，祝奉置靈座，而藏魂帛於箱『《《釋義》》猶言來墓所之時，盛神主之箱。』中，以置其後，炷香斟酒，執版出於主人之右，跪讀之，日子同前，但云：‘孤子某敢昭告于考某官封諡府君。形歸窀穸『《《講錄》》厚夜也。《《註解》》窀，厚也。穸，夜也。厚夜，猶長夜。○神主左傍之說，何士信《小學圖》雖云“神主左旁”，然今《家禮》及《大明會典》等圖，皆書神主右邊，卽人之左旁也。』

《(釋義)》窀，音屯，厚也。窆，夜也。長夜也。】，神返室堂。神主既成，伏惟尊靈舍舊從新，是憑是依。’畢，懷之。《(講錄)》懷其祝板也。《(釋義)》言懷其祝板。】，興復位。主人再拜，哭盡哀止。母喪稱哀子，後放此。凡有封諡，皆稱之，後皆放此。

問，“夫在，妻之神主宜書何人奉祀。《(註解)》夫在，妻死，則神主當云‘亡室’，妻存無子而夫亡，則當何以書之？今都下有一家書曰‘顯辟’，蓋依《禮記》‘夫曰皇辟’之語，而未知是否。】？”
朱子曰：“旁註施於所尊。《(釋義)》旁註，即題左旁曰：‘孝子某封祀也。’施，疑用之於尊者也。尊者，即父母也。】，以下則不必書也。”

高氏曰：“觀木主之制，旁題主祀之名，而知宗子之法不可廢也。宗子承家主祭，有君之道。《(釋義)》言人君之道也。】，諸子不得而抗焉。故《禮》：‘支子不祭。祭必告於宗子。’《(講錄)》言支子因事祭祖先，則必告于宗子。《(釋義)》言支子因事祭祖先，則必告于宗子。】。’‘宗子爲士，庶子爲大夫，則以上牲。《(講錄)》上牲，大夫之牲也。大夫牲用羔，士牲特豚。《曲禮》疏：‘天子之大夫以索牛，諸侯之大夫用小牢。’《(釋義)》羊豕非瘦瘠之牲。】祭於宗子之家，其祝詞曰：‘孝子某爲介子某，薦其常事。’‘若宗子居于他國，庶子無廟，則望墓爲壇以祭，其祝詞曰：‘孝子某使介子某，執其常事。’若宗子死，則稱名不稱孝。’蓋古人重宗如此，自宗子之法壞，而人不知所自來，以至流轉四方，往往親未絕而有不相識者。是豈教人尊祖收族之道哉？”

祝奉神主，升車。

魂帛箱在其後。

執事者徹靈座，遂行。

主人以下哭從如來儀 [《釋義》言來墓之時禮儀也.]，出墓門，尊長乘車馬，去墓百步許，卑幼亦乘車馬，但留子弟一人監視實土以至成墳。

墳高四尺，立小石碑 [《註解》考位則書某公墓，如妣位合窆，則妣位書附.] 於其前，亦高四尺，趺高尺許。

司馬溫公曰：“按，令式墳碑石獸 [《講錄》墳與碑及石獸。《釋義》墳與碑及石羊·石馬也.] 大小多寡，雖各有品數，然葬者當爲無窮之規。後世見此等物，安知其中不多藏金玉邪？是皆無益於亡者，而反有害，故令式又有‘貴得同賤，賤不得同貴’之文。然則不若不用之爲愈也。”

今按，孔子 防墓之封 [《講錄》防，地名。墓，孔子之父墓。《註解》防，地名。孔子父墓所在.]，其崇四尺，故取以爲法，用司馬公說，別立小碑。但石須闊尺以上，其厚居三之二，圭首而刻其面，如誌之蓋，乃略述其世系·名字·行實而刻於其左，轉及後右而周焉。婦人則俟夫葬乃立，面如夫亡誌蓋

之刻云.

司馬溫公曰：“古人有大勳德，勒銘鍾·鼎，藏之宗廟。其葬則有豐碑 〔《講錄》〕下棺時立柱墳兩邊，其制如轆轤，以索貫豐碑而結於棺以下者也。〔《釋義》〕言下棺時立柱墳兩邊，其制如轆轤，以索貫豐碑而結於棺以下者也。〕以下棺耳。秦漢以來，始命文士褒贊功德，刻之於石，亦謂之碑。降及南朝，復有銘誌，埋之墓中。使其人果大賢也，則名聞昭顯，衆所稱頌，流播終古，不可掩蔽，豈待碑誌始爲人知？若其不賢也，雖以巧言麗詞，強加采飾，功侔呂望，德比仲尼，徒取譏笑，其誰肯信？碑猶立於墓道，人得見之，誌乃藏於墳中，自非開發，莫之睹也。隋文帝子秦王俊薨，府僚請立碑。帝曰：‘欲求名，一卷史書足矣，何用碑爲？徒與人作鎮石 〔《講錄》〕鎮，猶壓伏也。疑術者以墳石鎮之之術也。〔《釋義》〕방법이야 딛납하느 돌히라.〕耳。’此實語也。今既不能免 〔《講錄》〕猶言不免爲碑也。〔《釋義》〕猶言不免爲碑也。〕，依其誌文，但可直叙鄉里·世家·官簿始終而已。季札墓 〔《講錄》〕《一統志》：“季札墓在常州江陰縣西三十里⁴⁴⁾。孔子⁴⁵⁾題其碑曰：‘嗚呼，有吳延陵季子之墓。’歲久湮沒，宋守朱彥明復取孔子所書十字，刻碑表識。”〕前有石，世稱孔子所篆云：‘嗚呼，有吳延陵季子之墓。’豈在多言，然後人知其賢也？今但刻姓名於墓前，人自知之耳。”

44) 常州江陰縣西三十：《明一統志》에는 ‘在江陰縣申浦南 距武進縣七十里’로 되어 있다.

45) 孔子：《明一統志》에는 ‘昔孔子爲’로 되어 있다.

反哭 〔《講錄》〕返魂에 哭이라. (《註解》)反，卽反其神也。
反而哭也。〕

主人以下奉靈車，在塗徐行哭。

其反如疑 〔《講錄》〕言反哭而來時，如疑其親魂在墓也，故徐行。
(《註解》)言反哭來時，疑親之靈魂在墓，故徐行。《釋義》言反哭而來時，如疑其親靈魂在墓也，故徐行也。《禮·檀弓》：“其往也如慕，其反也如疑。”〕 爲親在彼，哀至則哭。

至家哭。

望門卽哭。

祝奉神主，入置於靈座。

執事者先設靈座於故處。祝奉神主入就位，櫛之。并出魂帛箱，置主後。

主人以下哭於廳事，

主人以下及門哭入。升自西階，哭于廳事。婦人先入哭於堂。

朱子曰：“反哭升堂，反諸其所作 〔《釋義》〕反，卽反其神

也。所作，卽父母生時治事之處也。釋之曰：“工作하던 所에 反케 하시오.”』也。主婦入于室，反諸其所養也。須知得這意思，則所謂‘踐其位，行其禮’等事，行之自安。『《釋義》』非謂任便自安也，猶言於禮亦自安也。』，方見得繼志述事之事。”

楊氏復曰：“按，先生此言，蓋謂古者反哭于廟。‘反諸其所作’，謂親所行禮之處；‘反諸其所養’，謂親所饋食之處，皆指反哭于廟而言也。先生《家禮》反哭于廳事，婦人先入哭于堂，又與古異者，後世廟制不立，祠堂狹隘，所謂廳事者，乃祭祀之地，主婦饋食，亦在此堂也。”

遂詣靈座前哭。

盡哀止。

有弔者拜之如初。

謂賓客之親密者既歸，待反哭而復弔。〈檀弓〉曰：“反哭之弔也，哀之至也。反而亡焉。『《講錄》』言反而視之，則其親亡焉。亡，《韻會》：“不在也。”』《釋義》言反而視之，則其親亡焉。亡，《韻會》云：“不在也。”』，失之。『《講錄》』猶言無之。《釋義》猶言不在也。』矣，於是爲甚。『《講錄》』言於是時，哀痛爲甚。』。”

期·九月之喪者，飲酒食肉，不與宴樂。小功以下·大功異居者，可以歸。『《講錄》』不言期者，古人大抵三寸及同生皆同居，故不言歸。《釋義》不言期，古人大抵三寸及同生皆同居，故不言歸。』。

家禮 卷之四

喪禮

虞祭

葬之日，日中而虞。〔《講錄》〕虞，安也。鬼神無所依，故祭而安之。〔《註解》〕葬日虞，不忍一日離也，言不忍其無所歸也。虞，安也。○虞祭漸用吉，禮文稍備，着網巾似當，而《喪服小記》云：“虞·卒哭則免。”喪主哀，故雖漸吉，而反用哀飾。以此言之，不用網巾，似無妨。○虞祭無參神者，非闕漏也。虞者，祭之未吉，至卒哭而後謂之吉祭。且參者，謁見之名。當是時，事死如事生之兩際，故去參神，以見生前常侍之意。○兩葬行虞之節，葬則當先輕後重，虞則先重後輕。漸用吉禮，未葬，事死如事生，專以凶哀為主，故奠而不祭。既葬則反而亡焉，於是不得不以神道事之，所謂事亡如事存也。何可專循孝子哀慟之故而尚純凶，只奠而不為祭乎？〔《釋義》〕虞，猶安也。葬畢，迎精而反也。日中祭之於殯宮，以安之也。即葬日虞，不忍一日離也。〕。或墓遠，則但不出是日，可也。若去家經宿以上，則初虞於所館行之。鄭氏曰：“骨肉歸于土，魂氣則無所不之。孝子為其彷徨。〔《講錄》〕魂氣彷徨。〔《釋義》〕為，去聲。彷徨，魂氣彷徨也。〕，三祭以安之。”

朱子曰：“未葬時，奠而不祭，但酌酒陳饌再拜。虞始用祭禮。卒哭謂之吉祭。”

主人以下皆沐浴。

或已晚不暇，卽略自澡潔，可也。

執事者陳器具饌。

盥盆·帨巾各二於西階西，南上。東盆有臺，巾有架，西者無之。凡喪禮皆放此。酒瓶并架 [《講錄》]非特巾架，酒瓶之牀亦謂之架。[《釋義》]非特巾架也，置酒瓶之床亦謂之架。] 一於靈座東南，置卓子於其東，設注子及盤盞於其上。火爐·湯瓶於靈座西南，置卓子於其西，設祝版於其上。設蔬果·盤盞於靈座前卓上。匕筯居內當中，酒盞在其西，醋櫟居其東。果居外，蔬居果內。實酒于瓶。設香案於堂中，炷火於香爐。束茅聚沙於香案前。具饌如朝奠，陳於堂門外 [《講錄》]言酒瓶·湯瓶·祝板陳於門內卓子上，其餘祭饌陳於門外。[《釋義》]言酒瓶·湯瓶·蔬果·盤盞·匕筯等，則陳於門內卓子上及靈座前卓子上，其餘祭饌物，則陳於門外。] 之東。

祝出神主于座。主人以下皆入哭。

主人及兄弟倚杖 [《釋義》]言所柱之苴杖，倚於室外。〈士虞禮〉：“主人倚杖。”註：“主人北旋，倚杖西序，乃入。”〈喪服小記〉曰：“虞，杖不入於室；祔，杖不升於堂。”然則練，杖不入於門，明矣。”] 於室外，及與祭者，皆入哭於靈座前。其位皆北面，以服爲列，重者居前，輕者居後。尊長坐，卑幼立。丈夫處東，西上；婦人

處西，東上。逐行各以長幼爲序，侍者在後。

降神。

祝止哭者，主人降自西階，盥手悅手，詣靈座前，焚香再拜。執事者皆盥悅，一人開酒實于注，西面跪，以注授主人，主人跪受；一人奉卓上盤盞，東面跪於主人之左。主人斟酒於盞，以注授執事者，左手取盤，右手執盞，酌之茅上，以盤盞授執事者，俛伏興，少退，再拜復位。

祝進饌。

執事者佐之。其設之叙如朝奠。

初獻。

主人進詣注子卓前，執注，北向立。執事者一人取靈座前盤盞，立於主人之左。主人斟酒反注於卓子上，與執事者俱詣靈座前，北向立。主人跪，執事者亦跪進盤盞。主人受盞三祭於茅束 [《釋義》言盞中之酒，三酌於茅沙也。] 上，俛伏興。執事者受盞奉詣靈座前，奠於故處。祝執版出於主人之右，西向跪讀之，前同，但云：“日月不居，奄及初虞。夙興夜處，哀慕不寧，謹以潔牲柔毛 [《釋義》羊也。]，粢盛 [《釋義》飯也。] 醴齊 [《講錄》齊，去聲。醴齊，酒名，非今甘酒。]

〔《釋義》〕甘酒，非俗所謂甘酒也。〕，哀薦祫事，尚饗 〔《釋義》〕尚，《儀禮》“庶幾也。”。〕。祝興。主人哭，再拜，復位，哭止。牲用豕，則曰‘剛鬣’；不用牲，則曰‘清酌庶羞。’“祫”，合也。欲其合於先祖也。

亞獻。

主婦爲之。禮如初，但不讀祝，四拜。

終獻。

親賓一人，或男或女爲之。禮如亞獻。

侑食。

執事者執注，就添盞中酒。

主人以下皆出，祝闔門。

主人立於門東，西向，卑幼丈夫在其後，重行北上。主婦立於門西，東向。卑幼婦女亦如之。尊長休於他所如食間。

楊氏復曰：“〈士虞禮〉 〔《講錄》〕《儀禮》篇名。〔《釋義》〕《儀禮》篇名。〕：‘無尸者 〔《釋義》〕言祭時無尸童也。〕，祝闔牖

戶如食間.’詳見後〈四時祭〉禮.”

祝啓門，主人以下入哭，辭神。

祝進當門，北向噫歆〔《講錄》〕〈曾子問〉：“祝聲三。”註：“以警動神聽，乃告之也。噫，歎恨之聲。歆，欲其歆享之義也。”〕告啓門三，乃啓門。主人以下入就位。執事者點茶。祝立于主人之右，西向，告利成〔《講錄》〕利，猶養也。祭所以養神，言養神之禮成也。〔《釋義》〕利，猶養也。祭所以養神也，言告其養神之禮成也。〕，斂主匣之，置故處。主人以下哭再拜，盡哀止，出就次。執事者徹。

祝埋魂帛。

祝取魂帛，帥執事者埋於屏處潔地。

罷朝夕奠〔《釋義》〕言雖罷朝夕奠，朝夕之哭與哀至則哭，當如初。〕。

朝夕哭，哀至哭如初。

遇柔日，再虞。

乙·丁·己·辛·癸爲柔日。其禮如初虞。惟前期一日陳器具饌。厥明，夙興，設蔬果·酒饌。質明，行事。祝出神主于

座。祝詞改‘初虞’爲‘再虞’，‘祫事’爲‘虞事’爲異 [[《釋義》]猶言祝詞只此語，異也.]。若墓遠，途中遇柔日，則亦於所館行之。

遇剛日，三虞。

甲·丙·戊·庚·壬爲剛日。其禮如再虞。惟改‘再虞’爲‘三虞’，‘虞事’爲‘成事’。若墓遠，亦途中遇剛日，且闕之，須至家乃可行此祭。

卒哭

〈檀弓〉曰：“卒哭曰‘成事’。是日也，以吉祭易喪祭。”故此祭漸用吉禮。

三虞後遇剛日，卒哭。前期一日，陳器，具饌。

並同虞祭。惟更設玄酒瓶 〔《講錄》〕設其將盛玄酒瓶。〔《釋義》〕猶言設其將（盛）玄酒瓶也。瓊山曰：“玄酒，井花水。”一於酒瓶之西。

厥明，夙興，設蔬果·酒饌。

並同虞祭。惟更取井花水，充玄酒。

質明，祝出主。

同虞祭。

主人以下皆入哭，降神。

並同虞祭。

主人·主婦進饌。

主人奉魚肉，主婦盥悅奉麪米食，主人奉羹，主婦奉飯，以進，如虞祭之設。

初獻。

並同虞祭。惟祝執版，出於主人之左〔《講錄》〕右，陰也；左，陽也。自初喪至三虞祭，凶禮也，讀祝皆於主人之右。至卒哭，漸用吉禮，故自此以後，讀祝皆於主人之左也。〔《釋義》〕言右，陰也；左，陽也。自初喪至三虞祭，凶禮也，故讀祝皆於主人之右。至卒哭，漸用吉禮，故自此以後，讀祝皆於主人之左也。〕，東向跪讀爲異。詞並同虞祭。但改‘三虞’爲‘卒哭’。‘哀薦成事’下云：“來日躋〔《釋義》〕猶升也。〕祔于祖考某官府君，尚饗。”

按，此云‘祖考’，謂亡者之祖考也。

朱子曰：“溫公以虞祭讀祝於主人之右，卒哭讀祝於主人之左，蓋得禮意。”

楊氏復曰：“高氏禮，祝進讀祝文曰：‘日月不居，奄及卒哭，叩地號天，五情糜潰。謹以清酌庶羞，哀薦成事〔《釋義》〕成事者，蓋虞禮告終成其祭祀之謂也。〕。尚饗。’”

亞獻。終獻。侑食。闔門。啓門。辭神。

並同虞祭。惟祝西階上東面，告利成。

自是朝夕之間，哀至，不哭。

猶朝夕哭。『(《講錄》)晨昏哭，非上食哭。(《釋義》)言雖哀至而不哭，朝夕上食之哭猶不可廢也。』

主人·兄弟，疏食 『(《講錄》)〈問傳〉註：“疏食，麤飯也。”(《釋義》)麤飯。』 水飲 『(《講錄》)〈雜記〉註：“呂氏曰：其飲不加鹽酪，故曰水飲。”』，不食菜果，寢席枕木。

楊氏 復曰：“按，古者既虞·卒哭，有受服 』(《釋義》)言易服，是謂受服也。』。練·祥·禫皆有受服。蓋服以表哀，哀漸殺，則服漸輕。然受服數更，近於文繁。今世俗無受服，自始死至大祥，其哀無變，非古也。《書儀》·《家禮》從俗而不泥古，所以從簡。”

祔 《(《註解》)有事於尊者，則可以及卑，故男子附于祖考，則以祖妣配祭；卑不敢援尊，故女子附于祖妣，則不可以祖考配祭也。○祖考若前後妻而祖妣非一，則附祭時，以親者配祭。親者，乃所生之祖妣也。主人未除喪，以主附祭于祖廟，祭畢，復奉還靈座，猶存朝夕哭。既除喪而後，主遷于新廟。若父在母喪，既除喪，則附藏于祖廟，有祭，卽而祭之，他日父喪畢後，始乃考妣同遷也。《(《釋義》)祔之爲言，附也。祔祭者，告其祖父以當遷他廟，而告新死者當入此廟也。祔，祔廟。》

〈檀弓〉曰：“殷既練而祔，周卒哭而祔。孔子善殷。”註曰：“期而神之 《(《釋義》)疑是以神道事之也。》，人情。”然殷禮既亡，其本末不可考。今三虞卒哭，皆用周禮次第，則此不得獨從殷禮。

卒哭明日而祔。卒哭之祭既徹，卽陳器，具饌。

器如卒哭，唯陳之於祠堂。堂狹，卽於廳事隨便。設亡者祖考妣位於中，南向西上。設亡者位於其東南，西向。母喪，則不設祖考位。酒瓶·玄酒瓶於阼階上，火爐·湯瓶於西階上。具饌如卒哭而三分 《(《講錄》)猶言三位，卽祖考妣與亡者也。《(《釋義》)猶三位也。》。母喪，則兩分 《(《講錄》)猶言二位，卽祖妣與亡者也。《(《釋義》)猶兩位也。》。祖妣二人以上，則以親者 《(《講錄》)祖考若有前後室，則以親者配祭。親，卽所生之母。《(《釋義》)言祖考若有前後處，則祖妣非一也。祔祭時，以親者配祭也。親，卽所

生之母也。】。

〈雜記〉曰：“男子祔于王父 [《釋義》即祖父也。] 則配；女子祔于王母則不配。”註：“有事於尊者，可以及卑；有事於卑者，不敢援尊也。”

高氏曰：“若祔妣，則設祖妣及妣之位，更不設祖考位。若父在而祔妣，則不可遞遷祖妣，宜別立室以藏其主，待考同祔。若考妣同祔，則並設祖考及祖妣之位。”

胡氏泳曰：“高氏別室藏主之說恐未然。先生內子之喪 [《釋義》大夫正妻曰內子，內室之喪。]，主只祔在祖妣之傍，此當爲據”楊復曰：“父在祔妣，則父爲主，乃是夫祔妻於祖妣。三年喪畢，未遷，尙祔于祖妣，待父他日三年喪畢，遞遷祖考妣，始考妣同遷也。高氏父在不可遞遷祖妣之說亦是，但別室藏主說則非也。”

厥明，夙興，設蔬果·酒饌。

並同卒哭。

質明，主人以下哭於靈座前，

主人兄弟，皆倚杖于階下，入哭盡哀止。

按，此謂繼祖宗子之喪，其世嫡當爲後者主喪乃用此禮。若喪主非宗子，則皆以亡者繼祖之宗主此祔祭。

《禮》註云：“祔于祖廟，宜使尊者主之。”

詣祠堂，奉神主出，置于座。

祝軸簾啓櫝，奉所祔祖考之主，置于座；內執事者奉祖妣之主，置于座，西上。若在他所，則置于西階上卓子上，然後啓櫝。

若喪主非宗子，而與繼祖之宗異居，則宗子爲告于祖，而設虛位以祭，祭訖除之。

還奉新主，入祠堂，置于座，

主人以下還詣靈座所，哭。祝奉主櫝，詣祠堂西階上卓子上。主人以下哭從如從柩之叙。至門，止哭。祝啓櫝出主如前儀。若喪主非宗子，則唯喪主·主婦以下還迎。

叙立。

若宗子自爲喪主，則叙立如虞祭之儀。若喪主非宗子，則宗子·主婦分立兩階之下，喪主在宗子之右，喪主婦在宗子婦之左，長則居前，少則居後。餘亦如虞祭之儀。

參神。

在位者皆再拜，參祖考妣。

降神。

若宗子自爲喪主，則喪主行之；若喪主非宗子，則宗子行之。並同卒哭。

祝進饌。

並同虞祭。

初獻。

若宗子自爲喪主，則喪主行之；若喪主非宗子，則宗子行之。並同卒哭，但酌獻先詣祖考妣前。日子前同卒哭。祝版但云：“孝子某”〔《講錄》〕《儀節》作‘孝孫’。〔《釋義》〕（丘氏）《儀節》作‘孝孫某’。〕，謹以潔牲柔毛，粢盛醴齊，適于〔《講錄》〕適，猶從也，去也。〔《註解》〕適，猶從也，去也，〔《釋義》〕適，猶從也，去也。〕某考〔《講錄》〕《儀節》作‘曾祖考’。〔《釋義》〕（丘氏）《儀節》作‘曾祖考’。〕某官府君，隲祔孫某官，尚饗。”皆不哭。內喪〔《釋義》〕即母喪也。〕則云：“某妣某封某氏，隲祔孫婦某封某氏。”次詣亡者前。若宗子自爲喪主，則祝版同前，但云：“薦祔事于先考某官府君，適于某考某官府君，尚饗。”若喪主非宗子，

則隨宗子所稱。若亡者於宗子爲卑幼，則宗子不拜。

亞獻。終獻。

若宗子自爲喪主，則主婦爲亞獻，親賓爲終獻。若喪主非宗子，則喪主爲亞獻，主婦爲終獻。並同卒哭及初獻儀，惟不讀祝。

侑食。闔門。啓門。辭神。

並同卒哭，但不哭。

祝奉主各還故處。

祝先納祖考妣神主于龕中匣之，次納亡者神主西階卓子上匣之，奉之反于靈座。出門，主人以下哭從如來儀，盡哀止。若喪主非宗子，則哭而先行，宗子亦哭送之，盡哀止。若祭於他所 [《講錄》]非祠堂，而祭於廳事等處，故曰他所。 [《釋義》]非祠堂，而祭於廳事等處，故曰他所也。]，則祖考妣之主，亦如新主納之 [《釋義》]言納神主於祠堂也。]。

程子曰：“喪須三年而祔，若卒哭而祔，則三年却都無事 [《釋義》]猶言無祭祀之事也。]。《禮》，卒哭猶存朝夕哭。

無主在寢 〔《釋義》猶言神主不在於寢也。〕，哭於何處？”

朱子曰：“古者廟有昭穆之次，昭常爲昭，穆常爲穆，故祔新死者于其祖父之廟，則爲告其祖父以當遷他廟，而告新死者以當入此廟之漸也。今公私之廟 〔《釋義》公，卽國之宗廟；私，卽士大夫之家廟也。〕，皆爲同堂異室以西爲上之制，而無復左昭右穆之次。一有遞遷，則群室皆遷，而新死者當入于其禰之故室矣。此乃禮之大節，與古不同，而爲禮者猶執祔于祖父之文，似無意義，然欲遂變而祔于禰廟，則又非愛禮存羊意。”

楊氏復曰：“司馬禮·《家禮》，並是既祔之後，主復于寢，所謂奉主各還故處也。”

小祥

鄭氏云：“‘祥’，吉也。”

朞而小祥。

自喪至此不計閏，凡十三月。古者卜日而祭〔《講錄》〕言其月中卜吉日而祭。〔《釋義》〕言其月中卜吉日也。〕，今止用初忌〔《講錄》〕忌，即忌日也。言其日則雜事皆禁忌不爲也。〔《釋義》〕言其日則雜事皆禁忌不爲也。〕，以從簡易。大祥倣此。

前期一日，主人以下沐浴，陳器，具饌，

主人率衆丈夫灑掃滌濯。主婦率衆婦女滌釜鼎，具祭饌。他皆如卒哭之禮。

設次，陳練服。

丈夫·婦人各設次於別所，置練服於其中。男子以練服爲冠〔《講錄》〕疑練布爲冠。〔《釋義》〕疑是以練熟之布爲冠也，而‘服’字之義未詳。〕，去首經·負版·辟領·衰。婦人截長裙，不令曳地。應服期者改吉服，然猶盡其月〔《釋義》〕言終其小祥之月也。〕，不服金珠·錦繡·紅紫。唯爲妻者〔《釋義》〕言服妻喪也。〕猶服

禫，盡十五日而除。

楊氏復曰：“按，《儀禮·喪服·記》載衰·負版·辟領之制甚詳，但有闕文，不言衰·負版·辟領何時而除。司馬公《書儀》云：‘既練男子去首經·負版·辟領·衰。’故《家禮》據《書儀》云：‘小祥去首經·負版·辟領·衰。’但禮經既練，男子除首經，婦人除腰帶，‘家禮’於婦人成服時，並無婦人經帶之文，此爲疏略，故既練亦不言婦人除帶，當以禮經爲正。”

厥明，夙興，設蔬果·酒饌。

並同卒哭。

質明，祝出主，主人以下入哭，

皆如卒哭。但主人倚杖於門外，與期親各服其服而入。若已除服者 [《講錄》疑大功以下之親。]（《釋義》指大功以下之親也。）來預祭，亦釋去華盛之服。皆哭盡哀止。

乃出就次 [《釋義》別室也。] 易服，復入哭。

祝止之。

降神.

如卒哭.

三獻.

如卒哭之儀. 祝版同前, 但云: “日月不居, 奄及小祥, 夙興夜處, 小心畏忌, 不惰其身, 哀慕不寧. 敢用潔性柔毛, 粢盛醴齊, 薦此常事. 〔《釋義》〕〈士虞禮〉小祥‘常事’. 疏曰: “虞·祔之祭, 非常期¹⁾. 天氣變易, 孝子思之祭²⁾, 是常事³⁾.”〕, 尚饗.”

侑食. 闔門. 啓門. 辭神.

皆如卒哭之儀.

止朝夕哭. 〔《註解》〕卒哭, 漸用吉禮, 朝夕之間, 哀至不哭, 惟存朝夕哭. 小祥, 惟朔望會哭, 哀漸殺·服漸殺, 哭亦漸殺也, 若猶朝夕上食哭, 不應曰惟朔望哭而已.〕

惟朔望, 未除服者會哭. 其遭喪以來, 親戚之未嘗相見者相見, 雖已除服, 猶哭盡哀, 然後叙拜.

1) 非常期: 《儀禮·士虞禮》에는 ‘非常一期’로 되어 있다.

2) 思之祭: 《儀禮·士虞禮》에는 ‘思之而祭’로 되어 있다.

3) 是常事: 《儀禮·士虞禮》에는 ‘是其常事’로 되어 있다.

始食菜果。

問：“妻喪，踰期主祭？”朱子曰：“此未有考。但司馬氏大·小祥祭，已除服者皆與祭，則主祭雖已除服，亦何害於與祭乎？但不可純用吉服，須如弔服及忌日之服可也。”

大祥

再暮而大祥。

自喪至此不計閏，凡二十五月，亦止用第二忌日祭。

前期一日，沐浴，陳器，具饌，

皆如小祥。

設次，陳禫服，

司馬溫公曰：“丈夫垂脚”〔《講錄》〕垂脚，垂其脚也。丘氏曰：“今世無垂脚幬頭之制。”（《釋義》）即其脚也。脚，即幬頭쓰리라。〕黹〔《講錄》〕紗黹，淺青黑色。（《釋義》）淺黑色。〕紗幬頭·黹布衫·布裹角帶，未大祥間〔《講錄》〕疑自小祥至大祥也。〕服以出謁〔《講錄》〕服，或作‘假’，未知孰是。疑此等服，大祥前不得已出外謁見之時著之，而非禮也。至大祥後，則當著此服矣。然未詳。（《註解》）服，他本或作‘暇’，或作‘假’。〕者。婦人冠·梳〔《釋義》〕首飾。〕·假髻，以鵞黃·青碧·皁白爲衣履，其金珠·紅繡，皆不可用。”

問：“子爲母大祥及禫，夫已無服〔《釋義》〕夫，即母之夫子之父。〕，其祭當如何？”朱子曰：“今禮几筵〔《釋義》〕即亡者之几筵也，設於靈座前。〕必三年而除，則小祥·大祥

之祭，皆夫主之。但小祥之後，夫即除服，大祥之祭，夫亦恐須素服如弔服〔《釋義》〕《性理大全》作‘巾’。〕可也。但改其祝辭〔《釋義》言改作祝文也。〕不必言爲子而祭〔《釋義》去聲。〕也。”

告遷〔《釋義》〕遞遷之主，乃告于高祖之主也。〕于祠堂。

以酒果告，如朔日之儀。若無親盡之祖〔《釋義》言代盡之祖也。〕，則祝版云云，告畢，改題神主，如加贈之儀。遞遷而西，虛東一龕，以俟新主。若有親盡之祖，而其別子也〔《釋義》即上文親盡之祖。〕，則祝版云云，告畢，而遷于墓所不埋。其支子也，而族人有親未盡者，則祝版云云，告畢，遷于最長之房，使主其祭。其餘改題·遞遷如前。若親皆已盡，則祝版云云，告畢，埋于兩階之間。其餘改題·遞遷如前。

厥明，行事，皆如小祥之儀。

惟祝版改‘小祥’曰‘大祥’，‘常事’曰‘祥事’。

畢，祝奉神主，入于祠堂。

主人以下哭從，如祔之叙，至祠堂前，哭止。

徹靈座。斷杖棄之。〔《註解》〕喪服置處，古禮無文，未知何所處而可也。祭服弊則焚之，今人喪冠服并杖付火，恐或得宜也。〕屏處。奉遷主埋于墓側。始飲酒食肉而復寢。

問：“祧主。〔《講錄》〕程氏復心曰：“祧之言超也，超上去也。”〔《釋義》〕即高祖之父母之神主也，摠言代盡之主。祧는 超字쓰지니 우흐로 뛰어가단 마리라.〕。”朱子曰：“天子·諸侯有太廟夾室。〔《講錄》〕夾室，在太廟東西。〔《釋義》〕在太廟中。〕，則祧主藏於其中。今士人家無此，祧主無可置處，《禮記》說藏於兩階間，今不得已只埋於墓所。”

李繼善。〔《講錄》〕名孝述，朱子門人。〔《釋義》〕名孝述，朱子門人。〕問曰：“納主之儀，禮經未見。《書儀》但言‘遷祠版匣於影堂’，別無祭告之禮。周舜弼。〔《講錄》〕弼，古弼字。名謨，朱子門人。〔《釋義》〕名謨，弼，古弼字。朱子門人。〕以爲：‘昧然歸匣。〔《講錄》〕無禮文節次而歸匣。어렴프시. 〔《釋義》〕言歸匣之時，無禮文節次，是謂昧然。猶言어렴프시 헉단 말이라.〕，恐未爲得。’先生前云：‘諸侯三年喪畢皆有祭，但其禮亡，而大夫以下，又不可考。’然則今當何所據耶？”曰：“橫渠說：‘三年後祫祭於太廟，因其告祭畢還主之時，遂奉祧主歸於夾室，遷主·新主皆歸于其廟。’此似爲得禮。鄭氏《周禮》註大宗伯。〔《講錄》〕周之官名，即今禮判。〔《釋義》〕周之官名，即今禮判也。〕享先王。〔《講錄》〕周王享其先王。〕處，似亦有此意，而舜弼所疑，與熹所謂‘三年喪畢有祭者’，似亦暗與之合。但既祥而徹几筵，其主且當祔于祖父之廟，俟祫畢，然後遷耳。”

楊氏復曰：“《家禮》祔與遷，皆祥祭一時之事。前期一日以酒果告訖，改題，遞遷而西，虛東一龕，以俟新主。厥明，祥祭畢，奉神主，入于祠堂。又按，先生與學者書，則‘祔與遷是兩項事，既祥而徹几筵，其主且當祔于祖父之廟，俟三年喪畢，合祭而後遷。’蓋世次迭遷，昭穆繼序，其事至重，豈可無祭告禮，但以酒果告，遽行迭遷乎？在禮，喪三年不祭。故橫渠說‘三年喪畢，祫祭於太廟，因其祭畢還主之時，迭遷神主’，用意婉轉，此為得禮，而先生從之。或者又以大祥除喪，而新主未得祔廟為疑。竊嘗思之，新主所以未遷廟者，正為體亡者尊敬祖考之意。祖考未有祭告，豈敢遽遷也？況禮辨昭穆，孫必祔祖？凡合祭時，孫常祔祖，今以新主且祔於祖父之廟，有何所疑？當俟吉祭前一夕以薦告，遷主畢乃題神主，厥明合祭畢，奉祧主埋於墓所。奉遷主·新主各歸于廟，故並述其說，以俟參考。”

高氏告祔遷祝文曰：“年月日孝曾孫某，罪積不滅，歲及免喪，世次迭遷，昭穆繼序，先王制禮，不敢不至。〔《講錄》〕至，及也。〔《釋義》〕至는 인하여 禮에 至한 마리라.〕。”

禫

鄭氏曰：“澹澹然平安之意 〔(《釋義》)指喪者而言也。〕。”

大祥之後，中月而禫 〔(《釋義》)言本義祥月之中行禫祭，而鄭玄誤以爲間一月也。〕。

間一月也。自喪至此不計閏，凡二十七月。

司馬溫公曰：“〈士虞禮〉：‘中月而禫。’鄭註云：“‘中’，猶間也。‘禫’，祭名也。自喪至此，凡二十七月。”按，魯人有朝祥而暮歌者，子路笑之。夫子曰：‘踰月，則其善也。’孔子既祥，五日彈琴而不成聲，十日而成笙歌。〈檀弓〉曰：‘祥而縞 〔(《釋義》)상집이라。〕。’註：‘縞冠素紕 〔(《講錄》)以素飾冠緣也。 (《釋義》)素，속집이라. 紕，관ㄴ애 선이라。〕也。’又曰：‘禫徙月樂 〔(《講錄》)徙，猶踰也。樂，卽音樂也。 (《釋義》)徙，猶踰也。樂，卽音樂也。言徙月而樂也。〕。’〈三年問〉 〔(《講錄》)《禮記》篇名。 (《釋義》)《禮記》篇名。〕曰：‘三年之喪，二十五月而畢。’然則所謂‘中月而禫’者，蓋禫祭在祥月之中也。歷代多從鄭說，今律勅 〔(《釋義》)律，녕놀이오. 勅，슈교라。〕三年之喪，皆二十七月而除，不可違也。”

朱子曰：“二十五月，祥後便禫，看來當如王肅之說 〔(《講錄》)王氏訓中月爲月中之說。 (《釋義》)中月，又月中을 삼으니라。〕，於是月禫徙月樂之說爲順，而今從鄭氏之說，

雖是禮宜從厚，然未爲當。”

前一月下旬，卜日。

下旬之首，擇來月三旬各一日，或丁或亥。設卓子于祠堂門外，置香爐·香合·环玦。《講錄》占吉凶之物。《四聲通解》：“环玦，判竹根爲卜之具，或作‘(竹+不)筊’。”《釋義》环，빅. 玦，대로 띠드라 점복하는 거시라. 占吉凶之物。或言环玦非二物也，乃一物也。韓詩云：“手持环(玦)，導我擲”，卽此也。·盤子于其上，西向。主人禪服，西向，衆主人次之，少退北上，子孫在其後，重行北上，執事者北向東上。主人炷香熏玦。《釋義》言以玦熏之於火也。·命以上旬之日曰：“某將以來月某日，祇薦禋事于先考某官府君，尚饗。”卽以玦擲于盤，以一俯一仰爲吉。不吉，更命中旬之日。又不吉，則用下旬之日。主人乃入祠堂本龕前，再拜。在位者皆再拜。主人焚香。祝執辭。《釋義》祝，卽祝板也。立於主人之左，跪告曰：“孝子某，將以來月某日，祇薦禋事于先考某官府君，卜旣得吉，敢告。”主人再拜，降，與在位者皆再拜。祝闔門退。若不得吉。《釋義》言不得吉日也。三旬無吉，則疑必以曆中宜祭祀日行之也。·則不用‘卜旣得吉’一句。

前期一日，沐浴，設位，陳器，具饌。

設神位於靈座故處。他如大祥之儀。

厥明，行事，皆如大祥之儀。

但主人以下詣祠堂。祝奉主櫝置于西階卓子上，出主置于座。主人以下皆哭盡哀。三獻不哭。改祝版‘大祥’爲‘禫祭’，‘祥事’爲‘禫事’。至辭神，乃哭盡哀。送神主至祠堂，不哭。

朱子曰：“薦新告朔 [《講錄》]如朔參之類。 [《釋義》]非謂《論語》中告朔也，乃朔日則參於家廟之類。]，吉凶相襲 [《釋義》]言喪中行薦新告朔之4)，則吉凶相襲也。]，似不可行。未葬可廢，既葬則使輕服或已除者入廟行禮，可也。四時大祭，既葬亦不可行。如韓魏公所謂‘節祠’者，則如薦新，行之可也。”又曰：“家間 [《釋義》]猶家中也。] 頃年居喪，於四時正祭 [《講錄》]時祭也。 [《釋義》]即時祭也。] 則不敢舉，而俗節薦享則以墨衰行之。蓋正祭三獻受胙，非居喪所可行，而俗節則唯普同一獻 [《講錄》]普，猶徧也。每位皆各一獻。 [《釋義》]普，猶徧也。]，不讀祝，不受胙也。”

又曰：“喪三年不祭。但古人居喪，衰麻之衣不釋於身，哭泣之聲不絕於口，其出入居處·言語飲食，皆與平日絕異，故宗廟之祭雖廢，而幽明之間兩無憾焉。今人居喪與古人異，卒哭之後，遂墨其衰，凡出入居處·言語飲食，與平日之所爲，皆不廢也，而獨廢此一事，恐亦有所未安。竊謂欲處此義者，但當自省所以居喪之禮，果能始卒一一

4) 之：‘之下恐有脫字’라는 頭註가 달려 있다.

合於古禮，卽廢祭無可疑。若他時不免墨衰出入，或其他有所未合者尙多，卽卒哭之前，不得已準禮且廢，卒哭之後，可以略做《左傳》杜註之說，遇四時祭日，以衰服特祀於几筵，用墨衰常祀於家廟，可也。”

楊氏復曰：“先生以子喪不舉盛祭，就祠堂內致薦，用深衣·幅巾，祭畢反喪服，哭奠子則至慟。”

居喪雜儀

〈檀弓〉曰：“始死，充充如有窮 〔《講錄》〕〈檀弓〉疏云：“孝子匍匐而哭，心形克屈，如急行道極，無所復去，窮極之容。”（《註解》）充充，窮極之貌。（《釋義》）孝子匍匐而哭之，心形克屈，如急行進⁵⁾極，無所復去，窮急之容（也）。〕。既殯，瞿瞿如有求而弗得 〔《註解》〕瞿瞿，眼目速瞻之貌，如有所失而求覓不得之謂也。（《釋義》）眼目速瞻之貌。 눈 흡든 양이라. 如有所失而求覓不得然。〕。既葬，皇皇 〔《註解》〕猶棲棲也。（《釋義》）行⁶⁾棲棲也。親歸草土，孝子心無所依托，如有望彼來，而彼不至也。棲棲，依依也。〕。如有望而弗至。練而慨然，祥而廓然 〔《註解》〕情意寥廓不樂而已。〕。”

“顏丁善居喪，始死，皇皇如有求而弗得；及殯，望望 〔《註解》〕往而不顧之貌。〕焉如有從而弗及；既葬，慨然如不及其反而息 〔《講錄》〕息，猶待也。그反을 及디못하야 息하다. 言且止以待其歸。（《註解》）息，猶待也。不忍快忘其親，且行且止，以待其親之返也。（《釋義》）息，猶待也。不忍快忘其親，猶且行且止，以待其親之返也。그反을 밋지못하야 息하다.〕。”

〈雜記〉：“孔子曰：‘少連·大連善居喪，三日不怠 〔《註解》〕謂哀痛之切，雖不食，而能自力以致其禮也。〕。三月不解。期悲哀。三年憂。’”

〈喪服四制〉 〔《講錄》〕《禮記》篇名。（《註解》）《禮記》篇名。〕曰：“仁者可以觀其愛焉；知者可以觀其理焉 〔《註解》〕非智者，不足以究居喪之理，故於智者，可以觀其理也。〕；彊者可以觀其志焉。

5) 進：‘進恐道’라는 頭註가 달려 있다.

6) 行：‘行恐猶’라는 頭註가 달려 있다.

禮以治之，義以正之。孝子弟弟貞婦，皆可得而察焉。”

〈曲禮〉曰：“居喪，未葬讀喪禮，既葬讀祭禮，喪復常讀樂章。〔《釋義》猶《毛詩》之類。〕。”

〈檀弓〉曰：“大功廢業。〔《講錄》朱子曰：“居喪廢業。業7），簠簠上板子，廢業8），不作樂耳。”（《註解》業者，身所習，如學舞·學射·學琴瑟之類，廢之者，恐其忘哀。（《釋義》風流비호는 위라.〕。或曰：‘大功誦可也。〔《釋義》言誦讀也。〕。’”今居喪但勿讀樂章可也。

〈雜記〉：“三年之喪，言而不語。對而不問。”【言，言己事也。爲人說爲語。】

〈喪大記〉：“父母之喪，非喪事不言。既葬與人立，君言王事，不言國事。〔《釋義》王事比於國事，則國事乃私事也。〕；大夫士言公事，不言家事。”

〈檀弓〉：“高子皋。〔《釋義》名柴。孔子弟子。〕執親之喪，未嘗見齒。”【言笑之微。】

〈雜記〉：“疏衰。〔《註解》齊衰也。（《釋義》齊衰也。《儀禮》“疏衰”註：“疏，猶蠡也。”〕之喪，既葬，人請見之則見，不請見人。小功請見人，可也。”又“凡喪小功以上，非虞·祔·練·祥，無沐浴。”

〈曲禮〉：“頭有瘡則沐，身有瘍。〔《講錄》音陽，瘡疾也。（《註解》音陽，瘡疾也。（《釋義》音陽，瘡疾也。〕則浴。”

〈喪服四制〉：“百官備，百物具，不言而事行。〔《釋義》言君不言國事，而百官備·百物具，故言行也。〕者，扶而起。言而後事行

7) 業：《朱子全書》에는 ‘業是’로 되어 있다.

8) 廢業：《朱子全書》에는 ‘廢業謂’로 되어 있다.

者，扶而起。身自執事而後行者，面垢 [[《釋義》)不洗故垢也。]]
而已。”凡此皆古禮，今之賢孝君子，必有能盡之者，自餘相
時量力而行之，可也。

致賻奠狀

具位姓某 《(《釋義》)疑必修狀之人，自書其位·其姓名也。》

某物若干

右謹專 《(《講錄》)專，猶專人。《(《釋義》)右，即某物若干在上，故右。專，猶專人也。》 送上某人 《(《釋義》)即亡者也。》 靈筵，聊備賻儀，
【香茶·酒食云‘奠儀。’】 伏惟歆納。謹狀。年月日具位姓某狀。

封皮：“狀上某官靈筵。具位姓某謹封。”

劉氏 瑋曰：“司馬公《書儀》云：‘亡者官尊，其儀乃如此。若平交 《(《釋義》)與亡者平交也。》 及降等，即狀內無年，封皮上用面簽 《(《講錄》)未詳。《四聲通解》：‘書文字押署也。’《(《釋義》)유무 우회 브치느니라.》 題曰‘某人靈筵’，下云‘狀謹封’。”

謝狀

三年之喪，未卒哭，只令子姪發謝書。

具位姓某

某物若干

右伏蒙尊慈，以某【發書者名。】某親違世，【大官云‘薨沒’。】
特賜賻儀，【襚·奠隨事。】下誠【平交不用此二字。】不任哀感之至，
謹具狀上謝。謹狀。【餘並同前，但封皮不用“靈筵”二字。】

劉氏 璋曰：“司馬公云：‘此與所尊敬之儀。如平交，則狀內改‘尊慈’爲‘仁私’，‘賜’爲‘貺’，去‘下誠’字。後云：‘謹奉狀陳謝。謹狀。’無年，封皮上用面簽題云‘某人’，下云‘狀謹封’。”

慰人父母亡疏

慰嫡孫承重者同。

某頓首再拜言。【降等，止云‘頓首’。平交，但云‘頓首言’。】不意凶變，【亡者官尊，即云‘邦國不幸’。後皆放此。】先某位【無官，即云‘先府君’。有契，即加‘幾丈’。【《釋義》】（猶）言曾有契，則當云“先幾丈府君”也。】於‘某位府君’之上。○母云‘先某封’，無封即云‘先夫人’。○承重，則云‘尊祖考某位’·‘尊祖妣某封’。餘並同。】奄棄榮養，【亡者官尊，即云‘奄捐館舍’，或云‘奄忽薨逝’。母封至夫人者，亦云‘薨逝’。若生者無官，即云‘奄違色養’。】承訃驚怛，不能已已。伏惟【平交云‘恭惟’。降等云‘緬惟’。】孝心純至，思慕號絕，何可堪居？日月流邁，遽踰旬朔，【經時，即云‘已忽經時’。已葬，即云‘遽經襄奉’。卒哭·小祥·大祥·禫除，各隨其時。】哀痛奈何？罔極奈何？不審自罹荼毒，【父在母亡，即云‘憂苦’。】氣力何如？【平交云‘何似’。】伏乞【平交云‘伏願’。降等云‘惟冀’。】強加飭粥，【已葬，則云‘疏食’。】俯從禮制。某役事所縻，【在官，即云‘職業有守’。】未由奔慰，其於憂戀，無任下誠。【平交已下，但云‘未由奉慰，悲係增深’。】謹奉疏，【平交云‘狀’。】伏惟鑒察。【平交以下，去此四字。】不備。謹疏。【平交云‘不宜。謹狀’。】月日具位【降等用郡望。】姓某疏上。【平交云‘狀’。】某官大孝。【苦前。【《釋義》】疑必大孝下，細書‘苦前’二字。】。母亡，即云‘至孝’。平交以下，云‘苦次’。】封皮：“疏上某官大孝。【苦前。】具位姓某謹封。”【降等，即用面簽云‘某官大孝苦次。郡望姓名狀謹封’。若慰人母亡，即云‘至孝’。】

劉氏 璋曰：“裴《儀》【《釋義》裴氏《書儀》】云：‘父母亡日月遠，云“哀前”。平交以下，云“哀次”。’劉《儀》云：‘百日內，云“苦次”；百日外，“服次”。如尊則稱“苦前服前”。’今從劉《儀》。”

重封：“疏上.【平交云‘狀’】某官具位姓某謹封.”

父母亡答人慰疏

嫡孫承重者同。

某稽顙再拜言。【降等云‘叩首’，去‘言’字。】

劉氏 璋曰：“劉《儀》：‘某叩頭泣血言。’按，稽顙而後拜，以頭觸地曰‘稽顙’，三年之禮也。雖於平交降等者，亦如此，但去‘言’字，何則？古禮受弔，必拜之，不問幼賤故也。”

某罪逆深重，不自死滅，禍延先考，【母云‘先妣’。承重，則祖父云‘先祖考’，祖母云‘先祖妣’。】攀號擗踊，五內【《釋義》言五臟也。】分崩，叩地叫天，無所逮及。日月不居，奄踰旬朔，【隨時同前。】酷罰罪苦，【父在母亡，即云‘偏罰罪深’。父先亡，則母與父同。】無望生全，即日蒙恩，【平交以下，去此四字。】祇奉几筵，苟存視息。伏蒙尊慈俯賜慰問，哀感之至，無任下誠。【平交云‘仰承仁恩，俯垂慰問，其爲哀感，但切下懷’。降等云‘特承慰問，哀感良深’。○司馬溫公曰：“凡遭父母喪，知舊【《釋義》有故舊也。】不以書來弔問，是無相恤之心，於禮不當先發【《釋義》言先發書簡以與人。】書，不得已須至先發，即刪此四句。”】未由號訴，不勝隕絕，謹奉疏，【降等云‘狀’。】荒迷不次。謹疏。【降等云‘狀’。】月日孤子【母喪稱‘哀子’，俱亡即稱‘孤哀子’。承重者稱‘孤孫’·‘哀孫’·‘孤哀孫’。】姓名疏上某位。【座前。謹空【《講錄》다 쓰고 이 아래는 위단 말이라. 《釋義》未詳。如今公文之末，書印字，猶云다 쓰고 이 아래는 위니라호듯 혼 마리라.】。】

○平交以下，去此二字。】

朱子曰：“父喪稱‘孤子’，母喪稱‘哀子’。溫公所稱，蓋因今俗以別父母，不欲混并之也，且從之，亦無害。”

封皮·重封並同前。【但改‘具位’爲‘孤子’。】

慰人祖父母亡啓狀

謂非承重者。伯叔父母·姑·兄·姊·弟·妹·妻·子·姪·孫同。

某啓。不意凶變，【子孫不用此句。】尊祖考某位奄忽違世，【祖母曰‘尊祖妣某封’。無官封·有契，已見上。○伯叔父母·姑即加‘尊’字。兄·姊·弟·妹加‘令’字。降等皆加‘賢’字。若彼一等之親。【《釋義》】同等之親也。】有數人，即加行第，云‘幾某位’。無官云‘幾府君’。有契，即加‘幾丈幾兄’於‘某位府君’之上。姑·姊·妹則稱以夫姓，云‘某宅’【《講錄》】如金公妻，則書金宅。【《釋義》】若金公之妻，則當書之曰金宅也。】尊姑令姊妹’。○妻則云‘賢閤某封’，無封則但云‘賢閤’。○子即云‘伏承令子幾某位’，姪·孫並同。降等，則曰‘賢’。無官者稱‘秀才’。】承訃驚怛，不能已已。【妻改‘怛’爲‘愕’，子孫但云‘不勝驚怛’。】伏惟【‘恭惟’·‘緬惟’，見前。】孝心純至，哀慟摧裂，何可勝任？【伯叔父母·姑云‘親愛加隆，哀慟沈痛，何可堪勝’。○兄姊弟妹則云‘友愛加隆’。○妻則云‘伉儷義重，悲悼沈痛’。○子·姪·孫則云‘慈愛隆深，悲慟沈痛’。餘與伯叔父母·姑同。】孟春猶寒，【寒溫隨時。】不審尊體何似？【稍尊云‘動止何如’。降等云‘所履何似’。】伏乞【平交以下，如前。】深自寬抑，以慰慈念。【其人無父母，即但云‘遠誠’【《釋義》】即修狀之誠也。】’，連書，不上平。【《講錄》】言當連書，而其行列不上于平行。【《釋義》】言當連書，而其行列不上于平行。】某事役所縻，【在官，如前。】未由趨慰，其於憂想，無任下誠。【平交以下，如前。】謹奉狀，伏惟鑒察【平交，如前。】不備。【平交，如

前.】謹狀. 月日具位姓名狀上, 某位.【服前. 平交云‘服次’.】封
皮・重封同前.

祖父母亡答人啓狀

謂非承重者。伯叔父母·姑·兄·姊·弟·妹·妻·子·姪·孫同。

某啓。家門凶禍【《釋義》舊有此式，疑是指上文慰人答狀及答人答狀。】，【伯叔父母·姑·兄·姊·弟·妹云‘家門不幸’。○妻云‘私家不幸’。○子·姪·孫云‘私門不幸’。】先祖考，【祖母云‘先祖妣’。○伯叔父母云‘幾伯叔父母’。○姑云‘幾家姑’。○兄·姊云‘幾家兄’·‘幾家姊’。○弟·妹云‘幾舍弟’·‘幾舍妹’。○妻云‘室人’。○子云‘小子某’。○姪云‘從子某’。○孫曰‘幼孫某’。】奄忽棄背，【兄弟以下云‘喪逝’。○子·姪·孫云‘遽爾夭折’。】痛苦摧裂不自勝堪，【伯叔父母·姑·兄·姊·弟·妹云‘摧痛酸苦，不自堪忍’。○妻改‘催痛’爲‘悲悼’。○子·姪·孫改‘悲悼’爲‘悲念’。】伏蒙尊慈，特賜慰問，哀感之至，不任下誠。【平交·降等，如前。】孟春猶寒，【寒溫隨時。】伏惟【‘恭惟’·‘緬惟’，如前。】某位尊體起居萬福。【平交，不用‘起居’。降等，但云‘動止萬福’。】某即日侍奉，【無父母，即不用此句。】幸免他苦，未由面訴，徒增哽塞。謹奉狀上。【平交云‘陳’。】謝不備。【平交，如前。】謹狀。月日某郡姓名狀上某位。【座前，謹空。平交，如前。】封皮·重封如前。

劉氏璋曰：“司馬公云：‘自伯叔父母以下，今人多只用平時往來啓狀。止於小簡中言之，雖亦可行，但裴《儀》舊有此式，古人風義敦篤當如此，不敢輒刪。’”

祖父母亡答人啓狀

謂非承重者。伯叔父母姑兄姊弟妹妻子姪孫同。

某啓。家門凶禍，伯叔父母姑兄姊弟妹云‘家門不幸’。○妻云‘私家不幸’。○子·姪·孫云‘私門不幸’。先祖考，祖母云‘先祖妣’。○伯叔父母云‘幾伯叔父母’。○姑云‘幾家姑’。○兄姊云‘幾家兄’，‘幾家姊’。○弟妹云‘幾舍弟’，‘幾舍妹’。○妻云‘室人’。○子云‘小子某’。○姪云‘從子某’。○孫曰‘幼孫某’。奄忽棄背，兄弟以下云‘喪逝’。○子·姪·孫云‘遽爾夭折’。痛苦摧裂不自勝堪，伯叔父母姑兄姊弟妹云‘摧痛酸苦，不自堪忍’。○妻改‘催痛’爲‘悲悼’。○子·姪·孫改‘悲悼’爲‘悲念’。伏蒙尊慈，特賜慰問，哀感之至，不任下誠。平交·降等如前。孟春猶寒，寒溫隨時。伏惟 恭惟，緬惟如前。某位尊體起居萬福。平交不用‘起居’，降等但云‘動止萬福’。某卽日侍奉，無父母卽不用此句。幸免他苦，未由面訴，徒增哽塞。謹奉狀上。平交云‘陳’。謝不備 平交如前。謹狀。月日某郡姓名狀上某位 座前。謹空。平交如前。封皮重封如前。

劉氏 璋曰：“司馬公云：‘自伯叔父母以下，今人多只用平時往來啓狀。止於小簡中言之，雖亦可行，但裴儀舊有此式，古人風義敦篤當如此，不敢輒刪。’”

祭禮 〔《註解》〕按，春祭，過春不祭。夏祭，過夏不祭。據此，仲月若有故，則季月亦可祭。○退溪先生曰：“溫公《書儀》已不能純用古禮。⁹⁾ 朱子《家禮》酌古禮·《書儀》，而又簡於《書儀》。今俗又異於朱子時，安得一一依得？但以麪¹⁰⁾爲麪食，而以餅爲米食。至如今人骨董雜陳，只務多品，此不知禮者之事，何用議爲。”〕

四時祭

司馬溫公曰：“〈王制〉〔《釋義》〕王制，《禮記》篇名。〕：‘大夫士有田 〔《講錄》〕祿也。〔《釋義》〕即祿。〕 則祭，無田 〔《講錄》〕仕則有田；罷則無田。〔《釋義》〕言大夫士方仕宦之時則有田，罷則無田也。〕 則薦。’ 註：‘祭 〔《釋義》〕온갖 제물 마초미라。〕 以首時，薦以仲月。’”

高氏曰：“何休 〔《講錄》〕字邵公，漢靈帝時人。研精六經。陳蕃辟爲議郎。〔《釋義》〕漢靈帝時人。〕云：‘有牲曰祭，無牲曰薦。’大夫牲用羔，士牲特豚 〔《釋義》〕特豚，흔뚫치라。〕，庶人無常牲 〔《講錄》〕或豚，或羊。〔《釋義》〕疑必庶人則特牲，或豚，或羊也。〕。春薦韭，夏薦麥，秋薦黍，冬薦稻。韭以卵，麥以魚，黍以豚，稻以鴈，取其新物相宜。凡庶羞不踰牲 〔《釋義》〕言以羊爲牲，則不兼用牛也。羊輕而牛重，故曰不踰特¹¹⁾也。若以牛爲牲，則兼用羊無妨也。〕，若祭以羊，則不以牛爲羞也。今人鮮用牲 〔《釋義》〕鮮，猶稀也。〕，唯設庶羞 〔《講錄》〕非以此使人法之也，乃惡之之辭也。〔《釋義》〕言

9) 純用古禮：《退溪集》에는 ‘盡依古’로 되어 있다.

10) 以麪：《退溪集》에는 ‘尋常以麪’으로 되어 있다.

11) 特：‘牲’의 오기이다.

非以此使人法之也，乃惡之辭也。』而已。”

時祭用仲月，前旬卜日。

孟春下旬之首，擇仲月三旬各一日，或丁或亥。主人盛服立於祠堂中門外，西向。兄弟立於主人之南，少退北上。子孫立主人之後，重行，西向北上。置卓子於主人之前，設香爐·香合·环玦及盤於其上。主人搢笏，焚香熏玦，而命以上旬之日，曰：“某將以來月某日，諏此歲事。『《講錄》』諏，猶問也。』，適其祖考，尚饗。『《講錄》』尚，庶幾也，猶言庶幾饗之乎！諏于祖考之辭。』。”即以玦擲于盤，以一俯一仰爲吉。不吉，更卜中旬之日。又不吉，則不復卜，而直用下旬之日。既得日，祝開中門，主人以下北向立，如朔望之位，皆再拜。主人升，焚香，再拜。祝執詞跪于主人之左，讀曰：“孝孫某，將以來月某日，祇薦歲事于祖考，卜既得吉，敢告。”用下旬日，則不言‘卜既得吉’。主人再拜，降復位，與在位者皆再拜。祝闔門。主人以下復西向位，執事者立于門西，皆東面北上。祝立于主人之右，命執事者曰：“孝孫某，將以來月某日，祇薦歲事于祖考，有司具修。”執事者應曰：‘諾’。乃退。

司馬溫公曰：“孟詵『《講錄》』唐汝州人。『《釋義》』唐汝州人。』《家祭儀》，用二至二分。『《講錄》』冬至·夏至·春分·秋分。『《釋義》』言夏至·冬至·春分·秋分也。』。然今仕宦者職業既繁，但時至事暇可以祭，則卜筮，亦不必亥日及分至也。若不

暇卜日，則止依孟《儀》用分至，於事亦便也。”

問：“舊嘗収得《〔《釋義》〕猶前日也。収得，言見於他處収得也。〕先生一本《祭儀》，時祭皆用卜日。今聞却用二至二分祭，是如何？”朱子曰：“卜日無定，慮有不虔。司馬公云‘只用分至’，亦可。”

前期三日，齋戒。

前期三日，主人帥衆丈夫致齊于外；主婦帥衆婦女致齊于內。沐浴，更衣。飲酒不得至亂，食肉不得茹葷〔《〔講錄〕》食菜曰茹葷。葱蒜及一切臭菜也。《〔釋義〕》言肉則食之，而葷則使不得食也。茹薰辛菜故也。〕。不弔喪，不聽樂。凡凶穢之事，皆不得預。

司馬溫公曰：“主婦，主人之妻也。禮，舅沒則姑老不與於祭，主人·主婦必使長男·長婦爲之。若或自欲與祭，則特位於主婦之前，參神畢，升立於酒壺之北，監視禮儀。或老疾不能久立，則休於他所，俟受胙，復來受胙辭神而已。”

劉氏瑋曰：“〈祭義〉《〔《講錄》〕《禮記》篇名。〕云‘齊之日思其居處，思其笑語，思其志意，思其所樂，思其所嗜。齊三日，乃見其所以爲齊者《〔《釋義》〕指先祖之神靈也。〕’，專致思於祭祀也。”

前一日，設位，陳器，

主人帥衆丈夫深衣 〔(《釋義》)主人丈夫皆服深衣也.〕，及執事洒掃正寢，洗拭倚卓，務令蠲潔 〔(《講錄》)蠲，《韻會》明也，潔也。(《釋義》)蠲，明也，潔也.〕。設高祖考妣位於堂西北壁下，南向，考西妣東，各用一倚一卓而合之 〔(《講錄》)考妣倚與卓相連合。(《釋義》)言倚與卓相連合也.〕。曾祖考妣·祖考妣·考妣以次而東，皆如高祖之位。世各爲位不屬。祔位 〔(《講錄》)言祔位常時則在於正位本龕，而祭時則皆出置於東西序也。(《釋義》)言常時則在於正位本龕，而祭時則皆出置於東西序也.〕皆於東序，西向北上，或兩序相向，其尊者居西。妻以下，則於階下。設香案於堂中，置香爐·香合於其上。束茅聚沙於香案前及逐位前地上。設酒架於東階上，別置卓子於其東，設酒注一·酌酒盞一·盤一·受胙盤一·匙一·巾一·茶合·茶筴·茶盞托·鹽楪·醋瓶於其上。火爐·湯瓶·香匙·火筴於西階上，別置卓子於其西，設祝版於其上。設盥盆帨巾各二於阼階下之東，其西者有臺架，又設陳饌大牀于其東。

問：“今人不祭高祖，如何？”程子曰：“高祖自有服，不祭甚非。某家却祭高祖。”又曰：“自天子至於庶人，五服未嘗有異，皆至高祖。服既如是，祭祀亦須如是。”

朱子曰：“考諸程子之言，則以爲高祖有服，不可不祭，雖七廟 〔(《講錄》)言周制，考·祖·曾祖·高祖·始祖·文世室·武世室。(《釋義》)言周則考·祖·曾祖·高祖·始祖·文世室·武世室.〕五廟，亦止於高祖，雖三廟一廟 〔(《講錄》)大夫三，官師一也。(《釋義》)言大夫三，官士一也.〕以至祭寢 〔(《釋義》)庶人寢也

제호는니라.】，亦必及於高祖【《釋義》猶下文‘享嘗’之類。】，但有疏數之不同耳。疑此最爲得祭祀之本意。今以《祭法》【《講錄》《禮記》篇名。《釋義》《禮記》篇名】考之，雖未見祭必及高祖之文，然有月祭【《講錄》每月祭。《釋義》言每月祭。】·享嘗【《講錄》四時祭。《釋義》言四時祭。】之別，則古者祭祀以遠近爲疏數，亦可見矣。禮家又言：‘大夫有事，省於其君’【《講錄》省，猶告也。《釋義》省，猶告也。】，干祫【《講錄》祫祭似僭，必省於君而後祫祭，故曰干。《釋義》祭名이니，卑者 尊者의 禮을 行호는 故干祫호다. 干祫，一云：“祫祭似僭，（故干祫及其高祖也），必省於君而後祫祭，故曰干。”】及其高祖。’此則可爲立三廟而祭及高祖之驗。”

古人宗子承家主祭，仕不出鄉【《釋義》猶國，其本國也。】，故廟無虛主【《講錄》宗子在家奉祀，故曰無虛主。《釋義》宗子在家而奉祀，故曰無虛主也。】，而祭必於廟。惟宗子越在他國，則不得祭，而庶子居者代之，祝曰“孝子某，使介子某執其常事”，然猶不敢入廟，特望墓爲壇以祭，蓋其尊祖敬宗之嚴如此。今人主祭者遊宦四方，或貴仕於朝，又非古人越在他國之比，則以其田祿，修其薦享，尤不可闕，不得以身去國而使支子代之也。泥古【《釋義》泥，音禮，卽上‘未見祭必及高祖之文’與‘越在他國不得祭’之類也。】則關於事情，徇俗【《釋義》疑必其時之俗祭無品節也。】則無所品節，必欲酌其中制，適古今之宜，則宗子所在，奉二主【《講錄》卽祠板及影子也。《註解》謂影子及祠版。《釋義》영조과 스판이라.】以從之【《講錄》從，行也。】，於事爲宜。蓋上不失萃聚祖考精神之義，二主常相從，則精神不分矣。下使宗子得以田祿薦享祖宗，處禮之變而不失其中，所謂禮雖

先王未之有〔《釋義》猶言此雖先王之所未嘗有。〕，可以義起者，蓋如此。但支子所得自主之祭〔《講錄》支子孫祔於宗家祠堂者也。《釋義》疑是俗節忌日之類。〕，則當留以奉祀，不得隨宗子而徙也。或謂留影於家，奉祀版而行，恐精神分散，非鬼神所安，而支子私祭上及高曾，又非所以嚴大宗之正也。

兄弟異居，廟初不異，只合〔《講錄》猶當也。《釋義》猶當也。〕兄祭而弟與執事〔《講錄》與，即參也。《釋義》與，即參與也，非謂다문之意也。〕，或以物助之爲宜，而相去遠者，則兄家設主，弟不立主〔《釋義》言不立神主也。〕，只於祭時旋設位，以紙榜〔《釋義》以今祭時無主，則조히로 써 붙스단 마리라。〕標記逐位〔《釋義》猶每位也。〕，祭畢焚之，如此似亦得禮之變也。

省牲，滌器，具饌。

主人帥衆丈夫深衣，省牲莅殺。主婦帥衆婦女背子，滌濯祭器，潔釜鼎，具祭饌。每位果六品，蔬菜及脯·醢各三品，肉·魚·饅頭〔《釋義》饅頭，상회。〕·糕〔《講錄》音羔，설기。或云：“粘餅인절미”。《釋義》인절미(라)。或云：“설기(씩기라)”。〕各一盤，羹·飯各一碗，肝各一串，肉各二串，務令精潔。未祭之前，勿令人先食及爲猫犬蟲鼠所污。

朱子嘗書戒子塾曰：“吾不孝爲先公棄捐，不及供養，事先妣四十年，然愚無識知，所以承顏順色，甚有乖戾。

至今思之，常以爲終天之痛，無以自贖，惟有歲時享祀，致其謹潔，猶是可著力處。汝輩及新婦等，切宜謹戒。凡祭肉，櫛割之餘及皮毛之屬，皆當存之，勿令殘穢。《釋義》言殘穢毛皮也。褻慢以重吾不孝。”

劉氏璋曰：“往者士大夫家，婦女皆親滌祭器，造祭饌，以供祭祀。近來婦女驕倨，不肯親入庖廚，雖家有使令之人效役，亦須身親監視，務令精潔。按，古禮有省牲·陳祭器等儀，今人祭其先祖，未必皆殺牲。司馬公《祭儀》用時蔬時果各五品，膾【生肉】·炙【乾肉】·羹【炒肉】·殽【骨頭】·軒【音獻，白肉】·脯【乾脯】·醢【肉醬】·庶羞【珍異之味】·麵食【餅·饅頭之類】·米食【糲糕之類】，共不過十五品。今先生品饌異同者，蓋恐一時不能辦集，或家貧則隨鄉土所有，惟蔬果肉麵米食數器，亦可。祭器，簠簋·籩豆·鼎俎·罍洗。《釋義》세우그르시라.之類，豈私家所有？但用平日飲食之器，滌濯嚴潔，竭其孝敬之心，亦足矣。”

厥明，夙興，設蔬果·酒饌。

主人以下深衣及執事者，俱詣祭所，盥手，設果楪於逐位卓子南端，蔬菜·脯醢相間次之。設盞盤醋楪于北端，盞西楪東，匙筯居中。設玄酒。《講錄》〈鄉飲酒義〉“罇¹²有玄酒”，註：“玄古之世無酒，以水行禮，故後世因謂水爲玄酒。”及酒各一瓶於架上。玄酒，其日取井花水充，在酒之西。熾炭于爐，實水于瓶。主婦背子，炊煖祭饌，皆令極熱，以合盛出。《講錄》

12) 罇：《禮記·鄉飲酒義》에는 ‘尊’으로 되어 있다.

合，盛物之器。』，置東階下大牀上。

質明，奉主就位。

主人以下各盛服，盥手悅手，詣祠堂前。衆大夫叙立，如告日之儀。主婦西階下北向立。主人有母，則特位於主婦之前，諸伯叔母·諸姑繼之，嫂及弟婦·姊妹在主婦之左，其長於主母主婦者，皆少進。子孫婦女·內執事者，在主婦之後重行，皆北向東上。立定，主人升自阼階，搢笏焚香，出笏告曰：“孝孫某，今以仲春之月，有事于高祖考某官府君·高祖妣某封某氏，曾祖考某官府君·曾祖妣某封某氏，祖考某官府君·祖妣某封某氏，考某官府君·妣某封某氏，以某親〔《釋義》〕某，指府君也。〕某官府君·某親某封某氏祔食，敢請神主出就正寢，恭伸奠獻。”【告辭，仲夏秋冬各隨其時。祖考有無官爵封諡，皆如題主之文。祔食，謂旁親無後者及早逝先亡者，無卽不言〔《釋義》〕言無旁親則不言。〕】告訖，搢笏歛櫝，正位·祔位各置一筭，各以執事者一人捧之。主人出笏前導，主婦從後，卑幼在後。至正寢，置于西階卓子上。主人搢笏啓櫝，奉諸考神主出，就位〔《釋義》〕出其櫝而就位也。〕。主婦盥悅升，奉諸妣神主，亦如之。其祔位則子弟一人奉之。既畢，主人以下皆降復位。

參神。

主人以下叙位，如祠堂之儀。立定，再拜。若尊長老疾者，休於他所。

司馬溫公曰：“古之祭者不知神之所在，故灌用鬱鬯，臭陰達[[《講錄》]臭，鬱鬯之臭也。]《釋義》]臭，鬱鬯之臭也。]于淵泉，蕭[[《釋義》]악속이라.]合黍稷，臭陽達于墻屋，所以廣求神也。今此禮既難行於士民之家，故但焚香酌酒以代之。”

北溪 陳氏[[《釋義》]陳氏，名淳，宋時人]曰：“廖子晦 廣州所刊本，降神在參神之前，不若臨漳[[《釋義》]臨漳，即漳州也]傳本[[《講錄》]傳書之本也。]《釋義》]非刊本，乃傳書之本也。]，降神在參神之後爲得之。蓋既奉主於其位，則不可虛視其主，而必拜而肅之，故參神宜居於前。至灌則又所以爲將獻而親饗[[《釋義》]親自饗其神之始也。]其神之始也，故降神宜居於後。然始祖·先祖[[《釋義》]見上文。]之祭，只設虛位而無主[[《釋義》]言其神主皆在墓所，故無主。]，則又當先降而後參，亦不容以是爲拘。”

降神。

主人升，搢笏焚香，出笏，少退立。執事者一人開酒，取巾拭瓶口，實酒于注。一人取東階卓子上盤盞，立于主人之左。一人執注，立于主人之右。主人搢笏，跪。奉盤盞者亦跪，進盤盞，主人受之。執注者亦跪，斟酒于盞。主人左手執盤，右手執盞，灌于茅上，以盤盞授執事者。出笏，俛

伏興再拜，降復位。

問：“既奠之酒，何以置之？”程子曰：“古者灌以降神，故以茅縮。〔《釋義》〕縮，술로 茅沙의 브으면 썩여지니 자신덧 호미라.〕酌〔《講錄》〕《周禮》“貢蕭茅”，註：“蕭，讀爲縮。束茅立之祭前，沃酒其上，酒滲下去，若神飲之，故謂之縮。”〔《註解》〕謂束茅立之祭前，沃酒其上，令酒滲下去也。〔《釋義》〕《韻會》云：“蕭，讀爲縮。”酌，謂束茅立之，祭前沃酒其上，酒滲下去。〕，謂求神於陰陽有無之間，故酒必灌於地。若謂奠酒，則安置在此，今人以澆在地上〔《講錄》〕澆，《韻會》沃也。〔《釋義》〕澆，猶酌也。〕，甚非也。既獻，則徹去〔《講錄》〕亞獻之時，徹去初獻之酒也。〔《釋義》〕言亞獻之時，初獻之酒徹去也。〕可也。”

張子曰：“奠酒，奠，安置也。若言‘奠摯’·‘奠枕’，是也。謂注之於地，非也。”

朱子曰：“酌酒有兩說。一用鬱鬯灌地以降神，則惟天子諸侯有之。一是祭酒，蓋故者飲食必祭，今以鬼神自不能祭，故代之祭也。今人雖存其禮而失其義，不可不知。”

問：“酌酒是少傾，是盡傾？”曰：“降神是盡傾。”

楊氏復曰：“此四條〔《釋義》〕疑是降及三獻也。〕降神酌酒，是盡傾。三獻奠酒，不當澆之於地。《家禮》初獻，取高祖考盞，祭之茅上者，代神祭也。禮，祭酒少傾於地，祭食於豆間〔《釋義》〕卽籩豆之間也。〕，皆代神祭也。”

進饌。

主人升，主婦從之。執事者一人以盤奉魚肉，一人以盤奉米麵食。〔《講錄》〕米食·麵食也。〔《釋義》〕疑必米食·麵食也。〕，一人以盤奉羹飯，從升。至高祖位前，主人搢笏，奉肉奠于盤盞之南，主婦奉麵食奠于肉西。主人奉魚奠于醋櫟之南，主婦奉米食奠于魚東。主人奉羹奠于醋櫟之東，主婦奉盤。〔《講錄》〕他本‘盤’作‘飯’。〕奠于盤盞之西。主人出笏，以次設諸正位，使諸子弟婦女各設祔位。皆畢，主人以下皆降復位。

初獻。

主人升詣高祖位前，執事者一人執酒注立于其右。【冬月即先煖之。】主人搢笏，奉高祖考盤盞位前，東向立。執事者西向斟酒于盞，主人奉之奠于故處。次奉高祖妣盤盞，亦如之。出笏，位前，北向立。執事者二人奉高祖考妣盤盞，立于主人之左右。主人搢笏，跪，執事者亦跪。主人受高祖考盤盞，右手取盞，祭之茅上，以盤盞授執事者，反之故處。受高祖妣盤盞，亦如之。出笏，俛伏興，少退立。執事者炙肝于爐。〔《釋義》〕疑必祭物勢不可盡熟，惟此肝則乃初味也，故更炙于爐，及其熟而奠之也。〕，以櫟盛之。兄弟之長一人奉之，奠于高祖考妣前匙筯之南。祝取版立於主人之左，跪讀曰：“維年歲月朔日子，孝玄孫某官某，敢昭告于高祖考某官府君·高祖妣某封某氏。氣序流易，時維仲春。追感歲時，不勝永

慕。敢以潔牲柔毛，【牲用彘則曰‘剛鬣’。】 粢盛 【《講錄》】《周禮》註：“粢，稷也。穀以稷爲長。在器曰盛。” 醴齊，祇薦歲事。以某親某官府君·某親某封某氏祔食，尚饗。”畢興，主人再拜，退詣諸位，獻祝如初。每逐位讀祝畢，卽兄弟衆男之不爲亞終獻者，以次分詣本位所祔之位，酌獻如儀，但不讀祝。獻畢，皆降復位。執事者以他器徹酒及肝，置盞故處。

曾祖前稱‘孝曾孫’ 【《講錄》】此下恐闕‘祖前稱孝孫’五字。《釋義》(字)下恐當闕‘祖前稱孝孫’五字。】，考前稱‘孝子’。改‘不勝永慕’爲‘昊天罔極’。

凡祔者，伯叔祖父祔于高祖，伯叔父祔于曾祖，兄弟祔于祖，子孫祔于考 【《講錄》】孫字恐誤。《釋義》此孫字(疑)恐誤(也)。】。餘皆放此。如本位無 【《講錄》】正位無祔位也。《釋義》猶言(無)正位無祔位也。】，卽不言‘以某親祔食’。

祖考無官，及改夏秋冬字，皆已見上。

楊氏復曰：“司馬公《書儀》：‘主人升自阼階，詣酒注所，西向立。執事一人左手奉曾祖考酒盞，右手奉曾祖妣酒盞，一人奉祖考妣酒盞，一人奉考妣酒盞，皆如高祖考妣之次，就主人所。主人搢笏執注，以次斟酒，執事者奉之，徐行反置故處。主人出笏，詣曾祖考妣神座前，北向。執事者一人奉曾祖考酒盞立于主人之左，一人奉曾祖妣酒盞立于主人之右。主人搢笏，跪，取曾祖考妣酒酌之，授執事者盞反故處。乃讀祝。’此其禮與虞禮同。《家禮》則主人升詣神位前，主人奉祖考妣盤盞，一人執注立于其右，

斟酒。此則與虞禮異。竊詳虞禮神位惟一，時祭則神位多。《家禮》主人升詣神位前，奉盤盞位前，東向立。執事者斟酒，主人奉之奠于故處。次奉祖妣盤盞，亦如之。如此則禮嚴而意專。若《書儀》則時祭與虞祭同，主人詣酒注卓子前，執事者左右手奉兩盤盞，則其禮不嚴，主人執注盞斟詣神位酒，則其意不專。此《家禮》所以不用《書儀》之禮，而又以義起之。《〔《註解》〕丘氏曰：“《家禮》兩¹³⁾代各一祝文，今并一祝文¹⁴⁾以從簡便。”（《釋義》）《補註》：“丘氏曰：‘《家禮》四代各一祝文，今并一規¹⁵⁾文以從簡便。’”也。”

亞獻。

主婦爲之。諸婦女奉炙肉。及分獻，如初獻儀，但不讀祝。

朱子曰：“祭禮，主人作初獻。未有主婦，則弟得爲亞獻，弟婦爲終獻。”

楊氏復曰：“按亞獻如初儀。潮州所刊《家禮》云：‘惟不祭酒于茅。’潮本所云‘不祭酒于茅’是乎？曰所謂‘祭酒于茅’者，爲神祭也。古者飲食必祭，及祭祖考·祭外神。《〔《釋義》〕山川·社稷·五祀之類。〕》，亦爲神祭。〈少牢饋食禮〉《〔《講錄》〕《儀禮》篇名。〔《釋義》〕《儀禮》篇名。〕，主人初獻尸，尸祭酒而後啐酒。《〔《講錄》〕《韻會》云：“啐，嘗也。”（《釋義》）啐，嘗也。〕卒爵。《〔《釋義》〕盡飲也。〕，主婦亞獻尸，尸祭酒而後卒

13) 兩：《家禮儀節》에는 ‘四’로 되어 있다.

14) 今并一祝文：《家禮儀節》에는 ‘今并省之’로 되어 있다.

15) 規：《家禮補註》에는 ‘祝’으로 되어 있다.

爵，賓長三獻尸，尸祭酒而後卒爵，〈士虞〉·〈特牲禮〉
〔《講錄》〕《儀禮》二篇名。〔《釋義》〕士虞·特牲禮，《儀禮》篇名。〕
亦然。凡三獻尸，皆祭酒，爲神祭也。〈鄉射〉·〈大射〉
〔《講錄》〕並《儀禮》篇名。〔《釋義》〕《禮記》二篇名。〕，獲者〔《講
錄》〕猶中也。《儀禮》註：“獲者亦弟子也。謂之獲者，以事名之。”
〔《釋義》〕마친 재라.〕獻侯〔《講錄》〕侯，卽射侯也，獻侯神也。
《儀禮》註：“獲者以侯爲功，是以獻焉。”〔《釋義》〕侯에 獻함을
侯로써 공삼음이라.〕，先右個〔《講錄》〕東方謂之左个。〔《釋
義》〕右個，東方이니 三侯를 비설호故 左右個인느니라.〕，次
中，次左個，皆祭酒，爲侯祭也〔《講錄》〕祭酒者，獲者南面
於俎北，當爲侯祭於豆間。”《周禮·射人》註：“射必有人，執旗告
獲。”言中之艱也。設三侯，故有左·右个。〔《註解》〕《周禮·射人》
註：“必有人，執旗以告獲。”獲言中之難也。設三侯，故有左·
右·中。〕。以此觀之，三獻皆當祭酒于茅。潮本蓋或者以意
改之，故與他本不同，失之矣。”

終獻。

兄弟之長，或長男或親賓爲之。衆子弟奉炙肉。及分獻，
如亞獻儀。

侑食。

主人升，搢笏執注，就斟諸位之酒皆滿，立於香案之東
南。主婦升，扱匙飯中西柄，正筯，立于香案之西南。皆北
向，再拜，降復位。

闔門。

主人以下皆出，祝闔門。無門處，卽降簾可也。主人立於門東西向，衆丈夫在其後。主婦立於門西東向，衆婦女在其後。如有尊長則少休於他所。此所謂厭也。[[《講錄》]〈曾子問〉]註：“厭是饜飫之義，謂神之歆享也。有陰厭·陽厭。”〔《註解》〕厭，平聲。或作‘慝’，安之也。〔《釋義》〕平聲，或作‘慝’。〔《韻會》：“安”也。〕。

楊氏復曰：“〈士虞禮〉：‘無尸者祝闔牖戶如食間。’註：‘如尸一食九飯。’[[《講錄》]〈小牢饋食禮〉]註：“食，大名。小數曰飯。”〔《釋義》〕言一食而九舉匙也。〕之頃也。”又曰：“祝聲三啓戶。[[《講錄》]三，去聲。聲，出聲也。〔《釋義》〕三，去聲。聲，猶出聲也。〕。”註：“聲者，噫歆也。”今祭既無尸，故須設此儀。”

啓門。

祝聲三噫歆，乃啓門。主人以下皆入。其尊長先休于他所者亦入就位。主人主婦奉茶分進于考妣之前。祔位使諸子弟婦女進之。

受胙。[[《講錄》]胙，〔《韻會》〕云：“福肉也。”朱子曰：“胙，與酢通。受胙，謂猶神之酢已也。”〔《釋義》〕〔《韻會》〕云：“福肉也。”胙，酢也，尸賜曰酢。〕

執事者設席于香案前，主人就席北面。祝詣高祖考前，舉酒盤盞，詣主人之右。主人跪，祝亦跪。主人搢笏，受盤盞祭酒。〔《釋義》〕술을 제기 모사의 치미라〕啐酒。〔《釋義》〕술을 제기 머그미라〕。祝取匙并盤，抄取諸位之飯各少許，奉以詣主人之左，嘏于主人。〔《註解》〕爲尸致福于主人之辭也。〔《釋義》〕嘏가 福을 祝하 배니라。〕曰：“祖考命工祝。〔《講錄》〕善於其事謂之工，故曰工祝。〔《釋義》〕（言祝）善於其事謂之工，故曰工祝。〕承致多福于汝孝孫，來汝孝孫。使汝受祿于天，宜稼于田，眉壽永年，勿替引之。〔《講錄》〕猶言福祿을 替티마라 기리하다。〔《釋義》〕猶言福祿을 替티마라 기리하라。〕。”主人置酒于席前。〔《講錄》〕言主人所跪之席。〔《釋義》〕言主人所跪之席（前也）。〕，出笏，俛伏興，再拜。搢笏，跪，受飯嘗之，實于左袂，掛袂。〔《講錄》〕使飯不得散落也。〔《釋義》〕使飯不得散亂也。〕于季指。〔《講錄》〕乃第五指，卽小指也。〔《釋義》〕乃第五指，卽小指也。〕。取酒卒飲，執事者受盞自右，置注旁。受飯自左，亦如之。主人執笏，俛伏興，立於東階上，西向。祝立於西階上，東向，告利成，降復位。與在位者皆再拜，主人不拜，降復位。

劉氏 瑋曰：“《韓魏公家祭》云：‘凡祭飲福受胙之禮，久已不行。今但以祭餘酒饌，命親屬長幼分飲食之，可也。’”

辭神。

主人以下皆再拜。

納主。

主人主婦皆升，各奉主納于櫝。主人以筭斂櫝，奉歸祠堂，如來儀。

徹。

主婦還監徹酒之在盞·注他器中者，皆入于瓶，緘封之，所謂福酒。果蔬·肉食，並傳于燕器〔《講錄》〕即常用之器。〔《釋義》〕即常用之器。〕。主婦監滌祭器而藏之。

餼。〔《釋義》〕나뉜 음식 먹으미라.〕

是日主人監分祭胙，品取少許〔《釋義》〕品，即每品也〕置于合，并酒皆封之。遣僕執書歸胙於親友。遂設席。男女異處。尊行自爲一列，南面，自堂中東西分首，若止一人〔《講錄》〕首，即尊行之首也，言尊行只一人。〔《釋義》〕首，即尊行之首也。〕，則當中而坐，其餘以次相對分東西向。尊者一人先就坐，衆男叙立，世爲一行〔《講錄》〕以世爲一行。世，即昭穆次序也。〔《釋義》〕（言）以世爲一行，（猶）昭穆次序。〕，以東爲上。皆再拜。子弟之長者一人少進立，執事者一人執注立于其右，一人執盤盞立于其左。獻者〔《講錄》〕即上文‘子弟之長者’。〔《釋

義》即上文‘子弟之長者’。』搢笏，跪，【弟獻 《《講錄》》疑是尊行者之弟。《《釋義》》(即)疑是尊者之弟。】則尊者起立，子姪則坐。】受注斟酒，反注受盞，祝曰：“祀事既成，祖考嘉饗，伏願某親，備膺五福 《《釋義》》即《洪範》五福(也)。》，保族宜家。”授執盞者，置于尊者之前，長者出笏，尊者舉酒畢，長者俛伏興，退復位，與衆男皆再拜。尊者命取注及長者之盞，置于前，自斟之，祝曰：“祀事既成，五福之慶，與汝曹共之。”命執事者以次就位，斟酒皆徧。長者進跪，受飲畢，俛伏興，退立。衆男進揖，退立飲。長者與衆男皆再拜。諸婦女獻女尊長於內，如衆男之儀，但不跪。既畢，乃就坐 《《釋義》》言男子既畢其禮也。》，薦肉食。諸婦女詣堂前，獻男尊長壽 《《講錄》》〈坊記〉“禮，非祭，男女不交爵”，註：“先儒謂：‘同姓則親獻，異姓則使人攝。’”》，男尊長酢之如儀。衆男詣中堂，獻女尊長壽，女尊長酢之如儀。乃就坐，薦麵食。內外執事者，各獻內外尊長壽如儀，而不酢。遂就斟在坐者徧，俟皆舉，乃再拜退，遂薦米食。然後泛行酒 《《釋義》》疑是例行酒。》，間以祭饌。酒饌不足，則以他酒他饌益之。將罷，主人頒胙于外僕，主婦頒胙于內執事者。徧及微賤，其日皆盡。受者皆再拜。乃徹席。

楊氏復曰：“司馬溫公《書儀》曰：‘禮，祭事既畢，兄弟及賓，迭相獻酬，有無筭爵 《《講錄》》筭，數也。《儀禮》註：‘惟已所欲，無有次第之數也。’”，所以因其接會，使之交恩定好，優勸之。今亦取此儀。’”

凡祭，主於盡愛敬之誠而已，貧則稱家之有無，疾則量筋力而行之。財力可及者，自當如儀。

初祖

惟繼始祖 〔(《講錄》)即初祖.《語類》:“問:‘冬至祭始祖,是何祖?’曰:‘或謂受姓之祖,如蔡氏則蔡叔之類.或謂厥初生民之祖,如盤古之類’.”(《釋義》)即初祖(也).〕之宗得祭.

問:“始祖之祭.”朱子曰:“古無此.伊川先生以義起.某當初也祭,後來覺得似僭,今不敢祭.”

始祖之祭似禘 〔(《釋義》)王者之大祭.〕, 先祖之祭似祫, 今皆不敢祭.

冬至, 祭始祖.

程子曰:“此厥初生民之祖也.冬至一陽之始, 故象其類而祭之.”

前期三日, 齋戒.

如時祭之儀.

前期一日, 設位,

主人·衆丈夫深衣, 帥執事者, 灑掃祠堂, 滌濯器具, 設神位於堂中間北壁下, 設屏風於其後, 食牀於其前.

陳器，

設火爐於堂中，設炊烹之具于東階下盥東，炙具在其南。束茅以下，並同時祭。主婦·衆婦女背子，帥執事者〔《註解》〕按，家衆序立之儀，在小宗家祭四親之廟，則男在主人之右，女在主婦之左；在大宗家祭始祖·先祖，則一世居左，二世居右，三世居左，四世居右。左爲昭，右爲穆也。蓋四親之廟，則子孫世近屬親，男女居於一堂，自不爲嫌。若祭始祖·先祖，則子孫世遠屬疏，又人數衆多，女不得在內與祭。〕滌濯祭器，潔釜鼎，具蔬果牒各六·盤三·杆六〔《講錄》〕《韻會》：“杆，雲具切，器也。”〔《釋義》〕杆，우발쳐엿그르시라。疑(是)與‘盂’通。〕·小盤三·盞盤匙筋各二·脂盤〔《講錄》〕卽羊·豕腸間之脂盛於盤。〔《釋義》〕(脂)，卽羊·豕腸間之脂盛於盤。〕一·酒注酌酒盤盞一·受胙盤匙一。

按，此〔《講錄》〕猶此祭。〔《釋義》〕猶此祭。〕本合用〔《釋義》〕合，猶當也。〕古祭器，今恐私家或不能辦，且用今器，以從簡便。神位用薄薦加草席，皆有緣〔《講錄》〕緣，단도르다。〔《釋義》〕단도로단 마리라。〕。或用紫褥，皆長五尺，闊二尺有半。屏風如枕屏之制，足以圍席三面〔《講錄》〕卽左右及後也。〔《釋義》〕卽左右及後也。〕。食牀以版爲面〔《講錄》〕版，卽바탕이라。〔《釋義》〕面¹⁶⁾，卽바탕이라。〕，長五尺，闊三尺餘。四圍亦以版，高一尺二寸，二寸之下〔《講錄》〕其制未詳。〔《釋義》〕其制未詳。〕乃施版。面皆黑漆。

16) 面：‘下面恐版’이란 頭註가 달려 있다.

具饌.

晡時殺牲. 主人親割毛血 [《講錄》]《詩》註: “啓其毛以告純也, 取其血以告殺也.” (《釋義》)《國語》曰: “毛以示物, 血以告殺”也. 祭時用毛, 乃告其色. 犧牲也, 血亦專告殺也. 此非血祭之血也.] 爲一盤, 首心肝肺爲一盤, 脂雜以蒿 [《講錄》]蒿, 香草, 如蕭合之蕭. (《釋義》)蒿, 香草也, 如蕭合之蕭(也).] 爲一盤, 皆腥之. 左肫不用 [《講錄》]疑神道尙右, 故左肫不用. 肫, 音判. (《釋義》)疑神道尙右, 故不用左肫(也).] . 右肫前足爲三段 [《講錄》]言前一足截爲三段也. 段, 猶片也. (《釋義》)言前一足截爲三段. 段, 猶片也.], 脊爲三段, 脊爲三條, 後足爲三段, 去近竅 [《講錄》]近竅則污穢, 故去之. 〈小牢饋食禮〉“升羊右肫, 脾不升”, 註: “脾不升, 近竅賤也.”] 一節不用, 凡十二體. 飯米一杆 [《釋義》]대야.], 置于一盤. 蔬果各六品. 切肝一小盤 [《講錄》]切肝而盛於一小盤.], 切肉一小盤.

厥明, 夙興, 設蔬果酒饌.

主人深衣, 帥執事者, 設玄酒瓶及酒瓶于架上. 酒注·酌酒盤·盞·受胙盤·匙, 各一於東階卓子上. 祝版及脂盤于西階卓子上. 匙·筯各一於食牀北端之東西, 相去二尺五寸. 盤·盞各一於筯西. 果在食牀南端, 蔬在其北. 毛血腥盤·切肝肉, 皆陳於階下饌牀上. 米實階下炊具中, 十二體實烹具中, 以火爨而熟之. 盤一杆六, 置饌牀上.

質明，盛服就位。

如時祭儀。

降神。參神。

主人盥升，奉脂盤詣堂中爐前。跪，告曰：“孝孫某，今以冬至，有事于始祖考始祖妣，敢請尊靈降居神位，恭伸奠獻。”遂燎脂于爐炭上，俛伏興，少退立，再拜。執事者開酒，主人跪，酌酒于茅上，如時祭之儀。

劉氏 璋曰：“茅盤用甃匾盂 《講錄》匾，《韻會》云：‘器不圓貌。’《釋義》匾，그릇시 박흔 거시오 쏘 두렛지 아니흔 데라.】，廣一尺餘，或黑漆小盤。截茅八寸餘作束，束以紅，立于盤內。”

進饌。

主人升詣神位前。執事奉毛血腥肉以進，主人受設之于蔬北西上。執事者出熟肉置于盤奉以進，主人受設之腥盤之東。執事者以杆二盛飯·杆二盛肉湑 《講錄》湑，肉汁也。《註解》本作‘胹’，音泣，肉汁也。《釋義》本作‘胹’，音泣，肉汁也。】不和者，又以杆二盛肉湑以菜者，奉以進，主人受設之。飯在盞西，大羹 《註解》即肉湑不和者。《釋義》肉汁不和者，고기

발문 물의 소곰믹실 아니셔、니 거시니 大羹肉湑의 누물이는 거시
라.』在盞東，鉶羹 〔(《講錄》)鉶，音衍．言瓦器以盛和羹，卽肉湑以
菜者也．(《註解》)卽肉湑以菜者．鉶，音刑．瓦器以盛和羹.』在大羹
東，皆降復位．

初獻.

如時祭之儀．但主人既俛伏興，兄弟炙肝加鹽，實于小盤
以從．祝詞曰：“維年歲月朔日子，孝孫姓名，敢昭告于初
祖考初祖妣．今以仲冬陽至之始．追惟報本，禮不敢忘，謹
以潔性柔毛·粢盛醴齊，祇薦歲事，尙饗．”

亞獻.

如時祭之儀．但衆婦炙肉加鹽以從 〔(《講錄》)言加鹽於炙肉
以從之也．(《釋義》)言加鹽於炙肉以從之也.〕 ．

終獻.

如時祭及上儀．

侑食．闔門．啓門．受胙．辭神．徹．餞．

並如時祭之儀．

先祖 〔《講錄》〕《語類》：“問：‘立春祭先祖，即何祖？’曰：‘自始祖下之第二世及己身以上第六世之祖’。”（《釋義》）非始祖也。〕

繼始祖高祖之宗得祭。繼始祖之宗則自初祖以下，繼高祖之宗則自先祖而下。

立春，祭先祖。

程子曰：“初祖以下，高祖以上之祖也。立春生物之始，故象其類而祭之。”

前三日，齋戒。

如祭始祖之儀。

前一日，設位，陳器，

如祭初祖之儀。但設祖考神位于堂中之西，祖妣神位于堂中之東。蔬果牒各十二，大盤六，小盤六。餘並同。

問：“〈祭禮〉立春云：‘祭高祖而上，只設二位’〔《釋義》〕言但設祖考位·祖妣位，此二位也。設二位以祭高祖以上之先祖也。〕’若古人祫祭，須是逐位祭。”朱子曰：“本是一氣。

若祠堂中各有牌子，則不可 〔《釋義》言不可只設二位以祭高祖以下。〕。”

“諸侯有四時之祫，畢竟 〔《釋義》是只祭。〕是祭有不及處 〔《講錄》疑高祖以上之先祖代盡，故祭不及也。《釋義》疑(必)(指)高祖以上之先祖代盡，故祭不及也。〕，方如此 〔《講錄》即祫祭也。〕。如春秋‘有事于太廟’，太廟便是群祧之主皆在其中 〔《註解》設於初祖祠堂中，東西設位。東向爲昭，西向爲穆，略如天子大祫之禮。〕。”

具饌。

如祭初祖之儀。但毛血爲一盤，首心爲一盤，肝肺爲一盤，脂蒿爲一盤，切肝兩小盤，切肉四小盤。餘並同。

厥明，夙興，設蔬果·酒饌。

如祭初祖之儀。但每位匙·筯各一，盤·盞各二，置階下饌牀上。餘並同。

質明，盛服就位。降神。參神。

如祭始祖之儀。但告詞改始爲先。餘並同。

進饌。

如祭初祖之儀。但先詣祖考位，瘞毛血 〔《釋義》瘞，猶埋也。薦其毛血後，卽瘞也。〕，奉首心·前足上三節 〔《釋義》言前足截爲三段，故其上節云。〕·脊三節·後足上一節。次詣祖妣位，奉肝肺·前足一節·脅三節·後足下一節。餘並同。

初獻。

如祭初祖之儀。但獻兩位，各俛伏興，當中少退立。兄弟炙肝兩小盤以從。祝詞改‘初’爲‘先’，‘仲冬陽至’爲‘立春生物’。餘並同。

亞獻。終獻。

如祭初祖之儀。但從炙肉各二小盤。

侑食。闔門。啓門。受胙。辭神。徹。餽。

並如祭初祖儀。

禰 《(《釋義》)아비닐 닐오미라》

繼禰之宗以上皆得祭。惟支子不祭。

季秋，祭禰 《(《釋義》)卽祭父母也.》。

程子曰：“季秋成物之始，亦象其類而祭之。”

前一月下旬，卜日。

如時祭之儀。惟告辭改‘孝孫’爲‘孝子’，又改‘祖考妣’爲‘考妣’。若母在，則止云‘考’，而告于本龕之前 《(《釋義》)本龕，父母神主所入之龕也.》。餘並同。

前三日，齋戒。前一日，設位，陳器，

如時祭之儀。但止於正寢合設兩位於堂中，西上。香案以下並同。

具饌。

如時祭之儀。二分。

厥明，夙興，設蔬果·酒饌。

如時祭之儀。

質明，盛服詣祠堂，奉神主出，就正寢。

如時祭于正寢之儀。但告詞云：“孝子某，今以季秋成物之始，有事于考某官府君·妣某封某氏。”

參神。降神。進饌。初獻。

如時祭之儀。但祝辭云，“孝子某官某，敢昭告于考某官府君·妣某封某氏。今以季秋，成物之始，感時追慕，昊天罔極。”餘並同。

亞獻。終獻。侑食。闔門。啓門。受胙。辭神。納主。徹。餼。

並如時祭之儀。

朱子曰：“某家 [[《釋義》]某，朱子自謂也。] 舊時，時祭外，有冬至·立春·季秋三祭，後以冬至·立春二祭似僭 [[《釋義》]言似國家禘合之祭也。]，覺得不安，遂已之。季秋，依舊祭禴，而用某生日祭之，適值某生日 [[《釋義》]朱子生日也。] 在季秋。”【九月十五日也。】

忌日 〔(《註解》)忌者，言其日則雜事皆禁忌不爲也。(《釋義》)祖考之死日也。〕

前一日，齊戒，

如祭禩之儀。

設位，

如祭禩之儀。但止設一位。

陳器，

如祭禩之儀。

具饌。

如祭禩之饌。一分 〔(《註解》)若考忌則只祭考位，妣忌則只祭妣位，是一分。○程氏〈祭禮〉忌日并祭考妣，《家禮》忌日只設一位，二家之說不同。然設一位，禮之正也，祭考妣，禮之出於情者也。(《釋義》)言若父忌則只祭父，若母忌則只祭母，是謂一分。〕。

厥明，夙興，設蔬果·酒饌。

如祭禩之儀。

質明，主人以下變服，

禩則主人兄弟黻紗幘頭，黻布衫，布裏角帶。祖以上則黻紗衫。旁親則皁紗衫。主婦特髻去飾，白大衣，淡黃帔。餘人皆去華盛之服。

問：“忌日何服？”朱子曰：“某只著『《釋義》』某，即朱子』白絹涼衫·黻巾。”問：“黻巾以何爲之？”曰：“紗·絹，皆可。某以紗。”又問，“黻巾之制。”曰：“如帕複『《釋義》』未詳。』相似。有四隻帶『《釋義》』未詳。』，若當幘頭『《講錄》』當，猶代也。『《釋義》』當，猶代也。他錄‘當’字下有‘今’字。』然。”

楊氏復曰：“先生母夫人忌日，著黻黑布衫。其巾亦然。問：‘今日服色何謂？’曰：‘豈不聞君子有終身之喪？’”

詣祠堂，奉神主出，就正寢。

如祭禩之儀。但告辭云：“今以某親某官府君遠諱之辰『《釋義》』遠，猶諱之辰，即死日也。』，敢請神主出就正寢，恭伸追慕。”餘並同。

參神。降神。進饌。初獻。

如祭禰之儀。但祝辭云：“歲序遷易，諱日復臨，追遠感時，不勝永慕。”考妣改‘不勝永慕’爲‘昊天罔極’。旁親云：“諱日復臨，不勝感愴。”若考妣，則祝興，主人以下哭盡哀。餘並同。

亞獻。終獻。侑食。闔門。啓門。

並如祭禰之儀。但不受胙。

辭神。納主。徹。

並如祭禰之儀。但不餽。

是日不飲酒，不食肉，不聽樂。黻巾·素服·素帶以居。夕寢于外。

墓祭 〔《註解》〕同原許多墓所，各行祭，或恐誠意解散，不如掃視墓域後，以紙榜合祭於齋舍。無舍，則設壇以行之，可免煩瀆而神庶享也。〕

三月上旬，擇日。前一日，齋戒，

如家祭之儀。

具饌。

墓上每分如時祭之品，更設魚肉·米麵食各一大盤，以祭后土。

厥明，灑掃，

主人深衣，帥執事者，詣墓所，再拜。奉行塋域內外，環繞哀省三周，其有草棘，即用刀斧鉏斬芟夷。灑掃訖，復位，再拜。又除地於墓左，以祭后土。

布席，陳饌。

用新潔席陳於墓前。設饌如家祭之儀。

參神。降神。初獻。

如家祭之儀。但祝辭云，“某親某官府君之墓。氣序流易，雨露既濡。瞻掃封塋，不勝感慕。”餘並同。

亞獻。終獻。

並以子弟親朋薦之。

辭神。乃徹。遂祭后土。布席，陳饌。

四盤于席南端。設盤盞匙筋于其北。餘並同上。

降神。參神。三獻。

同上。但祝辭云：“某官姓名，敢昭告于后土氏之神。某恭修歲事于某親某官府君之墓，惟時保佑，實賴神休。敢以酒饌，敬伸奠獻。尚饗。”

辭神。乃徹而退。

朱子曰：“《祭儀》以墓祭節祠爲不可。然先正〔《釋義》〕猶古之君子。〕皆言墓祭不害義理，又節物所尚，古人未有，故止於時祭。今人時節隨俗燕飲，各以其物，祖考生存之日，蓋嘗用之。今子孫不廢此，而能惻然於祖宗乎？”

“改葬須告廟而後告墓，方啓墓以葬。葬畢，奠而歸，又告廟哭而後畢，事方穩當。行葬〔《講錄》疑將改葬也。《釋義》疑是將改葬也。〕更不必出主〔《釋義》言出神主於正寢也。〕。祭告時，却出主於寢。”

“祭祀之禮，亦只得依本子做〔《講錄》本子，猶根本，即誠敬也。〕，誠敬之外，別未有著力處也。”

“籩豆·簠簋之器，乃古人所用，故當時祭享皆用之。今以燕器代祭器，常饌代俎肉，楮錢代幣帛。是亦以平生所用，是謂從宜〔《釋義》宜，猶當也。〕也。”

嘗書戒子云：“比見墓祭土神之禮，全然滅裂〔《釋義》輕薄^{호단} 마리라.〕，吾甚懼焉。既爲先公託體山林，而祀其主者〔《釋義》出神主也。〕，豈可如此？今後可與墓前一樣，菜果·鮓脯〔《講錄》鮓，猶鹽鹽也。《釋義》鮓，작것시라.〕·飯·茶湯，各一器，以盡吾寧親事神〔《講錄》親，即父母。神，即山神。《釋義》親，即父母(也)。神，即后土神(也)。〕之意，勿令其有隆殺。”

劉氏璋曰：“周元陽《祭錄》曰，‘唐開元，勅許寒食上墓，同拜掃禮’〔《講錄》言開元以前，雖有拜掃，無定日，故特許寒食上墓，禮同拜掃。《釋義》言開元以前，只有拜掃，無上墓之禮，故禮勅同許拜寒食上墓之禮。〕。若拜掃非寒食，則先期卜日。古者宗子去他國，庶子無廟，孔子許望墓爲壇以時祭祀。即今之寒食上墓，義或有憑依，不卜日耳。今或羈宦寓於他邦，不及此時拜掃松楸〔《釋義》墓山也。〕，則寒食在家亦可祀祭。”

“夫人死之後，葬形於原野之中，與世隔絕，孝子追慕之心，何有限極？當寒暑變移之際，益用增感，是宜省謁墳

墓，以寓時思之敬。今寒食上墓之祭，雖禮經無文，世代相傳，寢以成俗，上自萬乘有上陵之禮，下達庶人有上墓之祭。田野道路，士女徧滿，阜隸 [[《釋義》]물구종이라.] 庸丐 [[《釋義》]고공과 비렁박치라.] 之徒，皆得以登父母丘壠。馬醫 [[《釋義》]니매오.] ·夏畦 [[《釋義》]여름의 밭미는 사람이라.] 之鬼，無有不受子孫追養者。凡祭祀品味，亦稱人家貧富，不貴豐腆。貴在修潔罄極誠慤而已。事亡如事存，祭祀之時，此心致敬常在乎祖宗，而祖宗洋洋如在，安得不格我之誠，而歆我之祀乎？”

黃氏 瑞節曰：“南軒 張氏次司馬公·張子·程子三家之書，爲《冠昏喪祭禮》五卷。《家禮》蓋參三家之說，酌古今之宜，而大意隱然以宗法爲主，不可以弗講也。然禮書之備，有《儀禮經傳集解》，亦朱子所輯次云。”

心經講錄合編

(心經講錄・質疑合編)

解題

《心經》은 宋의 西山 眞德秀(1178~1235)가 유교 경전과 선현의 글 중에서 심성 수양에 절실한 것을 뽑아서 편찬한 것이며, 그에 대해 明의 篁墩 程敏政(1445~1499)이 주석하면서 선현의 글들에서 관련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편성한 것이 《心經附註》이다. 退溪는 젊어서 成均館에서 이 책을 처음 접한 후 비로소 心學의 淵源과 心法의 精微함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평생 神明처럼 믿고 嚴父처럼 공경하였다고 스스로 술회한 바 있다. (“吾得《心經》而後，始知心學之淵源·心法之精微。故吾平生，信此書如神明，敬此書如嚴父。”《退陶先生言行通錄》 권2 李德弘의 기록) 중국에서는 거의 잊혔던 이 책이 조선에서 특별히 관심을 받았고 또 많은 주석서들이 나온 것은 퇴계의 이러한 존숭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하지만 퇴계가 《心經附註》의 견해를 단지 묵종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지은 〈心經後論〉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는 자신의 주자학 이해를 바탕으로 理學의 관점에서 《心經附註》에 담긴 朱·陸折衷의 입장을 비판하고 心學과 心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립하였다. 그러한 그의 입장은 제자들이 정리한 그의 강의록이라고 할 수 있는 《心經質疑》과 《心經講錄》에 잘 나타나 있다.

《心經質疑》는 退溪가 《心經附註》에 대해 제자들에게 강의한 내용을 그의 제자 艮齋 李德弘(1541~1596)이 정리하여 기록한 것이다. 《心經講錄》역시 퇴계의 제자인 天山齋 李咸亨(1550~1586)이 기록한 것이다. 이함형은 자신이 기록한 것을 퇴계에게 질정하고자 하였는데 이덕홍이 자신의 《心經質疑》를 함께 통합하여 정리하여 질정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1570년 두 기록의 내용을 통합 정리하고 《一統志》와 《伊洛淵源錄》 등에서 인물 관련

자료 등을 보완한 것을 퇴계에 보내어 질정을 요청하였다. 이들은 《心經附註》에 대한 퇴계와 퇴계 문하의 이해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후에 尤菴 宋時烈(1607~1689)이 肅宗의 명에 의해 1681년(1682년?) 펴낸 《心經釋疑》는 이들 두 서적을 그대로 따르면서 거기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펴낸 것이었다. 또한 南溪 朴世采(1631~1695)가 편성한 《心經標題》도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편 퇴계의 문인인 芝山 曹好益(1545~1609)의 《心經質疑考誤》는 《心經質疑》의 내용 중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자신의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心經質疑考誤》과 유사하면서 좀 더 확장된 작업으로서, 大山 李象靖(1711~1781)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제자 金宗敬을 거쳐 川沙 金宗德(1724~1797)에 이르러 완성한 《心經講錄刊補》(1795년)가 있다. 해당 자료들은 宋熹準 編, 《心經註解叢編》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책이라고 볼 수 있는 《心經質疑》와 《心經講錄》을 合編하여 편성하였다.

凡例

1. 基準本과 對校本

《定本 心經講錄》은 李咸亨의《心經講錄》를 基準本으로 하고 李德弘의《心經質疑》를 對校本으로 하여 그 차이를 校勘주석으로 밝히되, 基準本에는 없지만 對校本에 있는 조목의 경우는 본문에 편입하여 合併의 형식을 취한다. 또한 이덕형의 문집인《艮齋集》(原集 및 續集)에도 퇴계에게 보낸 편지 등에 관련 내용이 실려 있으므로, 역시 對校本의 하나로 간주하여 校勘 자료로 활용하였다.

《心經講錄》은 필사본 1책(54張)의 형태로 전하고 있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같은 기관 홈페이지에서 원문 이미지가 제공되고 있다.《心經質疑》는 李德弘의 문집 속집인《艮齋集》續集 권3(78판)에 수록되어 있다. 현재 통행하는《艮齋集》原集은 1766년 간행되었으며,《艮齋集》續集은 1829년 간행되었다. 모두 서울대학교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으며, 韓國文集叢刊 51로 편성되어 있다.

2. 定本の 構成

1) 본문

(1) 본문은 分類 題目, 標題語, 標題語 說明(解說)으로 구성된다. 分類 題目은《心經附註》본래의 차례와 제목을 반영한 것이며, 標題語는 본문에서

설명 혹은 해설 대상이 되는 표제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고, 標題語 說明은 표제어에 대해 퇴계가 설명 혹은 해설한 내용이다.

(2) 기준본과 異本들 사이에 異同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되는 글자·단어·문장의 끝에 註 번호를 달고 아래에 각주의 형태로 내용을 정리한 校勘記를 작성한다. 校勘記 작성 원칙은 아래를 참고.

(3) 기준본인 《心經講錄》에 없고 《心經質疑》에는 있는 조목의 경우 본문에 조목을 삽입하고 그 사항을 교감주에 밝힌다. 또한 기준본에 비해 《心經質疑》의 내용이 더 정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心經質疑》에 따라 고치고 그 사항을 교감주에 밝히거나, 按說(今案)을 붙여 관련 내용을 표시한다.

(4) 본문은 정해진 원칙에 따라 標點을 가한다. 표점의 원칙은 표점 범례를 참고.

(5) 본문 중 分類 題目은 ‘〈序〉’의 방식으로 표시하며, 標題語는 ‘《西山眞文忠公》’의 방식으로 표시하고 이어 해당 해설을 수록한다. 표제어별로 행을 달리하여 구분한다.

(6) 표제어가 《心經附註》의 원 본문과 차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본문을 수정하고 그 내용을 校勘註에 按說로서 밝혀 둔다.

(7) 基準本 상에 마모된 글자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 : 빈 글자

■ : 마멸 또는 훼손된 글자

{ } : 추정한 글자

2) 校勘記

校勘記는 基準本과 對校本 들 사이의 異同사항을 脚注의 형태로 표시한

凡例

다. 異本 자료 모두를 비교 검토한다는 원칙을 준수하되, 定本을 활용하는 독자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번쇄해 보이지 않으면서 자료의 異同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령 있게 작성한다. 신뢰할 만한 校正 및 校勘 의견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작업자 자신의 교정 및 교감 의견이 있다면 그것도 ‘今按:’이라 표시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그러나 작업자 자신의 校正 및 校勘 의견은 최대한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1) 校勘記에 인용되는 각 版本들의 본문 표시방식은 위의 本文과 관련된 범례에 따르되, 표점의 경우 가능한 한 간략하게 단다.

(2) 校勘記에서 다음 서적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 속의 略號를 사용한다.

心經講錄 (講錄)

心經質疑 (質疑)

(3) 校勘記는 먼저 교감 대상이 되는 글자, 단어, 구절을 쓰고 ‘ : ’을 찍은 후 교감 내용을 기록한다.

(4) 基準本과 對校本의 글자가 다른 경우는 해당 版本의 略號 혹은 표제를 쓰고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기록한다.

예1) 西山眞文忠公 : 《講錄》에는 원래 이 조목이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예2) 咸亨謂 : 《質疑》에는 ‘問’으로 되어 있다.

예3) 批云 : 《質疑》에는 없다.

예4) 三才 :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예5) 生 : 《艮齋集》에는 ‘私’로 되어 있다.

(6) 對校本의 글자가 誤字, 變形字 혹은 異體字인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

의 校勘記를 달지 않는다. 다만 교감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校勘記를 달 수 있다.

(7) 對校本의 글자가 通用字인 경우는 校勘記를 단다.

(8) 작업자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校勘記의 뒷부분에 ‘今按:’이라는 형식으로 작업자의 의견을 서술하도록 한다.

(9) 校勘記에 사용된 符號로서 본문에서 사용되지 않은 符號는 다음과 같다.

…… : 글자 줄임

() : 校勘記 작성자가 첨가한 글자

3. 文字 處理

1) 기존에 간행되거나 편성된 퇴계 저작에는 다수의 異體字 혹은 異形字, 通用字 등이 사용되고 있다. 《定本 退溪全書》에서는 正字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正字는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표준자로 사용하는 글자로서,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각 글자에 대한 正字를 달리 보는 경우들이 있다. 퇴계 정본 편성에서는 주요 글자에 대한 正字를 나름의 기준에 따라 확정하여 사용하였다. 異體字는 筆寫上, 板刻上에 발생한 誤字, 別字, 俗字, 簡字, 略字 등을 의미하고, 異形字는 異體字 중 독자적인 正字로도 사용되는 글자를 의미한다. 通用字는 별개의 正字인데 일반적으로 상호 통용하여 쓰는 글자를 의미한다.

3) 기준본의 본문에 사용된 異體字는 正字로 고친다. 다만 이름 등 고유명사의 경우는 예외를 두어 통상의 표기를 존중한다.

4) 기준본의 본문에 사용된 異形字는 正字에 준한 것으로 여겨 원래 형

凡例

태를 보존한다. 다만 對校本에 異形字가 사용된 경우는 관련 교감기를 달지 않는다.

5) 通用字의 경우는 교감기를 단다.

6) 선정된 正字와 異體字와 異形字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으로 별도의 표를 만들어 제시한다.

4. 標點

1) 본문, 그리고 본문 및 제목의 주석에는 상세 표점을 가한다.

2) 상세 표점은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쉼표(,), 가운뎃점(.), 큰따옴표(“ ”), 작은따옴표(‘ ’), 겹낫표 및 홑낫표(《 》, 〈 〉), 주석 표시([]), []), 밑줄(_), 쌍점(:), 쌍반점(;) 등 14가지 표점 부호를 사용한다.

3) 제목과 교감기의 표점은 간략한 방식으로 하고 본문 등과 같이 상세 표점은 하지 않는다. 즉, 본문에서와는 달리 인명, 지명 등에 밑줄을 긋지 않으며, 책·편 표시 등도 하지 않는다.

4) 각 부호의 기본 용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마침표(.)

- 물음표(?)와 느낌표(!)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문장의 끝에 사용한다.
- 단구이든 복구이든, 의미가 명확해지는 방향으로 문맥에 따라 문장의 단위를 설정하여 마침표를 찍는다.
- 중간에 의문구가 들어가더라도 문장 전체가 평서문일 경우 마침표를 사용한다.
- 주어가 바뀔 경우에는 가급적 마침표(.)를 표시한다.

(2) 물음표(?)

- 형식상 또는 의미상 의문을 표현하는 문장의 끝에 사용한다.

- 자문자답, 수사 의문의 형식인 경우에도 사용한다.
- 선택의문문의 경우 마지막 의문문 끝에 물음표(?)를 사용한다.

(3) 느낌표(!)

- 감탄문의 끝에 사용한다.
- 독립된 감탄 부사와 호칭 뒤에 느낌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뒤 문장과 연결되어 있을 경우 되도록 쉼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4) 쉼표(,)

- 한 문장 안에서 의미 단락을 이루는 때 구절 끝에 사용한다.
- 주어 부분이 길어서 술어와 구분해줄 필요가 있거나, 주석에서처럼 주어가 피정의향이 될 경우 사용한다.
- 병렬구가 길 경우 중점이나 마침표 대신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주어가 글에서 새로 거론하는 일이거나 목적어가 될 때는 구별하기 위해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以’자, ‘而’자 등으로 두 구가 순접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고 붙인다.
- 구가 짧아도 역접으로 연결될 경우에는 쉼표(.)를 사용한다.
- 명사구 안에서 두 구가 순접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고 붙인다.
- 문장의 호흡에 맞추어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5) 큰따옴표(“ ”)

- 직접인용문에 사용한다.
- 큰따옴표(“ ”) 안의 문장이 독립되어 있을 때 그 문장 끝에 마침표(.) 등 종지 부호를 사용한다.
- 큰따옴표(“ ”) 안의 문장이 다음 문장과 연결되어 하나의 큰 문장을 형성할 때에는 큰따옴표(“ ”) 밖에 쉼표(.)를 사용한다.
- 편지에서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축약해 인용할 경우에 큰

凡例

따옴표(“ ”)를 사용한다.

- 명사구 안에 인용문이 있을 경우에는 콜론(:)을 하지 않고 큰따옴표(“ ”)만 사용한다.
- 云云과 같은 말 줄임을 표시하는 말은 큰따옴표(“ ”) 또는 작은따옴표(‘ ’) 안에 넣는다.

(6) 작은따옴표(‘ ’)

- 큰 따옴표(“ ”) 안의 문장 속에 들어 있는 인용문에 사용한다.
- 작은따옴표(‘ ’) 안의 문장이 독립되어 있을 때 그 문장 끝에 마침표(.) 등 종지 부호를 사용한다.
- 자구(字句)를 표시하는 맥락으로 인용되었거나, 또는 간접 인용 등 문맥상 인용된 부분을 밝혀주는 것이 필요할 경우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다만 문맥상 분명히 파악될 수 있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다.
- 짧은 명사구 안에서는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 자기 생각으로 남의 뜻을 헤아려 말할 경우에는 간접 인용으로 간주하여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7) 가운뎃점(·)

- 단어나 어구가 병렬이 되었을 때 단어와 단어, 또는 어구와 어구 사이에 사용한다.
- 가운뎃점이 연이어 와서 혼동이 되는 경우에는 가운뎃점이 들어가는 큰 단위의 어구에 쉼표를 해서 혼동을 피한다.
- 병렬되는 어구가 길 경우, 가운뎃점(·) 대신,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식별하기 어렵지 않은 짧은 어구에는 가운뎃점(·)을 쓰지 않는다.

(8) 겹낫표(《 》), 홑낫표(〈 〉), 주석 표시(【 】)

- 서명(書名)은 겹낫표(《 》)로 그 이외의 글, 편(篇), 장(章) 등의 명칭은 홑낫표(〈 〉)로 표시한다.
- 편(篇), 장(章) 등의 명칭이 겹쳐진 경우 《서명·편(篇)·장(章)》의 형태로

표시한다.

- 주석 혹은 본문 속의 구절은 ‘【 】’로 표시한다. 작자 자신 혹은 원 편집자의 原註와 후대의 주석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는 ‘【 】’로, 후자는 ‘【 】’로 표시한다.

(9) 밑줄()

- 인명과 지명, 왕조명, 연호, 시호 등 고유명사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에 밑줄을 긋는다.
- 관직, 부서, ‘公’, ‘生’, ‘先生’ 등 일반명사는 특정한 인물을 지칭한다고 해도 밑줄을 사용하지 않지만 성(姓)과 결합하는 경우는 성에 이어 전체에 밑줄을 긋는다.
- 사람의 성명을 지칭하는 글자가 있어도 이미 단어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밑줄을 긋지 않는다.

(10) 콜론, 혹은 쌍점(:)

- 직접인용문을 수반하는 ‘曰’, ‘云’ 등 뒤에 콜론(:)을 사용하고 인용문 자체는 큰따옴표(“ ”)로 표시한다.
- 저자 자신의 按說임을 밝힌 다음에 설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今按’ 뒤에 콜론(:) 붙여 쓴다.
- 사전의 단어 설명처럼 표제어를 앞에 놓고 그 아래에 표제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표제어 뒤에 콜론(:)을 붙인다.
- 인용문이 목적어인 경우에는 콜론(:)을 붙이지 않고 곧바로 “ ”로 표시한다.
- ‘言’字 뒤에 앞의 단락 또는 구절의 뜻을 설명하는 문장이 올 경우에는 콜론(:)과 따옴표를 붙이지 않는다.

(11) 세미콜론, 혹은 쌍반점(;)

- 세미콜론은 병렬문을 구분 짓기 위한 휴지를 나타낸다.

目錄

目錄

解題	i
凡例	iii
〈序〉	1
〈贊〉	5
〈心學圖〉	15
〈圖說〉	16
第一篇	19
1〈人心道心章〉	19
2〈上帝臨女章〉	28
3〈視爾友君子章〉	32
4〈閑邪存誠章〉	35
5〈敬以直內章〉	40
6〈懲忿窒慾章〉	58
7〈遷善改過章〉	62
8〈不遠復章〉	65
9〈子絕四章〉	68
10〈顏淵問仁章〉	70
11〈仲弓問仁章〉	79
12〈天命之謂性章〉	84
13〈潛雖伏矣章〉	101

第二篇 103

14〈誠意章〉	103
15〈正心章〉	117
16〈禮樂不可斯須去身章〉	140
17〈君子反情和志章〉	157
18〈君子樂得其道章〉	162
19〈人皆有不忍人之心章〉	167
20〈矢人函人章〉	176
21〈赤子之心章〉	179

第三篇 181

22〈牛山之木章〉	181
23〈仁人心章〉	205
24〈無名指章〉	210
25〈人之於身兼所愛章〉	211
26〈鈞是人章〉	215
27〈飢者甘食章〉	217
28〈魚我所欲章〉	218

第四篇 221

29〈雞鳴而起章〉	221
30〈養心章〉	226
31〈養心說章〉	232

目錄

32〈聖可學章〉	234
33〈視聽言動四箴章〉	238
34〈心箴章〉	243
35〈敬齋箴章〉	245
36〈求放心齋銘章〉	250
37〈尊德性齋銘章〉	252
〈後論〉	270

心經講錄合編

(心經講錄·質疑合編)

〈序〉

【西山眞文忠公】¹⁾ 名德秀，字景元，後更‘景’爲‘希’。建之浦城人。登慶元五年進士第。長身廣額，容貌如玉，皆以公輔期之。立朝數年，奏疏數十萬言，皆切當世務，直聲震朝野。官至參知政事。諡文忠。

【撫】《韻會》云：“之石切，拾也。”

【心經】批云²⁾：“心學之經也。³⁾”

【編】《韻會》云：“次簡也。”

【子朱子】問：“新安⁴⁾ 陳氏曰：‘上加子字，乃後學宗師之稱。’然自生民以來，未有盛於孔子，而⁵⁾孔子之上不加子字，何意歟⁶⁾?” 批曰：“一加而一不加，亦偶

1) 西山眞文忠公：《講錄》에는 이 조목이 없는데,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2) 批云：《質疑》에는 없다.

3) 也：《質疑》에는 없다.

4) 新安：《質疑》에는 없다.

5) 自生民……孔子而：《質疑》에는 없다.

6) 歟：《質疑》에는 없다.

然耳. 此等處不必曲尋其義也.”

〔走〕 馬遷書: “太史公⁷⁾牛馬走”, 如云僕也. ○後日批云⁸⁾: “乃自謙爲賤稱也.”

〔參校〕 相參而校也.

〔三才〕⁹⁾ 天地人也.

〔萬化〕 批云¹⁰⁾: “萬物萬事變化酬應謂之萬化.¹¹⁾”

〔體〕 大本 〔用〕 達道.¹²⁾

〔顯〕 批云¹³⁾: “象之顯.” 〔微〕 “理之微.”¹⁴⁾

〔底〕 音至, 致也.

〔以〕¹⁵⁾ 以, 由也.

〔陷〕 陷於穽. 〔溺〕 溺於水.

〔忝〕 汚也, 辱也.

〔紬繹〕 批云¹⁶⁾: “紬音儔. 紬之爲言, 抽也. 抽故事

7) 馬遷書太史公: 이 조목은《講錄》에는 없는데,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8) 後日批云: 《質疑》에는 없다.

9) 三才: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0) 批云: 《質疑》에는 없다.

11) 謂之萬化: 《質疑》에는 ‘之謂’로 되어 있다.

12) 體大本, 用達道: 《質疑》에는 ‘體用, 大本達道.’로 되어 있다.

13) 批云: 《質疑》에는 없다.

14) 顯批云……理之微: 《質疑》에는 이 조목의 표제가 ‘顯微’로 되어 있고, 설명은 ‘顯, 用也, 象之顯; 微, 體也, 理之微.’로 되어 있다.

15) 以: 《質疑》에는 ‘有以’로 되어 있다.

16) 批云: 《質疑》에는 없다.

而次述之也。釋，理也，尋也。”

【障川之柱】 砥柱，山名。河水分流，抱山而過，山¹⁷⁾若柱然。○咸亨謂¹⁸⁾：“人欲之來，以敬抵敵，人欲上來不得，如柱卓立水中，水不得掀倒。不知是¹⁹⁾否？”批云：“是。”

【指南之車】 越裳使者迷路，周公作指南車與之，數月抵其國。²⁰⁾

【燭幽之鑑】 咸亨謂²¹⁾：“兩條²²⁾人爲物欲斲喪，宜頑²³⁾不靈，不能知，不能行。主敬之功至，則無人欲之私以亂之，上面有個天德。是敬之於行，如車之指南；於知，如鑑之燭幽。是否²⁴⁾？”批云：“是。”

【圖】 釋在地後。【寘】 音지²⁵⁾，置也。

【檢防】 檢束身心，防閑其欲。²⁶⁾

17) 山：《質疑》에는 뒤에 ‘屹然特立’이 있다.

18) 咸亨謂：《質疑》에는 ‘問’으로 되어 있다.

19) 不知是：《質疑》에는 없다.

20) 數月抵其國：《質疑》에는 없다.

21) 咸亨謂：《質疑》에는 ‘問’으로 되어 있다.

22) 兩條：《質疑》에는 없다.

23) 宜頑：《質疑》에는 ‘頑冥’으로 되어 있다.

24) 是否：《質疑》에는 없다.

25) 지：《質疑》에는 ‘至’로 되어 있다.

26) 其欲：《質疑》에는 ‘物欲’으로 되어 있다.

【程敏政】²⁷⁾ 字可勤，休寧人。早舉神童，成化及第，官至禮部侍郎。弘治中，爲會試考官，華昶等劾其鬻題，下獄廷辨。昶等語塞坐罪，敏政仍致仕。卒年五十五。號篁墩。

27) 程敏政：《講錄》에는 원래 이 조목이 없다.

〈贊〉

〔贊〕 明也.²⁸⁾

〔生根〕²⁹⁾ 李錄云：“問：‘生是³⁰⁾生於形氣之生³¹⁾，根猶原於性命之原.³²⁾ 雲峯 胡氏³³⁾云：“生是氣已用事時方生，原是從大本上說來，就氣之中，指出不雜乎氣者言之。”如何?’ 先生曰：‘此說精當.’”

〔形氣〕³⁴⁾ 李錄云³⁵⁾：“形，形質。氣，如俗云³⁶⁾氣運。形質陰而氣運陽也。此言³⁷⁾先顯而後微。故言命性，先性而後命；言形氣，先形而後氣也。”

〔有忿^止有樂〕³⁸⁾ 問：“《大學》以忿懣爲先，而此

28) 明也：《質疑》에는 앞에 ‘韻會’가 있다.

29) 生根：《質疑》에는 이 조목이 ‘有忿^止有樂’ 조목 아래에 편성되어 있으며, ‘并見原集’으로 처리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9)에 보이지만 약간의 글자 출입이 있다.

30) 生是：《艮齋集》에는 앞에 ‘〈心經贊〉, “生於形氣, 根於性命.”이 있다.

31) 生：《艮齋集》에는 ‘私’로 되어 있다.

32) 原：《艮齋集》에는 ‘正’으로 되어 있다.

33) 雲峯胡氏：《艮齋集》에는 ‘胡雲峯’으로 되어 있다.

34) 形氣：이 조목의 내용은 《艮齋集》續集 권1 〈中庸質疑〉에도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35) 李錄云：《質疑》에는 없다. 今案：여기에서 ‘李錄’이란 艮齋 李德弘의 기록이란 의미로서 주로 李德弘이 退溪에 보낸 편지 問目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할 경우 사용되었다. 따라서 당연히 《質疑》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후 ‘李錄云’이 《質疑》에 없다는 내용의 교감주는 따로 붙이지 않는다.

36) 云：《艮齋集》에는 ‘言’으로 되어 있다.

37) 言：《質疑》에는 없다.

38) 有忿^止有樂：《質疑》에는 ‘好樂忿懣’로 되어 있다.

後於好樂者，何如？”答³⁹⁾曰：“要作韻語，不拘先後。”

○李錄云：“七情何獨言此四者？答曰：‘〈記〉言此而以好樂爲首，《大學》言此而以念懷爲先，《中庸》之首章·程子之〈好學論〉，亦皆以喜怒爲先，則可見此四者爲七中之首發用者也.’”⁴⁰⁾

【性命】⁴¹⁾ 李錄云：“問：‘以天之命物觀之，似當曰命性，而曰性命者，何歟？’曰⁴²⁾：‘如就天而言，則命先於性，如云天命之謂性，是也。此則就人物稟受之後⁴³⁾，推其所自而言之，如言情性⁴⁴⁾費隱之類，是也.’”

【義仁中正】⁴⁵⁾ 問：“義先仁後.⁴⁶⁾”答⁴⁷⁾曰：“凡言有由本而至末者，有由用而達體者，此則由用達體之語.”

39) 答：《質疑》에는 없다.

40) ○李錄云……發用者也：《質疑》에는 없고, ‘餘見原集’이라 하였다. 해당 내용은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9)에 거의 그대로 보인다.

41) 性命：《質疑》에는 이 조목이 ‘○生根 ○義仁中正 ○智及仁守’와 함께 ‘并見原集’으로 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9)에도 보인다.

42) 曰：《艮齋集》에는 앞에 ‘先生’이 있다.

43) 後：《講錄》에는 원래 ‘復’으로 되어 있으나, 《艮齋集》에 의거하여 고쳤다.

44) 情性：《艮齋集》에는 ‘性情’으로 되어 있다. 今案：취지상 ‘情性’이 옳은 듯하다.

45) 義仁中正：《質疑》에는 이 조목이 ‘并見原集’으로 처리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丙寅〕〉(5)에 거의 그대로 보인다.

46) 義先仁後：《艮齋集》에는 ‘心經贊，義先於仁，何也’로 되어 있다.

47) 答：《艮齋集》에는 ‘先生’으로 되어 있다.

○李錄云：“問：‘何以義先於仁？’批云：‘未詳。⁴⁸⁾疑偶然取文字便讀耳。’

又問：‘不言禮智而曰中正，何歟⁴⁹⁾？’答⁵⁰⁾曰：‘朱子嘗論此云：“中正尤親切。中是禮之得宜處，正是智之正當處。禮智，說得猶寬，中正則切而實矣。且謂之禮，尙或有不中處，若謂之中，則無過不及，無非禮之禮，乃節文恰好處；謂之智，尙或有正不正，若謂之正，則是非端的分明，乃智之實也。”’

又問：‘凡言此四者，或以性，或以情，或以陰陽，或以存心制事，此莫是以情言者乎？’曰⁵¹⁾：‘此兼性情言之⁵²⁾，非獨以情言之。且以陰陽言者，非以⁵³⁾爲陰陽有⁵⁴⁾是四者，只是將陰陽，分是⁵⁵⁾四者之動靜爾。’

又問：‘然則孰爲動，而⁵⁶⁾孰爲靜耶⁵⁷⁾？’曰⁵⁸⁾：‘於〈太

48) 李錄云……未詳：《艮齋集》에는 ‘或又’로 되어 있다.

49) 歟：《艮齋集》에는 ‘也’로 되어 있다.

50) 答：《艮齋集》에는 ‘先生’으로 되어 있다.

51) 曰：《艮齋集》에는 앞에 ‘先生’이 있다.

52) 之：《艮齋集》에는 없다.

53) 以：《艮齋集》에는 없다.

54) 有：《艮齋集》에는 ‘卽’으로 되어 있다.

55) 是：《艮齋集》에는 없다.

56) 而：《艮齋集》에는 없다.

57) 耶：《艮齋集》에는 없다.

58) 曰：《艮齋集》에는 앞에 ‘先生’이 있다.

極圖說解〉，則以正義爲體⁵⁹⁾，以中仁爲用⁶⁰⁾ 答南軒·東萊兩書，却皆以中仁爲體，以⁶¹⁾正義爲用⁶²⁾’
 又問：‘然則⁶³⁾數說中何說爲長？何無一定之論也⁶⁴⁾?’
 答⁶⁵⁾曰：‘相爲體用，而不相妨也.’ 因提出纂錄朱子諸說而示之曰⁶⁶⁾：‘滉亦向來致疑於此，玩索蓋久而得其說。〈圖說〉立⁶⁷⁾天之道章小註，或問於朱子曰：“仁爲用，義爲體，若以體統論之，仁却是⁶⁸⁾體，義却是用。” 朱子曰：“是仁爲體、오⁶⁹⁾，義爲用、어니와⁷⁰⁾，大抵仁義中正，各有體用，如惻隱是動，仁便是靜；羞惡是動，義便是靜.” 又曰：“主靜者，主正與義也.” 又問：“今於此心寂然無欲而靜處，欲見所謂正義，何以見⁷¹⁾?” 答⁷²⁾曰：“只理之定體便是.” 今以四者各有體

59) 體：《艮齋集》에는 뒤에 小註 ‘屬陰靜’이 있다.

60) 用：《艮齋集》에는 뒤에 小註 ‘屬陽動’이 있다.

61) 以：《艮齋集》에는 없다.

62) 用：《艮齋集》에는 뒤에 小註 ‘取義又別’이 있다.

63) 然則：《艮齋集》에는 없다.

64) 也：《艮齋集》에는 없다.

65) 答：《艮齋集》에는 ‘先生’으로 되어 있다.

66) 因提出……示之曰：《艮齋集》에는 없다.

67) 立：《講錄》에는 원래 ‘主’로 되어 있으나, 《艮齋集》에 의거하여 고쳤다.

68) 是：《艮齋集》에는 ‘爲’로 되어 있다.

69) 、오：《艮齋集》에는 없다.

70) 、어니와：《艮齋集》에는 없다.

71) 見：《艮齋集》에는 뒤에 ‘得’이 있다.

用之說推之，自中仁之靜處爲體而言，則正義之動處便是爲用；自正義之靜處爲體而言，則中仁之動處爲用。蓋四者皆自有體用，故又互相爲體用耳。

又問：‘此四者之互爲體用則然矣。然朱子於金木水火，則曰“以生之序言，則水木陽也，火金陰也；以行之序言，則木火陽也，金水陰也”，皆言其所以異，而“中正仁義”〈圖說〉註，與答南軒·東萊兩書異，而不言其所以異，未嘗豁然於斯焉。近按〈圖說〉註⁷³⁾及《孟子》首章註，皆有朱子之說曰：“仁存諸心，性之所以爲體也；義制夫事，性之所以爲用也。然以性言之，則皆體也；以情言之，則皆用也。以陰陽言之，則義體仁用也；以存心制事言之，則仁體義用也。然則恐於〈太極圖說⁷⁴⁾〉，則⁷⁵⁾以陰陽言之，故以正義爲體，以中仁爲用；答張·呂兩⁷⁶⁾書，則以存心制事言之，故以中仁爲體，以正義爲用乎？”朱子此說，不及中正，而今兼舉之者，舉仁義而中正在其中故耶⁷⁷⁾？’答云⁷⁸⁾：‘中

72) 答：《艮齋集》에는 없다.

73) 註：《艮齋集》에는 ‘小註’로 되어 있다.

74) 太極圖說：《艮齋集》에는 ‘圖說’로 되어 있다.

75) 則：《艮齋集》에는 없다.

76) 兩：《艮齋集》에는 없다.

77) 耶：《講錄》에는 ‘耳’로 되어 있으나, 《艮齋集》에 의거하여 고쳤다.

正仁義互⁷⁹⁾分體用之說， 前日所以奉告者， 固皆從朱先生說中推究而言， 不敢自作主張說． 然終恐⁸⁰⁾或有未盡應⁸¹⁾道理． 今所引一段， 在先生諸說中， 最爲條暢明快， 示及深幸． 但於中言存心， 於正言制事， 有未安⁸²⁾ 更詳之⁸³⁾’ 批云：‘此上下兩語， 皆當存之.’⁸⁴⁾”

【智及仁守】⁸⁵⁾ 李錄云：“智⁸⁶⁾及屬精， 仁守屬一.”

【姚】 舜姓． 【姒】 禹姓．

【戒懼^[止]是憂】 李錄云：“問：‘此等說， 莫是昭示來世之目否?’ 答⁸⁷⁾曰：‘然． 然莫非一一分人心道心說來， 無一說等閒過了， 不可不察⁸⁸⁾ 戒懼， 所以存天理底道理， 屬道心； 謹獨， 只是⁸⁹⁾遏人欲底道理， 屬人

78) 答云：《艮齋集》에는 ‘先生曰’로 되어 있다.

79) 互：《艮齋集》에는 없다.

80) 終恐：《艮齋集》에는 ‘恐終’으로 되어 있다.

81) 應：《艮齋集》에는 ‘底’로 되어 있다.

82) 有未安：《艮齋集》에는 ‘恐非先生本意’로 되어 있다.

83) 更詳之：《艮齋集》에는 앞에 ‘此則當’이 있다.

84) 批云此上下……皆當存之：《艮齋集》에는 이 부분이 없고, 대신 小註 ‘末段云：若非公拈出示及， 老昏者何以得聞？ 深幸深幸.’이 있다.

85) 智及仁守：《質疑》에는 이 조목이 ‘并見原集’으로 처리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9)에도 보인다.

86) 智：《艮齋集》에는 ‘知’로 되어 있다.

87) 答：《質疑》에는 없다.

88) 無一說等閒過了， 不可不察來：《質疑》에는 없다.

89) 只：《質疑》에는 없다.

心。若此推之，則⁹⁰⁾此下諸說，無不皆然。”○批云：“答李平叔也來諭此段有紙貼云⁹¹⁾：‘申啓叔·金而精，皆謂⁹²⁾：“人心道心，指發出⁹³⁾處言，非做工夫底。謹獨猶不可謂人心，況戒懼是未發時謂之道心，可乎？”曰：“兩君不易思索至此。然惜乎不思屬字之義⁹⁴⁾，而輕易爲說也。《中庸》尊德性·道問學處，朱子⁹⁵⁾《章句》，以廣大·高明·溫故·敦厚，皆爲存心之屬也；精微·中庸·知新·崇禮，皆爲致知之屬也。此贊，分屬倫類，亦當如是看。蓋屬之爲言，只謂係此一邊，係彼一邊云爾，非以某事正爲某事也。大抵心學雖多端，總要而言之，不過遏人欲·存天理兩事而已。故戒懼以下所言⁹⁶⁾諸說，不問已發與未發·做工與不做工，凡遏人欲事，當屬人心一邊，存天理事，當屬道心一邊云也。⁹⁷⁾程林隱〈心學圖〉，意正如此。不然，西山於其末⁹⁸⁾，

90) 若此推之，則：《質疑》에는 없다.

91) 批云……有紙貼云：《質疑》에는 ‘問’으로 되어 있다.

92) 謂：《質疑》에는 ‘云’으로 되어 있다.

93) 發出：《質疑》에는 ‘發見’로 되어 있다.

94) 意：《質疑》에는 ‘義’로 되어 있다.

95) 朱子：《質疑》에는 없다.

96) 所言：《質疑》에는 없다.

97) 云也：《質疑》에는 없다.

98) 於其末：《質疑》에는 없다.

何必以克治存養交致其功，總結之耶？”

【皆克】‘皆’，《性理大全》作‘當’.

【皆廣】宋寧宗名擴，故西山⁹⁹⁾諱爲廣.

【子諒】讀爲慈良，語¹⁰⁰⁾出《禮記》.

【一指【止】必辨】¹⁰¹⁾李錄云：“問：‘此說如何說?’先生批云：‘分貴賤’¹⁰²⁾於大體小體，辨禮義於簞食萬鐘，皆獻¹⁰³⁾精一於人心道心之事.”

【克治存養】李錄云¹⁰⁴⁾：“克治之功¹⁰⁵⁾屬人心，存養之意¹⁰⁶⁾屬道心. 問¹⁰⁷⁾：‘看克治字，疑西山似以人心爲人欲而言之，何如?’¹⁰⁸⁾先生批云¹⁰⁹⁾：“人心雖作生於形氣之私¹¹⁰⁾看，克治之功，亦當施之於此.”

【維此道心】李錄云：“此下單言道心者，所以明其道

99) 西山：《質疑》에는 없다.

100) 語：《質疑》에는 없다.

101) 一指【止】必辨：《質疑》에는 ‘見原集’이라 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9)에도 보인다.

102) 賤：《艮齋集》에는 ‘賤’으로 되어 있다.

103) 獻：《艮齋集》에는 ‘致’로 되어 있다.

104) 李錄云：《質疑》에는 ‘問’으로 되어 있다.

105) 之功：《質疑》에는 없다.

106) 之意：《質疑》에는 없다.

107) 問：《質疑》에는 없다.

108) 而言之，何如：《質疑》에는 없다.

109) 先生批云：《質疑》에는 ‘曰’로 되어 있다.

110) 心：《質疑》에는 ‘私’으로 되어 있다.

心爲之¹¹¹⁾主耳.”

【斂之散之】¹¹²⁾ 李錄云：“問：‘斂卽是收放心事，散是擴充事否?’ 答云¹¹³⁾：‘斂謂收回來，就心裏說，非¹¹⁴⁾收放心工夫也。 散謂放撒【音殺，謂散之也。】¹¹⁵⁾去，在萬事¹¹⁶⁾上看，非謂擴充工夫也。”

【拱壁】 李錄云：“合兩手曰拱。拱壁¹¹⁷⁾，一拱之壁，壁之大者也。¹¹⁸⁾”

【先民】¹¹⁹⁾ 問：“猶言先賢歟?” 批云：“是。”

【孰此】 李錄云：“此指敬也。”

【作州】 州，泉州也。¹²⁰⁾

【槧几】 先生嘗有批云¹²¹⁾：“‘槧’，本作‘榧’，文木。槧几¹²²⁾，見晉王羲之傳。”

111) 爲之：《質疑》에는 ‘之爲’로 되어 있다.

112) 斂之散之：《質疑》에는 ‘見原集’이라 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9)에도 보인다.

113) 答云：《艮齋集》에는 ‘先生曰’로 되어 있다.

114) 非：《艮齋集》에는 뒤에 ‘謂’가 있다.

115) 音殺謂散之也：《講錄》에는 원래 본문으로 되어 있으나, 《艮齋集》에 의거하여 고쳤다.

116) 萬事：《艮齋集》에는 뒤에 ‘萬物’이 있다.

117) 拱壁：《艮齋集》에는 없다.

118) 也：《艮齋集》에는 없다.

119) 先民：《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猶言先賢’으로 되어 있다.

120) 泉州也：《質疑》에는 아래에 ‘紹定壬辰，西山再知州事.’가 더 있다.

121) 先生嘗有批云：《質疑》에는 없다.

122) 槧几：《質疑》에는 없다.

【天君】 李錄云：“荀卿以耳目爲天官，以心爲天君。蓋天理爲心之主宰，謂之天君。”

【銜】¹²³⁾ 售也。

【粵山】 問：“在於何地，乃西山講道之所歟？” 答云：¹²⁴⁾ “在蒲城縣，卽西山講道之所。卽所謂西山者也是講道之所。¹²⁵⁾ 粵·越通，蒲城，屬福州，古越地，故曰粵山。”

【翰墨】¹²⁶⁾ 李錄云：“翰，筆也。”

【鋟】 刻也。

【顏若愚】 未詳何如人也。¹²⁷⁾ 但看此語，必非常人。恨他未有考。¹²⁸⁾

123) 銜：《質疑》에는 아래 ‘顏若愚’ 조목의 내용까지가 위로 2칸 띄어 편집되어 있다.

124) 問在於何地……答云：《質疑》에는 없다.

125) 卽所謂西山者也是講道之所：《質疑》에는 없다.

126) 翰墨：《質疑》에는 ‘翰’을 표제어로 하고, 설명으로 ‘筆也.’라고 하였다.

127) 也：《質疑》에는 없다.

128) 恨他未有考：《質疑》에는 없다.

〈心學圖〉

批云：“圖，新安程林隱復心所作。¹⁾ 見林隱²⁾《四書章圖》中卷。”○李錄云：“‘求放心’一圈，以工夫次第論之，似當在‘克復’前，果如所疑。但‘精’·‘一’之下，‘戒懼’·‘慎獨’·‘操存’·‘克復’，不可相雜。若於‘克復’之下，即係以‘求放心’，與‘心思’相對，‘求放心’下，係以‘心在’，與‘養心’相偶，則似或可矣。抑³⁾求放心有二種，如初學收其已放之心，使反復入身來者，固是求放心事，而如顏子不遠復之類，亦是收放心之事，則雖以次序⁴⁾言之，豈可不得在於‘心在’之下乎？餘詳見〈答趙上舍書〉也。⁵⁾”

1) 批云……所作：《質疑》에는 없다.

2) 林隱：《質疑》에는 ‘程林隱’으로 되어 있다.

3) 李錄云……抑：《質疑》에는 없다.

4) 序：《質疑》에는 ‘第’로 되어 있다.

5) 也：《質疑》에는 없다.

〈圖說〉

【程氏復心】¹⁾ 字子見，號林隱。《一統志》：“婺源人。自幼沈潛理學，會輔氏·黃氏之說而折衷之。書成，名曰‘四書章圖總要’。仕元爲徽州路教授，後以母老辭疾歸。”

【工夫】“請聞其義。”批云²⁾：“凡工役，必用人夫，故其初³⁾俗語有工夫之云。因轉爲學問之⁴⁾工夫語耳。

【掇】音⁵⁾都活切，拾取也。

【顏子[止]於放】柳仲淹問：“以顏子三月之後只不能⁶⁾無違，爲求放心，似有過當之意，何如⁷⁾?” 答曰：“孟子曰：‘學問之道，無他，唯⁸⁾求其放心而已。’程子曰：‘聖賢千言萬語，只是欲人將已放之心，使反復入身來。’求放心，淺言之，則似爲學問之始事，故人多疑此圖置‘放心’⁹⁾於學成之後；若極言之，則顏子之纔差

1) 程氏復心：이 조목은 《講錄》에는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2) 請聞其義批云：《質疑》에는 없다.

3) 其初：《質疑》에는 없다.

4) 之：《質疑》에는 없다.

5) 音：《質疑》에는 없다.

6) 能：《質疑》에는 ‘應’으로 되어 있다.

7) 何如：《質疑》에는 ‘如何’로 되어 있다.

8) 唯：《質疑》에는 없다.

失，便知之，不復萌作，亦求放心之類。三月之後，不能無違，亦此類也。置於學成之後¹⁰⁾，林隱豈無所見而妄作也¹¹⁾？”○又曰：“林隱《四書章圖》，旨義淵深，不易得也。但其初卷，以氣爲內圈，理爲外圈，此則甚不是耳。”¹²⁾

9) 放心：《質疑》에는 앞에 ‘求’가 있다.

10) 置於學成之後：《質疑》에는 없다.

11) 也：《質疑》에는 ‘耶’로 되어 있다.

12) 又曰……不是耳：《質疑》에는 없다.

定本 退溪全書 四

第一篇

1 〈人心道心章〉¹⁾

【人心道心】²⁾ 李錄云：“問：‘人心處道心之先者，何歟？無乃氣以成形而理亦賦焉故然歟？’答³⁾曰：‘人於日用之間，易發而最先者，莫如人心故云爾。豈舜慮⁴⁾理氣之先後而發是言乎？理氣先後，特後賢發明先聖⁵⁾言外未發之義者⁶⁾，不可以此解之也。’”

〈本註〉

【虛靈知覺】⁷⁾ 李錄云：“虛靈，心之體；知覺，心之用。○⁸⁾理與氣合，所以虛靈。⁹⁾ 唯理故虛，唯氣故靈。

1) 人心道心章：이 장의 내용 중 本註까지는 《艮齋集》續集 권1 〈中庸質疑〉에 있으며, 《艮齋集》권3 〈上退溪先生〉(9)에도 일부 수록되어 있다.

2) 人心道心：이 조목의 해당 내용이 《質疑》에는 없고 대신 ‘見中庸錄.’이라고 되어 있다.

3) 答：〈中庸質疑〉에는 없고, 〈上退溪先生〉에는 ‘先生’으로 되어 있다.

4) 慮：〈中庸質疑〉에는 ‘分’으로 되어 있다.

5) 先聖：〈中庸質疑〉와 〈上退溪先生〉에는 ‘先賢’으로 되어 있다.

6) 者：〈中庸質疑〉와 〈上退溪先生〉에는 ‘耳’로 되어 있다.

7) 本註虛靈知覺：이 조목과 아래 形氣之私, 所以止不同, 人心之私 조목까지 《質疑》에는 내용이 없고 대신 ‘并見庸錄.’이라고 되어 있다.

虛者，心之寂；靈者，心之感。唯寂而能感，故有知覺之效。¹⁰⁾ ○問：‘至寂而能感者，何耶¹¹⁾?’ 答¹²⁾曰：‘至虛之中，有至實之體¹³⁾；至靜之中，有融融洩洩底生意。¹⁴⁾ 故能隨感而動耳。非若老佛之只寂滅而已。’ ○知，識其所當然；覺，悟其所以然也。¹⁵⁾”

【形氣之私】 李錄云：“眞西山曰¹⁶⁾：‘私，猶言我之所獨耳。今人¹⁷⁾言私親·私恩之類，非惡也。’” ○¹⁸⁾問：“此所獨之說，似未瑩，奈何?” 批云¹⁹⁾：“私親·私恩之私，豈非指吾所獨而然耶²⁰⁾?”

【所以【止】不同】 李錄云：“朱子曰，‘只是一心，知覺從耳目上去，便是人心；知覺從義理上去，便是道心。’

8) ○：〈中庸質疑〉에는 없다

9) 所以虛靈：〈中庸質疑〉에는 ‘所以有虛靈知覺之妙也.’로 되어 있다.

10) 效：〈中庸質疑〉에는 ‘妙’로 되어 있다.

11) 耶：〈中庸質疑〉에는 ‘歟’로 되어 있다.

12) 答：〈中庸質疑〉에는 없다.

13) 體：〈中庸質疑〉에는 ‘理’로 되어 있다.

14) 融融洩洩底生意：〈中庸質疑〉에는 ‘能動之幾’로 되어 있다.

15) ○知識……所以然也：〈中庸質疑〉에는 없다.

16) 眞西山曰：〈中庸質疑〉에는 앞에 ‘形，形質。氣，如俗言氣運。形質陰而氣運陽也。此言先顯而後微。故言命性，先性而後命；言形氣，先形而後氣也.’가 더 있다.

17) 人：〈中庸質疑〉에는 없다.

18) ○：〈中庸質疑〉에는 없다.

19) 批云：〈中庸質疑〉에는 ‘曰’로 되어 있다.

20) 然耶：〈中庸質疑〉에는 이 아래에 ‘性命，見原集’이 더 있다.

又曰：‘道心是義理上發出來底，人心是人身上發出來底.’今以此等說推之，則所謂人心，七情是也；所謂道心，卽四端是也.”

【人心之私】 李錄云：“胡雲峯曰：‘此私字，方是不好底.’²¹⁾”

【斯】 問：“謂精一歟？”答云：“是.”²²⁾

〈附註〉

【經中】 《中庸》也.²³⁾ 蓋子思以所嘗聞父師之言，演繹爲書，故云經。○後日，先生批云：“然必以經稱之意，實有未詳.”²⁴⁾

【非唯精不可】 咸亨謹按²⁵⁾：“唯精，乃格物·致知之事，而今²⁶⁾看此文勢，似作²⁷⁾先由唯精而後能格物·致

21) 方是不好底：〈中庸質疑〉에는 뒤에 ‘○人心之中理中節，爲好底；反是，爲不好底。能精能一，則不畔於道心，而不流於人欲矣。程子謂人心爲人欲，朱子晚覺其說猶有未盡，故不得不改從今說.’이 더 있다.

22) 問謂……云是：〈中庸質疑〉에는 ‘指精一.’로 되어 있다. 《質疑》에는 이 조목의 제목도 없다.

23) 中庸也：《質疑》에는 앞에 ‘經’이 있다.

24) ○後日……未詳：《質疑》에는 없다.

25) 咸亨謹按：《質疑》에는 ‘問’으로 되어 있다.

26) 今：《質疑》에는 없다.

27) 作：《質疑》에는 없다.

知²⁸⁾，又致知後而格物先，今先致知，亦如何？敢乞指晦.²⁹⁾” 批云³⁰⁾：“朱子³¹⁾以察而不雜，說唯精字.³²⁾蓋察而不雜，乃格物·致知所事之事，故曰：‘非唯精不可.’謂欲致知·格物，非精以³³⁾察之不可得云爾，非謂由精而後能至於格致也。又致知之³⁴⁾所以先格物，由終泝始，合爲一事而言之耳。”

【只是學此理】 李錄云：“此理，卽指精一等說，非凡道理之理.³⁵⁾”

【人心【止】人欲】 批云³⁶⁾：“伊川說人心·道心，天理·人欲便是。朱子初從此說，後來定論，謂人心非人欲。今〈中庸序〉說之類是也。”

李錄云³⁷⁾：“問：‘以人心爲人欲，如何分曉得好底不好底³⁸⁾，如何而不畔於道心，亦³⁹⁾如何而不流於人欲？’

28) 致知：《質疑》에는 없다.

29) 亦如何……指晦：《質疑》에는 ‘亦何歟’로 되어 있다.

30) 批云：《質疑》에는 ‘曰’로 되어 있다.

31) 曰：《講錄》에는 ‘曰’이 있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32) 字：《質疑》에는 없다.

33) 以：《質疑》에는 ‘而’로 되어 있다.

34) 之：《質疑》에는 없다.

35) 等說非凡道理之理：《質疑》에는 없다.

36) 批云：《質疑》에는 없다.

37) 李錄云：이하 내용은 《質疑》에는 없지만, 해당 내용이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9)에 실려 있다.

程子一生，朱子初年，皆以此爲教者，如何40)?’ 答41)曰：‘人心之中理中節爲好底，反是爲不好底。能精一42)，則不畔於道心，不流於人欲矣。程子謂人心爲人欲，朱子晚覺其說猶未盡，故不得不改從今說。’

【便是】43) 李錄云：“곧이라”

【合道理底】44) 李錄云：“합, 맞당. 底, 音디, 當處也. 與的字通. 的, 亦音地, 有地意. 當釋云: 道理厶 합ッ P 싸히 天理五 情欲乙 徇亨印 싸히 人欲ハヒ.” ○後日, 批云: “싸히之說, 未穩. 以處言之, 則ッ P 되; 以事物言之, 則ッ P 거시.” 或云: “改싸히, 爲거시.”

【理會】45) 李錄云: “整理·省察也. 於知·於行, 皆曰理會. 蓋출오다.”

【五峯】 名宏46), 字仁仲. 文定公之季子也. 自幼志

38) 如何分曉得好底不好底: 《艮齋集》에는 없다.

39) 亦: 《艮齋集》에는 없다.

40) 如何: 《艮齋集》에는 ‘何歟’로 되어 있다.

41) 答: 《艮齋集》에는 ‘先生’으로 되어 있다.

42) 一: 《艮齋集》에는 앞에 ‘能’이 있다.

43) 便是: 이 조목은 《質疑》에는 없다.

44) 合道理底: 《質疑》에는 해당 조목이 ‘底’로 되어 있고, ‘與의通, 并音地, 處也,’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45) 理會: 《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猶言整理解會也.’라고 되어 있다.

46) 名宏: 《質疑》에는 앞에 ‘姓胡氏’가 있다.

於大道，嘗見楊中立于京師，又從侯師聖於荊門，卒傳文定之學，晚歲被召旨，不幸寢疾，不克造朝而卒.⁴⁷⁾見《言行錄》.

【潛室】⁴⁸⁾ 李錄云：“名埴，字器之. 朱門高弟. 號蠡室.” ○陳埴，永嘉人. 從學朱文公. 所著有〈禹貢辨〉·《木鐘集》. 與兄增·弟止善，俱登進士第，時人號所屋，爲森桂坊.【出《一統志》.】

【說得】⁴⁹⁾ 李錄云：“得，語辭，有得意. 又올타.”

【道心雜【止】之間】⁵⁰⁾ 李錄云：“人之日用應接之間，多發而易流者，莫如人心，而道心間或出見，故道心雜【止】之間.⁵¹⁾”

【陸子靜】 李錄云：“九淵⁵²⁾，字子靜⁵³⁾，號象山. 主尊德性之學，朱子極力辨諭，卒不見回頭來也.⁵⁴⁾”

【此言亦自是】 李錄云：“詳味⁵⁵⁾自字，似有含蓄意

47) 不克造朝而卒：《質疑》에는 뒤에 ‘所著有《皇王大紀》·《知言》等書.’가 있다.

48) 潛室：《質疑》에는 ‘潛室陳氏’로 되어 있고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名埴 字器之. 朱門高弟.’로 되어 있다.

49) 說得：《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50) 道心雜【止】之間：《質疑》에는 ‘道心【止】之間’으로 되어 있다.

51) 道心雜【止】之間：《質疑》에는 ‘云云’으로 되어 있다.

52) 九淵：《質疑》에는 앞에 ‘名’이 있다.

53) 字子靜：《質疑》에는 없다.

54) 卒不見回頭來也：《質疑》에는 ‘卒不回頭.’로 되어 있다.

55) 詳味：《質疑》에는 없다.

思⁵⁶⁾，如何？答⁵⁷⁾曰：‘非獨自字，亦字亦有含蓄意，蓋子靜他說全非⁵⁸⁾，而此說近是故耳。⁵⁹⁾’”

【義理精微】 〈與趙士敬書〉⁶⁰⁾曰：“義理精微一條，嘗考《語類》，非有誤也。蓋於答道心唯微之問，而欲說義理精微以曉之，以其無形而難於爲說，故且就利害粗淺顯著處，言此之易見，則聽者可因以知彼之難知者也。因以又言鳥獸已有不知之云者，又以見禽獸知飢食渴飲，而不知利害，衆人知利害，而不知義理，唯君子存其所以異於禽獸者，故能知義理之精微。其大意不過如此云爾。”

【些子】⁶¹⁾ 李錄云：“쇼고맛.”

【苟免者幸也】 李錄云：“苟免者幸⁶²⁾，猶‘罔之生也，幸而免’之義。言人唯欲是徇，而不循天理之正，則動不動之間，便墮坑落塹，而將未⁶³⁾免死亡之禍也。⁶⁴⁾

56) 思：《質疑》에는 없다.

57) 答：《質疑》에는 없다.

58) 全非：《質疑》에는 ‘多不是’로 되어 있다.

59) 耳：《質疑》에는 ‘云’으로 되어 있다.

60) 與趙士敬書：《質疑》에는 ‘答趙士敬’으로 되어 있다.

61) 些子：《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些, 小也. 子, 語辭.’로 되어 있다.

62) 苟免者幸：《質疑》에는 없다.

63) 未：《質疑》에는 ‘不’로 되어 있다.

64) 也：《質疑》에는 없다.

厥或免之，其幸孰大焉.⁶⁵⁾”

【第五】⁶⁶⁾ 問：“詳按，徇人欲·動不動等說，朱子以人心爲人欲，必是早年所見也. 是否?” 先生批云：“朱子初年，亦以人心爲人欲，見於〈何叔京書〉等處可考也.”

【大凡】⁶⁷⁾：大概.

【其熱焦火】 怒 【其寒凝冰】 懼. ○批云：“兩句，出《莊子》.”⁶⁸⁾

【動不動】 猶言動輒之意.

【道心主宰】 李錄云：“道心，就心之發見上說，今日道心主宰云者⁶⁹⁾，何耶⁷⁰⁾? 曰：‘主宰，亦就心之發見處言，何病之有⁷¹⁾? 釋主 ヽ 也 宰 ヽ 夕. 宰，宰制.⁷²⁾’”

【勉齋】⁷³⁾ 黃榦⁷⁴⁾，字直卿. 福州 閩縣人. 父瑀沒，

65) 其幸孰大焉：《質疑》에는 ‘則幸也’로 되어 있다.

66) 第五：이 조목은 《質疑》에는 없다.

67) 大凡：이 조목은 《質疑》에는 없다.

68) 其熱焦火……莊子：《質疑》에는 앞의 ‘些子’ 조목 아래에, ‘焦火凝氷’이라는 표제로 통합 편성되었다. 설명은 ‘焦火怒, 凝氷懼, 兩句出莊子.’으로 되어 있다.

69) 云者：《質疑》에는 없다.

70) 耶：《質疑》에는 ‘也’로 되어 있다.

71) 何病之有：《質疑》에는 없다.

72) 釋主……宰制：《質疑》에는 ‘言爲主而宰之也’로 되어 있다.

73) 勉齋：《質疑》에는 ‘勉齋黃氏’로 되어 있다.

74) 黃榦：《質疑》에는 ‘名榦’으로 되어 있다.

見清江 劉靜春，靜春奇之曰：“子遠器，時學非所以處子。”因命受業於朱子。榦家法嚴重，乃以白母，即日行，時大雪。初見先生，夜不設榻，不解帶。先生語人曰：“直卿志堅思苦，與之處，甚有益。”因妻以女。病將革，以深衣及所著書與之，訣曰：“吾道之托在此，吾無憾矣。”沒，榦弟子日盛，編禮著書，差主管亳州 明道宮⁷⁵⁾，踰月致仕，特授承議郎，後贈朝奉郎。諡文肅。【出《一統志》。】

【衣食】⁷⁶⁾ 先生嘗批云：“衣食之食，當作服。”

【西山】⁷⁷⁾ 眞德秀，字景元，後更‘景’爲‘希’。建之蒲城人。登慶元五年進士第。德秀長身廣額，容貌如玉，望之，皆以公輔期之。立朝數年，奏疏無慮數十萬言，皆切當世務，直聲振朝野。卒，諡文忠。【出《一統志》。】

【酬酌】⁷⁸⁾ 先生嘗有批云：“酬，《衍義》作酢。”

【魯齋】⁷⁹⁾ 先生嘗有批云：“魯齋⁸⁰⁾，名柏，字會之。⁸¹⁾ 諡文憲。北山 何基弟子。金華人。⁸²⁾” ○又批

75) 宮：《質疑》에는 ‘官’으로 되어 있다.

76) 衣食：이 조목은 《質疑》에는 없다.

77) 西山：이 조목은 《質疑》에는 없다.

78) 酬酌：이 조목은 《質疑》에는 없다.

79) 魯齋：《質疑》에는 ‘魯齋王氏’로 되어 있다.

80) 魯齋：《質疑》에는 없다.

云⁸³⁾：“以道自任，篤志力行。然自處太高，固執所見，其見頗奇僻。好自立異，如以《大學》經文知止·物有⁸⁴⁾兩節，爲格物章之語，朱子不知以爲經文，此類甚多。反復爭辨於北山何先生基⁸⁵⁾，北山不以爲然。往復之說，成書十餘卷。”○又曰⁸⁶⁾：“‘知其本有本無’，‘正私皆見于外’等語，皆有可疑處。人多未究，不須講究。⁸⁷⁾”詳見〈答趙上舍⁸⁸⁾書〉。○又有批於冊頭云：“王氏此說，語多未瑩。更詳之。”⁸⁹⁾○李錄云：“先生有批云：‘王魯齋說，意義多未瑩，故士敬欲去之。然去之亦恐未安。’”⁹⁰⁾

〔心〕 古心字。

-
- 81) 會之：《質疑》에는 ‘檜之’로 되어 있다.
82) 金華人：《質疑》에는 ‘謚文憲’의 앞에 있다.
83) 又批云：《質疑》에는 없다.
84) 物有：《質疑》에는 ‘物格有’로 되어 있다.
85) 何先生基：《質疑》에는 없다.
86) 又曰：《質疑》에는 없다.
87) 人多未究，不須講究：《質疑》에는 없다.
88) 趙上舍：《質疑》에는 ‘趙士敬’으로 되어 있다.
89) ○又有批……更詳之：《質疑》에는 없다.
90) ○李錄云……恐未安：《質疑》에는 없다.

2 〈上帝臨女章〉

〔貳〕¹⁾ 咸亨謹按：“《詩》註，‘貳，疑也。’於此作疑字看，似不切於學者之工夫。〈都人士〉‘衣服不貳’註，‘變易無常謂之貳。’雖《詩》本註‘疑也’，而今換作此意看，是乃倣先聖引《詩》斷章取義之例也。而又似無害於文，不知是如何？”批云：“當兼‘疑也’‘變易無常也’兩義看。”

〔虞〕慮也。

〈本註〉

〔毛氏〕名萇，漢人，註《詩》。

〔愚謂〕先生批云²⁾：“註是西山所註，則愚字，當爲西山之自稱。但他處皆引本註，似不應於此獨入³⁾自註，爲可疑耳。”○李錄云：“此未知何人之自謂也。”○先生有批云：“愚，士敬以爲西山自稱。某有疑於此說者，

1) 貳：《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問：‘《詩》註，‘貳，疑也’，於此似不切。〈都人士〉‘衣服不貳’註，‘變易無常，謂之貳。’今以此意看，如何?’ 批曰：‘當兼兩義看。’로 되어 있다.

2) 先生批云：《質疑》에는 없다.

3) 入：《質疑》에는 ‘호’으로 되어 있다.

此註非西山作，篁墩已言之，又其言意，酷似朱先生說，故某疑爲朱說。但無考據處耳。”⁴⁾

〈附註〉

【對越上帝】⁵⁾ 李錄云：“問：‘人在屋漏，如何對蒼蒼之天?’ 答⁶⁾曰：‘地上皆天，及爾遊衍，安往而非天乎? 蓋天卽理也，苟知理之無物不有，無時不然，則知上帝之不可須臾離⁷⁾，亦不可須臾忽也。上帝，指天之主宰處言.’”

【龜山】⁸⁾ 宋 嘉祐中，有河南二程先生，得孟子不傳之學於遺經，以倡天下，而升堂睹奧，號稱高弟，在南方，則廣平 游定夫，上蔡 謝顯道，與公三人，是也。⁹⁾ 公諱¹⁰⁾時，字中立，姓楊。¹¹⁾ 南劍之¹²⁾將樂縣人也。¹³⁾

4) 李錄云……據處耳：《質疑》에는 없다.

5) 對越上帝：이 조목의 설명 내용은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9)에도 수록되어 있다. 《質疑》에는 ‘見原集.’이라 했다.

6) 答：《艮齋集》에는 ‘先生’으로 되어 있다.

7) 離：《艮齋集》에는 뒤에 ‘也’가 있다.

8) 龜山：《質疑》에는 ‘龜山楊氏’로 되어 있다.

9) 宋 嘉祐……是也：《質疑》에는 없다.

10) 公諱：《質疑》에는 ‘名’으로 되어 있다.

11) 姓楊：《質疑》에는 없다.

12) 之：《質疑》에는 없다.

以龍圖直學士主祠，致仕。紹興五年卒，年八十三。諡文靖。【出《淵源錄》。】

《在天》出〈清廟〉詩，指文王之靈。龜山借以爲喻。
《勿貳勿虞》問：“大文曰‘無’，楊氏云‘勿’，恐勿字爲誤。如何？”批云：“今詩作無。”

13) 也：《質疑》에는 없고, 바로 뒤에 ‘程門高弟’가 있다.

3 〈視爾友君子章〉

〔不遐有愆〕¹⁾ 李錄云：“아니 엇던 愆이 인논가 하
느니”

〔不愧〕²⁾ 거의 屋漏에 붓그림지 아니홀디니

〔視爾友〕³⁾ 李錄云：“爾，自瞽矇而指武公．君子⁴⁾，
指朝之士大夫．”

〈本註〉

〔鄭氏〕 李錄云：“名玄，字康成．東漢人．” ○北海
高密人．⁵⁾ 入關從馬融受學．後歸⁶⁾鄉里，學徒相隨者
數千百人，國相孔融深敬之．玄嘗道遇黃巾賊⁷⁾數萬人，
見玄皆拜，相約不敢入縣境．袁紹帥⁸⁾冀州，大會賓客，
競說異端，百家互起，玄隨方辨對，咸出問表，莫不歎

1) 不遐有愆：《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2) 不愧：《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3) 視爾友：《質疑》에는 ‘視爾’로 되어 있다.

4) 君子：《質疑》에는 표제어로 되어 있다.

5) 東漢人……高密人：《質疑》에는 ‘東漢北海高密人’으로 되어 있다.

6) 歸：《質疑》에는 ‘還’로 되어 있다.

7) 賊：《講錄》에는 ‘賤’으로 되어 있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고쳤다.

8) 帥：《質疑》에는 ‘牧’으로 되어 있다.

服.【出《一統志》.】

【當知】⁹⁾ 釋在臨字之後.

【體】 凡言體者，乃骨子也. 猶木之有幹. 《易》曰：“貞固，足以幹事.”¹⁰⁾

【不睹不聞】 李錄云：“本謂己所不睹·不聞，故此處亦下一其字. ‘其’謂‘己’也.¹¹⁾ 然屋漏乃是人不見之處，則亦可兼看人不見聞之義，便是.¹²⁾ 蓋與‘謹獨’對言，則分人己；單言，則可兼看.”

〈附註〉

【學問】¹³⁾ 李錄云：“學於己，問於人.”

【畢竟】 先生批云：“猶言要其終而言之也. 周之鄉士，總指〈風〉·〈雅〉中所稱周鄉士而言.¹⁴⁾”

【不同】 李錄云：“猶言各別.¹⁵⁾”

9) 體：《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0) 凡言體者……足以幹事：《質疑》에는 ‘猶骨子也.’로 되어 있다.

11) 此處亦……謂己也：《質疑》에는 ‘下一其字，謂己也.’로 되어 있다.

12) 便是：《質疑》에는 없다.

13) 學問：《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4) 周之鄉……士而言：《質疑》에는 없다.

15) 別：《質疑》에는 뒤에 ‘也’가 있고, 이어서 ‘黃仲學問：“周之卿士，去聖人不遠，故氣像與後世之人不同否？” 答曰：“是. 大·小〈雅〉諸詩，多是周卿士所作，故因論〈抑〉詩，兼指諸作者而

【疊山謝氏】 名枋得，弋陽人，號疊山，爲人忠義自奮。寶佑中試經科，德祐初，以江西招諭使，知信州。元兵攻信州，枋得乃變姓名，入建寧山中寓。逆旅中，日麻衣躡屨，東面而哭而已。賣卜建陽市中，有來卜者，唯取米屨而已，委以錢，率謝不取。天下定，居閩中。至元中，以薦強起，輒辭，有怒者¹⁶⁾，逼以北行，至京，不食死。【出《一統志》。】

稱美之耳.”가 더 있다.

16) 有怒者：《質疑》에는 없다.

4 〈閑邪存誠章〉

【言行閑存】¹⁾ 李錄云：“庸言·庸行，主外而言；閑邪·存誠，主內而言。非直以謹信爲閑邪·存誠之道也。”

〈本註〉²⁾

【不是外[止]來存著】 李錄云：“이 外面에 혼 誠을 將 也 와 存著 ㄷ 거시 아니라.” ○是，此也，卽也。近，語辭。外面，밖녁. 將，가져. 一個，혼낫. 然釋時，只云 혼나，可也，不必言 낫. 來，語辭，有來意. 著，猶言 두다，又爲也.

〈附註〉

【更著甚工夫】³⁾ 李錄云：“다시 므슴 工夫 ㄷ 著 ㅎ 리오.” ○甚，音슴，므슴.

【唯是動容貌】⁴⁾ 李錄云：“此下無吐，若有之，則當

1) 言行閑存：《講錄》에는 표제 없이 설명만 있으므로, 《質疑》에 의하여 표제를 붙였다. 한 편에는 《質疑》에는 설명이 ‘見原集.’으로만 되어 있다.

2) 本註：《質疑》에는 이하 本註 관련 조목이 없다.

3) 更著甚工夫：《質疑》에는 이 조목이 ‘甚’으로 되어 있고, ‘音슴, 何也.’라고만 하였다.

曰ッふ.5) 《語》6)‘動容貌，斯遠暴慢矣7)’註8)，朱子則9)於下四字，作工夫看，故上三字虛看了；程子則10)於上三字，作工夫看，而下四字則閑看了。故《語》以朱說釋，則容貌乙 動호매，暴慢乙 머리호며；以程說釋，則容貌乙 動호매，暴慢이 遠ッふ云云。於此亦以程說義看，故工夫在於‘動容貌’三字，而吐曰호며.11)”

【存此】此，指主一。

【但用閑【止】入來】李錄云：“常言乙 이의 謹호고 常行乙 이의 愼ッヒ 오직 써곰 邪乙 閑ッ也 他、入홀가 怕ッ乙디니.”12) ○他，指邪。問：“今味既字·但字，及所引無射亦保字，閑邪·存誠13)，恐非初學工夫，何如？”先生14)批云：“此乾卦九二說，固是言15)

4) 唯是動容貌：《質疑》에는 ‘動容貌’로 되어 있다.

5) 此下……ッふ：《質疑》에는 없다.

6) 語：《質疑》에는 ‘論語’로 되어 있다.

7) 矣：《質疑》에는 없다.

8) 註：《質疑》에는 ‘一段’으로 되어 있다.

9) 則：《質疑》에는 없다.

10) 則：《質疑》에는 없다.

11) 閑看了……호며：《質疑》에는 ‘作功效說. 此當以程說義看.’으로 되어 있다.

12) 李錄云常言乙……디니：《質疑》에는 없다.

13) 今味既字·但字，及所引無射亦保字，閑邪存省：《質疑》에는 ‘此’로 되어 있다.

14) 先生：《質疑》에는 없다.

15) 言：《質疑》에는 없다.

聖人之學. 然亦切於學者之¹⁶⁾用工.”

【無射亦保】 李錄云：“厭黻，猶言忌憚。常人之情，若有人點檢吾所爲，則於其心，必有所忌憚而保其所守，猶《詩》所謂‘視爾友君子，輯柔爾顏，不瑕有愆’，是也。聖人則非有所忌憚，而亦克自保也。”

【臨川】¹⁷⁾ 先生批云¹⁸⁾：“名澄，字幼清。臨川卽撫州，屬江西。雖以傳道自任，實爲陸氏之學。¹⁹⁾ 蓋吳²⁰⁾生陸鄉而染禪者也。”○如以無邪·閑邪二者爲不同，本其言之所出²¹⁾，閑邪言聖學，無邪泛言詩學²²⁾，如是分差等，猶可也。至於²³⁾因此而又以無邪爲誠意之事，閑邪爲正心之事，其言皆有病。又謂‘物接于²⁴⁾外，閑之而不干于²⁵⁾內’，此言尤非。蓋聖人{祇云}閑邪，若謂閑物接而不干乎內²⁶⁾，豈非禪家說耶？○嘗觀此說

16) 之：《質疑》에는 없다.

17) 臨川：《質疑》에는 ‘臨川吳氏’로 되어 있다.

18) 先生批云：《質疑》에는 없다.

19) 雖以……之學：《質疑》에는 앞의 ‘幼清’ 다음 ‘臨川’ 앞에 있다.

20) 吳：《質疑》에는 없다.

21) ○如以……所出：《質疑》에는 이 부분에서 ‘無邪閑邪’만을 표제어로 취하여 별도의 조목으로 편성하였다.

22) 閑邪初言聖學，無邪泛言詩學：《質疑》에는 ‘無邪泛言詩學，閑邪言聖學’으로 되어 있다.

23) 至於：《質疑》에는 없다.

24) 于：《質疑》에는 ‘乎’로 되어 있다.

25) 于：《質疑》에는 ‘乎’로 되어 있다.

上端有批云：“吳臨川，既以無邪·閑邪，分作兩項說，及物接于外而閑之而不干乎內，此言尤非，皆可疑。更詳之.²⁷⁾” ○李錄云：“誠意·正心，如何分兩項說？答²⁸⁾曰：‘誠意，就幾發上說；正心，舉心之全體說。雖似兩項，然不可以此發明兩邪之意。吳氏²⁹⁾不知此意而³⁰⁾曰“誠意·正心，其等不可躡云云³¹⁾”，便不是.³²⁾”

【蚩蚩蠢蠢】問：“考韻書，亦無明釋處。敢問其義。”批云³³⁾：“蚩蚩，無知之貌。見《詩》傳³⁴⁾，蠢蠢，蟲動無知之貌.³⁵⁾”

【頑】問：“向蒙教，批云：‘頑，風濕襲手足爲痺而血氣不流通之謂。’今考韻書，無如此釋者，而只曰‘心不則德義之經爲頑。’又考痺字，只曰‘脚冷濕病’，而無與頑通之義，則何以痺釋頑？敢請其義。”批云³⁶⁾：“氣痺

26) 此言尤非……不干乎內：《質疑》에는 없다.

27) 嘗觀此說……更詳之：《質疑》에는 없다.

28) 答：《質疑》에는 없다.

29) 吳氏：《質疑》에는 앞에 ‘而’가 있다.

30) 不知此意而：《質疑》에는 없다.

31) 云云：《質疑》에는 ‘云’으로 되어 있다.

32) 便不是：《質疑》에는 ‘非是’로 되어 있다.

33) 問……批云：《質疑》에는 없다.

34) 傳：《質疑》에는 ‘註’로 되어 있다.

35) 無知之貌：《質疑》에는 뒤에 ‘見《書》註.’가 있다.

36) 問……批云：《質疑》에는 없다.

心經講錄合編 第一篇

不通，不知痛痒，心頑如石，不解感應，二³⁷⁾者正相似也。³⁸⁾”

37) 二：《質疑》에는 없다.

38) 也：《質疑》에는 없다.

5 〈敬以直內章〉

【六二】¹⁾ 《易》有孔子十翼，〈文言〉其一也．此乃〈文言傳〉也．乃潤辭成事之言，故文言．○請問十翼．批云：“〈彖傳〉上·下，〈象傳〉上·下，〈繫辭傳〉上·下，〈文言傳〉，〈序卦〉，〈說卦〉，〈雜卦〉爲十翼．”

【敬以直內】²⁾ 李錄云：“敬ッ也 內乙 直ッ也．或敬又內，不是．”

【方外】 義又內 外乙 方ッ也．

【方大】 李錄云：“此下無吐．”

【曰君】 先生嘗有批云：“曰上嘗恐當有子字．”³⁾

【利】 言順理無阻礙也，非利欲之謂．⁴⁾ 子罕言利與命⁵⁾，而於《易》發之者，《易》乃筮占吉凶，爲萬民作，故不得已言利，乃避凶趨吉之謂也，非利害之利．蓋敬直·義方，而其德不孤，斯爲大矣．如此則不待習熟，自然順理無礙也．○李錄云：“亦不勉而中之義．”

1) 六二 :《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下恐當有子字.’로 되어 있다.

2) 敬以直內 : 《質疑》에는 이 조목에서부터 아래 ‘曰君’ 조목까지가 없다.

3) 先生嘗有……有子字 : 앞의 ‘六二’ 조목에 대한 《質疑》의 설명과 같은 내용이다.

4) 非利欲之謂 : 《質疑》에는 없다.

5) 利與命 : 《質疑》에는 ‘命與利’으로 되어 있다.

〈本註〉

【盡其【止】直也】 楊氏以俗所謂⁶⁾無偽爲直，與朱子無纖毫私意，胸中洞然之說不同。

〈附註〉

【只明人理 ㅎ야】⁷⁾ 李錄云：“問：‘吐曰 ㄴ 也，如何？’答曰⁸⁾：‘明屬知，敬屬行故耳。⁹⁾’” ○批云¹⁰⁾：“人理，人所以爲人之理，具在吾心。明乎此，則萬事·萬物之理，亦不外是。”

【穿鑿繫累】 李錄云：“穿鑿，穿牆鑿壁，如〈太極賦〉‘穴牆垣爲戶牖’云爾。夫道若大路然，如青天白日然，更無別途。¹¹⁾ 若反¹²⁾以私智穿鑿，爲私意繫累，則自非道理。故反是而有道有理【道 乙 두며 理 乙 두며.¹³⁾ 道就

6) 俗所謂：《質疑》에는 없다.

7) ㅎ야：《質疑》에는 없다.

8) 問……答曰：《質疑》에는 없다.

9) 故耳：《質疑》에는 없다.

10) 批云：《質疑》에는 없다.

11) 如青天白日然，更無別途：《質疑》에는 없다.

12) 反：《質疑》에는 없다.

頭腦處說，理就條理處說.¹⁴⁾】，則天人自合爲一矣.”

【浩然之氣】 李錄云：“問：‘於此¹⁵⁾言道與理¹⁶⁾，而繼之以氣者，如何?’ 答¹⁷⁾曰：‘理氣雖異，而於道¹⁸⁾實不相離，故理充乎氣，則氣得以浩然；氣若不存，則理亦¹⁹⁾無所²⁰⁾掛搭處。氣²¹⁾苟能配義與道，而至於浩然²²⁾，則雖曰是氣，而實理之充盛所使然也。然則論其²³⁾道理而繼之²⁴⁾以浩氣者，豈不可乎?’”

【歆】 《韻會》：“苦感切，不足也.”

【知其所】²⁵⁾ 그 자근 주를 알니라.

【較麤些】 李錄云：“必有事焉一句，工夫極細密所在處.²⁶⁾ 孟子只於養氣上說，而不及於養心，故云較麤

13) 道ㄷ 두며 理ㄷ 두며 : 《質疑》에는 없다.

14) 道就頭腦處說, 理就條理處說 : 《質疑》에는 아래에 바로 이어지는 ‘天人自合爲一矣.’ 다음에 본문으로 편집되어 있다.

15) 於此 : 《質疑》에는 없다.

16) 理 : 《質疑》에는 ‘利’로 되어 있다.

17) 答 : 《質疑》에는 없다.

18) 於道 : 《質疑》에는 없다.

19) 亦 : 《質疑》에는 없다.

20) 所 : 《質疑》에는 없다.

21) 氣 : 《質疑》에는 없다.

22) 配義與道, 而至於浩然 : 《質疑》에는 ‘充塞無間, 而配義與道’로 되어 있다.

23) 其 : 《質疑》에는 없다.

24) 之 : 《質疑》에는 없다.

25) 知其所 : 이 조목은 《質疑》에는 없다.

26) 所在處 : 《質疑》에는 없다.

些.²⁷⁾” ○對兩物而計其長短多寡大小之不等曰較. 麤, 不精細之稱. 些, 小也.²⁸⁾ ○批云: “彼此相比, 而彼麤於此者有些子, 是爲不等也.”²⁹⁾

【所謂】 程子語也.

【英氣】³⁰⁾ 如過當之類, 非過言之謂.

【下工夫】³¹⁾ 李錄云: “下, 音하. 言아모工夫乙 ㅎ다. 如下手下字之類.”

【孟子之節度】³²⁾ 李錄云: “卽所謂勿忘勿助法.”

【直上[止]自此】 李錄云: “直히 上하야 天德에 達乎勿 일노브터니라.³³⁾ 此, 指敬·義.”

【要放[止]不得】 李錄云: “放下호믈 霎然이나 要하아도 得디 묻하리라.³⁴⁾ 要, 求也. 又모되, 又하고져.³⁵⁾ 放下, 노하브리다.³⁶⁾ 下如字, 語辭也.³⁷⁾ 霎

27) 而不及……較麤些: 《質疑》에는 ‘比程子作養心法, 麤了些子.’로 되어 있다.

28) 對兩物……小也: 《質疑》에는 ‘必有事焉一句’ 앞에 있다.

29) ○批云……不等也: 《質疑》에는 없다.

30) 英氣: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31) 下工夫: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32) 孟子之節度: 《質疑》에는 ‘節度’로 되어 있다.

33) 直히……일노브터니라: 《質疑》에는 ‘朱子曰: “直上者, 不倒東來西之謂.”’로 되어 있다.

34) 放下호믈……묻하리라: 《質疑》에는 없다.

35) 又모되……又하고져: 《質疑》에는 없다.

36) 노하브리다: 《質疑》에는 ‘猶言舍置也’로 되어 있다.

37) 下如字, 語辭也: 《質疑》에는 없다.

然，猶言³⁸⁾暫忽之頃，霎，音삽.³⁹⁾”

【這裏】⁴⁰⁾ 李錄云：“이에.”

【祚】⁴¹⁾ 當从卩，文王常由東階，及沒⁴²⁾，武王乃繼踐，始行主人之禮，故曰‘踐祚’.⁴³⁾

【說只【止】如此】 李錄云：“說 ㅍ 오직 이리說 ㅎ얏 거니와 모로미 스스로 去가 工夫乙 下ッ也沙 보야 호로이 이곤튼 주를 見ㅎ리라.” ○上說字，所說⁴⁴⁾；下說字，說之也.⁴⁵⁾ 恁地，이리⁴⁶⁾，猶言言雖如此言也.⁴⁷⁾ 須，프로미，去與得字，并語辭，各有本意.⁴⁸⁾

【截然】 一定而不可易，如以一物橫截然也。

【方方正正】 批云⁴⁹⁾：“言方⁵⁰⁾正而要極言之，故⁵¹⁾

38) 猶言：《質疑》에는 없다.

39) 霎，音삽：《質疑》에는 없다.

40) 這裏：《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41) 祚：《質疑》에는 ‘阼’로 되어 있고 아래의 ‘當从卩.’라는 설명도 없다.

42) 文王……及沒：《質疑》에는 ‘東階，文王沒’로 되어 있다.

43) 祚：《質疑》에는 ‘阼’로 되어 있다.

44) 所說：《質疑》에는 앞에 ‘指’가 있다.

45) 說之也：《質疑》에는 앞에 ‘謂’가 있다.

46) 이리：《質疑》에는 없다.

47) 猶言言雖如此言也：《質疑》에는 ‘猶言如此’로 되어 있다.

48) 須……各有本意：《質疑》에는 없고，‘言所說雖如此說之，然須自下工夫，方眞見其如此也，’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49) 批云：《質疑》에는 없다.

50) 方：《講錄》에는 ‘乃’로 되어 있으나，《質疑》에 의거하여 ‘方’으로 고쳤다.

51) 故：《質疑》에는 없다.

曰‘方方正正’。猶極言分曉，曰‘分分曉曉’，又極言遊蕩，曰‘遊遊蕩蕩’之類。⁵²⁾”

【自將去做工夫】⁵³⁾ 李錄云：“스스로 가져가工夫
乙 做ッ乙 거시라.” ○做作工夫.

【領略將去】 領，會也。略，取也。⁵⁴⁾ 釋云：“領會ッ
也取ッ也 가져가.”⁵⁵⁾

【如今說得】 批云⁵⁶⁾：“朱子泛指今人言，而意指門人.”

【儘】 李錄云：“與信同，而ㄴ장ㅎ난쁘디만ㅎ니라.⁵⁷⁾”

【夾室】 朱子之先，居新安，而父韋齋先生，以福建尤溪縣尉赴任，秩滿當歸，方臘作亂，道路不通遂家焉。⁵⁸⁾ 朱子年十四，韋齋卒⁵⁹⁾，將卒，托妻子於其友劉子羽。劉爲築室於所居里之屏山下，朱子奉母夫人就居焉。⁶⁰⁾ 後名其室，曰紫陽書堂。⁶¹⁾ 夾室，書堂⁶²⁾之左右

52) 又極言……蕩蕩之類：《質疑》에는 없다.

53) 自將去做工夫：《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54) 取也：《質疑》에는 뒤에 ‘將去，猶持去也.’가 있다.

55) 釋云……가져가：《質疑》에는 없다.

56) 批云：《質疑》에는 없다.

57) 而ㄴ장……만ㅎ니라：《質疑》에는 없다.

58) 朱子之先……遂家焉：《質疑》에는 없다.

59) 卒：《質疑》에는 없다.

夾⁶³⁾室也. 蓋韋齋先生⁶⁴⁾自號紫陽山人【山在新安.】⁶⁵⁾, 至刻圖書⁶⁶⁾, 朱子不欲忘先人之所號, 又欲故鄉之名常目在之也. 屏山, 在崇安縣, 距新安遼遠也.⁶⁷⁾

【所論修道之教】 李錄云: “問: ‘於《中庸》首章, 特拈出此一句而言者, 何如⁶⁸⁾?’ 答⁶⁹⁾曰: ‘《中庸》之以戒愼⁷⁰⁾·謹獨爲學, 正爲從事修道之教而做工夫, 故朱子之言如此.’”

【動】 義.⁷¹⁾

【靜】 敬.⁷²⁾

【合乎【止】之論】 問: “前雖聞教諄諄, 小子不敏, 不能記焉. 敢更請益.” 先生批云⁷³⁾: “心之動也, 義形而

60) 焉: 《質疑》에는 없다.

61) 紫陽書堂: 《質疑》에는 뒤에 ‘爲之記’가 있다.

62) 書堂: 《質疑》에는 앞에 ‘卽’이 있다.

63) 夾: 《質疑》에는 없다.

64) 先生: 《質疑》에는 없다.

65) 山在新安: 《質疑》에는 본문으로 편집되어 있다.

66) 至刻圖書: 《質疑》에는 없다.

67) 距新安遼遠也: 《質疑》에는 없다.

68) 何如: 《質疑》에는 ‘如何’로 되어 있다.

69) 答: 《質疑》에는 없다.

70) 愼: 《質疑》에는 ‘懼’로 되어 있다.

71) 動義: 《質疑》에는 없다.

72) 靜敬: 《質疑》에는 없다.

73) 問……批云: 《質疑》에는 없다.

爲用；其靜也，敬立而爲體。體用互爲其資，亦猶太極之動而爲陽，靜而爲陰，陰陽互爲其根。故云合乎太極之論。”

【外慕】 功名利祿。

【程子曰切要以下四條】⁷⁴⁾ 批上端云：“單言敬。”

【敬以直內】 李錄云：“【咸亨謹謂：“答字恐誤，伏希折衷。”批云：“答字當去之。”】⁷⁵⁾ 〈敬義章〉註所引程子‘敬以直內’·‘必有事焉’處，詳其語意，非以其下語，釋此上句也。只是稱《易》語，曰‘敬以直內’^{ㄱ ㄴ ㄷ 76)}，係以己意論之，曰‘有主於內’云云，又稱《孟》語，曰‘必有事焉’^{ㄱ ㄴ ㄷ 77)}，又係以己意論之，曰‘須把敬來’云云，故其語勢如此。若以其下語，作釋上句看，則文勢不穩，便不是。⁷⁸⁾ 且‘敬以直內’，對‘義以方外’，則敬靜·義動。單言，則與必有事焉，皆當貫動靜，一顯微，徹內外看。”

【做件事著】⁷⁹⁾ 一件事 乙 사마홀디니. ○先生有批

74) 程子曰切要以下四條：· 이 조목은 《質疑》에는 없다.

75) 咸亨謹謂……當去之：《質疑》에는 없다.

76) ㄱ ㄴ ㄷ：《質疑》에는 없다.

77) ㄱ ㄴ ㄷ：《質疑》에는 없다.

78) 若以其……便不是：《質疑》에는 없다.

79) 做件事著：《質疑》에는 ‘著’가 ‘着’으로 되어 있고,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言把作一件

云：“著字，不可作著力說.”

【知如何所寓】 先生嘗有批云⁸⁰⁾：“《近思錄》無如字，《遺書》有如字.” ○知字，前日疑爲心字之誤，不是. 知，乃不知之意，發語辭也.⁸¹⁾ 中原人言語，稱不知，或去不⁸²⁾，只稱知. 【解漢語人云云】 釋 아디몬헝게라 어디 寓흔바오.⁸³⁾

【怎生】 李錄云：“怎，音증. 怎生，言엇디.⁸⁴⁾”

【尹和靖】 李錄云：“名焞⁸⁵⁾，字彥明.” ○洛人. 少師事伊川. 宋 靖康初，以薦召至京師，不欲留，賜號和靖處士. 次年，金人陷洛，焞⁸⁶⁾闔⁸⁷⁾門被害，焞⁸⁸⁾死復甦. 後劉豫以禮聘，不從，乃自商州奔閩. 紹興四年，止於涪，涪，頤⁸⁹⁾讀《易》地. 闢三畏齋以居. 後以范冲舉，召爲【咸亨謹按：本文作冲，然無文理，恐是授字. 是否?】⁹⁰⁾

事. 着, 語辭.'로 되어 있다.

80) 先生嘗有批云：《質疑》에는 없다.

81) ○知字……發語辭也：《質疑》에는 ‘知, 發語辭, 乃不知之意.’로 되어 있다.

82) 或去不：《質疑》에는 아래에 ‘字’가 더 있다.

83) 解漢語人……寓흔바오：《質疑》에는 없다.

84) 言엇디：《質疑》에는 ‘言何也.’로 되어 있다.

85) 焞：《質疑》에는 ‘享’으로 되어 있다.

86) 焞：《質疑》에는 없다.

87) 闔：《質疑》에는 ‘閤’으로 되어 있다.

88) 焞：《質疑》에는 ‘幾’로 되어 있다.

89) 頤：《質疑》에는 ‘伊川’으로 되어 있다.

崇政說書，以疾辭。沖奏命漕臣，至涪親遣，始就道，祭伊川而後行。後遷徽猷閣待制兼侍講，致仕而卒。年七十二。【出《一統志》。】

【樞要】戶之開闔，必由於樞。《書》註曰：“衆體所會之謂要。”蓋言入聖所由之要也。

【蘇季明】李錄云：“名昞。”○⁹¹⁾武功人，始學於張載⁹²⁾，而⁹³⁾事二程卒業。元祐末，呂大忠薦之，爲太常博士。後坐元符上書入黨籍，編管饒州。【出《一統志》。】○呂氏⁹⁴⁾大忠稱其德性純茂，強學篤志。行年四十，不求仕進。

【不誠】誠，誠⁹⁵⁾一也。

【須是習】李錄云：“習，謂習主一之功也。言初習之時，未免有如麻又生之病。習之既熟，而至於專一，則自然無此病，故云‘便好’。”

【修養家】李錄云：“卽學神仙之術者。”

【想無【止】成有⁹⁶⁾】李錄云：“想，思想⁹⁷⁾也。因云⁹⁸⁾：

90) 咸亨謹按……是否：《質疑》에는 없다.

91) ○：《質疑》에는 없다.

92) 張載：《質疑》에는 ‘張子’로 되어 있다.

93) 而：《質疑》에는 없다.

94) 氏：《質疑》에는 없다.

95) 誠：《質疑》에는 ‘卽’으로 되어 있다.

‘此修養家事，則不得知。只以《參同契》考之，則夫人之爲體者⁹⁹⁾，惟火與水¹⁰⁰⁾，以六十四卦之坎水·離火爲藥物，以乾·坤爲鼎器。以六十卦，分定三十日，每一日，各定二卦，又以二卦十二爻，分定十二辰。其於所當之卦·所逢之爻，念念不忘，無有少¹⁰¹⁾違。以天之氣合於吾氣，以月之盈虛抽添之，自朔至望，則以漸而添，自望至晦，則以漸而抽。添之抽之，苟無違於天行，以火鍊¹⁰²⁾水，使就凝於丹田。至於三年，則¹⁰³⁾身輕骨換¹⁰⁴⁾，白日飛昇。此鍊¹⁰⁵⁾內丹法，其間妙法不可盡既，然¹⁰⁶⁾其大概如此。此其想無成有之法也。如佛氏之事則未聞其法，但皆¹⁰⁷⁾以世間之事物爲無，而成寂滅之教，卽所謂萬法俱空，是也。” ○咸亨¹⁰⁸⁾問：

96) 有：《質疑》에는 ‘無’로 되어 있다.

97) 想：《質疑》에는 없다.

98) 因云：《質疑》에는 없다.

99) 者：《質疑》에는 없다.

100) 惟火與水：《質疑》에는 ‘由水與火’로 되어 있다.

101) 少：《質疑》에는 ‘所’로 되어 있다.

102) 鍊：《質疑》에는 ‘煉’으로 되어 있다.

103) 則：《質疑》에는 없다.

104) 換：《質疑》에는 ‘幻’으로 되어 있다.

105) 鍊：《質疑》에는 ‘煉’으로 되어 있다.

106) 其間……既然：《質疑》에는 없다.

107) 之事則……法但皆：《質疑》에는 없다.

108) 咸亨：《質疑》에는 없다.

“朱先生註《參同契》之意，如何？”答曰：“道教非若佛家之專事誑惑，故先生有詩云：‘三年養神丹，白日生羽翰。但恐逆天理，偷生詎能安。’且註疏之時，先生已去國數年，時事大壞，悲國家之將亡，寓意於《楚辭》·《參同契》之類。若曰‘欲長生不死，後天而終，以盡反復無窮之世變’，猶屈原〈遠遊賦〉之義，乃寓言耳。”○問：“《困知記》曰：‘魏伯陽《參同契》，將六十四卦，翻出許多說話，直是巧，其實一字也無所用，故有教外別傳之說。後來張平叔說得亦自分明，所謂“工夫容易藥非遙，說破人須失笑”，是已。使吾朱子灼知其爲可笑，其肯留意於此乎？然朱子之考訂此書，與註《楚辭》一意，蓋當其時，其所感者深矣。吾黨尤不可不知。’是否？咸亨聞於士友，多有發馬肝之論，每以先生教辭應之，鮮有不解者。故并錄羅氏之說，以祛俗學之躐等妄非聖賢之所爲也。”批云：“《困知記》說得之。”¹⁰⁹⁾

【自家】¹¹⁰⁾ 李錄云：“제，猶言我也。指彼而稱自己，亦曰自家。”

109) ○問……得之：《質疑》에는 없다.

110) 自家：《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神】理之所發用，乘氣以出入者，乃神明之神，共公者也.¹¹¹⁾

【凝】結也，定也.

【自少【止】不奈何】¹¹²⁾ 李錄云：“小，卽小少時也. 小少時로브터 일즈시 做得디 아니흐니 아므 레몬흐아. 言少時旣不能自力於專一工夫，而至於此日，已爲無可奈何云云也.”

【安頓】李錄云：“置物也.”

【歸著】¹¹³⁾ 李錄云：“此¹¹⁴⁾要其終而言也.”

【頭當】¹¹⁵⁾ 疑是‘다혀 덩흔디라.’

【整【止】肅】¹¹⁶⁾ 李錄云：“嚴肅，主容止上說；整齊，就事物上說.¹¹⁷⁾ 然互相看亦得.”

【嚴【止】恪】¹¹⁸⁾ 嚴恪，先生批云：“敬而太嚴之謂.”¹¹⁹⁾

○李錄云：“嚴威·儼恪，偏於嚴厲，故非敬之正也.”

111) 共公者也：《質疑》에는 없다.

112) 自少【止】不奈何：《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言少旣不能自力於專一工夫，至此無可奈何也.’로 되어 있다.

113) 歸著：《質疑》에는 ‘歸宿’으로 되어 있다.

114) 此：《質疑》에는 뒤에 ‘言’이 있다.

115) 頭當：《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猶言當頭定處也.’로 되어 있다.

116) 整【止】肅：《質疑》에는 ‘整齊嚴肅’으로 되어 있다.

117) 整齊，就事物上說：《質疑》에는 ‘嚴肅，主容止上說’의 앞에 있다.

118) 嚴【止】恪：《質疑》에는 ‘嚴威儼恪’으로 되어 있다.

119) 嚴恪……太嚴之謂：《質疑》에는 없다.

【一段】李錄云：“或事·或物之分段，如一條·一片之類。在田고랑，在書各句各章，皆是也。在禾一束，亦是也。¹²⁰⁾”

【比】先生批云：“比¹²¹⁾，猶近也。”

【合下】李錄云：“본딴¹²²⁾，猶言本來也。”

【克己復禮】¹²³⁾李錄云：“問：‘顏子本問仁¹²⁴⁾，而夫子告之以禮者，如何¹²⁵⁾?’答曰：‘仁者，心之德；禮者，理之節。心不存，理何以中節；理不中節，心何以得存乎？故夫子既答之以禮，而至問其目，則不過就視聽言動上說，欲學者先制於外【是整齊嚴肅事。】以安其內也。此聖人之言，所以精微·縝密處。後之學者，苟能用力於視·聽·言·動之禮，使本心之德日存乎中，則不患不造¹²⁶⁾顏子之地位也。’”

【於禮字【止】然後已】¹²⁷⁾李錄云：“‘意’，吐 하야. ‘又’

120) 在田고랑……亦是也：《質疑》에는 없다.

121) 先生批云比：《質疑》에는 없다.

122) 본딴：《質疑》에는 없다.

123) 克己復禮：《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見原集.’으로 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9)에 보인다.

124) 顏子本問仁：《艮齋集》에는 ‘顏淵問仁’으로 되어 있다.

125) 如何：《艮齋集》에는 ‘何歟’로 되어 있다.

126) 造：《艮齋集》에는 뒤에 ‘乎’가 있다.

127) 於禮字【止】然後已：《質疑》에는 ‘於禮字【止】緻密’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言於禮字，每不快意，必將一個理字訓之而已，今始知禮之本語精微縝密.’로 되어 있

字, 《朱子大全》作‘必’. ‘已’下吐, 曰‘라니.’ 言於禮字, 每不快意호야, 必將一個理字而訓之而已라니, 今始知其‘克己復禮’之本語精微·縝蜜云云. 士敬此說, 似當然. 吾之初見異此, 謂‘於禮者, 每不快意호야, 又訓云云已호니, 至於此, 始知其義精微·縝蜜也.’” ○後日, 先生有批云: “但覺語有未瑩, 不若用士敬說.”

〔上蔡〕128) 名良佐, 字顯道, 上蔡人. 與游察院·楊文靖, 同時受學, 歷仕州縣. 後以飛語, 坐繫詔獄, 褫官. 初見明道, 明道語人曰: “此秀才展拓得開, 將來可望.” 又曰: “誠篤理會, 事有不透, 其類有泚, 憤悱如此.”【出《淵源錄》.】

〔惺惺〕129) 又又

〔悔〕130) 先生嘗有批云: “誨.”

〔被他恁地聒後〕李錄云: “他的 이리 聒호믈 니븐後에.” ○131)他, 指瞽史. 聒, 謹擾亂聽也. 後, 語辭也132), 猶言如此之後也. ○咸亨謂: “他下, 皆先生手

다.

128) 上蔡: 《質疑》에는 ‘上蔡謝氏’로 되어 있다.

129) 惺惺: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30) 悔: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31) 他的……後에 ○: 《質疑》에는 없다.

132) 也: 《質疑》에는 없다.

筆，而有似未通處。”批云：“有何未通。”¹³³⁾

【瑞巖】李錄云：“地名也。”¹³⁴⁾

【僧】¹³⁵⁾名師彥，號空寂。

【日間】日用間也。

【喚惺】¹³⁶⁾李錄云：“喚 ㅎ야 醒 ㅎ다。”

【照管】¹³⁷⁾李錄云：“不忘也。問：‘此兩字，似各有本意，如何？’先生批云：‘照 ㅎ야 管 ㅎ다。猶今俗言銘心也。’”

【祁寬問云云先生】¹³⁸⁾批云¹³⁹⁾：“先生，自寬指和靖。”¹⁴⁰⁾○祁寬¹⁴¹⁾，字居之，和靖門人。和靖逃金寇入蜀，寓涪陵。故記其行¹⁴²⁾，名曰《涪陵記善錄》。

【覺軒】¹⁴³⁾李錄云：“名模，字仲覺。西山先生之孫也。¹⁴⁴⁾”

133) 咸亨謂……何未通：《質疑》에는 없다.

134) 地名也：《質疑》에는 ‘寺名.’으로 되어 있다.

135) 僧：《講錄》에는 이 조목이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136) 喚惺：《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喚而惺之也.’로 되어 있다.

137) 照管：《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38) 祁寬問云云先生：《質疑》에는 ‘祈寬問先生’으로 되어 있다.

139) 批云：《質疑》에는 없다.

140) 先生自寬指和靖：《質疑》에는 ‘涪陵記善錄’ 뒤에 있다.

141) 祁貫：《質疑》에는 ‘貫’으로 되어 있다.

142) 行：《質疑》에는 ‘言行’으로 되어 있다.

143) 覺軒：《質疑》에는 ‘覺軒蔡氏’로 되어 있다.

〔哀集〕 李錄云：“哀亦聚也.”

〔本源〕¹⁴⁵⁾ 李錄云：“心學之本源¹⁴⁶⁾也.”

〔涵養〕 先生批云¹⁴⁷⁾：“養心以敬，如物涵淹於水而養之.” ○李錄云：“此貫動靜，通有無言，非若存養之只言未發時.”

〔惕然悚然〕 問：“悚·惕之義¹⁴⁸⁾同，而今作兩項說，如何解分曉?” 先生答¹⁴⁹⁾曰：“二字，皆驚動之義. 但韻書，惕，敬也，悚，懼也.”

〔問人有專云云〕¹⁵⁰⁾ 批云：“敬·義有賓主·輕重.” ○李錄云：“問：‘正衣冠·一思慮·莊整齊肅·不欺不慢，此四者之中，何屬於動，何屬於靜耶? 動靜循環之功，安有不該之理乎? 而況聖賢示人爲學之方，莫大於敬之一字，而其爲說多端. 謝之惺惺，朱之畏近，伊川之主一無適·整齊嚴肅，和靖之其心收斂不容一物之教，何

144) 也：《質疑》에는 없다.

145) 本源：《質疑》에는 ‘本原’으로 되어 있으며, 아래 ‘涵養’과 함께 ‘惕然悚然’ 뒤에 편성되어 있다. 今案：《心經附註》본문의 순서에 따르면 《質疑》의 편성 순서가 옳을 듯하다.

146) 本源：《質疑》에는 ‘本原’으로 되어 있다.

147) 先生批云：《質疑》에는 없다.

148) 義：《質疑》에는 ‘意’로 되어 있다.

149) 先生答：《質疑》에는 없다.

150) 問人有專云云：《質疑》에는 ‘問人有專務’로 되어 있고, 설명은 ‘見原集.’으로 되어 있다. 李錄의 내용은 《艮齋集》 권5 〈溪山記善錄〉上에도 보인다.

者當先，何者當後？如何而用力，亦如何而有得耶？向在都中，李君 斐彦言於人曰：“爲學之初，當以惺惺工夫爲務。”弘則不然，曰：“若已用力於學，而有得於心者，則無有如此之好且切者矣。然如以不定之心，徑用力於此，則吾恐未必真能惺惺，而反覺心慮惹忽，漸入於幽昧之域矣。愚計以爲莫若先用力於靜坐工夫，此程門第一義也。”斐彦非之曰：“君熟於耳，生於手，故有如是之言。”此說何歟¹⁵¹⁾？答曰：‘詢及諸說，皆非愚見所逮。請且各據其本說以明之。其正衣冠一段，本朱子〈答方耕道書〉中語也。其上文有曰：“願更於日用動靜語默之間，自立規程，深務涵養，要以變化氣質爲功。若程夫子所謂敬字，亦不過曰‘正衣冠·一思慮·莊整齊肅·不欺不慢’而已。”今詳垂問之意，欲知於此可以分動靜與否。夫爲學者，立日用規模之語，固當動靜兼舉，不應有所遺闕，使之偏著一邊工夫也。蓋其曰‘正衣冠’·曰‘莊整齊肅’，是以靜言。然而動時，衣冠豈可不正，容止·事物，豈可不莊整齊肅乎？曰‘一思慮’·曰‘不欺不慢’，是以動言。然而靜時，此心尤不可不主於一，本原之地，又豈有¹⁵²⁾一毫欺慢乎？故朱子又嘗

151) 何歟：《艮齋集》에는 ‘何如’로 되어 있다.

曰：“心體通有無，貫動靜，故工夫亦通有無，貫動靜，方無透漏”，正謂此也。至若所學四先生言敬之異，各是發明一理，皆不可闕。如朱子〈敬齋箴〉，動靜表裏，主一無適，備舉而言之，安有取舍於其間哉？而用力之要，則亦當各從其語旨義之所在，反覆研味，而實體行之，恐又不當別求他方便也。若欲就此，求其所當先者，則意亦切矣。先生嘗〈答何叔京書〉，略曰：“持敬尤須就視・聽・言・動，容貌・辭氣上做工夫。蓋人心無形，出入不定，須就規矩・繩墨上守定，便自內外帖然。誠能莊整齊肅，則放僻邪侈，決知其無所容矣。此日用工夫至要約處。”於此驗之，則知內外未始相離，而所謂莊整齊肅者，正所以存其心也。某竊謂四先生言敬之中，程子整齊嚴肅一段，即朱子此書之意所從出，始學之所當先，莫切於此。由此而入，至於力久功深而有得焉，則所謂“三方入處，皆在其中”者，始信其不我欺矣。公與李斐彥所爭二說，固皆先儒格言。然觀其各據，一方堅執務勝之意，恐未免同歸於一偏之弊也。何者？靜中工夫，一蹉則墮落於禪學巢窟中故也。何如何如¹⁵²⁾?”

152) 有：《艮齋集》에는 앞에 ‘容’이 있다.

153) 何如何如：《艮齋集》에는 ‘何如’로 되어 있다.

6 〈懲忿窒慾章〉

〈附註〉

【第能_{【止】}過半矣】 李錄云：“張子與明道書云‘定性情，則¹⁾不²⁾能無思慮³⁾，猶牽於外物’云云。故⁴⁾明道答書之末，以此明之。蓋人之怒，必外觸逆境而發，然怒時，忘怒而觀理，則理爲之主。【理無內外，無將迎。】⁵⁾理主而氣平，則彼觸怒之外誘，亦不足惡，而吾之思慮，其於道亦過半矣。”

【伊川先生】⁶⁾批云：“伊川上，當有圈。”

【思叔_{【止】}深恥】⁷⁾ 思叔之問，主厚爲保生養氣而言，如今人以藥物護生。先生答以忘生徇慾云者，主理而兼養氣。默然者，深思而答，蓋以思叔之問爲非故也。○
《一統志》 曰：“張繹，河南壽安人。少家貧，發憤力

1) 情則：《質疑》에는 없다.

2) 不：《質疑》에는 ‘末’로 되어 있다.

3) 思慮：《質疑》에는 ‘動’으로 되어 있다.

4) 云云故：《質疑》에는 없다.

5) 理無內外，無將迎：《質疑》에는 없다.

6) 伊川先生：《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7) 思叔_{【止】}深恥：《質疑》에는 ‘忘生_{【止】}深恥’로 되어 있다.

學，遂以文名。會伊川自涪州還，遂往受業。伊川稱其穎悟卓偉。又曰“吾晚得二士”，謂繹與尹焞也。”⁸⁾

【氣感【止】可制】以文勢觀之，似怒也。然以七情一⁹⁾有不中者看，尤有味。

【自是【止】起來】¹⁰⁾ 즈연히 이 이러트시 突兀히 來호느니.

【氣湧如山】李錄云：“라호니. 孫權之言止此.¹¹⁾ 魏遼東太守公孫淵，奉表稱臣於吳。孫權大悅，遣張彌·許晏，封淵爲燕王，淵斬彌·晏獻于魏。權聞之大怒曰：‘朕年六十，世事難易，靡所不嘗，近爲鼠子所前却，令人氣湧如山.’¹²⁾”

【解污染人】¹³⁾ 人乙 汙染케 호느니. ○批云：“解字，難形言。只認取能然之意。”

【伯恭】¹⁴⁾ 呂祖謙字也。號東萊先生。

8) 一統志……尹焞：《質疑》에는 해당 내용이 ‘張思叔’이라는 제목의 별도 조목으로 ‘忘生【止】深恥’ 앞에 편성되어 있다. 본문은 ‘《一統志》，名繹. 河南壽安人. 少家貧，發憤力學. 伊川自涪州還，往受業. 伊川稱其穎悟卓偉. 又曰“吾晚得二士”，謂繹與尹彥明也.’으로, 《講錄》과 일부 다르다.

9) 一：《質疑》에는 없다.

10) 自是【止】起來：《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1) 李錄云……止此：《質疑》에는 없다.

12) 魏遼東……如山：《講錄》에는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13) 解污染人：《質疑》에는 ‘解’라고만 하였고, 설명도 ‘認取能然之意’라고만 하였다.

14) 伯恭：《質疑》에는 ‘呂伯恭’으로 되어 있고, 설명은 ‘名祖謙，號東萊，居婺州，仕至祕書

《家事》¹⁵⁾ 李錄云：“漢語，謂‘家’音‘가’，卽今俗所謂器物爲‘가스’。然疑家如字，家事，泛言一家事也。”

省著作. 諡成公. 見《言行錄》. '이라고 하였다.

15) 家事 : 《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漢語, 家, 音가, 家事, 如俗言器物爲家事.'로 되어 있다.

7 〈遷善改過章〉

〔益卦〕¹⁾ 震下雷，巽上風. 風雷相資以生勢.

〈本註〉

〔新安〕²⁾ 批云：“王氏，名炎.”

〈附註〉

〔不覺有喜心〕³⁾ 不覺間에 喜心이 이시니.

〔隨寓〕 批云⁴⁾：“寓，或云：‘恐⁵⁾遇字.’ 《近思錄》亦作寓.⁶⁾ 隨寓，是也.⁷⁾”

〔在學者〕 問：“在字釋，當在勉也後否?” 批云：“當在力字下. 謂克治之力 旣 이셔 더욱.⁸⁾”

1) 益卦：《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2) 新安：《質疑》에는 ‘新安王氏’로 되어 있고, 설명은 ‘名炎, 字晦叔, 號雙溪. 朱門人.’으로 되어 있다.

3) 不覺有喜心：《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4) 批云：《質疑》에는 없다.

5) 或云恐：《質疑》에는 ‘恐是’로 되어 있다.

6) 亦作寓：《質疑》에는 ‘亦作遇’로 되어 있다.

7) 隨寓是也.：《質疑》에는 없다.

【不成】⁹⁾ 批云：“當云：‘其事不至爲如此也。’”

【上蔡】¹⁰⁾ 見上.

【矜】¹¹⁾ 李錄云：“矜，驕高自伐之謂. 問：‘病痛之所以盡乎此一字，如何?’ 答曰，‘矜驕之病，出於私意之積盛，故云然耳.’”

【點檢】 李錄云：“猶言考察也.”

【點頭】 李錄云：“只¹²⁾動頭示許，謂之點頭.¹³⁾ 恐無別他義.¹⁴⁾”

【近思】 以類而推.

【滌淡】 李錄云：滌，訓¹⁵⁾流洗也. 洗則淡矣. 但流字義未詳. 滌，合¹⁶⁾，平聲.¹⁷⁾

【遷善改過】¹⁸⁾ 李錄云：“己未有過，見人有善而從之，謂之遷善；己有過失，而懲艾改過之謂改過.¹⁹⁾”

8) 謂克治之力……더욱 : 《質疑》에는 없다.

9) 不成 :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0) 上蔡 :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1) 矜 :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2) 只 : 《質疑》에는 없다.

13) 謂之點頭 : 《質疑》에는 ‘之謂’로 되어 있다.

14) 恐無別他義 : 《質疑》에는 없다.

15) 訓 : 《質疑》에는 없다.

16) 但流字……滌合 : 《質疑》에는 없다.

17) 平聲 : 《質疑》에는 앞의 ‘滌’ 다음에 있다.

18) 遷善改過 : 《質疑》에는 이 조목이 本註 부분 ‘新安王氏’ 다음에 편성되어 있다.

〔強〕 猶言加也.

19) 而懲艾……改過 : 《質疑》에는 ‘懲艾改行, 謂之改過.’로 되어 있다.

8 〈不遠復章〉

【復卦】 震下坤上¹⁾，五陰下一陽生．於時屬冬至夜半一陽初生也，在人則由不善而復於善也．

【初九】²⁾ 周公爻辭言也．

【庶幾】 庶幾於聖人地位也．

〈附註〉

【大率】 大概也.³⁾

【曾子】⁴⁾ 言顏子事，而及於曾子者，雖曾子得道統，氣像⁵⁾不及於⁶⁾顏子，故只⁷⁾以三省緊約束也．【束，檢束也.⁸⁾】

【神】⁹⁾ 造化之神．○問：“神之有聰明處，可得聞耶¹⁰⁾?” 批云¹¹⁾：“無聲無形，無不聞知，非聰明乎?”

1) 震下坤上：《質疑》에는 없다.

2) 初九：《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3) 也：《質疑》에는 ‘同’으로 되어 있다.

4) 曾子：《質疑》에는 ‘曾子【止】約束’으로 되어 있다.

5) 氣像：《質疑》에는 뒤에 ‘力量’이 있다.

6) 於：《質疑》에는 없다.

7) 只：《質疑》에는 없다.

8) 也：《質疑》에는 없다.

9) 神：《質疑》에는 ‘神之聰明’으로 되어 있다.

10) 耶：《質疑》에는 ‘歟’로 되어 있다.

【屏山】 韋齋臨卒，托妻子於屏山之兄劉¹²⁾子羽，告朱子曰，“屏山 劉子羽【字彥沖.】·白水 劉勉之【字致仲，即晦翁之外舅也.】·籍溪 胡原仲【名憲】¹³⁾三人，吾友也. 汝往事之，唯其言之聽，吾死不恨矣.¹⁴⁾”故朱子侍疾於屏山.¹⁵⁾ ○痛¹⁶⁾憤¹⁷⁾父死金虜，廬墓三年，執喪致羸疾. 服除，授通判興化軍，以不堪吏事，辭歸武夷山. 妻死不再娶，事母兄盡孝友，講學不倦，學者多從之遊. 號屏山先生.¹⁸⁾ 崇安人.¹⁹⁾【出《一統志》也.】²⁰⁾

【符】 凡移文謂之符. 得符則依文奉行，不敢違慢. 故此以謂之符，猶關到即行之謂.²¹⁾ ○李錄云：“符以行²²⁾，竹片書字中分，一留京師，一與守令，將發兵則遣使合符，乃聽之，乃有信而奉行之義. 謂以三字爲信，而奉行之，不敢違也. 東坡謫屏²³⁾，與人書云：‘生

11) 批云：《質疑》에는 ‘되’로 되어 있다.

12) 劉：《質疑》에는 없다.

13) 劉子羽……名憲：《質疑》에는 ‘屏山劉彥沖·白水劉致仲·籍溪胡原仲’으로 되어 있다.

14) 矣：《質疑》에는 뒤에 ‘云’이 있다.

15) 韋齋……屏山：《質疑》에는 뒷 단락의 아래에 편집되어 있다.

16) 通：《質疑》에는 앞에 ‘姓劉，名子暈，字彥沖. 崇安人.’이 있다.

17) 憤：《質疑》에는 없다.

18) 先生：《質疑》에는 없다.

19) 崇安人：《質疑》에는 없다.

20) 出一統志也：《質疑》에는 ‘也’가 없고, 본문으로 편집되어 있다.

21) 凡移文……之謂：《質疑》에는 없다.

22) 符以行：《質疑》에는 ‘以’로 되어 있다.

老病死，符到便行.’”

【雖不知】²⁴⁾ 批云：“雖，當作殊。”

【只爲是不曾知】 오직 이 일즉 아디 몬호믈 爲ᄃᆞ예니라.²⁵⁾ 爲，去聲。《韻會》，訓被也。²⁶⁾ 只爲是不曾知這道理也

【心過尤難防】²⁷⁾ 李錄云：“以心過爲一念之差，固當。然推而言之，如《大學》之‘自欺’·‘莫知’·‘四者²⁸⁾’·‘五僻’，《論語》之‘意’·‘必’·‘固’·‘我’，《孟子》之‘內交²⁹⁾’·‘要譽’·‘惡其聲’之類，皆是心過。當一一檢治。”

【如分桐葉】³⁰⁾ 李錄云：“分桐葉，用成王封叔虞語。然非取其事，但用其語，以言一斷不可復續之意耳。”

【德以凝道】³¹⁾ 躬行心得之餘，德으로ᄃᆞ 道를 凝聚호매 니르리니.

23) 謫屏：《質疑》에는 없다.

24) 雖不知：《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25) 오직……爲ᄃᆞ예니라：《質疑》에는 없다.

26) 也：《質疑》에는 없다.

27) 心過尤難防：《質疑》에는 ‘心過難防’으로 되어 있다.

28) 四者：《質疑》에는 ‘四有’로 되어 있다.

29) 內交：《質疑》에는 ‘納交’로 되어 있다.

30) 如分桐葉：《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31) 德以凝道：《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9 〈子絕四章〉

【意必固我】 譬猶一種之人，欲取某物者，意也；期欲得之者，必也；固其期得之心者，固也；終乃得之爲私，是乃我也.

〈附註〉

【安排布置】¹⁾ 李錄云：“布置，배치놀타. 蓋不循義理之自然，而以私意計較，多方措置也.” ○批云：“安排，安，是²⁾安頓之安；排，排布也.³⁾ 安頓·排布，皆用意措置之謂.⁴⁾”

【少間】⁵⁾ 이윅고.

【勿軒】⁶⁾ 名禾，字去非. 元人. 隱於武夷山. 自號其居，曰‘鰲峯書堂’. 以道學自任，多所論⁷⁾述. 但所著

1) 安排布置：《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見原集.’으로 되어 있다. 설명 중 ‘安是安頓之安……措置之謂’라고 한 부분은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9)에 보인다.

2) 是：《艮齋集》에는 없다.

3) 也：《艮齋集》에는 없다.

4) 謂：《艮齋集》에는 뒤에 ‘也’가 있다.

5) 少間：《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6) 勿軒：《質疑》에는 ‘勿軒熊氏’로 되어 있다.

7) 論： 今案：《講錄》에는 뒤에 ‘間, 스치라’가 있으나, 아마도 앞에 ‘少間’에 대한 설명이

心經講錄合編 第一篇

《翰墨全書》，亦載《釋教》一卷.⁸⁾ 其他亦多雜冗，恐其學未醇也.

여기에 잘못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8) 一卷 : 《質疑》에는 없다.

10 〈顏淵問仁章〉¹⁾

【天下歸仁】向來²⁾諸儒，皆云‘天下皆歸於吾仁’，程子以爲不可。而其門人浙中 王蘋 信伯，專教人以天下歸仁，才見人，便說天下歸仁，更不說克己復禮。朱子嘗嘆其親見伊川，後來沒³⁾教作怪。○釋云：“天下이仁을歸호느니.”⁴⁾

【勿動】⁵⁾ 動，舉心身手足而言。故曰：“誠之於思，守之於爲。”出李錄。

〈本註〉

【楊子】是揚子雲之語也，當从才。⁶⁾ 《語類》有張敬夫不與此語并入石刻，朱子嘆惜之辭。⁷⁾ ○揚雄⁸⁾，成都人。少好學，博極群書，口吃不能劇音⁹⁾，而好沈

1) 顏淵問仁章：《講錄》에는 ‘問仁章’으로 되어 있으나《質疑》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2) 向來：《質疑》에는 앞에 ‘歸, 猶許也.’가 있다.

3) 沒：《質疑》에는 ‘說’로 되어 있다.

4) ○釋云……歸호느니.”：《質疑》에는 없다.

5) 勿動：《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6) 是楊……从才：《質疑》에는 없다.

7) 語類……之辭：《質疑》에는 ‘楊子’ 조목 끝에 ‘○’ 아래에 기록하였다.

8) ○揚雄：《質疑》에는 ‘名雄’으로 되어 있다.

思。成帝時，爲郎給事黃門，嘗¹⁰⁾奏〈甘泉〉・〈河東〉・〈較獵〉・〈長楊〉四賦，又著《法言》及《太玄經》等書。出《一統志》。

〈附註〉

【第一條】¹¹⁾ 伊川¹²⁾，年十八，在太學，當時大儒胡瑗爲學官，命題顏子所好何學論。伊川乃述此文。○程子¹³⁾竟不就科。

【儲精】¹⁴⁾ 李錄云：“精卽〈太極圖說〉所謂‘二五之精’。此獨言精者，言精而無極之眞在其中故也。○儲精，卽所謂‘妙合而凝’之象。”

【其本也眞而靜】¹⁵⁾ 李錄云：“朱子曰：‘本，本體也。眞是不雜人僞，靜是未感物時。五性卽是眞，未發便是靜。’”

9) 音：《質疑》에는 ‘談’으로 되어 있다. 今案: ‘談’이 옳을 듯하다.

10) 嘗：《質疑》에는 없다.

11) 第一條：《質疑》에는 ‘伊川先生曰條’로 되어 있다.

12) 伊川：《質疑》에는 뒤에 ‘先生’이 있다.

13) ○程子：《質疑》에는 없다.

14) 儲精：《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5) 其本也眞而靜：《質疑》에는 ‘其本【止】而靜’으로 되어 있다.

【七情】 李錄云：“問：‘〈好學論〉，不言四端而只¹⁶⁾言七情，如何?’ 答¹⁷⁾曰：‘此渾淪之言，七¹⁸⁾而四在其中.’”

【樂】¹⁹⁾ 問：“《中庸》言喜怒哀樂而不言喜怒哀懼者，何耶?” 答曰：“子思作《中庸》，言喜怒哀樂而遺懼，不知如何。故《禮記》始言喜怒哀懼愛惡欲而七情備。”

【鑿】²⁰⁾ 鑿，𤔵也。情之鑿去其性，猶鑿之鑿物。

【約其情^[止]至焉】 李錄云：“明諸心知所往，窮理之事；正心·養性，踐履之事。合中之中，使中於節，則便是中也。²¹⁾”

【守】 一意持守。

【化】 無所勉強，而自能中節。

【禮儀】 冠·昏·喪·祭·大射禮·鄉飲酒之類。

【威儀】 進·退·升·降·拜·伏之類。○言²²⁾三千·三百

16) 只：《質疑》에는 없다.

17) 答：《質疑》에는 없다.

18) 七：《質疑》에는 앞에 ‘言’이 있다.

19) 樂：《質疑》에는 없다.

20) 鑿：《質疑》에는 없다.

21) 合中……是中也：《質疑》에는 없다.

22) ○言：《質疑》에는 없다.

者²³⁾，數未必至此也²⁴⁾，總言其曲節²⁵⁾多也。

【昊天曰【止】爾游衍】²⁶⁾ 出〈大雅·板〉篇。王，與徂²⁷⁾同。旦²⁸⁾，批云²⁹⁾：“明也。”日出之時爲明也。游衍，批云：“遊樂之意。”³⁰⁾ ○問：“此段，上面言天次言仁，而後面言仁後言天者，互言之³¹⁾以極發明否？”先生³²⁾批云：“是。”³³⁾

【事事【止】出來】 李錄云：“問：‘事事各一其理，而不相假借，不相增益也。今³⁴⁾自仁做出來云云者³⁵⁾，如何？’答云³⁶⁾：‘理固不相假借。然做這一事而心若不在，則不得成就這個事。《大學》之“視不見·聽不聞”，《中庸》之“不誠無物”者³⁷⁾，皆此之謂也。心存則仁，

23) 者：《質疑》에는 없다.

24) 數未必至此也：《質疑》에는 없다.

25) 節：《質疑》에는 ‘折’로 되어 있다.

26) 昊天曰【止】爾游衍：《質疑》에는 ‘昊天【止】游衍’으로 되어 있다.

27) 徂：《質疑》에는 ‘往’으로 되어 있다.

28) 旦：《質疑》에는 ‘朝’로 되어 있다.

29) 批云：《質疑》에는 없다.

30) 游衍……之意：《質疑》에는 없다.

31) 之：《質疑》에는 없다.

32) 先生：《質疑》에는 없다.

33) ○問……批云是：《質疑》에는 이 조목 앞에 ‘張子曰一段’이라는 제목으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34) 今：《質疑》에는 다음에 ‘云’이 있다.

35) 云云者：《質疑》에는 없다.

36) 答云：《質疑》에는 ‘曰’로 되어 있다.

不存則不仁. 若不仁, 則如何而誠³⁸⁾, 亦³⁹⁾如何而有物乎?”

【做他那骨子】 李錄云: “他那더에 骨子웃듬、 做도이 ㄸ.”⁴⁰⁾

【莫是】⁴¹⁾ 李錄: “아니. 疑辭.”

【祗】⁴²⁾ 오직.

【將赤心【止】說與人】⁴³⁾ 李錄云: “未詳.⁴⁴⁾ 疑⁴⁵⁾盡其心 ㄴ 也 片片尸 說與人.”⁴⁶⁾ ○片片, 猶조갯조갯. 批云: “亦猶낫낫.” 李錄云: “여즈막여즈막.”⁴⁷⁾

【荀揚⁴⁸⁾何曾有此】 李錄云: “問: ‘於此特舉二子, 證張子之說者⁴⁹⁾, 如何?’ 曰: ‘漢·唐人皆以荀·揚⁵⁰⁾繼

37) 者: 《質疑》에는 없다.

38) 誠: 《質疑》에는 ‘視聽’으로 되어 있다.

39) 亦: 《質疑》에는 없다.

40) 李錄云……도이 ㄸ: 《質疑》에는 없고, 대신 ‘他那, 彼也. 做他那骨子, 猶《易》所謂幹事.’ 라는 설명이 있다.

41) 莫是: 《質疑》에는 없다.

42) 祗: 《質疑》에는 없다.

43) 將赤心【止】說與人: 《質疑》에는 ‘赤心【止】與人’으로 되어 있다.

44) 李錄云 未詳: 《質疑》에는 없다.

45) 疑: 《質疑》에는 없다.

46) 未詳……說與人: 《質疑》에는 ‘盡其心, 說與人.’으로 되어 있다.

47) 片片猶……여즈막: 《質疑》에는 없다.

48) 揚: 《質疑》에는 ‘楊’으로 되어 있다.

49) 證張子之說者: 《質疑》에는 없다.

50) 揚: 《質疑》에는 ‘楊’으로 되어 있다.

孔·孟云爾，故特舉二子，以明非徒不得繼孔·孟，亦未若張子之言約而理備，以嗣千載之絕學也。”

〔且〕⁵¹⁾ 아직.

〔一副當〕 李錄云：“語辭．其象未詳．以文勢觀之，則恐云 헛가지.⁵²⁾ ○吏文．凡物一件，謂之一副．”

〔延蔓之〔止〕將上去〕⁵³⁾ ‘譬之’下，恐脫‘被’字．當吐曰：‘物_ㄴ，去_ㅂ.’⁵⁴⁾ ○李錄云：“某亦尋常有疑於此言．以上文及其下‘能除去世習，自然脫灑’等語觀之，似⁵⁵⁾以延蔓之物比⁵⁶⁾世習，言學者被世習纏繞．若能學禮而除去世習纏繞，則⁵⁷⁾自然脫洒長進，猶草木被延蔓之物纏繞，若有人⁵⁸⁾解去蔓物，則即自然長大上去也．然則當讀曰：‘延蔓之物을 解纏繞_ㅎ면 將上去，可也.’但上無草木字，又無被字，而其下只云‘將上去’，文理甚不穩當.⁵⁹⁾” ○咸亨問：“與咸亨所錄不同，如

51) 且：《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52) 李錄云 語辭……헛가지：《質疑》에는 없다.

53) 延蔓之〔止〕將上去：《質疑》에는 ‘延蔓〔止〕上去’로 되어 있다.

54) 當吐……去_ㅂ：《質疑》에는 없다.

55) 李錄云……之似：《質疑》에는 없다.

56) 比：《質疑》에는 ‘譬’로 되어 있다.

57) 則：《質疑》에는 없다.

58) 若有人：《質疑》에는 없다.

59) 然則當……不穩當：《質疑》에는 없다.

何?” 批云: “公所錄不記, 何說與此不同?”【金日⁶⁰⁾竊考, 所謂‘不同’, 似指‘物々’・‘物乙’之吐.】⁶¹⁾

【紅爐上點一點雪】⁶²⁾ 李錄云: “此本禪語, 而先生借明之也.⁶³⁾”

【受用】 李錄云: “受着於己, 而爲所用也. 今佛家多用之.”

【問尋常遇事】 批云⁶⁴⁾: “此沈莊仲問. 沈⁶⁵⁾莊仲, 名儻. 朱門人.”

【這樣【止】方得】⁶⁶⁾ 이樣處을 極히 보되 他닐 當히 여 打疊하야 뵈아흐로 得히리라. ○與, 猶當也. 後凡言如此文勢處, 亦當倣此看去.⁶⁷⁾

【說文】 東漢 許慎所著.

【箕子陳洪範】⁶⁸⁾ 箕子陳九疇, 先五行, 次及五事.

60) 金日: 今案: ‘今日’을 잘못 쓴 것일 가능성이 있다.

61) 咸亨問……之吐: 《質疑》에는 없다.

62) 紅爐上點一點雪: 《質疑》에는 ‘紅爐【止】點雪’로 되어 있다.

63) 也: 《質疑》에는 없다.

64) 批云: 《質疑》에는 없다.

65) 沈: 《質疑》에는 없고, 대신 ‘○’이 있다.

66) 這樣【止】方得: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67) 與猶當也……此看去: 《質疑》에는 이 부분이 ‘要與’라는 제목 아래에 별도의 조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설명도 ‘與, 猶當也. 後凡言如此文勢, 亦倣此.’라고 하여, 《講錄》과 약간 차이가 있다.

68) 箕子陳洪範: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箕子‘思’字，西山‘心’字，皆以用言。

【天地之中】⁶⁹⁾ 《書·湯誥》：“惟皇上帝，降衷于下民。”

【益】⁷⁰⁾ 批云：“士敬疑益爲蓋字。”○後日云：“然更詳之，則益字意味無窮。”⁷¹⁾ ○咸亨謹按⁷²⁾：“《論語或問》，此條上下有文，而篁墩裁節成文者也。⁷³⁾ 益字爲是，故敢稟。”批云：“當從之。”⁷⁴⁾

【毫忽】 蠶之吐絲，其細無比。一蠶爲忽，十忽爲絲，十絲爲毫，十毫爲釐，十釐爲分，十分爲寸。

【本末】 首末也。非有先後之分。⁷⁵⁾

【蘊】⁷⁶⁾ 中藏之謂。

【孔子之【止】人心】⁷⁷⁾ 咸亨謹按：“西山說‘孔子所謂已，卽舜之所謂人心’云云，愚以爲不然。⁷⁸⁾ 朱子⁷⁹⁾既

69) 天地之中：《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70) 益：《質疑》에는 ‘說文’ 조목 아래에 있는데, 내용이 조금 다르다.

71) 批云……無窮：《質疑》에는 ‘問：士敬疑益字爲蓋。曰，益字意味無窮.’으로 되어 있다.

72) 咸亨謹按：《質疑》에는 없다.

73) 者也：《質疑》에는 없다.

74) 故敢稟……當從之：《質疑》에는 없다.

75) 非有先後之分：《質疑》에는 없다.

76) 蘊：《質疑》에는 없다.

77) 孔子之【止】人心：《質疑》에는 ‘孔子【止】人心’으로 되어 있다.

78) 咸亨謹按……爲不然：《質疑》에는 없다.

79) 朱子：《質疑》에는 앞에 ‘問’이 있다.

云‘人心非人欲，人所不一中無者，而但能加精一之功而不爲所雜.⁸⁰⁾’又云‘己者，人欲之私也’，而西山不從此等說，而以己爲人心，亦當克去也。其爲說，亦不謬乎!⁸¹⁾然西山豈無所見而妄說耶？請聞其義.⁸²⁾”先生答云⁸³⁾：“西山之說，與程子及朱子初說同矣.⁸⁴⁾似不可全以爲非。然朱子〈中庸序〉，乃晚年定說⁸⁵⁾，西山不從定說⁸⁶⁾，而⁸⁷⁾從初說，此不可曉耳。”

80) 人所不……爲所雜：《質疑》에는 ‘人所不能無者’로 되어 있다.

81) 而西山……亦不謬乎：《質疑》에는 ‘而西山以己爲人心，不亦謬乎’로 되어 있다.

82) 然西山……請聞其義：《質疑》에는 없다.

83) 先生答云：《質疑》에는 ‘答曰’로 되어 있다.

84) 矣：《質疑》에는 없다.

85) 說：《質疑》에는 ‘論’으로 되어 있다.

86) 說：《質疑》에는 ‘論’으로 되어 있다.

87) 而：《質疑》에는 없다.

11 〈仲弓問仁章〉

【在邦【止】無怨】¹⁾ 敬·恕能²⁾得其道，則彼此相接之際，私意無所容。故在邦·在家，皆無怨。

〈附註〉

【便須】‘須’，釋曰必。後倣³⁾此。

【儼若思】 《禮記·曲禮》第一語。⁴⁾ 儼然ッ也 思ッ飛 ㄷ시.⁵⁾

【東嘉說條】⁶⁾ 批云：“史氏說⁷⁾，‘然此’之‘此’，恐‘而’字之誤。且⁸⁾此說似非程夫子⁹⁾本意，更詳之。”○又曰：“見大賓，承大祭，程子謂：‘看此如賓·如祭氣象¹⁰⁾，便是已成就底人，和順積中，英華發外，晬面盎背，從容

1) 在邦【止】怨：《質疑》에는 ‘在邦【止】無怨’으로 되어 있다.

2) 能：《質疑》에는 없다.

3) 倣：《質疑》에는 ‘放’으로 되어 있다.

4) 第一語：《質疑》에는 ‘篇首語’로 되어 있다.

5) 儼然ッ也……ㄷ시：《質疑》에는 없다.

6) 東嘉說條：《質疑》에는 ‘東嘉史氏條’로 되어 있다.

7) 批云史氏說：《質疑》에는 없다.

8) 且：《質疑》에는 뒤에 ‘史氏’가 있다.

9) 程夫子：《質疑》에는 ‘程子’로 되어 있다.

10) 象：《質疑》에는 ‘像’으로 되어 있다.

中道者也，非初學所能遽及。惟慎獨，乃是守之之法，能守此法，則後日其效自然如此云云.’而史氏謂‘外雖如此，內不致謹，特象恭·色莊云云¹¹⁾’，大失程子本旨也。¹²⁾”○《一統志》曰¹³⁾：“史伯璿，平陽人。精究四書，得朱子之旨。所著有《四書管窺》及《外篇》，行世。”¹⁴⁾

【象恭】¹⁵⁾ 《書》謂：“共工也，色乙 又恭，ふ”

【色莊】 《論語》之辭。¹⁶⁾

【張子韶】¹⁷⁾ 名九成，開封人。登紹興三年壯元及第。夙學天成。後謫居，自號橫浦居士。諡文忠公云。然其學溺於禪，不悟。【出《一統志》】。

【問克己復禮一段考證】¹⁸⁾ 先生嘗有批云：“嘗見朱子答朱飛卿處，有‘顏子未免有些私意，須一向克除教

11) 云云：《質疑》에는 없다.

12) 也：《質疑》에는 없다.

13) 曰：《質疑》에는 없다.

14) 一統志……外篇行世：《質疑》에는 ‘東嘉史氏條’(東嘉說條) 바로 아래, ‘○然此之此’ 앞에 있다.

15) 象恭：《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書·堯典》中語.’로 되어 있다.

16) 之辭：《質疑》에는 ‘中語’로 되어 있다.

17) 張子韶：《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名九成. 錢塘人. 自號橫浦居士, 一曰無垢. 八歲誦六經, 夙學天成. 登紹興元年壯元及第. 官至禮部侍郎. 諡文忠. 初從龜山學, 後與徑山主僧宗杲, 爲莫逆交. 其學溺於禪, 不悟.’로 되어 있다.

18) 問克己復禮一段考證：《質疑》에는 ‘問克己復禮’로 되어 있다.

盡’之語。以此爲證，疑教字下脫一盡字。更按《語類》則不然。¹⁹⁾ 此條²⁰⁾乃篁墩合朱子說數段，裁節成文。‘公看’以下，曾祖道所錄，‘譬如賊²¹⁾來’以下，董銖所錄。又‘克己’以下，合萬人傑·曾祖道錄，而多增損。²²⁾ 其董錄云云，他力量、大、²³⁾ 聖人便教他索性先²⁴⁾去。比²⁵⁾如賊²⁶⁾來，顏子是進步與之廝殺，教仲弓以敬恕，是教他堅壁清野，裁斷路頭，不教賊²⁷⁾來。詳此‘教仲弓云云’，則²⁸⁾顏子之進步廝殺，亦蒙上文‘教他’語看²⁹⁾，乃夫子教受³⁰⁾然也。篁墩於顏子，既去‘教他’以下數³¹⁾語，於仲弓，又去‘以敬恕是教他’等語³²⁾，而獨存此‘教仲弓’一‘教’字，失其本意。所以使

19) 先生嘗有……則不然：《質疑》에는 없다.

20) 此條：《質疑》에는 앞에 ‘語類’가 있다.

21) 賊：《質疑》에는 ‘敵’으로 되어 있다.

22) 損：《質疑》에는 뒤에 ‘也’가 있다.

23) 力量、大、²³⁾：《質疑》에는 현토 없이 ‘力量大’로 되어 있다.

24) 先：《質疑》에는 ‘克’으로 되어 있다.

25) 比：《質疑》에는 ‘譬’로 되어 있다.

26) 賊：《質疑》에는 ‘敵’으로 되어 있다.

27) 賊：《質疑》에는 ‘敵’으로 되어 있다.

28) 則：《質疑》에는 뒤에 ‘教字當屬下句而’가 있다.

29) 看：《質疑》에는 없다.

30) 受：《質疑》에는 ‘使’로 되어 있다.

31) 數：《質疑》에는 없다.

32) 等語：《質疑》에는 ‘六字’로 되어 있다.

人難曉. 然則非‘教’下脫字, 乃其上下有闕文耳.³³⁾ ○
士敬疑‘教’字爲衍, 亦非也.³⁴⁾ ○一般, ‘復’, 《論語》
 作‘服’.³⁵⁾

【多少大】 언매나. ○《二程全書》, 언매나, 或云
 ‘大小大.’³⁶⁾

【循循】 有次序貌.

【廝】³⁷⁾ 서르. ○廝殺, 相殺也. 《語類》多用如此.

【淸野】 批云³⁸⁾: “掃淸田野, 使敵無取資而自退
 也.”³⁹⁾

【朱飛卿】⁴⁰⁾ 朱門人. 未詳其名居.

【曾祖道】 字擇之. 朱門高弟. ○先生批云: “所居無
 考, 觀問答之辭, 似是撫州人.

【董銖】 字叔重, 號盤澗. 朱門高弟. 饒州 德興人.

33) 然則非……闕文耳: 《質疑》에는 없다.

34) 亦非也: 《質疑》에는 뒤에 ‘○曾祖道, 字擇之. 董銖, 字叔重, 號盤澗. 萬人傑, 字正淳. 皆
朱門高弟.’가 더 있다. 해당 내용이 《講錄》에는 별도 조목으로 아래에 나온다.

35) ○一般……作服: 《質疑》에는 없다.

36) 언매나……或云大小大: 《質疑》에는 이 설명이 없고, ‘猶言幾許, 或云大小大.’로 되어 있
 다.

37) 廝: 《質疑》에는 이 조목은 없고, ‘淸野’ 조목 아래에, ‘廝殺’이라는 표제와 ‘相殺也.’
 라는 설명으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38) 批云: 《質疑》에는 없다.

39) 也: 《質疑》에는 없다.

40) 朱飛卿: 이 조목을 포함하여 아래 ‘篁墩’까지의 여러 조목들은《質疑》에는 없다.

登進士第，授金華縣尉。

《萬人傑》 字正淳。朱門高弟。興國人。興國，武昌別號。

《索性》⁴¹⁾ 마장. 或有無‘性’字，只下‘索’字處。

《篁墩》⁴²⁾ 篁，竹也。墩，阜也。意其所屋之地也，種竹于阜，而因以自號。

41) 索性：《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42) 篁墩：《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2 〈天命之謂性章〉

【率性之謂道(止)不可須臾離】¹⁾ 先生《中庸正釋》云：“率性之謂道，性_乙 率_홀슬 닐은.” 一云：“性_多 이 率_홀슬.” ○今按：“兩說皆是. 註，朱子曰：‘率性，非人率之也.’ 又曰：‘此率字不是用力字.’ 又曰：‘循字，非就行道人上說.’ 故‘性_多이’之說，雖似巧，實是.” ○“不可須臾離”²⁾，道_란거슨 臬도 離_호미 可_티 아니_ㅎ니. ○今按：“此說非. 當云：‘道_ㅍ 可_히 須臾도 離_티 몬_홀 거시니.’ 蓋此‘道’字，卽上文‘率性之道’，‘不可離’，非就行道人說. 若云‘離_乎未 可_티 아니타’，則是就行道人戒飭之辭，非本旨也.” 又批云：“‘可離非道’吐，一曰‘離_面’，一曰‘離_ㅍ’.” ○今按：“從本註‘若其可離則’及《或問》‘若其可以暫合暫離云云’，則當曰‘面’，若以《或問》下文小註藍田呂氏說‘道之

1) 率性之謂道【止】不可須臾離：〈質疑〉에는 ‘率性之謂道 ○道不可須臾離’로 되어 있다. 설명이 ‘并見庸錄.’으로 되어 있다. 해당 내용 중 ‘天命之謂性，體也，中也’云云한 부분은 《艮齋集》續集 권1 〈中庸質疑〉에도 보인다.

2) 不可須臾離：〈中庸質疑〉에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蓋此道字，卽上文率性之道，不可離，非就行道人說。若曰離此道不可云，則是就行道人戒飭之辭，非本旨也。若從本註及《或問》“若其可以暫離暫合”云云，則當釋曰，可離則非道也。若從《或問》下小註藍田呂氏說“道之在我，猶飲食居處之不可去，皆外物也”云，則當釋曰，可離者非道也。兩存其說可也.’

在我，猶飲食·居處之不可去，可去，皆外物也云’，則當曰‘尸’。兩存其吐，可也。”○‘天命之謂性’，體也，中也，隱也³⁾，即《大學》‘明德’。率性之謂道’，用也，和也，智也，費也，即《大學》‘明明德’。‘脩道之謂教’，亦用，亦和，亦智，亦費，即《大學》衍⁴⁾‘新民’。又云：“自強於三者，即《中庸》‘勇’。”又云：“性·道·教之理，即至善。”⁵⁾○今按：“此數說，今人皆謹守之無異辭。然謂性爲體，爲中，爲隱；謂道爲用，爲和，爲費；謂教亦爲用，亦爲費，則然矣。若智·仁·勇，子思所稱，乃是指知·行處言，安可強⁶⁾牽而附會於此乎？性不知檢其心，而仁則屬乎修行。然則配仁於性，非也。朱子曰‘率性，非就行道人說’，又曰‘率，非人率之也’⁷⁾，乃是人物各循自然之性之謂也。而智則屬乎知，乃擇乎中庸之事。然則配智於道，亦非也。至於以教爲智，雖與成物之智相近，然彼對成己之仁而言，與此意不同。而

3) 隱也：〈中庸質疑〉에는 앞에 ‘仁也’가 있다. **今案**：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마땅히 ‘仁也’가 있어야 할 듯하다.

4) 衍：〈中庸質疑〉에는 없다.

5) 又云自強於三者……即性至善：〈中庸質疑〉에는 ‘又云：性道教之理，即《大學》至善，自強於三者，即勇.’으로 되어 있다.

6) 強：〈中庸質疑〉에는 ‘并’으로 되어 있다.

7) 朱子曰率性……非人率之也：〈中庸質疑〉에는 ‘朱子曰：率性，非人率之也。又曰：此率字，不是用力字。又曰，循字，非就行道人說.’로 되어 있다.

三者皆非人修德行道之義，又安有不息爲勇之意⁸⁾乎？且以此三者，分配《大學》三綱領，尤無理。其謂性爲明德雖近，然性者人物所稟公共淵微⁹⁾之理，明德乃指人之所得虛昭該括¹⁰⁾之名，則理雖本同，而所以得名者，則不無少異。若率性，則非有明之之功，修道之教，又非新之之意。性·道·教之所以得名，皆平鋪地義理之名¹¹⁾，則與止¹²⁾至善無所不用其極者，義亦不同焉。○¹³⁾又以存養爲仁，省察爲智，自強於二者爲勇，此則似然矣。但子思本意，於此未有三達德意思耳。大抵義理本同一原¹⁴⁾，若取其依係相近者而說合之，則何所不合？第其名理言義，各有能與不能之分，又其所以立言本意，文義志趣，各有攸當，豪釐之微有同有異。¹⁵⁾今人必欲¹⁶⁾強其異者合而同之，是以愈鑿愈乖，紛拏晦蝕，而反失大義也。又以首三句爲天道，戒懼·慎獨

8) 意：〈中庸質疑〉에는 ‘義’로 되어 있다.

9) 淵微：〈中庸質疑〉에는 없다.

10) 該括：〈中庸質疑〉에는 ‘不昧’로 되어 있다.

11) 之名：〈中庸質疑〉에는 없다.

12) 止：〈中庸質疑〉에는 뒤에 ‘於’가 있다.

13) ○：〈中庸質疑〉에는 없다.

14) 原：〈中庸質疑〉에는 ‘源’으로 되어 있다.

15) 第其名理言義……有同有異：〈中庸質疑〉에는 ‘第其所以立言本意，文義旨趣，各有攸當.’으로 되어 있다.

16) 欲：〈中庸質疑〉에는 없다.

爲人道，於此亦不當分天道·人道也。”

〈本註〉

【獨者【止】地也】 批云¹⁷⁾：“中庸，己字下有所字。”

〈附註〉

【却】¹⁸⁾ ㄱ 乙 혀.

【且如】¹⁹⁾ 아 마 나.

【見【止】蟬】²⁰⁾ 批云²¹⁾：“蔡邕在陳留，鄰人以酒食召，邕往。客有彈琴於屏²²⁾，邕潛聽曰：‘有殺心，何也？’遂反。主人追問邕，以告彈琴者，曰：‘向鼓琴，見螳螂向鳴蟬，蟬將去而未飛，螳螂一前一却。吾心聳然²³⁾恐其²⁴⁾失也。’邕笑曰：‘此足以當之矣。’”

17) 批云：《質疑》에는 없다.

18) 却：《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9) 且如：《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20) 見【止】蟬：《質疑》에는 ‘見螳螂捕蟬’로 되어 있다.

21) 批云：《質疑》에는 없다.

22) 屏：《質疑》에는 뒤에 ‘間’이 있다.

23) 然：《質疑》에는 바로 뒤에 ‘猶’이 있다.

24) 其：《質疑》에는 없다.

【聞者】²⁵⁾ 批云：“聞者下，《遺書》及《中庸或問》，皆有以爲二字。”

【螳螂】²⁶⁾ 당의아지.²⁷⁾ 人有白子，使吮之，盡去.

【蔡邕】²⁸⁾ 陳留 圉人.²⁹⁾ 六世祖勳，平帝時，爲郿令. 莽³⁰⁾欲臣之，逃³¹⁾匿山中. 父稜有清白行，邕性至孝，同居三世. 仕爲議郎，較正³²⁾六經，親書於碑，置之大學門外. 及³³⁾爲王允所殺，縉紳諸儒莫不流涕.【出《一統志》.】³⁴⁾

【楊震】 批云：“楊震四知，見史.”³⁵⁾ ○楊震³⁶⁾，華陰人，八世祖喜，高帝時，赤泉侯. 震明經博覽，諸儒語曰‘關西夫子’. 楊伯起³⁷⁾，年五十，始仕歷郡守，安

25) 聞者：《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26) 螳螂：《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고, 그 내용이 ‘見【止】蟬’ 조목의 일부로 편성되어 있다.

27) 당의아지：《質疑》에는 ‘蟲名. 당귀아비.’로 되어 있다.

28) 蔡邕：《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고, 그 내용이 ‘見【止】蟬’ 조목의 일부로 편성되어 있다.

29) 陳留圉人：《質疑》에는 앞에 ‘○一統志, 蔡邕’이 있다.

30) 莽：《質疑》에는 ‘王莽’으로 되어 있다.

31) 逃：《質疑》에는 ‘遁’으로 되어 있다.

32) 較正：《質疑》에는 ‘校正’으로 되어 있다.

33) 及：《質疑》에는 ‘後’로 되어 있다.

34) 出一統志：《質疑》에는 없다.

35) 批云……見史：《質疑》에는 없다.

36) ○楊震：《質疑》에는 없다.

37) 楊伯起：《質疑》에는 뒤에 小註 ‘震字’가 있다.

帝時，拜太尉。居官清白，以四知，却所饋金。或勸殖產業，震曰：“使後稱清白吏子孫，不亦可乎？”

《就見知處言》³⁸⁾ 批云³⁹⁾：“見知，言已見知於人也。就見知處言，謂以己心爲人所知處言也。”⁴⁰⁾

《蘇楊氏所說》⁴¹⁾ 蘇昞·楊時之⁴²⁾說，見《中庸或問》。
《先生》指朱子也。

《曰兩事》 批云⁴³⁾：“‘曰’上，當有朱子二字。”

《己既知【止】一個知》 李錄云：“問：‘程子曰“人與我固分得”，然⁴⁴⁾而朱子答或說，曰：“己既知則人必知之，故程子曰‘天地之知，只是一個知。’” 程·朱此說，似有相妨⁴⁵⁾，何如？’曰：‘如是處，當着活法看，不可拘滯。程⁴⁶⁾以事言，朱⁴⁷⁾以理言。然則⁴⁸⁾豈有相妨乎？’又問【德弘】⁴⁹⁾：‘於⁵⁰⁾天知·神知·上帝·鬼神等說，心似

38) 就見知處言：《質疑》에는 ‘見知處言’으로 되어 있다.

39) 批云：《質疑》에는 없다.

40) 就見知處……知處言也：《質疑》에는 없다.

41) 蘇楊氏所說：《質疑》에는 ‘蘇楊氏說’로 되어 있다.

42) 蘇昞楊時之：《質疑》에는 없다.

43) 批云：《質疑》에는 없다.

44) 然：《質疑》에는 없다.

45) 相妨：《質疑》에는 ‘相妨者’로 되어 있다.

46) 程：《質疑》에는 ‘程子’로 되어 있다.

47) 朱：《質疑》에는 ‘朱子’로 되어 있다.

48) 然則：《質疑》에는 없다.

知之，而竟⁵¹⁾未能無疑，奈何久之?’曰：‘朱子嘗云：“始⁵²⁾却就的實明白處做工夫，不可徑就難知處着力。若此久久，則必生怪異。”朱子此意，不可易矣。”

【道鄉鄒氏】名浩，字志完。常州 晉陵人。以行義著，舉進士，爲右正言。上章極論章惇之罪，哲宗廢孟后而⁵³⁾立劉氏，復上章，乞追停冊禮。惇詆其狂妄，削官，羈管新州。徽宗立，召爲中書舍人。蔡京忌浩，再責衡州別駕，尋竄昭州，卒。賜諡曰忠，子柄從學楊時，以薦除編修，累官，至台州。出《一統志》。

【過舉】李錄云：“舉猶事也。”

【呂氏】名大臨。詳見後。⁵⁴⁾

【著摸】李錄云：“先生批云⁵⁵⁾：‘著，著手也。摸，音模，一音莫，手捉也。謂著手而捉持也。’”

【存養於【止】未發之時】⁵⁶⁾批云⁵⁷⁾：“‘時’，《近思錄》

49) 德弘：《質疑》에는 없다.

50) 於：《質疑》에는 없다.

51) 心似知之而竟：《質疑》에는 없다.

52) 始：《質疑》에는 ‘姑’로 되어 있다.

53) 而：《質疑》에는 없다.

54) 詳見後：《質疑》에는 ‘字與叔，大忠弟。藍田人。學於程頤，與謝良佐游酢楊時，在程門，號四先生。通六經，尤達於禮。所著有《克己銘》諸篇。元祐中，薦祕書正字。出《一統志》。朱子嘗稱其文字說得好，如千兵萬馬飽滿伉壯.’이라고 되어 있다.

55) 李錄云先生批云：《質疑》에는 없다.

56) 存養於【止】未發之時：《質疑》에는 ‘未發之時’로 되어 있다.

作‘前’。然《遺書》作‘時’，恐‘時’字爲是。”

【界至】至字，今人多屬下句⁵⁸⁾，非是。當讀曰‘到未發界至이’。李錄云⁵⁹⁾：“界至卽地境也。⁶⁰⁾言⁶¹⁾自某界至其某界也，言到未發之界至也。”

【靜中須有物】李錄云：“問：‘心有主則虛。然則謂靜中有物者，如何?’曰：‘至虛之中，至實⁶²⁾者存故云。’”

【這裏便是難】李錄云：“難是知之難，而做到靜中有物底⁶³⁾，亦難矣。”

【莫若自先】⁶⁴⁾批云：“上自當作且。小註，朱子曰：‘未發之前，不可尋覓。’”

【一段】⁶⁵⁾批云：“〈與湖南諸公論中和書〉。”○又曰⁶⁶⁾：“湖南，古長沙，今潭州，屬湖南道。張南軒所居

57) 批云：《質疑》에는 없다.

58) 句：《質疑》에는 뒤에 ‘讀’이 있다.

59) 當讀曰……李錄云：《質疑》에는 없다.

60) 也：《質疑》에는 없다.

61) 言：《質疑》에는 없다.

62) 至實：《質疑》에는 앞에 ‘有’가 있다.

63) 有物底：《質疑》에는 뒤에 ‘地位’가 있다.

64) 莫若自先：《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65) 一段：《質疑》에는 ‘朱子曰未發云云’으로 되어 있고, 그 설명도 ‘此〈與湖南諸公論中和書〉. 湖南, 古長沙, 今潭州. 屬湖南道. 張南軒所居之處.’라고 되어 있다.

66) ○又曰：《質疑》에는 없다.

之處。”○又謂之曰⁶⁷⁾：“朱先生⁶⁸⁾此書，精切簡當，深有啓發人處。”

【尋覓】助長之病.

【安排】計較之病.

【鏡明水止】⁶⁹⁾如鏡之明，如水之不流，淵停，能鑑物也.

【本領工夫】李錄云：“指莊敬·涵養工夫，如木之本，如⁷⁰⁾衣之領也.”

【向來】⁷¹⁾ 알픽.

【直】⁷²⁾ 흘갓.

【以心爲已發】問：“程子謂門人‘心是已發’，而卽又曰‘非是.’【程子此言⁷³⁾，見《遺書》等書.】朱子初年，如何恁地認得，後來方覺其非，而有此論乎？”先生⁷⁴⁾批云：“朱先生⁷⁵⁾初年所見，偶與程子初說契⁷⁶⁾合，後來乃覺

67) ○又謂之曰：《質疑》에는 없다.

68) 朱先生：《質疑》에는 ‘朱子’로 되어 있다.

69) 鏡明水止：《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70) 如：《質疑》에는 없다.

71) 向來：《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72) 直：《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73) 程子此言：《質疑》에는 없다.

74) 先生：《質疑》에는 없다.

75) 朱先生：《質疑》에는 ‘朱子’로 되어 있다.

其未安，不吝於改而從善。此尤所難處也。”

【端倪】 謂發端之際，如仁發是惻隱之類。

【段】 猶俗云草段·柴段之段也。⁷⁷⁾ 俗誤以爲段⁷⁸⁾謂分作片段也。

【風】 問：“當以《詩傳》所釋看否？” 答⁷⁹⁾曰：“彼雖釋如此，然於此不當引他釋。當以吾之德厚流光，足以感動人處看。”

【黠】 他斗切。以黃色纈冕旁曰黠。⁸⁰⁾

【呂子約】 名祖儉，號大愚。金華人。東萊之弟。⁸¹⁾ 偏執己見，朱子往復幾千萬言，終不能變態。⁸²⁾ 善信人也，故朱子嘗稱惜之曰：“時魚多骨，金橘太酸。以喻善人而有病痛。”

【一種】⁸³⁾ 흥가지.

【不識【止】時節】⁸⁴⁾ 李錄云：“先生批云⁸⁵⁾：‘忸怩不

76) 契：《質疑》에는 없다.

77) 也：《質疑》에는 없다.

78) 段：《質疑》에는 ‘丹’으로 되어 있다.

79) 答：《質疑》에는 없다.

80) 以黃色纈冕旁曰黠：《質疑》에는 ‘黃色. 又冕傍纈曰黠.’으로 되어 있다.

81) 金華人東萊之弟：《質疑》에는 ‘東萊之弟. 金華人.’으로 되어 있다.

82) 態：《質疑》에는 ‘然’으로 되어 있다. 今案：‘然’이 옳을 듯하다. ‘然’으로 본다면 뒤로 붙여 읽어야 한다.

83) 一種：《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84) 不識【止】時節：《質疑》에는 ‘不識四到時節’로 되어 있다.

知從⁸⁶⁾四方所到之事時節也.’又有批云⁸⁷⁾: ‘如⁸⁸⁾今俗語, 亦有四到之說.’”

【洪範五事】 貌曰恭・言曰從・視曰明・聽曰聰・思曰睿. 睿, 通明之謂.

【養得成】⁸⁹⁾ 如此云云之人 養 ㅎ야 일오다. 得字, 不必釋.

【一枚】 一個同.

【癡獸^이罔兩漢】⁹⁰⁾ 皆愚駭也. ○李錄云: “罔兩, 猶俗 망녕之義. 漢, 人之賤稱, 猶俗言 늑이라.”

【執持】 助長繫累之病.

【有甚矜持】 矜嚴・矜莊, 皆言⁹¹⁾過嚴也. ○므슴 矜持 ㅎ미 이시리오.⁹²⁾ 言不可拘迫也.

【旋】 又又.

【不管】⁹³⁾ 李錄云: “管, 主之也.”

85) 李錄云先生批云: 《質疑》에는 없다.

86) 從: 《質疑》에는 없다.

87) 又有批云: 《質疑》에는 없다.

88) 如: 《質疑》에는 없다.

89) 養得成: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90) 癡獸^이罔兩漢: 《質疑》에는 ‘獸’와 ‘罔兩漢’이 별개의 조목으로 편집되어 있고, ‘獸’에 대한 설명은 ‘音埃, 癡也.’로 되어 있고, ‘罔兩漢’에 대한 설명은 ‘罔兩, 《莊子》郭象註, “影外之微陰.” 蓋是不分明之意. 漢, 人之賤稱, 猶俗言 늑이라.’로 되어 있다.

91) 言: 《質疑》에는 없다.

92) ○므슴……이시리오: 《質疑》에는 ‘有何矜持’로 되어 있다.

【延平】⁹⁴⁾ 李先生⁹⁵⁾，名侗，字愿仲。劍浦人。從學羅從彥。結茅山田，謝絕世故，餘四十年，食飲或不充，而怡然自得。沙溪 鄧迪，嘗稱其如冰壺秋月，瑩澈無瑕。朱子師事焉，世號延平先生。⁹⁶⁾ 其從羅豫章也，講誦之餘，危坐終日，以驗夫喜怒哀樂未發之前氣象⁹⁷⁾爲⁹⁸⁾如何，而求所謂中者。如是者蓋久之，而知天下之大本，真有在乎是也。諡文靖。壽七十有一。⁹⁹⁾ 出《一統志》。

【曩時】¹⁰⁰⁾ 아리.

【偶有心恙】 論此，仍謂之¹⁰¹⁾曰：“某年十七八，聞己卯之人，全尙《小學》，探蹟性理¹⁰²⁾，鄉無先前¹⁰³⁾，無從問學之要¹⁰⁴⁾，只管讀古書而求其實。心有走作，一

93) 不管：《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94) 延平：《質疑》에는 ‘延平李氏’로 되어 있다.

95) 李先生：《質疑》에는 없다.

96) 延平先生：《質疑》에는 ‘延平李先生’으로 되어 있다.

97) 氣象：《質疑》에는 ‘氣像’으로 되어 있다.

98) 爲：《質疑》에는 없다.

99) 諡文靖壽七十有一：《質疑》에는 ‘壽七十有一. 諡文靖.’으로 되어 있다.

100) 曩時：《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01) 之：《質疑》에는 ‘李咸亨’으로 되어 있다.

102) 聞己卯……蹟性理：《質疑》에는 없다.

103) 先前：《質疑》에는 ‘先進’으로 되어 있다.

104) 之要：《質疑》에는 없다.

意持守，或夜半起寢，危坐操存。日常如此，極用心力，及¹⁰⁵⁾生心疾，幾至失性。多般調治，以此盛年，專不講讀，棄聖賢事業而不理，若一念及，則重致其疾故耳。¹⁰⁶⁾至衰年，見聖途¹⁰⁷⁾之¹⁰⁸⁾分明，僅收桑榆之景，故¹⁰⁹⁾不能專一致力。吾見公言語動作之際，多有急迫之病，無寬裕之意，何異於古所謂爲道理所縛？恐生心疾，慎之。”咸亨對曰：“小子年來食傷深重。”答曰：“觀公容貌，年少所宜豐肥，而極似虛弱，不可過用心氣。方其讀古書，以爲當然，而不見程·朱之論，後見《心經》等書，然後悟前日所爲之乖，方釋然解疑。欲讀書求道，年齡衰晚，不能用力於萬一，心與理打成一片，可也。而今不能如此，可勝嘆哉？南彥經年少，徒用心力，遂成病人，亦可戒也。古語有之，拘迫則難久，能敬而免於拘迫，使虛閒之體常存，則無害而日新。¹¹⁰⁾〈夙興夜寐箴〉云：‘讀書之餘，間以游泳，發舒精神，休養情性。’此可爲法。”

105) 及：《質疑》에는 ‘反’으로 되어 있다.

106) 棄聖賢……疾故耳：《質疑》에는 없다.

107) 聖途：《質疑》에는 ‘聖道’로 되어 있다.

108) 之：《質疑》에는 없다.

109) 故：《質疑》에는 ‘然’으로 되어 있다.

110) 咸亨對曰……而日新：《質疑》에는 없다.

【小註 何叔京】¹¹¹⁾ 李錄云：“名鎬，邵武人，兌之子，號臺溪，朱先生¹¹²⁾以友待之。”

【體】¹¹³⁾ 體驗。

【認】 辨識也。¹¹⁴⁾ 古有蚩氓失其牛，出見一人駕車牛，就車中而認之曰：“吾牛也。”其人不辨而與之。○失物而得其物，分辨而識之曰‘此吾失物也。’此認字之義也。¹¹⁵⁾ ○李錄云：“體 ㄱ야 認 ㄱ다.¹¹⁶⁾ 體，卽¹¹⁷⁾ 所謂做他那骨子。¹¹⁸⁾ 認，辨識也。¹¹⁹⁾”

【訣】 以言相傳曰訣。

【親炙】 薰炙也。

【辜】 與孤通用。

【求中】 李錄云：“問：‘程·朱皆以求中爲非，而楊·羅·李¹²⁰⁾，皆以此得之者¹²¹⁾，如何?’ 答¹²²⁾曰：‘所疑

111) 小註何叔京：《質疑》에는 ‘何叔京’으로 되어 있다.

112) 朱先生：《質疑》‘朱子’로 되어 있다.

113) 體：《質疑》에는 이 조목이 아래 조목과 함께 ‘體認’으로 되어 있으며, ‘體驗’이라는 설명은 없다.

114) 辨識也：《質疑》에는 없다.

115) 也：《質疑》에는 없다.

116) 體 ㄱ야 認 ㄱ다：《質疑》에는 없다.

117) 卽：《質疑》에는 없다.

118) 骨子：《質疑》에는 뒤에 ‘言體而認之也.’가 있다.

119) 認辨識也：《質疑》에는 없다.

120) 楊羅李：《質疑》에는 아래에 ‘三先生’이 있다.

果然. 然楊·羅·李¹²³⁾三先生, 皆性本沈靜, 而以不求求之, 故無病而有得, 他人性多鬧躁, 而強探力求, 則徒爲病, 而卒無得耳.” ○朱門人問: “延平靜坐¹²⁴⁾求中, 無乃有助長繫累之病否?” 先生答之¹²⁵⁾曰: “以不見見之.¹²⁶⁾”

〔程時登〕¹²⁷⁾ 未詳其出處. 《中和集編》, 亦未見也.¹²⁸⁾ 樂平, 鄱陽屬縣.

〔如小【止】亂去〕¹²⁹⁾ 先生批云: “저기 可히 緊要호미 업슨디도 간대로 ㅎ야가미. 小可沒緊要處, 猶俗言‘그리도늑다 긴티 아니흔 짜히라.’”¹³⁰⁾ ○李錄云:¹³¹⁾ “沒, 無也. 胡亂, 雜亂之意.”

〔裏面〕 《詩》之中.

〔剔出〕 글히터내다.¹³²⁾

121) 者: 《質疑》에는 없다.

122) 答: 《質疑》에는 없다.

123) 楊羅李: 《質疑》에는 없다.

124) 靜坐: 《質疑》에는 없다.

125) 先生答之: 《質疑》에는 없다.

126) 之: 《質疑》에는 뒤에 ‘也’가 있다.

127) 程時登: 《質疑》에는 ‘樂平程時登’으로 되어 있다.

128) 未詳……亦未見也: 《質疑》에는 ‘字登庸, 稱鄱陽程氏. 註〈齋居感興詩〉.’로 되어 있다.

129) 如小【止】亂去: 《質疑》에는 ‘如少【止】亂去’로 되어 있다.

130) 先生批云……짜히라: 《質疑》에는 ‘少可沒緊要, 猶俗言無甚緊要也.’로 되어 있다.

131) ○李錄云: 《質疑》에는 없다.

《何處著落》¹³³⁾ 先生批云：“어니 고대다 하디느니 잇고.”

《雖是未發[止]在此》¹³⁴⁾ 李錄云：“體이 萬用에 含具하야 此에 在하니.¹³⁵⁾ 蓋萬用之理，已具於未發之前也.”

《主人》 心也.

《冥漠中照管》 李錄云：“冥漠，寂然微妙¹³⁶⁾也. 此言雖寂然未發，而照管不放下，非釋家寂然¹³⁷⁾之比也. ○비록 이 持守하 體段이나 跡은 露티 아니하니라.¹³⁸⁾”

《胡氏條》 批云：“《大全集》，‘者’下亦無‘所’字. 然當有‘所’字.”¹³⁹⁾ ○又按¹⁴⁰⁾：“此季隨與諸友論學，而季隨以質諸先生者. 此條下，有‘友恭，字恭叔’云，則

132) 글히터내다 : 《質疑》에는 ‘글히터느다.’로 되어 있고, 뒤에 ‘疑如解肉而出其骨.’이라는 설명이 더 있다.

133) 何處著落 : 《質疑》에는 ‘著落’으로 되어 있으며, 설명은 ‘《語錄解》，著落有歸宿之意.’로 되어 있다.

134) 雖是未發[止]在此 : 《質疑》에는 ‘雖是[止]在此’로 되어 있다.

135) 李錄云……在하니 : 《質疑》에는 ‘體已含具萬用而在此之意.’로 되어 있다.

136) 微妙 : 《質疑》에는 ‘無朕’으로 되어 있다.

137) 寂然 : 《質疑》에는 ‘寂滅’로 되어 있다.

138) ○비록……아니하니라 : 《質疑》에는 없다.

139) 批云……有所字 : 《質疑》에는 없다. 대신 ‘名大時，字季隨. 五峯之子. 南軒師受於五峯，而季隨師受於南軒. 南軒卒後，季隨質疑於朱子.’가 있다.

140) 又按 : 《質疑》에는 없다.

此實潘恭叔語。 篁墩偶失照管，以爲季隨耳。” ○又曰：
“季隨，名大時。 五峯之子也。 南軒師受於五峯，而季隨
隨師受於南軒。 南軒卒後，季隨質疑於朱子。”¹⁴¹⁾

〔元註〕 李錄云：“元註¹⁴²⁾，本註也。”

〔容〕¹⁴³⁾ 저체히야.

141) ○又曰……於朱子：《質疑》에는 없고, 해당하는 내용이 이 조목의 설명 앞부분에 편성되어 있다.

142) 李錄云元註：《質疑》에는 없다.

143) 容：《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3 〈潛雖伏矣章〉

〔內省〔止〕惡於志〕¹⁾ 안호로 省호매 병되디 아니호여 志예 惡호미 업스니. ○《中庸》首章, 先言體, 戒愼·存養,〔存天理〕 後言用, 愼獨·省察,〔遏人欲〕 末章先言用, 潛雖伏矣,〔省察〕 後言體, 相在爾室.〔存養〕

〈本註〉

〔持養〕 敬以涵養.

〈附註〉

〔朱然〕 批云: “朱然, 吳人, 見《三國志》.” ○李錄云: “朱然²⁾, 吳將, 見《三國志》. 資質有過人者, 故然耳.³⁾”

1) 內省〔止〕惡於志: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고, 이 장의 제목인 ‘潛雖伏矣章’ 아래에 小註 ‘《中庸》首章先言體條, 見庸錄.’이 있다. 해당 내용은 《艮齋集》續集 권1 〈中庸質疑〉에 보인다. 거기에서는 ‘首章, 先言體,〔戒懼存養, 存天理.〕 後言用.〔愼獨省察, 遏人欲.〕 末章先言用,〔潛雖伏矣, 省察.〕 後言體.〔相在爾室, 存養.〕’로 되어 있다.

2) 批云……朱然: 《質疑》에는 없다.

3) 故然耳: 《質疑》에는 없다.

【顏叔子^{【止】}趙閱道】 批云⁴⁾：“《史記》，叔子獨處一室，夜大雨，一女投之。叔子令女秉燭，燭盡，破屋柱繼之，至明不貳。”○伯起却金，見史。⁵⁾○司馬⁶⁾，見上文。○趙抃，字閱道。⁷⁾日所爲事，夜必衣冠露香⁸⁾，九拜手告于天。應不可告者，則不敢爲也。【○（閱道）衢州人。事仁宗·神宗，初舉進士。謚清獻。【露香】露意，猶露坐·露宿之意。【九拜】九拜之意，未詳。疑是致敬曲盡之意。【應不可】【止】爲也】應不可告天之事，則不敢爲其事也。】⁹⁾

4) 批云：《質疑》에는 없다.

5) 史：《質疑》에는 ‘上章’으로 되어 있다.

6) 司馬：《質疑》에는 아래에 ‘君實事’가 더 있다.

7) 趙抃字閱道：《質疑》에는 ‘趙閱道，名抃。衢州人。事宋仁宗神宗，初舉進士。謚清獻.’으로 되어 있다. 《講錄》에는 해당 내용이 小註 형식으로 편성되어 있다.

8) 露香：《質疑》에는 뒤에 小註 ‘露坐焚香也.’가 있다.

9) ○閱道……爲其事也：《質疑》에는 없다.

第二篇

14 〈誠意章〉

〔則何益矣〕¹⁾ 곳 므서시 益헉리오.

〔己肺肝〕²⁾ 皆指小人.

〔愼其獨〕³⁾ 李錄云：“問：‘首節⁴⁾既言愼其獨，下文又重言之。今人釋上獨字，心⁵⁾所獨，故獨^厶⁶⁾，下獨字，身⁷⁾所獨，故獨^乙.⁸⁾ 張謹曰：“此恐不然.⁹⁾ 首節獨字訓下，有陳定宇之說曰：‘此指心所獨知而言，非指身所獨居而言.¹⁰⁾’又於閒居訓下，有曰：‘此是身所獨居，與上文己所獨知之獨不同.’’今人多眩於此說，不察本意而強爲此說，殊¹¹⁾不知此定宇兩說，初非卞別

1) 則何益矣：《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2) 己肺肝：《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3) 愼其獨：《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見原集.’으로 되어 있다. 李錄 관련 내용은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6)에 나온다.

4) 首節：《艮齋集》에는 앞에 ‘大學’이 있다.

5) 心：《艮齋集》에는 앞에 ‘曰’이 있다.

6) 故獨^厶：《艮齋集》에는 없다.

7) 身：《艮齋集》에는 앞에 ‘曰’이 있다.

8) 故獨^乙：《艮齋集》에는 없다.

9) 此恐不然：《艮齋集》에는 없다.

10) 非指身所獨居而言：《艮齋集》에는 없다.

上下獨字之義，只辨閒居之義而慎獨¹²⁾之獨有別也。若如此說，則不但非定字之本意，亦失朱子¹³⁾《章句》之意也。次節訓此慎其獨一句曰‘君子所以重以爲戒而必慎其獨也’，今詳此所以字重字必字，則可見上節以此慎其獨爲毋自欺之工夫。下文言小人所以自欺之流弊，戒之以不可不慎之義爾。故末又結以慎其獨，非別有他意也。¹⁴⁾”此說未知信否？先生答云：‘誠意章，兩獨字，今人誤看陳說，而有身心之分。某亦曩從其說，近方覺其未然，今示張說爲是。’○〈與咸亨書〉曰：“今詳《中庸》慎獨以隱微言，而《章句》既以幽暗之中細微之事跡未形而幾則已動爲言，小註朱子答或問曰：‘這獨也，不只是獨自時，如與衆人對坐，心念正不正，此亦是獨處。’據此則幽暗之中，與獨自時，身所獨也，微事幾動與念正不正，心所獨也。然則慎獨之獨，本當兼身心看。陳氏以上節自欺，屬細密工夫，故必以心所獨言之。若此節等處，兼心身看可也。【此節之說，指小人閒居之節。】”

11) 殊：《艮齋集》에는 없다.

12) 而慎獨：《艮齋集》에는 ‘與獨知’

13) 朱子：《艮齋集》에는 없다.

14) 次節訓……他意也：《艮齋集》에는 없다.

【曾子曰】¹⁵⁾ 曾子所常¹⁶⁾誦戒之辭. 故門人特加‘曾子曰’三字, 以爲萬世之警策.

【十目十手】 十人之視·十人之指, 言其視指¹⁷⁾者衆也. ○咸亨問: “此猶天知神知之義, 不知是否?” 先生批云: “是.”¹⁸⁾

【富潤屋】¹⁹⁾ 以富對德言者, 譬也. 蓋舉無用之事, 發至實之理.

〈本註〉

【以快足於己】²⁰⁾ 批云: “《大學》, 快上有自字.”

〈附註〉

【雙峯】²¹⁾ 公諱²²⁾魯, 字仲元. 饒州 餘干人. 幼從黃

15) 曾子曰: 《質疑》에는 이 조목과 아래 ‘十目十手’ 조목을 합하였고, 그 설명이 ‘并見《學》錄.’으로 되어 있다. 관련 내용은 《艮齋集》續集 권1 〈大學質疑〉에 보인다.

16) 常: 《艮齋集》에는 ‘嘗’으로 되어 있다.

17) 指: 《艮齋集》에는 ‘聽’으로 되어 있다.

18) 咸亨問……云是: 《艮齋集》에는 없다.

19) 富潤屋: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20) 以快足於己: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21) 雙峯: 《質疑》에는 ‘雙峯饒氏’로 되어 있다.

勉齋遊。性行端謹，學術精明，累薦不起。號雙峯。及卒，門人私謚文元。縣有石洞書院，乃其講道之所。【出《一統志》。】²³⁾

【此大可驗】²⁴⁾ 李錄云：“此字，指交戰處言之。但‘交戰之驗’，以事理言之，‘持其志’以下，以做工夫言之，謂欲持志使氣不能亂，則當就此交戰處，看其理果勝欲與否，以爲驗也。”

【要之】要歸而言之。

【聖賢】²⁵⁾ 聖賢之云²⁶⁾，意此時或人先言心疾之事，故并舉此事²⁷⁾以答之也。²⁸⁾

【不害心疾】²⁹⁾ 李錄云：“心疾로害티 아니하시니라.”

【優裕】³⁰⁾ 批云：“優裕，《書》·《近思錄》，皆作有。³¹⁾”

【心因】³²⁾ 批云：“心因之心，《遺書》作比。”

22) 公諱：《質疑》에는 ‘名’으로 되어 있다.

23) 出一統志：《質疑》에는 본문으로 되어 있다.

24) 此大可驗：《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見原集.’으로 되어 있다.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丁卯】〉(7)에 관련 내용이 나온다.

25) 聖賢：《質疑》에는 ‘聖賢【止】心疾’로 되어 있다.

26) 聖賢之云：《質疑》에는 없다.

27) 此事：《質疑》에는 없다.

28) 也：《質疑》에는 없다.

29) 不害心疾：《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猶言不以心疾自致害也.’로 되어 있다.

30) 優裕：《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31) 有：今案：‘有裕’가 되어야 할 듯하다.

【人之血【止】有虛實】³³⁾ 李錄云：“氣虛³⁴⁾，如君與我者，是也。血氣虛，故心氣亦不³⁵⁾完實，疾病易乘。或刻苦做工，則心神耗損，有甚於他人，不可不戒。常宜節嗜慾保精氣，勿過用心力，以自完養。程夫子答張思叔之言，約而盡矣。”

【劉忠定】³⁶⁾ 批云：“劉元城 安世。○安福人。舉進士，嘗知雩都縣。有君官諷以獻羨餘人者，安世曰‘土瘠賦重，安得有羨餘’，遂不仕歸而設教。遠近受業者，踵至。楊萬里，從而師之。安世沒，萬里爲制服。私謚清純。”【出《一統志》。】

【公曰其誠【止】妄語始】³⁷⁾ 李錄云：“人有應接，最易失於虛妄者，惟言語爲甚。³⁸⁾ 故聖人教人，以信爲言語之則。信之與誠，一理也。故行誠，當自不妄語始。況

32) 心因：《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33) 人之血【止】有虛實：《質疑》에는 ‘人之【止】虛實’로 되어 있고, 그 설명이 ‘見原集.’으로 되어 있다.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丁卯】〉(7)에 관련 내용이 나온다.

34) 虛：《艮齋集》에는 뒤에 ‘者’가 있다.

35) 完：《艮齋集》에는 앞에 ‘能’이 있다.

36) 劉忠定：《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名安世，字器之。大名府元城人。官至諫議大夫。正色立朝，知無不言，人目之以殿上虎。蘇東坡論元祐人才曰：“器之眞鐵漢，不可及也。”’로 되어 있다.

37) 公曰其誠【止】妄語始：《質疑》에는 ‘自不妄語始’로 되어 있고 아래의 ‘穩括’ 조목과 통합되어 있으며, 그 설명이 ‘并見原集.’이라고 되어 있다.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丁卯】〉(7)에 관련 내용이 나온다.

38) 甚：《艮齋集》에는 ‘然’으로 되어 있다.

欲不妄語，必須言行相顧而後能，則行在其中可知．此
溫公所以善教，劉公所以善學也．”

【櫟括】³⁹⁾ 先生嘗批云：“括當從木．” ○《韻會》
〈軫部〉：“揉曲者曰櫟，正方者曰括．” 〈問部〉：“或
作櫟，審也．括，檢括也，正邪曲之器也．荀子曰：‘櫟
括之側多曲木．’”

【掣肘】 掣，자바들이티다.⁴⁰⁾ 肘，肱也．○春秋時，
魯使宓賤⁴¹⁾爲單父⁴²⁾令．子賤借善書者^{호고}⁴³⁾ 二
人⁴⁴⁾又從旁引其肘，書醜則怒之，欲好書則又引之．書
者辭歸以告^{소프대}⁴⁵⁾ 魯君曰：“子賤苦吾擾之，不得
施善政．”命母徵發單父，未幾化⁴⁶⁾大行．

【矛盾】⁴⁷⁾ ‘矛’는 거러들이는 거시오，盾，防牌也．
矛以拘之，盾以防之，不相爲用也．

39) 櫟括：《良齋集》에는 ‘櫟括’로 되어 있고, 그 설명이 ‘《韻會》, “揉曲者曰櫟, 正方者曰括.” 又櫟或作隱, 審也. 括, 正邪曲之器也.’로 되어 있다.

40) 자바들이티다：《質疑》에는 ‘자바달의다’로 되어 있다.

41) 宓賤：《質疑》에는 ‘宓子賤’으로 되어 있다.

42) 父：《質疑》에는 없다.

43) 호고：《質疑》에는 없다.

44) 二人：《質疑》에는 앞에 ‘使’가 있다.

45) 소프대：《質疑》에는 없다.

46) 化：《質疑》에는 ‘教化’로 되어 있다.

47) 矛盾：《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皆兵器. 矛以刺之, 盾以防之, 不相爲用也.’로 되어 있다.

【矯】⁴⁸⁾ 以詐矯其不正。○論此條畢，問：“〈溫公贊〉云：‘下無所授。’今看來劉公之篤行，不可不謂傳授而云爾，如何？”答曰：“以溫公之德業，不得謂之傳道之正統；以劉之篤尚踐行，亦未得謂之承道之正統者。豈不以傳道之實至重至大，固不可以輕許之也？”又問：“小子日授先生教誨諄勉，看來古今聖賢言行，小無加進，未審，病痛安在而然歟？”答曰：“身行之事，非一朝一夕率易而得。只當惟日孜孜，死而後已。其得與不得，何可逆料而輕言之耶？比如病者得藥，未嘗服一劑，遽問人曰‘我何得藥而病不愈？’天下寧有此理？”又問：“思事未透，雖精神昏倦，期於必得而後已乎？”答曰：“伊川云：‘若一事窮不得，且別窮一事’，延平云：‘待此一事，融釋脫落然後，循序少進而別窮一事。’朱門人有問：‘此說不同，如何？’朱子答云：‘一項難窮底事，如造化·禮樂·度數等，卒急難曉，只得放住。李先生說是窮理之要。若平常遇事，這一件理會未透，又理會第二件，二件理會未得，又理會第三件，恁地終身不長進。’”

48) 矯：《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韻會》：“妄也許也。”言以詐矯其不正.’로 되어 있다.

【蘭溪】49) 批云50): “范浚⁵¹⁾, 蘭溪人. 紹興間, 舉賢良不起. 篤志求道, 稱爲香溪先生.”

【有欲炙【止】而足高】52) 批云53): “顧榮⁵⁴⁾宴飲, 見執炙者有欲炙之色, 割炙啖之曰: ‘豈有終日執之而不知其味者⁵⁵⁾?’ 及趙王 倫亂, 榮被執, 其人爲督, 卒擄榮得免.” ○秦伐晉, 晉 史駢請深壘固軍以待之. 秦人欲戰, 乃出戰, 交綏. 秦行人夜戒晉師, 曰: “兩軍之士⁵⁶⁾, 皆不慙也, 明日請相見.【謂相戰也.】⁵⁷⁾” 史駢⁵⁸⁾曰: “使者目動而言肆, 懼我也.” 秦師夜遁. ○柯陵之會, 單 襄公謂魯 成公曰: “晉侯視遠而足高, 目不在體而足不步目, 其心必異矣. 目體不相從, 何以能久?”

○【顧榮, 晉 元帝時人. ○趙王 倫, 惠帝之弟, 乘賈后之亂, 逆亂篡位, 誅死. ○史駢, 春秋時, 晉之謨士.⁵⁹⁾ 交綏⁶⁰⁾, 合兵不戰而退曰交綏.⁶¹⁾

49) 蘭溪: 《質疑》에는 ‘蘭溪范氏’로 되어 있다.

50) 批云: 《質疑》에는 없다.

51) 范浚: 《質疑》에는 ‘名浚, 字茂明.’으로 되어 있다.

52) 有欲炙【止】而足高: 《質疑》에는 ‘有欲炙【止】足高’로 되어 있다.

53) 批云: 《質疑》에는 없다.

54) 顧榮: 《質疑》에는 앞에 ‘罇’이 있다.

55) 者: 《質疑》에는 뒤에 ‘乎’가 있다.

56) 士: 《質疑》에는 ‘舍, 師’로 되어 있다.

57) 謂相戰也: 《質疑》에는 없다.

58) 史駢: 《質疑》에는 ‘駢’으로 되어 있다.

59) 士: 《質疑》에는 ‘臣’으로 되어 있다.

心經講錄合編 第二篇

○⁶²⁾懣，疑僅切。心不欲而強爲之辭。謂心不欲不戰而強止云也。⁶³⁾ 單襄公，⁶⁴⁾ 周大夫。晉侯，厲公也。】⁶⁵⁾

【註 范氏曰】⁶⁶⁾ 曰字恐誤。

【問劉棟】批云⁶⁷⁾：“問，朱子問之⁶⁸⁾也。劉棟，朱子門人。⁶⁹⁾”

【知道】⁷⁰⁾ 아다.

【却又不十分【止】舍他不得】⁷¹⁾ 李錄云：“主敬以立其本，窮理以致其知，反躬以踐其實。三者之功，互進積久，而至於真知其如此⁷²⁾，真知其不可亦如此⁷³⁾，則庶可免矣。”

60) 交綏：《質疑》에는 앞에 ‘○’이 있다.

61) 曰交綏：《質疑》에는 없다.

62) ○：《質疑》에는 없다.

63) 心不欲……止云也：《質疑》에는 ‘缺也. 交綏兩退, 故言無缺傷也.’로 되어 있다. 또한 이어서 ‘相見, 謂相戰也.’가 있다.

64) 單襄公：《質疑》에는 앞에 ‘○’이 있다.

65) 顧榮……厲公也：《質疑》에는 본문으로 편집되어 있다.

66) 註范氏曰：《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67) 批云：《質疑》에는 없다.

68) 之：《質疑》에는 없다.

69) 門人：《質疑》에는 뒤에 小註 ‘棟, 從東是.’가 있다.

70) 知道：《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71) 却又不十分【止】舍他不得：《質疑》에는 ‘却又【止】不得’으로 되어 있다.

72) 如此：《質疑》에는 ‘可如此’로 되어 있다.

73) 真知其如此, 真知其不可亦如此：《質疑》에는 ‘真知其可如此, 真知其不可如此’로 되어 있다.

【不知不識】⁷⁴⁾ 知，知此事；識，識此理。

【喚做】⁷⁵⁾ 불러일홈지다.

【劉棟下小註】⁷⁶⁾ 批云：“‘又曰’以下，答李敬子所問，見《語類》誠意章處。‘是自欠了分數’下，有或人問辭而答引荀子說。篁墩刪節爲一段，故意不相貫。”○李錄云：“問荀子一段，若移附操存章，則似爲穩當耳。”

【偷】⁷⁷⁾ 偷，盜也。人心⁷⁸⁾不由自家而隱然自行，如偷竊然也。

【不會斷得】⁷⁹⁾ 李錄云：“不會，猶⁸⁰⁾不解。”

【官會】官作之會子，宋之貨名。如今楮貨也。

【粗處】乃指鑄錢假會之類。

74) 不知不識：《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見原集.’으로 되어 있다. 관련 내용이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丁卯】〉(7)에 보인다. 거기에서는 ‘問不知不識. 先生曰: 《孟子》論先知覺處註, “知, 謂知此事. 覺, 謂覺此理.” 知識二字, 亦倣此看, 則豈爲疊耶?’라고 되어 있다.

75) 불러일홈지다：《質疑》에는 ‘猶言稱爲此事也.’로 되어 있다.

76) 劉棟下小註：《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見原集.’으로 되어 있다. 관련 내용이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丁卯】〉(7)에 보인다. 거기에서는 ‘問: “劉棟段下小註引荀子說.” 先生曰: “按《語類》, 此一段本是答李敬子所問, 而其說止於自欠了分數. 其下有或云如此則云云. 曰. 公且去看荀子曰云云. 又其下復與敬子答問. 今程公就許多說話中. 刪節合爲一說. 故有如此意不相屬處. 看來荀子一段. 若移附操存章. 則似爲穩當’

77) 偷：《質疑》에는 ‘偷心’으로 되어 있다.

78) 人心：《質疑》에는 ‘心’으로 되어 있다.

79) 不知不識：《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見原集.’으로 되어 있다. 관련 내용이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丁卯】〉(7)에 보인다.

80) 猶：《艮齋集》에는 뒤에 ‘言’이 있다.

【賺】批云：“賺⁸¹⁾，直陷切，重買也。又市物失實也。”

【祗】批云：“祗⁸²⁾，或祇·祗⁸³⁾，皆無下一畫，可也。⁸⁴⁾”

【又曰學者云云】⁸⁵⁾批云⁸⁶⁾：“李果齋所聞，見《語類》⁸⁷⁾〈總論爲學之方〉。”

【寧可逐【止】爲是乎】⁸⁸⁾李錄云：“출하리 可히 적적 머거 ㅎ여곰 飽ㅎ미 올ㅎ나.⁸⁹⁾ 以此譬爲己之學，用心於內，銖累寸積而有得也。”

【鋪攤】⁹⁰⁾탄, 鋪設也.

【放門外】⁹¹⁾門外에 두고.

【肚裏】李錄云：“卽⁹²⁾腹裏也。”

【不爲己圖好看】批云⁹³⁾：“本作‘只是⁹⁴⁾不爲己不求

81) 賺：《質疑》에는 없다.

82) 批云祗：《質疑》에는 없다.

83) 或祇祗：《質疑》에는 ‘或祇或祗’로 되어 있다.

84) 可也：《質疑》에는 없다.

85) 又曰學者云云：《質疑》에는 ‘又曰學者’으로 되어 있다.

86) 批云：《質疑》에는 없다.

87) 聞見語類：《質疑》에는 ‘問’으로 되어 있다.

88) 寧可逐【止】爲是乎：《質疑》에는 ‘寧可【止】爲是乎’로 되어 있고,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見原集.’으로 되어 있다.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丁卯】〉(7)에 관련 내용이 보인다.

89) 李錄云……올ㅎ나：《艮齋集》에는 없다.

90) 鋪攤：《質疑》에는 설명이 ‘他干切. 鋪攤, 皆陳布之意.’로 되어 있다.

91) 放門外：《質疑》에는 설명이 ‘置門外也.’로 되어 있다.

92) 李錄云卽：《質疑》에는 없다.

益，只是好名圖好看.”

【南越王】名趙佗.⁹⁵⁾南越，漢時或叛或從，至趙佗，黃屋左纛，出警入蹕.⁹⁶⁾文帝⁹⁷⁾卽位使陸賈致命訶니大意 p⁹⁸⁾若曰：“某以高帝⁹⁹⁾側室之¹⁰⁰⁾子，迫於群下勸進，入承大統，否德難能化汝。然天無二日，民無二王，無使生民受塗炭之苦。”佗伏其言曰：“黃屋左纛，聊以自娛耳。”

【雲峯】¹⁰¹⁾名炳文，字仲虎。婺源人。元初，爲信州書院山長，再調蘭溪州學正。炳文¹⁰²⁾篤志朱子之學，諸子百氏醫卜等書，靡不推究。世稱雲峯先生。卒諡文通。【出《一統志》。】¹⁰³⁾

【術】¹⁰⁴⁾心之所用也。

93) 批云：《質疑》에는 없다.

94) 只是：《質疑》에는 없다.

95) 趙佗：《質疑》에는 ‘佗, 趙人’으로 되어 있다.

96) 南越……出警入蹕：《質疑》에는 ‘秦時爲南海尉，因王之，用黃屋左纛，出警入蹕.’로 되어 있다.

97) 文帝：《質疑》에는 ‘漢文帝’로 되어 있다.

98) 訶니大意 p：《質疑》에는 없다.

99) 帝：《質疑》에는 ‘皇帝’로 되어 있다.

100) 之：《質疑》에는 없다.

101) 雲峯：《質疑》에는 ‘雲峯胡氏’로 되어 있다.

102) 炳文：《質疑》에는 없다.

103) 出一統志：《質疑》에는 본문으로 편집되어 있다.

104) 術：《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趙致道》批云：“趙致道¹⁰⁵⁾，名師夏，朱子門人。”

李錄云：“先生¹⁰⁶⁾孫女¹⁰⁷⁾壻，有趙師夏，疑卽此人。”

《胡子》¹⁰⁸⁾有《知言》書，曰：“天理·人欲，同體而異用。”

《寄生疣贅》¹⁰⁹⁾李錄云：“寄生，木之겨으사리. 疣，혹. 贅，뽕술.”

《此雖亦誠之動》問：“觀趙致道謂‘雖亦誠之動，則人心之發見，私欲之流行，所謂惡也.’¹¹⁰⁾善者，天賦之正理；惡者，物欲所生之邪穢. 惡不可謂誠之動，而趙氏云爾，朱子曰‘得之’，是必有其義，請聞之.” 先生答¹¹¹⁾曰：“趙致道謂‘惡亦誠之動’，其說所從來，遠矣. 何叔京嘗有書論此，且云：‘不知自何而有此人欲.’ 朱子答曰：‘此問甚緊切. 熹¹¹²⁾竊以爲，人欲云者，天理

105) 批云 趙致道：《質疑》에는 없다.

106) 李錄云 先生：《質疑》에는 ‘朱子’로 되어 있다.

107) 孫女：《質疑》에는 ‘孫’으로 되어 있다.

108) 胡子：《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해 ‘卽五峯.’이라는 설명을 붙였고, ‘同體異用’이라는 별도의 조목을 두어 그 설명으로 ‘知言曰: “天理人欲, 同體而異用.”’이라고 하였다.

109) 寄生疣贅：《質疑》에는 ‘寄生’과 ‘疣’, ‘贅’를 각각 별도의 조목으로 편집하고, ‘寄生’에 대해서는 ‘木上, 冬寄生也.’라고 설명하고, ‘疣’에는 ‘혹’, ‘贅’에는 ‘뽕술’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110) 觀趙致道……所謂惡也：《質疑》에는 없다.

111) 先生答：《質疑》에는 없다.

112) 熹：《質疑》에는 ‘某’로 되어 있다.

之反也。謂因天理而有此¹¹³⁾人欲則可，謂人欲亦是天理則不可。蓋天理中本無人欲，惟其流之有差，遂生出人欲來。程子謂：“善惡皆天理。【朱子註云¹¹⁴⁾：‘此句若甚可駭。’】謂之惡者，本非惡也。¹¹⁵⁾【此句便都轉了。】但過與不及便如此。【自何而有此人欲之間，此句答了。惡下此下兩註，亦皆朱子說。¹¹⁶⁾】”所引“惡亦不可不謂之性”，意亦如此。此趙氏之說所從出也。”【今按¹¹⁷⁾：程子說，見《近思錄》。○“惡亦不可不謂之性”，亦程子說，而¹¹⁸⁾叔京引之。故朱子並舉而答之。】

【人心之發見】問：“人心非人欲，朱子既已言之。趙致道謂‘人心之發見，乃私欲之流行’，朱子曰‘得之’，此必朱子早年¹¹⁹⁾未定說之前之言否¹²⁰⁾？”○¹²¹⁾批曰¹²²⁾：“此未有考也。”

【誠幾圖下，此證胡氏之說】¹²³⁾‘說’，《通書》作‘失’。

113) 此：《質疑》에는 없다.

114) 朱子註云：《質疑》에는 없다.

115) 也：《質疑》에는 없다.

116) 惡下此下……朱子說：《質疑》에는 ‘以上兩小註，亦朱子說.’로 되어 있다.

117) 今按：《質疑》에는 없다.

118) 而：《質疑》에는 없다.

119) 早年：《質疑》에는 ‘初年’으로 되어 있다.

120) 之前之言否：《質疑》에는 없다.

121) ○：《質疑》에는 없다.

122) 曰：《質疑》에는 ‘云’으로 되어 있다.

123) 誠幾圖下，此證胡氏之說：《質疑》에는 ‘誠幾圖，此證胡氏之說’로 되어 있다.

15 〈正心章〉

【有所忿懣】¹⁾ 期待釋‘忿懣하을바를’，偏繫釋‘忿懣하느바를’，留滯釋忿懣‘하온바를’。

【忿恐好憂】 金景仁《大學質疑錄》云：“問：‘是四者七情否？’答曰：‘四者就七情而得其三。唯無所謂憂患者，然亦非在七情之外也。’²⁾”

【心不在焉】³⁾ 心 ㄷ 두디 아니면. 或云‘在軀殼內’，或云‘在視聽上.’ ○今按：此兩說，當通看。蓋心在軀殼，方能在視聽上，乃主於內而應於外，非兩在也。若心不在軀殼，則未有能在視聽上之理，心已逐物而不能主宰故也。明道先生⁴⁾曰：“與其是內而非外，不若內外之兩忘。⁵⁾” ○⁶⁾細玩本意及《章句》‘心有不存’之說，釋云‘心 ㄷ 두디 아니면’⁷⁾，未穩也；當云‘心이 있디 아니면’⁸⁾，可也。古亦有此釋。蓋此乃直指心失主宰之

1) 有所忿懣：《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2) 也：《質疑》에는 없다.

3) 心不在焉：《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又按《通考》條，并見《學錄》’으로 되어 있다. 《艮齋集》續集 권1 〈大學質疑〉에 관련 내용이 있다.

4) 明道先生：《艮齋集》에는 앞에 ‘故’가 있다.

5) 兩忘：《艮齋集》에는 뒤에 ‘也’가 있다.

6) ○：《艮齋集》에는 없다.

7) 心 ㄷ 두디 아니면：《艮齋集》에는 ‘若不能存心’으로 되어 있다.

時而言其病耳，初非戒人不能操心而致此病也。故《章句》，只以‘心有不存，則無以檢其身’，直解正意而戒之曰：‘是以君子必察乎此而敬以直之然後⁹⁾云云。’至是，方推本文言外之意，使人加省察·操存之功，以求免夫心失主宰之病。《章句》之精審如此，不可經以不著意操存之說解之也。¹⁰⁾ ○在軀殼之說，再按¹¹⁾《通考》，吳季子曰：“攫金而不見市人，心不在市人也；聽古樂唯恐臥，心不在古樂也；當食而失匕箸¹²⁾，心不在匕箸¹³⁾也。由是觀之，欲修身者，其可不收斂此心而使之在吾方寸間乎？云云。”以此證之，上所謂‘主於內應於外’之說，益¹⁴⁾信矣。”○‘必察乎此’¹⁵⁾，‘此’字，指心不在之病處也。○按：朱公遷曰：“伯兄克履云：‘《大學》經言正心，是兼體用言；傳言所以正心之道，是專以用言。’蓋制於外，所以養其中。”雲峯 胡氏則曰：“‘在正其心’，此‘正’字，說正之之工夫。蓋謂心之

8) 心이 있다 아니면 : 《艮齋集》에는 ‘心若不在’로 되어 있다.

9) 然後 : 《艮齋集》에는 없다.

10) 不可經……解之也 : 《艮齋集》에는 없다.

11) 在軀殼之說再按 : 《艮齋集》에는 ‘又按’으로 되어 있다.

12) 箸 : 《艮齋集》에는 ‘箸’로 되어 있다.

13) 箸 : 《艮齋集》에는 ‘箸’로 되어 있다.

14) 益 : 《艮齋集》에는 앞에 ‘當’이 있다.

15) 必察乎此 : 《艮齋集》에는 별도의 조목으로 편집되어 있다.

用，或有不正，不可不正之。‘不得其正’，此‘正’字，是說心之體，本無不正，而人自失之者¹⁶⁾也。”羅整菴《困知記》又謂：“此章所謂‘不得其正’者，似只指心體而言。《章句》以爲，用之所行，不能不失其正^{ハッ}¹⁷⁾乃第二節事^ハ¹⁸⁾似於心體上欠却數語。蓋‘心不在焉’以下，方是說應用之失。”胡·羅二說，異於朱說如此。又¹⁹⁾按：徽菴 程氏曰：“《章句》曰‘用之所行，或失其正’，《或問》曰‘此心之用，不得其正’，未嘗言體之不正也。唯經之《或問》有曰‘不得其本然之正’，曰‘心之本體，物不能動而無不正’^{ハッ}^也^乙²⁰⁾或者遂執之，以爲正心乃靜時工夫，如《中庸》‘未發之中’，〈太極圖〉之‘主靜’，而經之所謂‘定·靜·安’也。²¹⁾傳之‘心不在焉’，乃心不在腔子裏時也^{ハッ}^乙²²⁾殊不知聖人教人，多於動處用功。格·致·誠·正·修，皆教人用功於動者。定·靜·安，亦非但言心之靜也。若靜時工

16) 者 : 《艮齋集》에는 없다.

17) ツヒ : 《艮齋集》에는 없다.

18) ㅅ : 《艮齋集》에는 없다.

19) 又 : 《艮齋集》에는 앞에 ‘○’이 있다.

20) ㄸ ㄹ 也 乙 : 《艮齋集》에는 없다.

21) 也 : 《艮齋集》에는 없다.

22) ツヒ : 《艮齋集》에는 없다.

夫，戒愼·恐懼而已，不待乎正其所不正也。聖賢之動，固主乎靜。元·亨，誠之通，固主乎²³⁾利·貞，誠之復。而‘誠·正·修’云者，正誠通之事，既誠·正而修矣，始有誠復之明。【‘明’字疑誤。】若當誠意之後，厭動而求靜，收視及²⁴⁾聽曰‘吾將以正心’，此乃異端之事，非吾儒事也。況心不在焉，亦曰心不在視，則視而不見，心不在聽，則聽而不聞。豈靜在腔中之謂哉？《或問》所謂‘本然’·‘本體’，亦指此心之義理而言。《孟子》言‘本心’，亦指仁義之心而言，豈一於靜之謂乎？”某謂：“人心未發之前，體之不偏，固可謂之正；已發之後，用之各當，獨不可謂之正乎？故《章句》以用說‘不得其正’之‘正’字，朱克履所謂‘專以用言’者，正得其義。徽菴所譏或者之說，即雲峯·整菴之意。²⁵⁾其中胡氏之說，雖精采有警發人處，然傳者之意，未必然也。²⁶⁾徽菴力辨或說之誤當矣，則雲峯·整菴，皆爲²⁷⁾誤矣。但以²⁸⁾愚見竊恐徽說亦不能無病。蓋不當引誠之通·復爲證也。且以

23) 固主乎：《艮齋集》에는 없다.

24) 及：《艮齋集》에는 ‘反’으로 되어 있다.

25) 意：《艮齋集》에는 뒤에 ‘也’가 있다.

26) 其中胡氏……未必然也：《艮齋集》에는 없다.

27) 爲：《艮齋集》에는 ‘謂’로 되어 있다.

28) 但以：《艮齋集》에는 없다.

或人‘心不在腔子裏’之說爲非，而必曰‘心不在視·聽，則不見·不聞’，此亦恐偏也。蓋未有心不在腔裏而能在視·聽之理也。惟是或人意，只謂‘靜在腔子中’，而不知通看主內·應外之理，則果爲誤耳。”【自‘心不在焉’條，出先生《大學正釋》。】²⁹⁾

〈本註〉

【人所不能無】³⁰⁾ 李錄云：“如飢食·渴飲等事，非獨衆人爲然³¹⁾，雖上智亦不能無。然所不能無者，天理之正也。纔涉於有所，則已流於人欲之私矣。”

【一有之】³²⁾ 李錄云：“問：“一有之而不能察”，“一”卽四者之一也，“有”卽事物之來，有可喜·可怒者也。當釋曰：“흔나히나 잇거든.”³³⁾ 蓋一有可喜·可怒之事物，而不加³⁴⁾察焉，以至於欲動情勝，而後此心之

29) 自心不……正釋：《艮齋集》에는 없다.

30) 人所不能無：《質疑》에는 아래 조목과 함께 ‘人所不能無，○一有之’라는 제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설명이 ‘見原集’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은 《艮齋集》에는 보이지 않고, 《退溪集》 권38 〈答趙起伯大學問目〉에 보인다.

31) 爲然：《退溪集》에는 없다.

32) 一有之：이 조목에 대한 설명은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6)에 보인다.

33) 當釋曰……잇거든：《艮齋集》에는 없다.

34) 加：《艮齋集》에는 ‘能’으로 되어 있다.

用始有所繫累而不得其正也. “有之”二字, 非訓“有所”之義者也. 趙上舍³⁵⁾曰: “一有猶言徒有之也. 當釋曰: ‘흔 갖두고.’”³⁶⁾ 其意蓋曰: “有之即訓有所之義者也, 言學者若以此四者爲人所不能無者, 而一於有之不能致察於其間云云.” 然有之之義, 在於有所之前, 有所之病, 生於有之之後. 故有之字無病, 而有所字方有病也.³⁷⁾ 此章《或問》叙³⁸⁾此一語曰: “惟其事物之來, 有所不察³⁹⁾ 也⁴⁰⁾ 應之既或不能無失^{ㄱ ㄴ}, 且又不能不與俱往, 則其喜怒憂懼必有動乎中者, 而此心之用始有不得其正也.⁴¹⁾” 今以此說觀之⁴²⁾, 不能察, 然後方有所失始有動乎中, 而此心之用, 有不得其正也. 然則不能察之前, 非有此四有之病, 可知也. 金仁山亦曰: “今⁴³⁾以傳文觀之, 一則曰‘有所’, 二則曰‘有所’, 則是心之所主者, 在此其失也, 固矣. 忿而曰‘忿懣’, 懼而

35) 趙上舍: 《艮齋集》에는 뒤에 ‘穆’이 있다.

36) 當釋曰……흔 갖두고: 《艮齋集》에는 없다.

37) 也: 《艮齋集》에는 없다.

38) 叙: 《艮齋集》에는 ‘釋’으로 되어 있다.

39) 察: 《艮齋集》에는 뒤에 ‘也’가 있다.

40) ㄱ ㄴ: 《艮齋集》에는 없다.

41) 且又不能……不得其正也: 《艮齋集》에는 ‘云云’으로 되어 있다.

42) 今以此說觀之: 《艮齋集》에는 ‘以此觀之’로 되어 있다.

43) 今: 《艮齋集》에는 없다.

曰‘恐懼’，卽其⁴⁴⁾重疊之辭，則是情之所勝者至此，其滯也深矣。”觀於此言⁴⁵⁾，以四有爲心之所失，以其⁴⁶⁾重疊之辭爲情之所勝云⁴⁷⁾，則欲動情勝之時，卽有此四有之病，亦可見矣。今若以此爲非，而欲存徒有之之⁴⁸⁾說，則愚所未解者也。⁴⁹⁾ 德弘向旣聞命，而尙未解惑，更考儒先之說，以再稟焉，不審妄否？⁵⁰⁾ 先生答云⁵¹⁾：‘〈正心章〉“一有之而不能察”之義，看得子細⁵²⁾，說得分明。鄙見正如此。但士敬說非⁵³⁾，非但士敬，他人亦多用其說。恐或拙者有誤認處，當更詳之。’

【敬以直之】⁵⁴⁾ 〈正心章〉不言敬，而《章句》發之，則開示正心之要法，警策後學之意至矣。

44) 其：《艮齋集》에는 없다.

45) 言：《艮齋集》에는 ‘書’로 되어 있다.

46) 其：《艮齋集》에는 없다.

47) 云：《艮齋集》에는 없다.

48) 之：《艮齋集》에는 없다.

49) 者也：《艮齋集》에는 없다.

50) 德弘……妄否：《艮齋集》에는 없다.

51) 答云：《艮齋集》에는 ‘曰’로 되어 있다.

52) 子細：《艮齋集》에는 ‘仔細’로 되어 있다.

53) 非：《艮齋集》에는 없다.

54) 敬以直之：《質疑》에는 ‘○必察【止】直之’로 되어 있고, 그 설명이 ‘○朱氏程氏條, 并見《學》錄.’으로 되어 있다. 관련 내용이 《艮齋集》續集 권1 〈大學質疑〉에 보인다.

〈附註〉

- 【實】⁵⁵⁾ 上實字⁵⁶⁾, 誠實也. ○⁵⁷⁾下實字, 充塞也.
○李錄云: 有主之實, 理之實也; 無主之實, 欲之塞也.
【物卒奪之】⁵⁸⁾ 批云: “卒, 《近思錄》作來.”
【林用中】 字擇之. 詳〈尊德性章〉.⁵⁹⁾
【郛】 城郭也.
【鬼闕其室】 出⁶⁰⁾《楊子》, 曰: “高明之家, 鬼闕其室.”
【存心】⁶¹⁾ 心在於邪.
【心亡】 放心.
【澶州】 明道先生⁶²⁾爲⁶³⁾澶州⁶⁴⁾幕官.
【少】 李錄云: “猶無也.”

55) 實: 《質疑》에는 ‘有主【止】則實’로 되어 있다.

56) 上實字: 《質疑》에는 앞에 ‘兩實字’가 있다.

57) ○: 《質疑》에는 없다.

58) 物卒奪之: 이 조목은 《質疑》에는 없다.

59) 詳尊德性章: 《質疑》에는 ‘古田人. 先生目爲畏友. 稱見趣操持愈見精密. 詩見《南嶽唱酬集》.’으로 되어 있다.

60) 出: 《質疑》에는 없다.

61) 存心: 《質疑》에는 ‘心存’으로 되어 있다.

62) 明道先生: 《質疑》에는 앞에 ‘屬河東路’가 있다.

63) 爲: 《質疑》에는 앞에 ‘時’가 있다.

64) 澶州: 《質疑》에는 없다.

【憂事【止】和而理】⁶⁵⁾ 李錄云：“問：‘若當父母之憂，而亦可靜而理乎？’答曰：‘當大憂·大難，則雖與些小憂患，所處不同，然亦當隨其事理分限，各盡其道而無搖亂，豈非所謂靜而理乎？’”

【機事】 批云⁶⁶⁾：“事之多巧變關利害，須用智計以應者。”

【周羅事】 두로 번저즈리.⁶⁷⁾

【便著了】⁶⁸⁾ 批云：“著，當作差。”

【不會】⁶⁹⁾ 批云：“會，當作曾。”

【不正】⁷⁰⁾ 批云：“不正之正，疑當作精。”

【凡有【止】所懼】⁷¹⁾ 李錄云：“是不論心之發未發⁷²⁾，事之宜不宜，儼若⁷³⁾上帝臨汝，事事物物，頭頭處處，皆知所懼。”

65) 憂事【止】和而理：《質疑》에는 ‘憂事【止】靜而理’로 되어 있고, 설명은 ‘見原集.’으로 되어 있다. 관련 내용은 《艮齋集》 권6 〈溪山記善錄下〉에 나온다. 今案: 이 조목의 표제는 ‘憂事【止】靜而理’가 되어야 할 듯하다.

66) 批云：《質疑》에는 없다.

67) 周羅事：《質疑》에는 ‘猶周遮羅排之意.’로 되어 있다.

68) 便著了：《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69) 不會：《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70) 不正：《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71) 凡有【止】所懼：《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見原集.’으로 되어 있다. 관련 내용은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丁卯】〉(7)에 나온다.

72) 發未發：《艮齋集》에는 ‘所發’로 되어 있다.

73) 儼若：《艮齋集》에는 없다.

【艮爲止】⁷⁴⁾ 止，懸⁷⁵⁾之德也。○八卦，各有象·德，乾天·坤地·坎水·離火·震雷·艮山·巽風·兌澤，象也；乾健·坤順·坎險·離明·震動·艮止·巽入·兌說，德也。○艮卦，艮下艮上。⁷⁶⁾ 震，一陽生於二陰之下，故動；艮，一陽止於二陰之上，故止。

【志帥心君】⁷⁷⁾ 李錄云：“總其大體而言，則⁷⁸⁾曰‘心君’；指其所之而言，曰‘志帥’。其實非有二也。”

【主張】 先生批云⁷⁹⁾：“웃듬모로 베퍼 한다.”⁸⁰⁾

【又曰世俗】⁸¹⁾ 批云⁸²⁾：“周舜弼所錄，見《語類》〈總論爲學之方〉。”

【都不理會我底】⁸³⁾ 李錄批云：“公以此上文有‘以敬

74) 艮爲止：《質疑》에는 ‘艮止’로 되어 있다.

75) 懸：《質疑》에는 ‘艮’으로 되어 있다.

76) ○艮卦艮下艮上：《質疑》에는 없다.

77) 志帥心君：《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見原集’으로 되어 있다. 관련 내용은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9)에 나온다.

78) 則：《艮齋集》에는 없다.

79) 先生批云：《質疑》에는 없다.

80) 웃듬모로 베퍼 한다：《質疑》에는 ‘猶言主宰布張也.’

81) 又曰世俗：《質疑》에는 ‘又曰’로 되어 있다.

82) 批云：《質疑》에는 없다.

83) 都不理會我底：《質疑》에는 아래 ‘撐船【止】使匙’ 및 ‘才敬看做甚麼事【止】入水亦只這個心’ 조목과 함께 ‘都不理會我底，○撐船止使匙，○才敬【止】這個心’이라는 표제로 함께 편성되어 있고, 그 설명은 ‘并見原集.’이라 되어 있다. 이 조목과 관련된 내용은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丁卯】〉(7)에 나온다.

爲主’之語，故看此句，亦欲作敬說，然細看此處語意，只云‘都不理會我底，自不知心所在，都要理會他底.’只是言人皆不務在我之事，不知吾心之何如，但一向務爲治人之事云耳，未見說到敬處。若敬，則是理會我底時_辰所以存心之法耳。”

【撐船【止】使匙】⁸⁴⁾ ‘撐’，抽庚切。制舟。篙，사횃대라. ○李錄云：“問：‘此句主義安在？或攝心須是敬之比云，然否？’答曰：‘不然。其本意蓋曰：“欲治人者，必先治心，欲治心者，必先持敬。今若欲治人而不先治心，則其與不篙之船，無匙之喫，何異哉？故曰‘不理會心，不用篙，不使匙云云’也。如其敬，則其第二項義，乃攝心之法，恐不合於此語。”’又問：‘或人多有以敬看者，不審妄否？’答曰：‘不用篙，不使匙，卽理不會心之謂也。所云云，似是而實非也。’”

【才敬看做甚麼事【止】入水亦只這個心】⁸⁵⁾ 李錄云：“此在《語錄》中，差異處未易看得出。其大意謂：‘人患不能敬耳.’ 纔能敬則但看所做之事是何事，或大或小，或難或易，或此或彼，心無所不管，事無有不可爲

84) 撐船【止】使匙：현재 《艮齋集》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85) 才敬看做甚麼事【止】入水亦只這個心：이 조목과 관련된 내용은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丁卯】〉(7)에 나온다.

者矣. 故曰‘登山’云云, ‘入水’云云. ‘人患不能敬耳’, 本文無此語, 須帶此意看, 方得.⁸⁶⁾”

【秤】與稱[去聲]⁸⁷⁾同. 權衡之總名.

【一般】흔가지⁸⁸⁾, 猶言相同也. 又흔가지, 猶云⁸⁹⁾一種也. 此出金景仁《大學語錄解》.⁹⁰⁾

【抑強】⁹¹⁾ 問: “強, 구티오다之意與?” 答曰: “非也. 乃今說豪強之強也.”

【遇著當強底事】⁹²⁾ 李錄云: “맞당이 強히 홀일을 遇著하야.”

【都不得】⁹³⁾ 批云: “雖外面來底, 亦皆不得以爲不由自家而不免強也. 蓋憂懼雖外來, 所以處之道, 在我故耳.” ○다 그리티 못하리라.

【只是徒然】⁹⁴⁾ 李錄云: “言恐懼·憂患, 不能爲吾患,

86) 人患不能敬……方得: 《艮齋集》에는 이 부분이 小註로 편집되어 있다.

87) 去聲: 《質疑》에는 ‘與稱’ 앞에 본문으로 편집되어 있다.

88) 흔가지: 《質疑》에는 없다.

89) 흔가지猶云: 《質疑》에는 없다.

90) 此出……語錄解: 《質疑》에는 없다.

91) 抑強: 《質疑》에는 ‘強’으로 되어 있고, 설명은 ‘如今說豪強也.’로 되어 있다.

92) 遇著當強底事: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93) 都不得: 《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言雖外面來底, 亦當由自家有道理以處之乃可, 不得但以喜怒爲在我可勉, 以憂懼不由我而不勉強也.’로 되어 있다.

94) 只是徒然: 《質疑》에는 설명이 ‘見原集.’으로 되어 있다. 관련 내용이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丁卯]〉(7)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言恐懼憂患, 不能爲吾害, 只是空然而已.’라고만 되어 있다.

只是空然而已。”○論此節畢，咸亨問：“小子以爲雖高聲讀之，讀之數多，則其義理自然通貫，故高其聲讀。昨日伏蒙下教，始覺其前日所爲之非。”答曰：“見公病痛，但隨口而讀，不爲沈潛其義，故言之爾。初非以爲出聲讀爲不可也。《論語》，‘子曰：“學而不思則罔，思而不學則殆”’，朱子曰：‘不求諸心，故昏而無得，不習其事，故危而不安。’夫端坐收心，出聲讀誦，多積徧數，爛熟之餘，義理自至於融釋，是爲習之之事，實乃讀書之常法，有何不可？如或不能，宜有時且止聲讀，凝神靜慮，沈潛文義，玩索旨味，是思之之事。二者皆在於熟。《孟子》曰：‘夫仁亦在乎熟之而已。’朱子‘只是熟，只是熟。’義理，思之漸熟，其味無窮；習之漸熟，其行自利。譬如山果未熟，雖酸澁不適於口，到熟則其味自別。但不須拘迫求之，如是則難久。‘其進銳者，其退速’，‘毋拔來，毋赴往’，此等語，至切之論。”○問：“《史記》，伍尚赴父命，伍員諉以報讐，不赴其父之命，何如？”答曰：“報讐於後日，則今雖逃，可贖罪矣。如不能而死，是如何耶？但伍員既報於後，可小免不赴父命之罪。”又問：“爲臣而鞭其君，是何如？”答曰：“是時之人，事此君不安，去而之他，無定君，非如後

世一統爲臣也. 又況員父奢爲楚平王太子之臣, 事似有間, 故先不歸員以叛君之罪耶? 未可知也.” 又問: “似此等事, 未能剖判是非?” 答曰: “是如此, 若在我之權衡尺度素定, 則思無不中. 今不知何者爲權衡, 何者爲尺度, 先要理會處變, 雖得其中, 乃私意度之, 必差了. 又是躡等之學, 非爲急務. 先儒已有成說, 慎勿先自理會處變.”

〔仁山〕⁹⁵⁾ 名履祥, 字吉甫. 金華人.

〔當懼則懼〕⁹⁶⁾ 批云: “當懼下而字, 或云‘當作則’, 或云‘而字是.’ 然‘則’字爲是.

〔詬詈〕 怒而叱之.⁹⁷⁾

〔忍〕⁹⁸⁾ 忍⁹⁹⁾氣質之性, 出《孟子》.

〔元凱〕 登杜預字也, 有《左傳》癖. ○世俗之學, 如是固滯.¹⁰⁰⁾

〔相如〕 司馬相如也.¹⁰¹⁾ 俳, 노릇바치. ○世俗之

95) 仁山: 《質疑》에는 ‘仁山金氏’로 되어 있다.

96) 當懼則懼: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97) 怒而叱之: 《質疑》에는 ‘怒罵也.’로 되어 있다.

98) 忍: 《質疑》에는 ‘忍性’으로 되어 있다.

99) 忍: 《質疑》에는 없다.

100) ○世俗……固滯: 《質疑》에는 없다.

101) 也: 《質疑》에는 없다.

文，如相如之文，類於俳。¹⁰²⁾

【心齋】¹⁰³⁾ 出《莊子》。○問：“此義前雖聞誨，小子不敏，未能記。其萬一敢更請益。”先生答云：“《莊子》大意謂：‘不茹葷是祭祀之齋，一志虛心爲心齋。顏淵能心齋，故孔子告之以道。’”¹⁰⁴⁾

【輸】 猶致也。

【涪陵之行】 批云¹⁰⁵⁾：“‘涪陵’¹⁰⁶⁾一段，載《淵源錄》者。其註謂：‘見邵氏《聞見錄》。’又《語類》載，朱子嘗論此事，‘記錄有二本不同’云云。¹⁰⁷⁾ 其一卽此註所取，與此多不同。其一是¹⁰⁸⁾《淵源錄》所載，而亦多異同。又《鶴林玉露》載此條，文亦多異。”【又朱子謂：“達·捨¹⁰⁹⁾，只是一事，安得有分別耶？”《鶴林》則謂：“達是智，捨¹¹⁰⁾是勇。聞道爲達，死可爲捨¹¹¹⁾。】¹¹²⁾ ○李錄云¹¹³⁾：“蓋

102) 俳노릇바치……於俳：《質疑》에는 없다.

103) 心齋：《質疑》에는 아래 조목인 ‘輸’와 편성 순서가 바뀌어 있다.

104) ○問……以道：《質疑》에는 ‘大意謂，一志虛心爲心齋.’로 되어 있다.

105) 批云：《質疑》에는 없고, ‘涪陵, 乃涪州也. 蜀地, 由江陵等處, 泝江而上.’이 있다. 이 구절은 《講錄》에서는 설명의 후반부에 편집해 두었다.

106) 涪陵：《質疑》에는 앞에 ‘○’이 있다.

107) 不同云云：《質疑》에는 없다.

108) 是：《質疑》에는 ‘卽’으로 되어 있다.

109) 捨：《質疑》에는 ‘舍’로 되어 있다.

110) 捨：《質疑》에는 ‘舍’로 되어 있다.

111) 捨：《質疑》에는 ‘舍’로 되어 있다.

112) 又朱子謂……死可爲捨：《質疑》에는 본문으로 편집되어 있다.

本意以爲，伊川當此危，而能視死如歸，至於¹¹⁴⁾如此
 ㅎ니¹¹⁵⁾ 必由平日聞道知命故然也。朱子意亦不過如
 此。故吐斯ッヒ스ヌタ。去，語辭。”【釋云：‘舍ㅎ미 이ㄴㅌ니
 達ㅎ음도 이ㄴㅌ도다.’】○涪陵，乃涪州也。蜀地，由江陵等
 處，泝江而上。¹¹⁶⁾○《玉露》，羅大經所著。【羅，字景
綸。】¹¹⁷⁾ 隱居不仕，雖無徵於學問，然慕尚濂·洛·關·
閩諸賢，亦一好人也。

〔濫潁〕蜀地高，故水流極旱¹¹⁸⁾，下流由三峽·瞿
塘·灩澦¹¹⁹⁾，乃其極險處。人多覆舟，伊川之¹²⁰⁾謫涪
陵¹²¹⁾，舟由此而幾見危，凝然不動。

〔髭〕口上曰髭，在下曰鬚，在頰曰髥。

〔臧格〕未詳。

〔一警〕批云¹²²⁾：“警，當从馬。¹²³⁾”

113) ○李錄云：《質疑》에는 없다.

114) 至於：《質疑》에는 없다.

115) ㅎ니：《質疑》에는 없다.

116) 故吐斯……江而上：《質疑》에는 없다.

117) 羅字景綸：《質疑》에는 본문으로 편집되어 있다.

118) 旱：《質疑》에는 ‘悍’으로 되어 있다.

119) 灩澦：《質疑》에는 아래에 ‘堆’가 있다.

120) 之：《質疑》에는 없다.

121) 涪陵：《質疑》에는 ‘涪州’로 되어 있다.

122) 批云：《質疑》에는 없다.

123) 當从馬：《質疑》에는 ‘當作驚.’으로 되어 있다.

【章句不合】 〈與趙士敬書〉¹²⁴⁾曰：“《章句》，以敬爲存心之方，而言於三不處，臧氏，以敬爲去累之道，而言於四有處。此篁墩所以云‘不同’耳。看以此如何？¹²⁵⁾”

【王幼觀】¹²⁶⁾ 李錄云：“名過，幼觀，其字也。朱門人。《語類》，鄱陽人。”

【某見[止]配去】 ‘大字面’^{p 127)} 古黥‘賊’字於其面，‘配去’^{p 128)} 流配去絕之¹²⁹⁾也。釋云：‘某이 보니 이
等인 ㄷ 오직 大字늘 面에 ㅎ야 配去홀디니라.’¹³⁰⁾

【某舊時[止]兩冊】 某謂¹³¹⁾‘舊時無所不學，出入時，其無數文字，不能盡持其冊而行，故事事皆¹³²⁾兩冊云云’，吐曰：‘學ㅎ야 法을 學ㅎ야 時에 字ㄷ 事에 冊
ㅎ더니.’ 或謂‘事事要學，故出於此入於彼，出於彼入於此無數，故文字ㄷ 事事有兩冊云云’，吐云：‘學ㅎ야

124) 與趙士敬書：《質疑》에는 ‘答趙士敬’으로 되어 있다.

125) 耳看……此如何：《質疑》에는 없다.

126) 王幼觀：《質疑》에는 ‘名過. 鄱陽人. 朱門人.’으로 되어 있다.

127) p : 《質疑》에는 없다.

128) p : 《質疑》에는 없다.

129) 絕之：《質疑》에는 없다.

130) 釋云……홀디니라：《質疑》에는 없다.

131) 某謂：《質疑》에는 ‘謂某’로 되어 있다.

132) 皆：《質疑》에는 ‘有’로 되어 있다.

法을學호니時、數々字乙冊호더니.’然‘出入時’
以下，文意不屬，恐非是。【金曰：“‘事事’下，有乙字，而不分明，
故不錄。且‘入於此’之下，初有‘文章·《楚辭》等’五字，而旋以墨抹去
之，似不相承。當問之。”】¹³³⁾

【且慢】慢，緩也。○李錄云：“朱子自言其學將流於
汨濫駁雜，而勇於改過，此正人之所當法也。學者不法
其改過之勇，而徑諉以自入于¹³⁴⁾陋，則罪在其人，於
先生何¹³⁵⁾哉？”

【渾身】舉一身而言之，曰‘渾身’。¹³⁶⁾如言¹³⁷⁾渾家
之類。

【初還】朱子居閩中，年十九登第，仍省邱壠，初往
婺源。初還¹³⁸⁾，是故鄉，故曰‘還’也。¹³⁹⁾婺源縣屬徽
州。¹⁴⁰⁾新安，卽徽之¹⁴¹⁾別號。

【宗人】宗族之人，非必謂主宗之人。¹⁴²⁾會族人，猶

133) 吐曰學호야……當問之：《質疑》에는 없다.

134) 于：《質疑》에는 ‘於’로 되어 있다.

135) 何：《質疑》에는 뒤에 ‘有’가 있다.

136) 之曰渾身：《質疑》에는 없다.

137) 言：《質疑》에는 없다.

138) 初還：《質疑》에는 없다.

139) 還也：《質疑》에는 ‘初還’으로 되어 있다.

140) 縣屬徽州：《質疑》에는 ‘徽州屬縣’으로 되어 있다.

141) 之：《質疑》에는 ‘州’로 되어 있다.

142) 非必謂主宗之人：《質疑》에는 없다.

今族會之說.¹⁴³⁾

【打酒】 買酒也. 中原於官司設榷場沽酒, 而私家不得爲之.

【臟腑】¹⁴⁴⁾ 咸亨謹按: “前日所考《周禮》, 多有未詳處. 今摭《脈經》·《本草》〈發揮圖〉, 序例如左. 且先生下教, 精神魂魄等說, 別附于後, 不審, 妄否? 伏希指誨.” 批云: “《脈經》·《本草》兩說, 並不解醫術, 未詳其得失.”

143) 猶今族會之說: 《質疑》에는 ‘猶今俗族會之類’로 되어 있다.

144) 臟腑: 《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心·肝·脾·肺·腎, 五臟; 膽·胃·三焦·膀胱·大腸·小腸, 六腑也.’로 되어 있다. 또한 아래 臟腑와 命門에 대한 설명 부분이 없다.

〈五臟〉【附 六腑】 〈命門〉【臟者，藏精氣而不瀉；腑者，傳化物而不藏.】¹⁴⁵⁾

	心	肝	腎	肺	脾
氣	離之氣	震之氣	坎之氣	兌之氣	坤之氣
形	形如垂蓮	形如懸瓠	形如懸石	形如懸磬	形如覆盆
藏	藏神	藏血	藏精	藏魄	藏意
官	君主之官	將軍之官	作強之官	相傳之官	倉廩之官
主	主血	主筋	主骨	主氣	主肌
位	位南	位東	位北	位西	位中
精	火之精	木之精	水之精	金之精	土之精
旺	旺夏	旺春	旺冬	旺秋	寄旺四季
音	音徵	音角	音羽	音商	音宮
聲	聲言	聲呼	聲呻	聲笑	聲歌
色	色赤	色青	色黑	色白	色黃
味	味苦	味酸	味鹹	味辛	味甘
臭	臭焦	臭臊	臭腐	臭腥	臭香
性	性禮	性仁	性智	性義	性信
情	情樂	情喜	情悲	情怒	情恕
液	液汗	液泣	液唾	液涕	液涎
上應	上應舌	上應目	上應耳	上應鼻	上應口
外應	外應諸掌	外應爪甲	外應齒牙	外應皮毛	外應四肢
	手小陰，是經與小腸手大陽經，合爲受盛之府.	足厥陰，是經與膽足小陽經，合爲清淨之府.	足小陰，是經與膀胱足大陽經，合爲津液之府.	手太陰，是經與大腸手陽明經，合爲傳送之府	足太陰，是經與胃足陽明經，合爲水穀之府

145) 원래 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만, 편의상 표로 만들었다.

心經講錄合編 第二篇

〈命門〉【相火之位，與腎相對，分左右，手厥陰，是經與三焦·手小陽經，合爲諸氣之府.】【已上出《脈經》.】¹⁴⁶⁾

天 地 六 位 臟 象 之 圖						
屬 上 二位 天 屬	太虛	金 金火 合德	金主清	肺 上焦象天	下絡 大腸	肝·心·脾· 肺·腎，皆 屬陰五臟 也；膽·胃· 三焦·膀 胱·大腸· 小腸，皆屬 陽六腑也。 【已上出《本 草發揮》.】
	天面	火	君火主熱	心包絡	下絡 小腸	
屬 中 二位 人 屬	風雲 之路	木 木火 合德	風木主濕	肝中焦 象人	下絡 膽經	
	萬物 之路	火	相火主極 熱	膽次		
屬 下 二位 地 屬	地面	土 土水 合德	濕土主涼	脾 下焦象地	下絡 胃	
	黃泉	水	寒水主寒	腎 黃泉	傍絡 膀胱	

〔精〕陰之精英，有形者也。

146) 원래 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만, 편의상 표로 만들었다.

〔腎〕 콩팥. 五事屬貌. 〔神〕 陽, 無形, 故垂氣出入.
〔心〕 념통. 五事屬言. 〔魂〕 神也, 陽也, 氣也.
死則魂氣歸於天.

〔肝〕 五事屬視. 〔魄〕 物生始化, 曰魄. 受形之初, 精血之聚, 其間有靈, 名曰魄. 精也, 陰也. 死則體魄復于地. 【批云: “此段記得參差無倫序. 似非出於某所稽考, 去之可也.” ○先生《啓蒙傳疑》曰: “‘既生魄, 陽曰魂’, 見《左傳·昭公七年》. 按: 朱子說云: ‘陰陽之交, 天一生水, 物生始化曰魄. 既生魄, 【句】煖者爲魂.’ 又云: ‘既生魄, 陽曰魂, 謂纔有魄便有魂, 自初受胞胎時已具足矣.’ 今按: 獨陰不成, 未有無陽而徒陰爲魄之理, 故纔有魄, 便有煖氣在裏許, 卽是魂.”】

〔○肺〕 부하. 五事屬聽.

〔脾〕 마라. 五事屬思.

〔○《韻會》云: 胃·小腸·大腸·膀胱〕 氣之所生, 下氣象天. 故滿而不實, 實而不滿, 此正腑也.

〔膽·三焦〕 147) 非正腑也. 【上焦, 心下上鬲, 在胃上口, 主內而不出. 中焦, 在胃中脘, 不上不下, 主腐熟水穀. 下焦, 在膀胱上口, 主出而不內, 以傳道. 三者, 水穀之道路, 氣之所終始也.】

〔只管〕 혼글ㄴ타. 148)

147) 膽三焦: 《質疑》에는 앞의 ‘臟腑’ 조목 아래의 ‘臟腑’와 命門에 대한 설명에서 이 조목까지가 없다.

148) 혼글ㄴ타: 《質疑》에는 ‘猶言一向一切也.’로 되어 있다.

【擊鼓訟冤】 李錄云：“宋時王宮近處，置登聞鼓，有私¹⁴⁹⁾冤者，則擊之而訟其冤。”

【解說【止】定分】 解，猶知也。亦知說道禽獸之一飲一啄，自有定分。

【小小】¹⁵⁰⁾ 적적.

【鼎鑊】¹⁵¹⁾ 李錄云：“鑊¹⁵²⁾，釜也。”

【信不及】 信道하기늘 믿디 못흔지라.¹⁵³⁾ ○¹⁵⁴⁾於聖賢¹⁵⁵⁾之言，能信而篤守，曰‘信得及’。

【黃氏撰行狀】 李錄云：“問：“爲學”下“窮理”上，脫“主敬以立其本”六字，何耶？若脫此，則恐不合先生之本學.¹⁵⁶⁾’批云：‘程公去此一句，恐非也。’”

149) 私：《質疑》에는 없다.

150) 小小：《質疑》에는 없다.

151) 鼎鑊：《質疑》에는 ‘鑊’로 되어 있다.

152) 鑊：《質疑》에는 없다.

153) 信道하기늘……못흔지라：《質疑》에는 ‘言信道不及也.’로 되어 있다.

154) ○：《質疑》에는 없다.

155) 聖賢：《質疑》에는 ‘聖人’으로 되어 있다.

156) 若脫此……本學：《質疑》에는 없다.

16 〈禮樂不可斯須去身章〉

〔君子曰〕 《左傳》亦多有之. 其意謂¹⁾, 當時正人君子之言, 如此云云²⁾也.

〔直〕 直截無邪曲之謂. 《語》訓“溫良”, 曰‘易直’.

〔中心〕 批云³⁾: “〈記〉作心中.”

〔顏色〕 指顏面而言.

〔容貌〕 舉一身而言.

〔德輝動於內〕⁴⁾ 和順積中, 英華發外.⁵⁾ ○李錄云: “上只言民不爭不慢而已, 則其效猶淺; 下言民莫不承聽承順, 則其效愈深且⁶⁾遠矣.”

〔錯〕 舉斯而加諸彼.

〈本註〉

1) 其意謂: 《質疑》에는 ‘意’로 되어 있다.

2) 云云: 《質疑》에는 없다.

3) 批云: 《質疑》에는 없다.

4) 德輝動於內: 《質疑》에는 설명이 ‘見原集.’으로 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丁卯】〉(7)에 보인다.

5) 和順積中英華發外: 《艮齋集》에는 없다.

6) 且: 《艮齋集》에는 ‘愈’로 되어 있다.

【孔子】⁷⁾ 批云：“子，當作氏。”○⁸⁾漢孔安國，註五經，唐孔穎達，著《五經正義》，未詳何人之註⁹⁾也。

〈附註〉

【鞭辟近裏】¹⁰⁾ 채터 뵈안 안흐로 갓가이

【切問【止】中矣】 子夏之語. 心存而理熟，故曰‘仁在其中矣.’

【言忠【止】後行】 子張問行【德符於身而行無不達，曰‘行’】¹¹⁾，夫子答之之辭也. ○李錄¹²⁾：“問：‘心學以心中有一物爲非，而曰“言忠信，行篤敬，念念不忘，使參前倚衡”，則莫是偏繫之病否?’ 答¹³⁾曰：‘夫如是， 故程子曰：“不可著意，又不可不著意.”’”

【參】¹⁴⁾ 離坐離立，我往相參，爲參也. 離，兩人相

7) 孔子：《質疑》에는 ‘孔氏’로 되어 있다.

8) 批云……○：《質疑》에는 없다.

9) 註：《質疑》에는 ‘語’로 되어 있다.

10) 鞭辟近裏：《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1) 德符於……曰行：《質疑》에는 없다.

12) 李錄：《質疑》에는 없다.

13) 答：《質疑》에는 없다.

14) 參：《質疑》에는 설명이 ‘《曲禮》“離坐離立，毋往參焉”註：“兩相麗之謂離，三相成之謂參.”’으로 되어 있다.

對也.

〔衡〕¹⁵⁾ 명에.

〔質美者〕 如顏子, 是也.

〔明得盡〕¹⁶⁾ 格物以盡其理. ○李錄云¹⁷⁾: “明屬知, 知之明也.”

〔渾化却〕 李錄云: “言查滓渾化而無也. 查滓渾化, 乃行之之效. 却, 語助辭. 俗讀云‘却與天地’云云, 非是.”

〔天地同體〕¹⁸⁾ 有理無欲, 乃與天地同其體.

〔莊敬〕 李錄云: “言¹⁹⁾莊主容, 敬主心. 然互相看乃²⁰⁾得.”

〔○《論語》本主小註〕²¹⁾ 切問近思之下, 曰“此致知之鞭辟近裏着己者”; 倚於衡以下, 曰“此乃力行之鞭辟近裏着己者.”

15) 명에 : 《質疑》에는 ‘車輒’으로 되어 있다.

16) 明得盡 : 《質疑》에는 아래 ‘渾化却’ 조목과 함께 ‘明得盡○渾化却’으로 되어 있고, 설명이 ‘見《語》錄’으로 되어 있다. 관련 내용이 《艮齋集》續集 권1 〈論語質疑〉에 나온다.

17) 格物以……李錄云 : 《艮齋集》에는 없다.

18) 天地同體 :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9) 李錄云言 : 《質疑》에는 없다.

20) 乃 : 《質疑》에는 ‘亦’으로 되어 있다.

21) 論語本主小註 : 이것은 앞의 조목 본문의 일부로 볼 수도 있다.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皆是〕²²⁾ 批云：“‘皆是’，《語類》作‘皆不是’。”

〔李端伯〕 名籲，字端伯。²³⁾ 緱氏人。元祐中，爲祕書省校書郎。嘗記二先生語一篇，號師說。伊川見而稱之，而其祭公文，亦有傳學之語。朱子亦云：“所記宏肆。”【出《淵源錄》。】

〔日怠惰一日〕²⁴⁾ 날마당 혼날에서 더怠惰하느니.

〔耐〕 猶忍也。

〔做許多模樣〕²⁵⁾ 李錄云：“許多하 模樣乙 做ッヒタ 道ッヒヒ.” ○因論‘惡人做好事’云云處，先生謂曰：“道人做許多模樣，公其不免此謗也。某見己卯之人見敗，當時雖欽慕不能已，已自念鄉居無所問學。故年二十二，當諸人慘酷之後，奮然上京，居館下齋。中心所存，不能不見於外，人多惡之，誣謗不已。勢難相容，居二朔而出來，其謗至今不絕，以致如此。公之儀容，某初見言之，公多改之。然衆人之中，觀瞻異於他人，不

22) 皆是：《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23) 字端伯：《質疑》에는 없다.

24) 日怠惰一日：《質疑》에는 설명이 ‘猶言日日怠惰甚於一日也.’로 되어 있다.

25) 做許多模樣：《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困論此段，謂李咸亨曰：“做許多模樣，公其不免此謗也。某年二十三，居館下齋，中心所存，不能不見於外，人多惡之，誣謗不已。勢難相容，居二朔而出來，其謗至今不絕。見公在衆人之中，觀瞻異於他人。如掩口之事，此古人負劍辟咷詔之禮，非學書時事也。不須如此做模樣。未知公在京做如此容儀否？今若歸京，人必目之曰：‘某往見某而來，如此做模樣。’豈徒公之難容，以予爲口實，不可恧地異於人也。”’로 되어 있어，《講錄》의 기록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可如此，須加意速改。掩口之事，此古人負劒辟咎詔之，童子恐其口氣上觸尊者，故爲之耳，非學書時也，不須如此做許多模樣。居於僻鄉，猶難容，況於京華衆人處乎？但未知公在京，如此做容儀否？今若歸京，人必目之曰：‘某往見某而來，如此做許多模樣。’豈徒公之難容？以余爲口實，不可恁地異於人也。雖不恁地做，所學何所不至？公見余孫安道乎？不作異衆之行，館中指目而嘵嘵，其友人亦與安道同而至斥爲小人。不甚異而猶如此，況公乎？切宜慎之。”

〔到得自棄底〕²⁶⁾ 李錄云：“ㅍ. 自棄^ㅍ到得^ㅎ야는.”

〔任爾〕 爾，音^니²⁷⁾，汝也。秦人呼傍²⁸⁾人之稱。○李錄云²⁹⁾：“言네 아므레나 호믈 任^ㅎ라 ^ㅎ느니.”³⁰⁾

〔有是〕³¹⁾ 批云：“이러니도 이시며.”

〔退産〕³²⁾ 批云：“退産之說，又見《語類》百二十

26) 到得自棄底：《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猶言至如自棄者云’으로 되어 있다.

27) 니：《質疑》에는 ‘爾’로 되어 있다.

28) 傍：《質疑》에는 ‘旁’으로 되어 있다.

29) ○李錄云：《質疑》에는 없다.

30) 言네아므……호느니：《質疑》에는 ‘言任汝作爲而已.’로 되어 있다.

31) 有是：《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32) 退産：《質疑》에는 아래 ‘批退’ 조목과 합하여 ‘退産【止】批退’로 되어 있고, 설명도 ‘中原人買賣，必呈官，方許以賣買。或有人呈官受批而後又告之曰，“某不欲買，願批退帳，待別人之買也。”批，題給也，帳，俗所謂所志也。○《語類》：“如人交易，情願批退，今人情願批退學問底多.”’로 되어 있다.

一第十二板，云：‘如人交易_厓 情願批退帳【情願又 帳_厓 批_{호야} 退_ㅍ也지라 ㅍ古.】 待別人典買. 今人情願批退學底多.’【此_ㅍ 廖謙錄_ㅍ五, 《註》中本語, 襲蓋卿錄.】 ○襲蓋卿, 常寧人. 以明經擢第, 卽往師朱文公, 明義理之學. 入諫垣爲右正言, 以直道事君. 名夢錫.【出《一統志》.】 ○廖謙, 字益仲. 登第. 朱門例門人.

【批退】 中原人賣買, 必呈官而許以賣買. 或有人呈官受批而後, 又告之曰: “某不欲買, 願批退帳, 待別人之買也.”【帳, 如俗所謂訴志也, 乃當初交易之訴志也.】

【批】 33) 더기다.

【李季修】 無出處. 必南軒門人.

【嚮晦宴息】 隨之象曰: “澤中有雷, 隨. 君子以嚮晦入宴息.” 隨卦, 震下雷, 兌上澤.³⁴⁾ 雷藏澤中, 自養也. 君子取其象, 當暮夜向晦³⁵⁾之時, 入而安處, 以自息養焉. 蓋靜之所養深厚, 則動之所發自能盛大而輝光. ○先生曰³⁶⁾: 申沃³⁷⁾, 以李季修³⁸⁾之言爲是, 以南軒

33) 批: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34) 隨卦震下雷兌上澤: 《質疑》에는 없다.

35) 暮夜向晦: 《質疑》에는 ‘暮晦’로 되어 있다.

36) 先生曰: 《質疑》에는 없다.

37) 申沃: 《質疑》에는 ‘申啓叔’으로 되어 있다.

38) 李季修: 《質疑》에는 ‘季修’로 되어 있다.

之言爲非. 某反覆曉諭, 終不回意. 歸京, 書示三數, 自信己見. 某又以‘君子終日乾乾, 夕惕若’·‘不愧屋漏, 謹其獨’之語, 引以諭之, 且曰‘夜處雖不爲奉祭祀見賓客之際, 敬之體段殊異, 亦不可棄而不做功’, 并示西山〈夜氣箴〉而后³⁹⁾, 啓叔乃回意.⁴⁰⁾ ○李錄云: “〈夙興夜寐箴〉曰: ‘夜久斯寢, 齊手斂足, 不作思惟, 心身歸宿.’ 卽此義也.”⁴¹⁾

〔節孝[止]先生〕⁴²⁾ 批云: “徐仲車·胡翼之.” ○徐績⁴³⁾, 山陽人⁴⁴⁾. 三歲父沒, 事母至孝. 以父名石, 終身不用石器. 母亡, 廬墓三年, 雪夜伏墓側, 哭不絕聲, 時甘露降, 木成連理. 績⁴⁵⁾初從胡瑗學, 惡衣惡食, 不以爲恥. 應舉入都, 載母以從. 北⁴⁶⁾登第, 同年共⁴⁷⁾致

39) 某反覆曉諭……夜氣箴而后: 《質疑》에는 ‘某貽書反覆曉諭’로 되어 있다.

40) 回意: 《質疑》에는 뒤에 ‘○〈答申啓叔書〉略曰: “君子晝居於外, 則終日乾乾, 自強不息; 夜處於內, 則惕厲不欺, 寢亦不尸, 無時而不敬也. 但不欺不尸, 比乾乾不息, 則爲安爲息. 故孔子贊易, 發此隨時之義, 非謂此時可不以敬而惟安之求也. 〈夜氣箴〉, 旣說‘必齊其心, 必肅其躬’, 然後乃曰: ‘安其身, 所以爲朝聽書訪之地.’ 〈夜寐箴〉, 旣說‘振拔精明, 齊手斂足’, 然後乃曰: ‘養以夜氣, 貞則復元.’ 今以此等揆之, 嚮晦之後, 果不復用敬耶云云.”이 있다.

41) ○李錄云……卽此義也: 《質疑》에는 없다.

42) 節孝[止]先生: 《質疑》에는 ‘節孝徐公’과 ‘安定胡先生’의 두 조목으로 나누어 편성하였다.

43) 批云……徐績: 《質疑》에는 ‘名績’으로 되어 있다.

44) 山陽人: 《質疑》에는 앞에 ‘字仲車’가 있다.

45) 績: 《質疑》에는 ‘積’으로 되어 있다.

46) 北: 《質疑》에는 ‘比’로 되어 있다.

47) 共: 《質疑》에는 없다.

百金爲壽，【金曰：“北，恐比字。”】却之。後廷臣薦其孝廉，爲楚州教授。卒諡節孝。【出《一統志》。】

○胡瑗⁴⁸⁾，泰洲。⁴⁹⁾【《名臣錄》作洲，而《小學》註作州。當從《小學》也。】⁵⁰⁾累舉不第，以范文正薦，官至太常博士。布衣時，與孫明復·石守道，同讀書泰山，攻苦食淡，終夜不寢，一坐十年不歸，得家問，見上有平安二字，卽投之澗中，不復展讀。【出《名臣言行錄》。】

《造次》⁵¹⁾ 急遽苟且之時。

《顛沛》⁵²⁾ 顛覆流離之際。

《元城劉》⁵³⁾ 批云：“安世。”

《曹操遺令事》 略曰⁵⁴⁾：“曹操臨終，召宮人，分香屨，與之，令賣以資生曰：‘吾死，汝等可於銅雀臺對陵處，朝夕瞻望歌舞云云。’他人讀之，不識其情。溫公讀而識其詐曰：‘曹操生時，出警入蹕，已行天子事，篡漢已久，但畏天命而⁵⁵⁾憚惡名，故臨終，以此欺天罔人，

48) ○胡瑗：《質疑》에서는 ‘安定胡先生’이라는 별도의 조목을 두었으며, 설명은 ‘名瑗, 字翼之.’로 시작한다.

49) 泰洲：《質疑》에는 ‘泰州人’으로 되어 있다.

50) 名臣錄作洲，而小學註作州。當從小學也：《質疑》에는 없다.

51) 造次：《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52) 顛沛：《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53) 元城劉：《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54) 略曰：《質疑》에는 없다.

欲以免誅於後世也. 蓋以已爲天子, 則宮人之存活, 非所憂也. 故設矯詐如此.⁵⁶⁾”

【誠之者】⁵⁷⁾ 批云: “按《性理大全》, 誠之下有至字.”

【蕩】⁵⁸⁾ 批云: “蕩, 一作僞.”

【則是】⁵⁹⁾ 批云: “《小學》, ‘則’下有‘渾’字”

【一團】⁶⁰⁾ 李錄云: “一團, 猶⁶¹⁾一段. 但一段, 以分爲各段而言; 一團, 以合爲一圓而言.”

【煞用】⁶²⁾ 李錄云: “煞音쇄, 言マ장, 殺字之俗.”

【藍田】⁶³⁾ 批云: 呂大臨 與叔. ○大忠弟. 學於程頤, 與謝良佐·游酢·楊時, 在程門號四先生. 通六經, 尤邃於禮. 所著有〈克己銘〉諸篇. 元祐中, 爲祕書正字. 【以上出《一統志》.】 ○朱子嘗稱其文子說得好, 如千兵萬

55) 而: 《質疑》에는 없다.

56) 如此: 《質疑》에는 뒤에 ‘云’이 있다.

57) 誠之者: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58) 蕩: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59) 則是: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60) 一團: 《質疑》에는 설명이 ‘見原集.’으로 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丁卯】〉(7)에 보인다.

61) 猶: 《艮齋集》에는 ‘猶言’으로 되어 있다.

62) 煞用: 《質疑》에는 ‘煞’로 되어 있고, 설명이 ‘殺同, 去聲, 最也, 另也.’로 되어 있다.

63) 藍田: 《質疑》에는 ‘呂氏’로 되어 있고,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卽與叔. 見上.’으로 되어 있다.

馬，飽滿伉壯。

【翟霖】無出處。

【遷西】⁶⁴⁾ 李錄云：“謫涪州之⁶⁵⁾時。”

【椅】中原人，坐必設椅。○問：“轉椅者，指先生所坐之椅與⁶⁶⁾？若以爲霖坐，則於先生前，亦可設椅而坐乎？”先生答云⁶⁷⁾：“霖之坐椅，故令轉之。蓋彼時坐，皆用椅故也。”○⁶⁸⁾又曰：“先賢見似人者，不忽如此，而近間晉州士人，曳佛像斬頭，其可乎？”咸亨對曰：“開城府儒生，於松岳，亦恁他以發其私憤。”先生深歎士風之日非。

【豈以】李錄云：“豈⁶⁹⁾，豈不也。”

【因賞】⁷⁰⁾ 李錄云：“賞，謂玩味而嘉尚之也。⁷¹⁾”

【緱氏】山名，地亦有此名。⁷²⁾ 疑⁷³⁾在龍門，距洛陽

64) 遷西：《質疑》에는 ‘西遷’으로 되어 있다.

65) 之：《質疑》에는 없다.

66) 與：《質疑》에는 ‘歟’로 되어 있다.

67) 先生答云：《質疑》에는 ‘曰’로 되어 있다.

68) ○：《質疑》에는 없다.

69) 李錄云豈：《質疑》에는 없다.

70) 因賞：《質疑》에는 ‘因賞此語’로 되어 있다.

71) 尚之也：《質疑》에는 뒤에 ‘蓋龜山賞伊川語.’로 되어 있다.

72) 地亦有此名：《質疑》에는 ‘又地名’으로 되어 있다.

73) 疑：《質疑》에는 없다.

近, 故程先生每往焉.⁷⁴⁾

【拘迫】⁷⁵⁾ 李錄云: “如拘繫, 則氣體勞傷生厭苦; 太迫切, 則心神煩促而不寧帖, 所以難久也.”

【朱公揆】⁷⁶⁾ 批云: “光庭”⁷⁷⁾ ○⁷⁸⁾景之子. 十歲能屬文辭. 父蔭舉進士, 調萬年主簿數攝邑令乙 人以明鏡稱. 元祐間, 爲諫官有聲言路, 以集賢院學士又 知潞州ッ ヲ. 光庭⁷⁹⁾從程顥⁸⁰⁾學. 嘗學於胡瑗, 瑗告以爲學之本在於忠信, 終身行之.【出《一統志》.】⁸¹⁾

【梶】 창살간니라.⁸²⁾

【陳才卿】 批云: “陳文蔚.”⁸³⁾ ○⁸⁴⁾上饒人. 號克齋.⁸⁵⁾ 朱子⁸⁶⁾門人. 講學鉛山. 著書立言, 得其師旨,

74) 距洛陽……每往焉: 《質疑》에는 없다.

75) 拘迫: 《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見原集.’으로 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丁卯】〉(7)에 보인다.

76) 朱公揆: 《質疑》의 설명에는 구결 표기가 없다.

77) 批云光庭: 《質疑》에는 ‘名光庭’으로 되어 있다.

78) ○: 《質疑》에는 없다.

79) 光庭: 《質疑》에는 없다.

80) 程顥: 《質疑》에는 ‘明道’로 되어 있다.

81) 出一統志: 《質疑》에는 본문으로 되어 있다.

82) 창살간니라: 《質疑》에는 ‘窓梶’으로 되어 있다.

83) 批云陳文蔚: 《質疑》에는 ‘名文蔚’로 되어 있다.

84) ○: 《質疑》에는 없다.

85) 號克齋: 《質疑》에는 뒤에 ‘又號北山’이 있다.

86) 子: 《質疑》에는 없다.

旨趣.⁸⁷⁾ 高風雅操，爲鄉邦所共仰。卒祠于學。【出《一統志》。⁸⁸⁾ ○號北山。⁸⁹⁾

【筭】 批云⁹⁰⁾：“筭，竹洽切，刺著也。從漢音讀故曰福。⁹¹⁾”

【憤】 憤⁹²⁾，與忿字少⁹³⁾不同。【性之發也。⁹⁴⁾ 《論語》“不憤不啓，不悱不發⁹⁵⁾”註：“憤，心求通而未能之謂；悱，口欲言而未能之謂。⁹⁶⁾”當以此憤字看。

【請少節之】 請少損節⁹⁷⁾接待以養神也。

【廖晉卿】 未詳其名。

【九容】 批云⁹⁸⁾：“足容重，手容恭，目容端，口容止，聲容靜，頭容直，氣容肅，立容德，色容莊。”

【辨姦論】 批云：“蘇老泉作〈辨姦論〉。” ○且朱子

87) 旨趣：《質疑》에는 없다.

88) 出一統志：《質疑》에는 본문으로 되어 있다.

89) ○號北山：《質疑》에는 없다.

90) 批云：《質疑》에는 없다.

91) 故曰福：《質疑》에는 ‘曰差’로 되어 있다.

92) 憤：《質疑》에는 없다.

93) 少：《質疑》에는 ‘小’로 되어 있다.

94) 性之發也：《質疑》에는 본문으로 편집되어 있다.

95) 不悱不發：《質疑》에는 없다.

96) 口欲言而未能之謂：《質疑》에는 없다.

97) 節：《質疑》에는 없다.

98) 批云：《質疑》에는 없다.

與廖晉卿語時，必有如此之語，故告之如此。○〈辨姦論〉⁹⁹⁾，蘇洵¹⁰⁰⁾以王介甫囚首喪面等事爲大姦慝而作。¹⁰¹⁾ 洵別無事業之可紀。然其言論，每主於權謀術數，可知其學之未純。¹⁰²⁾

【陸子壽】批云：“陸九齡，字子壽。”¹⁰³⁾ ○問：“子壽與象山無異歟？”答¹⁰⁴⁾曰：“此人，朱子多與之往復論難，其後頗有改過之語。然終不見盡棄己見處。”○撫州¹⁰⁵⁾ 金谿人。初以學錄，登乾道四年進士第。幼明悟端重，覽書無滯礙，繙閱百家，晝夜無倦。號復齋。【出《言行錄》。】¹⁰⁶⁾

【劉淳叟】未詳其名。¹⁰⁷⁾ 久從先生遊，後來極狼狽，先生每言及，必加斥責。

【後面角頭】所坐後面之隅也。

【學道家打坐】¹⁰⁸⁾ 道家的 안잠앗기늘 學ㅎ거늘.

99) 批云……辨姦論：《質疑》에는 없다.

100) 蘇洵：《質疑》에는 ‘蘇老泉’으로 되어 있다.

101) 作：《質疑》에는 바로 뒤에 ‘辨姦論’이 더 있다.

102) 洵別無事業……未純：《質疑》에는 없다.

103) 批云……子壽：《質疑》에는 없다.

104) 答：《質疑》에는 없다.

105) ○撫州：《質疑》에는 앞에 ‘名九齡’이 있고, ‘○’이 없다.

106) 撫州金谿人……出言行錄：《質疑》에는 ‘問子壽……己見處’ 앞에 편집되어 있다.

107) 未詳其名：《質疑》에는 ‘名堯夫’로 되어 있다.

【某與^{【止】}作怪】 某與陸張¹⁰⁹⁾，其言則不足聽。然年則加於汝數年，何故恣¹¹⁰⁾爲怪耶？

【節飲食】 出《易·頤卦·大象》。

【不會】¹¹¹⁾ 批云：“會，《語類》作曾。”

【葉賀孫】¹¹²⁾ 批云：“葉，字味道。處州人，居溫州，故謂之仙鄉。”【○處州·溫州，歷代沿革，地相出入。以州境有鷹蕩¹¹³⁾·天台兩山爲仙眞窟宅，故謂之仙山·仙鄉。】 ○葉味道，溫州人。刻志古學，師事朱子。嘉定中進士，調鄂州教授。理宗訪問熹之徒，使者以味道聞，授太學博士兼崇政殿說書。開導引益，切於治道。○葉賀孫，龍泉人。蚤從朱子游。宦至校書郎。嘗編輯《朱文公語錄》。卒諡文修。學者稱爲西山先生，祠於學。【以上出《一統志》。】 ○問：“咸亨所錄本云：‘或止稱葉，字味道而或以字行，乃括倉葉氏也。’觀此《一統志》所紀，葉似有二人，而先

108) 學道家打坐：《質疑》에는 설명이 ‘謂學道家坐法也.’로 되어 있다.

109) 張：《質疑》에는 ‘丈’으로 되어 있다.

110) 恣：《質疑》에는 ‘姿’로 되어 있다.

111) 不會：《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12) 葉賀孫：《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字味道. 處州人, 居溫州. 刻志古學, 師事朱子. 嘉定中進士, 調鄂州教授. 理宗訪問熹之徒, 使者以味道聞, 授太學博士兼崇政殿說書. 開導引益, 切於治道. 嘗編輯《朱文公語錄》. 卒諡文修. 學者稱爲西山先生, 祠於學.【出《一統志》.】 ○一本【止】稱葉. 字味道而或以字行, 乃括倉葉氏也. 觀《一統志》有“溫州葉味道, 龍泉葉賀孫, 而《宋史》有本傳云云”, 此非二人, 所記不同.’으로 되어 있다.

113) 鷹蕩：今案：《質疑》의 아래 조목의 설명을 참조하면 ‘雁蕩’을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生云‘或以字行’者，如何？敢請益。”批云：“《宋史》‘有本傳云云’，此非二人，所記不同耳。”

〔公仙鄉人〕言非止賀孫之言如此，其仙鄉人，語勢多類此低微，故先生云：‘公之仙鄉人，何故多如此耶？’

○李錄云：“公의 仙鄉애 人이.”¹¹⁴⁾

〔都恁地〕¹¹⁵⁾ 李錄云：“吐也.”

〔下稍〕¹¹⁶⁾ 批云：“稍¹¹⁷⁾當从木.¹¹⁸⁾ ○내중애.”

〔含含糊胡〕甚稱不分明之謂.¹¹⁹⁾ 如鶻鶻¹²⁰⁾突突之謂. ○糊塗【音鶻】突，亦不分明之謂.【金曰，“音字未詳.”】¹²¹⁾

〔縮著〕¹²²⁾ 움치다.

〔舉止模樣〕¹²³⁾ 李錄云：“이 舉止하는 模樣이 안닌 듯하다. 舉止模樣，猶言動止之儀則也.”

114) 李錄云……人이 : 《質疑》에는 없고, 대신 ‘○處州溫州, 歷代沿革, 地相出入. 以州境有雁蕩天台兩山, 爲仙真窟宅, 故謂之仙山仙鄉.’이라는 설명이 있다. 그런데 《講錄》에서는 이 부분을 앞 조목 설명의 일부(小註)로 편집하였다.

115) 都恁地 :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16) 下稍 : 《質疑》에는 ‘下稍’로 되어 있다.

117) 稍 : 《質疑》에는 ‘稍’로 되어 있다.

118) 从木 : 《質疑》에는 뒤에 ‘下稍, 未終也.’이 있다.

119) 謂 : 《質疑》에는 ‘意’로 되어 있다.

120) 鶻鶻 : 《質疑》에는 ‘鶻鶻’로 되어 있다.

121) 糊塗……未詳 : 《質疑》에는 없다.

122) 縮著 :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23) 舉止模樣 : 《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猶言動止之儀則也.’로 되어 있다.

〔沈敬子〕 未詳.

〔嗒然〕 出¹²⁴⁾《莊子》：“南郭子綦，隱几而坐，仰天而歎，嗒然似喪其耦。”○《韻會》：“嗒然解體¹²⁵⁾【此沈子之言義.】，忘懷也.¹²⁶⁾”【此《莊子》之言義，無心之貌.¹²⁷⁾】”

〔朱季繹〕 未詳.

〔要好之【止】看端也〕¹²⁸⁾ 朱之言，譬之於人，禮以飾其外，務以悅人，而中無其實. 是飾詐要名之類，故黃斥之曰：“自欺也.” 和順積中，英華自發於外；理實於中，節文者見於外. 何專飾其外哉？

〔先正〕¹²⁹⁾ 猶言先賢.

〔自警于於心〕¹³⁰⁾ 批云：“‘於’字，疑衍.”

〔無方〕 無方所也.

〔度數〕¹³¹⁾ 姑以樂言之，如天子八，諸侯五，大夫三，士二. 凡禮亦無不有度數也.

124) 出：《質疑》에는 없다.

125) 解體：《質疑》에는 뒤에 ‘貌’가 있다.

126) 忘懷也：《質疑》에는 ‘又忘懷也’로 되어 있다.

127) 無心之貌：《質疑》에는 없다.

128) 要好之【止】看端也：《質疑》에는 ‘要好【止】端也’로 되어 있고,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季繹之意, 蓋謂從外糊, 使人不見其不齊整. 是掩過匿非之事, 故曰自欺之端.’으로 되어 있다.

129) 先正：《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書》註: “先世長官之稱.”’으로 되어 있다.

130) 自警于於心：《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31) 度數：《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度, 制度; 數, 品數.’로 되어 있다.

《夫禮樂》¹³²⁾ ‘夫’字，語辭．釋曰：“그.”

《猶於污泥》¹³³⁾ 批云：“按《衍義》，無‘猶’下‘於’字．更詳之.”

132) 夫禮樂：《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33) 猶於污泥：《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大學衍義》，無於字.’로 되어 있다.

17 〈君子反情和志章〉

〔比〕¹⁾ 從也.

〔百體〕 舉一身而言.

〈本註〉²⁾

〔孔氏註〕 精切不似³⁾東匯澤 陳氏註，當從陳氏爲是，

〈附註〉⁴⁾

〔張子東銘〕⁵⁾ 此銘人以爲難，略不致思，公母效尤，熟讀精思。○先生又批云：“此初名‘砭愚’。以石爲針，治病謂之砭，以此銘治去愚病，故名之曰‘砭愚’。又以〈西銘〉爲‘訂頑’。人手足被風濕，氣血不得流通，則

1) 比：《講錄》에는 이 조목이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2) 本註：《講錄》에는 이 분류명이 빠졌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3) 似：《質疑》에는 ‘如’로 되어 있다.

4) 附註：《講錄》에는 이 분류명이 빠졌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5) 張子東銘：《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初名“砭愚”．以石爲鍼治病，謂之砭，以此銘治去愚病，故曰“砭愚”．又以〈西銘〉爲“訂頑”．人手足被風濕，氣血不得流通，不知痛痒，亦謂之頑．〈西銘〉言仁體，使人去私心通物我，是訂正其頑也，故名之曰“訂頑”．伊川以爲以此名之，則是起辨爭之端，改名以“東·西銘”．’으로 되어 있다.

不知痛痒，謂之頑痺。不仁之人，物我不通，亦謂之頑。
〈西銘〉一書，明仁體，使人去私心·通物我，是訂正其頑也。故名之曰‘訂頑’。伊川以爲以此名之，則是起辨爭之端，改名以‘東·西銘’。”○《西銘考證》曰：“二言皆頗隱奧，將致學者辨詰紛然之弊。故程子以爲啓爭端，而改之爲〈東銘〉·〈西銘〉云。”

【或者】⁶⁾ 有甚於前所云者。前面人，以爲‘非己心’，謂‘己當然’而已，猶有可改之望。至此或者，則以之爲‘己戲’，爲‘己誠’，更無可改之意，所以爲甚也。⁷⁾

【反歸咎】⁸⁾ 批云：“《近思錄》·《性理大全》，皆無反字者，是。”

【持氣】李錄云：“問：⁹⁾‘不言持志，而曰持氣者，何歟？’答：¹⁰⁾曰：‘《孟子》曰“持其志，無暴其氣”云者，所以明其¹¹⁾氣亦不可不持也。此處¹²⁾言戲言·戲動，故以氣言，非別有他意也。’”

6) 或者：《質疑》에는 ‘或者以下’로 되어 있다.

7) 也：《質疑》에는 없다.

8) 反歸咎：《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9) 李錄云問：《質疑》에는 없다.

10) 答：《質疑》에는 없다.

11) 其：《質疑》에는 없다.

12) 處：《質疑》에는 없다.

〔云爾〕¹³⁾ 이리 니르문.

〔何邪〕¹⁴⁾ 字同而義不同，則變音，爲他【去·上】·邪【入·平】之類。他倣此。文·義俱絕爲句，意不絕而文絕爲讀。

〔武公〕 衛武公。出《詩·衛風》。

〔百日【止】之澤〕 《禮記》¹⁵⁾，孔子與子貢¹⁶⁾觀於蜡，孔子曰：“賜也，樂乎？”對曰：“一國之人，皆若狂，未知其樂也。”子曰：“百日之蜡¹⁷⁾ 一日之澤¹⁸⁾ 非爾所知也。張而不弛，文·武不能也；弛而不張，文·武不爲也。一張一弛，文·武之道也。”○古者，歲前卜日，行蜡祭于里社及國都社稷【蜡，百物之神。】其日，許民以燕樂。○李錄云：“先王憫其民終歲勞苦，至是日，許之以燕恣其歡樂。故言‘百日之蜡、¹⁹⁾ 一日吾君之澤’云也。戲謔，亦民之燕樂。²⁰⁾”

〔時志〕 批云²¹⁾：“時志上下，疑有闕誤。”

13) 云爾：《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4) 何邪：《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5) 禮記：《質疑》에는 ‘《記·雜記》’로 되어 있다.

16) 子貢：《質疑》에는 ‘子貢’으로 되어 있다.

17) 𦏧：《質疑》에는 없다.

18) 乚：《質疑》에는 없다.

19) 丶：《質疑》에는 없다.

20) 戲謔……燕樂：《質疑》에는 없고, ‘百日, 泛言終歲日數之多也.’가 있다.

〔諉〕 托辭.

〔巧言令色〕 堯之所惡²²⁾, 出〈皋陶謨〉. 孔子曰²³⁾:
“巧言令色, 鮮矣仁.”【專言鮮, 則絶無可知.】²⁴⁾

〔禮曰〕²⁵⁾ 記孔子語.

〔聖人所謂〕²⁶⁾ 孔子語也, 出《論語》.

〔訐以爲直〕 訐, 居謁切, 攻發人之陰私.

〔內荏〕 荏, 柔²⁷⁾也, 內屈於物欲也.

〔鄙〕 凡陋.

〔倍〕 背理.

〔柔嘉〕²⁸⁾ 아름답다.

〔進乎此者〕 此指上面所謂“遜以出之云云”, 仲山甫
之德行²⁹⁾, 加³⁰⁾乎此者.

〔淫〕³¹⁾ 過也.

21) 批云: 《質疑》에는 없다.

22) 堯之所惡: 《質疑》에는 없다.

23) 孔子曰: 《質疑》에는 ‘《論語》亦曰’로 되어 있다.

24) 專言……可知: 《質疑》에는 없다.

25) 禮曰: 이 조목은 《講錄》에는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26) 聖人所謂: 《質疑》에는 이 조목이 ‘聖人【止】怡怡如也’로 되어 있고, 설명은 ‘并見《論語》.’로 되어 있다.

27) 柔: 《質疑》에는 ‘柔弱’으로 되어 있다.

28) 柔嘉: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29) 德行: 《質疑》에는 ‘德’으로 되어 있다.

30) 加: 《質疑》에는 ‘進’으로 되어 있다.

《又曰詳考條》³²⁾ 此朱子答呂伯恭書，而篁墩以爲南軒說。

《從古》³³⁾ 네로브터. 猶言‘自古而至今也’. ○又古之所終曰‘終古’.

《其中》³⁴⁾ 批云：“‘其’字，疑衍.”

《東匯澤》³⁵⁾ 〈禹貢〉：“東匯澤，爲彭蠡.”【水之所聚渟而不流曰‘匯’.】○陳澧注《禮記》，疑此人。

《比》³⁶⁾ ‘比’，從也。

31) 淫：《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32) 又曰詳考條：이 조목은 《講錄》에는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33) 從古：《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34) 其中：《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35) 東匯澤：《質疑》에는 ‘東匯澤陳氏’로 되어 있고, 설명이 ‘名晬. 註《禮記》.’로 되어 있다.

36) 比：《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8 〈君子樂得其道章〉

【樂而不亂】¹⁾ 樂하야 亂티 아니코

〈附註〉²⁾

【因何【止】頭來】 므슴 일로 因하야서 오라도록 므
츨내 머리를 도로혀디 아니하느뇨.³⁾ 蓋其意謂，才
質之美如此，可惜無⁴⁾少貶以從俗，此爲⁵⁾未盡善耳.

【蘇子瞻】 蘇軾⁶⁾，老泉之長子. 中進士第，再中制科
優等，事仁宗·英宗·神宗·哲宗，官至禮部尙書. 大夫人
嘗讀范滂傳，慨然太息，公侍側曰：“某若爲滂，夫
人亦許之否乎?”【出《言行錄》.】

【打破這敬字】⁷⁾ 敬有甚形影而可欲打破? 正指其人，
而言欲打去班列之意耳.

1) 樂而不亂：《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2) 附註：《講錄》에는 이 분류명이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3) 므슴……아니하느뇨：《質疑》에는 없다.

4) 無：《質疑》에는 ‘其不’로 되어 있다.

5) 爲：《質疑》에는 없다.

6) 蘇軾：《質疑》에는 ‘名軾’으로 되어 있다.

7) 打破這敬字：《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王信伯】批云⁸⁾：“王蘋，程門人。○平江人。⁹⁾ 賜進士出身，除祕書正字，終台州崇道觀致仕。七十二¹⁰⁾，設教作怪。【出《淵源錄》。】

【秦少游】東坡門人。¹¹⁾ 能詩，有輕佻之譏。

【天若【止】天瘦】天슬 만일 알딘덴 쏘흔 天이조차瘦히리라.¹²⁾ 人¹³⁾吉凶·禍福¹⁴⁾，未可預知，故無求於天。若知之，避害·趨利，祈告於天，天亦隨而瘦。此是侮天之語，猶東坡題僧伽塔曰：“【淮水過舟者到此，祈得順風以行，】¹⁵⁾ 耕田欲雨艾¹⁶⁾欲晴，去得順風來者怨”云云。¹⁷⁾ 每到有求，神亦倦之意耳。

【詞】¹⁸⁾ 歌詞。

【上穹】天也。

【侮】¹⁹⁾ 브더니 녀기다。

8) 批云：《質疑》에는 없다.

9) 王蘋……平江人：《質疑》에는 ‘名蘋. 平江人. 程門人.’으로 되어 있다.

10) 七十二：《質疑》에는 앞에 ‘壽’가 있다.

11) 東坡門人：《質疑》에는 앞에 ‘名觀’이 있다.

12) 天슬……瘦히리라：《質疑》에는 없다.

13) 人：《質疑》에는 앞에 ‘言’이 있다.

14) 禍福：《質疑》에는 ‘禍福’으로 되어 있다.

15) 淮水……順風以行：《質疑》에는 없다.

16) 艾：《質疑》에는 ‘刈’로 되어 있다.

17) 云云：《質疑》에는 없다.

18) 詞：《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駢然〕 面赤貌.

〔留連〕²⁰⁾ 《孟子》曰: “從流上而忘返謂之流【與留同.】, 從流下而忘返謂之連.”²¹⁾

〔放之〕 孔子曰: “放鄭聲, 鄭聲淫.”²²⁾

〔武夷〕²³⁾ 胡氏 安國²⁴⁾, 字康侯. 崇安人. 紹興中進士. 高宗時, 以張浚薦, 除中書舍人兼侍講²⁵⁾, 先²⁶⁾獻時政論二十一篇. 尋以疾²⁷⁾求去. 專講《春秋》, 累官至給事中. 謝良佐嘗稱其如大冬嚴雪²⁸⁾, 百草萎死, 而松柏獨秀. 諡文定.【出《言行錄》.】 以其居近武夷, 故謂之武夷 胡氏.

〔公孫【止】氏也〕²⁹⁾ 魯宗室, 有仲孫·叔孫·季孫, 公孫, 乃仲孫敖也. 公子慶, 將親迎於莒【莒君, 姓己.】, 公

19) 侮: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20) 留連: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21) 孟子曰……謂之連: 今案: 동행 《孟子·梁惠王下》에는 “從流下而忘返謂之流, 從流上而忘返謂之連”으로 되어 있다. 《講錄》을 傳寫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것으로 추정된다.

22) 鄭聲淫: 《質疑》에는 없다.

23) 武夷: 《質疑》에는 ‘武夷胡氏’로 되어 있다.

24) 胡氏安國: 《質疑》에는 ‘名安國’으로 되어 있다.

25) 兼侍講: 《質疑》에는 없다.

26) 先: 《質疑》에는 없다.

27) 疾: 《質疑》에는 ‘病’으로 되어 있다.

28) 雪: 《質疑》에는 ‘霜’으로 되어 있다.

29) 公孫【止】氏也: 《質疑》에는 ‘公孫【止】己氏’로 되어 있다.

孫敖以使往周。慶使敖率己氏而來。敖及見，悅其美，遂娶³⁰⁾焉。溺愛不往周，又不還魯。魯人責之，敖不得已來魯。後不忘己氏，奔莒。

【目之【止】美焉】³¹⁾ 出《孟子》。同美，釋云：“헉가 지로 아름답다.”³²⁾

【於敖與何誅】³³⁾ 敖의게 엇디 足數헉야 責헉리오 만는.

【致堂】³⁴⁾ 胡氏寅³⁵⁾，字明仲。安國弟之子。少桀黠難制，安國閉之空閣。其上有雜木，寅盡刻爲人形。安國乃置書數千卷於上，年³⁶⁾餘，寅悉成誦。遂登進士。靖康初，召爲校書郎，又從楊時學。累遷起居郎，後爲秦檜所惡³⁷⁾，謫新州。世稱致堂先生。【出《一統志》。】³⁸⁾ ○安國同生妾子也。始生，其母將棄之，已在釜中，安國夫人夢見大魚躍釜中，覺而覓取之，養爲己子。蓋中原

30) 娶：《質疑》에는 ‘通’으로 되어 있다.

31) 目之【止】美焉：《質疑》에는 ‘目之同美’로 되어 있다.

32) 同美……아름답다. : 《質疑》에는 없다.

33) 於敖與何誅：《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34) 致堂：《質疑》에는 ‘致堂胡氏’로 되어 있다.

35) 胡氏寅：《質疑》에는 ‘名寅’으로 되어 있다.

36) 年：《質疑》에는 ‘歲’로 되어 있다.

37) 惡：《質疑》에는 ‘忤’로 되어 있다.

38) 出一統志：《質疑》에는 본문으로 편집되었다.

嫡庶之分，與我東異，庶子亦爲士．故宏等以爲兄，安國卒，執喪如親喪．

【無量】 世³⁹⁾以謂⁴⁰⁾飲之無限，非是．不以幾器爲限量，惟適於氣而已耳．⁴¹⁾

【班伯】 批云：“班伯⁴²⁾，彪之叔父．此伯⁴³⁾諫成帝之語，見〈叙傳〉．”

【覺知】 批云：“覺知⁴⁴⁾，《禮記大全》作知覺．”

39) 世：《質疑》에는 ‘世儒’로 되어 있다.

40) 以謂：《質疑》에는 ‘以爲’로 되어 있다.

41) 耳：《質疑》에는 없다.

42) 批云班伯：《質疑》에는 없다.

43) 伯：《質疑》에는 ‘班伯’으로 되어 있다.

44) 批云覺知：《質疑》에는 없다.

19 〈人皆有不忍人之心章〉

【所以謂人皆有云云】⁴⁵⁾ 此卽孟子善形容人心統性情者也。○問：“‘有是四端而自謂不能者，自賊者也’，斯已說盡，繼而⁴⁶⁾言‘謂其君不能者，賊其君’，何歟？”答曰：“旁照偶及之耳。然⁴⁷⁾人修己而後，推行之先者，事君也。時人多以爲吾君不能，故孟子嘗言其非，而今發此語，并及之耳。”○又曰：“擴，推而廣之也。充，滿其量也。理無形無限，故仁·義·禮·智之性無限量，其發而爲用，亦無限量。惻隱之發，不但盡其道於一事，於天下之事，所當惻隱者，欲其一一推廣而充滿其無限之量也。羞惡·辭讓·是非亦然，非指惻隱之發一端，只就一端，推而充之也。孟子曰：‘人皆有所不忍，達之於其所忍，仁也。人皆有所不爲，達之於其所爲，義也。人能充無欲害人之心，而仁不可勝用也。人能充無受爾汝之實，無所往而不爲義矣。士未可以言而言，是以言

45) 所以謂人皆有云云：《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質疑》에는 아래 ‘不忍之心’과 ‘惡其聲’, ‘知皆擴充’ 조목과 통합하여 ‘此章條○不忍之心○惡其聲○知皆擴充’라는 제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조목에 대한 설명이 ‘并見《孟》錄.’이라 되어 있다. 관련 내용이 《艮齋集》續集 권1 〈孟子質疑〉에 보인다.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은 《艮齋集》에서는 ‘四端’이라는 표제 아래에 ‘問有是四端……并及之耳’라고 한 부분만 기록되어 있다.

46) 繼而：《艮齋集》에는 ‘而繼’로 되어 있다.

47) 旁照偶及之耳然：《艮齋集》에는 없다.

餽之也，可以言而不言，是以不言餽之也。是皆穿踰之類也.’ 欲知擴充之說，就此等處，仔細看取.” ○批云：“理無限量，惟氣有限量，有形故也.”

【不忍之心】 李錄云：“朱子曰：‘不忍之心，卽惻隱之心.’ 又曰：‘仁包三德，惻隱貫三端，故因此悉舉之.’48)”

【惡其聲】 李錄云：“聲，卽不救之惡聲也，非赤子啼聲也.49)”

【四端】50) 李錄云：“問：‘或以四端爲情，或以七情爲情。情者，性之發也。旣以七爲情，則所謂四者，果何謂邪？’ 人之情有二致歟？” 曰：‘情之發，或主於理，或主於氣.51) 氣之發，七情是也；理之發，四端是也。安有二致而然耶？’ 曰：‘理本無形，若無是氣，則奚有獨發之理乎？’ 曰：‘然.52) 天下無無理之氣，無無氣之理。四端，理發而氣隨之；七情，氣發而理乘之。理而無氣之隨，則做出來不成；氣而無理之乘，則陷利欲而

48) 悉舉之：《艮齋集》에는 뒤에 ‘此章, 孟子善形容心統性情者也.’가 있다.

49) 非赤子啼聲也：《艮齋集》에는 없다.

50) 四端：《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見原集’으로 되어 있다. 해당 내용이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6)에 보인다.

51) 或主於理, 或主於氣：《艮齋集》에는 ‘或主於氣, 或主於理’로 되어 있다.

52) 然：《艮齋集》에는 없다.

爲禽獸。此不易之定理。若渾淪言之，則以未發之中爲大本，以七情爲大用。⁵³⁾ 如程子⁵⁴⁾〈好學論〉·《中庸》首章是也。《孟子》此章⁵⁵⁾，則獨主理而言。⁵⁶⁾ 又問：‘既謂七情四端，又謂之人心道心者，何歟⁵⁷⁾?’ 曰：‘人心，七情是也；道心，四端是也。非有兩個道理也。⁵⁸⁾ 餘詳見〈答奇公⁵⁹⁾明彥問目〉。’ ○曰：“七情·四端，有中·有不中者，何也?” 曰：“以節則中，不以節則不中。” 又問：“然則其所以爲中節·不中節者，奈何⁶⁰⁾?” 答曰：“嘗觀朱子〈答張敬夫書〉曰：‘某⁶¹⁾謂，感於物者心也，其動者情也。情根乎性，宰⁶²⁾乎心。心爲之宰，則其動也無不中節矣。何人慾之有? 惟心不宰而情自動，是以流於人欲，而每不得其正也。然則天理·人欲之判，中節·不中節之分，特在乎心之宰與不宰，

53) 大用：《艮齋集》에는 뒤에 ‘而曰端在其中’이 있다.

54) 程子：《艮齋集》에는 없다.

55) 此章：《艮齋集》에는 ‘四端章’으로 되어 있다.

56) 獨主理而言：《艮齋集》에는 ‘專以理言之，而氣亦未嘗不行乎其間也.’로 되어 있다.

57) 歟：《艮齋集》에는 ‘也’로 되어 있다.

58) 也：《艮齋集》에는 없다.

59) 公：《艮齋集》에는 없다.

60) 奈何：《艮齋集》에는 ‘如何’로 되어 있다.

61) 某：《艮齋集》에는 ‘烹’로 되어 있다.

62) 宰：《艮齋集》에는 앞에 ‘而’가 있다.

而非情之⁶³⁾能病之，亦已明矣。蓋雖曰中節，然是亦情也。但其所以中節者乃心爾。今夫乍見孺子入井，此心之感也，必有怵惕惻隱之心，此情之動也。內交·要譽·惡其聲，心不宰而失其正也。’此說明白的當。學者深味而熟察之，則久乃見之，不須別立話頭也。”○問：“向者張謹錄惻隱之誨曰：‘惻隱，氣也；所以惻隱，理也。’德弘⁶⁴⁾辨而質之曰：‘夫四端，理之發，其發⁶⁵⁾而爲惻隱·爲羞惡·爲辭讓·爲是非者，氣也。何者？理本無形，無是氣則理做出來不成，故謂仁之升氣而發者，曰惻隱。是以先生當君惻隱之問，疑不知此而發是問也，以氣教之，非以爲惻隱直是氣也。⁶⁶⁾今君記之曰⁶⁷⁾“惻隱，氣也；所以惻隱，理也”，隱然有主乎氣之意。愚竊以爲倒著其說。向蒙先生見教曰：“四端，理發而氣隨之；七情，氣發而理乘之。”然則其於四端·七情，理氣之先後⁶⁸⁾，確乎其不可易也。今也若謂喜怒而曰“喜怒，氣也；所以喜怒，理也”，則猶之可也，若謂惻隱而曰

63) 之：《艮齋集》에는 없다.

64) 德弘：《艮齋集》에는 ‘弘’으로 되어 있다.

65) 其發：《艮齋集》에는 ‘其所以能發’로 되어 있다.

66) 是以先生……直是氣也：《艮齋集》에는 없다.

67) 今君記之曰：《艮齋集》에는 ‘今君錄’으로 되어 있다.

68) 然則……先後：《艮齋集》에는 없다.

“惻隱，氣也，所以惻隱，理也”，則吾恐將使見之者，疑四端本出於氣而成之以理也。譬而論之，有人乘馬而行于塗，指之者，可以謂人乎？可以謂馬乎？⁶⁹⁾若謂之人則可，若謂之馬則不可。何以言之？方其乘馬而行，人主乎馬而馬服於人，則行者雖馬，而行之者人也。然則非馬之行人，實人之行也。若如公說，則人不主馬而馬實主之也。子盍觀夫火乎？火本無形，而假薪而做得形影。然則明者雖火，而其所以能⁷⁰⁾明之者，薪也。然而謂之者，皆以爲火而未聞⁷¹⁾以爲薪者，何也？假之者雖薪，而其所以主張⁷²⁾者火故也。今公以此爲是，則見火之明，而必以爲薪，然後已矣。愚故曰：“若謂‘惻隱，理之發；其發之者⁷³⁾，氣也’則可，若曰‘惻隱，氣也；所以惻隱，理也’，恐⁷⁴⁾或不可。”鄙人他日之聞，似異於此⁷⁵⁾，故妄訂⁷⁶⁾若是。謂余不信，請質先生。不審賢契以爲何如？’答曰：‘先生教此，陳北溪質朱先生

69) 指之者可以謂人乎可以謂馬乎：《艮齋集》에는 ‘指以謂人乎？以爲馬乎？’로 되어 있다.

70) 能：《艮齋集》에는 없다.

71) 未聞：《艮齋集》에는 ‘不’로 되어 있다.

72) 主張：《艮齋集》에는 앞에 ‘能’이 있다.

73) 其發之者：《艮齋集》에는 ‘其所以發之者’로 되어 있다.

74) 恐：《艮齋集》에는 앞에 ‘則’이 있다.

75) 鄙人……異於此：《艮齋集》에는 없다.

76) 訂：《艮齋集》에는 ‘證’으로 되어 있다.

之說云.’77) ○咸亨謹按：“李說不能無疑．人馬火薪，判然二物，非若理氣之微有分別．蓋混淪言之，理氣一物，分而言之，則有理而後有是氣．後來諸賢始發理氣之論，慮其昧於理而徒見氣，恍惚難辨，遂失性命之正故也．李說非張錄，則得矣．但不當引人馬火薪也．愚恐同歸於蔡節齋以性情比理氣之非是，如何？敢冀指誨．”78) 批云：“惻隱，氣也；其所以能是惻隱，理也．此固北溪說也．質之師門而不見斥．然某亦嘗疑惻隱氣也一語，太主張氣字，不無侵過理界分了．宏仲非之，似不爲無理．但宏仲說亦有差．蓋理發爲四端，所資以發者，氣耳；其所以能然，實理之爲也．今宏仲乃以所以能三字，歸之氣，其失殆甚於北溪之說矣．理之乘氣而行，朱子亦以人乘馬出入比之．宏仲人馬之說，本諸此，其說無病矣．其以火薪爲比，亦人馬之類，未爲不可．但又以所以能三字，歸之薪，亦不可也．大抵論說義理精微處79)，最不可輕易．毫釐有差，謬80)以千里

77) 謂余不信……之說云：《艮齋集》에는 없다.

78) ○咸亨謹按……敢冀指誨：今案：이 부분은 질문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바로 앞의 李德弘의 질문에 대해 李咸亨이 자신의 생각을 附記한 것으로서, 小註로 처리해도 좋을 듯하다. 《艮齋集》에 의하면, 이어지는 ‘批云：惻隱氣也’云云한 것은 바로 앞의 李德弘의 질문에 대한 退溪의 답변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退溪의 답변을 동시에 李咸亨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도 있다.

79) 處：《艮齋集》에는 없다.

故也。朱子人乘馬之說，見《性理大全·太極圖說》第二十一張小註。【德弘又問：“所以能三字，何以有病？”曰：“能，氣也；所以，理也。以能字歸之於氣，則可；以所以字歸之於氣，則甚不可也。”】

【知皆擴充】李錄云：“言知四端之發，而皆卽之以擴充之也。知，知行之知，卽知擴充，屬⁸¹⁾行。故黃氏曰：‘知其理而推測云云。’”○擴之以充四德之量。四德之量，本與天地同大，不可限測。故其效足以保四海也。⁸²⁾

〈附註〉⁸³⁾

【一部】統學一書之義。⁸⁴⁾

【事無足爲】일이 足히 ㅎ오미 업시 ㅎ니라.⁸⁵⁾ 言胸中主宰得定，則無事之難爲也。○李錄云：“引以證

80) 謬：《艮齋集》에는 ‘繆’로 되어 있다.

81) 屬：《艮齋集》에는 ‘爲’로 되어 있다.

82) 四海也：《艮齋集》(〈孟子質疑〉)에는 뒤에 ‘理無形無限，故仁義禮智之性無限量，其發而爲用，亦無限量。惻隱之發，不但盡其道於一事，於天下之事，所當惻隱者，欲其一一推廣而充滿其無限之量也。羞惡·辭讓·是非亦然。非指惻隱之一端，只就一端，推而充之也。孟子曰：“人皆有所不忍，達之於其所忍，仁也；人皆有所不爲，達之於其所爲，義也。人能充無欲害人之心，而仁不可勝用也。人能充無受爾汝之實，無所往而不爲義矣。”가 더 있다. 이 중 ‘理無形無限’ 이하 부분은 앞의 ‘所以謂人皆有云云’ 조목에 대한 설명에서 이미 나온 것이다.

83) 附註：《講錄》에는 이 분류명이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84) 統學一書之義：《質疑》에는 ‘總學一書而言’으로 되어 있다.

85) 일이……업시 ㅎ니라：《質疑》에는 없다.

足以保四海之義.”⁸⁶⁾

【於此尤好玩索】⁸⁷⁾ 李錄云：“好字少味，何也？批云：‘多味.’”

【苟且】⁸⁸⁾ 李錄云：“言人知事之無理無義，因循姑爲之稱。釋云：‘아직 그러나 마나.’《語》解，“苟完”之苟，聊且粗略之意’云，則可知如此也。”

【北溪】⁸⁹⁾ 陳氏，淳名。⁹⁰⁾ 龍溪人。朱熹守漳時⁹¹⁾，淳⁹²⁾從遊郡齋。熹⁹³⁾曰：“南來吾得一安卿。”安卿，淳字也。⁹⁴⁾ 淳無書不讀，無物不格，義理貫通，洞見條緒。學者稱爲北溪先生。後授安溪主簿。⁹⁵⁾【出《一統志》。】○吳草廬輩，或有非之。然責備之言也。⁹⁶⁾

【莫不】⁹⁷⁾ 아니미 업세는

86) ○李錄云……之義：《質疑》에는 없다.

87) 於此尤好玩索：《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88) 苟且：《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89) 北溪：《質疑》에는 ‘北溪陳氏’로 되어 있다.

90) 陳氏淳名：《質疑》에는 ‘名淳，字安卿’으로 되어 있다.

91) 朱熹守漳時：《質疑》에는 ‘朱子守湖西時’로 되어 있다.

92) 淳：《質疑》에는 없다.

93) 熹：《質疑》에는 ‘朱子’로 되어 있다.

94) 安卿淳字也：《質疑》에는 없다.

95) 後授安溪主簿：《質疑》에는 없다.

96) ○吳草廬……之言也：《質疑》에는 없다.

97) 莫不：《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佥佥】⁹⁸⁾ 佥佥，音탕. ○李錄云：“天下之人，佥佥然於兩間. 佥佥，失路之貌.”

98) 佥佥 : 《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失路貌’로 되어 있다.

20 〈矢人函人章〉

【矢人函人】¹⁾ 先言矢人·函人·巫·匠者，猶《詩》之興也。以曉人必擇仁義而爲之術。

【擇不處仁】 孔子言擇里而居焉，孟子引之，以明人擇術而學焉也。

【如恥之】²⁾ 만일에 붓그릴딘댄.

【諸】³⁾ 於意同.

【不仁不智】⁴⁾ 李錄云：“本註⁵⁾‘不仁故不智，不智故無禮’之⁶⁾義，當於〈附註〉第一條看得，可也.”

〈本註〉 7)

- 1) 矢人函人：《質疑》에는 이 조목의 표제가 ‘先言矢人’이라고 하고 아래 ‘擇不處仁’ 조목과 통합하고, 설명은 ‘并見《孟》錄.’이라고 하였다. 관련 내용은 《艮齋集》續集 권1 〈孟子質疑〉에 보인다. 今案：《質疑》의 표제 ‘先言矢人’은 ‘矢人函人’이 되어야 할 듯하다.
- 2) 如恥之：《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 3) 諸：《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 4) 不仁不智：《質疑》에는 ‘不仁【止】無義’로 되어 있다. 今案：《講錄》에는 원래 아래 ‘元者善之長’ 조목 아래, 곧 〈附註〉 첫 번째 조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것은 이 조목의 내용에 고려한 편성이지만, 표제 자체는 《心經》 본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質疑》의 편성 순서에 따르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에 따라 위치를 바로 잡았다.
- 5) 本註：《質疑》에는 ‘集註’로 되어 있다.
- 6) 之：《質疑》에는 ‘無’로 되어 있다. 今案：《集註》에는 ‘以不仁故不智，不智故不知禮義之所在.’로 되어 있으며 그에 해당하는 《孟子》 본문은 ‘不仁不智，無禮無義，人役也.’이다. 따라서 ‘無’가 되어야 할 듯하다. 그렇다면 표점도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고 그대로도 의미가 통하므로 일단 고치지 않고 두었다.

【良貴】⁸⁾ 自然之貴.⁹⁾

【元者善之長】 出《易·乾卦·文言》. 在天曰‘元’, 在人曰‘仁’.¹⁰⁾

〈附註〉¹¹⁾

【玩物喪志】 李錄云: “心流於彼而忘返, 則必有喪志之患矣.¹²⁾”

【且道】 아므나 니르라.¹³⁾ ○李錄云: 道, 言也. 自‘且道’¹⁴⁾ ‘如何却說惻隱’, 皆先生難辭. 既引程·謝之事, 因難於其門人¹⁵⁾, 曰: ‘公等且¹⁶⁾言之, 程子何以以羞惡之心爲惻隱乎?’ 既而門人無答之

7) 本註: 《講錄》에는 이 분류명이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8) 良貴: 《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見《孟》錄.’으로 되어 있다. 관련 내용이 《艮齋集》續集 권1 〈孟子質疑〉에 보인다.

9) 自然之貴: 《艮齋集》에는 ‘良者, 本然之善.’으로 되어 있다.

10) 在人曰仁: 《質疑》에는 뒤에 ‘朱子曰: “仁是兄長, 管屬得義禮智, 故曰元者善之長.”’이 있다.

11) 附註: 《講錄》에는 이 분류명이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12) 矣: 《質疑》에는 없다.

13) 아므나 니르라: 《質疑》에는 없다.

14) 止: 《質疑》에는 ‘至’로 되어 있다.

15) 難於其門人: 《質疑》에는 ‘設難’으로 되어 있다.

16) 且猶姑也: 《質疑》에는 없다.

者，乃言曰：‘是有惻隱之心云云.’故吐‘道호나 惶호니 心호늘 隱고 心이 動라사.’此下數言¹⁷⁾，可見惻隱之貫三情也.¹⁸⁾”

【會動】李錄云：“會，猶解也.”

【新安】¹⁹⁾ 陳氏櫟²⁰⁾，休寧人。性剛正²¹⁾孝友。三歲，祖母吳氏，口授《孝經》·《論語》，輒成誦。五歲，涉獵經史。十五，鄉人皆師之，遂致力聖賢之學，涵濡玩索，貫穿古今。延祐初，試鄉圍中選，乃不復²²⁾赴禮部，教授於家，不出門戶者數十年。櫟²³⁾所居堂曰‘定宇’，其徒因稱之²⁴⁾定宇先生。【出《一統志》。】

17) 故吐……此下數言：《質疑》에는 없다.

18) 也：《質疑》에는 없다.

19) 新安：《質疑》에는 ‘新安陳氏’로 되어 있다.

20) 陳氏櫟：《質疑》에는 ‘名櫟，字壽翁.’으로 되어 있다.

21) 剛正：《質疑》에는 ‘剛直’으로 되어 있다.

22) 復：《質疑》에는 없다.

23) 櫟：《質疑》에는 없다.

24) 之：《質疑》에는 뒤에 ‘爲’가 있다.

21 〈赤子之心章〉

〔不失赤[止]者也〕¹⁾ 그 赤子の ㅁ음을 일티 아닌 者이니라.

〈附註〉²⁾

〔雜說〕 意其時門人, 記其問答之語爲書, 名曰雜說.

〔聖人之心〕³⁾ 與大人之心, 亦當有別.

〔機關〕 李錄云: “機, 陷穽之類,⁴⁾ 關, 門關之關. 皆言心⁵⁾之用巧費計處.”

〔沒〕⁶⁾ 李錄云: “無也.”

〔蒙以養正聖功〕⁷⁾ 出《易·蒙卦》.⁸⁾ 蒙養以正, 作聖⁹⁾之功也.¹⁰⁾

1) 不失赤……者也: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2) 附註: 《講錄》에는 이 분류명이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3) 聖人之心: 이 조목은 《講錄》에는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4) 陷穽之類: 《質疑》에는 ‘機檻之機’로 되어 있다.

5) 心: 《質疑》에는 앞에 ‘其’가 있다.

6) 沒: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7) 蒙以養正聖功: 《質疑》에는 ‘蒙養[止]聖功’으로 되어 있다.

8) 蒙卦: 《質疑》에는 뒤에 ‘彖傳’이 있다.

9) 聖: 今案: 《講錄》에는 원래 ‘坐’로 되어 있으나 명백한 傳寫上의 오류이므로 ‘聖’으로 고쳤다.

10) 蒙養……功也: 《質疑》에는 없다.

定本 退溪全書 四

第三篇

22 〈牛山之木章〉

【牛山】¹⁾ 齊都之東山.²⁾

【郊】 邑外爲‘郊’³⁾【十里之外】³⁾，郊外爲‘牧’，牧外爲‘野’，野外爲‘林’.

【濯濯】 光潔貌. 山無草木曰：‘濯濯⁴⁾’.

【仁義之心】 李錄云：“問⁵⁾：‘德有四，而特言仁義者，何歟？’ 答⁶⁾曰：‘舉斯二者而其餘在其中耳. 朱先生曰：“禮，仁之著；智，義之藏也.” 於此可見其義.’”

【不足以存】 氣以盛理，所存⁷⁾乃存得仁義之良心也. 氣若梏⁸⁾亡，理隨之而亡矣.

1) 牛山：《質疑》에는 ‘郊’，‘濯濯’，‘仁義之心’，‘不足以存’와 함께 ‘牛山○郊○濯濯○仁義之心○不足以存’이라는 제목으로 통합 편성하였으며, 설명은 ‘并見《孟》錄.’이라 하였다. 관련 내용이 《艮齋集》續集 권1 〈孟子質疑〉에 보인다.

2) 東山：《艮齋集》에는 ‘東南山’으로 되어 있다.

3) 十里之外：《艮齋集》에는 ‘十里之外也’로 되어 있고, 본문으로 편집되어 있다.

4) 曰濯濯⁴⁾：《艮齋集》에는 ‘故濯濯’으로 되어 있다.

5) 李錄云問：《艮齋集》에는 없다.

6) 答：《艮齋集》에는 없다.

7) 所存：《艮齋集》에는 ‘存’으로 되어 있다.

8) 梏：《艮齋集》에는 ‘梏’으로 되어 있다.

【性情】⁹⁾ 李錄云：“問：‘於山則以性言，於人以情言者，何耶¹⁰⁾?’ 答曰¹¹⁾：‘性卽情之本根，情乃性之苗脈。言性而情在其中，言情而性在其中，互相發也。然山無情而人具性情，故於山必以性言，於人必以情言。’”

〈本註〉¹²⁾

【所同然】¹³⁾ 李錄云：“然，卽‘然否’之然。蓋人心之所同以爲然者，必是當於理者。故以仁義之心，爲人心之所同然者。¹⁴⁾”

〈附註〉¹⁵⁾

【勞攘】 不安穩不利順之謂。

9) 性情：《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見原集.’으로 되어 있다. 관련 내용이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9)에 보인다.

10) 耶：《艮齋集》에는 ‘歟’로 되어 있다.

11) 答曰：《艮齋集》에는 ‘先生曰’로 되어 있다.

12) 本註：《講錄》에는 이 분류명이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13) 所同然：《質疑》에는 ‘同然’으로 되어 있고, 설명이 ‘見《孟》錄.’으로 되어 있다. 관련 내용은 《艮齋集》續集 권1 〈孟子質疑〉에 보인다.

14) 者：《艮齋集》에는 없다.

15) 附註：《講錄》에는 이 분류명이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權輿】 造衡始權【ㄷ림】¹⁶⁾, 造車始輿【수여】¹⁷⁾, 謂物之始, 必曰權輿.

【石子重】 名整. 新昌人. 與朱熹爲友.¹⁸⁾ 號克齋.【出《一統志》.】¹⁹⁾ ○批云: “朱子友人, 深推重焉.²⁰⁾”

【兼出入【止】善有惡】²¹⁾ 李錄云: “字이 惡호니.²²⁾ 兼, 猶言又也. 蓋子重誤謂: ‘舍亡, 故出入無時, 莫知其鄉.’ 先生於此, 論辨其誤, 以爲不但如上文而已, 兼又有下文所云, 何可謂皆是舍亡所致耶? 蓋出入兩字皆惡, 則或如子重之說可也. 入爲存爲善, 出爲亡爲惡, 何可並指存而善者, 爲舍亡之所致²³⁾耶?”

【又何必【止】爲哉】²⁴⁾ 쏘흔 엇데 반드시 그 存호기로써 호리오.

【操而有】²⁵⁾ 批云: “《朱子大全》, ‘有’作‘存’.”

16) ㄷ림: 《質疑》에는 없다.

17) 수여: 《質疑》에는 없다.

18) 與朱熹爲友: 《質疑》에는 없다.

19) 一統志: 《質疑》에는 뒤에 ‘○批云: “朱子與友推重焉.”’이 있다.

20) 《質疑》에는 ‘朱子與友推重焉’로 되어 있다.

21) 兼出入【止】善有惡: 《質疑》에는 아래의 ‘方起方滅’ 조목과 함께 ‘兼出【止】善惡○方起方滅’이라는 제목으로 통합 편성되어 있으며, 설명은 ‘并見原集.’으로 되어 있다. 해당 내용이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丁卯】〉(7)과 〈上退溪先生〉(9)에 각각 보인다.

22) 字이 惡호니: 《艮齋集》에는 없다.

23) 所致: 《艮齋集》에는 ‘致’로 되어 있다.

24) 又何必【止】爲哉: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25) 操而有: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方起方滅】²⁶⁾ 李錄云：“問：‘滅亦謂心之用者，何耶²⁷⁾?’ 答曰²⁸⁾：‘方字最深味之，心起而方歸於靜之時，謂之滅，非如寂滅之滅也.’²⁹⁾” ○又曰：“方起，心之初動時；方滅，心之既動而還歸於靜時.”³⁰⁾

【寂然不【止】下之故】³¹⁾ 《易》曰：“無私³²⁾·無爲也，寂然不動，感而遂通天下之故.”

【如彼他【止】不容他】³³⁾ 李錄云：“上他字，卽旦³⁴⁾晝之所爲，下他字，卽良心，以械梏之事言之，則上他，如所作之罪，下他，卽其身也.”

【亡有】³⁵⁾ 批云：“亡，當作止.”

【閑思慮】³⁶⁾ 힘 힘 혼 思慮.

【便着緊【止】他不去】³⁷⁾ 李錄云：“문득 着緊 혼야【緊

26) 方起方滅：《質疑》에는 앞의 ‘兼出【止】善惡’과 함께 묶였고, ‘并見原集’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앞에 ‘○’이 있다. 《講錄》의 해당 내용은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9)에 보인다.

27) 耶：《艮齋集》에는 ‘也’로 되어 있다.

28) 答曰：《艮齋集》에는 ‘先生曰’로 되어 있다.

29) 也：《艮齋集》에는 없다.

30) ○又曰……於靜時：《艮齋集》에는 없다.

31) 寂然不【止】下之故：《質疑》에는 ‘寂然【止】之故’로 되어 있다.

32) 無私：《質疑》에는 ‘無思也’로 되어 있다.

33) 如彼他【止】不容他：《質疑》에는 ‘如彼【止】容他’로 되어 있다.

34) 旦：《質疑》에는 ‘朝’로 되어 있다.

35) 亡有：《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36) 閑思慮：《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猶言閑漫思慮’로 되어 있다.

37) 便着緊【止】他不去：《質疑》에는 ‘便着【止】不去’로 되어 있다.

히 着ッ也】要ᄃ야 他乙 隨ᄃ야 去티 말디니.38) 《語類》狀此事曰：‘一人在門內，一人在門外，互相牽引，若內人力弱，則不勝而被其引去，惟人是從；若力能制之，則不爲他轉動引將去。若一謂‘把持不能³⁹⁾，勝他不去’云，則此室不爲他人之室也幸矣.’”

【壞】40) 物不自敗而毀之，則音怪；物自敗，則胡怪切。批云⁴¹⁾：“此音怪。”

【此上頭儘有商量】42) 能立個心，然後其上頭可以商量。譬如立屋者，若無基址，豈有商量立屋之事乎？

【惟是【止】於事】43) 李錄云，“오직 事に 止홀디라. 事，兼言其理。此一句，義極圓濶，學者若有見於此，則不患不知矣。又於此一段，深味而實體之，則久久自見顏子不違仁氣象也。”

【舜何與焉】妍媸自形於鏡，而鏡不爲妍媸所動，但隨其形而應之而已。舜之誅四凶，舉十六相亦如此，乃

38) 李錄云……말디니：《質疑》에는 없고 대신 ‘言緊切着力，不要隨他而去也.’가 있다.

39) 把持不能：《質疑》에는 ‘不能把持’로 되어 있다.

40) 壞：《質疑》에는 ‘自壞’로 되어 있다. 《講錄》에는 이 조목이 아래 ‘此上頭儘有商量’ 다음에 편성되어 있지만 《質疑》의 편성 순서에 의거해서 바로 잡았다.

41) 批云：《質疑》에는 없다.

42) 此上頭儘有商量：《質疑》에는 ‘上頭儘有商量’으로 되어 있다.

43) 惟是【止】於事：《質疑》에는 설명이 ‘事，兼言其理.’라고만 되어 있다.

物各付物也. 故孔子曰: “老者安之, 朋友信之, 少者懷之.”

【須是【止】於事】⁴⁴⁾ 批云: “知止而后, 有定·靜·安, 豈復有搖奪乎?”

【做心上】⁴⁵⁾ 批云: “上, 當作主.”

【翻車】 水車. 陳簡齋詩有云“荒村終日水車鳴”者. 國人⁴⁶⁾漂到琉球國, 還由中原, 見其制作, 來告, 朝廷頒下八道令所在, 製而用之.⁴⁷⁾ 未知他道如何⁴⁸⁾, 汾川⁴⁹⁾ 李相公 賢輔, 因其制而造試之, 須人乃動, 故遂不得行.⁵⁰⁾

【怎往奈何】⁵¹⁾ 李錄云: “아므려⁵²⁾ 혼들 엇딜고.”

【張天祺】 諱⁵³⁾ 戡, 字天祺.⁵⁴⁾ 少而莊重⁵⁵⁾, 有老成

44) 須是【止】於事: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45) 做心上: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46) 國人: 《質疑》에는 앞에 ‘往者’가 더 있다.

47) 製而用之: 《質疑》에는 ‘製用’으로 되어 있다.

48) 未知他道如何: 《質疑》에는 없다.

49) 汾川: 《質疑》에는 없다.

50) 行: 《質疑》에는 뒤에 ‘焉’이 있다.

51) 怎往奈何: 《質疑》에는 ‘怎生奈何’로 되어 있다.

52) 아므려: 《質疑》에는 ‘아므리’로 되어 있다.

53) 諱: 《質疑》에는 ‘名’으로 되어 있다.

54) 字天祺: 《質疑》에는 없다.

55) 少而莊重: 《質疑》에는 앞에 ‘橫渠弟’가 있다.

之氣，不與群童子狎戲。長而好學，不喜爲雕蟲之辭以從科舉。⁵⁶⁾父兄敦迫，喻以爲貧，乃強起⁵⁷⁾就鄉貢，旣冠，⁵⁸⁾登進士第。歷治六七邑，誠心愛人，而⁵⁹⁾有術以濟之。熙寧九年⁶⁰⁾卒，年四十七。【出《伊洛淵源錄》。⁶¹⁾】

【上著床】 李錄云：“中原人，坐臥必於牀，故上牀云⁶²⁾，卽‘管寧穿牀’之意也。⁶³⁾”

【不得思量】 李錄云：“張言止此。”

【皆非自然】 別以一心，執持此心，所以云皆非自然。

【良】⁶⁴⁾ ㄹ.

【却不如【止】之愈也】⁶⁵⁾ “一串數珠”，僧家念珠也。釋曰：“批云：‘흔 빼임 數珠 ㄷ 줌만 곧디 못하니라.’” ○李錄云：“此非假借之辭，卽所謂‘當事而存，靡他其適’之義。”

56) 以從科舉：《質疑》에는 없다.

57) 喻以爲貧乃強起：《質疑》에는 없다.

58) 旣冠：《質疑》에는 없다.

59) 而：《質疑》에는 없다.

60) 熙寧九年：《質疑》에는 없다.

61) 伊洛淵源錄：《質疑》에는 ‘淵源錄’으로 되어 있다.

62) 故上牀云：《質疑》에는 ‘故曰上床.’으로 되어 있다.

63) 卽管寧穿牀之意也：《質疑》에는 없다.

64) 良：《質疑》에는 설명이 ‘猶儘也.’로 되어 있다.

65) 却不如【止】之愈也：《質疑》에는 ‘却不如【止】愈也’로 되어 있고, 설명은 ‘〈答金彥遇〉曰：“數珠，僧家念珠也。彼念念數此珠，以爲操心之法，本非心法之善者，與其常念一個中，爲中所亂，反不如一串數珠，以爲操持之節度，猶爲彼善於此也。”’로 되어 있다.

【慎生不恣意】李錄云：“生ッふ 意乙 恣티 아니하야.⁶⁶⁾ 言慎生故不病，不恣意故無倦怠。”

【悠悠】⁶⁷⁾ 힘힘하다.

【司馬子微】名承禎，唐玄宗時隱士，以老·莊爲學。其道以窈窈冥冥玄玄妙妙⁶⁸⁾爲極致，故曰：⁶⁹⁾“坐忘，坐馳。”⁷⁰⁾ 出《莊子》。○《一統志》曰⁷¹⁾：“唐台州人。隱內方山，煉丹⁷²⁾成仙。後人因名其村，曰‘馬仙村’。”李太白云：“予昔於江陵，見天台司馬子微，謂予有仙風道骨，可與神遊八極之表。乃著〈大鵬遇希有鳥賦〉以自廣。”【出《一統志》。】⁷³⁾

【朱子曰夢】⁷⁴⁾ 批云：“註：‘夢，疑當作魂.’⁷⁵⁾ 魂，陽也。人未寤時，精華發外；至寢，蟄藏⁷⁶⁾其氣於陰精之魄。”

66) 生ッふ……아니하야：《質疑》에는 없다.

67) 悠悠：《質疑》에는 설명이 ‘猶言閒漫’으로 되어 있다.

68) 窈窈冥冥玄玄妙妙：《質疑》에는 ‘窈冥玄妙’로 되어 있다.

69) 故曰：《質疑》에는 없다.

70) 坐忘坐馳：《質疑》에는 ‘坐馳，坐忘’으로 되어 있다.

71) 曰：《質疑》에는 없다.

72) 煉丹：《質疑》에는 ‘鍊丹’으로 되어 있다.

73) 李太白……出一統志：《質疑》에는 없다.

74) 朱子曰夢：《質疑》에는 ‘魂與魄交’로 되어 있다.

75) 批云……當作魂：《質疑》에는 없다.

76) 藏：《質疑》에는 ‘莊’으로 되어 있다.

《要得剛》⁷⁷⁾ 剛乙 브딕 흥고저 흥니.

《回》 回曲⁷⁸⁾也.

《精切似二程》 精切호미 二程도곤 넘다. ○⁷⁹⁾似, 猶以此較彼, 則此勝也.⁸⁰⁾ 言橫渠之言, 精切勝於二程.

《泛泛》 批云⁸¹⁾: “浮泛.”

《同安》 縣名. 朱子以主簿赴任所.

《致志》 專心致志.⁸²⁾

《大惡念》⁸³⁾ 批云: “〈延平答問後錄〉作‘大段惡念’.”

《謝顯道條》⁸⁴⁾ 批上端云: “主靜也.”

《扶溝》 明道以主簿在任所.⁸⁵⁾ ○⁸⁶⁾ 問: “靜坐是危坐否?” 答曰: “朱門人論危坐之難, 朱子曰: ‘古人自

77) 要得剛: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78) 回曲: 《質疑》에는 ‘回撓’로 되어 있다.

79) 精切호미……넘다○: 《質疑》에는 없다.

80) 猶以此……勝也: 《質疑》에는 ‘猶於也.’로 되어 있다.

81) 批云: 《質疑》에는 없다.

82) 專心致志: 《質疑》에는 뒤에 ‘出《孟子》.’가 있다.

83) 大惡念: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84) 謝顯道條: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85) 以主簿在任所: 《質疑》에는 ‘嘗爲主簿.’로 되어 있다.

86) ○: 《質疑》에는 이하의 내용이 ‘靜坐’라는 별도 조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少⁸⁷⁾習熟，故至長無倦怠。今人不然，盤坐何害靜坐？不須分危坐盤坐。”○先生又批云⁸⁸⁾：“但盤坐不如危坐之肅然，故可當耳。”⁸⁹⁾

【百原山】在衛州 共城，與洛陽不遠。乃康節所生處也。⁹⁰⁾

【闢】猶造也，開也。⁹¹⁾

【王勝之】名益柔。豪放，與蘇舜欽善。【舜欽能詩。】⁹²⁾
舜欽⁹³⁾以集賢校理，監進奏院，用鬻故紙，公錢設筵宴⁹⁴⁾，會一時名士，益柔亦與焉。益柔製長歌⁹⁵⁾以詠之，多侮周公·孔子之語。及罷⁹⁶⁾，御史中丞⁹⁷⁾王拱辰等劾奏。仁宗大怒，命囚其同會者十餘人，皆名士，而并罷其職。⁹⁸⁾ 拱辰喜曰：“吾一網打盡矣。”蘇卒不得復

87) 少：《質疑》에는 ‘幼’로 되어 있다.

88) ○先生又批云：《質疑》에는 없다.

89) 故可當耳：《質疑》에는 없다.

90) 也：《質疑》에는 없다.

91) 猶造也開也：《質疑》에는 ‘開也，猶造也.’로 되어 있다.

92) 舜欽能詩：《質疑》에는 본문으로 편집되어 있다.

93) 舜欽：《質疑》에는 없다.

94) 筵：《質疑》에는 ‘宴’으로 되어 있다.

95) 長歌：《質疑》에는 ‘傲歌’로 되어 있다.

96) 及罷：《質疑》에는 없다.

97) 丞：《質疑》에는 ‘承’으로 되어 있다.

98) 而并罷其職：《質疑》에는 ‘并罷’로 되어 있다.

仕.⁹⁹⁾ ○《一統志》：“少力學爲文，日數千言。伉直尚氣，喜論天下事。用父蔭，至殿中丞，多所論列。神宗累遷龍圖閣直學士，知蔡·楊·亳州·江寧 應天府。¹⁰⁰⁾ 司馬光爲《資治通鑑》，獨能閱之終篇。其好學類如此矣。¹⁰¹⁾”

【聲氣】¹⁰²⁾ 請問其義，答云：“聲音形氣。”

【他見人要多慮】 批云¹⁰³⁾：“或疑‘要多’之‘要’字誤。此語兩出《語類》訓徐寓¹⁰⁴⁾·劉砥處及《性理大全》，皆有‘要’字，而‘慮’上或有‘思’字。○釋云：“또한 이
他이 사람이 모름이 思慮이 만흐를 보시고.”¹⁰⁵⁾
他¹⁰⁶⁾，指程子而言。¹⁰⁷⁾

【徐寓】¹⁰⁸⁾ 字居甫，永嘉人。

99) 拱辰喜曰……不得復仕：《質疑》에는 없다.

100) 用父蔭……應天府：《質疑》에는 없다.

101) 類如此矣：《質疑》에는 ‘類此云.’으로 되어 있다.

102) 聲氣：《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聲音神氣’으로 되어 있다.

103) 批云：《質疑》에는 없다.

104) 徐寓：《質疑》에는 ‘徐寓’로 되어 있다.

105) ○釋云……보시고：《質疑》에는 없다.

106) 他：《質疑》에는 앞에 ‘○’이 있다.

107) 言：《質疑》에는 뒤에 ‘也’가 있다.

108) 徐寓：《質疑》에는 ‘○徐寓’라고 되어 있다. 《質疑》에서는 아래 조목인 ‘劉砥’와 함께, 별도의 조목이 아니라, 바로 앞의 ‘他見人要多慮’ 조목의 설명 후반부에 ‘○’ 표시를 하여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어 있다.

【劉砥】字履之，長樂人。二人皆朱門高弟。劉與其兄¹⁰⁹⁾礪，共¹¹⁰⁾編修《儀禮經傳》。

【零碎】¹¹¹⁾零，餘雨；碎，細破也。

【湊泊】¹¹²⁾李錄云：“되화 붙티다.”

【伯羽】批云：“童蜚卿，字伯羽。”○¹¹³⁾嘗請齋號，先生命之，曰醉經堂，手書與之。又以書問欲不赴科舉¹¹⁴⁾，先生答曰：“古人有爲貧而仕者，難以問於他人而決其可否也。”¹¹⁵⁾

【又曰心未嘗一條】¹¹⁶⁾批云：“此黃子耕所錄。”

【靜專】出¹¹⁷⁾《易·繫辭》：“夫¹¹⁸⁾乾，其靜也專，其動也直，是以大生焉。”伊川疏曰：“乾，陽也，不動則不剛。其靜也專，其動也直，不專一則不能直遂。”

【程子曰操條】¹¹⁹⁾批上端云：“持敬。”○‘操約’，

109) 兄：《質疑》에는 ‘弟’로 되어 있다.

110) 共：《質疑》에는 ‘參’으로 되어 있다.

111) 零碎：《講錄》에는 이 조목이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112) 湊泊：《質疑》에는 ‘或作湊泊. 言投聚停泊也.’로 되어 있다.

113) 批云……字伯羽○：《質疑》에는 ‘童蜚卿名’으로 되어 있다.

114) 科舉：《質疑》에는 ‘舉’로 되어 있다.

115) 也：《質疑》에는 없다.

116) 又曰心未嘗一條：《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17) 出：《質疑》에는 없다.

118) 夫：《質疑》에는 없다.

119) 程子曰操條：《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孟子》曰：“言近而指遠者，善言也；守約而施博者，善道也。”

【邵伯溫】¹²⁰⁾ 李錄云：“字子文。”○《一統志》曰：“洛陽人。雍子。入受父教，出與司馬光·二程子交，故所聞日博。章惇爲相薦之。伯溫願補外，得監永興鑄錢監。徽宗初，上書數千言，欲復祖宗制度，辨宣仁誣謗，解元祐黨錮。後遷利路轉運副使。”

【不是事累心】 佛·老¹²¹⁾，知事之累心，而不知心之累事，故皆要寂滅玄妙。

【當知天【止】少得者】¹²²⁾ 先生批云：“少，猶無也。”○釋【批云】：“一物도 이 合當히 업서 ㄸ 홀者 업스니.” 言無一物是可無者，謂皆不可無也。‘得’字，不必釋。

【侵了】¹²³⁾ 批云：“子，了字。”

【曰事爲之條】¹²⁴⁾ 批云¹²⁵⁾曰：“上當有‘朱子’二字。”

120) 邵伯溫：《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21) 佛老：《質疑》에는 ‘老·佛’로 되어 있다.

122) 當知天【止】少得者：‘當知【止】少得者’로 되어 있고, 설명은 ‘少，猶無也。言無一物是可無者，謂皆不可無也。得字，不必釋.’으로 되어 있다.

123) 侵了：《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今案：이 조목의 설명에 비추어 보면 이 조목의 표제는 ‘侵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退溪가 강론할 때 사용한 《心經附註》의 텍스트 교감과 관련된 주석으로서, 《講錄》에서는 이러한 주석이 가끔 보이는데 이러한 주석들은 《質疑》에서는 대체로 빠져 있다. 아래의 ‘操行’과 ‘間斷’, ‘皆如是’ 등의 조목도 같은 예이다.

【有多少病在】¹²⁶⁾ 언매내흔 病이 이시믈 알리로다. ‘在’并入釋.

【恭如[止]助長】¹²⁷⁾ 《孟子》曰：“是集義所生[心無愧作，自然發出於中心.]，必有事焉而勿正.[豫期其效.] 心勿忘，勿助長也. 無若宋人然. 宋人有閔其苗之不長而揠之者，芒芒然歸，謂其人曰：‘今日病矣. 予助苗長矣.’ 其子趨而往視之，苗則槁矣. 天下之不助苗長者寡矣. 以爲無益而舍之者，不耘苗者也；助之長者，揠苗者也. 非徒無益而又害之.” 孟子只言養氣，然如此樣做功夫久之，則自然中節而安也.

【硬把】¹²⁸⁾ 벅벅기 헉다.

【除是孔子】¹²⁹⁾ 이말오[除初學] 孔子이아.

【抵敵】¹³⁰⁾ 牛以角觸物，曰‘抵’. 猶人欲之來，敬守此心以敵，猶牛之觸物，物不得進.

124) 曰事爲之條：《質疑》에는 ‘曰事爲之主’로 되어 있다.

125) 批云：《質疑》에는 없다.

126) 有多少病在：《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言有許多病也. ○在并入釋.’으로 되어 있다.

127) 恭如[止]助長：《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勿忘勿助長，見《孟子》. 孟子只言養氣，然如此做工夫久之，則自然中節而安也.’로 되어 있다.

128) 硬把：《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猶言堅強把捉也.’로 되어 있다.

129) 除是孔子：《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言除初學而惟孔子也. 除是，除了是也，猶言惟是.’로 되어 있다.

130) 抵敵：《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扶策】扶，더위자브며.¹³¹⁾策，敬策¹³²⁾也。人怠惰，敬¹³³⁾以策起，如馬之不行，一舉策輒行。

【問居常條】¹³⁴⁾李錄云：“此條，楊道夫疑目九條之一。”

【擎跽曲拳】出《莊子》。擎，手捧也；跽，跪也。曲，躬俯膝跪也。拳，與卷同，亦曲意。如拱手曲身之狀，皆人臣於君，恭敬拜跪之狀也。

【二先生】問：“并¹³⁵⁾程明道·伊川·朱子則爲三，而西山云二，恐二爲誤，是否？”¹³⁶⁾

【魯齋】¹³⁷⁾問：“魯齋之義？”答曰：“許氏之號魯齋，未詳。但王柏自號長嘯，取諸葛亮抱膝長嘯之意，後來覺其似傲慢，故改以魯齋，取孔子曰‘參也魯’之義。曾子以魯而得道統之正，其魯字可當故也。”○¹³⁸⁾《一

131) 더위자브며 : 《質疑》에는 ‘扶持也.’로 되어 있다.

132) 敬策 : 《質疑》에는 ‘警策’으로 되어 있다.

133) 敬 : 《質疑》에는 없다.

134) 問居常條 : 《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語類》楊道夫疑目九條之一’로 되어 있다.

135) 并 : 《質疑》에는 없다.

136) 恐二爲誤是否 : 《質疑》에는 ‘是否?’ 曰: “恐二爲誤.”로 되어 있다. 今案: 《講錄》대로라면 退溪의 답변이 없는 것이 되므로 《質疑》로 고쳐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그러나 그 대로도 큰 문제는 없으므로 그대로 두었다. 한편 《心經釋疑》에서는 二先生을 程子和 朱子로 보았다.

137) 魯齋 : 《質疑》에는 ‘魯齋許氏’로 되어 있다.

138) 問魯齋……當故也○ : 《質疑》에는 없다.

統志》139)曰140): “許衡141), 河內人. 號魯齋. 幼嗜學, 穎悟不凡, 及長, 經傳·子史·禮樂·名物·星曆·兵刑·食貨·水利之類, 無所不通. 累薦中書左丞142), 進封魏國公. 諡文正, 以道學名云. 字平仲.143)”

【生裔【止】之秋】 金·元亂中國, 衣冠文物, 皆遷大江以南. 許氏生於懷孟州.144) 釋云: “ㅍ 애 戎狄이 비로 소 요란 흔 시저 레 나셔.”145)

【民彝物則】146) 民의 彝며 物의 則이.

【程子曰人心】147) 批上端曰: “敬兼動靜.”

【操行】148) 批云: “行, 當作存.”

【正毫釐【止】之辨】149) 所謂差之毫釐, 謬以千里也. 聖人以出入操存周流不滯爲貴, 若一於靜, 必入於禪, 只爭毫釐之間.

139) 一統志: 《質疑》에는 뒤에 ‘曰’이 있다.

140) 曰: 《質疑》에는 없다.

141) 許衡: 《質疑》에는 ‘名衡, 字平仲.’으로 되어 있다.

142) 丞: 《質疑》에는 ‘承’으로 되어 있다.

143) 字平仲: 《質疑》에는 없다.

144) 懷孟州: 《質疑》에는 뒤에 ‘裔, 邊裔也; 俶, 始也; 擾, 亂也.’가 있다.

145) 釋云……나셔: 《質疑》에는 없다.

146) 民彝物則: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47) 程子曰人心: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48) 操行: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49) 正毫釐【止】之辨: 《質疑》에는 ‘毫釐【止】之辨’으로 되어 있다.

【養氣】¹⁵⁰⁾ 乃老·莊之學，清心寡欲，與叔疑有助於性理之學。○李錄云：“修養黃老家事，都是養氣底工夫。呂意以爲做彼養氣之工夫，則有助於吾養理之法，而發是問也。孟子雖言養浩然之氣，然不過以集義而生者，則何類於此哉？”

【忠信以進德】¹⁵¹⁾ 〈坤卦·文言傳〉曰：“忠信，所以進德也；修辭以立其誠【誠，實理也。】，所以居業也。”

【幾時】¹⁵²⁾ 언의 제

【又如絕【止】如何】¹⁵³⁾ 猶言‘絕四之後，其氣象¹⁵⁴⁾如何？必不如枯木死灰。’

【大少太直截】¹⁵⁵⁾ 李錄云：“大小，猶言多少。大直截，似有分明之義。¹⁵⁶⁾ 言不獨君臣父子，凡事物各有

150) 養氣：《質疑》에는 ‘養氣爲有助’로 되어 있고,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乃老·莊清心寡欲之法, 黃老修養家, 都是養氣底工夫. 呂意以爲做彼養氣底工夫, 則有助於吾養性之法, 而發是問也. 孟子雖言養浩然之氣, 然不過以集義生者, 則何類於此哉?’로 되어 있다.

151) 忠信以進德：《質疑》에는 ‘忠信【止】進德’로 되어 있고, 설명은 ‘見〈坤卦·文言傳〉’이라고만 되어 있다.

152) 幾時：《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53) 又如絕【止】如何：《質疑》에는 ‘又如【止】如何’로 되어 있다.

154) 象：《質疑》에는 ‘像’으로 되어 있다.

155) 大少太直截：《質疑》에는 ‘大小大直截’로 되어 있다. 今案：《講錄》의 것은 傳寫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156) 大小……分明之義：《質疑》에는 ‘大小大, 猶言多少大. 直截, 似有分明之意.’로 되어 있다. 今案：《質疑》의 설명이 옳을 듯하지만 《講錄》의 설명대로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고치지 않고 두었다.

定理，事物之來，各以定理應之，而物各付物，則彼自不干於¹⁵⁷⁾我，自然無紛擾之患。¹⁵⁸⁾”釋云：“언메나키分明호노.” 問：“此一句說，似未分曉，更詳教，如何?” 批云：“所說已明，更細思之.”¹⁵⁹⁾

【瞬】 《韻會》云：“開闔目數搖也.” ○尹和靖以‘六有’名其室.

【楊子直】 名方.¹⁶⁰⁾ 性過剛，累以書干師門，頗有怨懟之辭. 先生亦力爲之辨析曉諭，及僞學黨作，絕不通師門.

【間斷】¹⁶¹⁾ 批云：“斷，《朱子大全》作隔，當從之.”

【問敬通貫條】¹⁶²⁾ 批云：“此沈莊仲所錄.”

【撓】¹⁶³⁾ 害也，屈也.

【不成說【止】靜坐】¹⁶⁴⁾ 撓，批云：“撓，當以才.”¹⁶⁵⁾

157) 於：《質疑》에는 없다.

158) 紛擾之患：《質疑》에는 뒤에 ‘大小大直截，猶言何許大分明也. 或曰：“直截只是直截無回迂之意.”’가 있다.

159) 釋云……更細思之：《質疑》에는 없다.

160) 名方：《質疑》에는 뒤에 ‘朱門人’이 있다.

161) 間斷：《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62) 問敬通貫條：《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今案：《講錄》에는 ‘通’이 ‘道’로 되어 있으나 잘못 쓴 것이 명백하므로 고쳤다.

163) 撓：《質疑》에는 ‘撓’로 되어 있다.

164) 不成說【止】靜坐：《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不成說事多撓亂，我姑且靜坐也.’

李錄云：“事、多、也 我乙 撓亂호니 아직 가 靜坐
호려 說타 몬홀디.”

《時》¹⁶⁶⁾ 漢語人云：“猶面吐.”

《皆如是》¹⁶⁷⁾ 批云：“如是二字，當乙.”

《問一向把條》¹⁶⁸⁾ 批云：“葉味道錄.”

《放下》¹⁶⁹⁾ 李錄云：“놓타.”

《恁衰颯》¹⁷⁰⁾ 李錄云：“이리해 삼삼흔 줄.” 批亦
云：“헛헛헛헛하다.”

《提掇》 批云¹⁷¹⁾：“提字上本有便字.”

《幹》¹⁷²⁾ 若妻，則曰幹家事也；若奴，則曰幹事也。
謂爲其事之骨子也。

《思量教了》¹⁷³⁾ 李錄云：“思量、也 히여곰 了호
다.”

로 되어 있다.

165) 撓批云……當以才：今案：이 부분은 앞의 ‘撓’ 조목과 통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166) 時：《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67) 皆如是：《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68) 問一向把條：《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69) 放下：《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70) 恁衰颯：《質疑》에는 ‘衰颯’으로 되어 있고, 설명이 ‘蕭條之貌.’로 되어 있다.

171) 批云：《質疑》에는 없다.

172) 幹：《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易》所謂幹蠱之幹，如木之有幹也.’로 되어 있
다.

173) 思量教了：《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教，使也。言思量而使之了得也.’로 되
어 있다.

【膠膠擾擾】 出《莊子》。○批云¹⁷⁴⁾：《莊子》註：“撓亂也。”

【定之以【止】主靜】¹⁷⁵⁾ 周子〈太極圖說〉曰：“無極之眞，二五之精，妙合而凝，乾道成男，坤道成女。二氣交感，化生萬物，萬物生而變化無窮焉。惟人也，得其秀而最靈。形既生矣，神發知矣。五性感動而善惡分，萬事出矣。聖人定之以中正仁義，而主靜立人極焉。”本註：“衆人具動靜之理，而常失之於動，聖人主靜以立人極。”

【截斷【止】緊要】 李錄云：“問者患多思慮，故以此二字爲緊要云云。¹⁷⁶⁾”

【將息病】 李錄云：“將，養也；息，調息也。”

【一月日】 一月之日。

【他門】 《語類》指其人而稱，曰‘某門’。○李錄云：“門字，¹⁷⁷⁾與下文‘公門’之門同。”

【許順之】 批云：“許¹⁷⁸⁾，名升，泉州人。久¹⁷⁹⁾從先

174) 出莊子批云：《質疑》에는 없다.

175) 定之以【止】主靜：《質疑》에는 ‘定之【止】主靜’으로 되어 있고, 설명이 ‘出周子《太極圖說》.’이라고만 되어 있다.

176) 云云：《質疑》에는 없다.

177) ○李錄云門字：《質疑》에는 없다.

178) 批云許：《質疑》에는 없다.

生學，卒陷禪寂。”○《一統志》曰¹⁸⁰⁾：“同安人，從學於朱熹¹⁸¹⁾，熹¹⁸²⁾每稱其¹⁸³⁾天性恬澹，無物欲之累，後果深得道學之蘊，爲時名儒。¹⁸⁴⁾”

【什麼】 ㅁㅅ. ○李錄云¹⁸⁵⁾：“與甚麼同意。”

【此二字】 批云¹⁸⁶⁾：“二字¹⁸⁷⁾疑當作一字。¹⁸⁸⁾”

【見天[止]閉關】 《易·復卦》屬時冬至，純陰之下，生一陽。¹⁸⁹⁾ 孔子¹⁹⁰⁾曰：“復，其見天地之心乎!”人心之由靜而發動，猶陽氣之由靜而動也。¹⁹¹⁾ 〈復卦·大象〉¹⁹²⁾：“雷在地中，積陰之下，一陽初動。¹⁹³⁾ 先王以至日閉關，商旅不行，后不省方。”【古者，天子春行東方，

179) 久：《質疑》에는 없다.

180) 曰：《質疑》에는 없다.

181) 從學於朱熹：《質疑》에는 없다.

182) 熹：《質疑》에는 ‘朱某’로 되어 있다.

183) 其：《質疑》에는 없다.

184) 後果深得……爲時名儒：《質疑》에는 없다.

185) ㅁㅅ○李錄云：《質疑》에는 없다.

186) 批云：《質疑》에는 없다.

187) 字：《質疑》에는 없다.

188) 字：《質疑》에는 없다.

189) 易復卦……生一陽：《質疑》에는 없다.

190) 孔子：《質疑》에는 ‘易·復卦·彖傳’으로 되어 있다.

191) 人心之由……靜而動也：《質疑》에는 없다.

192) 復卦大象：《質疑》에는 ‘大象’으로 되어 있다.

193) 積陰之下一陽初動：《質疑》에는 ‘復’으로 되어 있다. 今案：이 부분은 〈大象傳〉 본문에 없는 것으로, 小註로 처리되어야 할 듯하다.

夏行南方，秋行西方，冬行北方，考制度號令。】¹⁹⁴⁾ 蓋天地生物之心，隱然始發於是日。先王恐傷陽氣之發，安靜以養，所以閉關。

【兀坐】兀然不動，猶僧之參禪。

【貫動】¹⁹⁵⁾ 批云¹⁹⁶⁾：“貫字¹⁹⁷⁾上，本有通字。”

【的當】猶言반듯시¹⁹⁸⁾，‘合當’之意。

【必如】¹⁹⁹⁾ 本作‘至如’。

【相須】《易》用須字，多以待意。

【卓然】²⁰⁰⁾ 두려디。

【左席】²⁰¹⁾ 批云：“‘左席’，本集作‘座右’。”

【主靜】能敬則心不散亂，故便主靜。

【敬靜爲一】問：“敬·靜爲一之敬·靜，可以分動·靜看否？”批曰：“不然。敬自兼動·靜，不當與靜對分動·靜。靜則²⁰²⁾雖本是對動之名，然今既云與敬爲一，則

194) 古者……考制度號令：《質疑》에는 없다.

195) 貫動：《質疑》에는 ‘貫動靜’으로 되어 있다.

196) 批云：《質疑》에는 없다.

197) 字：《質疑》에는 없다.

198) 言반듯시：《質疑》에는 없다.

199) 必如：《講錄》에는 이 조목이 없으나，《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200) 卓然：《質疑》에는 설명이 ‘立貌’로 되어 있다.

201) 左席：《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202) 則：《質疑》에는 없다.

不當對敬而分動·靜也。【隆按曰：“‘不然’至‘動·靜也’四十四字，初本作‘答曰：“不然，西山所謂敬·靜爲一者，以學者持敬·主敬做工夫處言；公所謂動·靜，以人之身心有動·有靜言。做工夫處，是人所當爲，卽朱子所謂不能也，卽所謂看與折也。身心有動·靜，是道理自如此，卽朱子所謂所能也，卽所謂花與柳也。呂子約以學爲義理之蘊，朱子深譏其以能爲所能之病。今豈可效尤，而以敬·靜之能，認作動·靜之所能看乎？”百三十二字。後來改批定作今說。”】²⁰³⁾

且以敬相傳，自古而然，如堯之‘欽明’，舜之‘兢業’，湯之‘聖敬’，武王之‘敬勝’，孔子之‘行篤敬’·‘修己以敬’，是也。敬字工夫，通貫動靜，不須言靜而自足。【〈大易〉‘寂然不動’，〈孟子〉‘平旦²⁰⁴⁾夜氣’，說靜理，而不說出靜字。〈大學〉‘靜·定’²⁰⁵⁾，只言‘知止’之效，非言主靜之學。】²⁰⁶⁾至濂溪先生，有主靜之說，亦只言聖人全合²⁰⁷⁾動靜之德，而常本於靜耳，未說到爲學處。程門始以學者多患紛擾，故發靜坐之旨，所以教人藥其病也。然其言少差，則易流於禪。今南軒則不然，知敬卽主靜之意，又專意於敬，而覺主靜之有味，其不流於禪，而得周·程本旨指²⁰⁸⁾可知。故西

203) 隆按曰……作今說：《質疑》에는 없다.

204) 旦：《質疑》에는 ‘朝’로 되었다.

205) 靜定：《質疑》에는 ‘定靜’으로 되었다.

206) 大易……主靜之學：《質疑》에는 본문으로 편성되어 있다.

207) 合：《質疑》에는 ‘全’으로 되어 있다.

208) 指：《質疑》에는 ‘旨’로 되어 있다.

山贊歎之如此。學者但²⁰⁹⁾當求南軒何以知敬卽主靜之意，又當求南軒所以能專力於敬字上者如何，而覺主靜之有味，以是勉勉加工，可也。恐不當枉費心力於分動·靜也。”

又語及朱子所稱花柳看折之言，問：“於此言，亦可分體·用看否？”【花柳看折，分能與所能，見朱子〈答呂子約書〉。】答曰：“花柳爲體，以花柳待人看折而作如何地用，以爲其用，則可。若直以人之看折爲花柳之用，則不可。凡謂體·用者，謂是物有是體，則卽其體而有其用耳。如筆有毛·有竹·尖頭套匣者，體也；待人而匣脫柄·運飲墨·行紙者，用也。以是爲筆之體·用，可也。若以彼爲體而以人之用筆爲筆之用，則不可。觀朱子〈答呂子約書〉，謂‘以形以下者言之，則事物又爲體，而其理之發見者爲之用云云’，未賞²¹⁰⁾以人之處事應物爲事物之用也。”²¹¹⁾

209) 但：《質疑》에는 없다.

210) 賞：今案：‘嘗’의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211) 又語及……事物之用也：《質疑》에는 없다.

23 〈仁人心章〉

【有放心^[止]不知求¹⁾】放心乙 求호를 아디 못호리
잇느니

〈本註〉²⁾

【尋向上去³⁾】李錄云：“向上乙 尋ッ也 去호다.”

【腔子】李錄云：“猶言⁴⁾軀殼. 皮甲之內, 通謂之腔子. 或曰心, 非是.”

【二問】⁵⁾ 批云：“二問之間, 當作周. 下同.” ○⁶⁾

《一統志》曰⁷⁾：“周孚先, 晉陵人. 與弟恭先, 俱從程頤學. 頤嘗謂：‘孚先兄弟, 氣質淳明, 可以入道.’ 其終⁸⁾俱由鄉薦, 入太學. 孚先調四明鹽場, 改建德尉, 不就, 後丐祠. 恭先終坑冶官.” ○⁹⁾ 《淵源錄》曰¹⁰⁾:

1) 有放心^[止]不知求：《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2) 本註：《講錄》에는 이 분류명이 없으나, 《質疑》에 의하여 보충하였다.

3) 尋向上去：《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言尋了向上事而去也’로 되어 있다.

4) 李錄云猶言：《質疑》에는 없다.

5) 二問：《質疑》에는 ‘二周’로 되어 있다.

6) 批云……下同○：《質疑》에는 없다.

7) 曰：《質疑》에는 없다.

8) 其終：《質疑》에는 없다.

“周伯忱，名孚先，毗陵人，與其弟恭先 伯溫，同受¹¹⁾二程先生。”

《好著書》¹²⁾ 李錄云：“龜山¹³⁾病處，若無是病，其道純矣。”

《粹面盎背》¹⁴⁾ 《孟子》曰：“仁·義·禮·智根於心，睟然見於面【清和溫潤之意】，盎於背【豐厚盈溢之意】，施於四體，四體不言而喻矣。¹⁵⁾” ○先生批云：“睟面之睟，从目；睟駁之粹，以米。”¹⁶⁾

《靠》 音告，憑也。

《鄭仲禮》 南軒門人，一見朱子後，往復書問而已。

《荒》 荒廢。

《陳烈》 字¹⁷⁾ 與濂溪一時名士也。○先生批云：“篤行人也。” ○¹⁸⁾ 《一統志》曰¹⁹⁾：“侯官人，學行端飭，

9) ○：《質疑》에는 없다.

10) 曰：《質疑》에는 없다.

11) 同受：《質疑》에는 뒤에 ‘學’이 있다.

12) 好著書：《質疑》에는 ‘勿好著書’로 되어 있다.

13) 龜山：《質疑》에는 앞에 ‘好著書’가 있다.

14) 粹面盎背：《質疑》에는 ‘睟面盎背’로 되어 있다.

15) 矣：《質疑》에는 없다.

16) ○先生批云……以米：《質疑》에는 없다.

17) 字：《質疑》에는 뒤에 ‘季慈’가 있다. 今案：《講錄》에서는 傳寫 과정에서 빠뜨린 것으로 보인다.

18) 先生批云篤行人也○：《質疑》에는 없다.

動遵古禮，御童僕，如對賓客。仁宗屢²⁰⁾詔不起。公卿·郡守·鄉老，交章稱其賢，以本州教授，召爲直講，皆不拜。後以宣德郎，致仕。與陳襄·鄭穆·周希孟爲友，閩人稱四先生。”

【又謂門人】批云²¹⁾：“門人石洪慶，字子餘。將歸，召入語云云。²²⁾”

【昭曠之原】昭明曠達之原，乃天理之本原。²³⁾

【不須在【止】紙上語】²⁴⁾批云：“在，《語類》·《大全》，皆作枉。”○釋云：“모되 工夫乙 枉費 〃 也
紙上語乙 鑽乎 乙디 아니니.”

【此中】心中。

【迎刃而解】如剖竹脈理，迎刃而解破也。²⁵⁾

【未問眞知與力行】²⁶⁾問：“眞知·力行，則心已有個頓放處。今云‘未問’，是如何？”先生批云：“‘未問’，猶

19) 曰：《質疑》에는 없다.

20) 屢：《質疑》에는 ‘累’로 되어 있다.

21) 批云：《質疑》에는 없다.

22) 云云：《質疑》에는 ‘云’으로 되어 있다.

23) 本原：《質疑》에는 ‘本源’으로 되어 있다.

24) 不須在【止】紙上語：《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25) 也：《質疑》에는 없다.

26) 未問眞知與力行：《質疑》에는 ‘未問【止】力行’으로 되어 있고, 설명은 ‘謂不分眞知與力行，皆以收拾此心爲本也.’로 되어 있다.

言‘不問’，謂不分眞知與力行，而二者皆如此也。”

【頓放】 猶言安置也。乃心之所在也，在於腔子裏也。²⁷⁾

【林恪】 字叔恭，天台人，朱門高弟。

【似擔【止】骨擔】²⁸⁾ 百十斤 짐을 擔호므로 서르 마치 마트니라. 모로미 筋骨乙 벅벅기 著호여 擔홀디니라.

【又謂一學者】 批云²⁹⁾：“告沈莊仲。”

【掀然】 《左傳》：“魯君戰而陷溺，勇士掀公而出。”又有掀天動地之語。³⁰⁾ 猶言‘들티다’。³¹⁾

【今公問】 批云³²⁾：“‘問’，當依《語類》作‘門’。或疑‘問’字是。然《語類》又一條，謂莊仲曰：‘公門心都麤大’，語意正與此同。‘門’字爲是。³³⁾”

【而今】 今字³⁴⁾，或屬人字讀³⁵⁾，非是。《語類》，

27) 在於腔子裏也：《質疑》에는 없다.

28) 似擔【止】骨擔：《質疑》에는 ‘似擔百十斤許擔子。須是堅着筋骨而擔也.’로 되어 있다.

29) 批云：《質疑》에는 없다.

30) 動地之語：《質疑》에는 뒤에 ‘蓋高舉翻動之意.’가 있다.

31) 猶言들티다：《質疑》에는 없다.

32) 批云：《質疑》에는 없다.

33) 然語類……門字爲是：《質疑》에는 ‘然按《語類》，此上一條，亦有云“公門心都麤大”，語正與此同。門字爲是.’로 되어 있다.

34) 今字：《質疑》에는 뒤에 ‘句’가 있다.

35) 讀：《質疑》에는 없다.

如此樣多有之。

【人不知【止】放得遠】³⁶⁾ 人不知學者，於天下事，全無所知，故放得近；學者，於天下之³⁷⁾事，多有所知，若不存養務本，則心隨所知而馳逐，故放得遠。

【跬步】跬，音기³⁸⁾，半步。

【喻至重】³⁹⁾ 至重乙 譬喻호요문。

36) 人不知【止】放得遠：《質疑》에는 ‘不知【止】得遠’으로 되어 있다.

37) 之：《質疑》에는 없다.

38) 기：《質疑》에는 ‘跬’로 되어 있다.

39) 喻至重：《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24 〈無名指章〉

〔今有無名〕¹⁾ ‘有’字, 不釋.

〈附註〉²⁾

〔永嘉鄭氏〕未詳.

〔西山〕先生嘗有批云³⁾: “《附註》乃篁墩所纂, 而小註作西山, 恐誤. 士敬云.”⁴⁾

1) 今有無名: 《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見《孟》錄.’으로 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艮齋集》續集 권1 〈孟子質疑〉에 보인다.

2) 附註: 《講錄》에는 이 분류명이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3) 先生嘗有批云: 《質疑》에는 없다.

4) 士敬云: 《質疑》에는 뒤에 ‘○更考, 西山上脫按字.’가 있다.

25 〈人之於身兼所愛章〉

【兼所愛】¹⁾ 兼ッ也 愛호는 배ヒ.

【則口腹【止】之膚哉】²⁾ 곧 口腹인들 엇디 마춤 尺寸인 膚이 될 쥘니리오.

【指而】³⁾ 批云：“指下脫‘而’字.”

【體有貴賤云云】⁴⁾ 李錄云：“問：‘既以心與耳目口鼻百體分小大，而下文又以一指肩背譬小大，何歟？’先生答云：‘此章本以口腹爲小體，心志爲大體。然小體有形而易見，大體無形而難知，恐人之未曉也。故更有有形之物，分大小·貴賤而譬喻之。梧櫝，大而貴者也；楫棘，小而賤者也。場師之一舍一養失宜，則爲賤場師。然此是遠取諸物，猶爲未切。故又卽吾身而設譬，姑於大體之說，拈置一邊，只就小體中而自分大小，則一指之小，肩背之大，判然易見·易知者也。人若養一指，而失肩背，豈不爲狼疾之不能顧者耶？在鈞是小體之中，猶不可養小而失大如此，況可養口腹之小

1) 兼所愛：《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2) 則口腹【止】之膚哉：《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3) 指而：《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4) 體有貴賤云云：《質疑》에는 ‘云云’이 없다. 또한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見原集.’으로 되어 있다.

體，而失心志之大體者，其人之賤爲如何也？此孟子善譬喻，議論發越，能警動人處。”

〈附註〉 5)

〔攻取〕 李錄云：“攻如攻伐之攻。其所以攻伐之者，欲取其物，以⁶⁾入於己也。”

〔屬蹙〕 ⁷⁾ 先生批云：“出《左傳》. 蹙足호매 다타.”
○批云：“屬，音燭.”

〔嗜〕 ⁸⁾ 《韻會》云：“時利切，喜欲之也.”

〔一切世味〕 功名·利祿·飲食·男女之類，皆謂之世味也. ○李錄云：“一切，卽一是之義. 如禪家一切之類.”

〔相〕 ⁹⁾ 有貧窮相·富貴相. 或有好惡於二者，士君子不須要富貴相.

〔激昂〕 솟덜어놉퍼. ○李錄云¹⁰⁾：“猶激厲之義. 因

5) 附註：《講錄》에는 이 분류명이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6) 以：《質疑》에는 없다.

7) 屬蹙：《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出《左傳》. 言至於蹙足. 屬, 音燭.'으로 되어 있다.

8) 嗜：《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9) 相：《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形相之相'으로 되어 있다.

云¹¹⁾: ‘人無有是心, 則難爲士君子也.¹²⁾’”

【 恁說得倒了 】 先生批云¹³⁾: “若順言之, 則當¹⁴⁾口腹之養, 亦軀命所開, 非不爲大. 只爲養此, 則定失大, 故人賤之云云. 今反說如此, 故云¹⁵⁾倒說.”

【 屑屑 】 《孟子集註》¹⁶⁾: “屑, 潔也. 又切切然也. 不以是爲潔, 而切切於是也.¹⁷⁾” 此當以切切然看.¹⁸⁾

【 討喫 】 討求也. 討ッ也 喫ッタ.¹⁹⁾

【 倍天遁情 】 道心不得主宰, 而聽命於人心也. ○
《楚辭》註: “遁, 移也.”²⁰⁾

【 憧憧 】 昌容切. 意不定之²¹⁾貌. 《易》“憧憧”²²⁾, 往來不絕也. 蓋私心滯於一隅, 往來不絕.²³⁾

10) 숫덜어놔퍼○李錄云: 《質疑》에는 없다.

11) 因云: 《質疑》에는 없다.

12) 也: 《質疑》에는 ‘矣’로 되어 있다.

13) 先生批云: 《質疑》에는 없다.

14) 當: 《質疑》에는 뒤에 ‘曰’이 있다.

15) 云: 《質疑》에는 ‘曰’로 되어 있다.

16) 孟子集註: 《質疑》에는 ‘孟子註’로 되어 있다.

17) 又切切……於是也: 《質疑》에는 ‘又切切然以是爲潔而切切於是也.’로 되어 있다. 今案: 《孟子集註》에 의하면 《講錄》의 이 인용 앞에는 원래 ‘不屑就’가 있어야 한다. 《質疑》는 ‘不屑就’와 함께 ‘不’을 생략하여 의미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8) 此當以切切然看: 《質疑》에는 없다.

19) 討ッ也 喫ッタ: 《質疑》에는 없다.

20) ○楚辭註遁移也: 《質疑》에는 없다.

21) 之: 《質疑》에는 없다.

22) 憧憧: 《質疑》에는 뒤에 ‘註’가 있다.

〔槲棘〕²⁴⁾ 미쵸.

23) 也蓋私心……不絶 : 《質疑》에는 없다.

24) 槲棘 : 《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見《孟》錄.’으로 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艮齋集》續集 권1 〈孟子質疑〉에 보이는 데, 그 설명이 ‘小棗. 非美材也.’로 되어 있다.

26 〈鈞是人章〉

【物交物【止】已矣】¹⁾ 物 ㄴ 物 乙 交호면 곧引흐 싹
르미니라.

【趙註】²⁾ 趙岐，字邠卿，東漢人。逃難遷徙四方，至
賣餅以食，終不失節。

〈附註〉³⁾

【不相能】 目不能聽，耳不能視也。

【五官】 耳·目·口·鼻·形。⁴⁾

【神明之主】 李錄云：“心⁵⁾若謂神明之舍則可，恐不
當言神明之主，何如？曰：‘神明二字，非直是說心⁶⁾，
只言心之所虛靈不昧者。然則可不謂之主乎？心本爲
一身之主宰，而神明之主也。⁷⁾’”【隆按：“心之所以虛靈不昧者

1) 物交物【止】已矣：《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2) 趙註：《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今案：이 조목은 아래 ‘飢者甘食章’의 ‘趙氏’ 조목이
여기에 잘못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3) 附註：《講錄》에는 이 분류명이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4) 形：《質疑》에는 뒤에 ‘也’가 있다.

5) 心：《質疑》에는 앞에 ‘問’이 있다.

6) 心：《質疑》에는 뒤에 ‘也’가 있다.

7) 也：《質疑》에는 없다.

神明，則恐當云‘神明心之主.’ 何可謂‘心神明之主’也?”】 8)

【新安倪氏】 倪士毅⁹⁾，休寧人。潛心求道，嘗學於陳櫟·朱敬輿。【出《一統志》。】

【譙先生】 名定，字天授。蜀人。胡憲之師也。伊川謫涪州相見，約與同居洛陽。後譙來，伊川已卒¹⁰⁾，故還歸。

8) 隆按……主也：《質疑》에는 없다.

9) 倪士毅：《質疑》에는 ‘名士毅’로 되어 있다.

10) 卒：《質疑》에는 ‘沒’로 되어 있다.

27 〈飢者甘食章〉

【人能無【止】心害】¹⁾ 사름미 能히 飢渴의 害又써 心害乙 삼지 아니면.

【飲食】²⁾ 批云：“《孟子》，‘飲食’上有‘於’字.”

〈附註〉³⁾

【趙氏】⁴⁾ 名岐，字邠卿，東漢人，逃難遷徙四方，賣餅以食，終不失節.

1) 人能無【止】心害：《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2) 飲食：《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3) 附註：《講錄》에는 이 분류명이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4) 趙氏：《講錄》에는 이 조목이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28 〈魚我所欲章〉

〔不爲苟得〕¹⁾ 苟且히 得디 몬 홀 거시오.

〈本註〉²⁾

〔然或〕 批云³⁾: “本無然字.”

〈附註〉⁴⁾

〔邢恕〕 久從先生⁵⁾學，小人排斥程子及門人，恕欲免其禍. 一日於進講曰：‘程某斬作千段，臣無恨焉.’ 其爲人如此.⁶⁾ ○《淵源錄》曰：“邢恕⁷⁾，字和叔. 其行事，具國史及邵伯溫辨誣等書，云：‘邢和叔⁸⁾，後來亦染禪學. 其爲人明辨有才⁹⁾，更¹⁰⁾曉鍊世事，其於學，

1) 不爲苟得：《質疑》에는 ‘苟得’으로 되어 있고, 설명이 ‘苟且以得.’으로 되어 있다.

2) 本註：《講錄》에는 이 분류명이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3) 批云：《質疑》에는 없다.

4) 附註：《講錄》에는 이 분류명이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5) 先生：《質疑》에는 ‘程子’로 되어 있다.

6) 久從……如此：《質疑》에는 이 부분이 ‘《淵源錄》……至焉者也’ 아래에 편집되어 있다.

7) 邢恕：《質疑》에는 없다.

8) 邢和叔：《質疑》에는 없다.

亦日月而至焉者也.’”

〔以責人【止】則忠〕¹¹⁾ 李錄云：“問：‘以責人言之則恕，以教人言之則忠，如何?’ 答¹²⁾曰：‘不爲¹³⁾全無知識，則爲恕可知；剖判義理・利欲於毫髮之間，則爲人謀而忠可知.’”

〔句當〕 猶主管之意. 결업서하다.¹⁴⁾

〔濟〕 有益也.¹⁵⁾

9) 才：今案:《講錄》에는 ‘不俊’으로 되어 있으나, 《質疑》에 ‘才’로 되어 있고, 《伊洛淵源錄》에도 ‘才’로 되어 있으므로 고쳤다.

10) 更：《質疑》에는 없다.

11) 以責人【止】則忠：《質疑》에는 ‘以責【止】則忠’으로 되어 있다.

12) 曰：《質疑》에는 없다.

13) 爲：《質疑》에는 ‘謂’로 되어 있다.

14) 결업서하다：《質疑》에는 없다.

15) 有益也：《質疑》에는 뒤에 ‘成也.’가 더 있다.

定本 退溪全書 四

第四篇

29 〈雞鳴而起章〉

〈本註〉 1)

【未有不[止]義者】 李錄云：“此非指大段顯然之利而言，乃言其心術精微處也.²⁾ 故爲學者所當察之云.³⁾”

〈附註〉

【董仲舒】⁴⁾ 廣川人. 治《春秋》，下帷講授，三年不窺園圃.⁵⁾ 以賢良對策，勸武帝‘勉強學問·行道設誠於內’等語，帝嘉之，以爲江都相. 仲舒學問源委⁶⁾，‘正誼·明道’之言，卓越諸子，爲漢醇儒.

1) 本註：《講錄》에는 이 분류명이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2) 也：《質疑》에는 없다.

3) 爲學者所當察之云：《質疑》에는 ‘又有學者所當深察云.’으로 되어 있다.

4) 董仲舒：《講錄》에는 ‘未有不[止]義者’ 앞에 편성되어 있지만, 《質疑》에 의거하여 순서를 바로잡았다.

5) 園圃：《質疑》에는 ‘園’으로 되어 있다.

6) 仲舒學問源委：《質疑》에는 ‘學有源委’로 되어 있다.

〔所立〕 樹立其志.⁷⁾

〔能言眞如鸚鵡〕⁸⁾ 能言, 能文章也. 《記》曰: “鸚鵡能言, 不離飛鳥; 猩猩能言, 不離走獸. 禽獸由不知禮, 故父子聚麀.”

〔立得脚定〕 脚乙 立得ッ也 定ッ P 然後.⁹⁾

〔煖〕 《韻會》云¹⁰⁾: “[火遠切, 又乃管切.]¹¹⁾ 溫也.”

〔般樣〕¹²⁾ 가지 模樣이.

〔回互委〔止〕心機〕¹³⁾ ‘回互’, 與‘回護’同. 내 알플 곱곶외여 돕더트미라. ‘委曲’, 俗有曲洞曰‘委巷’. 皆言回護其身, 多設機心, 不計是非也.¹⁴⁾ ○問: “此乃無狀小人, 而曰‘爲小人, 亦不索性’者, 如何?” 答曰: “君子回護自家, 周旋於二者之間, 欲爲義而實牽於利, 欲爲利而又不欲去義, 屈曲遷就, 費心機關, 雖不可謂

7) 樹立其志: 《質疑》에는 ‘所樹立也’로 되어 있다.

8) 能言眞如鸚鵡: 《質疑》에는 ‘能言〔止〕鸚鵡’로 되어 있고, 설명은 ‘《記》曰: “鸚鵡能言, 不離飛鳥.”’라고만 되어 있다.

9) 脚乙立得ッ也定ッ P 然後: 《質疑》에는 ‘脚을 立得히야 定히’으로 되어 있다.

10) 云: 《質疑》에는 없다.

11) 火遠切又乃管切: 《質疑》에는 본문으로 편집되어 있다.

12) 般樣: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3) 回互委〔止〕心機: 《質疑》에는 ‘回互〔止〕心機’로 되어 있고, 설명은 ‘回互, 與回護同; 委曲, 俗有曲洞曰委巷. 皆言互邪枉曲, 多設機心, 不計是非.’라고만 되어 있다. 《質疑》에서는 《講錄》의 설명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索性’이라는 별도의 조목을 두어 편성하였다.

14) 也: 《質疑》에는 없다.

無狀小人，亦豈得爲立脚君子乎？爲士而學不明，知不至，則其免於此者，鮮矣。”

【索性】¹⁵⁾ 猶極意之意。或有只下索字處。○問：“此乃無狀小人，而曰‘小人，亦不索性’者，如何？”答曰：“回護自家，周旋於二者之間，欲爲義而實牽於利欲，欲爲利而又不欲去義，屈曲遷就，費盡心機，雖不可謂無狀小人，亦豈得謂立脚君子乎？爲士而學不明，知不至，則其免於此者，鮮矣。”

【行在】 李錄云：“行在，指南宋所都，卽臨安府也。國人不忍忘故國，故云‘行在’，以示當恢復之意也。”¹⁶⁾

【命之【止】窮也】¹⁷⁾ 以《中庸》首章‘天命之謂性，率性之謂道，修道之謂教’三句言。

【曰利】¹⁸⁾ 批云：“疑‘曰利’下有‘則’字。”

【不爾】 猶言不然。

【君子喻於義條】¹⁹⁾ 《論語》〈里仁篇〉。²⁰⁾ ○批云²¹⁾：“朱子曰：‘伊川云：“惟其深喻，是以篤好。”’子

15) 索性：《講錄》에는 이 조목이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16) 意也：《質疑》에는 뒤에 ‘漢書註：“天子以四海爲家，故所居曰行在所。”’가 있다.

17) 命之【止】窮也：《質疑》에는 ‘命之【止】無窮’으로 되어 있다.

18) 曰利：《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曰利下，疑有則字.’로 되어 있다.

19) 君子喻於義條：《質疑》에는 ‘君子【止】於利’로 되어 있다.

20) 論語里仁篇：《質疑》에는 ‘見《論語》.’로 되어 있다.

靜必要云“好²²⁾方喻。” 看來人之於義利²³⁾，喻而好者多，若全不曉，又安能好？然好則喻矣。畢竟伊川說占得多。”

〔顧〕 顧，念也。

〔如何〕 吾之爲文，合於有司之好惡與否也。

〔背而馳者矣〕²⁴⁾ 猶聖²⁵⁾歸於東，我則歸於西，所以背馳也。²⁶⁾

〔推而上之〕²⁷⁾ 由科舉而及於出身。

〔民隱〕 民之隱痛也，

〔詭〕 異也。

〔陳芝〕 字廷秀。朱門人，

〔剖判〕 辨別也。글히터.²⁸⁾

〔睹當〕 批云²⁹⁾：“睹當³⁰⁾，疑是商量見得之意。”

21) 批云：《質疑》에는 없다.

22) 好：《質疑》에는 뒤에 ‘後’가 있다.

23) 義利：《質疑》에는 ‘義理’로 되어 있다.

24) 背而馳者矣：《質疑》에는 ‘背而馳’로 되어 있다.

25) 聖：《質疑》에는 ‘聖賢’으로 되어 있다.

26) 也：《質疑》에는 없다.

27) 推而上之：《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初論科舉得失，而轉及官資廩祿，是推而上之也.’로 되어 있다.

28) 글히터：《質疑》에는 없다.

29) 批云：《質疑》에는 없다.

30) 睹當：《質疑》에는 없다.

【取解】 李錄云：“解，貢也。見《小學註》。解乙取ッ다.³¹⁾ 如今取初試也.³²⁾ 所以言解者，郡縣舉士於下而貢之³³⁾於上故云。與‘解送’之‘解’同意。

【自老自踵】³⁴⁾ 批云：“自老自踵，兩自字，《語類》作至。”○³⁵⁾ 猶言自始至終也。³⁶⁾ 頂踵二字，出《孟子》，‘墨氏兼愛，摩頂放踵.’³⁷⁾

【疊疊】³⁸⁾ 브즐브즐.

【九地之下】 言下究其深如此。

【重天之顛】 顛，上也。皆言相去懸絕也。

【又以謂】³⁹⁾ 또 이리 흐므로써 니로되

31) 解乙取ッ다：《質疑》에는 없다.

32) 如今取初試也：《質疑》에는 ‘解，如今初試也.’로 되어 있다.

33) 之：《質疑》에는 없다.

34) 自老自踵：《質疑》에는 ‘自少【止】至踵’으로 되어 있다.

35) 批云……作至○：《質疑》에는 없다.

36) 也：《質疑》에는 없다.

37) 墨氏兼愛摩頂放踵：《質疑》에는 없다.

38) 疊疊：《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詩註》：“勉強之貌.” 此則漸漸浸浸之意.’

39) 又以謂：《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30 〈養心章〉

【雖有不存焉者寡】¹⁾ 비록 잇디 안닌 거시 이시나 적고.

【寡欲】²⁾ ‘欲’, 如《中庸·序》所謂‘人心生於形氣之私’, 人所不能無. 但道心主宰, 則人欲消³⁾, 故《孟子》下‘寡’字.

【雖有不[止]寡矣】⁴⁾ 先生批云⁵⁾: “天理·人欲, 相爲消長. 欲寡則天理雖有不存者, 不存者小⁶⁾, 言存者多也; 欲多則天理雖有存者, 存者小⁷⁾, 言不存者多也.”

〈附註〉⁸⁾

【着他】他, 言天理.⁹⁾

-
- 1) 雖有不存焉者寡 :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今案: 아래 ‘雖有不[止]寡矣’와 통합하는 것이 더 좋겠다.
- 2) 寡欲 : 《質疑》에는 ‘寡欲○雖有[止]寡矣’라는 표제로 아래의 ‘雖有[止]寡矣’ 조목과 통합 편성되어 있고, 설명은 ‘并見《孟》錄.’으로 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艮齋集》續集 권1 〈孟子質疑〉에 보인다.
- 3) 人欲消 : 《艮齋集》에는 ‘欲不過則’으로 되어 있다.
- 4) 雖有不[止]寡矣 : 《質疑》에는 ‘雖有[止]寡矣’로 되어 있다. 앞의 각주 39) 참조.
- 5) 先生批云 : 《艮齋集》에는 없다.
- 6) 小 : 《艮齋集》에는 ‘少’로 되어 있다.
- 7) 小 : 《艮齋集》에는 ‘少’로 되어 있다.
- 8) 附註 : 이 분류명은 《講錄》에는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天機】 天理自然發用之妙處.

【却最是】 《莊子》他語雖非，而此語精緻，故下‘却’字.

【仁之【止】所好】 出《禮記·儒行篇》.10) 釋云：“仁의 成호미 어려온디라. 사름마다 그 好호는 바에 失호는다 호니.”11)

【不存者牯亡之謂】12) 李錄云：“問：‘不存，蓋謂理也，而曰牯亡者，何耶?’13) 答曰：‘存者雖理，而使之不存者，是由14)牯亡之故耳.’”

【揀難捨底棄却】15) 《上蔡語錄》云：“家有好硯，每嘗念16)，卽與之他人”云云.17) 釋云：“브리디 어려 온 거슬 곴히여 브리더니.”18)

9) 他言天理：今案：《講錄》에는 標題처럼 편집되어 있으나，《質疑》에 의거하여 고쳤다.

10) 出禮記儒行篇：《質疑》에는 ‘出《禮·表記篇》.’으로 되어 있고, 이어서 ‘其註曰：仁之難成，私欲間之也。私意行，則所好非所當好，故曰失其所好.’라는 내용이 더 있다. 今案：해당 인용은 《禮記·表記篇》에 나온다.

11) 釋云……호니：《質疑》에는 없다.

12) 不存者牯亡之謂：《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見原集.’으로 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9)에 보인다.

13) 不存蓋謂理也而曰牯亡者何耶：《艮齋集》에는 ‘不存者，牯亡之謂。不存蓋指理也，而曰牯亡者，何耶?’로 되어 있다.

14) 是由：《艮齋集》에는 ‘卽’으로 되어 있다.

15) 揀難捨底棄却：《質疑》에는 ‘揀難【止】棄却’으로 되어 있다.

16) 念：《質疑》에는 뒤에 ‘之’가 있다.

17) 云云：《質疑》에는 ‘云’으로 되어 있다.

18) 釋云……브리더니：《質疑》에는 없다.

【健羨底心】¹⁹⁾ 브러흐는 믿음의 ㄴ장

【外間】 外物.²⁰⁾

【凡事須有根】 批云：“須，必也.²¹⁾ 凡物之所由發出曰根。” ○李錄云：“凡事必有其根，非言須使之有根也。如要富貴，亦尋其根也。”

【要用處】 如《孟子》所謂妻妾·宮室·所識窮乏者之類。此處大段尋求而斷置，則可以放得下矣。

【要時】 有些計較호면.²²⁾

【一齊走出了】 於衆事一切馳逐也。

【不要人學寫字】²³⁾ 李錄云：“問：‘寫字，何以謂不要學也²⁴⁾?’ 答曰：‘要字有病。若只以爲合當爲而爲之則可，一有要好²⁵⁾之念，則便是心病，皆非自然也。學者當深味不要二字。’”

【要得寡【止】是難】²⁶⁾ 批云²⁷⁾：“《語類》本語²⁸⁾ 作

19) 健羨底心：《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言羨慕之心健也.’로 되어 있다.

20) 外物：今案：《講錄》에는 標題처럼 편집되어 있으나，《質疑》에 의거하여 고쳤다.

21) 批云須必也：《質疑》에는 없다.

22) 有些計較호면：《質疑》에는 ‘有些計較則之意. 漢人使時字，多如此.’로 되어 있다.

23) 不要人學寫字：《質疑》에는 ‘不要【止】寫字’로 되어 있다.

24) 也：《質疑》에는 없다.

25) 好：《質疑》에는 ‘之’로 되어 있다.

26) 要得寡【止】是難：《質疑》에는 ‘要得【止】是難’으로 되어 있다.

27) 批云：《質疑》에는 없다.

‘只是要得寡欲，存這心便²⁹⁾是難云云.’ 篁墩節去‘只是’字³⁰⁾，而又‘這心’二字誤倒，令人難曉。今³¹⁾當從本文。”

【不邇^[止]貨利】出³²⁾《書·仲虺之誥》。

【旅獒】〈周書〉篇名。武王遂通道于九夷八蠻。³³⁾ 西旅獻³⁴⁾獒，召公作此書³⁵⁾以獻。

【儉嗇】李錄云：“嗇吝於財用之謂。薄於自奉者，亦謂之儉嗇也。”

【殺父與君也敢】³⁶⁾ 問：“如此樣人，是乃王溥·范質之類與？” 答曰：“不然。王·范若便謂之殺父與君也敢，便不是。宋太祖寬厚長者，事周帝如舊，故王·范事宋。若宋太祖殺君，則王·范之肯事，未可知也。公看此文勢，手殺其君父也敢，非若王·范之類，乃其謂大段惡逆人。” ○又問：“王·范不可謂如此，既聞命矣。於我

28) 本語：《質疑》에는 없다.

29) 便：《質疑》에는 ‘最’로 되어 있다.

30) 字：《質疑》에는 ‘二字’로 되어 있다.

31) 今：《質疑》에는 없다.

32) 出：《質疑》에는 없다.

33) 武王遂通道于九夷八蠻：《質疑》에는 없다.

34) 獻：《質疑》에는 ‘貢’으로 되어 있다.

35) 此書：《質疑》에는 ‘書’으로 되어 있다.

36) 殺父與君也敢：《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朝，黃喜·許稠亦不可謂如此否？”答曰：“黃·許前朝筮仕乎？”對曰：“小子考前朝登科錄，黃登恭讓王朝己巳年，許登庚午年。”答曰：“便不是。朱子直是說手殺也。許·黃雖登第前朝，豈可謂手弑者同罪？”對曰：“生不能死於國難之日，反臣事讐，晏然於不共戴天之人，竊據相位，坐享祿廩，其亦何以異於手弑？”答曰：“不是。譬如賊人·盜人之物分贓者，雖皆謂之盜，及考律定罪，必有輕重之分。其時如權近等輩頗多，豈皆可謂弑君之賊乎？”○又問：“小子更思之，王溥之事，未詳。范質作詩曰：‘我本羈旅臣，遭逢堯·舜理。’以堯·舜禪讓，比宋·祖之傳國，其心可知。安知宋·祖弑君篡位，范爲之先也？以此觀之，不可謂別於手弑也。敢請指誨。”先生答云：“公言過矣。《春秋》雖有誅心之法，至於王者用律，則罪分輕重，極有差等。若如公言，則盜者無已行·未行之分，奸者無已成·未成之差，一有涉於奸盜者，盡取而殺之耶？此說甚長，非可易了。幸毋太主張己見。徐究觀古人所以處此等法義者，多且熟，然後可更論也。”○九月初七日，又謂之曰：“昔曹操嚴酒禁，蓄翹者亦并誅之。一日賈詡對操，男女過去，詡請并誅之。操云：‘何故？’曰：‘彼男女各有其

具.’操乃悟，遂弛蓄翹之罪。如公之言，何異於操之并誅有翹者也？”○又批云：“又孟子謂萬章：‘有王者作，將比今之諸侯而誅之乎云云。’此等議論，皆不可不知。”

【勿視聽言動寡欲之謂】³⁷⁾ 先生嘗有批云³⁸⁾：“朱子謂：‘欲是好底欲，不是不好底欲。若不好底³⁹⁾，不當言寡。’又云⁴⁰⁾：‘未說到事上，只是才有意在上面，便是欲。’觀此等說，似與勉齋以非禮勿視·聽·言·動爲寡欲之說，微有不同。更詳之。”

【柝】夜行所擊木，所以警巡也。

【內姦外宄】賊在內曰姦，在外曰宄。

37) 勿視聽言動寡欲之謂：《質疑》에는 ‘非禮【止】之謂’로 되어 있다.

38) 先生嘗有批云：《質疑》에는 없다.

39) 若不好底：《質疑》에는 ‘若不好底欲’으로 되어 있다.

40) 云：《質疑》에는 ‘曰’으로 되어 있다.

31 〈養心說章〉

〔養心說章〕¹⁾ 先生名張宗範之亭曰養心，而爲之說。

〔誠〕 實理之在心者。

〔明〕 無不照。

〔誠立賢也明通聖也〕²⁾ 李錄云：“問：‘〈註〉³⁾：“誠立，實體安固；明通，實用流行。”然則於聖獨言用而不及體，於賢偏言體而不及用，如何？’答曰：“互相看了，始得。非賢者止於誠立而不能通明⁴⁾也，非聖者止於通明⁵⁾而本⁶⁾無誠立也。但聖賢之間，不能無誠立明通之高下·精粗而已。”

〔則無〕⁷⁾ 批云：“則無之則，《性理大全》作到。”

〈附註〉⁸⁾

1) 養心說：이 조목은 《講錄》에는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2) 誠立賢也明通聖也：《質疑》에는 ‘誠立明通’으로 되어 있고, 설명은 ‘見原集.’으로 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9)에 보인다.

3) 註：《艮齋集》에는 없다.

4) 通明：《艮齋集》에는 ‘明通’으로 되어 있다.

5) 通明：《艮齋集》에는 ‘明通’으로 되어 있다.

6) 本：《艮齋集》에는 ‘體’로 되어 있다.

7) 則無：《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8) 附註：《講錄》에는 이 분류명이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葉氏〕批云：“葉氏⁹⁾，名采，註《近思錄》。”

9) 批云葉氏：《質疑》에는 없다.

32 〈聖可學章〉

〔通書〕 問其義，答曰：“其書專¹⁾論易理，若能看其書，則可通易理也.²⁾”

〔公〕 以天下爲公.

〔溥〕 普遍也.

〈附註〉³⁾

〔話頭〕 如今國家將有辭命⁴⁾，書其題目下‘于知製教命製進’，曰‘詞頭’之類，言言之題目也.⁵⁾

〔崖去〕⁶⁾ 先生批云：“崖，《性理大全》作‘捥’.” ○
미러가다.

〔裝點〕⁷⁾ 仔細.

〔累墜不快活〕⁸⁾ 批云⁹⁾：“累者，爲所繫累；墜者，

1) 專：《質疑》에는 앞에 ‘非’가 있다. 今案：《講錄》이 옳은 듯하다.

2) 也：《質疑》에는 없다.

3) 附註：《講錄》에는 이 분류명이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4) 辭命：《質疑》에는 ‘詞命’으로 되어 있다.

5) 言言之題目也：《質疑》에는 없다.

6) 崖去：《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崖，《性理大全》作“捥”. 捥去，推【通回切】去也.’로 되어 있다.

7) 裝點：《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猶言修飾也.’로 되어 있다.

如物懸係繫¹⁰⁾欲墜之狀. 皆言心病也. ○不知敬而用功, 則胸中如繫物焉. 批云: “受病之狀, 如此.”¹¹⁾

【眼下】 猶言當前.

【神】¹²⁾ 至而伸者爲神, 反而歸者爲鬼. 天地之功用造化之迹之神, 雖與神明之神不異, 石子主言神明之神, 當子細辨看.

【體用一源, 顯微無間】¹³⁾ 伊川《易傳·序》語也. 朱子曰: “卽體而用在其中, 故曰一源; 卽顯而微不能外, 故曰無間.” ○沖漠無朕爲體, 萬象森羅爲用.¹⁴⁾

【第一等】 猶言聖人之事.

【第二等】 猶言賢人之事.

【準】 《韻會》云¹⁵⁾: “之尹切, 則也, 倣也.”

【體大】 猶言大事也.

【是會】¹⁶⁾ 批云: “會, 《淵源錄》作‘曾’.”

8) 累墜不快活: 《質疑》에는 ‘累墜不快’로 되어 있다.

9) 批云: 《質疑》에는 없다.

10) 係: 《質疑》에는 ‘繫’로 되어 있다.

11) 也○不知敬而用功……如此: 《質疑》에는 없다.

12) 神: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3) 體用一源, 顯微無間: 《質疑》에는 ‘體用【止】無間’으로 되어 있다.

14) ○沖漠……爲用: 《質疑》에는 없다.

15) 云: 《質疑》에는 없다.

16) 是會: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博古通_止士而已】¹⁷⁾ 博古通今，爲文章，作忠信愿慤，漢·唐諸儒皆然。忠信，非如孔子之‘言忠信’，曾子之¹⁸⁾‘三省吾身¹⁹⁾’之忠信，徒知忠信之粗，而不行其精者也。²⁰⁾ 愿，謹厚，慤，無欺之誠也。言無知識之人，世上亦多這般人，似德非德而亂其²¹⁾德。孟子論鄉原²²⁾處極好，公²³⁾且去玩求。

【髣髴】 《韻會》云：“若似也。”

【滾同】²⁴⁾ 滾湯. 물리 글허날제 첫글눈주를 니르미니. 滾同，言其‘흔덕 뒤섯기다.’ ○李錄云：“與混同通。”

【有物有則】 物，形而下者也。有父子則有慈孝之理，有耳目則有聰明之德，乃物之則也。

【混淪】 不分辨合說。

【放過】 不照管舍置而過之²⁵⁾之謂。

17) 博古通_止士而已：《質疑》에는 ‘博古_止而已’로 되어 있다.

18) 之：《質疑》에는 없다.

19) 吾身：《質疑》에는 없다.

20) 也：《質疑》에는 없다.

21) 其：《質疑》에는 없다.

22) 鄉原：《質疑》에는 ‘鄉愿’으로 되어 있다.

23) 公：《質疑》에는 없다.

24) 滾同：《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混同通.’으로 되어 있다.

25) 而過之：《質疑》에는 없다.

【徽庵】²⁶⁾ 姓程，名。

【主敬以【止】踐其實】²⁷⁾ 黃勉齋撰〈朱子行狀〉之辭也。²⁸⁾ 述先生心學之正。²⁹⁾ ○主敬居先，窮理居後者，古人於小學，涵養已就，進于大學，先之以窮理，自無亂雜之患，而今人則不然。自少不曾做些工夫，一朝先使之窮理，雜亂粉擾，不³⁰⁾寧靜，所以主敬爲先也。³¹⁾

【日新爲德，富有爲業】³²⁾ 出³³⁾《易·繫辭》，曰：“日新之謂德³⁴⁾，富有之謂業。³⁵⁾”

【深切】³⁶⁾ 批云：“切，當作功。”

26) 徽庵：《質疑》에는 ‘徽庵程氏’로 되어 있고, 설명이 ‘名若庸, 字達原. 新安人. 晚號勿齋.’로 되어 있다.

27) 主敬以【止】踐其實：《質疑》에는 ‘主敬【止】其實’로 되어 있다.

28) 黃勉齋……之辭也：《質疑》에는 ‘李果齋撰〈朱子行實〉之辭也.’로 되어 있다.

29) 述先生心學之正：《質疑》에는 없다.

30) 不：《質疑》에는 뒤에 ‘能’이 있다.

31) 也：《質疑》에는 없다.

32) 日新爲德富有爲業：《質疑》에는 ‘日新【止】爲業’으로 되어 있다.

33) 出：《質疑》에는 없다.

34) 盛：《質疑》에는 ‘盛德’으로 되어 있다.

35) 業：《質疑》에는 ‘大業’으로 되어 있다.

36) 深切：《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33 〈視聽言動四箴章〉

【制於外】¹⁾ ‘制’，猶言‘勿’也。視·聽·言·動，皆由於內而發，勿之於外也。

【至於】²⁾ 批云：“至，《論語》等處，皆作進。”

【操之有要】³⁾ 心之無形，難以操之。惟視見之發於非禮處，從而操之，是謂有要也。

【知誘物化】⁴⁾ 李錄云：“知、誘、物、化。”○批云：“以《禮記》註釋，則知、物、誘、化。”

【知止有定】⁵⁾ 知至善之所在，故⁶⁾有定。

【閑邪】⁷⁾ 見《語》錄。⁸⁾

【而宣】⁹⁾ 批云：“‘而’，他處皆作‘以’。”

1) 制於外：《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2) 至於：《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3) 操之有要：《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心無形跡，難以操之。就視見處操之，是謂有要.’로 되어 있다.

4) 知誘物化：《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依《禮記》註釋，則知誘於物而爲其所化也.’로 되어 있다.

5) 知止有定：今案：《講錄》에는 ‘知【止】有定’으로 되어 있으나 필사하면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6) 故：《質疑》에는 ‘而’로 되어 있다.

7) 閑邪：《講錄》에는 이 조목이 없다.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8) 見語錄：해당 내용은 《艮齋集》續集 권1 〈論語質疑〉에 보인다. 거기에서는 ‘閑，止馬出入之木，言防閑其邪心也.’

【樞機】 《易》曰：“君子居其室，出其言，善則千里之外應之，不善則千里之外違之。言行，君子之樞機。言行，君子之所以動天地也。可不慎乎？”¹⁰⁾ ○門之開闔，必由於樞，弩之發動，必由於機也。¹¹⁾

【興戎出好】 戎，兵也。○《書·大禹謨》，舜讓天下於禹，禹讓之彌固。舜曰：“惟口興戎出好，朕言不再。”¹²⁾

【非法不道】 《孝經》曰：“非先王之法言，不敢道。”伊川先生¹³⁾引之云：“欽¹⁴⁾承其訓。”

【哲人】 聖人之稱。

【幾】 動之微處，思慮方萌之際。能察之，使主於誠，不歸於惡幾。¹⁵⁾

【誠之於思】¹⁶⁾ 李錄云：“思，情也。人所不知·不見地。”○批云：“思，指念頭也。”

【守之於爲】¹⁷⁾ 志士不能誠之於微動，故至於當爲，

9) 而宣：《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0) 君子居……不慎乎：《質疑》에는 ‘言行，君子之樞機.’라고만 되어 있다.

11) 也：《質疑》에는 없다.

12) 書大禹謨……朕言不再：《質疑》에는 ‘《書·大禹謨》曰：“惟口出好興戎.”’이라고만 되어 있다.

13) 先生：《質疑》에는 없다.

14) 欽：《質疑》에는 앞에 ‘當’이 있다.

15) 惡幾：《質疑》에는 ‘惡機’로 되어 있다.

16) 誠之於思：《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7) 守之於爲：《質疑》에는 아래 ‘習與【止】同歸’와 함께 편성되어 있고, 그 설명은 ‘見《語》’

而能察守之，使不流於惡矣.¹⁸⁾

【裕】¹⁹⁾ 綽綽有餘裕.

【習與性成聖賢同歸】²⁰⁾ 諸註云²¹⁾：“習之久，而與氣質之性俱化，則賢亦聖矣。”此說便不是. 蓋我之習熟，與氣質之性俱成，則與聖賢之事同歸矣. 及其成功，則一也.

〈附註〉²²⁾

【視與看【止】不同】²³⁾ ‘看見’字，非有心而看見也. ‘視’字，有心而視也. ‘聞’，非有心，聲過而聞也. ‘聽’，有心而聽也.

【慶源輔氏】名廣，字漢卿. 朱門高弟. 方僞學黨起，確然不動，執經朱門²⁴⁾，終始不懈. ○李錄云：“朱先

錄.’으로 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艮齋集》續集 권1 〈論語質疑〉에 보인다.

18) 矣：《艮齋集》에는 ‘矣’가 없다.

19) 裕：《質疑》에는 이 조목이 아래 조목 ‘習與【止】同歸’ 다음에 편성되어 있다.

20) 習與性成聖賢同歸：《質疑》에는 ‘習與【止】同歸’로 되어 있다.

21) 諸註云：《艮齋集》에는 ‘性指氣質之性.’이 있다.

22) 附註：《講錄》에는 이 분류명이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23) 視與看【止】不同：《質疑》에는 ‘視與【止】不同’으로 되어 있고, 설명은 ‘看見與聞，非有心字；視與聽，是有心字.’로 되어 있다.

24) 朱門：《質疑》에는 ‘門下’로 되어 있다.

生稱，身在聲利中，能閉門自守。”²⁵⁾ ○《一統志》曰²⁶⁾：“師事呂祖謙·朱文公。慶元初，僞學禁興，學者多解散，廣獨不爲動，²⁷⁾先生深器重之。嘉定間，仕至祠官，罷歸隱語溪，以著書爲務。學者稱爲傳貽先生。” ○《淵源錄》云²⁸⁾：“慶源人，居嘉興。史稱其淳謹勤恪。”

【白雲許氏】名謙，字益之。學問甚精篤，而但後人疑文章色欲，未能盡擺脫。恐於心上工夫疏也。

【程氏復心】²⁹⁾字子見。○《一統志》曰：“婺源人。自幼沈潛理學，會輔氏·黃氏之說，而折衷之。章爲之圖，圖爲之說，書成，名曰《四書章圖總要》。仕元，爲徽州路教授，後以母老辭疾歸。”

【旨義精密】³⁰⁾李錄云：“問：‘所以旨意精密者，何也？’良久而教³¹⁾曰：‘如此處，言語形容不得，在自家深味而實體以求自得也，子不當問而問之也。’³²⁾如問

25) ○李錄……自守：《質疑》에는 없다.

26) 曰：《質疑》에는 없다.

27) 慶元初……不爲動：《質疑》에는 없다.

28) 云：《質疑》에는 없다.

29) 程氏復心：《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30) 旨義精密：《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見原集.’으로 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9)에 나온다.

31) 良久而教：《艮齋集》에는 ‘先生’이라고 되어 있다.

則³²⁾人食味如何，必食其食，味其味而後乃³⁴⁾可知之。自家本不曾食而問味於他人，可³⁵⁾乎？學者不可不深驗之也。”

【一捧【止】一掌血】³⁶⁾ 先生³⁷⁾〈答李仲久書〉³⁸⁾曰：“捧，當以³⁹⁾木，杖打也。攔，手打也。杖打，則隨杖而有一條杖痕；手打，則隨手而有一掌血漬。謂其言之痛著如此也。”捧，音방.⁴⁰⁾

【該括】 ㄴ 못 주리 허믈 謂之括囊。該括，⁴¹⁾言其意思該備盡含。⁴²⁾

32) 子不當問而問之也：《艮齋集》에는 없다.

33) 則：《艮齋集》에는 ‘別’로 되어 있다.

34) 乃：《艮齋集》에는 없다.

35) 可：《艮齋集》에는 없다.

36) 一捧【止】一掌血：《質疑》에는 ‘一捧【止】掌血’로 되어 있다.

37) 先生：《質疑》에는 없다.

38) 書：《質疑》에는 ‘問’으로 되어 있다.

39) 以：《質疑》에는 ‘從’으로 되어 있다.

40) 捧音방：《質疑》에는 ‘捧，部項切.’으로 되어 있고，뒤에 ‘攔，音鹹.’이 있다.

41) ㄴ 못……該括：《質疑》에는 없다.

42) 盡含：《質疑》에는 ‘包括也’로 되어 있다.

34 〈心箴章〉

〔堪輿〕 天地.

〔垠〕 《韻會》云¹⁾：“疑巾切，地埤也.”

〔眇然〕 言其少²⁾也.

〔稊米〕³⁾ 《孟子》言爲仁不熟之病曰：“五穀不熟，不如稊稗之有秋.” 蓋似穀而非穀者，卽今ㄇ랏也.

〔君子存誠〔止〕百體從令〕⁴⁾ 范氏論心極多⁵⁾，而末以誠敬二句⁶⁾結之. 雖似欠缺，然言雖短而意實無窮，其⁷⁾不爲病也.

〈附註〉⁸⁾

〔向見呂伯恭以下〕⁹⁾ 或云：“向見以下，皆以爲朱子

1) 云：《質疑》에는 없다.

2) 少：《質疑》에는 ‘小’로 되어 있다.

3) 稊米：《節義》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稊稗之米，喻其至小’로 되어 있다.

4) 君子存誠〔止〕百體從令：《質疑》에는 ‘存誠〔止〕克敬’으로 되어 있다.

5) 多：《質疑》에는 ‘盛’으로 되어 있다.

6) 句：《質疑》에는 ‘字’으로 되어 있다.

7) 其：《質疑》에는 없다.

8) 附註：《講錄》에는 이 분류명이 없으나，《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9) 向見呂伯恭以下：《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中間問似恁地以下，是初問人再問也. 此意以下，似是記錄者之辭. 或云：“問似恁地以下，朱子舉伯恭問辭也，此意有在，朱子自言之’

之語，曰：‘恭이 之ッ也 話乙 人이 到今ヒ 甚古 某
答以者ハ乎ヒ 意이也云云.’” 恐非是。或未多看記問
答語勢，故如此云云。此意以下，以紀事者之言看了，
可也。○後日先生批云：“恐中間問字，是初問人再問
也。此意以下，似是記錄者之辭，更詳之。”○李錄云：
“朱子所以取此箴如此其至者，要在末二句。”

【操存者】¹⁰⁾ 批云：“操存下有‘盡心·知性’·‘存心·養
性’·‘參前·倚衡’等問語，此皆刪去。”

【知也】¹¹⁾ 批云：“知也之知，《文抄》作操。《大
全》，操下又有存字。○也下有答“盡心·知性”·“存心·
養性”·“參前·倚衡”等說，此刪去。

【問未發云云】¹²⁾ 此問最精，當留意深玩。

也”，恐非是。○朱子所以取此箴如此其至者，要在末二句.’로 되어 있다.

10) 操存者：《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1) 知也：《質疑》에는 ‘謂之操也’로 되어 있고, 설명이 ‘《大全》，也上又有存字，所謂操存下，有“盡心知性”·“存心養性”·“參前倚衡”等問語. 操也下，又有答說，此皆刪去.’로 되어 있다.

12) 問未發云云：《質疑》에는 ‘問未發’로 되어 있다.

35 〈敬齋箴章〉

【敬齋箴章】¹⁾ 朱子自序曰：“讀張敬夫〈主一箴〉，掇其遺意，作〈敬齋箴〉以自警云。”

【尊】²⁾ 恭敬奉持之意.

【潛】 如物沈於水，湛然虛靜.

【折旋蟻封】 《聖學十圖》曰³⁾：“朱子曰：“周旋中規”，其回轉處，欲其圓如中規也；“折旋中矩”，其橫轉處，欲其方如中矩也。“蟻封”，蟻垤也。古語云“乘馬折旋於蟻封之間”，言蟻封之間，巷路屈曲狹小，而能乘馬折旋於其間，不失其馳驟之節，所以爲難也。“守口如瓶”⁴⁾，不妄出也；“防意如城”⁵⁾，閑邪之入也.’又云：‘敬須主一，初來有一介事，又添一介，便是來貳他成兩個。元有一介，又添兩個，便是參他成三個.’ ○右箴題下，朱子自叙曰：‘讀張敬夫〈主一箴〉，掇其

1) 養心說：이 조목은 《講錄》에는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해당 내용을 《講錄》에서는 아래 ‘折旋蟻封’ 조목의 설명 가운데 배치하였다.

2) 尊：《講錄》에는 아래 조목 다음에 편성되어 있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편성 순서를 바로 잡았다.

3) 聖學十圖曰：《質疑》에는 없다.

4) 守口如瓶：《質疑》에는 이것을 아래 ‘兢兢’ 조목 아래에 별도의 조목으로 편성하였다. 설명은 ‘言不妄出也.’로 되어 있다.

5) 防意如城：《質疑》에는 이것을 ‘守口如瓶’ 조목 아래에 별도의 조목으로 편성하였다. 설명은 ‘閑邪之入也.’로 되어 있다.

遺意，作〈敬齋箴〉，以自警.’又曰：‘云云.’臣竊謂地頭之說，於做工，好有據依，而金華王魯齋柏，排列地頭，作此圖，明白整齊，皆有下落又如此.常宜體玩警省於日用之際·心目之間，而有得焉，則敬爲聖學之始終，豈不信哉!”⁶⁾

〔出門如^{【止】}如祭〕⁷⁾ 非⁸⁾朱子自撰之辭，乃《記》⁹⁾語，其有味如此.

〔戰戰〕 恐懼.

〔兢兢〕 戒愼.

〔洞洞〕 敬之表裏無間也.

〔屬屬〕 誠實無僞也.¹⁰⁾

〔不東^{【止】}其適〕¹¹⁾ 心要主一. 如做東去，又要做西去，做南去，又要做北去，便是不主一.

〔弗貳^{【止】}以三〕¹²⁾ 初來有一个事，又添一个，便是來貳他成兩個. 元有一个，又添兩個，便是來參他成三

6) 又云敬須主一……豈不信哉：《質疑》에는 없다.

7) 出門如^{【止】}如祭：《質疑》에는 ‘出門^{【止】}如祭’로 되어 있다.

8) 非：《質疑》에는 앞에 ‘此’가 있다.

9) 記：《質疑》에는 ‘禮記’로 되어 있다.

10) 誠實無僞也：《質疑》에는 앞에 ‘音燭.’이 있다.

11) 不東^{【止】}其適：《講錄》에는 이 조목이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12) 弗貳^{【止】}以三：《講錄》에는 이 조목이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今案: 이 설명 내용은 《講錄》에서는 ‘折旋蟻封’ 조목의 설명 가운데 배치하였다.

个.

【三綱】君爲臣綱，父爲子綱，夫爲妻綱.

【淪】沒也.

【九法】見〈洪範〉.¹³⁾

【靈臺】¹⁴⁾ 李錄云：“心，神明之舍，故曰靈臺.”

〈附註〉¹⁵⁾

【說有許多地頭去處】¹⁶⁾ 말리만흔 地頭의 去處 잇
느니. ○論此節畢，先生曰：“〈敬齋箴〉訓詁，雜出
於傳記諸書. 某收拾成編於前日上《聖學十圖》之下.
今當開刊，公其還京，可得見也. 見則曉然此箴之義.”
又謂之曰：“往秋來天使成憲·王璽，於勤政殿行禮時，
有當折旋處，成·王皆不成折旋而返. 殿下折旋而返，
成·王察見主上動止後，如禮而返. 在位之臣以謂‘天使
學禮於殿下.’凡有動作，不可不審.”

13) 見洪範：《質疑》에는 ‘指〈洪範〉九疇’로 되어 있다.

14) 靈臺：《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心也. 出《莊子》.’로 되어 있다.

15) 附註：《講錄》에는 이 분류명이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16) 說有許多地頭去處：《質疑》에는 ‘許多地頭去處’로 되어 있고, 설명이 ‘地頭之說, 於做工, 好有據依.’로 되어 있다.

【如何解迫切】 17) 엇디 迫切히리오. 解字, 并不釋.

【端的】 18) 일덩 그런 고디라.

【除非那_{【止】}他勿迫】 19) 做₂₀₎工夫, 大段迫切, 則必有害, 故勸他勿迫而勉爲從容, 可也. 不然則不須勸他勿迫也. ○先生有批云: “아니어든, 非字也; 말라, 除字也.” ○又曰: “除是, 除是事而爲此事之謂也. 除非, 그러티 아니어든 달라. 韓永叔諸人云: ‘除是, 아프리커나, 除非, 아프리업시.’ 某以合謂: ‘不然. 反覆論辨, 專務己說, 不顧文勢, 豈可如此? 殊可笑.’”₂₁₎

【開後門】 뒷 門을 여다. ○₂₂₎言未做工夫大段迫切, 而先要做從容不迫, 是₂₃₎譬敵入其室, 與彼不敵, 開後門而退走也.

【然亦不解】 李錄云, “然字, 義未詳.” ○批云₂₄₎: “開後門者, 自謂做時患迫切, 故上文既言其不然, 此

17) 如何解迫切: 《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解字, 作語辭看.’으로 되어 있다.

18) 端的: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9) 除非那_{【止】}他勿迫: 《質疑》에는 ‘除非_{【止】}勿迫’으로 되어 있다.

20) 做: 《質疑》에는 앞에 ‘言那人’이 있다.

21) ○先生……殊可笑: 《質疑》에는 없고, 그 대신에 ‘○除非, 除了非也. 言非則除之也. 除非, 初不是只是之意, 語勢再倒, 終歸於只是之意.’라는 설명이 있다.

22) 뒷 門을 여다○: 《質疑》에는 없다.

23) 是: 《質疑》에는 없다.

24) 李錄云……批云: 《質疑》에는 없다.

下又將言非患迫切，患在不倣之弊，故以‘然’字幹轉語勢耳。”

〔餘復〕²⁵⁾ 批云：“餘復，疑乙。”

25) 餘復：《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36 〈求放心齋銘章〉

【以相】 批云²⁶⁾：“本集²⁷⁾，相下有之字。”²⁸⁾

〈附註〉²⁹⁾

【程正思】 篤志求道，早亡。

【所謂云云】³⁰⁾ 以此作何叔京所謂，如何？

【諸公】 指當時理學之諸公。然實³¹⁾未詳。

【是隔幾重公案】 이 언뎌 께뵈 公事之案이 즘음치
느뇨. ○李錄云：“公案，公家文案也.³²⁾ 公家文案，重
重相報，如縣報府，府報使，使以之啓聞，下該曹，
曹³³⁾又下本道，道又下府若縣。如此重重相報，或不能
無差失。如因諸公以求程氏，因程氏以求聖人，重重求
去，或不能無差失，亦如此.³⁴⁾ ○論此節畢，先生

26) 批云：《質疑》에는 없다.

27) 本集：《質疑》에는 ‘大全’으로 되어 있다.

28) 之字：《質疑》에는 뒤에 ‘非’가 있다.

29) 附註：《講錄》에는 이 분류명이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30) 所謂云云：《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31) 實：《質疑》에는 없다.

32) 이언뎌……文案也：《質疑》에는 없다.

33) 曹：《質疑》에는 ‘該曹’로 되어 있다.

曰³⁵⁾：“朱先生³⁶⁾嘗³⁷⁾與張南軒書曰：‘公每主言聖賢皆因良心發見猛省做工夫。若³⁸⁾如此則是乃助長之病也。惟平居莊敬持養乃可。’云云，而今此書恁地說。³⁹⁾”問⁴⁰⁾：“前後所以異說者，如何？敢請益。”先生答云⁴¹⁾：“各因一時意思所主，而言有不同。聖賢之言，此類亦多。”

【至理】⁴²⁾批云：“至理，疑作正理。”

【成性存存】出《易·繫辭》，“成性存存，道義出矣。⁴³⁾”

34) 亦如此：《質疑》에는 없고, 그 대신 ‘爾’가 있다.

35) ○論此節畢, 先生曰：《質疑》에는 없다.

36) 朱先生：《質疑》에는 ‘朱子’로 되어 있다.

37) 嘗：《質疑》에는 없다.

38) 若：《質疑》에는 없다.

39) 而今此書恁地說：《質疑》에는 ‘與此書不同.’으로 되어 있다.

40) 問：《質疑》에는 앞에 ‘○’가 있다.

41) 先生答云：《質疑》에는 ‘答曰’로 되어 있다.

42) 至理：《質疑》에는 설명이 ‘疑當作正理.’로 되어 있다.

43) 出矣：《質疑》에는 ‘之門’으로 되어 있다.

37 〈尊德性齋銘章〉

【曰仁與義】¹⁾ 批云：“仁下義上.”

【下流】²⁾ 子貢曰：“紂之惡，不如是之甚也．是以君子惡居下流，天下之惡皆歸焉．” ○水必趨聚於污下之地，惡名必歸於不善之人．○水始生曰源，流而聚注曰委也．

〈附註〉³⁾

【程允夫】 朱子祖母程氏，允夫之父韓溪翁，與⁴⁾韋齋先生⁵⁾外從兄弟⁶⁾，則允夫於先生，實再從弟，猶以爲內弟也．允夫資性疏俊，與朱子論辨極多，欲援東坡而附於程⁷⁾，朱子斥其非．允夫論辨極其至，朱子又非之，東坡之過失至是盡著．

1) 曰仁與義：《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2) 下流：《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論語》, “子貢曰: ‘君子惡居下流, 天下之惡皆歸焉.’”으로만 되어 있다.

3) 附註：《講錄》에는 이 분류명이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4) 與：《質疑》에는

5) 先生：《質疑》에는 없다.

6) 外從兄弟：《質疑》에는 ‘內弟’로 되어 있다.

7) 程：《質疑》에는 ‘程子’로 되어 있다.

〔朱子曰尊〕⁸⁾ 批上端云：“尊德性·道問學。”

〔馮作肅〕 李錄云：“名允中，邵武人，號見齋。”

〔孫敬甫〕 李錄云：“名自脩，宣州宣城人。”

〔可飛者也〕⁹⁾ 《大全》，‘也’下有‘世衰道微，異端蠭起’八字。

〔其間蓋有止爲己者〕¹⁰⁾ 如陸象山之類。○問：“象山之學，何故謂之異端？請聞吾道有異處。¹¹⁾” 答曰：“爲佛者，絕滅天理，爲毀¹²⁾髮膚，今象山非有此事。只是爲一超頓悟之學，以窮理爲疲精神，不做問學工夫，正與釋氏‘不立文字’·‘見性成佛’，何異？此象山所以爲¹³⁾異於吾道也。然儒·釋之間，判於毫釐，吾道之功淺，則定歸於彼矣。朱門人有問禪學之所以異，先生答以‘欲致精於禪學之工，已陷於佛矣。’大率吾道之功未厚，先欲理會彼異於吾，則卒歸於彼，決矣。某未知禪學何能辨說。但那個不知理至虛之中有至實者存，故萬法俱空云。吾儒知此理至虛而至實，故百行皆實，相

8) 朱子曰尊：《講錄》에는 이 조목이 없다.

9) 可飛者也：《講錄》에는 이 조목이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10) 其間蓋有止爲己者：《質疑》에는 ‘其間止爲己者’로 되어 있다.

11) 請聞吾道有異處：《質疑》에는 없다.

12) 爲毀：《講錄》에는 ‘虧毀’로 되어 있다.

13) 爲：《質疑》에는 없다.

去豈不遠哉?”¹⁴⁾ 又問: “專主氣者, 亦此類與?” 答¹⁵⁾ 曰: “然. 濂·洛以後, 程·張門人, 猶是爲吾學, 而不覺其差, 入於禪. 至象山出, 乃倡爲異說, 自謂得聖門宗旨, 其實所養者氣耳, 而所得者禪也. 至欲以是率天下而捨吾學, 害不在洪水·猛獸之下, 考亭深憂而痛闢之. 生¹⁶⁾其後者, 可不迷而更甚焉. 人之好怪, 韓子之¹⁷⁾所嘆. 奈何奈何¹⁸⁾?”

【王子充】 名不著. 朱門人.

【朱子曰痛】¹⁹⁾ 批上端云: “道問學.”

【血戰相似】²⁰⁾ 如流血相戰.

【經不正】 《孟子》論鄉愿亂德, 末曰: “經正, 則庶民興; 庶民興, 斯無邪慝矣.”

【看如何地持守也只是空】²¹⁾ 본디는 언제나 持守〓 那 쏘흔 오직 이 空〓ヒ스.

14) 然儒釋之間……不遠哉: 《質疑》에는 없다.

15) 答: 《質疑》에는 없다.

16) 生: 《質疑》에는 뒤에 ‘於’가 있다.

17) 之: 《質疑》에는 없다.

18) 奈何奈何: 《質疑》에는 ‘奈何’로 되어 있다.

19) 朱子曰痛: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20) 血戰相似: 《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血戰不計死傷, 見血鏖戰也. 言學問思辨, 厲志發憤, 不得不措, 痛理會如此.’로 되어 있다.

21) 看如何地持守也只是空: 《質疑》에는 ‘看如何【止】是空’으로 되어 있고, 그 설명은 ‘看來如何地持守, 亦只是空.’으로 되어 있다.

【不敢自昧】 猶言不敢昏廢學問。

【銖累寸積】 十黍爲累，十累爲銖，八銖爲鎰，二十四銖爲兩。○銖累以輕重言，寸積以長短言。累輕得重，積短爲長。

【汪太初】 名楚材。與朱子曾祖母汪氏同姓也。²²⁾ ○李錄云：休寧人。朱子稱其德學之盛。

【陋】²³⁾ 人只²⁴⁾知陋義是污，而不知《韻書》亦云“窄也，狹也。”²⁵⁾

【趙民表】 未詳。

【劉公度】 李錄云：“名孟容。隆興府人。”

【下梢弄得無收殺】²⁶⁾ 내중애 흥놀여 거두어 밋춤 업서.

【杜撰】 批云：“此說不可曉。”○中原，‘杜’，音與‘度’同。宋有盛度，作某辭命，朝會一士好諧者，戲之曰：“某辭，誰人撰耶？”度對曰：“度撰。”以與杜撰同，故萬座大噱。○李錄云²⁷⁾：“杜，猶塞也，禦也。如所謂

22) 也：《質疑》에는 없다.

23) 陋：《質疑》에는 ‘約者似陋’로 되어 있다.

24) 只：《質疑》에는 없다.

25) 狹也：《質疑》에는 뒤에 ‘○“約者似陋”，當云“陋者似約.”’이 있다.

26) 下梢弄得無收殺：《質疑》에는 ‘下梢【止】收殺’으로 되어 있고, 설명은 ‘猶言末終只弄得無所收拾結殺.弄得,擺弄同.’으로 되어 있다.

以口給禦人之意，言以無義理·無事實底事，只爲唯備人禁塞人計，而²⁸⁾撰造虛言，謂之杜撰。”或曰：“昔有杜姓之²⁹⁾人所撰之書，都是妄誤，故謂之杜撰。”非是。

【捏合】批云³⁰⁾：“捏，乃結切，捻聚也。”○又曰：“집어되호다.”³¹⁾○窮其理而行，則理自然合於實處，而今劉則不然，不知其理，而強撰造附會而行，故曰杜撰捏合。

【范文叔】名黼. 蜀人. 不列門人類³²⁾, 然入於僞學黨.³³⁾

【劉定夫】見《大全》. 未詳其名.

【要得學^[止]身心】³⁴⁾學者이 도로혀 許多 狂妄호身心乙 息고져 흘딘덴. ○‘要得’, 이리 과자호는之意. 釋‘고져’之時, 并入要字釋. ○許多狂妄, 爲禪學者言一超頓悟·捧喝禪宗之類.

【佔畢】出《禮記》. 佔, 視也; 畢, 簡也.

27) 批云此說……○李錄云：《質疑》에는 없다.

28) 只爲唯備人禁塞人計而：《質疑》에는 없다.

29) 之：《質疑》에는 없다.

30) 批云：《質疑》에는 없다.

31) ○又曰집어되호다：《質疑》에는 없다.

32) 類：《質疑》에는 없다.

33) 黨：《質疑》에는 ‘黨籍’으로 되어 있다.

34) 要得學^[止]身心：《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張皇〕³⁵⁾ 과당되게 푸냥ㅎ여[푸냥, 未詳.]

〔只是一場大脫空〕³⁶⁾ 오직 이 혼바탕키 疏脫ㅎ고
空虛ㅎ디라. ○論此節畢, 先生曰: “詳觀此書, 定夫,
蓋禪學人也.”

〔劉季章〕 名黻. 廬陵人. 《鶴林玉露》謂醇儒, 恐
未免爲過許之辭也.³⁷⁾

〔基趾〕 當³⁸⁾從土.

〔排此〕³⁹⁾ 批云: “此, 當作比.”

〔朱子曰伊川〕⁴⁰⁾ 批上端云⁴¹⁾: “尊德性.”

〔坯子〕⁴²⁾ 批云: “坯, 當作坏. 瓦未燒者.”

〔歸宿〕 猶言終所止定處也.

〔又曰如今〕 批云⁴³⁾: “如今理會一段, 訓李方子, 見

35) 張皇: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36) 只是一場大脫空: 《質疑》에는 ‘一場大脫空’으로 되어 있고, 설명은 ‘言學不用書, 則終無收拾, 只成一段大疏脫空虛之學也. 觀此書, 定夫, 蓋禪學人也.’로 되어 있다.

37) 也: 《質疑》에는 없다.

38) 當: 《質疑》에는 앞에 ‘趾’가 있다.

39) 排此: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40) 朱子曰伊川: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41) 批上端云: 今案: 《講錄》에는 ‘批云端云’으로 되어 있다. 앞에서는 ‘批上端云’ 형식의 조목이 두 경우가 더 있었는데, 곧 본문의 上端에 분류명으로서 ‘尊德性’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에 준하여 앞의 ‘云’을 ‘上’으로 고쳤다. 혹은 이것을 ‘批云: 上端云’에서 ‘上’을 빠뜨린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앞의 두 가지 예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42) 坯子: 《質疑》에는 ‘坯子’로 되어 있고, 설명은 ‘坏, 瓦未燒者. 尊德性爲學問之質本, 如坯子也.’로 되어 있다.

《語類》. 或疑個頭之頭上, 亦當有源字, 本文凡三稱個頭, 皆無源字.”

〔作引路〕⁴⁴⁾ 奎錄云: “‘指聖賢之言否?’ 答曰: ‘來喻是.’”

〔下梢頭〕⁴⁵⁾ 느려와 내종애

〔別是一般〕⁴⁶⁾ 先生有批云: “각벼리 이 혼가지 사름이라.”

〔如此看〕 以論心, 看七篇也.

〔鹵莽〕⁴⁷⁾ 不用意.

〔襯貼一件意思〕⁴⁸⁾ 襯, 音춘, 브티다. 貼, 如俗所謂梢貼也.⁴⁹⁾ 言《孟子》不論心處, 硬以論心看去, 則是如以他一⁵⁰⁾物襯貼此物也.

〔差排〕 使人爲某事曰差, 疑是言버리쓰다之意也.⁵¹⁾

〔杜元凱優而柔之〕⁵²⁾ 《左傳》序曰: “優而柔之, 如

43) 批云: 《質疑》에는 없다.

44) 作引路: 《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猶指路.’로 되어 있다.

45) 下梢頭: 《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46) 別是一般: 《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猶言別是一般人也.’로 되어 있다.

47) 鹵莽: 《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莊子》註, 不用心也.’로 되어 있다.

48) 襯貼一件意思: 《質疑》에는 ‘襯貼【止】意思’로 되어 있다.

49) 襯音춘……梢貼也: 《質疑》에는 ‘襯貼, 如俗謂梢貼也.’로 되어 있다.

50) 一: 《質疑》에는 없다.

51) 疑是……意也: 《質疑》에는 ‘疑是差定排布之意. ○猶言安排也.’로 되어 있다.

江海之浸，如膏澤之潤。”程子稱其說好。

【全無巴鼻】⁵³⁾ 或云：“자블 곳이 없다.” 非是。問于中原人，亦不解說。他書又有‘沒巴’·‘沒鼻’·‘沒巴鼻’等語，以‘자블 디 없다’·‘다혈 디 없다’二意看去，可也。亦是無依據之意。○咸亨以裴汝友之言，稟曰：“嘗聞南冥云：‘佛經有妙釋處，看了而忘之云云。’申濩云：‘往問於中原，答曰：“無意。”’”近見一僧釋《語錄》“鳳巴長。”【巴，與尾同。】鼻，祖也。人受形之初，先形鼻體，故謂始祖爲鼻祖。沒巴鼻，言無頭無尾也。先生答吾所云“다혈 디 없다”之說，意與此略同。“無意”之云，不通，恐作‘依’字爲是。○此條，乃朱子以湖南安撫使，往過長沙縣學中，聽講者，七十餘人，其時問答之辭也。

【只是夾雜說】⁵⁴⁾ 李錄云：“夾尊德性·道問學二⁵⁵⁾工夫而說之也。”

【置水不漏】言其精密也。

52) 杜元凱優而柔之：《質疑》에는 ‘杜元凱【止】柔之’로 되어 있다.

53) 全無巴鼻：《質疑》에는 ‘一僧釋《語錄》“鳳巴長”，巴與尾同。沒巴鼻，言無頭無尾也。○此條，乃朱子以湖南安撫使，在長沙縣學中，聽講者七十餘人，其時問答之辭.’로 되어 있다.

54) 只是夾雜說：今案：《講錄》에는 ‘如是夾雜說’로 되어 있으나 바로 잡았다.

55) 二：《質疑》에는 ‘二端’으로 되어 있다.

【引他】 引接也.⁵⁶⁾

【廖德明】⁵⁷⁾ 批云：“廖子晦.” ○《一統志》曰：“順昌人. 少學釋氏，得楊時書，讀之大悟，遂受學朱熹. 乾道中，進士，累官，知潯州，有聲. 諸司交薦之，德明曰：‘今老矣. 況以道徇人乎?’ 固辭，遷吏部左選郎官.” ○李錄云：“朱子曰：‘學有根柢.’”

【未說到差處云云】⁵⁸⁾ 廖之意謂‘若不講究明理，處事定差’，故有是問. 朱子答之以‘不須說及處事’.⁵⁹⁾ 如居處恭·執事敬，人非不知，而⁶⁰⁾今乃不行，可見徒講究，不濟事’，此歸重於力行之辭也.⁶¹⁾

【一線路】 혼 실길히라. ○批云⁶²⁾：“言細路也.”

【項平父】 批云：“項安世.”⁶³⁾ ○名安世.⁶⁴⁾ 能文名士.⁶⁵⁾ 久從朱門，而所見誤入，朱子反覆⁶⁶⁾誨諭⁶⁷⁾，終

56) 引接也：《質疑》에는 앞에 ‘引’이 있다.

57) 廖德明：《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字子晦. 南劍順昌人. 少學釋, 得龜山書大悟, 遂事朱某. 乾道中, 以進士, 累官知潯州, 有聲. 諸司交薦之, 德明曰: “今老矣. 況以道徇人乎” 固辭, 遷吏部左選郎. 朱子稱其學有根據. 有《槎溪集》.’으로 되어 있다.

58) 未說到差處云云：《質疑》에는 ‘未說到差處’로 되어 있다.

59) 處事：《質疑》에는 뒤에 ‘差處’가 있다.

60) 而：《質疑》에는 없다.

61) 也：《質疑》에는 없다.

62) 혼 실길히라○批云：《質疑》에는 없다.

63) 批云項安世：《質疑》에는 없다.

64) 名安世：《質疑》에는 뒤에 ‘括蒼人’이 있다.

65) 名士：《質疑》에는 ‘名世’로 되어 있다.

不改，而朱子先卒。學問駁雜，後來多有不好事。金兵入寇，韓侂胄莫知禦敵之策。項遺書於韓，末曰：“江頭送客，仍飲竹光酒，醉不成字。”侂胄大喜曰：“平父乃爾閒暇。”遂引爲湖·廣總領⁶⁸⁾，是失身於侂胄也。吳玠宣撫淮·漢，尋入蜀，平父權代宣撫。有幕官王度，玠客也。玠與之⁶⁹⁾善。公嘗招軍，名項家軍，多虜掠。玠宣撫時，斬其爲首者。平父憾之，至是斬度。玠聞于朝，平父坐罷，終不復仕。○《一統志》云：“括蒼人。”⁷⁰⁾

【陸國正】批云⁷¹⁾：陸子靜，爲國子學正。

【慄然】⁷²⁾所江切，懼也。

【遮蓋】마그며 덩다.⁷³⁾言杜撰⁷⁴⁾道理，掩遮自己之所爲。

【爲己爲人上】⁷⁵⁾問：“言爲己則得矣。爲人之云，如

66) 覆：《質疑》에는 ‘復’으로 되어 있다.

67) 誨諭：《質疑》에는 ‘曉諭’로 되어 있다.

68) 總領：《質疑》에는 ‘總領使’로 되어 있다.

69) 與之：《質疑》에는 ‘素與公’으로 되어 있다.

70) ○一統志云括蒼人：《質疑》에는 없다.

71) 批云：《質疑》에는 없다.

72) 慄然：《質疑》에는 ‘慄’으로 되어 있다.

73) 마그며덩다：《質疑》에는 없다.

74) 杜撰：《質疑》에는 앞에 ‘別說’이 있다.

75) 爲己爲人上：《質疑》에는 ‘爲己爲人’으로 되어 있다.

何?” 答曰⁷⁶⁾: “此說‘爲人’字, 與《論語》本語有⁷⁷⁾異. 若非⁷⁸⁾欲見知於人看, 則似非是先生意.⁷⁹⁾ 蓋爲己如本義, 爲人指學者⁸⁰⁾言之, 謂多不得着⁸¹⁾力於爲己爲人上云耳.⁸²⁾”

【林擇之】⁸³⁾ 李錄云: “名用中. 古田人. 先生目爲畏友, 稱見趣·操持, 逾見精密. 詩見《南嶽唱酬集》.”

【劉子澄】 名清之, 號靜齋⁸⁴⁾先生. 朱子編《小學》⁸⁵⁾, 靜齋⁸⁶⁾實幹⁸⁷⁾其事, ○《一統志》曰⁸⁸⁾: “臨江人, 受業兄靖之, 博極群書. 紹興末, 舉進士. 及見朱熹⁸⁹⁾, 慨然志義理之學. 嘗爲高安縣丞, 賑飢有方, 徙知宜黃縣.⁹⁰⁾ 孝宗時召對, 首論民困兵驕. 累官至袁州.”

76) 問言爲己……答曰: 《質疑》에는 없다.

77) 本語有: 《質疑》에는 없다.

78) 非: 《質疑》에는 ‘作’으로 되어 있다. 今案: ‘作’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79) 是先生意: 《質疑》에는 ‘本意’로 되어 있다.

80) 指學者: 《質疑》에는 ‘以教道學者’로 되어 있다.

81) 着: 《質疑》에는 없다.

82) 耳: 《質疑》에는 없다.

83) 林擇之: 《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名用中. 詳見正心章.’이라고만 되어 있다.

84) 靜齋: 《質疑》에는 ‘靜春’으로 되어 있다. 今案: ‘靜春’이 옳지만 고치지 않았다.

85) 小學: 《質疑》에는 뒤에 ‘時’가 있다.

86) 靜齋: 《質疑》에는 ‘劉’로 되어 있다.

87) 幹: 《質疑》에는 ‘榦’으로 되어 있다.

88) 曰: 《質疑》에는 없다.

89) 朱熹: 《質疑》에는 ‘朱某’으로 되어 있다.

90) 徙知宜黃縣: 《質疑》에는 없다.

【鐫誨】 請問其義. 先生答云⁹¹⁾: “鐫, 刻也. 言切⁹²⁾加誨也.”

【如鳶飛^{【止】}正之意】⁹³⁾ 問: “既蒙諄諄指誨, 鳶飛·魚躍, 與‘必有事焉’同處, 今未能曉然, 敢請益.” 先生答云: “以上所言, 非某言, 乃朱子說. 但以此體察, 涵泳久之, 自當有見. 不然, 千言何益?” ○李錄云: “問: ‘鳶飛·魚躍, 與必有事焉勿正之意同者, 何歟?’ 答曰: ‘觀鳶飛·魚躍, 則理之全體呈露, 妙用顯行可見. 此就天地間化育流行, 上下昭著處言. 人能必有事⁹⁴⁾而勿正, 心勿忘, 勿助長, 則理之全體呈露, 妙用顯行, 與彼無二. 纔有一毫正·助等病, 則體隱而用發⁹⁵⁾矣.’” ○日用之間 處 體、處 處. 所以吐曰 者, 觀此流行之體, 則屬知; 有下工夫處, 則屬行故也.

【答黃直卿】 直卿挈家以歸⁹⁶⁾, 弟子仝集, 遂開⁹⁷⁾講

91) 請問其義先生答云: 《質疑》에는 없다.

92) 切: 《質疑》에는 ‘刻切’로 되어 있다.

93) 如鳶飛^{【止】}正之意: 《質疑》에는 ‘鳶飛^{【止】}之意’로 되어 있고, 설명이 ‘見原集. ○觀此流行之體, 屬知: 有下工夫處, 屬行.’으로 되어 있다.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9)에 설명 중, 李錄云에 해당하는 ‘問: ‘鳶飛魚躍……用發矣’이 보인다.

94) 事: 《艮齋集》에는 다음에 ‘焉’이 있다.

95) 發: 《艮齋集》에는 ‘廢’로 되어 있다. 今案: ‘廢’가 옳을 듯하지만 고치지 않았다.

96) 以歸: 《質疑》에는 ‘歸閩縣’으로 되어 있다.

97) 開: 《質疑》에는 ‘開堂’으로 되어 있다.

論. 故與此書, 令指教學者.

【大意】批云98): “《大全集99)》, 意下有思字.”

【定本之誤】批云: “定本之誤100), 《大全》只作差誤. 羅整菴答王陽明書, 亦云‘監本只云向來差誤, 無定本云云.’”

【苟避譏笑】101) 李錄云: “人之常情, 素有時望者, 前有盛行, 而後若差誤, 則人必譏笑. 朱先生初年, 病歲之學者偏著尊德性一邊, 不解道問學工夫, 卒陷於異端, 故先以道問學教人, 研究纖悉, 考校102)同異, 以馴致尊德性之學, 天下之人, 舉皆雲會, 而響應信敬而服從之.103) 後來覺其支離煩撓104), 反將105)至於廢本領工夫106), 流107)於枝葉之末學108), 故先生欲返109)

98) 批云: 《質疑》에는 없다.

99) 集: 《質疑》에는 없다.

100) 批云定本之誤: 《質疑》에는 없다.

101) 苟避譏笑: 《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見原集.’으로 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艮齋集》 권3 〈上退溪先生〉(6)에 보인다.

102) 校: 《艮齋集》에는 ‘較’로 되어 있다.

103) 雲會而響應信敬而服從之: 《艮齋集》에는 ‘服從’으로 되어 있다.

104) 撓: 《艮齋集》에는 ‘擾’로 되어 있다.

105) 將: 《艮齋集》에는 없다.

106) 本領工夫: 《艮齋集》에는 ‘其本領’으로 되어 있다.

107) 流: 《艮齋集》에는 앞에 ‘而’가 있다.

108) 之末學: 《艮齋集》에는 없다.

109) 欲返: 《艮齋集》에는 ‘反欲’으로 되어 있다.

以尊德性主之，以道問學輔之，則¹¹⁰⁾‘世人必以此譏我，然避譏而誤人，非我之志也。’此先生道盛¹¹¹⁾德立，愈¹¹²⁾自謙抑處。如¹¹³⁾今世之人，每以己見爲是，雖心知其非，而不自以爲非。此¹¹⁴⁾皆避譏笑而然也。”

【李敬子】名燾。建昌人。紹興初，進士。授岳州教授，未上，往建陽，從朱熹¹¹⁵⁾學。及至岳州，教士以古文六藝，改襄陽教授。熹¹¹⁶⁾沒，學禁嚴，燾率同門往¹¹⁷⁾會葬。後以直祕閣主管至道宮。卒，諡文定。【出《一統志》。】

○《淵源錄》曰：“往建陽¹¹⁸⁾，從朱熹¹¹⁹⁾學。熹¹²⁰⁾告以曾子弘毅之語，且¹²¹⁾曰：‘致遠固以毅，而任重貴乎弘也。’燾退以弘名其齋而自警焉。”

110) 則：《艮齋集》에는 ‘曰’. 今案: 내용상 ‘曰’이 되어야 할 듯하다.

111) 盛：《艮齋集》에는 ‘成’으로 되어 있다.

112) 愈：《艮齋集》에는 ‘而猶’로 되어 있다.

113) 如：《艮齋集》에는 앞에 ‘然’이 있다.

114) 此：《艮齋集》에는 없다.

115) 朱熹：《質疑》에는 ‘朱某’로 되어 있다.

116) 熹：《質疑》에는 ‘某’로 되어 있다.

117) 往：《質疑》에는 없다.

118) 曰往建陽：《質疑》에는 없다.

119) 朱熹：《質疑》에는 ‘朱某’로 되어 있다.

120) 熹：《質疑》에는 ‘某’로 되어 있다.

121) 且：《質疑》에는 없다.

【直內方外】¹²²⁾ 問：“朱子〈名堂室記〉曰：‘必以格物致知爲先，然後得明義之端。’又云：‘見得是處，決定恁地；不是處，決定不恁地。須是截然，方方正正。’及¹²³⁾諸先生說，皆以¹²⁴⁾博文言也。而黃氏云：‘都未說近講學處。夫子恐其識見易差，於是以博文·約禮對言云云。¹²⁵⁾’博文·方外，文雖變異，意實同也。黃氏歧而二之，其可乎？抑有義而然歟？請聞其義。”先生¹²⁶⁾答曰：“黃氏所謂未說近講學處，指孔子以前，如堯·舜·禹·湯·文·武·周公諸聖人，皆不言講學也。且方外雖屬精義，然以行言也。若講學¹²⁷⁾則專以知言，亦不同矣。”

【人藏其心】¹²⁸⁾ 李錄云：“人非但指己，總言物義。”

【果齋】¹²⁹⁾ 光澤人。¹³⁰⁾ 朱熹¹³¹⁾高弟。端謹純篤，天

122) 直內方外：《質疑》에는 ‘古聖賢【止】講學處’로 되어 있다.

123) 朱子名堂室記……方方正正及：《質疑》에는 없다.

124) 說皆以：《質疑》에는 ‘皆言’로 되어 있다.

125) 處夫子……對言云云：《質疑》에는 ‘且’로 되어 있다.

126) 抑有義……先生：《質疑》에는 없다.

127) 講學：《質疑》에는 ‘博文’으로 되어 있다.

128) 人藏其心：《質疑》에는 이 조목이 없다.

129) 果齋：《質疑》에는 ‘果齋李氏’로 되어 있다.

130) 光澤人：《質疑》에는 ‘昭武人’으로 되어 있고, 앞에 ‘名方子，字公晦’가 있고, 뒤에 ‘少博學能文’이 있다.

131) 朱熹：《質疑》에는 ‘朱門’으로 되어 있다.

質¹³²⁾近道. 自¹³³⁾號果齋. 嘉定中, 進士第三.【出《一統志》.】○《淵源錄》云: “李方子, 字公晦. 昭武人. 少博學能文.”¹³⁴⁾

〔繳繞〕¹³⁵⁾ 先生批云: “버물며 보므다.”

〔慈溪黃氏〕¹³⁶⁾ 黃氏, 名震, 字東發.

〔浚〕¹³⁷⁾ 기피 폄다.

〔漑其根〕¹³⁸⁾ 批云¹³⁹⁾: “漑其根下, 當再有‘漑其根’三字.”

〔嘉定〕 宋寧宗年號也.¹⁴⁰⁾ 是朱子沒後也.¹⁴¹⁾

〔科臼〕 坎也. 水之所聚.¹⁴²⁾

〔鑽研文義云云〕¹⁴³⁾ 先生批云¹⁴⁴⁾: “今人徒知決科

132) 天質: 《質疑》에는 ‘天資’로 되어 있다.

133) 自: 《質疑》에는 없다.

134) ○淵源錄……能文: 《質疑》에는 없다.

135) 繳繞: 《質疑》에는 설명이 ‘纏, 繞也. 繳, 吉了切.’로 되어 있다.

136) 慈溪: 《質疑》에는 ‘慈溪黃氏’로 되어 있고, 설명이 ‘名震, 字東發. 慈溪縣人. 寶祐中, 進士, 仕爲史館檢閱. 清介自守, 獨崇朱氏學. 有《日抄》百卷. 門人諡文潔.’로 되어 있다.

137) 浚: 《質疑》에는 이 조목에 대한 설명이 ‘與濬同.’으로 되어 있다.

138) 漑其根: 《質疑》에는 ‘其根’으로 되어 있다.

139) 批云: 《質疑》에는 없다.

140) 也: 《質疑》에는 없다.

141) 也: 《質疑》에는 없다.

142) 聚: 《質疑》에는 뒤에 ‘也’가 있다.

143) 鑽研文義云云: 《質疑》에는 ‘鑽研文義’로 되어 있다.

144) 先生批云: 《質疑》에는 없다.

舉·取利祿，此則不須說。若宋末元初¹⁴⁵⁾朱門末學之弊，果爲如是，故草廬隱憂之，發此語。然草廬，則前日已積功¹⁴⁶⁾於鑽研文義，毫分縷析，既洞然於天下之理矣。若如此而猶¹⁴⁷⁾專於道問學上用功¹⁴⁸⁾，則偏矣；於尊德性¹⁴⁹⁾歸重其意¹⁵⁰⁾，則善矣。乃欲以此率天下之人，必使初學之士，皆棄道問學之功，偏於尊德性上注意，冗然無所講明，而欲見如天之運，如日月之往來，豈不大誤人而入於禪學哉？眞所謂伊蒲塞氣味者也。羅整菴與王陽明書，詳說此說之非。”○羅整菴答王陽明書略曰：“竊以草廬晚年所見端的與否，良未易知。蓋吾儒昭昭之云，釋氏亦每言之，毫釐之差，正在於此。卽草廬所見，果有合於吾之所謂昭昭者，安知非四十年間鑽研文義之效，殆所謂眞積力久而豁然貫通者也。蓋雖以明道先生之高明純粹，又早獲親炙於濂溪，以發其吟風弄月之趣，亦必反求諸六經而後得之。但其所稟，隣於生知，聞一以知十，與他人極力於鑽研者不同耳。

145) 元初：《質疑》에는 ‘初元’으로 되어 있다.

146) 功：《質疑》에는 ‘工’으로 되어 있다.

147) 猶：《質疑》에는 없다.

148) 功：《質疑》에는 ‘工’으로 되어 있다.

149) 尊德性：《質疑》에는 아래에 ‘上’이 있다.

150) 意：《質疑》에는 ‘義’로 되어 있다.

又安得以前日之鑽研文義爲非而以墜此科臼爲悔？夫得魚忘筌，得兔忘蹄，可也。矜魚兔之獲，而反追咎筌蹄，以爲多事，其可乎哉？然世之徒事鑽研而不知反說約者，則不可不深有儆¹⁵¹⁾於斯言也。抑草廬既有見夫所謂昭昭者，又以不使有須臾之間斷，爲庶幾乎尊之之道，其亦然矣。而下文乃云‘於此有未能’，則問於人學於己，而必欲其至。夫其須臾之間，間斷¹⁵²⁾與否，豈他人之所能與？且既知所以學¹⁵³⁾之之道在此，一有間斷，則繼續之而已。又安得以爲未能而別有所謂學哉？是則見道固難，而體道尤難。道¹⁵⁴⁾誠未易明，而學誠不可不講。恐未可安於所見而遂以爲極至也。”【隆按：“忘筌·忘蹄之說，殆亦失言。知·行二事互相助，則豈可謂吾知已至而遂不復致意乎？當質之先覺。”】¹⁵⁵⁾

151) 儆：《質疑》에는 ‘警’으로 되어 있다.

152) 間間斷：《質疑》에는 ‘有間斷’으로 되어 있다.

153) 學：《質疑》에는 ‘尊’으로 되어 있다.

154) 道：《質疑》에는 ‘理’로 되어 있다.

155) 隆按……先覺：《質疑》에는 없다.

〈後論〉 1)

【學蓀通辨】 《易》有蓀屋之語，不見日月之屋．蓋學如蓀屋夢寐²⁾，以言通辨其昏云云而名書．

【大拍頭胡叫喚】 先生〈答李仲久書〉曰：“拍，奏樂之節拍也．頭，如詞頭·歌頭·話頭之類，謂拍之題頭也．胡，胡亂也．子靜平日，自負其學，其³⁾與人爭論，必作氣勢，高談大言，無所忌憚故云云⁴⁾．謂侈大其拍頭，胡亂其叫喚也．”

【伊蒲塞】 又〈答李仲久書〉曰：“伊蒲塞，桑門之饌．見《後漢書·楚王英傳》云云⁵⁾．”

此三條，乃〈後論〉說．

1) 後論：이 분류명은 《講錄》에는 없으나, 《質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講錄》에는 끝부분에 ‘此三條, 乃後論說’이 있다.

2) 夢寐：《質疑》에는 ‘蒙昧’로 되어 있다.

3) 其：《質疑》에는 없다.

4) 云云：《質疑》에는 ‘云’으로 되어 있다.

5) 云云：《質疑》에는 없다.

竊惟《心經》之切於學者之日用，如菽粟之宜於飽，布帛之宜於煖，不可闕者也。但先正微辭奧旨，初學有未易曉者，恒用爲懼，敬纂平日所聞之旨，以圖後日拔茅之地。李君宏仲曰：“請合吾所錄，以更稟正其是非，可乎！”咸亨欣喜，卽以是意達之敬奉旨，連纏私故，久未之脫稿，今始繕寫一通，投進焉。第緣咸亨文不足以曉意，思不能以通微，掇刪不中於所宜，多有先後錯倒，塗擦於卷上。伏惟先生同者取之，不同者去之，繁者削之，遺者補之，開示聖賢用意之微，不勝幸甚。

維時隆慶庚午春三月初十日。門人李咸亨謹再拜上于陶山先生台坐下。

一．李宏仲錄辭，稱李錄云。其文義與咸亨所錄同者，略之而不錄。是如何？

一．李錄文義，未有通暢處，頗加櫟括。是如何？

一．諸賢出處，亦切於初學講明工夫，故敢掇《一統志》·《言行錄》以補焉。是如何？

一．諸字義未詳者，考《韻會》，詳著其下。是如何？

一．李錄疑有落字處·謬字處，別附疑以稟焉。是如何？如有不安處，乞以此本下于李處，詳加訂論以更稟焉。

伏仰.